한국민속예술축제 60년 변화와 도약

2010-2019년, 그 10년의 해적이

<제목 차례>

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집적(1958-2009) ····· 3
2. 한국민속예술축제 10년의 흐름과 개요(2010-2019) ····· 7
3. 한국민속예술축제 10년 성과와 도전(제51회-제60회) ····· 12
3.1. 회차별 서술 ····· 12
3.2. 갈래별 서술 ····· 477
3.3. 압축과 의의 ····· 487
4.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10년 성과와 도전(제17회-제26회) ····· 489
4.1. 회차별 서술 ····· 489
4.2. 갈래별 서술 ····· 754
4.3. 압축과 의의 ····· 761
5. 한국민속예술축제 총괄 ····· 762
6.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 향후 전망과 도약 ····· 767

<부록>

부록 1. 주요 장면 기록과 전개: 핵심 사진과 데이터 ····· 769
부록 2. 주요 연희자 증언과 기록 ····· 770
부록 3. 주요 출품작 현황: 문화재 지정과 관리 경과 ····· 808
부록 4. 전국민속경연대회 50년 집적(1958-2009) ····· 824

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50년 집적(1958-2009)

한국 민속예술은 우리네 실생활의 일부였으며,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을 가진 것들의 연속이었다. 이를 근대문화의 관점에서 재발견·활용하면서 과거를 재생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반추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민속예술은 곧 '근대의 중세 재발견'인 셈이다.

조선일보와 같은 대중매체도 민족주의를 담은 주제를 발굴하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조선 민속의 겨루기 등을 경연대회로 만들고자 노력한바 있다. 서구화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우리 전통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시작된 이러한 노력은 민속예술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58년에는 민속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처음 개최되었다. 여기서 '전국'은 우리나라 조선팔도를 표방한 것이며, 남북의 동질성을 근간으로 하는 동시에 지역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전국의 민속예술을 한자리에 모아 경연 방식으로 큰 모임을 했기에 이를 '경연대회'로 불렀다. 큰 규모의 민속모임이 국중대회로 거듭난 것이다.

당시 볼거리가 드물고 놀이꾼과 구경꾼이 하나되는 공동체 화합의 장이 필요했으므로 이 경연대회는 보기 드문 성공을 거뒀는데,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관 주도의 행사이지만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새로운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이 전면에 생겨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 것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민속예술은 매우 소중한 준거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근 60년의 성상을 이룩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더 있다. 서구화로 인한 외래문화 범람의 상황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급격한 근대화·산업화 물결 속에서 시대가 민속예술을 부각하기에 충분한 면모를 갖췄던 것. 특히 도회지로 간 농촌 출신 이주민의 향수를 자극하고, 농사에 몰두하며 고장을 지키는 지역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등 새로운 자기 발견의 기회를 마련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50년 세월을 집적하는 작업에 큰 의의가 있다.

사실 이 대회에서 '민속'과 '민속예술'이 확정적으로 정의된 것도 아니었고, 출전팀이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고 확대하는 일 역시 명료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제1회 대회에서 마련된 지침 또는 준거, 즉 심사 기준에서 민속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각 지방에서 출품한 모든 작품이 고유의 원형을 정확히, 왜곡 없이, 그리고 자의로 변개하지 않은 채 의상, 장단, 내용 등에 보유해 왔는가
2. 기술: 이러한 작품을 실제 무대에 반영하면서 노래, 춤, 연기를 통해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는가
3. 상기 두 가지를 2대 원칙으로 정해 구성 40점, 기술 60점으로 구성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작품을 심사했다.

제시된 심사 기준을 보면 민속에 대한 막연한 요구가 있고, 구성과 기술의 내용이 서로 조화롭지 않음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고유의 원형을 왜곡하지 않는 것'과 '실제 무대에 반영하면서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에서 유래한 것을 이처럼 모순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니 적절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심사 기준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의 핵심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해당 행사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이에 입각하는 것과, 아직도 이 기준이 민속예술에서 요구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 년에 한 번 전국 각지에 산재한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를 지금까지 이어왔다. 노력을 이어온 어느 순간 매우 주목할 만한 연례행사가 되었고, 지속하고 번성해 올해 제60회째를 맞았다. 한 주기의 완성을 통해 주갑을 맞이했으니 이를 특별하게 기려야 마땅하며, 우리 것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놀이판의 신명을 재현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1958년, 민중의 삶과 생활을 담았으며 전통을 이어온 유서 깊은 민속예술을 발굴·보존해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확실한 민족문화유산으로 전승하고자 첫 대회를 개최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유산이 단절되는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적 도전에 맞서야 했다.

게다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범람하는 서양문화의 도전에 직면했다. 우리 땅 한반도에 수많은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민족 주체성 멸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대회의 취지는 민속적 색채를 띤 순수한 우리 것으로 건전한 경쟁을 펼치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적인 것이 곧 민족적인 것이고,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이 민속예술을 주제로 한 대회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첫 대회의 명칭이 바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다, 서울 육군체육관에 전국의 민속예술을 한자리에 모은 이 행사는 한국 역사상 어떠한 문화 관련 대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치러졌다.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의 주제를 '민속'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취하는 경연을 할 생각을 한 것은 이례적인 발상이자 큰 진전이었다. 민속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이러한 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은 어찌 보면 시대적인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후기 우리네 삶에서 연행된 민속예술의 핵심 분야인 민속놀이·민요·농악·민속무용·민속극 등을 문화적 환경이 달라진 시대에 무대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절실한 시대의 여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셈이었다. 이 대회를 통해 다양한 민속예술을 발굴할 수 있었고, 대중의 관심을 모았으며, 언론의 주목을 뜨겁게 받은 점에서도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제7회 행사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주로 남산야외음악당 등 여러 궁전에서 개최되었으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지에서도 개최되는 기염을 토했다. 그것은 마치 민속이 궁정의 초대를 받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행사가 열린 것은 분명 가치가 있는데, 서울에 문화적 집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진행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후 제8회 대회(1967년)가 부산 공설운동장(현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행사는 지방을 순회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대회를 바라보는 지역의 관심이 점차 커졌다. 서울에 집중되었던 민속문화터전을 지방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민속문화 측면의 시각을 마련하는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 중에서도 특히 민속문화의 지방-서울 간 차별을 없애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1962년부터는 문화재관리국 선도 하에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도가 구축되는데, 이로써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로 우선 지정되면서 대회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으며,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인식되었다.

제8회부터 제29회 대회까지는 전국 각지의 공설운동장에서 한 차례씩 대회가 열렸다. 전국 단위의

예술경연 행사인 만큼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고. 역동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연의 성격을 통해 여러 종목의 민속놀이가 연거푸 대통령상을 차지하면서 출전 종목에 자연스러운 대형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운동장(2007년 철거된 동대문운동장의 옛 이름이자 현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위치한 곳)에서 열린 제16회 대회(1975년)에서는 무려 32개 종목에 걸쳐 연인원 3,225명이 출전했다. 이때 성인 100원, 어린이 50원 등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았다는 후문이 전해졌는데, 대회가 이러한 유료화로 비화되기도 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광주 남도문화제(1982년), 충주 우륵문화제(1984년), 강릉 대현율곡선생제(1985년), 여수예술제(1991년), 공주 백제문화제(1995년) 등 각 지방의 축제와 연계해 대회를 여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1981년은 국제화를 시도한 해로 기록되는데, 당시 직할시로 승격된 인천에서 열린 제22회 대회에서 일본 민족예능국제교류협회와 인도 칼라셰트라트루프가 찬조 출연해 민속무용과 민요를 선보였다. 지역 문화축제와 세계 민속예술제와 맞물리는 기현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국의 민속예술이 세계의 문화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속예술을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 중 하나였다. 1994년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고안하고 처음 개최한 해로, 민속예술을 발굴하는 데서 나아가 보존하고 전승하는 과정에 청소년이라는 주체를 개입하는 방점을 찍은 점에 의의가 있다. 현상을 지속해서 탐구하고 수용해 자신의 삶과 문화를 일굴 수 있는 청소년을 진정한 전승 주체로 생각한 것이다. 중고등학생의 민속예술 참여를 독려하고 모든 참가팀에게 노력상(아리랑상)을 수여하는 등 청소년이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했기에 이들의 참여는 한층 더 빛을 발했다.

일반부와 분리해 개최한 제1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는 전국 15개팀이 출전하며 대회의 성과와 의의를 더했다. 1958년부터 1998년까지 여러 변화를 겪어온 이 대회는 제40회 행사부터 '한국민속예술축제'로 거듭났다. 2000년 뉴밀레니엄을 눈앞에 둔 1999년의 일이었다.

개명과 동시에 운영 방식과 심사 기준 등 행사 운영 관련 사항도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비록 첫해부터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당시 주제어였던 '열자 새천년! 빛내자 민속문화'처럼 앞으로 축제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주춧돌을 고안하고 마련한 시점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때부터 축제에 생긴 변화로는 종목당 참가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한 점, 대규모 체육관에서 중규모 야외 공연장으로 장소를 이동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참가 규정도 점차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출보다는 민속예술의 원형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매회 관련 규정이 변경되기도 했으나, 과거 경연대회에서 드러난 폐단을 막고 더 나은 방향으로 축제를 이끌어가고자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연대회의 열기를 이어가면서도 현대사의 달라진 국면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축제 반세기를 기념하는 제50회 대회(2009년)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립국악원 야외마당에서 열렸다. 대통령상을 받은 16개 시·도 및 이북5도의 대표작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다양한 초청·축하 공연을 마련해 '함께하는 놀이 문화'를 보여주고자 한 혁신적인 한 해였다. 놀이꾼과 구경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통해 발굴되거나 재현된 민속예술은 현재 700여 종목에 이른다. 그 가운데 37개 종목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

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인멸 없는 전승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고성오광대, 동래야류, 봉산탈춤, 남사당놀이 등이 그것이다.

또한 멸치후리는노래, 동래학춤,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김포통진두레놀이, 날뫼북춤 등 101개 작품이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목도 12개에 달한다. 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던 민속예술이 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도록, 나아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 회갑을 맞은 제60회 대회는 지금까지의 운영 기조를 이어가며 그간의 궤적을 반추하는 축제로 꾸려졌다. 지나온 59회 역사에서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을 받은 단체들이 서울놀이마당에 모였고, 16개 시·도 및 이북5도에서 선발된 21개 단체 1,700여 명이 신명 나는 판을 벌였다. 이어서 열린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는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9개 학교와 단체가 참여했다.

대회를 통해 우수성을 증명한 수많은 종목이 국가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제도가 함께 운용되었다. 이들은 민속예술예능인으로 인정받아 이후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대회 60회째를 기념해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까지 출전 자격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축제는 마침내 그동안 발굴된 민속예술이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이 되었다.

2. 한국민속예술축제 10년의 흐름과 개요(2010-2019)

전반적 경과

'열자 새 천년! 빛내자 민속문화'를 모토로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운영 방향을 이 기본 취지에 맞추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규종목 발굴과 함께 기존 문화재 종목도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아울러 '현지민속심사'라는 제도를 고안, 현장 속 민속을 부각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개최 장소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2010년: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10~11) / 제1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08~09)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 2011년: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08~09) / 제1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06~07)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 잔디마당
- 2012년: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13~14) / 제1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11~12)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야외무대
- 2013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05~06) / 제2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03~0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야외마당
- 2014년: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04~05) / 제21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02~03)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야외무대
- 2015년: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10~11) /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08~09)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야외마당
- 2016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15~16) /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13~14)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야외무대
- 2017년: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09.23~24) / 제2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09.21~22)
  경상남도 김해시 수릉원 일원 야외마당
- 2018년: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13~14) /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 야외무대
- 2019년: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02~03) /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03~04)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사흘간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전국에서 시·도별 경연을 거쳐 선발된 최정예 단체가 서울에 모였기 때문이다. 대회 60주년을 기념한 올해 행사에는 일반부 21개 단체, 청소년부 8개 학교 및 1개 단체가 자웅을 겨뤘다.

출전 단체를 전국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4개 팀, 강원도 1개 팀, 대전·충청 5개 팀, 전북 2개 팀, 광주·전남 4개 팀, 대구·경북 3개 팀, 부산·울산·경남 5개 팀, 제주 1개 팀, 그리고 이북5도 5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도' 팀과 김포시 '통진두레'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불참했다.

축제 기간에는 경연 외에도 다양한 공연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되었다. 한반도 전체가 화합을 이루고 대동단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개·폐막 공연, 동시대 감각에 맞게 새로 태어난 전통 예술을 선보이는 초청공연은 물론, 소리꾼의 재담으로 진행되는 얼쑤마당 등도 함께 열렸다.

축제 첫날 오전 10시,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막이 선언되었다. ‘화합과 생동’을 주제로 하는 개막 공연이 뒤이어 펼쳐졌다. 전국 17개 시·도 및 이북5도를 상징하는 무용수 22명이 등장해 가배놀이를 함께 벌였다. 뿌리패예술단 타악팀과 무용팀, 중앙대학교 연희과 학생들로 구성된 신진 세대의 역동적인 판굿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예년과 달리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제 첫날에는 일반부 14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쉬어 가는 시간이 있었으니, 바로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 30분 두 차례 진행된 ‘얼쑤마당’이다. 소리꾼 남해 옹이 경연장 한가운데 나서 맛깔스러운 재담을 펼치며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는데,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고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냈다.

오후 7시 30분 1일 차 경연이 마무리된 후에는 신명 나는 연희 판이 펼쳐졌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에서 시작해 우리나라 타악 공연의 새 지평을 연 ‘사물광대’와 줄타기 신동으로 주목받는 ‘줄광대’ 남창동이 출연해 재능을 맘껏 펼쳤다. 이날 저녁 마지막 순서는 최근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대중적으로 해석한 판소리와 민요를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는 에스닉 퓨전밴드 ‘두번째 달’이 맡았다.

일반부와 청소년부 행사가 연달아 진행되는 둘째 날에는 서로 다른 색깔의 낮 공연과 밤 공연이 마련돼어 관객 취향대로 골라볼 수 있게 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모든 참가팀 경연이 끝난 후에는 시상식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폐막 공연이 펼쳐졌다.

폐막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 두 편으로 진행되었다. 국악 뮤지컬· 넌버벌 퍼포먼스·마당놀이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연희극을 선보여 온 ‘극단 깍두기’가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위해 마술과 사물놀이, 재담이 어우러진 어린이 참여형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제60회 축제에 참가한 단체가 모여 행사의 폐막을 기념하는 합동 공연을 펼쳤다. 민속놀이부터 농악·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속예술이 한 마당을 이루는 장관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늦은 오후부터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개막되었다. 4개 팀이 경연을 마친 후에는 ‘전통음악과 타 장르의 만남’을 주제로 한 초청공연이 축제 1일 차의 대미를 장식했다. 세계를 돌며 국악기 해금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강은일 해금플러스’, 현대적 감성의 소리꾼 ‘김용우’, 전통 타악그룹 ‘슬랩(SLAP)’이 차례로 무대를 선보였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부 5개 팀의 경연 후 시상식에 앞서 폐막 공연이 열렸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해온 ‘소나기 프로젝트’가 폐막 공연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화합과 대동’을 주제로 전국풍물상설공연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전국을 누비며 전통 풍물을 알려온 8개 팀이 합동 공연을 펼쳤다. 전통연희단 난장앤판(충북 청주), 이부산설장고연구소(경기 수원), 한국전통예술단 아울(강원 정선), 사물놀이 연풍(충남 서산), 여성타악연희그룹 도리(전남 곡성), 동남풍(전북 군산), 전통예술원 놀제이(부산), 장고동락(경북 경주) 등 120여 명이 출연해 약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릴레이 공연을 펼쳐 폐막의 아쉬움을 털어버렸다. 전국적인 풍물굿이 있어서 대동단결하고 화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축제는 보고 듣고 즐기는 것만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한층 흥과 멋을 돋궜다. 올해 축제에는 경연장 뒤쪽에 늘어진 체험 부스에서 8개 단체가 직접 관람객을 맞이했다.

체험 행사는 농악·탈춤·놀이·농요 등 총 네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탈춤 종목으로는 고성오광대보존회, 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동래야류보존회,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나서 직접 탈을 만들고, 탈춤도 배워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포통진두레놀이 보존회와 강화용두레질소리보존회는 농요 마당

을 준비해 관람객이 용두레질을 직접 체험하고 벼를 수확하며 부르던 농요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사정으로 진행이 취소되었다. 민속놀이 종목에선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 보존회와 강동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존회가 길쌈놀이·짚풀 공예·상여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거리를 준비해 이목을 집중했다.

근본 취지

한국민속예술축제가 10주기를 더해 마침내 60년째로 접어들었다. 열을 하나의 주기로 본다면 새로운 나이테가 생겨난 것이며, 장차 100년을 상정하면 새로운 것이 굵게 더해진 결과이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전환점은 앞선 반세기에 있었다. 전국민속경연대회의 근본은 잇되, '경연대회'라는 울타리와 담는 그릇의 형태를 바꾸면서 한국민속예술축제로 거듭났다. 경연대회에서 축제로 발전적 승계를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

더욱더 새로운 점은 현지 민속예술축제를 존중하고 각 지방의 민속예술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현지민속심사 대상 종목 신설을 축제의 방편으로 고안한 것이다. 이 심사의 설정이 '근본적인 것'이라 더욱 돋보였으며, 50년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특별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경연대회의 성격에서 벗어나 민속예술축제를 고안한 것이므로 놀이의 성격을 강화하는 근본적 성찰을 하게 된 점, 현지 민속을 창달하고 동시에 이를 한자리에 모아 실현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하겠다.

다만 '과연 이 축제의 목적이 달성되었는가'의 문제는 후속 대회에서 나타날 양상과 변화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축제의 근본 취지는 무색해지지 않았으나, 현지민속 전문가와 민속예술 실행자가 긴밀하게 연대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으며, 행정과 기획, 그리고 연행 실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절감한다. 노력에 견주어 성과가 미흡한 대목이 없지 않고, 기획에 들인 노력에 비해 실행이 뒤따르지 않았던 감도 없지 않다.

민속예술은 전통문화 보존에서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며 전통문화라는 꽃을 장식하는 '정체성'이므로, 축제를 통해 알찬 결실을 보아야 하는 주체이자 민속예술을 통해 우리 민속문화와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민속예술로 미래를 설계하고 창달하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래, 놀이, 굿, 춤 등을 핵심으로 하는 민속예술의 전형성 창조야말로 이 축제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 요소이기 때문이다.

민속예술의 방향을 상정하는 측면에서 이 축제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통해 민속세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민속예술로 동질감 확장과 세대갈등 해결이라는 조화로운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우리가 하나임을 잃지 않는 정체성과 연속성 유지 여부는 차후 개최될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위해 민속예술이라는 종목을 선택해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업이다.

정해진 기간에 전국의 민속예술을 집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우리 민속의 호한함을 단박에 알게 되는 것은 생애 잊지 못할 중요한 사건이 된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하나의 공간에서 시간을 넘나드는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한 체험을 행정력과 경제력을 동원해 하나의 문으로 귀일케 하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이어야 마땅하다. 또한 전국을 다 돌지 않아도 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민속예술의 신명을 맛볼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하는 것 역시 지속해야 한다.

민속예술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더는 민속예술일 수 없다. 현대 한국문화 속 확고한 위치에서 존속·공유·향유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창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의 원리를 민속예술에서 찾고,

축제의 모든 갈래가 현대인과 소통하고 있음을 일깨우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역사가 바로 민족 구성원에 대한 원동력과 창조력의 한 축이며, 전통문화의 발상지가 바로 한국민속예술축제임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갈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갈래 또는 종목 설정이 필요하다. 외적 범주로 부여되는 갈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품작을 보면 어느 정도 외연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정립하는 것이 축제의 긴요한 과업 중 하나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의 범주를 정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갈래는 점진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대상이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갈래는 가면극, 농악, 민요, 무용, 민속놀이, 의례로 설정할 수 있다. 근본 이치는 동일하나, 분류와 간별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출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현상의 실제 운용에 주목하고, 이들의 가치를 드높이는 견해가 필요하다. 민속예술이 살아 있음을 이러한 영역과 종목을 묶는 갈래 속에서 구현해야 마땅하다.

가면극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더 이상의 신규 발굴이 없을 전망이나, 차후 활용 가능성과 유용성이 가장 높은 갈래 중 하나다. 반세기 동안 축제 전개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장벽을 허물고 현재 상태에 충실하게 고안하고 창출한다면 가장 신명 나게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가면극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은 고착된 눈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념을 탈피해야만 한다.

농악

‘현재 진행형’이며, 아마도 가장 뜨거운 열기와 민족적인 아우성을 품은 갈래 중 하나일 것이다. 여전히 창조와 계승의 힘이 있으며, 새로운 종목 발굴이 어려워도 존재 그 자체로 신명을 함의하는 놀라운 창조력의 산물이 바로 농악이다. 또한 한국인이 가진 아우라를 보여줄 수 있으며, 그러한 힘의 원천인 창조력을 점검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바로 농악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요

한국의 기층음악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다. 연행자들의 기억 속에 잠재된 것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를 위한 창조를 한다는 점에서 더는 죽은 갈래일 수 없다. 우리의 신명과 정조를 바탕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지어내는 위대한 힘이 바로 민요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창조력의 온상이 되어야 마땅하고, 아랫세대에서도 절대 단절되지 않아야 할 종목이기도 하다. 또한 창조의 원동력을 간직하므로 전승과 지속의 범형으로 삼을 만하다.

무용

전통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이른다. 춤만큼 우리의 모든 신명을 집약하고 있는 대상을 찾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나온다. 춤이 전통적인 판에 잠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찾는 작업을 지속해서 벌여왔으며, 무용의 미래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점도 인정된다. 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영역과 대상을 넓히면 무용은 미래의 자산이 될 전망이다. 춤을 고안하고 착안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무용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민속놀이

한때 세시절기의 꽃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민속놀이의 영역이 광범하고, 놀이의 주체와 양상으로 많은 것을 발굴할 수 있다. 아직 민속놀이에 대한 모색이 지속적이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새롭게 발굴하고 착안한다면 우리축제에 알맞은 또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속놀이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이 새롭게 시도되어야 마땅하다.

의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으나 농악, 무악, 유교제례, 불교의례 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의례가 우리 이면에 잠재된 신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언제든 개방되어 있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축제의 근간을 이룩할 수 있고, 신성하며 세속적인 모습을 모두 가진 인간의 본원을 탐색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의례임을 인정하게 된다.

위와 같이 갈래 또는 부문을 정리했으나, 어느 정도 원칙적인 기준에서 만든 지침 정도로 보면 되겠다. 실제로 축제에서 나타난 면면을 살펴보면, 부문 또는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문을 넘어 실제 민속 도구나 실생활 속 현상을 소재로 삼는 경우도 있으며, 민속예술이 중심에 있지만 복합적인 면모를 보이거나, 민속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작품이 민속예술에 포함되어 출품된 적도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외연을 통해 범주의 단일성을 말하는 것은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복합적 성격이 실재함을 주시하고, 단일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실상을 어긋나게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즉 대상의 단일하고 복합적인 면모 모두 소중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실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민속예술의 갈래를 신축성 있게 원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민속예술축제 10년 성과와 도전(제51회-제60회)

3.1. 회차별 서술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0.10.08~10.11,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1. 개괄

전국민속경연대회로 시작한 한국민속예술축제 50년 세월을 돌이켜 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지면서 근본적인 전환을 꾀했다. 또한 종래의 전통적 민속예술경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속의 현재적 의미를 현장에서 재발견하고, 모든 이가 함께 축제의 현장에 동참한다는 설계 아래 행사를 열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이러한 야심 찬 노력이 실제로 구현되는 성과를 얻고, 현지민속심사 제도와 개최 시군의 현장 경연대회가 가진 성격을 이중으로 실현한 결과물이었다.

제51회 축제는 2010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현장의 민속은 현장의 맥락을 중시하고 그 맥락 속에서만 의미가 존재하는 갈래를 도입, 민속예술이 가진 의의를 살리고 각인하자는 취지로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그것은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모험과 시도를 한 결과였다.

전통적인 경연대회의 의미를 고취하는 현장에서 경연이 이어졌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에는 모두 21개 단체가, 청소년민속예술제 경연에는 15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서로 경연대회 본연의 모습으로 기량을 겨뤘다. 그렇게 이후 민속예술 갈래별 시상이 있었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신규 종목이 발굴·평가되었다.

'마을 공동체에 의한 진행'이라는 형식 안에서 노동의 공간을 민속예술로 승화하는 특성을 고안한 현장의 노동요, 정태적 공간이 필요한 구전설화, 넓은 무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민속놀이 등을 발굴하면서 근본적인 전환을 꾀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양양의 '상복골 논농사 노동요', 충청남도 공주의 '마루뜰 칠석제', 전라남도 나주의 '나종삼 구전설화', 인천의 '곱새불림' 등이 민속학자 추천으로 선정되어 현지심사를 받았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주최·주관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사무국을 일신한 것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를 병행해 축제의 의미를 살리는 제도적 장치의 고안도 이루어졌다. 본행사와는 별도로 부대행사로써 홍보의 기능을 겸한 앞의 놀이와 여러 개최 지역을 두루 탐방하는 돌돌이 형태의 놀이를 벌이는 등 축제 본연의 성격을 잘 보여준 대회이기도 했다.

2. 참가 종목

● 강원도 / 양양군수동골상여소리 / 입압리민속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대통령(최우수)

상금 10,00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화상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입암리, 지경리, 상월천리, 하월천리, 임호정리, 원포리 등 6개 마을에서 전승되어 온 상여소리다. ‘수동골’이라는 지명은 없었지만, 여러 마을이 연합해 팀을 꾸리면서 물 수[水]자와 마을 동[洞]자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상두계인 밀양두에서 장례를 치르며 상여소리를 불렀는데, 특히 수동골 상여소리는 호상과 악상을 고려해서 선드래놀이를 하는 아량이 있다. 그리고 장례절차마다 망자의 명복을 빌고 내세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부른다.

선소리꾼의 메김소리를 받은 상두꾼들이 뒷소리를 부른다. 이 노래는 ‘드장날 밤' 망자가 곧 집을 떠나게 될 것을 아뢰는 초초소리를 시작으로, 짐을 신는다고 고하는 이초소리, 짐을 싣고 떠날 준비가 끝났다고 고하는 삼초소리, 상여를 메고 상주들과 집 앞에서 인사를 하는 하직소리, 외나무다리 건너기, 끊어진 다리 건너기, 회와 흙을 혼합하는 회다지는소리, 봉분을 다지는 달구지소리로 이어진다.

수동골은 산과 언덕길의 좁은 다리, 끊어진 다리 등 험한 지형을 지나야 하는 강원도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작품에서 모두 재현했다.

1. 느린하직소리

(받는소리) 나머 위 타불
(메기는소리) 찾아가세 찾아가세 천하명산을 찾아를 가세

2. 하직소리

(받는소리) 나모 우여
(메기는소리) 이 사당에 하직하고 후사당에 재배하여
하직이로구나 하직이야 인간하직이 망극하다

3. 운상하는소리

(받는소리) 어허 어어어허 어거리 넘차 어호
(메기는소리) 하늘 천에야 흐르는 물은 어느 내로나 흘러를 가고
우리네 인생이 가면은 다시 오기가 어렵도다
여보시오 청춘들아 이내 말씀을 들어를 보소
자손을 나서야 길러를 보니 부모 은공을 모를손가
부모야 은공을 갚자고 하니 어연간에 백발이로다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고 곱던 얼굴이 주름이 잡혀
귀는 먹어서 절벽이 되고 각시같이도 좋은 이가
허물며 우리네 인생 늙어서야 죽어를 지니
어정장터 공동묘지 북망산천을 찾아를 가네
원수 백발이 잠꽌이네 젊었을 적에나 봉양하소
어제 나절에 성턴 몸이 오날 나절에 병이나 들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이나 냉수로다
인삼에 녹용에 약을 쓴들 약효험이나 있을손가
부처님전에 발원을 하고 칠성님전에 공양한들(후략)

4. 느린달회소리

(받는소리) 에헤호 달회여
(메기는소리)

5. 자진달회소리

(받는소리) 아헤 달회야
(메기는소리)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이나 춘삼월에 너는 다시 피련마는
우리네 인생 한번가면 다시 오기가 어렵도다
북망산천 찾어갈제 어찌갈꼬 험한 험로
어찌 다시야 돌아오랴 이세상을 하직하니
숨도 차고 목도 마르고 이만저만 그만두세

6. 느린달구소리

(받는소리) 에호 달구여
(메기는소리) 여러분에 일심받아서 만년집을 지어보세
달구질소리가 드높으면은야 이산 명기가 돌아온다

7. 자진달구소리

(받는소리) 아허 달구야
(메기는소리) 여보시오 청춘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 청춘 오날 백발 그 아니도 가련한가
삼각산 제일봉에 봉학이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 물은 원앙이 앉아 춤을 추고
달구질소리가 흥이나서 엉덩춤이 절로나네
대궐같은 내집을 두고 두꺼비같은 새끼를 두고
깊은 산중 외딴곳에 낙락장송을 울타리삼아
두견새를야 벗을 삼아 외로이 누웠으니
청량하기가 그지없다 목도 마르고 숨도차고
이만저만 그만두세

양양군수동골상여소리는 강원도의 험한 지형지물을 모두 재현하면서 고난도 상여 운상을 보여줬으며, 힘있는 상여소리와 흥겨운 회다지 동작 등 고졸한 민속을 잘 보여주어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 제주특별자치도 / 질뚜림소리 / 입압리민속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질뚜림소리는 제주도에서 옹기를 만들며 부르던 민요다. 대정읍민속보존회에서는 흙을 때리고 반죽할 때 부르던 질뚜림소리를 중심으로 흙을 팔 때 부르는 흙 속끄는 소리, 흙을 운반하면서 부르는 산태질 소리 등 옹기를 제작할 때 부르던 질 드리는 소리를 모아 재현했다.

제주도 토양의 대부분을 이루는 화산회토는 찰기가 없고, 푸석하며,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암석 대부분은 구멍이 많은 현무암이다. 비가 오면 땅이 부풀어 오르고, 많은 유기물이 유실되며, 물은 고이지 않고 지하로 빠진 후 해안에서 용출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릇을 만드는 데 적당한 물과 점력을 가진 흙이 귀했기 때문에 가마에서 그릇이나 기와를 생산하는 일은 내륙지방과 달리 쉽지 않았다.
제주도의 옹기는 대정읍 구억리, 신평리, 무릉리와 한경면 고산리, 애월읍 광령리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대정읍 구억리 일대에서 고온 옹기(일명 노랑그릇)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제주 전역에 보급되었는데, 특히 대정읍 신평리에서는 예전에 옹기가 많이 생산되었다. 이 마을에는 '노란굴', '검은굴' 등 아홉 개의 가마가 있었다. 질뚜림소리는 옹기 생산이 활발했던 신평리에서 주로 불렸다.
질뚜림소리는 옹기를 만들기 전 흙을 손질해 불순물, 돌멩이 잡티를 골라내는 과정, 물을 뿌려가며 반죽하고 흙을 뒤집는 과정, 메질을 해 잡티를 남김없이 골라내는 이른바 '흙을 이기는 과정'의 세 마당으로 구성된다.

제주도에서 옹기를 만드는 독특한 문화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한 것으로, 민요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여러 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황해도 / 서도선소리산타령 / 서도산타령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서도선소리산타령은 서도입창을 말하며, 놀량사거리,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 등으로 구성된다. 사당패라고 불리던 유랑예인집단의 공연 종목이었으며, 여러 사당이 소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 장구를 맨 모갑이가 반주하는 형태로 공연을 했다.

1. 놀량사거리

에라디여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녹양[錄楊]에 벋은 길로 북향산[北香山] 쑥 들어도 간다 에헤에헤이에 -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춘수[春水]는 낙락[落落] 기러기 나니 훨훨 낙락장송이 와자지끈 딱 부러졌다. 마들가지 남아 지화자자 좋을씨구나, 지화자자 좋을씨구나 얼씨구나 좋다 말 들어도 보아라

인간을 하직[下直]하고 청산[靑山]을 쑥 들어도 간다. 에헤에헤이에-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황혼 아니 거리검쳐 잡고 성황당 숭벅궁새 한 마리 낙에 앉고, 또 한 마리 땅에 앉아 네가 어디메로 가자느냐, 네가 어디메로 가자느냐, 네가 어디메로 가자느냐. 이 산 넘어가도 거리숭벅궁새야, 저 산 넘어가도 거리숭벅궁새야, 에-

어린 양자[糧資] 고운 태도, 눈에 암암[暗暗]하고 귀에 쟁쟁(쟁쟁).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니로구나, 소원성취로 비나니로구나. 에- 나 헤 요홀 네로구나.

2. 앞산타령

나네노 니하나 에헤에 에헤에 노오 나에게 헤에요 산하지로구나

천 관악산[冠岳山] 염불암[念佛庵]은 연주대[戀主臺]요 도봉불성[道峯佛性] 삼막[三幕]으로 에헤 둘렀다.

에헤 에헤로 지히 이히이 지로구나 말을 네야 나아헤에로 산이로구나

3. 뒷산타령

나지아 산이로구나 에- 두견아 에- 어허야 지구에- 에도 산이로구나.

여초목[與草木]이 동남풍에 거리숭벅궁 우는 소리 장부[丈夫] 요내 열촌의 간장을 다 녹여 낸다

나뭇잎만 똑똑똑 떨어져도 한병[漢兵]인가 의심하고 새만 좌르르르 날아들어도 자룡[子龍]의 삼지창[三枝槍]만 여겨 의심한다

갈까 보다 말까 보다 임을 따라 갈까 보다 자룡이 월강[越江]하던 청총마[靑총馬] 비껴 타고 이내 일

신[一身]이라도 한양을 따라갈까나

에라 놓아라 나 못 놓겠구나 에라 놓아라 나 못 놓겠네 엄지 장[長]가락이 다물어 빠지고 새끼손가락이 삼동에 나는 데 에- 어머니 아시면 매맞겠네 짜장 깊은 정을 생각하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놓겠다

4. 경발림(景四거리)

중원지변방[中原之邊方]이요 일세[日勢]는 요란한데 삼산반락[三山半落]에 청천외[靑天外]요 이수중분[二水中分]에 백로주[白鷺洲]란다

어디로 가자고 날만 졸라 어디로 가자고 지그렁직신 날만 조리조리 졸졸이 따라 안성[安城]에 청룡[靑龍] 가잔다

수락산[水落山] 폭포수[瀑布水]요 둥구재며 만리재라 약잠재며 누에 머리 용산[龍山]삼개로 에라 다 둘렀단다

연산[蓮山]의 김 덕선[金德善]이 수원의 북문[北門]지어 나라의 공신[功臣]되어 수성옥이 와류감투 꽉 눌러 쓰고 어주[御酒] 삼배[三盃] 마신 후에 앞에는 모 흥갑[牟興甲]이 권 삼득[權三得]이 송 홍록[宋興祿]에 신 만엽[申萬葉]으로 쌍화동[雙花童]세고 어전[御前] 풍악을 꽝꽝 치면서 장안[長安] 대로상으로 가진 신래[新來]만 청한다.

선소리산타령은 서도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이다. 사당패의 공연물이었다는 점에서 민속의 성격은 약하지만 음악적인 난이도가 높아 전승이 쉽지 않은 종목이다. 지금은 접하기 어려운 서도 문화로,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이러한 문화의 전승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대구광역시 / 달성다사12차진굿 / 달성다사12차진굿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충남도지사(은상)
상금 4,000

달성다사12차진굿은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대에서 연행해 오던 당산제와 빗신제 및 마을 풍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일제의 억압 속에 세천 농악의 기세가 위축되었지만, 당산제가 지속해왔기 때문에 전승이 단절되지는 않았다. 이때부터 세천의 농악은 '다사농악'으로 불리며 달성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전통문화로 자리잡았다.

해방 이후 제4대 상쇠 배기순(1931~2009)은 소년 농악대를 결성해 운영했는데, 6·25 전쟁으로 소멸 후 1962년 5·16 기념행사로 개최된 면 단위 동별 농악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1970년대까지 다사농악은 전국 순회공연을 하며 전성시대를 맞았지만 1980년대 들어서 다시 침체를 겪게 된다. 1986년 재결성된 다사농악대는 달성군 충효제 농악 경연대회에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회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시기에 다른 지역 풍물패와 교류를 확대하면서 가락이나 판의 짜임새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달성다사12차진굿은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는 신성굿으로 소임을 다했다. 이 농악은 김매기를 하는 농사굿이면서 신명풀이 현장을 이끌어간 연희굿이자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축원굿으로, 지역의 문화가 잘 갈무리되어 있다.

달상다사12차진굿은 징의 타점이 아닌 매구 가락에 기준으로 한 '채'로 장단과 가락을 구분 짓는 경상도 농악의 전형을 갖는다. 특히 진법만 놓고 보면 절차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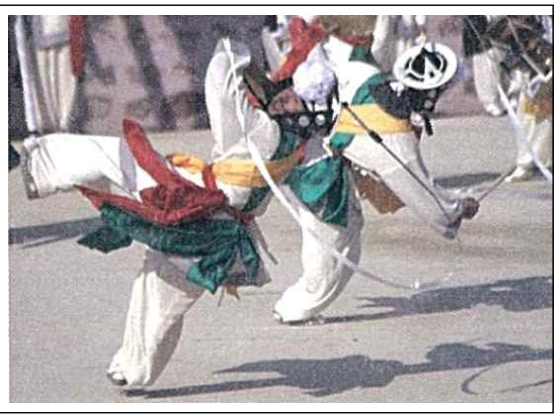
달성다사12차진굿은 경상도 특유의 모의 군사굿이 잘 표현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박력 있고 힘찬 기운이 느껴진다. 가락은 즉흥적이지 않고, '마치굿가락'이라 해 진법의 구성이나 동작으로 마치 수가 정해진다. 따라서 가락을 순서 있게 풀어 치면서 이끌어 간다.

달성다사농악은 집합굿, 먼길굿, 질굿, 군악길굿, 소지굿, 두마치, 자진 살풀이, 덧뵈기, 진오방진굿, 순령굿, 외덧뵈기, 팔괘진 좌우치기, 사치기 태극진풀이, 초랭이 짝짓기(전령굿), 드드래기(사치기 인사굿), 연풍굿, 마당밟기, 사토오방진굿, 품앗이 사토오방진풀이, 미지기, 놀이마당, 싸움굿, 칭칭이굿, 품앗이 행진 가락 순으로 연행한다.

달성다사농악12차진굿의 또 다른 특성은 다른 지방 농악과는 다르게 12차 36진법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 오직 진법으로만 구분을 짓는 것이다.

달성다사농악12차진굿은 싸움굿 또는 군사굿의 면모가 연행 과정의 명칭에서나 진풀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산제에서 진굿이 비롯된 유래가 전해지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싸움굿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진굿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앞으로의 전승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부산광역시 / 동래지신밟기 / 부산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충남도지사(은상)
상금 4,000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인 동래지신밟기는 동래구 온천동에서 정월 초부터 보름까지 연행되는 민속놀이다. 지신밟기는 예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주로 정초에 행하던 것으로, 지역마다 그 규모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을 토대로 한 마을굿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동래지신밟기는 성읍국가시대 동래지방에 거칠산국이 성립되고 나서부터 연행되던 축원 농악무에서 발전했다. 현재 연행되고 있는 형태는 새로운 예능이 발흥하던 조선 후기에 양반의 타락상을 풍자한 내용을 저변에 깔면서 전해 오던 지신밟기에 좀 더 재미있는 극적 상황을 설정해 놀이화한 결과물이다.

동래지역에서 '걸립' 또는 '지신밟기한다', '덕뵈기친다' 등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 이른바 제의적 성격의 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마을과 가정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벽사초복[辟邪招福]과 안택축원[安宅祝願]의 뜻이 담겨있다.

음력 섣달 중에 악기, 의상, 도구 등을 준비하고, 이듬해 정월 초 2, 3일경부터 시작해 대보름 전에 마친다. 등장인물은 기수, 사대부, 팔대부, 김생원 내외, 촌로, 촌녀, 포수, 하동, 각시(탈을 씀), 큰어미, 꼴머슴 등이며,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호적 등의 악기를 사용한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산 지신풀이
주산신께 지신밟기함을 고하여 신력을 얻는 굿이다.

2. 당산 지신밟기
주산에 이어 풍물잡이들이 잦은몰이 장단을 울리면 잡색들은 허튼춤을 추며 당산풀이를 한다.

3. 우물 지신풀이
마을의 공동우물에 가서 지신을 푼다.

4. 가정집 지신풀이
우물 지신풀이를 마치고 "×선생댁으로 갑시다." 하며 그곳으로 향한다. 맨 먼저 마당풀이로 시작해, 대청놀이, 큰방·성주풀이, 각방 치장풀이, 조왕·샘·장독·도장(곳간)·마구간·뒷간·삽짝 지신풀이를 하고 주신[酒神]풀이로 마친다.

동래지신밟기는 마을과 각 가정의 안녕 및 풍농을 기원하고 재액을 쫓는 의례적 성격을 보이며. 단순한 놀이를 넘어 마을의 정초 분위기를 쇄신해 축제 분위기로 전환하는 일정한 기능을 가진 대동놀이다.

동래지신밟기의 특징은 복식에서도 나타난다. 일반 농악대가 착용하는 채복(彩服) 대신 주로 바지와 저고리에다 쾌자 또는 두루마기를 입으며, 채복 띠를 두르지 않고 머리에는 농악대의 전립 대신 고깔을 쓰는데, 이는 한량의 풍채를 본뜬 것이다.

풍물놀이나 버꾸놀이(법고놀이)보다는 춤을 위주로 한다. 1970년 12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 경상남도 / 김해석전놀이 / 김해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충남도지사(은상)
상금 4,000

개천이나 넓은 가로[街路] 등의 지형을 경계 삼아 수백 보 거리를 두고 일대의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편을 갈라 서로 돌을 던져 누가어느 편이 먼저 쫓겨 달아나느냐에 따라 승부(勝負)를 가리는 전통사회의 집단놀이다. 돌을 던지는 놀이라는 의미로 '석전놀이' 또는 '돌팔매놀이'로도 불린다. 이렇게 서로 돌을 던지는 모의 전투경기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특히 많은 사례가 나타나는 곳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이들 지역의 석전놀이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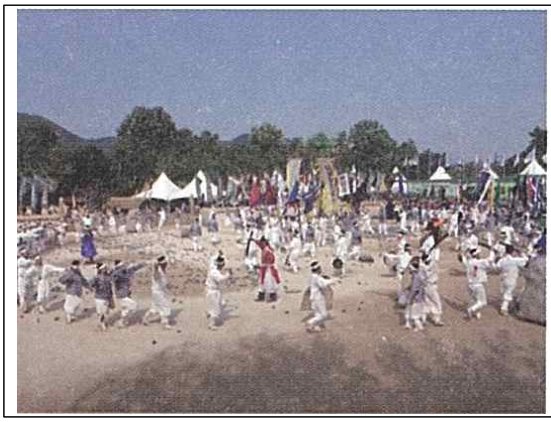
한국의 석전놀이는 편전[便戰], 석편전[石便戰], 변전[邊戰], 척석희[擲石戲] 등으로 불려왔다. 그 역사가 오래되어 7세기에 발행된 중국의 역사서 《수서[隋書]》의 〈고려전〉에도 나타난다.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서는 매년 대동강을 사이에 끼고 사람들이 서로 돌을 던졌는데, 그것을 왕이 관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석전놀이가 이미 7세기 이전부터 고구려의 정월대보름 행사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에 석투당[石投幢]이라는 돌팔매질하는 군대가 조직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해지방에서는 해마다 4월 초파일과 5월 단옷날에 석전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풍속에 따르면, "매년 음력 4월 초파일 경부터 어린 아이들이 떼로 모여 성[城] 남쪽에서 좌우로 편을 갈라 석전놀이를 한다. 그러다 5월 단오가 되면 젊은 장정들이 어울려 모여 좌우로 편을 갈라 깃발을 세워 북을 치며 고함을 지르고 사납게 날뛰면서 돌팔매질을 하는데, 마치 돌비[石雨]가 오는 것 같다. 비록 사상자가 나더라도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싸워 수령도 이를 금지시킬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석전놀이는 5월 단옷날에 그 절정을 이뤘다."고 한다.

석전놀이는 돌팔매질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육박전을 벌이면서 몽둥이로 서로 때려 사람이 죽고 상하는 까닭에 때로는 금지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석전놀이는 계속되었는데, 정월에 서울에서 행해진 대규모 석전에서는 이를 금하려고 한 순사와 놀이를 하던 사람들 간에 몸싸움이 붙기도 했다. 광복 이후에는 마을 간 젊은 장정들이 위세를 겨루던 석전놀이를 더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렇게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간 전통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과 연동해 석전놀이는 모의 전투 형식으로 재탄생했다.

김해석전놀이는 동서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한가운데에 하천을 두고 각각 좌부와 우부로 편을 나누고, 중앙에는 하천을 두고 좌편대 120~240여 명이 종대로 농악에 맞춰 입장한 후 돌덩이 대신 모래주머니나 돌 모양의 압축스펀지로 전투하는 전통민속놀이다.

석전놀이는 용맹스러운 우리 민족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유래 깊은 한국 고유의 집단놀이다. 전쟁 등 유사시에는 석전꾼들이 동원되어 큰 활약을 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놀이를 통해 우환을 떨칠 수 있었으며,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그리고 질병이 없기를 기원했다.





● 경기도 / 화성마도농악 / 한국농악보존협회 수원·화성지회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화성마도농악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일대에 전승되는 농악이다. 경기도 웃다리농악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여러 농악과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은 바다가 가까운면서도 너른 들판이 있어 농업과 어업이 고루 발달한 지역이다. 여기에 농악, 도당굿 등 다양한 민속문화가 존재하면서 예전부터 인근 지역 농악단에게 기세배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고 한다.

화성 지역에는 여러 마을에 전승되던 다양한 농악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화성문화원과 화성농악보존회가 협력해 2004년부터 화성마도농악을 발굴한 것이다. 당시 화성마도농악의 전승을 책임진 인물로는 허성기(쇠), 이부선(장구) 옹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고증과 지도를 통해 화성마도농악의 원형이 확인되었다.

웃다리가락, 쩍쩍이굿, 십자진, 오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도농악의 가락은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이 고루 나타는데, 이러한 특징을 화성마도농악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웃다리농악의 특징인 웃놀음, 즉 상모놀이가 발달한 것은 물론, 아랫놀음까지 골고루 발달해 기예적 우수성이 확인된다. 진풀이에는 경기웃다리농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돌림벅구, 당산벌림, 칠채오방진, 사통백이, 쩍쩍이, 좌우치기, 마당일채 등이 사용된다. 여기에 꺾어춤, 십자거리, 무동놀이 등 화성마도농악 고유의 진풀이도 추가되었다.



● 서울특별시 / 마들농요 / 마들농요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3,000

마들농요는 지금의 서울 노원구 지역에 해당하는 마들 일대에 전승되는 농요를 가리킨다. 마들은 모내기할 때 쓰인 볍씨만도 800석이 넘었던 큰 들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상계동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다. '마들'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상계동에 역참기지가 있어 말을 들에 놓아 키웠기 때문에 생겼다는 설이 있고, 상계동 일대에 삼밭이 많아 삼밭의 순우리말인 마들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마들농요는 경기도 지역 농요를 본바탕으로 강원도 지역 농요의 영향을 일부 받아 형성된 소리다.

전승되는 농요에는 아침소리, 모심기소리(열소리), 상사소리(넬넬넬 상사도야), 애벌맬때소리(에 두루차 하 에헤에와), 점심소리, 방아타령, 두벌맬적소리(미나리), 새쫓는소리(우야라 훨훨), 저녁노래(둥기야 당실-꺾음조)가 있다. 미나리는 본시 논보다 밭이 많은 강원도에서 모심을 때 또는 발을 매면서 부르던 소리인데, 경기도 포천군에서 논맬 때 소리로 전환되고, 그것이 의정부 길을 따라 마들로 전파되면서 가락, 가사, 가창 방법 등에 지방 정서가 가미되어 색다른 풍의 민요로 바뀌었다. 이중 두루차소리와 꺾음조는 마들농요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곡이다.

1. 아침노래

둘러주소 둘러주소 이 논돔배를 둘러주소
이논돔배를 돌려주면 준치자반 주신다네
줌치자반 아니먹은 신계복산 중이살랴
신계복산 중이라도 소승적엔 먹었다네
준치자반 아니먹은 전지미륵 살만쪘네
전지미륵 살찐 것은 석수손에 달렸다네

2. 모심기 - 열소리

하나로다 둘이요호 둘이라 셋
어 셋 셋이로구나 셋이-라 넷
너이로구나 하-네잇이요 호 넷이며 헌 다섯
다섯이라 여섯이요 여서 헛 일곱
일곱이냐 일고흡 곱이면 여덟
여덜여덜 여덟이힌데 여덟
아홉아홉아 호오읍 아흡입이면 열
열 하니 하ㅡ한나 한나 하나
하나 둘이로구나-둘이며-셋

3. 논두렁밟기 - 상사도야소리

(받는소리) 넬넬넬 상사도야
(메기는소리) 무엇이 그리워 상사나었나
삼십먹은 노처녀가 시집을 못가 상사났나
사십먹은 노총각이 장개를 못가서 상사의 났나
여보아라 소년들아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어제 청춘 오날 백발 그 아니 가련한가
슬프도다 우리부모 슬픈 것을 모르느냐

서산에 지는 해는　　누루하여 금지하나
광대에 일등미색　　네가 곱다고 자랑 마라
창해유수 흐르는 물은　　다시오기 어렵더라
이 노래 그만두고　　또 다른 노래를 불러보세

4. 애벌매기 - 두루차소리

호미로 지심을 매면서 두루차소리를 3회 반복해 메기고 받는다.

이나마 갈꺼랴 에 헤이하
　　에 두루차 하- 에헤에와
이 논매기가 힘이 들어
　　에 두 나 어허- 어화 화에
간다네 네-에화
　　어두루차 어허 어화

5. 점심노래

점심땐지 연심땐지 요내가슴 쓸쓸하오
샛별같은 점심꼬리 반달같이 떠오른다
일러주소 일러주소 점심터나 일러주소
나무다리 돌다리 건너 느티잣티
나무밑이 점심터시 (2회 반복)

6. 점심뒤풀이(방아타령)

(받는소리)　에헤히 오호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가 난실 네로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소
(메기는소리)　에헤이 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고나
　　몽금에 포구가 좋다고 하여도 정든 님 없으면 적막강산
　　에헤이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백두산 명물은 들쭉 열매인데 압록강 구비구비 이철리 흐르네
　　에헤이 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너허는 죽어서 화남에 모란이 되고요 나는 죽어서 범나비 되잔다

7. 두벌매기 - 미나리

두벌매기는 손으로 논을 훔친다. 아침, 점심, 저녁때의 노래 가사가 다르며, 선입 후제창 방식으로 부른다. 논을 다 매어 갈 무렵이면 춤을 추면서 신명 나는 꺾음조를 제창한다.

(받는소리)　이예이예이에 이이예
(메기는소리)　이슬아침 나오시라고 모시이에 이처마 다젖었네
　　모시처마 다 젖었거던 거덤 거덤 걷어안고
　　영광정에 줄을 매고 동남풍에 말려주소

8. 새쫓는소리 - 우야소리

(받는소리)　우후야라 훨훨
(메기는소리)　우야소리 새 모여 든다
　　아랫녁 새두 날아오고　　웃녘 새도 날아오네
　　높이 떳구나 종달새며　　낮이 떳구나 굴뚝새며
　　말 잘하는 앵무새야　　춤 잘 추는 학 두루미

몸채 좋은 공작새야　　우야소리 새 모여 든다
우야우야

9. 뒤풀이 - 저녁노래

(받는소리)　에헤 둥기야당실 둥기야당실 모두다라 두어당실
(메기는소리)　다 던져버리고 말이 무엇해 네가 네로구나
여이다지히일네 여다질네 동대문을 여다질네
동대문을 열구보니 팔만장안이 꽃밭일세
꽃밭 속에 말을 타니 말굽 안에서 상내나네
말굽 안에서 상내나면 요내 몸에서 몸상내나네
마들노래를 불러보세 넓은 들이 갈월들이라
앞을 보니 도봉산이요 뒤를 보니 수락산이라
도봉산을 올라보니 망월사가 절경일세
동대문을 열구보니 팔만 장안이 꽃밭일세

서울특별시는 제51회 일반부에 마들농요를 출품한 이후 제59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과 같은 환경에서 농요가 전승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도시로 변모한 지역에서 농요를 구성해 출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며, 도시의 유일무이한 농요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들농요는 이번 대회에서 국립민속박물관장인 동상을 수상했다.



● 대전광역시 /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 대전동구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는 천연두나 홍역 같은 돌림병이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해 마을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고 일부 청년들이 합세해 이웃 마을에서 훔쳐 온 디딜방아를 가지고 여러 목적으로 뱅이를 하던 풍습이다. 디딜방아를 마을 어귀에 거꾸로 세워 놓고 월경혈이 묻은 속곳을 걸어 놓은 후 팥죽도 뿌리고 풍장을 울리며 부녀자들이 제사를 올린다. 돌림병을 막기 위한 뱅이가 전국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정초의 마을 액막이나 하지가 지난 뒤 기우제 목적으로도 디딜방아뱅이를 했다.

뱅이는 돌림병의 전염을 차단한다는 주술적 방법이다. 이 액막이 의례는 195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행해졌다. 부녀자들은 우선 어느 마을에서 디딜방아를 훔쳐 올 것인지 논의한다. 인근 어느 마을에 크고 좋은 디딜방아가 있는지, 어느 마을의 것을 비교적 쉽게 훔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간혹 마을의 여러 일을 단골처럼 봐주는 무당이 있으면 그에게 무꾸리를 한다. 무당은 언제 어느 방위의 마을에서 훔쳐 와야 효험이 있다는 충고를 하기도 한다. 그다음은 누가 훔치러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기운이 센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남정네들이 일부 포함되기도 한다. '공주말'은 삼괴동 마을이 대전천을 경계로 건너편이 공주 관할에 속해 있던 것에서 유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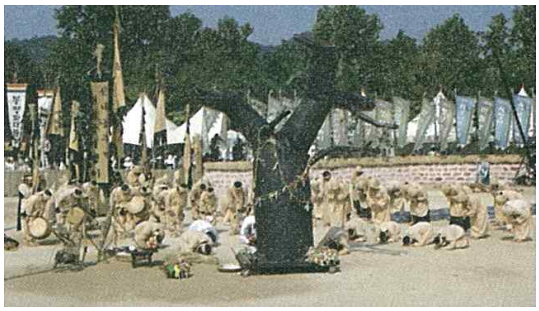
디딜방아를 훔치러 떠날 때 부녀자들은 소복을 갖춰 입고, 상여를 준비한 뒤 솥뚜껑을 머리에 이고 숨을 죽이며 이동한다. 디딜방아는 한밤중에 몰래 훔쳐 오는데, 어떤 때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서 싸우기도 하고,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돌림병을 막기 위한 뱅이에 쓴다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순순히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디딜방아를 훔쳐서 마을을 무사히 빠져나오면 그 마을 사람들도 반환을 요구하지 못했다. 훔친 디딜방아는 상여 위에 놓고, 그 위에 흰 광목천을 덮어 마치 주검을 모시는 듯이 한다. 디딜방아를 훔치는 것은 다른 마을의 죽은 여자를 가지고 오는 것을 뜻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올 때는 소복을 입은 여인네들이 상여소리와 함께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흉내를 내거나, "어흥! 어흥!" 호랑이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돌림병 종류에 따라 "홍역물리자! 홍역 물리자!" 라고 외치면서 돌아오기도 했다.

훔쳐 온 디딜방아는 마을 어귀나 마을 앞 삼거리에 거꾸로 세워 놓은 다음, 금줄을 두르고 제상을 차려 제사를 모신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며 한바탕 논다. 아낙네들은 여기저기서 속곳을 벗거나 준비해 온 속곳을 디딜방아의 Y자형으로 벌어진 곳에 걸기도 하고, 금줄 사이사이에 끼우기도 하는데, 특히 월경혈이 묻은 속곳을 걸어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정성이 더 지극한 아낙네는 자신의 속곳을 가지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다른 집 대문의 나무 조각을 조금씩 떼어내기도 하고, 다른 집의 흙을 속곳에다 문지르고 다니면서 그 속곳을 디딜방아에 건다. 이렇게 준비한 속곳은 매우 효험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팥죽을 쑤어 속곳과 디딜방아에 뿌리면 돌림병이 마을로 들어오다가도 디딜방아에 피 묻은 속곳을 보고 "이 마을은 더러워서 못쓰겠다" 하며 도망을 간다고 믿는다. 디딜방아가 더러우면 돌림병이 물러나지만, 깨끗하면 더 덤빈다는 말도 전해진다.

훔쳐 온 디딜방아는 '뱅이'를 끝내고 나서 돌려주기도 했다. 금방 찾아가면 그 마을의 액을 함께 가져간다고 해 보통 도둑 당한 마을에서는 몇 달 뒤에나 한 해를 걸러 찾아가기도 했다. 또한 훔쳐 온 디딜방아는 자칫 잘못하면 부정을 탄다해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그냥 세워 둔 자리에서 썩어 없어지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이 작품은 목신제, 디딜방아 찧기, 역질 창궐, 디딜방아 훔치기, 디딜방아뱅이, 대동 마을굿 등 여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딜방아액막이는 마을이 예기치 않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디딜방아를 훔쳐오고, 그것을 마을 어귀에 거꾸로 세워 풍장을 치며 제사를 올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돌림병으로 인한 재난을 재인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 보려는 집단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려 돌림병을 막기 위한 의례를 거행했기에, 자신의 마을에는 돌림병이 침입하지 못할 것 같은 안도감도 느끼게 한다.





● 충청남도 / 대명골합두레놀이 / 대명골합두레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공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의 대명골합두레놀이는 두레놀이의 막바지 행사인 두레먹이에 초점을 맞춘 논농사 민요와 민속놀이를 겸한 경연작이다. 두레를 짜는 것, 실제로 논농사를 하면서 소리를 하는 것, 두레풍장을 연행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놀이를 전개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두레기를 내세우고 하는 '학고 맞추는' 것을 비롯해, 두레풍장을 할 때 현장에서 하는 소리와 농악의 조화를 본보기로 하는 특성도 있다. 기싸움을 벌인 형제의 두레싸움까지 재현한 의미있는 놀이였다. 놀이를 하면서 소리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를찌며 가락에 맞춰 부르는 소리

무척 무척 뭉쳐노세

이논뱀이를 다 뭉쳐놓고 무척 무척 뭉쳐노세
저논뱀이를 뭉쳐놓고 무척 무척 뭉쳐노세
이논저논 다 뭉쳤으면 무척 무척 뭉쳐노세
저논뱀이로 건너가서 무척 무척 뭉쳐노세
뭉친모를 심어보세 무척 무척 뭉쳐노세

2. 모심는소리

이논뱀이다 모를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어허 - 어하하하, 어허허, 어 - 허하하하루상, 에헤디어
말굴레 같은 은가락지를 누구를 줄나다 날 같다주나
어허 - 어하하하, 어허허, 어 - 허하하하루상, 에헤디어
저달은 떠서 대장이되고 견우직녀는 후군이 된다
어허 - 어하하하, 어허허, 어 - 허하하하루상, 에헤디어
죽장망햐 단포자로 천리강산 드러간다
어허 - 어하하하, 어허허, 어 - 허하하하루상, 에헤디어
오동추야 달 밝은 밤에 임의 생각이 절로난다
어허 - 어하하하, 어허허, 어 - 허하하하루상, 에헤디어

3. 자진 못소리

여보소 농부들 말 들어보소 어헐 널널 상사디야
상사소리가 나거들랑 어헐 널널 상사디야
쏘싹쏘싹 심어보세 어헐 널널 상사디야
우리가 살면 몇 백년사나 어헐 널널 상사디야
사러생전 부지런히하세 어헐 널널 상사디야
일락선산에 해는지고 어헐 널널 상사디야
월출동녘에 달솟아온다 어헐 널널 상사디야

4. 호미거리

저 산너머다, 소첩을두고 밤길 걷기가, 망연도 하구나.
얼카 산이야

산천초목은, 푸르러서 좋은데, 우리네 인생은, 젊어서 좋다.
얼카 산이야
남문을 열고, 바라를치니, 계명삲너이, 다 밝아온다.
얼카 산이야

5. 지심매는소리

왓나- 왓네- 아하헤
참나무 개상에, 아해 발바쳐놓고, 아해 닭잡고 술먹자
에헤야 헤야헤 아헤 어허디어 아헤 헤야헤 아헤
저거너 갈미봉, 아헤 비모라 드러온다, 아헤 우장을 하여라
에헤야 헤야헤 아헤 어허디어 아헤 헤야헤 아헤
부지런이 매고서, 아헤 백두산천지를, 아헤, 관광을 합시다
에헤야 헤야헤 아헤 어허디어 아헤 헤야헤 아헤
여 보소도련님, 아헤, 편아히 가세요, 아헤 오냐 춘향아 네 잘있거라
에헤야 헤야헤 아헤 어허디어 아헤 헤야헤 아헤
은하작교가, 아헤, 다무너졌으니, 아헤 건너갈 길이 망연도하여라
에헤야 헤야헤 아헤 어허디어 아헤 헤야헤 아헤

6. 쌈소리

우야- 아- 아하- 헤
양쪽벼루는 쑥 올라가고, 함부루는 청처짐하라,
우야- 아- 아하- 헤
하절에는 노근방초요, 추절에는 추수로다.
우야- 아- 아하- 헤
산중에 귀물은 머루다래인데 우리네 귀물은 농사려구나,
우야- 아- 아하- 헤

전형적인 두레소리와 두레놀이를 경연용으로 꾸며서 나온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렇지만 놀이의 전개가 산만하고, 무대용으로 구성해 경연하는 순차적 전개가 원만하지 못했다. 경연의 중심인 소리꾼과 놀이꾼의 질서 정연한 예술성이 존재했는지, 소리, 놀이, 풍물 등이 조화롭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원래의 민속 현장에서 나오는 고유의 전개 형태를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논농사소리와 방맹이 소리가 겹쳐있어 그 분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심각한 결함으로 보인다.



● 충청북도 / 봉양파대놀이 / 봉양파대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공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일대에서는 가을철 곡식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 논밭으로 몰려드는 새를 쫓기 위해 파대[破帶]를 만들어 사용했다. 파대는 일종의 채찍과 비슷한 것으로. 짚을 꼬아 만든 줄 끝에 삼이나 말총, 짐승 가죽 따위를 묶어서 제작하는데, 이를 손에 쥐고 휘둘러 치면 그 끝이 휘감겨 총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서 새를 쫓기에 좋은 기구가 된다. 이러한 행위를 제천지역에서는 '태기치기' 또는 '태기친다'고 했다.

봉양파대놀이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된다나뉜다. 제1부에서는 파대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세 곳의 마을 세 곳에 대한 개관과 파대의 유래 및 제작 방법을 서술하고, 파대놀이의 특성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파대놀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다. 제2부에서는 제천의 민속놀이를 소개한다.

파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제천시 봉양지역을 비롯해 충청북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및 경상도 일부 등 태백산맥에 근접해 있는 지역서 오래전부터 사용했다. 제천시에서는 파대를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점차 자취를 감추고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마곡리 일대에서만 일부 전승이 되어 왔다.

봉양파대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파대놀이 깃발을 앞세우고 파대꾼, 농악팀, 아낙네, 소녀, 참새, 지게꾼, 양반 등이 입장한다. 이때 농악은 머리를 자르게 되는 소녀들의 안타까움을 전하기 위해 느린 가락으로 연출되며, 점차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악팀은 퇴장한다. 입장한 파대꾼들은 원 대형을 만들고, 그 안쪽에서 소녀 3명과 양반 2명이 머리 자를 준비를 한다. 촌장이 큰소리로 "오늘 파대놀이에는 굴탄리 김 서방을 수장으로 정했으니 잘 자르시게" 하면서 파대 한 개를 건네면 김 서방은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파대를 받는다.

2. 머리자르기

전년도 대동계에서 선발된 소녀 3명은 마을에서 정해준 금기사항을 지켜가며 잘 관리한 머리카락을 자른다. 양반과 촌장은 파대틀기에서 사용하기 위해 슬피 우는 소녀의 머리를 가위로 자른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선소리꾼은 구성진 소리로 슬피 우는 소녀를 달래고 위로한다.

> 우지마라 우지마라 애기들아, 머리는 혼줄인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마는
> 우지마라 우지마라 풍년농사를 위해 내 눈물로써 자르노니
> 우지마라 우지마라 마을에서는 너희들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신신당부 할지니
> 우지마라 우지마라 산천초목이 보고 있으니 모두 알 것이지마는
> 우지마라 우지마라 집사는 대동계보에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라
> 우지마라 우지마라 우지마라 애기들아

소녀가 머리를 자르고 난 뒤 고깔모자를 쓰고 양반들의 위로를 받으며 퇴장하면 파대를 만든다.

3. 파대틀기

각각 4~5명으로 5개 조를 구성해 한 명이 중심을 잡고 나머지 사람들이 선소리꾼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소녀의 자른 머리카락을 넣고 파대를 틀기 시작한다.

들어간다 얼레야~ 땡겨라~얼레야 틀어라~얼레야 돌리고~얼레야
곧추서고 얼레야
감아쥐고 얼레야
뒤로밀어 얼레야
흔들어 잡아 얼레야
얽어잡고 얼레야
세워돌아 얼레야
마무리짓고 얼레야

4. 파대다듬기

볏짚으로 만들어진 파대를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으로, 선소리꾼의 선창과 후렴으로 이어진다.
어레야 다듬이 정월에는 새끼 꼬아라 얼레야 다듬이 이월에는 가마니 짜고
얼레야 다듬이 삼월이면 짚신 삼아서 얼레야 다듬이 사월이니 장석 말아라
얼레야 다듬이 오월이로다 자리깔고 얼레야 다듬이 유월이요 도롱이 얹고
얼레야 다듬이 칠월칠석에 파대틀고 얼레야 다듬이 팔월이면 멍석메고야
얼레야 다듬이 구월이면 삼태기 묶어 얼레야 다듬이 시월이면 이엉잇고서
얼레야 다듬이 동짓달손 용구새 놓고 얼레야 다듬이 섣달에는 한숨 지세나

5. 축원

잘 만들어진 파대의 끝을 모두 수장에게 건네준다. 수장은 모든 파대를 한 곳에 모아 잡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거두기 위한 축원문을 낭독하는데, 이때 모든 이가 원 대형을 구성해 강강술래와 같은 동작을 하며 후렴을 따라 부른다.

얼레야 얼레 선남 선녀 청춘을 잘라만든 이 파대는 얼레야 얼레
우리 마을의 액운을 파대에 실어 보내고 얼레야 얼레
산천의 온갖 날 것들을 마을에서 내 몰아 얼레야 얼레
풍년농사로 천석만석 곳간을 채워 얼레야 얼레
옥이야 금이야 키운 자식들 시잡장가 보내고 얼레야 얼레
부모님 공양에 효자되고 마을에 화평들어 얼레야 얼레
삼천리 방방곡곡에 천둥처럼 번지리라~얼레야

6. 축이기 - 고르기 - 분칠하기

수장이 “축이세, 고르세, 분칠하세”를 선창하면 원형으로 만든 대열을 따라가며 짚으로 만든 파대를 물속에 담그고 수분 유지를 위해 항아리에 파대 끝을 담그는 과정, 파대를 땅바닥에 길게 내려치며 고르게 펴는 작업, 그리고 맑고 큰 소리를 내기 위해 파대 끝에 찹쌀가루를 묻히는 일련의 과정이다.

7. 새참먹기

파대를 틀어 만들고 축원을 하기까지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번 쉬어가며 새참을 먹는 시간으로, 이때 참새 떼와 새참 아낙네가 함께 원 대형으로 돌아와 ‘고시레’를 하는 농촌 풍경과 날짐승에 대한 푸념을 볼 수 있다.

8. 파대치기

아무리 푸념을 해도 날짐승이 날아가지 않자, 선파대가 일어나 날짐승을 쫓아내자고 의견을 제시하며 크게 “훠이” 외치면 원 대형을 구성한 파대꾼들이 파도타기 형식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파대를 친다.

이때 참새가 모두 도망가는 모습을 취하며, 이어서 아랫마을과 윗마을의 파대치기 시합을 위해 일자 대형을 구성하고 큰 소리가 나도록 파대를 친다.

9. 풍년기원

날짐승을 모두 쫓아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모두 함께 흥겨운 놀이마당을 펼치며 농악대와 함께 어우러짐을 연출하면서 파대놀이는 끝이 난다.

봉양파대놀이는 봉양읍, 넓게는 제천 지역 일대에서 행해온 파대 풍습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전승이 단절되었지만, 그 기억마저 단절되기 전에 찾아 기록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제천 지역 놀이 관련 조사 기록은 놀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 전라남도 / 봉추들노래 / 봉추들노래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공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봉추들노래는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봉추마을'에서 불리던 들노래로, 인접한 함평과 무안의 들노래와 영향을 주고받아 긴소리권의 특성을 보여준다. 1994년 제20회 남도문화제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1996년 제22회에는 봉추풀베는소리로 출전한 바 있다. 또한 제26회와 제29회에서는 각각 3위에 입상했고, 2008년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봉추마을은 1996년 4월 17일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전통을 잇는 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봉추들노래는 물 품는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소리, 지심매는 소리, 풍장소리로 구성된다. 모심는 소리인 상사소리는 늦은 상사소리, 잦은 상사소리, 더 잦은 상사소리로 구분하며 모심는 속도를 조절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마을은 풀베는소리도 잘 남아 있어 이를 주제로 남도문화제에 출전하기도 했다. 현재 박선배와 박만배 형제가 앞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푸레소리는 물을 푸면서 숫자를 세는 소리다. 물을 품을 때는 중간에 숫자 대신 다른 사설을 넣기도 하고, 숫자가 열이 못되었어도 힘에 부치면 그냥 아홉으로 세면서 다음 단계 숫자로 넘어가기도 한다. 물을 품으며 숫자를 세는 것을 '물고리를 신다'고 한다. 숫자를 세는 것으로 메기고, "어허이"로 받는다.

봉추마을의 논은 본래 건평(마른 논)이었기 때문에 물 품는 소리로 시작을 알린다. 다른 마을에서는 물을 품는 일이 거의 없어 봉추마을에만 물 품는 소리가 있으며, 둘이서 물을 품는 외두레, 네 명이 쌍을 이뤄 물을 품는 쌍두레, 여섯 명이 쌍을 이루는 시쌍두레가 있고, 물을 품을 때는 맨 앞에서 품는 사람이 가장 힘이 든다고 한다. 외두레로 물을 품을 때는 소리가 없고, 쌍두레부터 소리를 하면서 물을 품는다. 모심기 전인 음력 5, 6월에 많이 불렀다고 한다.

모찌는 소리는 "에~헤라 ~ 먼들~"로 받는 먼들소리 계통을 부른다.

모심는 소리는 판소리 춘향가 중 '농부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긴상사소리. 자진상사소리, 사뒤요소리의 세 가지로 부른다. 긴상사소리는 중모리 장단에 맞으며, "여- 여~ 여-허~ 여~루~ 상-사~뒤-요~"로 받는다. 자진상사소리는 중중모리장단에 맞으며, '에-헤 에헤~루~ 상사뒤여-'로 받는다. 사뒤요소리는 "사-뒤요~"로 받는 빠른 소리다. 상사소리를 부르는 지역에는 사뒤요소리가 없고, 사뒤요소리를 부르는 지역에는 상사소리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전승되면서 모두 모심기로 불리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봉추마을에서는 모를 심은 지 20일이 지나면 김을 매는데, 이것을 '초불(초벌)'이라고 한다. 다시 15일 뒤에 두 번째 김매기인 '한불'을 매고, 그로부터 다시 10일이 지난 후 마지막 김매기인 '만도리'를 한다. 과거에는 김을 맬 때 초불부터 만도리까지 소리 구별 없이 불렀는데, 남도문화제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서 초불, 한불, 만도리 소리를 구별해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초벌매기소리로는 긴소리를 부르며, "아리~시구나~ 아~하~ 시구여~ 어~허 어허어야~윗 마~뒤여~"로 받는다. 한불(두벌)매기소리는 "에-헤- 에헤-야-에헤 에-헤~일~로~~오-호"로 받는다. 만도리는 "오호-호-호야 ~재야- 일로-호야"로 두벌매기소리를 조금 더 빠르게 부른다.

과거 봉추마을에서는 만도리(만드리)가 끝나면 바로 풍장굿을 했으며, 이때 농악대가 참여했다고 한

다. 당시 풍장굿을 할 때, 얼굴에 숯검정을 바른 '수머슴'이 소를 타고 주인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닭죽 등을 내놓고, 수머슴에게는 얼굴을 닦으라는 뜻으로 수건 한 장을 줬다고 한다.

풍장굿소리는 "에롱~ 대롱~ 해가 돌아간다~"로 받는 애롱대롱 계열의 노래다.

논농사소리 이외에도 풀베기소리와 보리타작 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풀베기소리로는 초동들의 '외나리 소리'가 있는데, 이는 '메나리소리'의 와전으로 보인다. 지게 목발장단을 치면서 노래하는데, 후렴 "어이-가리 넘~~ 어이-가리 넘~~~~ 허어이~가리~ 너~너와로-구나~"가 붙는 신세타령 노래다.

보리타작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 도리깨질로 타작을 한다. 이때 '상도리깨'와 '종도리깨'로 나눠 일을 하는데, 한 명이 상도리깨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종도리깨가 된다. 상도리깨가 가운데 서서 도리깨질로 '배겨논 보리(보리 배긴다: 타작을 위해 보릿단을 열을 맞춰서 눕혀 놓는 것을 의미)'를 뒤집으며 "여깄다" 하면, 종도리깨꾼들이 상도리깨꾼이 뒤집어놓은 보리에 도리깨질을 한다. 상도리깨꾼은 도리깨 옆면으로 보릿단을 뒤집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힘이 배로 들어가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삯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도리깨질 소리는 상도리깨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종도리깨꾼들이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봉추들노래의 모찌는 소리는 먼들소리 계열, 모심는소리는 상사소리와 사뒤요소리 계열로 노래한다. 논매는소리에는 긴소리, 긴들래기, 자진들래기 소리가 있으며, 풍장소리는 애롱대롱 계열로 부른다. 논매는소리 악곡은 가장 대표적인 긴소리권 악곡이며, 남부경토리로 되어 있다. 애롱대롱은 사당패소리 계열이며, 상사소리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공주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광주광역시 / 서창만드리 / 서창만드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공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광주광역시의 서창만드리는 영산강 상류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 속에서 전승된 노래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들녘 일대는 영산강 지류인 극락강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서창만드리라는 독특한 농요를 전승했다.

만드리는 가장 나중에 자란 잡초를 없애는 일을 칭하는 '만물' 내지 '만도리'에서 유래했으며, 세벌 김매기를 하는 시기인 7월 백중(음력 7월 15일)에 주로 불린 노동요다. "백중은 여름짓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백중 무렵은 농사일이 한창인 계절이며, 어정 7월이나 동동 8월처럼 추수를 앞두고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였다. 백중날 농가에서는 머슴과 일꾼에게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주고 휴가와 용돈을 줬다. 이것을 "백중돈 탄다"고 하는데, 이날은 머슴과 일꾼이 잠시 일을 놓고 고단함을 달랬다.
서창만드리는 초벌매기, 두벌매기, 만드리와 장원질소리로 구성된되며, 악곡별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초벌매기 - 사뒤여소리

(받는소리) 오호호 호아 헤 헤에루 사뒤여
(메기는소리) 십오야 밝은 달은 구름속에 놀고 이십안짝 새 큰애기 내 품 안에서 놀아라

2. 두벌매기 - 산아지타령

(받는소리) 에야 뒤야 에헤헤 에야 에야라 뒤이여 산아지로구나
(메기는소리) 사람이 살며는 몇백년이나 살거나 호박같이 둥근세상 둥글둥글 삽시다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 말어라 이내 청춘이 다 늙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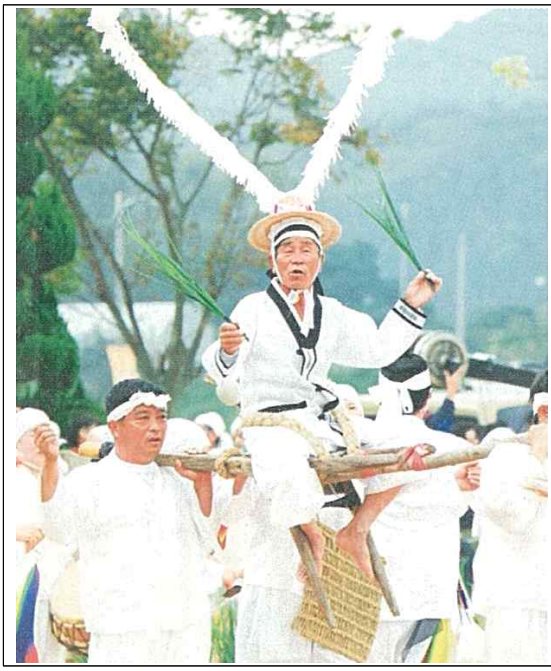
3. 만드리

(받는소리) 오호 호 헤헤루 상사절로
(메기는소리) 잘도 허네 잘도허네 우리 농군님 잘도 허시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잘도 허시네
불과 같이 더운 날에 매울 같은 지심을 매세
이마 우에 흐르는 땀방울 방울방울이 보석같고
올모 끝에 달린 흙덩어린 덩어리 덩어리가 황금일세

4. 장원질소리

(받는소리) 아롱저롱
(메기는소리) 풍년일세 풍년일세
삼천리 이 강산이 풍년일세
가세 가세 어서나 가세
이 강 건너서 임찾아 가세
앞집에 큰애기가 시집을 간다는데
뒷집에 노총각 생병이 났구나
오동추야 달밝은 밤에
임생각이 절로나 난다

서창만드리소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전해 내려오는 논농사소리다. 이미 도시화해 농촌 지역이 별로 남지 않은 광주에서는 농요의 보존과 전승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네 곡의 논농사소리를 논매는소리 중심으로 복원 후 경연에 참여해 공주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평안남도 / 평양검무 / 평양검무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공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평양검무는 평안도의 대표 작품 중 하나다. 평양검무 전승자 이봉애 선생은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리 출신으로, 평양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녀 서문여고를 졸업했다. 그의 나이 14세에 평양권번 출신 예기 김학선을 만나 평양검무를 사사했고, 현재는 이봉애 선생의 제자들이 평양검무를 전승하고 있다. 이봉애 선생은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해마다 정기공연을 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평양검무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평양검무는 입춤, 앉은 춤, 칼춤 등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입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일자 사위

2. 앉은 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두 손 모아 허리춤
(3) 옆으로 허리춤
(4) 두 손 위로 모아 허리춤

3. 칼춤

(1) 한칼 사위
(2) 쌍칼 사위
(3) 서서 기본 동작사위
(4) 반돌기
(5) 칼 뽑기 동작
(6) 양팔 벌려 두 번 돌리기
(7) 건곤 사선 사위
(8) 반돌기 사위
(9) 앉는 연풍 사위
(10) 까치 사위
(11) 번개 사위
(12) 머리 쓸기 사위
(13) 인사 사위
(14) 하늘 치기 사위
(15) 빨리 돌기 사위
(16) 양팔 벌려 칼 돌리기 사위
(17) 유진 유퇴
(18) 도는 연풍 앉아 칼 돌리기
(19) 머리 쓸며 까치 사위
(20) 칼로 땅치기 사위
(21) 돌아서 기본사위

(22) 좌우 칼 돌리기
(23) 번개사위
(24) 앞 돌리기
(25) 번개 사위 4, 2, 4
(26) 마지막 인사

평양검무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바 있다.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만큼, 평안도의 대표 종목을 이어가는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평안도 문화를 널리 선보였고, 지속적 전승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며 이번 대회에서 공주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전라북도 / 탑성놀이 / 돌문화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윤달의 탑성놀이는 액운을 쫓고 무병장수하며 극락왕생한다는 속신과 함께 부녀자들이 윤달 든 해에 행렬을 지어 산성을 도는 보편화된 세시풍속이다. 윤달에서도 엿셋날이 저승문이 열리는 날이라 해 초엿세날, 열엿셋날, 스무엿셋날을 탑성일로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감 이항[李恒]은 1678년 고창 모양성[牟陽城]을 개축할 때도 윤삼월을 택했으며, 순조 3년(1803) 고창읍에 읍치풍수의 석조물을 조성할 때도 윤삼월을 택했다. 탑성놀이는 개성 천마산성[天魔山城], 전북 고창 모양성(모양산성 또는 고창읍성), 전북 기념물 제9호 남원 교룡산성[蛟龍山城]을 비롯해 전남 영광 지역에서도 전해오는 풍속이며, 이 중 모양성은 탑성놀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행해지는 곳이다.

모양성은 고창읍 동남쪽에 있으며, 서고산성은 고창읍에서 서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성틀봉에 있다. 서고산성은 전설처럼 남자들이 성 쌓기를 게을리해 패한 관계로 실제 성터 흔적만 남아 있다. 성터는 성틀봉의 테두리 산성 형태로, '성틀봉'이라는 지명은 석성이 보이지 않고 산성의 틀만 보인다 해 붙여진 것이다. 지금도 고창읍에서 무장 방향으로 가다보면 성틀봉의 성터 흔적을 볼 수 있다. 또한 성 쌓기를 중단하고 버린 돌이 고인돌 무더기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입증하듯, 성틀봉 아래에는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윤달에 북망산천의 저승문이 열린다는 속설로 전국 각지에서 소복단장을 한 부녀자들이 성 밟기를 하려고 모양성에 찾아든다. 이들의 소복단장은 생전에 극락왕생을 체험하는 의미가 강하다. 모양성의 북문인 공북문[拱北門]을 저승길에 열리는 극락문이라 해 그곳에 들어가면 극락세계가 펼쳐진다고 했다. 북문으로 들어가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북문으로 돌아오는 동선을 가진 모양성을 현실 속 극락세계로 설정해 나이 많은 부녀자들이 생전에 극락세계를 한번 다녀오고 싶어 이곳의 탑성놀이를 즐겼다고 본다.

손 없는 윤달에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모양성을 밟아야 저승길에 극락왕생한다는 속신이 탑성풍속을 만들어냈으며,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윤달 특히, 윤삼월에 탑성을 하면 더욱 효험이 있다는 속설이 전해온다.

모양성 탑성놀이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답교놀이와 유사하다. 답교놀이는 다리밟기를 하면서 소원성취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인데, 모양성 탑성놀이도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의 소원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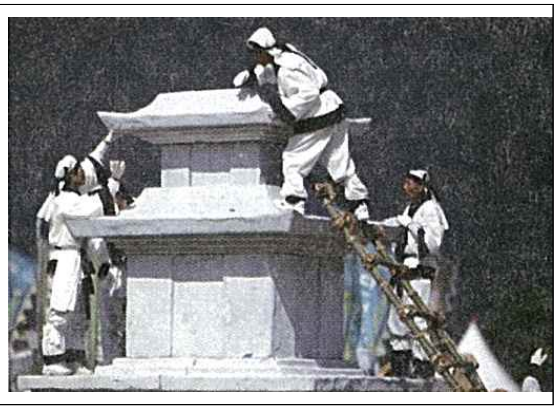
고창 모양성 탑성놀이는 모양성과 서산고성 성 쌓기 내기에서 부녀자들이 승리했다는 성곽설화가 탑성풍속과 조합되어 탄생한 것으로 본다. 손바닥만 한 돌을 들고 도는 탑성놀이는 돌을 머리에 이거나 치마폭으로 실어 날라 성 쌓기를 한 여성들의 노동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는 1678년 읍성 개축 과정에서 오뉘힘내기형의 성 쌓기 전설을 차용해 모양성 쌓기 설화의 주체인 부녀자들을 성곽 관리에 동원했기 때문으로 본다. 따라서 모양성의 성곽 구조와 성 쌓기 성곽설화, 그리고 윤달 속신이 어우러지면서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소원하는 부녀자들이 탑성풍속이 주체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본다.

조선 후기 고창 지역에는 사회 혼란과 함께 미륵신앙과 지장신앙이 성행했는데, 탑돌이를 하는 불교

민속과 윤달 속신의 전통으로 인해 나이든 부녀자들이 윤달이 든 해에 모양성에 찾아가 극락왕생을 서원하고 무병장수를 비는 관습을 만들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678년 윤삼월과 1803년 윤삼월의 모양성 개축을 통해 이곳의 탑성놀이가 크게 연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고창 지역 부녀자들은 윤달이 든 해에는 모양성을 찾아가 현실 사회에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탑성놀이를 즐겼던 것이다.

정월 초 다리밟기를 하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탑돌이를 하면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은 고창 모양성의 산성 형태와 성곽설화가 조합되면서 모양성 탑성놀이로 계승되었다.





● 함경남도 / 남대천놀이 /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하는 탈놀이로,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함경도에서는 함남의 북청·함주·정평·영흥·홍원, 함북의 경성·명천·무산·종성·경원 등지에서 사자놀이를 했는데, 이 중 북청의 사자놀이가 가장 유명하다.

북청사자놀음은 함남 북청군 산하 11개 면과 3개 읍에 속하는 각 마을에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에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했다. 북청군 사자는 댓벌사자(이촌사자, 중촌사자, 넘은개사자 등), 동문밖사자, 후평사자, 북리사자, 당포사자 등이 유명했다.

북청 지방에서는 수십 개 마을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사자를 꾸며 놀았기 때문에, 사자가면의 모습이 마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북청의 사자가면은 1930년대에 송석하가 수집한 사자가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36년 2월 7일 송석하가 북청 현지에서 찍은 북청읍의 사자와 토성리의 사자, 현재 북청사자놀음에서 사용하는 사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모두 다른 모습이다.

북청사자놀이는 극적인 요소가 풍부하고, 나례의 매귀[埋鬼] 행사와 동일한 모습도 보인다. 사자놀이패는 정월 4일부터 14일까지 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해 '나례의 매귀', 즉 지신밟기와 유사한 의식을 거행했다. 북청사자놀이는 정월대보름을 기해 거행되는 대부분의 민속놀이와 마찬가지로 벽사진경을 목적으로 했다. 백수[百獸]의 왕인 사자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벽사적인 기능을 하지만, 특히 사자가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집집이 구석구석 잡귀를 쫓는 모습은 나례의 매귀와 완전히 일치한다.

사자는 머리 부분에 큰 방울을 많이 달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매우 크다. 이는 방울소리를 통해 잡귀를 쫓으려는 것이다. 먼저 사자는 집안에 들어선 후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마당을 빙빙 돌며 기세를 보이다가 안방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딱딱" 소리를 내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귀신을 잡아먹는 시늉을 하며 방방마다 들어간다. 곡식과 쌀독을 두는 뒷방인 뒷고방도 들어간다. 부엌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이 한 후 바가지를 하나 물고 나와 마당에 던져 깨뜨린다. 이는 귀신을 쫓는 의식이다.

주인 요청으로 부엌으로 들어간 사자는 조앙, 즉 부뚜막을 향해 세 번 절한다. 조앙에는 성주단지와 조왕이 있기 때문이다. 성주는 가정의 수호신이고, 조왕은 부엌의 신이다. 마당으로 나온 사자는 뒤꼍·장독간·외양간을 다니면서 집을 한 바퀴 돌았다. 집안 구석구석을 모두 다니는 것이다. 그 후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춘다. 이때 아이를 사자를 태우면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고 해 그렇게 하기도 한다. 또한 사자털을 베어다 두면 장수한다는 속신[俗信]에 따라 몰래 털을 베기도 한다.

1955년 겨울부터 1956년 여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청 지방을 현지에서 조사한 김일출은 북청 사자가면의 유형이 호랑이 또는 고양이 모습의 사자, 귀면 모양의 사자, 용 비늘을 그린 사자로 구성된다고 했다. 또한 죽평리 사자놀이에는 피리 4, 퉁소 4, 꽹과리 1, 징 1, 새납 1, 소고 1, 큰북 1 등 다양한 악기와 함께 사자, 꼭쇠, 양반, 중, 점바치, 의원, 굴중(상모) 돌리는 사람, 소고를 든 거사 2인, 무동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 중 주목할 인물은 '점바치', 즉 점쟁이로, 그는 사자가 먹이를 먹고 병들어 쓰러진 후에 병점[病占]을 친다.

현재는 북청사자놀음에 사자가 두 마리가 등장하지만, 원래 북청 지방에서는 모든 마을에서 사자가 한 마리만 등장했다. 그리고 사자놀이의 내용도 현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내용은 애원성, 마당놀이, 사자춤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쾌자[快子]를 입은 여인이 등장해 경복궁춤, 애원성춤, 성주풀이춤을 추고, 그다음에는 양반·하인(꼭쇠)이 등장하는 마당놀이로 넘어가는데, 양반의 명령에 따라 사당춤, 무동

춤, 곱사춤 등을 춘다. 현재 전승되는 연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과장 '마당돌이'
길잡이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놀이판을 정리하면, 하인 꼭쇠가 주인 양반을 데리고 등장해 사자놀이를 소개하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제2과장 '애원성춤'
'애원성'이라는 함경도 민요 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제3과장 '사당·거사춤'
사당 2인과 거사 2인이 등장해 추는 춤이다. 사당과 거사는 옛날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떠돌아다니던 유랑예인이다.

제4과장 '무동춤'
어른의 어깨 위에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서 춤을 춘다.

제5과장 '꼽추춤'
가슴과 등에 헝겊을 넣어 불룩 튀어나오도록 하고, 꼽추 흉내를 내며 흥겹게 춤을 춘다.

제6과장 '칼춤'
두 사람이 자그마한 칼을 가지고 춤을 춘다.

제7과장 '사자춤'
두 마리 사자탈이 나오는 사자춤은 초장, 중장, 말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초장에서는 사자가 몸을 풀면서 간단하게 춤을 춘다. 중장에서는 사자가 엎드리고, 기고, 뛰고, 서로 입을 맞추고, 꼬리를 흔드는 등 다양한 춤을 춘다. 그러다가 사자는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쓰러진다. 그러면 스님이 나와 염불을 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자 의원이 등장해 침을 놓고 감로수라는 약수를 먹여 사자를 소생시킨다. 말장에서는 소생한 사자가 더 빠른 박자로 신나게 춤을 추는데, 이때 사자탈에 들어간 앞채 사람이 뒤채 사람 어깨에 올라가 몸을 세운 입사자[立獅子] 모양을 갖추기도 한다.

제8과장 '군무'
그동안 등장했던 모든 춤꾼이 나와 서로 어울려 춤을 춘다.

북청사자놀이의 주목적은 벽사진경에 있다. 백수의 왕으로 벽사의 뜻을 가진 사자가 가면으로 전래하는 과정에서 악귀를 내쫓아 마을이 태평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정월대보름날 사자놀이를 성대하게 거행했던 것이다. 아이를 사자에 태우면 무병장수한다거나, 사자털을 베어다 두면 장수한다는 믿음을 보면 사자놀이에 종교적인 기능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남한에서 정초에 마을 풍물패가 가가호호 방문해 지신밟기를 할 때 그 구성원이 모두 마을 주민인 농민이듯, 북청 지방에서도 사자놀이의 놀이꾼은 모두 마을 주민인 농민이었다.

사자놀이를 통해 마을의 단결과 협동을 도모하는 사회 통합의 기능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각 마을이 자력으로 사자놀이 준비를 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사자놀이를 해주며, 유지의 집을 순회하며 생긴 곡식으로 마을의 공공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마을 주민이 화합할 수 있던 것이다.





● 함경북도 / 애원성 / 함북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함경도 애원성[哀怨聲]은 1968년 애원성보존회를 창립했고, 2005년 함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애원성은 함경북도에서 전해 내려온 향토민요다. 퉁소 반주와 물동이나 물함지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치는 바가지장단에 맞춰 노래하며 춤을 춘다. 애원성은 함경도 전역과 평안남도 안주에서 주로 불리는 노래로, 일반적으로 함경도에서 불리는 것을 '애원성'이라 하고, 안주에서 불리는 것은 '안주애원성'이라 구분한다.

(후렴) 에에~에헤야 얼사마 좋구 좋다 얼럴럴 거리고 상사디야
백두산꼭대기에 칠성단 묻어 놓고 아들 딸 낳기만 발원이로구나
산아산아 에루화 동대산아 부모님 형제겐 이별산이로구나
풍년이 왔다고 부르지 말아라 이물을 건너면 월강죄란다네
무산령 넘어에 정든 안깐 두고 두만강 뗏목에 이내몸 실었네
부령 청진 간 낭군은 돈벌이 갔구요 북망산천 간 낭군은 여 이별이로구나
술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추고 돈없는 천지에 영웅도 우노나
오늘밤은 그 얼매나 갔는지 북두칠성이 앵 돌아졌네
해삼위 항구가 그 얼마나 좋길래 신개척이 찾아서 반봇따리 쌌네
마우재 양지전에 정들 뻔 하다가 왜놈의 권연지에 몽땅 속았구나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정든임 없으면 적막강산이라
가지를 마오 갈 생각마오 동대산 바람은 이별바람이오
북간도 찬바람 네 불지 말아라 우리네 독립군 손발이 다 언다
한반도 강산에 전선줄 느리더니 큰오래비 간곳이 뚱딴지로구나
삼천리 강산이 넓다고 하지만 우리네 살 곳은 함경도 뿐이다
갈적에 열어보니 개가 컹짖고 울적에 다시 보니 새벽달기 우노나

애원성은 이번 대회에서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아리랑상을 수상했다. 함경도 문화는 이북5도민이 전승하고 있으나 기반이 약한 편이다.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이들의 전승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평안북도 / 성황굿 / 영변성황대제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성황굿은 평안북도 영변 지방에서 전승한 마을굿으로, '영변성황대제'라고도 부른다. 현재는 영변성황대제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평안북도에서는 영변당굿과 철산당굿이 유명했다. 영변의 제단에는 북당과 남당이 있었다. 북당에 좌정한 신은 북부동, 남당에 좌정한 신은 남부동의 수호신이었다. 북당의 경우 시장 상인들이 결성한 장터계에서 제비를 부담했으며, 일부는 읍민들이 십시일반 보탰다. 예전부터 남당보다 북당의 세가 우세했다고 한다.

대제는 일 년에 한 번 또는 격년으로 벌어지며, 길일을 택해 5일 정도 진행했다. 주민들은 괴병을 면하고 입신출세의 덕을 입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막대한 제비를 부담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대제에 참가했다. 성황대제는 마을 주민들이 가을걷이를 끝낸 후 햇곡식을 집마다 추렴해 마을의 안녕을 소망하고 액운을 물리치며 태평성대와 길흉화복을 기원하는 의례다.

성황제가 끝나면 무녀들이 당굿을 시작한다. 성황제 의례는 감흥굿, 칠성굿, 타살굿, 영정굿, 조상굿, 성황굿, 대감굿, 사신풀이굿, 작두굿, 뒤전풀이 순으로 진행한다. 당굿은 강신굿, 대감놀이, 거리굿 순으로 보통 4~5일에서 일주일간 계속된다. 무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구경하던 주민들이 합세해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영변성황굿은 북한 지역의 민속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전통 양식을 복원해 북한 지역 문화의 원천으로써 의미가 있다. 특히 이정연 보유자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평안북도 무속의 전통적인 형태가 지속적으로지속해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울산광역시 / 울산재애밟기놀이 / 울주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재애'는 '기와'의 울산 사투리다. 재애밟기는 사람이 수키와처럼 줄을 지어 엎드리면 그 위를 지나가는 모양을 따 붙인 이름으로, 부인들이 비가 새는 기와지붕을 수리하는 남정네들을 보면서 삼월삼짇날이나 정월대보름에 이를 흉내 내며 놀았던 놀이에서 비롯했다. 여자들이 줄지어 늘어서 앞 사람 허리를 잡고 등을 굽혀 엎드려 길을 만들면 그 위를 밟고 가며 노래를 부른다.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서는 1950년대까지 이 놀이가 성행했다.

밟는 사람에 대한 의미 부여도 여러 가지다. 전라도의 지와밟기에서는 놀이꾼 중 한 사람이 올라가는데, 큰 의미는 없다. 반면 남원의 지네밟기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밟게 하는데, 지네밟기 자체가 밟는 아이의 무병장수와 출세를 의미한다. 경상북도 군위에서는 올라간 놀이꾼을 '기와장'이라고 부른다. 한편 놋다리밟기에서 소녀들이 다리를 밟는데, 이들을 '공주'라고 부른다. 밟기를 할 경우 강강술래의 기와밟기와 놋다리밟기에서는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지만, 군위의 지애밟기와 남원의 지네밟기에서는 막대기를 이용한다.

기와는 지붕을 잇는 것으로, 사람의 굽은 허리처럼 굽어 있다. 기와지붕에 올라갈 때는 기와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재애밟기는 바로 그러한 것을 고려해 붙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꽃게를 등 뒤로 보낸 사람은 다시 열 맨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구부려 계속 행렬을 이어간다. 앞줄의 여자들이 선소리를 메기면 뒤에 따른 이들이 받는소리를 하는 등 흥겨운 분위기가 정월대보름 저녁을 장식한다.

'밟기'가 끝나고 싸움이 시작되면 대열의 선두를 힘이 센 건장한 여인들로 대치하고, 그중 네 사람이 팔을 잡아 기둥을 만들어 그 위에 억센 여인을 태운다. 놀이를 할 때는 체중이 가볍고 연약한 여자를 꽃게로 위장시켰지만, 실제 싸움에서는 건장한 여인을 내세운다.

울산재애밟기놀이는 울주문화원 회원 89명이 대거 참가해 어스름 저녁 마을 아녀자들이 같이 놀아줄 동무를 불러내는 '동무 모으기'로 시작해, '재애 밟자' '달 넘자' '씨앗받기'에 이어 명주를 잣는 행위를 의태화한 '실 감자' 등 5개 과장으로 펼쳐졌다. 재애밟기놀이는 예로부터 울산에서 전해져 오는 여성의 집단놀이로, 평소에는 네댓 명이 옹기종기 모여 놀지만, 정월대보름이나 팔월 한가위에는 소녀부터 젊은 부녀자까지 함께 나와 집단으로 원무를 이뤘던 놀이다.

사람들이 엎드린 모양이 기왓장을 엎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해 '기와'라 하기도 하고, 지네를 닮았다고 해 '지네'라 부르기도 하며, 물을 건너는 다리로 사용했다는 공민왕 전설에 따라 '다리'로 부르기도 한다. 또 농경사회에서 물을 관장하는 용신[龍神], 곧 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 지와밟기 놀이에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5도 2촌 족말도시 공주방문
13만

● 인천광역시 / 아낙일노래와소리 / 인천토속민요놀이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인천 지역에 전승되는 여자들의 노래를 묶은 작품이다. 밭매는소리, 씨앗이소리, 수목소리, 베짜는소리, 아낙꼬대각시놀이, 능라도, 우리어머니, 맷돌소리, 아이어르는소리, 자장가, 디듬이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놀이와 노래로 노동의 고단함을 달랬던 여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 밭매는소리

(받는소리) 등장가세 등장가
(메기는소리) 등장가세 등장가
하늘에 떠있는 저구름아 서방님 소식을 일러주렴
풀은 점점 앙승하고 콩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
삼복더위에 밭을 매니 뜨겁고도 힘이 든다

2. 씨앗이소리

(메기는소리) 청룡 황룡은 뒤틀어지고 구름은 설설 나가고 별은 뚝뚝 떨어진다
(받는소리) 청룡 황룡은 뒤틀어지고 구름은 설설 나가고 별은 뚝뚝 떨어진다
(메기는소리) 이 목화씨를 빼어서 막내딸 시집갈 때 이불 한 채를 해줘야지
(받는소리) 청룡 황룡은 뒤틀어지고 구름은 설설 나가고 별은 뚝뚝 떨어진다

3. 물레소리

물레야 바퀴야 시리뱅뱅 돌아라
이웃집 김도령 찬이슬 맞는다
한투생이 두투생이 명을 잣어
우리네 정든님 몸 치숭 하자
아래 윗동네 삼십호 넘어도 배퉁이 적삼 입은 것 나하나라
웬수놈의 비바람 임 가신 00을 알아야 나무개비 우산이라도 보내지

4. 베짜는소리

베틀을 노세 베틀을 노아
잉아대는 삼형제 눌루기는 대는 외아들
앵경추나무 북바디 큰애기 손질로만 다녹인다
베틀 다리는 네다리요 큰애기는 두다리라
한 날에다 베틀을 놓고 구름위로 잉아 걸어
딸끙 딸끙 짜느라니 임이 계서 편지왔네

5. 우리어머니

우리 어머니 들오신다 꽃방석을 깔아들여
우리 아버지 들오신다 금방석을 깔어들여
의붓어매 들오신다 짚방석을 깔아드려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갈적엔 함박꽃이 너울너울
그 꽃을 꺾으려 하니 눈물이 앞서서 못꺾겠네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갈적엔 양복쟁이가 왔다갔다

의분 어매 산소에 갈적엔 찔레꽃이 너울너울
그 꽃을 꺾으려 하니 웃음이 나와서 못꺾겠네

6. 맷돌돌리는소리

이자돌려서 빨리 돌려서 밀을 한되 갈어
시아버니 진지상을 올려
애들은 배가 고파 아우성을 치는구나
선산에 무슨 죄를 타고 나서 이 고생을 허느냐
쌀 한톨도 구경도 못해보고 이놈에 밀을 또 가네

7. 아기어르는소리 - 방아타령

방아 방아 방아야 쿵쿵 찧는 방아야
방아 방아 방아야 쿵쿵 찧는 방알세
아침방아 쪄라 점심방아 쪄라 저녁방아 쪄라
방아 방아 방아야 쿵쿵 찧는 방알세

8. 자장가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짓지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 아기 잠잘자게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잔다
엄마 등에 업히어서 새근새근 잘도잔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잔다

인천광역시는 완전히 도시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종목 발굴이 어려운 곳이다. 그런 곳에서 여자들의 민요를 발굴해 출전했다는 점에서 노고를 치하할만하다. 이번 대회에서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아리랑상을 수상했다.





● 경상북도 / 덕양풍물 / 청도덕양풍물단

종목 농악
수상 충남도지사(입장상)
상금 1,000

청도 덕양풍물은 풍각면 일대의 정월대보름 기싸움놀이에서 유래했다. 서낭기를 앞세워 기싸움에서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던 전통사회의 믿음이 표현된 것으로, 마을의 대동제와 놀이적 성격이 확인된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 일대에는 정초에 마을마다 천왕기를 앞세우고 기싸움을 하는 천왕기싸움놀이가 성행했다. 천왕기싸움놀이가 벌어지면 풍물패가 마을의 위세를 뽐내면서 흥을 돋운다. 그리고 풍물판굿을 펼치면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함께 즐겼다. 한편 정월대보름 전에 벌어지는 당제와 지신밟기는 한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염원하는 성격의 대동놀이였고, 이것이 점차 청도 덕양풍물로 발전했다.

덕양풍물은 굿거리, 부정굿, 연풍기굿, 자진모리굿, 물레굿, 진굿, 농사굿, 김매기굿, 타작굿, 조름쇠, 오방굿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상쇠와 상모잽이들의 농사짓는 모양을 모방한 농사풀이 형태의 진풀이가 그 특징을 이룬다.

청도 덕양풍물은 12가락 36마치의 기본구성을 가진다. 가락은 3박과 2박의 혼합박인 질메구, 조름쇠, 덥빼기, 무정작궁, 판단타굿가락 등이다. 각각의 거리는 쇠가락에 따라 점차 여러 진법으로 전개되며, 빠르고 씩씩한 쇠가락은 주로 조름쇠, 겹가락, 덥빼기가락을 구사한다. 북가락은 외북의 어깨짓을 바탕으로 한 엇북가락과 가락과 가락을 넘나드는 넘나들이라는 가락을 구사한다.

농사풀이로 진행되는 농사굿, 김매기굿, 타작굿 등은 춤매구에 맞춰 몸짓하는 덥배끼가락의 춤과, 농요인 '방애소리',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천왕받기가 삽입되는 특징을 드러낸다. 농사풀이에서 상모잽이들은 외상모, 사사치기, 찍음상을 바탕으로 농사짓는 모습을 본뜬 모양을 보여주는데, 상쇠 역시 종이로 만든 부풀이로 찍음상, 사사치기, 꼭지치기 등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다.

청도 덕양풍물은 인근 지역 농악인 차산농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경상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락인 덧배기(덥빼기)가 확인되며, 특히 군사농악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또한 유의미하다. 여기에 농사풀이의 형식이 포함되어 있어 다면적인 농악의 양상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1.10.06~10.09,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

1. 개괄

국내 최대 민속예술제인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주제어 '아으 동동다리, 얼쑤! 둥둥다리'와 함께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기원과 영호남 민속예술의 화합을 주제로 한 뜻깊은 행사였다. 특히 고려가요 <동동>의 여음인 '아으 동동다리'라는 북소리의 의성어를 주제로 해 한국적이면서도 지역적인 흥이 담긴 문화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지역 현장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는 현장예술의 맥을 이으면서 민속예술의 가치와 의의를 되살리는 자리였다. 또한 본행사 외에 축제 동안 여수 문화예술인의 밤 '동동', 대한민국 민속예술인, 학자, 관계자의 만남과 소통의 밤인 '막걸리와 민속학', 김운태 채상소고춤 명인을 비롯한 여섯 명인이 선보인 마당춤 '명무전' 등 특별 행사가 펼쳐져 민속예술 갈래의 다양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아울러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전축제 형식의 〈개열림굿〉은 10월 3일 개천절 하늘과 바다가 열리고 땅의 축제가 열리면서 통영의 남해안별신굿과 만나 합굿하는 것으로,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굿판으로 좋은 선례를 남겼다. 또한 한국민숙예술축제 역사상 유례없이 나흘 동안 4만여 명 관객 동원과 높은 참여도로 축제의 장을 뜨겁게 달궜다.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모든 관객에게 점심과 다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매일 두 차례씩 관객참여마당을 열어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객도 축제의 주체임을 인식시키며, 모두가 하나임을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축제의 과제는 '잃어버린 관객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우리 민속예술이 한바탕 신명풀이를 위한 공연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축제에는 일반부 전국 시도 및 이북5도 21개 팀과 청소년부 전국 시·도 15개 팀 등 총 2500여 명이 참가해 경연을 벌였으며, 대상을 받은 팀에게는 각각 대통령상과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경연에 참여한 단체는 충청남도 '서산 덕지내·돌개미 두레놀이' (장동덕지천동주민회), '대구광역시 달성다사12차진굿' (달성다사12차진굿보존회), 전라북도 '전주기접놀이'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 '영등굿 떼몰이놀이' (용담1동 민속보존회), 경삼남도 '초전 보리일소리' (사천문화원), 황해도 '서도선소리산타령놀량서거리' (서도선소리산타령보존회), 광주광역시 '칠석농악'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평안남도 향두계놀이(향두계놀이보존회), 함경북도 애원성(함북민속예술보존회), 평안북도 '평안도다리굿' (평안북도민속보존회), 대전광역시 '유성용반골 착정놀이' (대전민속예술연구회), 서울특별시 '경복궁지경닻이기' (경복궁지경닻이기보존회), 경기도 '동두내두레소리' (동두내옛소리보존회), 충청북도 '영동 질골막장소리' (질골전통민속보존회), 부산광역시 '수영지신밟기'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회), 울산광역시 '울산매귀악' (울산매귀악보존회), 경상북도 '금릉빗내농악' (금릉빗내농악보존회), 전라남도 '영광서남면들노래' (한국국악협회영광군지부), 인천광역시 '쑥대고잔지경소리' (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 강원도 '들골대마지놀이' (남면북쌍1리 마을회), 경상남도 '함양들놀이소리' 등이다.

2. 참가 종목

● 경상북도 / 금릉빗내농악 / 금릉빗내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금릉빗내농악은 경상북도 김천시[金泉市] 개령면[開寧面] 광천동[廣川洞] 빗내마을에 전승되어온 농악이다. 개령면은 금릉군에 속한 지역으로, 삼한시대에는 감문국[甘文國]이라는 부족국가가 있던 자리로 알려져 있다. 곡창지대의 전형적인 농촌인 빗내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엿새에 동제[洞祭]를 열었고, 이어서 농악놀이와 줄다리기도 행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진행하는 동제를 빗신[神]굿이라고 했는데, 빗신굿 본제에 앞서, 당산에 올라가 고하는 당산매구를 친 다음 마을로 내려와 지신밟기를 했다. 빗신굿 본제 뒤를 잇는 줄다리기는 동네를 동과 서로 나눠 줄을 당겼고, 이때 농악대와 각지에서 모여든 무당들이 두 패로 나뉘어 다드래기 가락으로 응원을 했다.

또한 단순한 농악이 아니라 빗신과 연결되는 점, 농사굿이 아닌 진[陣]굿으로 발전한 점, 상쇠의 계보가 정재진, 이군선, 윤상만, 우윤조, 이남춘, 김홍엽, 한기식, 손영만에 이르기까지 뚜렷하게 이어진 점, 자진모리류가 주종을 이루며 가락이 다양하고 힘이 있는 점, 그리고 판놀음의 대북춤, 양손을 벌려 활개치는 기러기춤, 풍물패가 서로 짝을 맞춰 박수를 치는 수박치기 등이 특색으로 꼽힌다.

쇠가락에는 질굿, 정저굿, 반죽굿, 다드래기, 연풍굿, 허허굿, 품앗이굿, 판굿, 영산굿, 채굿, 진굿, 굿거리 등이 있다. 특히 매구칠 때 상쇠가 “술먹세 술먹세 어풍치고 술먹세” 등의 소리를 내면서 농악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빗내농악은 36~46명 정도의 인원이 진행하는 진굿(군사굿)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흰색 저고리와 흰색 바지에 검은색 조끼를 입고, 홍·황·청 삼색띠를 두르며, 머리에는 전립을 쓴다. 북을 치는 치배들은 흰 꽃으로 장식된 커다란 고깔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쇠는 등판에 특별한 금빛 장신구가 달린 복색을 하고 앞이마에 꽃을 달아 지휘자임을 상징하는 점이 독특하다.

금릉빗내농악보존회에서 실연한 빗내농악은 전체 12마당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골매기굿, 질굿
쇠(꽹과리)에 맞춰 모든 풍물꾼이 춤을 추며 행진할 때 치는 가락으로, 빗내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가가호호 지신밟기를 하는 뜻도 된다.

2. 문굿(문굿, 정적궁이)
풍물꾼들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격으로 치는 가락이며, 정적궁이는 원진을 갖춘 판을 벌여 이를 준비하는 굿이다.

3. 마당굿(자진정적궁이, 반죽굿, 엎어베기, 품앗이굿)
상쇠와 중쇠의의 가락에 따라 전 풍물꾼이 빠른 가락으로 놀이훈련에 들어가는데, 상쇠와 종쇠가 서로 이동하면서 전 대원을 훈련한다.

4. 영풍굿
병사의 훈련을 의미하며, 쇠잡이들이 원진 안에서 놀다 원의 선두로 들어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앞으로도 가고 반대 방향으로도 가며, 또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놀이를 한다.

5. 판안다드레기, 소리굿

상쇠와 종쇠가 소리에 맞춰 쇠가락을 치며, 모든 풍물꾼이 가락에 맞춰 자기 악기와 장비가 이상 없음을 과시하며 신나게 뛰어논다.

6. 기러기굿(기러기굿, 소쩍굿)

기러기굿은 풍물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풍물꾼이 옆으로 뛰며 기러기 모양 팔을 벌려 덩실덩실 춤을 춘다. 소쩍굿은 상쇠와 종쇠가 가락을 번갈아 치며 한가운데로 들어가 몸을 한 바퀴씩 돌며 쇠놀음을 한다.

7. 허허굿

상쇠가 가락을 치다가 '허허허' 소리를 하면 모든 풍물꾼이 '허허허' 하며 대답을 하는데, 이는 자기 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상쇠가 끝난 후에는 종쇠가 이를 반복하기도 한다.

8. 쌍둥이굿(쌍둥이굿, 오방진굿)

풍물꾼들이 큰 원을 그리며 놀다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두 명씩 짝을 지어 작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오방진굿은 모든 풍물꾼이 다섯 개의 작은 원을 만드는데, 쇠가 안쪽에서, 북, 장구, 소고(2)는 바깥에서 원을 만들어 돌며 논다.

9. 판굿(채굿, 젯북)

판굿은 풍물꾼들이 양쪽으로 갈라선 굿판 가운데서 쇠놀이, 북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순으로 노는 것이다. 상쇠가 채굿가락을 치면 소고가 한 줄로 소고놀이를 하고 이어 젯북을 치며, 몇몇 소고잡이가 한가운데로 춤을 추다가 빠른 가락에 수박(손뼉)치기를 한다.

10. 영산다드레기

빗내진굿 중 어려운 가락과 놀이로 격렬한 전투 장면을 나타낸다. 악기와 소고가 두 패로 나뉘어 밀고 당기며 전쟁을 나타내는 격렬한 놀이를 한다.

11. 진굿(가세진굿, 홑진, 접진, 팔자진, 대진풀이)

진굿은 빗내농악이 가진 군사굿의 특징을 보여준다. 상쇠와 종쇠가 두 패로 나뉘어 진을 치며 노는데, 이는 격전을 벌여 적을 포위·섬멸하는 것을 나타낸다. 상쇠가 진을 풀면 모든 풍물꾼은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을 기뻐하며 한데 어우러져 흥을 돋우며 춤을 춘다.

12. 상사굿

놀이(전쟁)가 끝나고 각기 흩어져 흥겨운 마음으로 각 가정으로 돌아갈 때 느린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상쇠가 '얼룰루 상사듸야'를 선창하면 모든 풍물꾼이 뒷소리를 따라하며 돌아간다.

금릉빗내농악은 지역 농악의 특징이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경상도 지역 특유의 농악가락과 진풀이가 확인된다. 특히 진굿을 통해 군사농악적 면모가 잘 드러난다. 또한 경상도 내륙지역 여러 농악과의 연관성과 전라도 내륙지역 좌도농악과의 긴밀한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 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릉빗내농악의 전통적인 면모가 잘 정리되어 경상도 내륙지역 농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전라남도 / 영광서남면들노래 / 한국국악협회영광군지부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영광서남면들노래는 영광군 서남쪽(군남, 군서, 백수, 염산면 등)에 있는 들에서 농사를 지으며 불렀던 논농사소리다. 1993년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던 영광대화들노래, 2007년에 출전해 은상을 받은 옥당골들노래와 개인상을 받았던 선소리꾼(박균찬)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영광 서남면에 위치한 들녘은 불갑산과 삼각산 군유산에서 발원해 서해 칠산바다로 흐르는 불갑천과 용암천·대창천이 합수되어 수원이 좋아 한발이 없는 광활하고 기름진 들이 널리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이 비옥해 이곳에서 나오는 쌀은 미질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농업의 기계화 이전에는 품앗이로 논매기를 해 많은 노동요가 전해졌다. 이러한 소리를 고로들의 증언과 기억을 통해 다시 재현하며 대회에 출전했다. 영광서남면들노래는 모심기, 두름밟기, 김매기, 오임쌓기, 장원질 등 다섯 마당으로 구성된다.

1. 모심는 노래 - 상사소리

2. 두름밟기 노래 - 방제소리

3. 김매기 노래 - 무삼벗기는소리, 세화소리(초벌)
- 절사소리(두벌)
- 만경소리(세벌)

4. 오임쌓기 노래 - 싸오소리

5. 장원질 노래 - 얼사소리

영광은 전라남도 서남해안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넓은 평야에서 발달한 느리고 유장한 소리를 특징으로 한다. 무삼벗기는소리와 같은 소리는 시조창과도 닮았다는 평을 듣지만 근래에는 전승이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리들을 엮어 전승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 / 동두내두레소리 / 동두내옛소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논농사소리다. 기우제 행사인 물까부리와 논농사소리를 묶은 두레소리, 칠월 백중에 힘든 논농사를 마치고 노는 호미씨세의 세 가지를 묶었다.

논농사에 필수인 물이 부족할 때는 기우제를 지내 비를 빌었는데, 이를 물까부리라 불렀다. 물까부리는 아낙네들이 빌었는데, 특히 첫 아들을 낳은 아낙네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잘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앞에 흐르는 시냇물에 나가 맑은 물로 '키'로 까불어 비나리를 했다. 아낙네 30여 명이 속옷 바람으로 미친 듯이 나뒹굴면서 정신없이 춤을 추며 옥황상제에게 억수 같은 비를 내려달라고 공수를 드린다. 장구, 북, 쇠를 치고 두드리고 때굴때굴 구르면서 야단법석으로 춤을 추면 옥황상제가 아낙네들의 꼴이 보기 싫어 호령하듯 천둥 번개를 치며 억수장마 같은 비를 주룩주룩 내려준다고 믿었다.

농사철이 되면 논둑마다 가래질을 하고, 비가 오면 두레패를 만들어 동두내소리 '훠나기타령'을 하면서 모를 낸다. 모낸 지 20여 일이 넘으면 '긴방아타령'을 하며 애논을 매주고, 또 보름이 지나면 '잦은방아타령'으로 두벌논을 맨다. 모를 내는 데 해 질 무렵 되어 모를 다 못 낼 것 같으면 두레꾼들이 빠른 농악 가락에 맞춰 빠른 손놀림으로 모를 낸다. 이를 '빵빵이 모'라고 부른다.

7월 백중이 되면 호미를 씻어둔다고 해 호미씨세 놀이를 한다. 이는 호미를 사용하는 일이 다 끝났다는 의미다. 은행나무 밑 그늘에서 온종일 어유소장군이 들던 장사 돌을 들어 새로 장사를 탄생시킨다. 놀러 나온 아이들을 무동 태우고, 농악과 함께 옛 소리를 부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기나긴 여름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이를 했다.

1. 모심는소리 - 훠나기타령

(받는소리)　훠나 훠나 훠나기로구나
(메기는소리)　이곳 저곳에 꽂아도 삼배출로만 꽂아라
오월오일 단오날에 물색이 생시한다
오이밭의 풀을 따니 이슬이 젖었도다
훠나 훠나 훠나기로구나
앵두익어 붉은 빛이 아침볕에 비치도다
목 맺힌 영계 소리 악임벌로 자로 운다
00 아녀들아 추천을 말려니와
청홍상 창포비녀는 가절을 허송마라
산천이 진하사 유연이 자군하니

2. 논두렁밟기

3. 초벌논매기 - 긴방아타령

(받는소리)　에 히어라 방아 요오
(메기는소리)　우리 농부야 재매어라 춘분시절에 이때로구나
뒷동산에 살구꽃은 가지나 가지 봄빛이요

4. 지게상여놀이

(받는소리) 허허허허 어거리 낭차 어하
(메기는소리)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설워마라
명년 삼월 봄이 되면 너는 다시 피건마는

<자진소리>

(받는소리) 어허
(메기는소리) 어허

5. 두벌논매기 - 자진방아타령

(받는소리) 에히어라 방아요
(메기는소리) 먼뎃 사람은 듣기도 좋게
가까운데 사람은 보기도 좋게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슬금슬금 매 봅시다
사당골의 박달나무
조산 마루서 내려다보니
행담마을 은행나무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양지가 밝아서 양지말이냐
응달이 졌다고 응달말인고
물이 귀해서 무수군이냐
굿당도 없는 무당모루

6. 물까부리

7. 세벌논매기 - 어하소리, 우야훨훨

(받는소리) 어어어 어히- 어허 어허 어허하
(메기는소리) 어하소리는 논매는 일꾼의 소리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잎은 꺾어 입에다 물고

<새쫓는소리 - 우야훨훨>

(받는소리) 우야훨훨
(메기는소리)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우야훨훨
우야훨훨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 전승되는 논농사소리를 엮은 작품으로,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후 2013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55호 동두천민요로 지정되었다.





● 충청북도 / 영동질골막장소리 / 질골전통민속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영동질골막장소리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가곡리, 금곡리의 3개 부락을 일컫는 옛 지명인 질골의 형석광산에서 전승되어온 민요다. 질골 중 부상리에 있는 형석광산은 조선 중엽에 개광[開鑛]해 전국 최고의 형석광산으로 알려졌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1970년대 초까지 채광[採鑛]되어오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던 시기에 휴광[休鑛]되었다.

질골막장소리는 막장에서 돌을 캘 때 정을 대주는 정잽이와 양옆에서 정을 두들기는 맹이꾼이 호흡을 맞춰 부르던 '쌍맹이소리',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짝을 이뤄 양귀에 동아줄을 엮은 가마니에 튼튼한 나무 자루를 끼우고 목 위에 걸쳐서 광물을 운반할 때 불렀던 '목도소리'가 포함된다. 목도소리는 상호 간의 호흡(걸음 속도, 방향, 발 디딤 등)을 맞추기 위해 부른다. 또한 광산의 번영과 국태민안, 그리고 광부의 안가태평[安家泰平]을 염원하는 축원고사[祝願告祀]인 꽃반굿의 고사덕담[告祀德談]이 전승되고 있다. 이 대회에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직접 광산에서 일을 했던 광부들이 직접 참가했다고 한다.

1. 돌캐는소리 - 쌍맹이소리

(받는소리) 아하 산이야
(메기는소리) 여기도 산이고
강원도 원산에
인심이 좋아
금강산 호랑이
으르렁 거릴제
앞동산 꾀꼬리
꾀꼴 꾀꼴

2. 목도소리

(받는소리) 어하
(메기는소리) 하저호호 이
허하
허여차 히야
잘도한다 헤야
하저 허
허여차 허야
난간이다 허
조심해라 헤야
다잘한다 헤야
가자가자 허
감나무야 헤야
오자오자 허
옻나무야 허

쌍맹이소리와 목도소리 두 곡을 반복해 노래한다. 쌍맹이소리나 목도소리 모두 구호 중심의 노래이

며, 메기는소리가 짧게 들어간다.

3. 고사소리

고실고실 고산이요 산이허니 고사로다
산지조종은 곤륜산 수지조종 황해수
곤륜산 정기가 뚝 떨어져서 어딜로 갈지 몰랐더니
서울이라 삼각산 제일봉이 생겼구나
제일봉이 뚝 떨어져서 어디로 갈지 몰랐더니
충청도 영동땅에 백화산이 생겼구나
백화산 정기가 뚝 떨어져서 어딜로 갈지 몰랐더니
충청도 영동에 부상지가 생겼구나
부상광산 생겼으니 어이 아니 좋을소냐
부상광산 터를 보자 부상광산 터를 보자
앞으로 보니 일천봉 고관대작 날자리요
뒤로 보니 감터봉 육조판서 날자리라
옆으로 보니 연두봉 삼정승 날자리라
부상광산 잘되면은 국태민안 하옵시고
우리동네 부자되면 우리 서로 잘살구요
노적봉에 학이 앉아 한 날개 뚝딱치면
일천석 쏟아지니 그 아니 좋을시고
다른 날개 툭툭 치니 철이 천석 쏟아진다
온 몸을 툭툭치니 억수만석 쏟아진다
이만허면 넉넉하니 이보다 더 바랄 소냐

듣기가 매우 어려운 귀한 소리다. 구호 중심이기 때문에 음악·문학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기는 어렵지만,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이 불렀던 노동요로써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문화재청장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영등굿떼몰이놀이 / 용담1동민속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떼몰이놀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영등굿의 맨 마지막 순서인 '배방송' 제차에서 행하는 경조[競漕]·경주 놀이로써, '약마희[躍馬戱]' 또는 '테몰이놀이'로도 부른다.

배방선은 '송신[送神]'의 제차로, 짚으로 만든 조그만 배(퇴송선)에 제상에 올렸던 갖가지 제물과 돈, 백지를 실어 동쪽 바다로 띄워 보내는 의식이다. 우도[牛島]를 거쳐 강남의 천자국으로 영등할망을 보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떼몰이놀이는 영등굿을 하는 포구에서 행해지는데, 마을 남자들이 자기 소유의 떼배를 몰고 굿에 참여한다. '영등굿 떼몰이'는 음력 10월 테우 제작에서 떼몰이까지를 일대기 형식으로 보여주고, 실제 영등굿의 떼몰이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극적으로 구성했으며, 출연진 전원이 바다 농사의 풍등과 해상사고 예방을 기원하는 '지드림'을 펼쳐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이다.

영등굿의 떼몰이는 제주 해안 마을에서 의례적으로 펼쳐졌던 굿놀이로, 해마다 정월 그믐 때에 서풍이 크게 불어오면, 이를 두고 영등신이 온다고 여겨 해안 마을에서 무당을 불러 들판에서 밤낮으로 이어지는 큰 굿을 펼쳤다. 떼배에 말머리 모양을 만들어 삼색비단으로 장식하고, 2월 10일부터 보름날까지 떼몰이를 해 신을 즐겁게 한다.

약마희의 단락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2월 초하루 영신[迎神], 오신[娛神]', '2월 보름 송신[送神]'의 절차다. 약마희가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의 절차라면, 배방송의 의례는 신을 잘 모셔 전송하는 송신의 절차이므로, 둘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가락국의 '희락사모지사'는 영신의 절차이니 역시 약마희의 오신의 절차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영신과 송신의 절차와 연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신의 의미를 별도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배방송 제차가 시작되면 남자들이 심방으로부터 제상에 올렸던 제물을 실은 퇴송선을 받아들고, 각 집안의 떼배를 몰며 선창으로 모인다. 이때 수심방이 나와 "강남 천자국으로 배 놓아 갑시다. 올 금년엔 영등대왕님께 많은 재물을 실었으니, 멩년 나건 또 옵서. 자! 강남 천자국으로 배 놓아 가자!" 하고 소리치면, 출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던 남자들이 함성과 함께 일제히 떼배의 노를 젓는다. 이때 포구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안의 배가 장원하기를 바라며 큰소리로 응원을 한다.

떼배들은 먼저 영등할망을 보내려고 노를 저어 일제히 먼 바다로 나아간다. 제물을 실은 퇴송선을 띄울 지점에 이르면 수심방이 세 번 징을 쳐서 신호하고, 남자들은 떼배에 싣고 간 퇴송선을 띄워 놓고 일제히 돌아온다.

떼배 경주가 끝나면 수심방이 "누구네 배가 장원이다!" 하고 소리치며 등수를 알린다. 장원한 집에서는 그해에 "운수가 대통하고 풍어가 든다"고 해 돼지를 잡고 마을 잔치를 벌였다.

영등굿은 여자들이 주도하는 굿이지만, 떼몰이놀이는 마을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끈다. 놀이에서 남자들이 타고 나가는 떼배는 80~90년 전까지만 해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로만 만들었다고 한다. 다른 나무로 만들면 부력이 좋지 않아서다. 그러나 구상나무가 귀해져 40~50년 전부터는 삼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떼배는 현재 제주도와 강원도 정동진 일대에만 일부 남아있는데, 통나무를 연결해 밑판을 만들고, 밑

판 위에 상자리와 돛대 등을 올려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뗏목 배였다. 주로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자리돔을 잡거나 낚시질, 해초 채취 등을 했으며, 때로는 주변 지역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했다.

영신의 절차에서는 장대 열두 개를 세우고 신을 맞이했다고 한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와 송석하[宋錫夏] 등에 따르면, 193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육지나 섬마을에서 2월 동일한 시기에 대나무나 나무 장대를 세워, '영등할마니'나 그 밖의 이름으로 불리는 바람의 신에게 비는 제사가 행해졌다. 제주도에서도 2월 14일에는 심방이 '영등대[龍竿]'라 칭하는 신기[神旗]를 단 신대[神竿]를 들고 요령을 흔들며 주문을 외면서 마을의 집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영등풍신에 대한 영신의 절차는 육지와 비슷하지만, 영등신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육지와 달리, 제주에서는 바다 멀리에서 온다[渡來]는 사유가 있었다.

그 절차는 '말머리 모양의 떼배[槎形]를 만들어 채색 비단으로 꾸미고 약마희를 해서' 오신[娛神]했다고 한다. 그런데 '떼[槎]'를 제시하고 뒤에는 '약[躍]'을 훈차해 '떼'라 하며, 앞의 말은 말[馬]인데 뒤에는 '말'을 훈차해 '몰'이라 하면서 약마희를 '떼몰이'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사형'은 '비스듬한 모습' 또는 '나무 등걸 형상'으로 해석해 '비스듬한 모습의 말머리에 비단으로 채색하고 말이 뛰는 듯한 놀이를 벌여 오신했다'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는 신을 맞이하고자 말을 달려 경축하는 놀이를 벌였던 '희락사모지사'처럼 말을 달리는 놀이를 벌였을 것이다.





● 평안북도 / 평안도다리굿 / 평북민속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전남도지사(은상)
상금 4,000

우리나라는 전국에 망자의 저승천도를 위한 굿이 있으며, 서울의 새남굿, 진오기굿 등과 같은 형태의 지역 사례가 많다. 이중 평안도다리굿은 오래전부터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사령[死靈]굿으로, 망자[亡者]의 한을 강신무[降神巫]를 통해 풀고, 이승의 미련을 떨친 채 저승에 편히 안주하기를 비는 굿이다.

평안도다리굿은 규모가 크고 불교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으로, 평안북도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굿 형태다. 다리굿의 구성은 열 네거리로 되어 있다. 신[神]께 아뢰는 당 울림을 시작으로, 잡귀를 물려 굿청을 정화하는 '주당푸념', 신들을 청해 들이는 '앉은청배', 명[命]을 주는 칠성신과 복을 주는 제석[帝釋]을 모시는 '칠성굿', 잡귀영정을 풀어먹이는 '영정거리', 서낭을 모시는 '기쁨·서낭굿', 재수를 빌어주는 흥겨운 '대감굿'으로 이어진다. 대감굿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망자[亡者]를 위한 굿에 들어가 망자가 무당의 입을 통해 생전에 맺힌 한을 풀어가는 '기밀굿'을 한 다음, 저승사자를 모시는 '사자[使者]굿', 망자의 저승천도를 비는 '다릿발세경'을 하고, 이어지는 뒤풀이에서 굿에 들어온 잡귀를 모두 풀어먹여 보내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다리굿은 살아있을 때 하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해 부유한 집안에서는 나이든 노인을 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산다리굿'이라 칭한다. 다리굿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상다리, 사자다리, 망자다리, 수왕다리 등으로 불리는 '다릿발'이다. 일곱 자, 일곱 치 길이의 삼베와 무명천(근래에는 소창을 사용함)을 준비해놓고 대무당이 굿소리를 하면서 다릿발을 오가며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인도한다.

평안도다리굿은 현재 김남순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평안도의 대표적인 민속문화다. 죽은 자의 넋을 달래고 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적 색채를 띤다. 또한 대표적인 북한 지역 민속문화로서 일찍이 학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인 만큼, 지역 전통과 특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전승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강원도 / 들골대마지놀이 / 남면북쌍1리마을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대마지놀이이는 시신의 운구 수단인 상여를 메는 상군들의 일체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두고 '발을 맞춘다'라고 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슬픈 감정을 해학적으로 승화해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와의 마지막 이별을 하게 하는 놀이다.

이 놀이는 다복하게 천수를 누리다 돌아가신(보통 호상일 경우) 고인을 대상으로 선소리꾼 가락에 맞춰 사전에 발을 맞추고 정비하며, 다음날 행위인 전날(드장) 사위들을 상여에 태우고 격하게 놀던 놀이이며, 회다지까지 연습이고, 장례를 마친 후 진사놀이와 말 멕이는 상여꾼들을 잘 대접하하고 사위들을 놀린다.

제1과장 '입장·초다짐'

소리꾼1: 동네 사람들-오늘 들골에 엄씨 어르신 돌아가셨으니 모두모여 초상준비 하세-
동네 사람들: 예- (각자 소품들고 입장:곡소리 깔린다)
소리꾼1: 아니 그 어르신 올해 춘추가 얼마지?
소리꾼2: 아마 아흔 여덟인가 아홉인가 할거야.
소리꾼1: 그럼 오래 사셨네, 시셋말로 호상이네 호상이야.

제2과장 '말멕이'

소리꾼1: 자~ 이제 진사놀이도 끝났으니 말 멕이로 간다-
오호 호야 오호 시너리나네-
소리꾼2: 나도 소리 한번 멕여봐야지
소리꾼1: 그래, 자네도 한번 해보게

제3과장 '회다지'

소리꾼1: 자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으니 내일출상을 위해 회다지발이 나 한 번 해보세.-
소리꾼2: 아니 이집 사위들 다 어디 갔냐? 사위 데려 오세

제4과장 '진사놀이'

소리꾼1: 진사놀이 나간다. 진사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진사놀이 마치며 진사났네- 진사났어

제5과장 '대마지놀이'

옛날 옛법 버리지말고 새로새법내지말고 우리 대마지놀이한번 거하게해보세-
오호 넘차 오호!

지게를 가지고 하는 상여놀이는 전국에 분포하는데, 강원도에서는 나무꾼들이 지게를 연결해 지게상여를 만들고, 상여소리에 맞춰 장사를 지내는 놀이를 했다. 이때 마을에서 마음씨가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을 지목해 장사를 지내는 흉내를 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전라도에서는 봄에 진달래가 피면 진달래꽃으로 지게를 장식한 꽃상여를 만들어 나무꾼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장례를 치르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 앞에서 누군가가 상여소리를 하면 나무꾼들이 뒷소리를 받아서 함으로써 상여놀이뿐만 아니라 상여소리 역시 매우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학습되는 효과가 있었다.

가장 큰 특징은 지게꾼들의 역동적인 동작과 구성진 얼러지타령, 상여소리, 회다지소리 등이다. 이는 산간 농촌에서의 소박한 화전 생활에서 생겨난 민속이다. 지게와 작대기만을 이용한 지게놀이는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여준다.





● 전라북도 / 전주기접놀이 /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1,000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의 여러 마을에서 농기[農旗]를 가지고 벌이던 민속놀이로, 용기[龍旗]놀이 또는 계룡리 합굿으로도 부른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 무렵까지 성행했으나, 이후 1956년까지 간헐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다. 1974년 풍남제에서 재현된 후 현재까지 매년 백중일에 기접놀이가 행해진다.

전북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은 옛 전주부의 우림면, 난전면으로 불리다 후에 우전면으로 불리던 곳으로, 현재는 전주시 삼천동 2가에 편입되어 있다. 기접놀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탄압으로 소멸되었으나, 우림면 계룡리의 4개 마을(함띠, 용산, 비아, 정동) 일대는 당시 면장[面長]의 보호 아래 마지막까지 명맥을 이었다고 한다. 이곳 모악산의 수려한 자연 속에 광활하고 비옥한 농토가 있으며, 후덕한 인심과 더불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심[農心]의 고장이기도 하다.

고증에 따르면, 기접놀이는 난전면 중평, 산정, 학전 같은 마을과 우림면의 계룡리 4개 함띠, 용산, 비아, 정동마을 주민들이 칠월 칠석이나 백중에 다른 마을의 초청으로 술맥이굿을 벌이며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민중 행사이자, 백중날 각 마을의 단결을 다짐하며 열리던 일꾼 중심의 축제였다.

1974년 제16회 풍남제 민속놀이 재현 자료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용기[龍旗]는 고종 31년(1895) 8월 15일에 평화동 중평마을에서 제작된 것이다. 당시 상좌 임성숙과 회원 윤공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용 그림은 1936년 벽곡이 그렸다고 되어 있다. 1930년대에 제작된 비아마을의 용기와 1940년대에 제작된 정동마을 용기가 현재까지 전해지는데, 여러 곳이 찢기고 헐어 긴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용기에는 용을 비롯해 거북이와 잉어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농경문화에서 용신을 섬기는 전통적인 공동체 신앙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각 마을은 똑같은 크기의 용기와 백기[白旗]를 가지고 있었으며, 백기는 남성기[男性旗]라고 해 마을 공동작업인 두레와 마을 주민 행사에 등장했고, 용기는 여성기[女性旗]라고 해 합굿놀이때만 등장했다.

한여름 모내기를 끝내고 두세 차례 김매기를 마치면 칠월 칠석이나 백중 무렵이 된다. 이때 합굿놀이를 주최하고자 하는 마을이 총회를 열어 합굿 일정을 결정한 후 이웃한 형제마을을 초청한다. 기접놀이의 인원은 좌상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공원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기재사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농기수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영기수 8명(4개 마을 각 두 명씩), 사동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나팔수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풍물패 44명(4개 마을 각 열 한명씩) 등으로 구성된다.

용기 크기는 폭 3m에 길이 5m로, 흰 광목에 용을 그렸으며, 기주[旗柱]와 접촉 부분에는 제작 연월일을 기록했다. 기주는 길이 8m에 지름 15~20cm의 대나무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보존을 위해 대나무 속에 나무를 깎아 채워 만들었으나, 현재는 대나무만 사용한다. 놀이의 연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접놀이 결정

비아마을 모정[茅亭] 앞 광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마을의 좌상을 비롯한 유지들이 모

정에 모여 기접놀이에 관해 논의한다. 좌상의 주도로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좌상의 지시로 알림판을 들고 영기[令旗]를 든 채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마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풍물패는 한바탕 흥겨운 굿판을 벌인다.

풍물굿이 끝나면 좌상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백중날 이루어질 행사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다.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야-" 하는 함성으로 답한다. 백중날 기접놀이를 하기로 결정하고, 주변 마을을 모두 초청해 풍년을 기원하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마을 회의에서 결정한 문제는 공원[公員]을 통해 잔치를 준비하고, 마을 전령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 날짜를 알리며 참석 여부를 묻는 전령을 보낸다. 전령은 영기를 앞세우고 정동마을, 용산마을, 함띠마을을 차례로 돌며 기접놀이를 알린다. 전령을 맞이한 마을에서 입구 오른쪽에 영기를 꽂으면 초청에 응한다는 것이며, 입구 양편에 영기를 꽂아놓으면 불참하겠다는 표시가 된다.

2. 마을회의

초청된 각 마을의 좌상이 사동[使童]을 앞세우고 등장한 후 모정 위에 자리를 잡는다. 이때 사동이 마을 이름이 적힌 간판을 들고 어른들 뒤에 서 있으면 회의가 시작된다. 백중날 아침에는 각 마을의 좌상과 유지가 모여 농사철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점과 송사[訟事]를 처리하고, 보를 막거나 용배수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 도수로를 개설하는 일과 같은 마을 공동의 연중 사업 규모를 서로 토론해 결정짓는다.

마을 회의는 마을 간 친목은 물론이려니와 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행위다. 이러한 행사를 통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는 전통 사회의 지역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본적 토대가 된다.

3. 이웃마을 손님 접대

비아마을 풍물패는 두 패로 나뉘는데, 한 패는 영기를 앞세우고, 다른 한 패는 정동마을로 마중을 나간다. 이때 정동마을 풍물패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 서로 인사하고 약속 장소인 삼천천변으로 모인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용산마을, 함띠마을 풍물패를 맞이한다. 중간 지점에서 만난 풍물패와 마을 사람들은 영기를 서로 교환한 후 한바탕 흥겨운 풍물을 치고 이동한다. 초청한 마을 사람들도 초청에 응한 마을 사람들을 마중해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 판굿

천변에 집결한 마을 네 곳의 풍물패와 마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정렬한다. 이때 각 마을 어른들이 모인 모정을 향해 한 마을씩 인사굿을 한다. 어른들에 대한 인사가 끝나면 비아마을은 동쪽에, 정동마을은 남쪽에, 용산마을은 북쪽에, 함띠마을은 서쪽에 진을 쳐 자리를 잡는다. 각각 자리를 잡은 풍물패는 흥겨운 풍물굿을 하며 흥을 돋운다. 흥겨운 풍물판이 끝나면 각 마을이 풍물굿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 순서에 따라 한가운데로 나와 풍물굿판을 벌인다. 마을 대항 풍물경연대회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때 마을 좌상들이 공정하게 심사해 가장 잘한 마을에게 상을 내린다.

5. 용기이어달리기

마을 이름이 적힌 간판을 든 사람들이 백여 미터 지점에 십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반환점을 세운다. 비아마을 공원의 지시에 따라 용기를 든 첫 장정이 출발 지점에 서고, 용기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 차례로 경주 대형으로 도열한다.

첫 번째 주자가 용기를 들고 뛰다가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자에게 넘겨주고, 두 번째 주자는 반환점을 돌아 세 번째 주자에게 용기를 넘겨주며, 세 번째 주자는 중간 지점에서 네 번째 주자에게 용기를 넘겨준다. 이렇게 해 가장 먼저 도착한 마을이 우승하는 것이다. 이긴 마을의 장정들은 진 마을의 고삐를 잡은 채 마을 전체의 풍물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6. 용기놀이

용기이어달리기에 이어 흥겨운 놀이판이 끝나면 우승한 마을부터 곱게 단장한 마을의 기재사[旗才士]가 용기를 높이 들고 풍물소리에 맞춰 의기양양하게 등장한다. 한가운데에 등장한 기재사는 둥그렇게 늘어선 풍물패 속에서 용기놀이를 벌인다. 마을의 힘센 장정이 벌이는 용기놀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힘과 기[氣] 그리고 예[禮]가 곁들여진 용기놀이는 오랜 기간의 훈련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용기놀이를 통해 마을 장정들이 힘을 드러내고, 용기놀이를 가장 잘한 장정은 모든 이의 인기를 독차지했다고 한다. 용기놀이에는 기펼치기, 기높이들기, 내려깔기, 파도타기, 마당쓸기, 고네받기, 이마놀이, 어깨놀이, 기나발, 용기춤 등이 있다.

7. 용기부딪치기

용기놀이가 절정에 달해 마을 사람들의 흥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개의 용기가 한데 뭉치는데, 이를 '용기부딪치기'라고 한다. 서로 기를 맞대놓고 높이 뛰며, 깃봉이 땅에 떨어진 마을은 곧 기의 제작연도를 현재로 바꾸며 마을 주민 모두 상위 마을에 인사를 한다.

8. 합굿

기세배가 끝나면 마을 네 곳의 주민 모두가 합세해 합굿놀이를 한다. 이때 모든 마을의 주민과 풍물패가 하나로 어울려 대동굿판을 벌인다. 각 마을 주민은 물론 인근 마을에서 구경나온 사람들까지 하나로 어울려 굿판을 벌인다. 합굿이 끝나면 초청한 마을인 비아마을이 각 마을의 중간 지점까지 환송한다.

전주기접놀이는 본래 술메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합굿맞이와 용기놀이에 초점을 두고 재현된 민속놀이다. 술멕이는 한 해 농사의 반 매듭을 짓는 행사로, 백중 무렵 술과 음식을 나눈다. 이때 기 다루기는 술메기의 정점에서 행한다. 두레꾼끼리 힘자랑도 하고 기예를 다투기도 하며 흥을 돋우는 게 본래 취지이지만, 간혹 경쟁심이 지나쳐 우발적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야말로 우발적이며 지엽적인 일이다.

전주기접놀이의 원형인 합굿맞이와 용기놀이는 전라도의 수부이며 대표격 곡창 지대인 전주의 위상과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천하지대본인 농사일의 한 매듭을 짓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무하는 과정에서 재밌고 정교하며, 예술성까지 담아내는 마을 문화의 정수이며, 전주기접놀이는 그 문화적 가치를 계승한 결과물이다. 전주기접놀이는 마을 내부의 결속과 마을 간 화해와 상생을 지향하며 공동체성을 회복게 하는 가치를 지닌다.





● 경상남도 / 초전보리일소리 / 사천문화원

종목 민요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경상남도 사천군 초전보리일소리는 보리씨를 뿌리고, 보리를 밟고, 보리를 타작해 수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동안 불렸던 여러 민요를 엮은 작품이다. 초전보리일소리는 보리 씨를 뿌리기 전의 흙덩이를 깨는 '디이깨는소리', 서리가 내릴 때의 '보리밟는소리', 덜 익은 보리를 훑어 죽을 끓여 먹으면서 부르는 <청상요>, 보리를 수확해 마을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모여 보리를 타작하던 '도리깨질타작소리'로 구성된다. 도리깨질은 아주 고된 작업으로, 힘과 기술을 함께 갖춰야 하는 보리타작 노래의 중심부를 이룬다.

1. 오봉산신령께 고사지내기
사천시에 있었으나 현재는 공항으로 변해 사라진 오봉산 전설에 의하면 초전 들판에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끌고 나가면 억울하게 죽은 백정의 원혼이 그 소를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 옛날에는 농사철이 되면 소를 위한 고사를 지낸 후 들로 나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소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보리농사를 지으려 들로 나간다.

2. 씨뿌리기
밭에 황소를 끌고 나가 홀치기로 골을 파고, 논에는 큰 흙덩이를 깨는 <디이 깨는 소리>에 마을 아낙네들이 품앗이하며 노래를 부른다.

3. 보리밭밟기
겨울 서리가 내리게 되면 땅이 얼러 보리 순이 땅 위로 뜨기 때문에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보리를 밟으면서 노동요를 부른다.

4. 보리바심하기
초봄 먹을 것이 귀할 때 풋보리를 꺾어서 죽을 끓여 먹었다. 이때 아낙네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청상요>를 불렀다.

5. 보리타작하기
보리가 다 익으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타작마당을 만들어 보리타작을 했다. 보리타작은 힘든 작업이라 노동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빠른 도리깨소리에 맞춰 타작했다.

6. 퇴장

그동안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논농사소리는 출전 사례가 많았으나 보리농사를 중심으로 한 작품은 없었다. 보리농사와 관련한 노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재단이사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참가자 여러분!
개최도시 미항여수



● 대구광역시 / 달성다사12차진굿 / 달성다사12차진굿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한국문화재재단(동상)
상금 3,000

달성다사12차진굿(달성다사농악)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의 동제인 당산제와 그 전통을 함께 한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의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풍물굿을 수반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달성다사12차진굿(달성다사농악)의 유래 또한 마을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름을 남긴 풍물꾼으로는 제1대 상쇠 추수호와 제2대 상쇠 추학엽(추한길)으로부터 가락을 계승한 제3대 상쇠 구석천(구태암), 이금달, 배무원(징), 구자영(장고), 김소권(소고)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상쇠 배기순이 소년 농악대를 결성한 바 있으나, 6·25 전쟁으로 소멸되었다. 이후 그가 다시 만든 농악대는 1962년 5·16 기념행사로 개최된 면 단위 동별 농악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60년대에는 밀양 박씨 박재수가 유명했는데, 당시 상쇠는 배기순(2009년 작고)이 맡았다. 함께 한 풍물꾼으로는 김형고(징), 구본만(북), 구자옥(북) 등을 들 수 있다. 다사농악은 1970년대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1980년대 들어서 침체기를 맞는다. 1986년 재결성한 다사농악대는 타 지역 풍물패와 교류를 확대하며 가락이나 판의 짜임새를 갖춰나갔다.

다른 지방의 농악이 '징의 타점을 기준으로 한 채'로 장단과 가락을 구분 짓는 것에 반해, 달성다사12차진굿(달성다사농악)은 경상도 지역 농악과 마찬가지로 '매구 가락을 기준으로 한 채'로 구분한다. 특히 진법에만 기준해 연행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고 분명한 '채'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달성다사농악은 아래와 같이 12차 36진법으로 연행한다.

1차 - 1진 집합굿, 2진 골매기굿(단마치길굿), 3진 길굿·먼길굿, 4진 군악길굿

2차 - 1진 본부석 인사, 2진 판딱이굿, 3진 관중인사

3차 - 1진 자진살풀이, 2진 길살풀이·반죽살풀이, 3진 덧뵈기 가락

4차 - 1진 진오방굿, 2진 순령굿

5차 - 1진 외덧뵈기, 2진 팔괘진 좌우치기, 3진 사치기 태극진풀이

6차 - 1진 초랭이 짝짓기, 2진 도드래기·사치기 인사굿, 3진 연풍굿

7차 - 1진 마당밟기, 2진 사토오방진굿, 3진 품앗이사토오방진풀이

8차 - 1진 가새치기, 2진 미지기, 3진 오방쌍진풀이

9차 - 1-2진 놀이마당(판굿)

10차 - 1진 고사리꺾기, 2진 허허굿, 3진 팔자진

11차 - 1진 기러기진, 2진 영산다드래기·첨지굿, 3진 잽이훈련굿

12차 - 1진 싸움굿, 2진 칭칭이굿(노래굿), 3진 인사, 4진 품앗이 행진가락

달성다사12차진굿은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는 당산제에서 유래했으며, 농사굿이면서도 신명풀이 현장을 이끌어간 연희굿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경상도의 전형적인 모의 군사굿, 즉 전쟁놀이 형식의 박력이 표현되는데, 이런 형식에 농사굿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군사굿으로서 긴장과 이완이 담긴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승에도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전승을 해 나가려는 노력이 보이는 가운데, 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 충청남도 / 서상덕지내·돌개미레놀이 / 장동덕지천동주민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여수시장(장려상)
상금 2,000

용대기놀이가 시작된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순조) 홍석모가 지은《동국세시기》호서 속편에 용대기와 농악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0~300년 이상 이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덕지내(덕지천 근립패)와 돌게미(장동 근립패)의 두레 싸움(용기싸움)이 대표적인데, 그 역사적 전통이나 성대한 규모는 다른 지방에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1940년대까지 성행했던 이 싸움은 이제 더는 찾아볼 수 없는 놀이가 되었다.

용대기놀이는 형제간의 우의와 예의범절에 바탕을 둔 놀이다. 두 마을 간에 선례 없이 그냥 지나가면 '깃뽕 뺏기' 싸움이 벌어지고 빼앗긴 마을이 아우가 된다. 아우 마을은 형 마을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새로운 친목과 단결을 맹세하면서 아우로서의 예를 올린다. 특히 두레패는 일본의 침략 폭정에 반감을 품으면서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다지는 집단이 되었는데, 일본 관헌의 감시와 간섭으로 강제 해체를 당하곤 했다.

1. 준비마당

논매러 가는 날 풍물단은 일찌기 약속 장소에 나와 용대기를 세워놓고 일꾼들이 빨리 모이도록 한바탕 신명나게 풍물을 처댄다. 일꾼들이 다 모이면 상쇠가 "자 가세!" 하며 장단을 길 장단으로 바꾸며 길라잡이의 안내를 받는데, 용대기가 선두에 서고, 풍물패가 바로 뒤따르며, 일꾼들이 그에 따라 논(작업장)으로 간다. 이때 풍물패나 일꾼 모두 동거리 잼벵의 작업복에 호미를 꿰차고 농립 도랭이 수건 등으로 장식을 갖춘다.

2. 논매기마당

논머리까지 가서 가장 넓은 논둑에 용대기를 세워 놓고 논매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북수가 북을 메고 논으로 들어간다. 소리(뇽요)는 대개 북수가 선소리(주는소리)를 하고 여러 사람이 뒷소리(받는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즉흥적이고, 힘을 돋우며, 북수의 입담이 좋아야 한다. 뒷소리(후렴)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한마디 거들기도 한다. 장단에는 느린 중모리 장단과 조금 빠른 세마치장단이 있다. 처음에는 느린 장단으로 매며, 거의 다 맬 무렵에는 빠른 소리로 한다. 다 매고 나올 무렵에는 모두 이어 서서 "와~!" 하고 큰소리를 치며 나온다.

3. 용대기싸움

논뺌이 작업을 마치고 풍물을 치며 다른 작업장으로 가는데, 이때 길라잡이가 딴 두레패를 발견하고 자기네 상쇠에게 보고한다. "상쇠어른 저기 돌게미패가 옵니다.!" 하니 상쇠는 "어디 보자"며 확인한다. 상쇠는 부쇠에게 "장단을 계속하고 단단히 준비해야 하네. 기장목 뺏기면 끝장이야!" 라고 말한다. 부쇠는 "걱정 말어유!" 하며 장단을 이어 치고 용대기를 중심으로 에워싼다. 어느새 양편은 방어와 공격 자세를 갖춘다. 이때 두레패들은 모든 기량을 보여주며 상대방의 기세를 제압하려 한다. 이후 이어지는 대화는 다음과 같다.

- 덕지내 상쇠: "너희들은 웬 놈들이냐?"
- 돌개미 상쇠: "보면 모르느냐. 너희들의 형님이시다. 어서 인사 올려라!"
- 덕지내 상쇠: "요런 못 된 놈들. 왜놈보다 더 고약한 놈들이구나. 잔말 말고 여기 지나가고 싶으면 정중히 인사 올리고 무릎으로 기어서 지나가라!"

- 돌개미 상쇠: “네놈들이 지나가고 싶으면 절을 하고 막걸리와 말고기 닷 근만 내놓으면 보내 줄 테다.”
- 덕지내 상쇠: “야 이 쪽바리 같은 놈들. 너희들 오늘 호랭이 구멍 쑤신줄 알아라. 저놈들에게 된맛을 보여주어라!”
- 돌개미 상쇠: “저놈들의 장목을 뽑아라!”

이후 상대방의 장목을 뽑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한바탕 싸움을 벌인다. 어떤 한편이 먼저 뽑으면 뽑힌 쪽 두레패 상쇠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뽑았다!” 하고 소리친다. 승자는 형이 되고, 패자는 아우가 된다. 승자가 “우리 덕지내 두레가 이겼다!”며 큰 소리로 승리를 선포하면, 이때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면서 상대방(승자)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표시로 장목 없는 용대기를 숙이고 좌우로 세 번 쓸며 아우로서의 예를 올린다. 이어 승자는 환호하며 용대기를 근엄하게 한 번 쓴다.

4. 놀이마당

두 용기를 마당 한가운데 모아 세우고, 덕지내에서 준비한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면서 풍물을 울리며 신명 나게 한판 논다.

5. 맺음마당

풍류장단, 자진모리, 휘몰이, 난타 순으로 맺는다.

서상덕지내·돌개미가 편을 갈라 용대기 싸움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형과 아우의 서열을 가리고, 형(승자)은 관용을 베푼다. 승자의 상쇠가 “뽑아온 기장 목도 돌려주고 술도 낼 테니 실컷 마시고 신명 나게 놀아보자”고 말하면 모든 마을 사람이 흥겨운 가락과 춤을 춘다. 이렇듯 이 작품은 마을 간에 의를 돈독히 하고 서로 협동하며 상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광주광역시 / 칠석농악 /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종목 농악
수상 여수시장(장려상)
상금 2,000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漆石]마을은 죽령산 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뒷산에 검은 돌이 많아 '옻돌마을'이라고도 부른다. 풍수지리설로 와우상[臥牛相], 즉 황소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형국이라 그 터가 무척 거셌다고 한다. 이 황소가 일어나 뛰어다니면 전답[田畓]의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황소의 입에 해당하는 곳에 구수('구유'의 전라도 사투리)를 상징하는 연못을 파 놓았고, 또 고삐는 할머니 당산인 은행나무에 묶어 놓았으며, 꼬리에 해당되는 곳에는 일곱 개의 돌로 눌러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센 터를 누르기 위해 고싸움놀이를 했는데, 놀이 과정에서 칠석농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칠석동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4일)에 마을 수호신인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에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굿을 지낸다. 할아버지당은 마을 뒷산의 700년 된 노송이고, 할머니당은 마을 앞 800년 된 은행나무다. 할아버지 당산을 먼저 모시고 할머니 당산제를 지내는데, 할아버지 당산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 농악대는 참여하지 않지만, 할머니 당산제는 농악을 울리며 지낸다.

칠석(옻돌)농악은 마을의 수호신이 좌정하는 당산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 그리고 재복을 비는 당산굿으로부터 시작해 지신[地神]을 달래는 마당밟이를 한다. 마당밟이를 마치면 놀이판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한바탕 농악을 친다. 이후 편을 갈라 고싸움놀이를 하는데, 그해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의 협동과 단결을 도모했다고 한다. 고싸움놀이가 끝나면 그 여흥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판굿을 한다. 판굿은 고싸움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나뉘어 있던 서부농악과 동부농악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대동굿으로, 단체놀이와 개인놀이로 구성된다.

1. 입장: 굿머리, 입장, 인사굿

2. 당산굿: 오방진굿, 개인놀이(소고놀이, 쇠놀이, 장구놀이)

3. 마당밟이: 문굿-마당굿-철륭굿

4. 고싸움놀이: 편가르기-대전

5. 판굿: 합굿-어울림한마당

칠석농악은 마을에서 정월대보름에 지냈던 당산제와 지신밟기, 그리고 고싸움놀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농악을 판굿으로 종합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싸움놀이 보존 단체(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가 별도로 존재하며, 농악으로만 놀이를 표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산제와 지신밟기는 농악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 표현에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판굿의 내용과 형식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악
農者天下之大本



● 인천광역시 /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 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여수시장(장려상)
상금 2,000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인천 지역의 경서동, 오류동, 반월촌 등지 바닷가 마을에서 집을 짓기 전 집터를 다질 때 부르던 노동요다.

이 노래는 마을 어르신들의 구전으로 전해온 소시라 정확한 발생 시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집터를 다지는 등의 노동은 정착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지속해온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크게 집터 다지기 전에 지내는 터 고사, 땅 고르기, 땅 다지기로 구성된다. 그리고 일 중간의 여흥 장면과 일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뒤풀이 마당이 추가되어 있다.

집터를 고르게 만들기 위해 흙을 퍼서 옮기는 작업에는 가래질소리가 불린다. 가래는 보통의 삽보다 큰 크기로 하며, 가래를 든 사람 외에 가래 양쪽으로 줄을 달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겨 힘을 보탠다. 가래질을 할 때는 <어하능청 가래여>의 가래질소리를 노래하는데, 이는 세 사람이 함께 노래를 해야 호흡이 맞아서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의 조기 잡는 배에서도 그물에 걸린 조기를 퍼낼 때 가래질을 하는데, 이때 부르는 가래질소리와 앞서 설명한 흙을 푸는 가래질소리는 음악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또 조기잡이 배에서 부르는 배치기 소리와도 느낌이 비슷하다. 두 곳 모두 가래를 사용해 일을 하며, 그 내용이 다를 뿐 푸는 동작도 유사해 동일한 음악을 공유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해안 지역에서 뱃노래와 육지의 일노래가 비슷한 구조로 불리거나, 동일한 악곡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땅을 부분적으로 다지는 작업에는 방아소리가 불린다. 방아소리 계열은 경기도 일대에서 회다지와 같이 땅을 다지는 동일 작업에서 널리 불리고 있어, 경복궁 건립 당시에도 방아타령이 토목노동요로 불리면서 경복궁타령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에 방아소리가 불리는 것은 경기 지역 방아타령권에 속하는 문화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메기고 받는 가창 방식으로 노래하며, 경쾌하고 뚜렷한 흐름새의 고조로 특징을 이룬다. 지경꾼들은 메김소리 때 잠시 피로를 풀고 힘을 비축했다가 받는소리와 동시에 일제히 지경돌을 당겨 올렸다가 내려친다. 지경소리는 무거운 지경돌이나 지경목을 일제히 들어 올리기 위한 신호 역할을 하며, 지경꾼들이 각자 동작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첫째마당 '터고사'
시루떡, 돼지머리, 조율이시, 곡주 등을 차리고 집안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터고사를 지낸다.

둘째마당 '가래질소리'
집터를 높여 평평하고 고르게 만들기 위해 흙을 퍼서 옮기는 작업에는 가래질소리가 불린다. 가래는 보통의 삽보다 큰 크기로 하며, 가래를 든 사람 외에 가래 양쪽으로 줄을 달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겨 힘을 보탠다. 가래질을 할 때는 <어하능청 가래여>의 가래질소리를 노래하는데, 이는 세 사람이 함께 노래를 해야 호흡이 맞아서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마당 '지경다지기소리'
집터를 다질 자리에 지경돌이나 지경목을 높은 후 8가닥 또는 12가닥으로 잡고 지경다지기를 시작한

다. 선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춰 지경소리를 메기면 힘을 비축했다가 뒷소리와 동시에 일제히 지경돌과 지경목을 당겨 올렸다가 내려친다. 이때 지경돌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게 원을 그리며 지경을 다진다.

넷째마당 '아낙네소리'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므로 중간 쉴 참에도 함께 식사하거나 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이때 아낙네들이 일꾼들을 위로하고 신명을 돋우기 위해 인천 지역에 전승되는 부녀요, 시집살이 소리, 장부가 등을 노래한다.

다섯째마당 '방아소리'

땅을 고루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에는 방아소리를 부른다. 방아소리 계열은 경기도 일대에서 회다지와 같이 땅을 다지는 동일 작업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문화권이 가진 특성의 영향으로 집터 다지는 과정에서도 부른다.

여섯째마당 '신명풀이'

지경다지기를 모두 끝낸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자축하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다짐의 뜻으로 뒤풀이 놀이마당을 연다.

일곱째마당 '퇴장'

쑥대고잔 지경다지기의 모든 출연진이 인사한 후 퇴장한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두레 형식으로 연행한다. 또한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집터를 다져주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노동인 동시에 새로운 집터에 재앙을 쫓고 축복하는 의식이 함께 담겨 있다.





● 부산광역시 / 수영지신밟기 /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여수시장(장려상)
상금 2,000

수영야류의 전문 예인들로 구성된 까닭에 연행에서도 악가무[樂歌舞]의 기량이 타 지역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았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기소각제는 그해의 모든 지신밟기 의식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기를 불사르면서 액을 태워 보내는 일종의 송액[送厄] 의례로, 한번 청신[請神]해 신이 깃들였던 것은 두 번 다시 제례[祭禮]에 쓰지 않고 불태워 버리는 제의의 일반적인 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수영지신밟기의 마지막 의식인 기소각제를 제의 과정에 대응시켜보면 송신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한 의례를 하지 않고 기를 불사르는 것으로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빌었다. 또한 마을 당산에서 축원풀이를 하고 공동우물과 마을 각 집을 방문해 그 집의 성주, 조왕, 장독, 곡간, 정낭, 삽작(대문) 등에 사설을 읊으며 축원풀이를 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당산풀이
마을 전체의 염원이 집약되어 부락민의 소원을 비는 가장 중요한 행사다.

2. 우물풀이
생존의 근원적인 장소인 공동우물에서 부락민의 무병장수를 비는 마을의 공동 풀이다.

3. 한마당 춤놀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하는 춤 놀이로, 여러 가지 기예를 벌이며 신명 나게 마당지신을 밟는 일종의 '마당밟기'다.

4. 성주풀이
그 집이 지어진 내력을 말하고 성주님께 복을 비는 굿으로, 성주풀이와 액맥이를 한다.

5. 조왕풀이
부엌에서 치는 풀이다.

6. 장독풀이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맛을 좋게 해 달라고 비는 축원풀이다.

7. 곡간풀이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치는 축원풀이다.

8. 마구풀이
마굿간에서 치는 축원풀이다.

9. 정낭풀이
뒷간에서 치는 축원풀이다.

10. 삽작풀이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문 안에서 모든 풀이를 끝내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다.

11. 대동놀이

참석한 전 놀이꾼에게 뒷풀이로 한 상 차려 놓고 술과 음식을 나눠 먹은 후 지신밟기를 소각하고 마무리한다.

수영지신밟기는 마을과 각 가정의 안녕, 그리고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적 놀이로 전승되어 왔다. 특히 걸립의 목적뿐만 아니라 수영야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놀았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신밟기 가운데 마지막 절차인 '기소각제'는 기를 태우면서 액을 불사르는 의미로 이뤄졌다. 또한 수영지신밟기의 풍물 장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느리다는 특징이 있으며, 수영 지역 특유의 덧배기춤과 어우러지는 토속적인 장단이라 할 수 있다.





● 황해도 / 서도선소리산타령놀량사거리 / 서도선소리산타령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여수시장(장려상)
상금 2,000

서도 산타령은 '놀량사거리'를 말한다. 흔히 '놀량'이라고 하며, '선소리', '산타령', '입창'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서서 부르는 소리니 선소리 또는 입창이며, 산천 경계를 유람삼아 떠도는 내용이니 산타령이다.

놀량의 유래는 적어도 19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재효의 판소리 <놀부가>에도 "산천초목이 성림한데..."라" 라는 대목이 보이고 '봉산탈춤' 3과장에도 보인다. '놀량패'는 사당패와 함께 전국을 도는 전문 연희집단 중에서도 소리를 중심으로 판을 짰던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놀량패 또는 사당패의 소리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이 산타령이었다. 산타령은 모갑이 1인이 선창을 하고, 이후 다 같이 군무를 추면서 뒷소리를 한다. 초목이, 놀량, 사거리, 중거리, 경발림으로 구성된다.

1. 놀량사거리

에라디여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녹양[綠楊]에 벋은 길로 북향산[北香山] 쑥 들어도 간다 에헤에헤이에-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춘수[春水]는 낙락[落落] 기러기 나니 훨훨 낙락장송이 와자지끈 딱 부러졌다. 마들가지 남아 지화자자 좋을씨구나, 지화자자 좋을씨구나 얼씨구나 좋다 말 들어도 보아라

인간을 하직[下直]하고 청산[靑山]을 쑥 들어도 간다. 에헤에헤이에-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황혼 아니 거리검쳐 잡고 성황당 숭벅궁새 한 마리 낙에 앉고, 또 한 마리 땅에 앉아 네가 어디메로 가자느냐, 네가 어디메로 가자느냐, 네가 어디메로 가자느냐. 이 산 넘어가도 거리숭벅궁새야, 저 산 넘어가도 거리숭벅궁새야, 에-

어린 양자[糧資] 고운 태도, 눈에 암암[暗暗]하고 귀에 쟁쟁(쟁쟁).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니로구나, 소원성취로 비나니로구나. 에- 나 헤 요홀 네로구나.

2. 앞산타령

나네노 니하나 에헤에 에헤에 노오 나에게 헤에요 산하지로구나

천 관악산[冠岳山] 염불암[念佛庵]은 연주대[戀主臺]요 도봉불성[道峯佛性] 삼막[三幕]으로 에헤 둘렀다.

에헤 에헤로 지히 이히이 지로구나 말을 네야 나아헤에로 산이로구나

3. 뒷산타령

나지아 산이로구나 에- 두견아 에- 어허야 지구에- 에도 산이로구나.

여초목[與草木]이 동남풍에 거리숭벅궁 우는 소리 장부[丈夫] 요내 열촌의 간장을 다 녹여 낸다

나뭇잎만 똑똑똑 떨어져도 한병[漢兵]인가 의심하고 새만 좌르르르 날아들어도 자룡[子龍]의 삼지창[三枝槍]만 여겨 의심한다

갈까 보다 말까 보다 임을 따라 갈까 보다 자룡이 월강[越江]하던 청총마[靑총馬] 비껴 타고 이내 일신[一身]이라도 한양을 따라갈까나

에라 놓아라 나 못 놓겠구나 에라 놓아라 나 못 놓겠네 엄지 장[長]가락이 다물어 빠지고 새끼손가락이 삼동에 나는 데 에- 어머니 아시면 매맞겠네 짜장 깊은 정을 생각하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놓겠다

4. 경발림(景四거리)

중원지변방[中原之邊方]이요 일세[日勢]는 요란한데 삼산반락[三山半落]에 청천외[靑天外]요 이수중분[二水中分]에 백로주[白鷺洲]란다

어디로 가자고 날만 졸라 어디로 가자고 지그렁직신 날만 조리조리 졸졸이 따라 안성[安城]에 청룡[靑龍] 가잔다

수락산[水落山] 폭포수[瀑布水]요 둥구재며 만리재라 약잠재며 누에 머리 용산[龍山]삼개로 에라 다 둘렀단다

연산[蓮山]의 김 덕선[金德善]이 수원의 북문[北門]지어 나라의 공신[功臣]되어 수성옥이 와류감투 꽉 눌러 쓰고 어주[御酒] 삼배[三盃] 마신 후에 앞에는 모 흥갑[牟興甲]이 권 삼득[權三得]이 송 홍록[宋興祿]에 신 만엽[申萬葉]으로 쌍화동[雙花童]세고 어전[御前] 풍악을 꽝꽝 치면서 장안[長安] 대로상으로 가진 신래[新來]만 청한다.

이 작품은 제51회에도 출전해 금상을 받았으며, 연달아 제52회에도 같은 종목으로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여수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대전광역시 / 유성봉명리온천수착정놀이 / 대전민속예술연구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유성 봉명동 용반골(현재 대전 봉명중학교 근처)에는 샘을 팔 때 올리는 용왕제와 그에 따르는 흥미로운 민속놀이가 전해진다. 그 옛날에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 이름이 붙은 용반골에서는 오래전부터 샘굿과 용왕제를 지내왔다. 이 마을 중심에 우뚝 서 있던 동구나무 근처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에서 마을의 우물을 지키는 용왕신께 용왕제를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 샘을 파면서 행한 착정놀이의 시작 역사는 알 수 없으나, 둥구나무의 연륜으로 보아 아마도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유성 온천의 역사는 백제시대로 소급한다. 전장에 끌려가 상처를 입고 돌아온 이 마을 청년을 낫게 한 약이 바로 온천수라고 전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병들고 다친 아들을 정성껏 간호했음에도 별 효험을 보지 못했는데, 마침 그때 날개를 다친 봉황 한 마리가 매일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곳의 샘에서 몸을 씻더니 이내 긴 울음소리를 내며 거뜬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그 봉황이 날아간 샘에 가봤는데, 그곳에는 따뜻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물을 떠다가 아들이 다친 부위에 발랐더니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고, 몸이 바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곳의 온천수는 천하의 샘물로 이름이 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봉황이 울면서 날아간 곳이란 뜻으로 이 마을을 봉명동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유성 용반골 착정놀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제의식과 독창적인 연희의식이 함께 혼합된 양상을 보이므로, 보존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이를 계승·발전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다.

착정놀이는 용왕제와 목신제를 통해 온천수를 뽑아내고, 인간의 풍요[風謠], 장수[長壽], 내세[來世]와 마을의 안녕[安榮] 등을 함께 기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착정놀이 속의 각종 놀이굿도 같은 목적으로 행했을 것이다. 일반적인 착정놀이 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청신제[請神祭]
부정을 물리고 신(神)을 청하는 부분

2. 오신제[娛神祭)
신을 대접한 뒤 인간의 소원을 고하고 대답을 들으며 함께 놀이로 즐기는 부분

3. 송신제[送神祭]
신을 본디 장소로 돌려보내는 부분

위의 순서를 기본으로 한 유성의 착정놀이는 당산제, 풍물, 동구굿, 샘굿, 목신제, 용왕제, 축원, 뒤풀이굿 순으로 연행한다.

유성 착정놀이는 제의적 기능과 연희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도 매우 컸다. 근대 이후부터는 여기저기에서 온천수를 파기 시작했는데, 천수가 솟아나오기를 기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춰 착정 현장에서 행했다. 즉 온천수를 파는 곳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만든 기구를 현장까지 운반해 온천수가 솟아 나오기를 기원하는 샘굿과 용왕제를 올리면서 질펀한 한마당의 놀이를 행했던 것이다. 샘굿과 용왕제는 행사가 분위기 매우 진지하고, 수반하는 놀이와 민요가 특이했다. 온천수를 파다가 찬물이 솟아 나와 망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소망이 그만큼 간절했다. 이렇게 유성용반골착정놀이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있어온 민속예술이다.





● 서울특별시 / 경복궁지경닻이기 / 경복궁지경닻이기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지경닻이'란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말한다. 문헌에 의하면 지경닻이는 인간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래했다고 한다. 땅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은 단순노동을 길게 반복하는 것이므로 힘듦과 지루함을 잊기 위해 소리에 맞춰 진행했다. 땅을 다지는 도구로서 둥그런 큰 돌을 굵은 동아줄로 얽어매어 여러 가락의 당김줄을 느린 것을 지경돌이라고 하는데, 줄 하나에 여러 지경꾼이 매달려 모갑이의 선소리에 맞춰 후렴을 받으며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지반을 다진다. 연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과장 '궁, 집터고르기'

대기와 영기를 선두로, 오방기, 용기, 구기, 각 동리의 농악대 지경꾼 순서로 (지경닻이의 모든 제구를 들고) 농악을 치며 입장해 각 방위에 맞는 5방기(청기, 황기, 적기, 백기, 흑기)를 세우고, 가래질꾼들이 집터 고르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때 가래질소리가 이어지며 궁터를 고르는 작업으로 제1과장이 시작된다.

<궁터 고르는 소리>

오험차 다루세 이씨한양 등국시에
오험차다루세 삼각산 내린 줄기
오험차다루세 학의 등에 터를 닦아
험차다루세 경복궁을 이룩하세

제2과장 '지경줄 디리기'

전원이 석가래를 세 개씩 묶어 세워놓고 그 위에 긴 석가래를 얹어놓은 후 동아줄을 디리며 소리를 한다.

<지경줄 디리는 소리>

디리세 디리세 동아줄을 디리세
강남은 홍씨마마 우리나라는 이씨마마
디리세 디리세 동아줄을 디리세
강남은 대한국이요 우리나라도 대한국이요

제3과장 '초지경닻이'

역꾼들이 지경돌을 중심으로 모여서서선 후 선소리꾼이 선창하면 일제히 후렴을 받으며 장단에 맞춰 지경돌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지경닻이를 하는데, 그 사이 흥을 돋우기 위해 발림춤을 추고 지경꾼과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절정에 달한다.

<초지경 소리>

1. 에여라저어

관동은 에여라저어 오백리요 에여라저어 낙양산 에여라저어
삼천리요 에여라저어 강남은 에여라저어 오백리요 에여라저어
요동은 에여라저어 칠백리요 에여라저어 칠백리길을 에여라저어
얼른지나 에여라저어 의주가 에여라저어 초입이요 에여라저어
노정리 에여라저어 뛰어보자 에여라저어 의주용천 에여라저어

2. 에여라 지경이요

먼데사람은 듣기도 좋게 에여라 지경이요
가까운데 사람은 보기도 좋게 에여라 지경이요
지경소리를 하여보세 에여라 지경이요
경복궁을 이룩을 할제 에여라 지경이요
어떤나무를 디렸더냐 에여라 지경이요
붕붕울려라 붕나무용 에여라지경이요
십니절반에 오리나무 에여라지경이요

제4과장 '마당놀이'

초지경이 끝난 다음 아낙네들이 술동이를 이고 나와 일꾼들이 술을 마시고 농악을 치며 마당놀이를 시작한다. 이 장면 역시 선소리꾼이 선창하면 모든 역꾼이 후렴을 제창으로 부르며 흥겹게 노는데, 여기에서 부르는 노래는 '양산도'와 '방아타령(토속민요)'이며, 출연자 전원이 춤을 추며 신명 나게 논다.

<마당놀이 소리>

-양산도

에헤에 에헤 에헤헤이어리 도아

1. 양덕맹산 흐르는 물 감돌아든다고
부벽루 하로다

2. 세월아 멈춰라 오고가지 말아라
장안의 호걸이 다 늙어 가누나

-방아타령

에-헤 에헤야 ~ 에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너니가 나노 나니가 네노 늬나노 방아 좋다

1. 모두아차 좋구나 이방아가 왼 방아냐 여주 이천에 잦채 방아 김포, 통진 밀다리요 날로 장차 찧어도 헛방아 뿐이로구나

2. 모두아차 좋구나 이방아가 왼 방아냐 찧기 좋은 나락방아
원수 끝에 보리방아 날로 장차 찧어도 풍년방아가 좋구나

제5과장 '잦은 지경닺이'

마당놀이의 뒤를 이어 잦은 지경닺이가 진행되는데, 동작은 점점 빨라지며 잦은 지경소리가 계속된다. 잦은 방아타령과 이엿차로 넘어간 후 잦은 지경소리에 이어 경복궁타령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출연진 전원이 춤을 추며 풍물놀이로 한껏 흥을 돋우는데, 풍물패와 깃발이 조화를 이루고 화려한 뒤풀이로 장관을 이룬 다음 퇴장한다.

<잦은 지경닺이 소리>

-후렴

떳다 떳다 새 새소리떳다 ~에~에헤요 에헤요 에이에에 에헤야~어야~어허야 에헤리떳다

1. 떳다 떳다 정월이라 십오일에 액액이연이 떳다
떳다 떳다 새 새소리 떳다~에~에헤요 에헤요 에이에에 에헤야~어야~어허야 에헤리떳다

2. 떳다 떳다 이월이라 한식날 종다리 한 쌍이 떳다
떳다 떳다 새 새소리떳다 ~에~에헤요 에헤요 에이에에 에헤야~어야~어허야 에헤리떳다

지경다지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협동' 노동이며, 재앙을 쫓고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경복궁 지경닺이에서 불리는 소리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노작요'의 하나로,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경복궁을 1800년대 중반 대원군이 중건할 때(1865년 영건도감[營建都監]을 둠) 불렸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당시 대원군은 공사 진행에 힘을 북돋우기 위해 역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무중대[舞重隊], 농악대, 남사당패 등을 동원해 격려했다고 한다. 당시 대원군이 하사한 농기를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와리(지금의 안산시 와동)에서 받아 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경복궁 지경닺이는 옛날 경복궁 복원 대역사의 애환과 함께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 평안남도 / 향두계놀이 / 향두계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평안도 향도(항두)계 놀이는 씨앗 고르기, 씨뿌리기, 모심기, 김매기, 계놀이, 추수와 방아 찧기로 구성된다. 무의식적인 전통춤과 더불어 수심가·엮음수심가 등의 평안도 대표 민요가 불리며, 긴아리, 자진아리, 호미타령 풍구소리 등 평안도의 향토적 특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토속민요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음악극(소리극)이다. 그 밖에 양산도, 사설난봉가, 개타령, 자진방아타령 등 서도민요어법인 수심가토리로 이뤄진 노래로 구성된다. 연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씨앗고르기'
파종할 때가 되어 시어머니가 제석항아리 속에서 씨앗을 꺼내 며느리들과 함께 고르는 연기를 하고, 시어머니가 단골을 불러 풍년을 빌면 무당들이 상수에서 나와 고사상 앞에서 노래를 한다.

제2장 '씨앗뿌리기'
긴아리와 자진아리를 흥겹게 부르면서 씨앗을 뿌리는 춤을 춘다.

제3장 '모심기'
모내기소리를 부르고 모내기 동작을 하면서 춤을 춘다.

제4장 '김매기'
계수, 공수, 조수가 나오고, 김매기를 위해 긴급동원을 한다. 마을 농군들이 급히 모여 점검을 받는다. 지각자는 처벌을 받는 것의 연기 및 호미타령을 부르면서 김을 매는 동작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제5장 '계놀이'
김매기를 하던 향도들이 논두렁에 모여앉아 참밥을 먹고 나서 계놀이를 벌린다. 개인기를 펼쳐 보이며 취흥이 도도해 온갖 노래와 춤을 춘다. 빠른 호미타령을 부르면서 나머지 논을 다시 맨다.

제6장 '추수와 방아 찧기'
추수하면서 풍요를 구가하며 재담과 함께 춤을 춘다.

향두계놀이는 농사와 관련한 집단민속놀이의 전형적 양식과 전통연희 형식을 고루 잘 갖추고 있는 놀이다. 특히 제4장 김매기와 제5장 계놀이 과장은 두레놀이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군역[軍役]에 관한 향두계의 특성까지 잘 나타내고 있다. 평안도 향두계놀이는 향두계의 사회적 역할, 언어와 생활 의식, 문화적 실태 등 민속학 측면에서 연구 가치가 있으며, 음악학 측면에서 평안도 토속민요의 음악 구조를 연구하는 데 가치가 매우 높은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 우산매귀악 / 울산매귀악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울산 지역에서 섣달부터 정월대보름까지 전개된 벽사 의례이자 새해맞이 축제다. 울산에서 전승되는 매귀악[煤鬼樂]은 보편적인 세시 민속놀이인 농악대의 지신밟기에 불교의 등공양[燈供養] 사상을 습합한 것이다.

매귀악은 불을 밝혀 역질[疫疾]을 쫓는 연희악으로, '등광궐아괘보살' 일곱 글자의 창사[唱辭]에서 알 수 있다. 등광궐아괘보살은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바친 일등[一燈]의 공덕으로 미래에 등광불[騰光佛]의 수기[受記]를 받는 것에서 유래한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등명[燈明]의 실제다. 또한 정화[淨化], 화마[火魔], 재액귀[災厄鬼], 역병귀[疫病鬼], 역질귀[疫疾鬼] 등을 축귀[逐鬼]하고, 삿된 것을 불태우며 물리치는 벽사[辟邪]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아울러 불은 불꽃같이 타오르듯 번창하는 재물을 모으고 간직하는 축재[蓄財]의 의미도 있다.

1. 입장

정월 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마을 중간에 큰 종이 깃발을 세운 후 각기 술과 음식을 갖추고 깃발 아래 모여 먹고 마신다. 또한 오색 비단으로 만든 오색꽃을 꽂거나 가두가면을 쓰고 온갖 놀이를 하기도 한다. 먼저 울산 매귀악기[旗] 및 동 성황당기가 입장한다. 음복을 하고 온갖 연희가 있고 나서 매귀악의 핵심인 기두놀이가 이어진다. 기두놀이는 기두가면[魌頭假面]을 쓰고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두가면은 매귀악에서 지신밟기를 할 때 잡귀를 쫓고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하는 두 눈이 달린 귀신의 탈을 일컫는다.

2. 매귀악

설쇠잡이가 안내자 역할을 하고 울산매귀악기, 성황기, 기두탈 쓴 자, 농악 순서로 진행한다. 기두 4인은 창과 방패를 들고 사방의 잡귀를 위협하며 쫓아낸다. 이후 각 가정을 방문해 지신을 밟아주는 지신밟기 순서로 넘어가는데, 대문굿, 성주굿, 조왕굿, 장독굿, 샘굿, 도장굿, 수문(守門)굿 순으로 진행한다.

3. 사목[査木]살이

포시[哺時] 무렵, 각기 사목을 지고 와 사방으로 통하는 거리에 펴서 모아둔다. 종이 깃발과 함께 사목을 태우면서 가사를 지어 "등광궐아괘보살" 일곱 자를 천천히 번갈아 노래하면서 그것이 다 타기를 기다린 후 다 타면 농악 놀이로 옮겨간다.

매귀악에는 몇 가지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

- 첫째, 크고 작은 지기의 등장과 소각이다. 서낭신을 표상하는 지기가 행사 끝에 소각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 둘째, 섣달 보름 달밤에 젊은이들이 풍물을 연주하면서 서낭신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는 노년층과 비교한 청년층의 생생력에 근거한 것으로,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 셋째, 기두 가면의 존재다. 방상시와 같은 계통으로, 보다 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두가면 또는 그와 유사한 귀용면이 민간의 나례, 그것도 마을 단위의 매귀악(매귀, 매귀희, 매굿, 지신밟기 등)에 등장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넷째, 등궐살의 문제다. 민간신앙에서 불이 가지는 벽사소재[辟邪燒災]의 기능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매귀악처럼 각기 등걸을 가지고 나와 사거리에 모아 두고 서낭신의 신체인 지기와 함께 태우며 주사를 교창[交唱]함으로써 가정과 공동체의 제액 및 방액을 추구하는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 **함경북도 / 애원성 / 함북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애원성[愛怨聲]은 예로부터 함경도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민요다. 애원성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함경도의 지형 및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다. 함경도는 지리적으로 농경지가 협소하고 농토가 비옥하지 못한 데다 여진족과의 오랜 싸움에 시달렸다. 게다가 사화·당쟁의 제물로 유배당한 유랑민과, 조선 말엽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학정에 시달려 국경을 넘어 러시아나 북간도 지방으로 떠난 실향민이 많았다. 이러한 애달픈 사연으로 고향을 등진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처지를 자위하는 노래를 불러 망향의 설움을 달랬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부른 노래가 애원성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후렴) 에에~에헤야 얼사마 좋구 좋다 얼럴럴 거리고 상사디야
백두산꼭대기에 칠성단 묻어 놓고 아들 딸 낳기만 발원이로구나
산아산아 에루화 동대산아 부모님 형제겐 이별산이로구나
풍년이 왔다고 부르지 말아라 이물을 건너면 월강죄란다네
무산령 넘어에 정든 안깐 두고 두만강 뗏목에 이내몸 실었네
부령 청진 간 낭군은 돈벌이 갔구요 북망산천 간 낭군은 여 이별이로구나
술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추고 돈없는 천지에 영웅도 우노나
오늘밤은 그 얼매나 갔는지 북두칠성이 앵 돌아졌네
해삼위 항구가 그 얼마나 좋길래 신개척이 찾아서 반봇따리 쌌네
마우재 양지전에 정들 뻔 하다가 왜놈의 권연지에 몽땅 속았구나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정든임 없으면 적막강산이라
가지를 마오 갈 생각마오 동대산 바람은 이별바람이오
북간도 찬바람 네 불지 말아라 우리네 독립군 손발이 다 언다
한반도 강산에 전선줄 느리더니 큰오래비 간곳이 뚱딴지로구나
삼천리 강산이 넓다고 하지만 우리네 살 곳은 함경도 뿐이다
갈적에 열어보니 개가 컹짖고 울적에 다시 보니 새벽달기 우노나

애원성은 제51회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아리랑상을 받았다.



● 전라남도 / 화순능주씻김굿 / 능주씻김굿보존회

종목 의례 - 현지민속심사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상금 1,000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일대는 조 씨, 공 씨, 안 씨를 비롯한 여러 성씨가 지역 기반을 갖추고 무업에 종사하는 등 세습 무계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까지도 많은 세습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수의 인물만이 전통을 잇고 있다.

씻김굿은 연행 과정에 따라 장소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물에 빠져 죽은 혼을 위로하는 굿을 할 경우, 먼저 강가에 가서 혼 건지기를 한 다음에 집으로 모시고 온 후 마당 돌기를 한다. 마당 돌기는 혼맞이를 한 후 집안에 들어오면서 마당을 세 바퀴 돌고 봉창 옆에 술을 부어주는 '주점'을 하는 절차다. 이어 안당부터 제석굿까지는 집안에서 하는데, 해당 굿 성격에 맞춰 '간데 말래' 또는 안방에서 굿을 한다. '간데 말래'란 대청마루에 해당하는 '가운데 마루'를 지칭하는 말이다. 오구굿부터 중반부 이후 절차는 마당에서 연행한다. 한편 사람이 죽은 지 삼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는 '진굿'은 마당에서 연행하지만, 삼 년이 지난 이후에 하는 '마른굿'은 마당에 따로 굿청을 차리지 않고 실내에서 연행했다고 한다.

능주씻김굿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영상(1986년 촬영)으로 전체 씻김굿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씻김굿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혼맞이
망자의 원혼을 맞이하여 해 굿청에 청배하는 굿거리다. 대문을 활짝 열고 대문 밖에서 안쪽으로 길게 무명베를 늘여 뜨려 놓은 후 그 가운데쯤인 대문 안쪽 마당에 상을 차린다. 상 앞에는 종이로 만든 '넋'을 담는 '넋 상자'를 둔다. 그리고 무녀가 상 앞에 서서 징을 치며 흘림장단으로 무가[巫歌]를 부른다.

2. 안당굿
집안에 모신 성주신과 조상신 등에게 굿을 한 내력을 아뢰고 축원하는 절차다. 이 거리는 안방에서 한다.

3. 본향
집안의 액을 막고 안녕과 복을 비는 내용이다.

4. 조상굿(선부리)
조상을 굿청에 청해서 굿하는 것을 아뢰고, 자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축원하는 굿거리다. 이 거리에는 조상과 함께 망자도 모셔 축원한다.

5. 지왕풀이
출산과 아이의 건강을 관장하는 삼신지왕을 모셔 축원하는 굿거리다.

6. 제석굿
집안의 재물과 가족의 수복을 관장한다는 제석신[帝釋神]을 청배해서 축원하는 굿거리다.

7. 오구굿

저승문을 관장한다는 '바리데기' 신에게 망자의 극락 천도를 축원하는 굿거리다.

8. 넋올리기
망자가 굿을 잘 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한다.

9. 고풀이
망자의 원한으로 구상화된 고를 풀며 망자의 천도를 축원하는 굿거리다.

10. 씻김
전체 굿의 이름이면서 개별 굿거리 이름이기도 하다. '씻김'이란 망자를 상징하는 '영대[靈代]'를 만들어 그것을 씻겨주는 절차를 말한다. 망자의 옷을 둘둘 만 자리 위에 넋을 담은 밥그릇을 놓고, 그 위에 솥뚜껑을 덮은 영대를 물로 씻겨주면서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길 축원한다.

11. 길닦음
저승길을 상징하는 긴 무명베[질베]를 늘어뜨리고, 그 위로 넋 상자를 오가며 망자의 저승 천도를 축원하는 굿거리다.

12. 대신치기
잡귀들을 풀어먹이는 굿거리다. 대문간에 간단한 배송상을 차리고, 무녀가 산 닭을 들고 서서 축원한다.

13. 사신
굿에 사용한 종이와 망자의 옷가지를 태우며 굿에 참여한 귀신을 보내는 굿거리다. 대문 밖 한적한 골목길에서 행한다.

능주씻김굿은 전라도의 씻김굿 전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내륙 지역의 씻김굿 전승 집단이 점차 세습무가계 전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통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예술적으로는 민속문화의 원류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다. 현재 화순 지역은 물론 전라남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 자료 없음>	

● 전라남도 / 여수백초가장농악 / 여수백초가장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 현지민속심사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상금 1,000

여수 백초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진중농악으로, 임진왜란 때 좌수영에 소속된 장병들이 포를 쏴 왜적을 무찔렀을 때 고시(鼓施)를 알리는 농악을 쳐 임진왜란과 충무공 이순신을 연상케 한다. 여수를 대표하는 가장농악은 돌산 백초농악과 함께 송소, 용주, 창무백초 등지에서 발달했다.

일반 농악은 오체질굿, 오방진굿, 짝바름굿, 십자행굿, 풍년굿 순으로 전개되지만, 백초가장농악은 행군굿, 훈련굿, 진중굿, 만만세굿 순으로 전개되므로 그 가락과 율동이 경쾌하다. 1950년대 이전까지는 '신추농악'이라 불리는 진중농악이었으나, 1950년대부터 고 정옥연 상쇠의 주도 하에 진중농악과 가장농악이 섞였고, 1970년대에는 고 김경수 상쇠의 주도로 가장농악 형태가 완성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정순과 정선모를 비롯, 고 김경수 상쇠의 조카 김영 씨의 노력으로 원형이 복원되어 현재까지 전해진다.

현재는 각종 가장(범, 토끼, 여우, 곰, 소)을 곁들인 농악으로 발전했다. 백초마을의 가장농악은 가장놀이가 중심이 되어있어, 쇠, 징, 장고, 북 등이 가장놀이꾼의 연주에 대한 반주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농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문굿(입장굿)
삼채-외채-입장-왜채-삼채-인사굿
(진법) 문굿 형태의 2열진

2. 질굿
외양굿-연풍대-질굿(오채질굿.풍년굿)-양산도-삼채굿-매조지
(진법) 가새치기와 원진 그리고 고동진

3. 오방진굿
오방진굿-삼채→매조지
(진법) 오방의 고동진

4. 굿거리와 유산굿
굿거리-유산굿(얼싸굿)-삼채-매조지
(진법) 원진과 고동진

5. 호호굿과 짝두름굿
호호굿-짝두름굿-삼채십방진굿-매조지
(진법) 원진과 미지기 그리고 십자진과 고동진

6. 개인놀음과 퇴장굿
장구놀음-가장놀음-대동맘판굿-퇴장굿
(진법) 마당굿

가장놀음은 느린 삼채, 중삼채, 잦은삼채 굿거리 가락에 소놀음, 곰놀음, 사자놀음, 호랑이놀음, 말놀음, 전투무용, 무동놀음, 거사와 각시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전수회관 건립으로 여수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가장농악의 전통이 흐려지지 않고 잘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역사회와 백초마을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젊은 세대도 학습 의지와 함께 노력을 지속해서 지속군사농악과 가장놀이의 독자적인 면모가 잘 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상남도 / 거창상여소리의식요 / 거창문화원

종목 의례 - 현지민속심사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상금 1,000

'거창상여소리의식요'는 인간이면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이후 시신을 처리하는 상례에 관한 것으로, 2008년 창단한 거창전통장례의식보존회가 전승하고 있는 전통민속의례다. '상례'란 슬프고 애절한 심정과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치르는 의식절차로, 임종을 비롯해 염습, 발인, 치장, 우제, 소상, 대상, 복제를 치르는 것까지 포함한다.

거창 지역은 전통적으로 꽃상여로 행상을 했으며, 마을마다 상포계를 조직 및 유지했다. 상여를 메는 상두꾼이 적게는 16명, 많게는 32명까지 있었다. 이들은 상여꽃을 패랭이에 꽂아 머리에 쓴 것이 큰 특징이다. 앞소리꾼은 요령을 잡고 앞소리를 하는데, 이때 한 손에 상여꽃을 드는 곳도 있다.

거창장례의식요는 출상(발인, 평지 행상, 외나무다리 건너기, 평지 빠른 행상, 장지(상여안치))와 봉분쌓기(가래질소리, 달구소리, 가래질소리, 달구소리, 가래질소리, 달구소리, 상여해체, 퇴장)의 두 개 마당으로 진행된다.

첫째마당 '출상'

보존회기, 공포, 명정, 운, 아, 만장, 방상씨, 영여, 상여, 상주, 조객(만장), 인부, 잡새 순으로 입장하여, 상여소리를 부르면서 평지가기, 돌다리 건너기, 장지 도착 순으로 진행한다.

- **상여운구**

  진행 방법, 절차, 소리는 고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운구할 때 앞소리는 대체로 회심곡이나 백발가에서 따낸 구슬픈 소리며, 앞소리꾼이 선창하면 상여꾼은 후렴의 소리로 "너너 너와너 너화넘차 너화너" 하면서 매장지까지 간다. 상여소리는 '너화홍', '너화넘', '어너'가 불리고 있으나, '너화홍' 계통보다 '넘차류'를 선호하는 편이다.

- **발인**

  장지로 떠나기 전에 집에서 관(시신)을 상여에 싣고 행하는 발인제로, 축관이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결래 영결종천"을 하며 제를 올린다. 상두꾼은 제자리걸음으로 발맞춤 소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평지행상**

  상여가 출발하면 보존회기, 명정, 공포, 만장, 영여, 운, 아, 선소리꾼, 상두꾼, 상주, 백관,조객, 인부, 잡색 순으로 뒤따르며 장지로 떠나면서 부르는 소리다.

- **외나무다리 건너기**

  상여가 냇가 외나무다리에 오른다. 상두꾼들은 네 줄 24명에서 양쪽에 12명씩 한 줄로 선 다음 "넘차" 소리를 메기면서 조심스럽게 외나무다리를 건너며 부르는 소리다.

- **장지(상여안치)**

  평지 빠른 행상소리로 오다가 장지에 도착해 상여 안치까지 부르는 소리다.

둘째마당 '봉분쌓기'

가래질소리, 달구소리, 가래질소리, 달구소리, 가래질소리, 달구소리 순으로 진행한다.

- **가래소리**

짧게 끊어서 중중모리로 “에이여차 가래여”를 받으며 세 차례로 나눠 한다.

- **달구소리**

봉분의 땅을 다질 때 부르는 소리로, 첫 번째 소리와 두 번째 소리는 가래소리처럼 짧게 끊어서 중중모리로 “어허루 달구”를 받으면서 진행한다. 세 번째 메기는 달구소리는 메기는 소리를 길게 늘어뜨려 어산영조로 하고, 받는소리로 “어허루 달구”를 길게 하고 맨 마지막 받는소리는 “이호호 호호…”로 끝을 맺는다.

지역공동체 문화가 점차 약화하면서 전국에서 전승되던 ‘상두계’ 형태의 조직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거창전통장례의식보존회를 구성해 전통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거창문화원의 노력이 유의미하다. 장례의식요는 전통적인 죽음관을 예술적으로 전환한 중요한 사례이므로,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거창 지역 민속문화의 원천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경기도 / 오리뜰들노래 /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

종목 민요 - 현지민속심사
수상 -
상금 -

성남오리뜰들노래는 과거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九美里)에 있는 오리뜰에서 불렸던 논농사소리다. 지금은 도시로 변한 이 지역의 소리가 몇몇 연희자에 의해 전승된 것이다.

벼농사에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써레질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그러하듯, 오리뜰에서도 호리로 논을 갈았던 까닭에 소리는 그저 "이랴 이랴" 만을 되풀이했다.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레를 짠다. 두레패를 이끌어가는 분을 '영좌'라 하고, 그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공자'라 했다.

1. 모심는소리

"하나로구나 둘 둘이로구나 서이 서이로구나 너이 너이로구나 다섯 다섯 여섯 여섯이냐 일곱 일곱이냐 여덟 여덟에가서 아홉 아홉 열"과 같이 '열소리'를 부른다.

2. 초벌매기

논매기는 보통 두 번을 했는데, 논에 피가 많은 집에서는 피사리 한번을 더 포함해 세 번을 했다. 초벌매기는 모를 심고 15일 정도면 하는데, 이때 호미로 논을 파헤치며 작업을 한다. 굼방네를 외치며 부르는 '사도소리'를 시작으로 '방아타령', '상사소리', '우야소리'를 한다. 이후 일을 마무리할 때쯤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몸돌소리'를 부르고 북을 세 번 친 후에 논을 나온다. 그리고는 참을 먹고 농기를 앞세우며 다른 논을 향한다. 소리는 논의 크기에 따라 부르는 횟수가 달라지는데, 논배미가 크면 '사도소리', '방아타령', '상사소리' 등을 더 많이 부른다. 논이 적어도 '사도소리-방아타령-상사소리-우야소리-몬돌소리'와 같은 순서로 소리한다.

3. 두벌매기(논훔치는소리)

두벌매기는 초벌매기를 한 후 20여 일 후에 하는데, 호미로 논을 매던 초벌매기와는 다르게 그냥 손으로 논을 훔치기만 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는 선소리꾼 없이 두 패로 나눠 "둘레 둘레 둘레여~ 여리저리 둘러라 / 둘레 둘레 둘레여~ 여리저리 둘러주게"와 같이 '둘레소리'만을 부른다. 그러다 흥이 나면 경쟁하듯 서로 목청을 높여서 부르고, 반대로 음을 낮춰 부르기도 한다.

4. 세벌매기

세벌매기를 할 때쯤에는 벼의 키가 너무 커서 자꾸 눈을 찌르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김매기가 쉽지 않다. 이에 오리뜰에서는 세벌매기를 하지 않고 피만 뽑아내는 피사리를 하는데, 이를 '밭거리'라 한다. 이때는 "에이나 칭칭나네 / 벼포기 사이에 들여다보면 피나 쪽쪽 뽑아주소 / 에이나 칭칭나네"와 같이 '칭칭이소리'를 부른다. 피사리할 때는 10여 명 이상이 함께 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인절미를 해서 일꾼들을 대접했다.

5. 새쫓는소리

벼가 다 익어갈 무렵 참새 떼가 모여들면 태기를 치며 "우여~ 훨훨~ 우여~ 훨훨"과 같이 새쫓는소리를 했다.

6. 탈곡: 탈탈곡기를 이용해 벼를 털어도 제대로 털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도리깨로 터는데, "꽥 꽥 꽥 꽥 / 때려 보 / 꽥 꽥"과 같이 새소리를 내면서 한다. 도리깨질이 끝나면 키로 부치면서 검불을 날리는데, 이때는 넉가래로 검불을 올리는 사람과 키로 부치는 사람이 "알곡은 남고 검불은

날라 가라 / 호랑나비야 석가래 간다 / 예~ 호랑나비 왔습니다 / 검불은 날라 가고 알곡은 남아라~ / 에야데야~데~” 등을 부르며 호흡을 맞춘다. 말질을 하며 자루에 담을 때는 “한말이여 ~ 두말이여~”와 같이 ‘말질하는소리’를 한다.

“군방네~ / 군방네~ / 군방네님들~ / 에~ 이~ / 옛날옛적 고리고적, 신농씨가 농사짓던 그 법을 따라 우리 사도 한마디를 하는 데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잘 불러봅시다~ / 에이~ / 사~ 아 사~ 사~아~ 아~ / 오~ 오~ / 에~이~요~오 /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네”와 같이 부르는 ‘사도소리’는 오리뜰의 특징적인 소리다. ‘사’, ‘오’, ‘에’ 음을 상황에 따라 두 패나 세 패로 나눠 부르는데, 이 소리를 부를 때 “눈이 툭 튀어나온다”는 표현처럼 부르기 힘든 노래다. 물론 고양, 과천, 김포, 남양주, 양주, 용인 등에 논매는소리인 ‘사뒤소리’가 있으나, 이들은 후렴에 ‘사두여’, ‘사디여’, ‘사도’ 등 사설이 있어 제목으로 명명된 것이지 오리뜰의 ‘사도소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오리뜰 농요에는 다양한 소리가 존재했는데, 성남시의 농요 정리가 미흡해 이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에 오리뜰과 인접한 광주, 용인의 소리와 비교하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 작품은 현지민속심사로 진행했으나, 논이 아닌 강당에서 이뤄져 현지 민속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 경기도 / 두레소리 / 가창리 두레소리 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 현지민속심사
수상　　-
상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두레소리는 언제부터 불려왔는지 알 수 없다. 서울특별시 휘모리잡가 보유자인 박상옥 씨의 조부께서 선소리를 하시고 마을 어른들과 일을 하셨는데, 박상옥은 그런 소리가 너무 좋아 농번기면 학교도 안 가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소리만 따라 부르고 배웠다고 한다. 그때 같이 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현지인은 뒷소리꾼 세 명만 남아 있다.

1. 모찌는소리

모 판에서 모를 뽑으며 부르는 소리다. “겨루세 겨루세 이 모판을 겨루세”의 뒷소리를 받는다.

2. 모심는소리

“‘여기도 하나 저 저기도 또 하나” 가사를 부르는 열소리 계열 악곡을 노래한다.

3. 애벌매는소리

애벌매는소리는 “우오~~~오 호이~~~에~~~헤 에 야아”로 받는소리와 “우오험차 찍엇네야” 소리, “오호오 오호이 에 호야 오호야” 소리와 “에 헤 에 에헤야 에 야 디여라 에헤야” 소리, 그리고 “얼커뎅이냐 덜커뎅이냐” 소리 등이 있다.

4. 두벌김매는소리

앞서 애벌매는소리로 불렀던 소리들과 “오험차 골엇네야” 소리를 추가해 부른다.

5. 세벌김매는소리

“오험차 뽑엇네야” 소리로 노래한다.

이 작품은 용인의 한 논에서 현지민속심사로 진행했다. 선소리꾼이 다른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는 점이 아쉬웠으나, 이 지역 출신으로 음색이 잘 어울렸으며, 가창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 **경상남도 / 함양들놀이소리 / 한국국악협회 함양지부**

종목 민속놀이 - 현지민속심사

수상 -

상금 -

함양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이러한 자연을 벗 삼아 아녀자들은 들놀이를 즐겼다. 울창한 활엽수가 10여 리 뻗은 상림숲과 화림계곡이 있으며, 특히 안의에 있는 용추 40리길 계곡은 기암절벽과 잡목 그리고 냇물과 폭포가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뽑아낸 것처럼 절경을 이룬다. 이곳은 곡우 때가 되면 인근 마을 곳곳에서 여인네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곡우 물을 마시고 맑은 계곡물에 머리를 감으며 놀이를 즐겼다.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용추사 부근에 큰 장시(場市)가 형성돼, 국밥장수, 술장수, 엿장수, 방물장수, 떡장수 등의 상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장시가 이뤄지면서 놀이도 여럿 성행했는데, 그중 탈춤놀이도 있었다는 구전이 있으나 탈의 형태 등은 아직 고증되지 않았따. 귀가하는 사람 중에는 고로쇠물을 항아리나 동이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는데, 미처 고로쇠물을 먹으러 오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기도 한다.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네들은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 용추 계곡 40리길 노정이 멀고 지루해 걸어가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굿판을 벌이기도 했는데, 소위 '소리내기 판'을 벌였다. 다른 패를 이기고자 한껏 흥을 돋우고 신명을 냈으니, 여인네들의 노래 소리가 용추 40리 계곡을 꽉 메우고도 남았다.

이러한 들놀이를 통해 여인네들은 속박된 생활에서 오는 해방감을 한껏 만끽하고, 생활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한을 소리에 담아 풀어냄으로써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활을 준비할 수 있던 것이다. 장은 새로운 문물이나 소식도 듣고 볼 수 있는 곳이니 농촌문화의 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전파 장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함양들놀이소리는 이러한 장날의 모습을 통해 함양 고유의 소리를 표현하고 재현한 작품이다.

함양들놀이소리는 질굿내기, 줌치소리, 걸궁노래, 동풍가, 첫날밤 노래 등 다섯 개 노래와 그사이에 들어가는 굿거리 춤, 북춤, 소고춤, 12발 상모놀이 등 다양한 놀이마당으로 구성된다.

현지 민속으로 참가한 작품이며, 시장을 재현한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민요와 춤, 농악 연주 등이 섞이기는 했으나, 시장이라는 소재를 매개로 묶은 것이어서 민요보다는 민속 종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2.10.11~10.14,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1. 개괄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출범한 아래 총 52회를 치른 반세기를 넘는 기간 사라져가는 전국의 민속예술을 발굴·복원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예술 관련 축제로, 이 축제를 통해 140개 이상의 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제53회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김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0월 10일 전야축제 길놀이를 시작으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서 <치야칭칭 신명났네! 구경났네 얼~쑤 김천>이라는 주제어로 개최되었다. 전야제 행사는 태풍 피해로 규모가 다소 축소된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산신제와 수막이제 다음으로 농악대의 길놀이가 펼쳐지고, 개막 공연에는 국내 명인들, 그리고 김천시와 자매결연을 한 중국과 일본의 전통예능인들이 출연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본 대회는 나흘 동안 제1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5개 시·도)와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이북5도 포함 20개 시·도)로 나뉘어 치열한 각축을 벌였는데, 각 지역 고유의 전승 민속예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멀리 연변에서 온 반가운 손님도 있었다. 축제 53년 만에 시도된 첫 만남으로, 중국 길림성 훈춘시 밀강향 퉁소마을 주민들이 참가해 나라가 힘이 없어 생존을 위해 떠난 타국에서 위안으로 삼았던 우리 민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천시는 포도, 자두 등 과실의 명산지로, 예로부터 농악이 유명해 매년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해왔을 뿐만 아니라 '삼도봉 축제'와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등 여러 민속 축제도 이어오는 등 민속문화에 대한 시민의 애정이 각별하다. 특히 금릉빗내농악은 제52회 대회에서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해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제53회 대회에서도 금릉빗내농악보존회가 전야제 길놀이와 개막공연을 농악으로 장식해 흥취를 돋웠다. 또한 경연과 경연 사이에 얼쑤마당, 줄타기 등 관중 참여 놀이마당을 삽입했고, 경연이 끝나는 저녁 시간에는 다양한 특별무대를 준비해 한국 민속예능의 진수를 보여줬다.

제53회 대회 경연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특별시 '수표교다리', 함경북도 '백두산선녀춤', 부산광역시 '구덕망께 터다지기', 평안남도 '평양검무', 강원도 '고성명태소리', 평안북도 '영변성황굿', 대구광역시 '달성이천농악', 황해도 '만구대탁굿', 전라남도 '비금밤달애놀이', 함경남도 '돈돌날이', 울산광역시 '허계굿', 충청북도 '중원들소리', 전라북도 '우동리 당산제', 대전광역시 '갑천춘사새신', 경상남도 '함안농요', 충청남도 '송악두레', 제주특별자치도 '답다우는소리', 경상북도 '자인팔광대', 인천광역시 '소금밭일놀이', 경상북도 '안동 읊송놀이' 등이다.

2. 참가 종목

● 경상남도 / 함안농요 / 함안농요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함안농요'는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보리농사소리와 벼농사소리를 엮은 작품이다. 총 네 개 마당으로 구성되는데, 뻣뻣한 보리를 타작하는 보리타작소리, 모찌기소리, 모심기 소리, 논매기 과정

을 표현한 아시(초벌)논매기와 논매기 상사소리, 그리고 함안군의 전래놀이인 '거북줄땡기기 놀이'까지 포함해 구성했다.

1. 보리타작소리

보리타작할 때는 5-10명이 함께 일을 하는데, 목도리께(선창자)가 먼저 두드리면서 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드린다. 도리깨로 타작을 하는 '보리타작마당'이 중심이 되며, 그 주변에서 타작을 돕는 비질, 갈퀴(까꾸리)질, 탈곡이 덜 된 보리를 손으로 훑어내서 키질하는 날보리 훑기, 탈곡이 된 보리를 모아 알을 가려내는 보리 대라기. 시어머니와 사는 가난한 새댁을 가정한 '개상질 타작'으로 구성된다. 시작할 때는 '오헤야'로 받다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에화'로 받는소리가 바뀐다.

(받는소리) 오헤야
(메기는소리) 잘도헌다 다잘허고
우리 농부 다잘하네

2. 모찌기소리

(메기는소리) 살랑 살랑 모쪄서 놓고 저 건네 방천에 쉬러나 가세
(받는소리) 살랑 살랑 모쪄서 놓고 저 건네 방천에 쉬러나 가세
(메기는소리) 드러내자 드러서 내자 이 못자리로 드러서 내자
(받는소리) 드러내자 드러서 내자 이 못자리로 드러서 내자
(메기는소리) 에와 내자 에와서 내자
(받는소리) 이 못자리로 에와서 내자

<자진모찌는소리>

(메기는소리) 조리자 조리자 이 못자리로 조리자
(받는소리) 조리장사 딸인가 조리기도참 잘한다
(메기는소리) 조리자 조리자 이 못자리로 조리자
(받는소리) 조리장사 딸인가 조리기도참 잘한다

3. 모심기소리 - 정자소리

경남 지역에서 교환창 방식으로 부르는 정자소리 계열이다. 아침소리, 점심소리, 오후소리로 나뉜다.

(메기는소리) 물꼬 장창 날어놓고 주인 한량 어데로 갔노
(받는소리) 문에 전복야 들고 저건네 가겄네
(메기는소리)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원제 커서 열매열래
(받는소리) 이달 크고 저달 크고 칠팔월에는 열매열래

<자진모심는소리>

(메기는소리) 더디다 더디다 우리 점심이 더디다 뭐한다고 더디노
(받는소리) 숟가락 밥마늘 세느라고 더디다
(메기는소리) 더디다 더디다 우리 점심이 더디다 뭐한다고 더디노
(받는소리) 나무접시 열두줄 땎느라고 더디다
(메기는소리) 더디다 더디다 우리 점심이 더디다 뭐한다고 더디노
(받는소리) 다 같이 젓갈을 세니라고 더디다

4. 논두렁밟기

모심기를 위해 논에 물을 가두고 써레질을 할 수 있도록 논두렁을 밟는다.

5. 아시(초벌) 논매기 - 상사소리

첫 번째 논매기를 '아시매기'라고 한다. 이때 상사소리를 부르는 데 몸을 숙여 논바닥을 저으면서 천천히 풀을 뽑아낸다.

(받는소리) 상사 이 디이이여허
(메기는소리) 거룩하신 조물주를
인생 마련하여
돌아가신 신농씨는
높은 데는 밭을 두고
이렁 저렁 다매었다

6. 새참

7. 만논매기소리

'만논매기'는 마지막 논매기라는 뜻이다. 마지막에는 풍년을 축하하는 '칭칭이소리'를 노래한다.

(받는소리) 상사 디이이여허
(메기는소리) 여보소 농부야 말들어
이논 배미를 얼른 매고
놈 놀 적에 나도 나고
나 날 적에 놈도 나고
다 같이도 낳건마는
우리 농부 불쌍하다
덥고 더운 삼복시절
오뉴월에 삼복시절
새끼 백발은 농촌에 씨고
인간 백발은 쓸데가 없네
얼릉 매고 집에 가서
반가운건 애기도령
얼릉 안고 어려갈제
사람하고 똑같은 님
이렁저렁 다매었다

8. 함안거북줄당기기놀이

농악 연주로 흥이 고조되면 각 마을의 거북이가 나와 줄당기기 놀이를 한다. 거북이는 양쪽에 둥글게 매듭을 지은 줄을 목에 걸고 두 다리 사이로 줄을 빼내 엎드린 자세른 취한 후 좌우로 크게 태극모양으로 움직이며 힘을 겨룬다. 승패가 갈리면 이긴 거북을 지게 작대기에 태우고 한 바퀴 돌며 놀이를 맺는다.

보리타작을 실감 나게 재현했고, 논농사소리 중 모찌는소리와 모심는소리는 여자들의 소리로, 논매는 소리는 남자들의 소리로 과거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또한 농악 연주와 거북줄당기기놀이, 새참 때의 짚불피우기와 씨름 등 여러 민속문화를 다채롭게 엮었다. 함안농요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충청남도 / 송악두레 /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송악두레는 2002년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에서 발굴해 계승·보존하는 매우 거칠고 투박한 두레놀이다. 농부들이 만물논매기를 하며 농사짓는 수고로움을 풀기 위해 해왔던 민속이며, 외암민속마을 문화재 보호구역과 상수원 상류 청정지역인 송악면 주민의 농경문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지역 특유의 퉁퉁이 장단과 지게 가마 두레쌈놀이가 독특하다.

제1마당 '농신제'

농신제로서 가가호호 남녀노소 무탈함과 풍년을 기원하며 동쪽을 향해 축문을 읽고 제를 올린다.

<축문>

유세차 임세년 OOOO년 OO삭십 OO일 신유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 단장 정인화 감소고우
토지지신 지위금위 두레풍물 보존행사 금일 참석자
전원강길 만사형통 우순풍조 백곡풍양 기뢰신휴비
예장성유 신고흠영전 궐거상향

제2마당: '모심기'

<모심는소리-상사소리>

(받는소리) 얼럴럴 상사듸야
(메기는소리) 한일자로 늘어서서 입구자로 심어보세
드문듬성 시엄어도 삼배출짜리루 꽂아주게
여기저기 찍어어도 양석자리만 찍어주게
어허흠차 찍어내야 어허흠차 찍어내야
스마지기 논뱀이가 반달만치 남어었네
어찌네가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농사가 최고일세
얼추심었네 얼추심어 장구뱀이가 기다린다
이논뱀이 얼렁심고 장구뱀이루 넘어가세
가찬디 사람보기좋고 먼디사람도 보기좋네
즘심참이 늦어지니 얼렁심고 쉬어가세
오늘우덜 흘린땀이 국태민안 시화연풍
다심었다!

제3마당 '두레 논매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뙤풀로 만든 송악도랭이와 우모를 착용하고, 호미 없이 행하는 만물논매기다. 굿거리장단에 송악두레농요를 부르며 두레춤사위와 더불어 두레꾼이 하나가 되어 신명 나는 분위기를 만든다.

<논매는소리 - 얼러를 가세>

(받는소리) 어하 얼러를 가아세
(메기는소리) 농자천하지대본이라 농사가 최고일세
여보시오 농부님네 농사가 근본이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얼카덩어리 잘넘어간다

올해도 풍년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
스마지기 논뱀이가 반달만치 남어었네
이논뱀이 얼렁매고 장구뱀이루 넘어가세
잘도맨다 잘도맨다 얼카덩어리 잘넘어간다
오늘같이 논매는날 막걸리가 최고일세
노송아래 덩그마니 막걸리가 오라하네
오늘우덜 흘린땀이 국태민안 시화연풍

<자진논매는소리-얼럴럴 가세: 빨른마치>

(받는소리) 얼럴럴 가세
(메기는소리) 뚱그렇게 돌아서서
푹푹파서 외루감구
사뿐사뿐 바루감구 얼럴럴 가세
얼카덩어리 잘넘어가네
이뱀이 다매믄 어디루가나
이뱀이 다매믄 쉬어가세
다맸다!

넷째마당 '지게가마 두레쌈놀이'

이 마당은 피로를 푸는 마당으로, 소쿠리를 집어 던지고 상대를 논두렁에 팽개치기도 하며, 농기를 제압하고 지게 가마에 상두레꾼과 서당도령을 태워 신명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띠풀로 만든 송악도랭이는 안쪽에 새끼를 꼬아 격자문양으로 만들어 시원하고 오래 입어도 땀이 차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우모는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소나무 뿌랭이로 틀을 만들고, 그 틀을 중심으로 띠풀을 빗살무늬로 엮어 마감한 것이다. 송악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퉁퉁이장단을 비롯해, 마당 덩덕궁이와 빨른마치장단으로 흥을 최고조로 높인다.

충청남도의 논농사소리 중 모심는소리와 논매는소리, 그리고 지역 농악 장단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소품을 직접 제작해서 고졸한 민속을 잘 보여줬다.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강원도 / 고성명태소리 / 고성어로요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고성군은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북쪽에서부터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명태 황금어장으로, 한때 전국 지방태 생산의 70%를 차지했던 고성군은 명실상부한 동해안의 명태 '메카'였다. 따라서 명태는 고성의 대표 브랜드요,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기도 하다.

명태는 가을철 북태평양에서 계속 남하해 11~12월에 걸쳐 강원도와 경상북도 연안까지 회유한 후 산란을 마치고 2월 이후 수온이 상승하면 다시 북상한다. 고성명태소리는 매년 풍어굿을 하는 과정, 명태잡는 그물과 낚시 준비과정, 바다에 나가 명태를 잡는 과정, 항구에서 이를 고르게 손질하는 과정, 덕장에서 말리는 과정과 이를 꿰어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엮은 작품이다.

제1과장 '입장, 풍어제'

고명식 호(고성서 만든 식혜)와 고명순 호(고성서 만든 순대)를 든대질해 끌고 들어와 고사반으로 용왕제를 지낸다.

제2과장 '노젓고 그물내리는소리'

<노젓는소리>

(받는소리) 지오지오

(메기는소리)

어떤 사람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	누리는데
이내 팔자가	웬 팔자드냐
강원도 고성에서	명태잡이 하누나
요번 명태	못잡으면
동지섣달	엄동설한에
토끼같은	우리 아들딸
여우같은	우리 여편네
무얼먹고	산단말이냐
여보시오	벗님네야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되면	녹음방초
가을 추자	가을이 오면
오곡백과가	풍년이로다
겨울동자	겨울이 오면
온강산에	백설이 내려
온 세상이	은빛이로다
사계절이	뚜렷하구나
금수강산	대한민국
이계절 저계절	다좋다마는
겨울철이	제일 좋아

명태잡이 철이니까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를 마라
잠시 스쳐가는 청춘이요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이라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시시비를 하는구나

3. 제3과장 '그물당기고 고기푸는소리'

<그물당기는소리>

(받는소리) 에 싸냐
(메기는소리) 어 싼야
우리 부모 날 곱게 길러서
명태잡이 하라고 날 곱게 길렀나
한산날이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럭아
우리 부모 만나거든
강원도 고성에서 명태잡이 한다고
이내 소식을 전해주마(후략)

<노젓는소리>

(받는소리) 지오지오
(메기는소리) 일락서산 해는 지고
월출동녘에 달이 뜨누나
동무동무 일천동무
어데 갔다가 이제 왔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명태잡이 하러 나가세
요번 명태 많이 잡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고
금강산 구경을 하러가세

제4과장 '가래소리와 명태세는소리(장자요,우자요)'

<가래소리>

(받는소리) 에라소 가래로구나
(메기는소리) 요번 가래는 누구의 가래냐
요번 가래는 선주의 가래다
주인장 아줌마 막걸리 이고 나오신다
요번 가래는 과부댁 가래다
이번 가래는 선주님 가래다
요번 가래는 선원들 가래다
요번 가래는 배임자 가래다

<명태세는소리>

가래소리 중반에 한 번 씩 섞인다.

에이 장자요 우자요 거부기요 한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다섯에 여섯에 일곱에 여덟에...

제5과장 '풍어놀이'

어랑타령과 풍물굿으로 풍어를 축하하며 뒤풀이를 한다.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는 명태잡이가 성행했다. 동해안의 어로요 가운데 일본 노래가 섞인 경우도 많아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번 고성명태소리에는 노젓는소리와 가래소리, 명태세는소리 등에서 고형의 뱃소리를 포함했다.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경상북도 / 자인팔광대 / 자인팔광대보존회

종목 가면극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자인팔광대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서 전승하는 민속가면극 (탈춤)으로서, 중요무형문화제 제 44호 경산 자인단오제의 다섯 마당 중 하나다.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온 경산자인단오제에서는 한묘대제를 지내고 나면 마을의 수호신이신 한 장군의 뜻을 추모하며 여원무를 추고 배우잡희를 열게 되었는 데 이 배우잡희가 바로 팔광대의 전신이며 이때 8명의 광대가 판을 벌여 팔광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른 가면극과는 달리 광대들의 중간 등, 퇴장이 없으며 8명의 광대가 다 같이 등장해 마당 구분 없이 극이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장

자인팔광대 기가 앞장을 서고 태평소, 꽹과리, 징, 장구, 북 등 악사들과 양반,후처, 본처, 말뚝이, 참봉, 곱사, 줄광대, 무당 순으로 일렬로 갈지(之)를 그리며 덧배기나 굿거리 장단에 춤을 추며 놀이판으로 등장하며 원을 만든다.(8명의 광대는 반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악사들은 원 바깥에 일렬로 앉아서 반주를 한다.)

2. 양반 말뚝이 마당

8명의 광대가 원이 이루어지면 원 한가운데 있는 술독으로 가서 제각기 술을 한 잔 마시고 탈을 쓴 후 다시 원을 그리며 춤을 추다가 양반의 “쉬~” 소리에 춤을 멈추고, 양반과 말뚝이는 원 중앙부분에서 서로 재담을 주고 받다가 다시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것을 반복한다.

3. 본처 후처마당

본처를 제외한 모든 광대들은 원의 선상에서 춤을 추고 본처는 양반을 원 안에서 이리저리 찾아다닌다(즉흥으로 원 안을 벗어나 객석으로 이동해 양반을 찾기도 함). 양반이 “쉬~” 하면 모든 배역은 제자리에 앉고 말뚝이와 양반, 본처 후처가 원 안에서 연기한다. 말뚝이가 후처와 양반을 중매하고 후처와 양반이 놀아나는 것을 본처에게 고자질하고, 본처가 바가지를 배에 넣고 임신한 체하며 양반과 실랑이를 벌이다 양반을 발로 차 죽게 하며, 당황한 본처는 양반을 살리기 위해 참봉과 무당을 불러 굿을 통해 양반을 살린다. 다시 살아난 양반은 본처에게 절을 하며 사죄하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꾸린다(모든 연기는 원 안에서 이루어짐).

4. 줄광대 마당

본처 후처 마당이 끝나면 양반이 말뚝이를 불러 원 안에 줄광대가 탈 줄을 깔게 하고 줄을 양쪽에서 잡아 당겨 팽팽하게 땅줄을 만든다. 줄광대는 줄 위에서 줄을 타며 재담을 하고 곱사는 줄광대의 흉내를 내며 원 안에서 춤을 추며 말뚝이는 원 안에서 북을 치며 흥을 돋운다.

5. 뒷풀이뒤풀이

줄광대 마당이 끝나면 양반이 “필필이 강산이 화사적 하니 도천 갓변에 굿단이 났다. 우리 한바탕 노자~" 하면 일동 “좋다 좋다 쿵마 캥캥 호로록 삐쭉” 하며 불림을 하고 춤을 춘다. 이때 바깥에 앉아 있던 악사들 모두가 원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놀다가 입장할 때와 같이 일렬로 춤을 추며 퇴장 한다.

자인팔광대는 대체로 갈등·화해의 구조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끄럽게 전개되지 못한다. 양반과 말뚝이의 화해는 일방적이고 봉합된 측면이 있으며, 양반 처첩 관계는 결합, 갈등,

분리, 화해의 과정이 다소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한편으론 기존의 다른 지역 가면극과 달리 철저히 유언 중심으로 진행된 점은 독특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 평안남도 / 평양검무 / 평양검무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평양검무는 평안도의 대표 작품 중 하나다. 평양검무 전승자 이봉애 선생은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리 출신으로, 평양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녀 서문여고를 졸업했다. 그의 나이 14세에 평양권번 출신 예기 김학선을 만나 평양검무를 사사했고, 현재는 이봉애 선생의 제자들이 평양검무를 전승하고 있다. 이봉애 선생은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해마다 정기공연을 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평양검무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평양검무는 입춤, 앉은 춤, 칼춤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입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일자 사위

2. 앉은 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두 손 모아 허리춤
(3) 옆으로 허리춤
(4) 두 손 위로 모아 허리춤

3. 칼춤

(1) 한칼 사위
(2) 쌍칼 사위
(3) 서서 기본 동작사위
(4) 반돌기
(5) 칼 뽑기 동작
(6) 양팔 벌려 두 번 돌리기
(7) 건곤 사선 사위
(8) 반돌기 사위
(9) 앉는 연풍 사위
(10) 까치 사위
(11) 번개 사위
(12) 머리 쓸기 사위
(13) 인사 사위
(14) 하늘 치기 사위
(15) 빨리 돌기 사위
(16) 양팔 벌려 칼 돌리기 사위
(17) 유진 유퇴
(18) 도는 연풍 앉아 칼 돌리기
(19) 머리 쓸며 까치 사위
(20) 칼로 땅치기 사위
(21) 돌아서 기본사위

(22) 좌우 칼 돌리기
(23) 번개사위
(24) 앞 돌리기
(25) 번개 사위 4, 2, 4
(26) 마지막 인사

평양검무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여러 차례 출전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문화재청장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본디 평안남도와 평양 지역에서 전승되던 것인데, 현재는 전통 검무를 공연하지 않기 때문에 평양검무도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 전라남도 / 비금밤달애놀이/ 비금밤달애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경북도지사(은상)
상금 4,000

밤달애는 장례식 전날 밤 동네 사람들이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초상집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노는 놀이로, 다양한 민요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례를 축제와 같이 치르는 전통이라 여러 가지 놀이와 연희가 들어 있다. 특히 남사당노래는 일정한 형식과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당어우르는 놀이

이름이 말하듯 연행 현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고치고 노래를 부르며 노는 놀이다. 노래는 '12/8(♩.=43)'박으로 되어 있다. 경서도 산타령에서도 소리를 시작하기 전 판소고 치는 것을 격식으로 삼는데, 소고를 들고 일렬로 늘어서 앞뒤로 오가며 뒷소리를 받아 넘기며, 본격적인 소리판이 만들어지기 전의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2. 주문가

주문가는 노랫말에 나오는 '당산', '나무북방' 같은 말이나 달거리 형식으로 된 사설 구성 등 주술적 기능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남사당놀이의 오락 기능이 강조되면서 제의적 사설은 축소된 것으로 여긴다. 음악은 '12/8(♩.=77)'박과 '18/8'박이 혼재해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3. 거사.사당놀이

거사와 사당으로 꾸민 두 패가 마주 보고 서서 교환창 방식으로 노래를 주고받으며 소고춤을 추는 놀이다. 사당이 노래를 하면서 나오면 거사가 뒤로 물러서고, 거사가 소고치고 노래하면서 나오면 사당이 물러서면서 노는 형태를 보인다.

4. 매화타령

매화타령은 후렴에 나오는 '매화'라는 말에서 따온 이름이다. 선후창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선입후제창으로 많이 부른다. '12/8(♩.=80)'박을 기본으로 한다.

5. 잡가

매화타령 후에는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마당을 도는 상여놀이를 한다. 잡가는 매화타령 이후 부르는 여흥 노래로, 여러 타령류를 총칭한 것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남사당노래는 아닌 셈이다. 개미타령, 다리타령, 신세타령, 단지타령, 시누타령, 이타령, 장모타령 등이 주로 불리는데, 여흥 목적에 걸맞게 해학과 과장된 상황 묘사 등이 주를 이룬다.

밤달애놀이는 망자의 혼을 달래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로, 마을 사람들이 호상을 당한 상가를 위해 밤을 새며 치르는 것이 큰 특징이다. 오랜 전통의 연원에 바탕을 두고 현재까지 전승되는 공동체적 유대 의식을 기반으로 한 장례 풍속인 점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 부산광역시 / 구덕망께터다지기 /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구덕망께터다지기'는 망께(돌뭉치)를 사용해 집터에 주춧돌을 놓을 자리와 땅을 다질 때 부르던 노동요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망께소리는 노동력과 협동정신을 중요시하므로, 작은오방망께소리(후렴소리), 큰망께소리(후렴소리), 쾌지나칭칭(후렴소리)을 함께 부른다. 특히 부산 지역의 망께질은 오행법과 오행지신누르기로 특색을 이룬다. 그 순서와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터닦는가래소리

선소리	후렴
어여차 가래야	어여차 가래야
닦읍시다. 닦읍시다	"
이 터에다 집을 짓고	"
만수부강 현판달고	"
산수좋은 구덕산에	"
불로초와 불사약을	"
여기저기 심어놓고	"
학발양친 봉양해	"
세세익수 아여보세	"

2. 작은망께터다지기

선소리(1)	후렴	선소리(2)
어여차, 망께야	어여차, 망께야	이망께가 뉘망껜고
이망께가 뉘망껜고	"	강태공의 망께로다
여러분의 망께로다	"	천근망께는 공중에 놀고
우리 망께꾼들은	"	소리맞춰 잘도한다
다져주소 다져주소	"	동방지신을 다져주소
서방지신 다져주소	"	다져주소 다져주소
남방지신 다져주소	"	다져주소 다져주소
북방지신 다져주소	"	다져주소 다져주소
중앙지신 다져주소	"	다져주소 다져주소
오방지신 다졌으니	"	다져주소 다져주소
여보시오 여러분	"	이내말씀 들오보소
우리나라 팔도강산	"	곳곳마다 망께소리
어여차 망께야	"	망께소리 크게내소
이 집터를 잡을적에	"	어느 풍수가 잡았던가

3. 큰망께다지기

선소리(1)	후렴	선소리(2)
어여차, 망께야	어여차, 망께야	
이집터전을 바라보세	"	
남산은 봉이로다	"	주산은 당산이로다

갑산은 지자로다	“	여산은 도읍이로다
천간은 착하시니	“	하늘이 생기시니
지복이 착하시니	“	땅이 생기시고
인오에 술상하니	“	사람이 생기셨네
그때그시절에	“	동방문이 열리시고
그때그시절에	“	서방문이 열리셨네
그때그시절에	“	남방문이 열리셨네
그때그시절에	“	북방문이 열리시고
그때그시절에	“	오구제석 천왕문이 열리시고
함경도라 백두산은	“	두만강이 둘러 있고
평안도라 묘향산은	“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	임진강이 둘러있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	해금강이 둘러있네

4. 쾌지나칭칭소리

느린소리(굿거리장단)	**후렴**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여보시오 여러분들	“	이내말씀 또 있는가
이 세상에 만물중에	“	사람밖에 또있는가
남날적에 났건만은	“	어떤사람은 누리고살고
고대광실 높은집에	“	부귀공명을 못살아보나
어떤 사람은 빈고해	“	잔솔밭에는 괘이로많소
청청하늘에 잔별도많소	“	이내가슴에 수심도 많소
시내강변엔 자갈도많소	“	이내가슴에 수심도많소
풀어내세 풀어내세	“	수심가슴을 풀어내세
살고지고 살고지고	“	천년만년을 살고지고
우리인생은 초록인생	“	죽어지면은 허사로다
여보시오 여러분들	“	이 자리에 오신손님
일심봉청 하옵시고	“	여보시오 여러분들
남녀노소 할것없이	“	부모공양을 많이하소

구덕망께터다지기는 부산 지역의 전통 건축 과정에서 터를 다지는 도구인 망께와 땅을 다지는 작업 과정 등에 대한 원형을 지니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민속놀이며, 부산 지역의 노동요로서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소리의 내용은 민간신앙적인 것과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또한 망께질 과정에서 앞소리의 구조는 “어여차 망께야”로 시작해 힘찬 노동 동작에 역동적·단합적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며, 끝소리는 “천년만년 눌러주소”라 해 잡신을 눌러 가화만사성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뒤풀이 과정의 ‘쾌지나칭칭나네’는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고달픔과 한을 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근검, 자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지방의 ‘쾌지나칭칭나네’와 차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 서창만드리 / 서창만드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3,000

광주광역시의 서창만드리는 영산강 상류를 중심으로 전승된 노래로, 초벌매기, 두벌매기, 만드리와 장원질소리로 구성된다. 첫 번째 논매기소리인 초벌매기는 “오호호 호아 헤 헤에루 사뒤여”로 받는 사뒤여소리로, 3소박 중모리 장단으로 반주한다. 두벌매기는 산아지타령을 부르는데, 이 역시 3소박 중모리 장단이다. 만드리는 “오호 호 헤헤루 상사절로”로 받는데, 상사소리와 절로소리가 섞인 유형으로 보인다. 마지막 장원질소리는 “아롱저롱”으로 받는 3소박 4박자의 중중모리형 악곡이다.
악곡별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초벌매기 - 사뒤여소리

(받는소리)　오호호 호아 헤 헤에루 사뒤여
(메기는소리)　십오야 밝은 달은 구름속에 놀고 이십안짝 새 큰애기 내 품 안에서 놀아라

2. 두벌매기 - 산아지타령

(받는소리)　에야 뒤야 에헤헤 에야 에야라 뒤이여 산아지로구나
(메기는소리)　사람이 살며는 몇백년이나 살거나 호박같이 둥근세상 둥글둥글 삽시다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 말어라 이내 청춘이 다 늙어 간다

3. 만드리

(받는소리)　오호 호 헤헤루 상사절로
(메기는소리)　잘도 허네 잘도허네 우리 농군님 잘도 허시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잘도 허시네
불과 같이 더운 날에 매울 같은 지심을 매세
이마 우에 흐르는 땀방울 방울방울이 보석같고
올모 끝에 달린 흙덩어린 덩어리 덩어리가 황금일세

4. 장원질소리

(받는소리)　아롱저롱
(메기는소리)　풍년일세 풍년일세
삼천리 이 강산이 풍년일세
가세 가세 어서나 가세
이 강 건너서 임찾아 가세
앞 집에 큰애기가 시집을 간다는데
뒷집에 노총각 생병이 났구나
오동추야 달밝은 밤에
임생각이 절로나 난다

서창만드리소리는 제51회 대회에서 공주시장상인 장려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답다우는소리 / 덕수리민속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답'은 방사탑을 말하며, '답다운다'는 탑을 세운다는 뜻이다. 제주도에서 방사용 돌탑을 쌓는 과정에서 부르는 민요를 엮은 작품이다. 제주에서는 한 마을을 형성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을의 어느 한 방위에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거나 어느 한 지형의 기가 허[虛]한 곳에 돌탑을 쌓아 올려 부정과 악의 출입을 막아 마을을 평안하게 하고자 했다. 제주에 세워진 방사용 돌탑은 마을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덕수리에서는 '답'으로 불린다. 답은 좌우, 음양, 남북 대칭으로 쌓는 것이 보통이며, 답 위에는 새 형상을 한 돌이나 사람 모양을 한 석상을(덕수리는 남근석을 세움) 세운 곳도 있다. 답 속에는 우금(밥주걱)이나 솥을 묻어 두는데, 우금을 묻는 경우는 솥에 있는 밥을 긁어 담듯 외부의 재물을 마을 안으로 담아 들이라는 뜻이고, 솥을 묻는 경우는 무서운 불에도 끄떡없이 이겨내는 솥처럼 마을의 액운을 막아 달라는 민간신앙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덕수리는 1625년경 지금의 곶바구리(지명)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뤘고, 그 후 점차 번성해 큰 가름(지금의 동동[東洞])에 촌락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소가 죽거나 사람이 자꾸 아프고 일찍 죽는 등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이름 있는 지관에게 물어보니, "을진방[東南方]과 신술방[西北方]이 허[虛]해 사[邪]가 흘러들어와 불상사가 생기니 답(방사탑)을 쌓아서 액을 막으라"며 방법을 일러 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머리에 남근석을 올린 답을 을진방과 신술방에 쌓으니 마을의이 평안해졌다고 한다.[1)]

그 후 4.3사건 때 마을 주위에 성을 쌓으면서 답(방사탑)이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 안 좋은 일이 또다시 생겼다. 지금은 덕수리는 동동[東洞], 서동[西洞], 도련동[道蓮洞]으로 마을의 구성되는데, 유독 동동에서만 남자들이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2003년에 동동 사람들이 모여 집집이 조금씩 모금을 해 다시 답을 복원[2)]했는 데 그 후 아직은 큰일이 없다.
또한 답에는 질병 예방, 화재 예방, 우마 번성, 해상사고 예방, 홍수 방지, 자손의 성공 기원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답을 쌓을 때는 출력[出力]이라 해 집마다 성인 남녀 한두 사람씩 참여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기원을 담아내면서 돌 한 덩어리씩을 쌓아갔다.

1. 무당굿

제주도 심방과 연물이 등장해 굿을 하는 장면이다.

2. 다짐소리

(받는소리) 에헤 다 져
(메기는소리) 달구체를 골라잡고 역꾼님네 모다들엉
요자리를 다져보자 에 헤 다 져
청청하게 좋은날에 부모님전 떡밥괴고
신령님전 명을빌고 부처님전 공을빌어
정성으로 다졈쑤다 어허불싸 요놀래여
어허불싸 달구질로 역꾼님네 힘을내영
간세말앙 다려보자 에 헤 다 져
구석구석 다리단보난 석곽처럼 다졌구나

---

1) 故 김시후 씨의 증언을 김동권 씨의 기억으로 정리한 것임,
2) 당시 참여했던 마을 사람은 김동권(75세), 추진했던 마을 이장 윤창선(68세)과 김동일(56세) 등이다.

일약서산 해는지고　　요놀래가 막놀래여
에 헤 다 져　　에 헤 다 져

터를 다질 때 양쪽 2기 답을 쌓을 자리에 일꾼들이 원을 그린다. 다짐대를 잡은 사람은 줄을 잡고 후렴에 맞춰 높이 들었다가 놓고, 달구체를 잡은 사람도 후렴에 맞춰 달구체를 높이 들었다가 놓으며 터를 다져 나간다. 이때 물허벅을 지고 있는 아지망은 같이 돌면서 물을 주곤 한다.

3. ᄀᆞ시(고사), 우금(밥주걱), 솥 묻기

(축문) 유세차(維歲次) 2012년 10월 13일 우리 ᄆᆞ을에 답을 맹글멍(만들면서)
덕수리 민속보존회에서 답의 영신(靈神)께 아뢰나이다.
답의 영신이시여 우리 ᄆᆞ을에 재화(災禍)나 모든 질병(疾病), 액운(厄運)을 막아 영원토록 지켜 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향(尙饗)

4. 목도소리

(받는소리)　지정차 / 어기영차
(메기는소리)　지정차　　어기영차
좋은 돌을　　골라다가
여허 탑을　　싸봅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좋은 돌을　　골라다가
여허 탑을　　싸봅시다

5. 답다우기

목도를 제자리에 놓고 산테, 푸지게, 돌메 등을 들고 담 있는 자리로 가고, 담을 식거(실어)주는 사람은 산테, 푸지게에 담을 식거(실어) 준다. 담 다는 소리가 시작되면 산테는 2인1조로 둘이서 잡고 담을 날으고, 푸지게로는 담을 등에 져서 날은다. 지게꾼은 지게에 어떤 사람은 담을 둥그리멍(굴리면서) 담을 날은다. 골체는 고망을 막고, 돌메는 담을 툭툭 치멍 곱게 다진다.

(받는소리)　낭글 세왕
(메기는소리)　낭글 세왕
이 낭글 세왕　　저 낭글 세왕
어야디야　　막대기야
혼번두번　　둥글 때랑
앞드레랑　　베겟돌 노라
뒷트레랑　　줄 벋지 말게
노리와 가멍
요돌 안곡　　버칠런가
한라산 새도　　요리오난
큰돌라근　　둥그려라
장돌허곡　　조근 돌랑
둥그려당　　전돌하고
전돌아래　　좀진돌랑
고막 막으멍
낭글 세왕　　낭글 세왕
요돌이라근　　끗어다가
큰돌이랑　　목도리로

중돌이건 중도리도
메와가멍
존자갈랑 기여다가
속도리도 메와가멍
낭글 세왕 이 낭글 세왕
낭글 세왕 저 낭글 세왕
낭글 세왕 낭글 세왕
너븐 돌랑 지여 다근
요썹 이나 돌아가멍
존자갈랑 속도리나
메와보자
낭글 세왕 낭글 세왕
저낭글 세왕
우리접군 일심동력
허여줍서
요런돌랑 멘손으로
지여다근 어귓돌로
놓아보자
대문앞의 정문앞의
세와보라
우리접군 요돌허여당
물고랑을 메와노앙
젱고레가 소용어시
몰고래로 골아나 보자
사름엇건 물로골곡
사름엇건 쇄 매와근
골아나 보자
낭글 세왕 낭글 세왕
저낭글 세왕

6. 상ᄆᆞ루 돌 세우기

답이 다 쌓아지고 꼭대기에 상ᄆᆞ루 돌만 세우면 된다. 상ᄆᆞ루 돌은 흔히 새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 등을 하는 데 이 ᄆᆞ을은 남근석을 세웠다. 남근석을 세울 때는 1기에 다섯 명씩 붙어서 돌을 올린다.

7. 뒤풀이

소리꾼의 사설이 끝나는 대로 걸궁패는 삼채를 치고 원진을 크게 그리며 마당을 돌고, 걸궁패, 기수, 일꾼, 소와 쉐장남은 뒤를 따르며 하나의 원을 만들고 가락에 맞춰 각자 춤을 추며 신명 나게 놀며, 걸궁패가 중앙에서 휘모리로 달팽이 진을 그리며 마지막 신명을 올리면 출연진은 큰 원을 이탈하지 않고 돌다가 휘모리가 끝나면 인사를 한다.

<서우제 소리>

(받는소리) 아하 아하 아아아양 어허양 어허요
(메기는소리) 혼모를랑 놀고가자 혼모를랑 쉬고나 가자
오늘같은 좋은날에 서우제소리로 놀고가자
역군님네 모다들렁 방사탑을 만들었수다
천년만년 놀던 돌도 오널날은 쓸모가 있구나

네 팔자나 내 팔자나　　거기서 거기 아니드냐
천년을 살거나 만년을 살거나　　살아 생전에 놀아보세
오늘같이 좋은날에　　정성으로 빌엄쑤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돈 풍년 바람이 불어온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걱정어시 살게 허여줍서

답다우는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재단이사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덕수리는 매년 10월 덕수리전통민속축제를 개최해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작(제20회 불무노래, 제21회 방앗돌굴리는노래, 제22회 집줄놓는노래, 제47회 곶바구리물통파는소리)을 재현하고 있으며, 본 작품 또한 측제에서 재현해 후손에게 보여 줄 것이라고 한다. 민속예술축제를 계기로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새로 발굴하고 지속·전승하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 인천광역시 / 인천염전일노래/ 인천염전일놀이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인천염전일노래는 1991년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한국예총회장상)을 받은 바 있으며, 제53회 대회를 통해 다시 복원·재현한 작품이다.

인천에서는 1907년 천일 염전 이전 서곶[西串] 지방(지금의 북구 가좌동)에서 바닷물을 퍼 올려 염밭에 넣었다가 염도가 높아지면 가마솥에 조려 소금을 생산한 기록이 있다. 《각사등록[各司謄錄]》에 의하면, 인천 서곶 지방에 염벗(밭)으로 많은 소금을 생산해 전국에 판매한 기록이 있으며, 1901년 서곶관내 염벗업자 84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소금 채취 방법을 전통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1. 드는 마당

2. 염밭갈이 마당

<밭갈이하는소리>

(메기는소리) 어기어차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는소리) 밭가리 하세
(메기는소리) 어기어차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 3회 반복
(받는소리) 차산에 새로다
(메기는소리) 월출동녘에 달솟는다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는소리) 밭가리 하세
(메기는소리) 이제 가면 언제나 오나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는소리) 차산에 새로다
(메기는소리) 오시는 날이나 일러를 주오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는소리) 밭가리 하세
(메기는소리) 아까운 청춘 다 늙었구랴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는소리) 차산에 새로다
(메기는소리) 간데 족족 정들여 놓고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는소리) 밭가리 하세
(메기는소리) 저기가는 저아주머니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는소리) 차산에 새로다
(메기는소리) 딸있거든 사위나 삼아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는소리) 밭가리 하세
(메기는소리) 딸은 있네만 어려서 안되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는소리) 차산에 새로다
(메기는소리) 아이구 아주머니 그런말씀 마시오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는소리) 밭가리 하세(후략)

3. 물푸기 마당

염밭 뒤에 흐르는 바닷물을 쯔레(용탕이라고도 함) 두레박을 가지고 퍼 올린다

<물푸기노래>

(받는소리)　　두레야 칭칭 감겨라 물넘어 갑니다
(메기는소리)　두레야 칭칭 감겨라 물넘어 갑니다
황산에 청산에 가자 나의 갈길 어드메냐
언제나 또다시 만나 노다가지 노다가지
염밭 찾아 이 고생이 이내 팔자 어디나가고
구만리같은 이청춘 한끼처럼 늙어가네(후략)

4. 자염[煮鹽] 마당

넷째 마당은 소금을 만드는 전 과정을 담았다. 물푸기와 염밭 손질, 그리고 염정[鹽井]에 간기밴 흙과 바닷물을 운반 투입한다. 웅덩이에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을 퍼다가 솥에 붓고 불을 때 조리면서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연출했다. 노래는 창부타령조로 달거리 가사를 부른다. 물지게를 나르는 소리는 "어저차 / 어저치기"의 받는소리를 반복하며 부른다.

5. 소금내기 마당

소금이 났다는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데, 사설난봉가에 가사를 바꿔 불렀다.

문헌 기록을 근거로 구성하다 보니 실제 불리는 노래는 통속민요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 지역의 향토민요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이 사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함경남도 / 돈돌날이 / 돈돌날이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김천시장(장려상)
상금 2,000

돈돌날이는 함경남도에 전승되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민요다. 돈돌날이 춤은 누구든지 바가지 장단 또는 북 장단과 노래에 맞춰 춤판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돈돌날이'란 '동틀 날'에서 비롯된 말이며, 세상에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 담겨 있다. 주로 한식 및 단오에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시풍습의 하나로 모래산과 남대천에서 연행을 했다. 함경도의 독특한 춤사위인 달래 춤과 넋두리 춤이 곁들여져 토속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며, 북과 바가지, 자배기 장단이 신명을 돋운다. 이 작품은 돈돌날이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봄철나비, 미나리 꽃, 전갑섬 타령, 삼천리 노래, 양유나 청산, 라리라 돈돌리띠리, 내 고향 북청, 흘레레 레뗄레, 가자, 가자, 리라 리라 라리요, 좋구 좋소 등 다양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돈돌날이에 연행된 춤사위는 일명 '달래 춤'이라고 하는데, 북과 바가지, 퉁소, 징이 조화를 이룬 장단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춘다. 홀개치기를 제외하면 정형화된 춤사위는 없지만, 흥과 신명이 고조되면 자기만의 독창적 춤사위로 관객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춤사위의 특징은 손이 어깨 위에서 손목과 팔이 내려오지 않고, 어깨와 손목과 오금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자연스러움을 더하며, 오금과 발뒤꿈치를 이용해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부녀자들이 흥과 신명이 고조되면 집단으로 춤사위를 연행하는 것을 '넋두리 춤'이라고 한다. 둥글게 원을 만들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회전을 많이 해 생동감이 넘치며, 춤사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돈돌날이에 연행된 장단은 굿거리 장단과 자진 굿거리 장단의 중간 정도 되는 장단이다. 부녀자들이 북과 함지 및 자배기를 이용해 장단을 연주하는데, 북이 전체 장단의 완급을 조절하며 놀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바가지 장단은 커다란 함지에 물을 가득 부어 바가지를 띄우고, 바가지 속에 놋그릇과 수저와 젓가락을 넣어 소리를 낸다.

<돈돌날이>
(후렴)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 강산아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이 강산 서산에>
이 강산 서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일출 동산에 해가 솟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쏠라이쏘>
쏘쏘 쏠라이쏘 거스러미도
남대천이 거스러미 반짝거린다
쏘쏘 쏠라이쏘 거스러미도
모래산에 거스러미 반짝거린다

<리라 리라 라리요>
내고향 좋아요 내고향 좋아요
우리 북청 고을이 내고향 좋아요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우리네 부모는 나를 고이 길러서
짝을 지어 주려고 시집을 보내네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수해양천에서 따님이 왔노라
시집을 안가겠다고 맹세를 하여도
가매채 올리면 할 수가 없구나
명주이불을 덮기만해도
이불속에서 풍니만 하노라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인조이불은 덮었지만해도
하룻밤 정리를 잊지만 마세요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라리라 돈돌리띠리>
라리라 라딸라 라리라 라딸라리요
리띠리띠 리릴라
다리가 리리 띠띠릴리
야야 이 사람아 넬네레넬 걸어라
남대천변으로 가잔다
다리가 리리 띠띠릴리
리띠리띠 리릴라
라리라 라딸라 라리라 라딸라리요
리띠리띠 리릴라
라리라 돈돌 리띠이리
리띠리띠 리띠이리

<전갑섬타령>

양천전촌에 전갑섬이 오매한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갱피방아찧기가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별안대이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밥임나르기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해안전촌에 말이났소
나는좋아요 나는좋아 해안퉁소가 나는좋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좋구 좋소>

좋구 좋소 에라 좋구나
이십살 애들이 놀기 좋구나
십팔세 젊은시절이 놀기 좋구나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아름다운 매화꽃이 곱게 피었네
라리라 이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김천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울산광역시 / 허계굿 / 울산전통고유민속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김천시장(장려상)
상금 2,000

허계굿은 운산 남구 장생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굿으로, 달리 일광월광 허계굿이라고도 하며, 신라시대 서라벌(경주) 신라국 궁전에서 행했던 굿이기도 하다. 허계굿은 신라시대부터 대가집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울산지역 기도처 굿당에서 전해 내려오는 굿으로, 과거 장생포에서 봄·가을 포경선이 출발하기 전 당산제와 용왕제(풍경제)의 형식으로 근래까지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허계굿을 할 때는 마당 한가운데에 10여 미터 높이의 서낭대를 세우고, 오색 천을 서낭대 꼭대기에서부터 땅까지 길게 드리운다. 무녀들이 이 끈을 잡고 둥글게 서는데, 주무녀가 진행하는 일광월광 굿거리 절차에 따라 서낭대를 시계방향으로 돌며 허계굿을 한다. 허계굿에 앞서 고풀이를 하는데, 고풀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의 아닌 죄를 짓어 죽은 영혼이 극락왕생 못하고 무주고흔으로 떠돌고 있으므로, 그 영혼을 서낭대에 일광월광 신을 모셔 열두 비단에 고를 푸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허계굿에서는 허계장군 오방색 고를 잡은 선녀들이 춤을 추며 고를 감고 풀기를 반복한다. 이 때 살을 풀어 꽃을 접고 띠를 돌려 형형색색 불을 밝혀 만[萬]을 오색무지개 다리 놓아 허계에 영혼 실어 천상으로 보내는 천도굿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허계굿에는 무녀 또는 그 소리를 받아서 부르는 소리꾼인 염정열, 김방화, 서노미, 변화숙, 박경영 등이 출연했으며, 선녀가 다수 등장했다. 굿반주 악기로는 꽹과리 2, 장구 2, 징 2, 북 3, 태평소를 썼으며, 그 외 허계등과 깃발 6, 제사상 2를 소품으로 사용했다.

실제 연행된 허계굿은 5개 굿거리로 구성되었는데, 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거리 '입장'
모든 출연자가 한 줄로 들어온다. 무대를 돌며 각자 위치에 선다.

제2거리 '부정굿'
소리꾼이 부정꾼과 소리를 하면 악사들은 장단을 맞추고, 일광월광대의 12색 줄을 잡은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줄을 감는다.

제3거리 '고풀이'
소리꾼들이 앞소리, 뒷소리를 메기면 일광월광대의 줄을 잡은 선녀들은 고를 감고 풀기를 반복한다.

제4거리 '허계굿'
소리꾼들이 허계굿 소리를 한다. 허계장군 오방색 고를 잡은 선녀들이 춤을 추며 고를 감도 풀기를 반복한다.

제5거리 '해원풀이'
제를 지내고 허공에 있던 허계, 가마배, 삼층 등을 내려 영혼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춤을 춘다. 춤이 끝나면 소품을 모아 불에 태우는 의식을 하며 둥글게 원을 그리며 퇴장한다.

허계굿은 불교 또는 오구굿 등에 등장하는 허계를 소재로 무주고혼을 풀어 천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굿의 구성으로 볼 때 독립적이고 온전한 하나의 굿인지, 아니면 특정 굿거리

와 연관된 부분만 강조해 재구성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따져 민속문화적 가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산문화원연합회에서 관련한 논의를 좀 더 심각하게 진행함으로써 장생포-고래-반구대암각화로 결부하는 견해와 독립된 천도제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구광역시 / 달성이천농악 / 달성이천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김천시장(장려상)
상금 2,000

달성이천농악은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농악으로, 낙동강과 금호강 사이에 있는 마을 특성상 수로를 통한 문물교류가 원활해, 조선 말기 이래 큰 놀이판이 많이 펼쳐졌다고 전해진다. 그중 특히 정월 보름마다 열리는 마을 동제, 여름 풋굿 때와 가을추수 후에는 날을 받아 출향인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일 동안 농악을 치며 주야로 놀아왔다고 한다.

달성이천농악 1대 상쇠 추학엽[秋學燁]은 뛰어난 능력으로 다른 지역 농악패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러 다닐 만큼 유명했다. 2대, 3대 상쇠들도 전대 상쇠의 영향을 받아 각 지역에서 명성을 날리며 활동했다. 이 농악의 전통과 가치를 확인한 마을 주민들은 이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하고자 1980년대 초 상쇠 추교봉[秋敎鳳]과 추교범[秋敎範]으로부터 옛 가락과 연희 과정 등을 수집해 1980년대 중반 농악을 복원했다.

이후 상쇠 추교범과 추교순이 연희 과정을 직접 지도해 1990년 '달성중앙농악단'으로 창단했으며, 달성 다사지역 농악의 발상지가 이천마을인 까닭에 2003년 '달성이천농악'으로 이름을 바꿨다.

달성이천농악은 12차 진굿으로 연행하기 때문에 '달성 이천 12차 진굿'이라고도 부른다. 편성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복장은 미색 저고리와 바지, 적색·청색(녹색)·노란색의 삼색띠를 걸치고, 크고 흰 고깔을 쓴다. 악기 편성은 쇠, 징, 북, 장구, 상모, 태평소, 나발, 잡색 등으로 구성된다. 용기, 농기, 단기, 사명기, 영기, 오방기 등 10여 명의 기수와 사대부, 양반, 양반광대, 포수, 각시 외 여러 잡색이 편성된다.

달성이천농악에는 경상도의 변형되지 않는 투박한 직타로 치는 쇳가락의 맛이 살아있으며, 마당굿이라 해 동작에 의해 마치 수가 정해져 있고, 신나는 외북놀음과 상모꾼들의 모의 농사풀이굿이 돋보인다.

달성이천농악의 연행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모둠굿(천왕굿, 천왕맞이)
당산에서 천왕굿 가락을 쳐 천왕기에 마을신을 내리도록 빈다.

2. 질굿(질쇠, 질매구)
치배들이 마을을 오갈 때 2, 3박의 느린 혼합박을 치며 자유롭게 움직인다.

3. 터잡기굿
치배들이 놀기 위한 터(마당)를 잡아 마을 주민들을 모으는 굿이다.

4. 사사꿍이(덧배기)
경상도 지역에만 전승된 가락으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흥에 겨워 추는 덧배기 춤과 함께 전승되고 있다.

5. 벙벅꿍이(판안다드래기)
신을 즐겁게 해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축원굿이다. 가락이 빠르고 경쾌한 맛이 살아있다.

6. 허허굿
논·밭에 짐승을 쫓기 위해 뛰어다니던 동작에서 유래한 것으로, 치배들이 큰 함성으로 “허허” 하고 소리를 지른다.

7. 부정굿
마당의 잡귀를 쫓는 의미로, 치배들이 빠르고 경쾌하며 일사불란하게 좌우를 오가면서 벅구, 북과 함께 잡신을 몰아낸다.

8. 오방말이
동·서·남·북·중앙으로 휘몰아서 잡신을 소멸하고 마을의 화평을 기원하는 굿이다.

9. 농사풀이굿
상쇠가 벅구(상모)를 불러모아 벼심기, 씨뿌리기, 모심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하기, 풍로붙이기 순으로 농사풀이를 한다.

10. 기러기 학진
김매는 농민들의 모양새가 기러기 떼와 학의 모양을 닮은 것에서 유래한 놀이다.

11. 마당밟기
여러 명이 합심해 마당밟기를 한다. 일명 보리밭 밟기라고도 한다.

12. 살풀이
7, 8월경 농사 여가 시기, 농사꾼들이 풍요를 즐기기 위해 행해 온 농사굿이다.

13. 정풍기굿
쇠잽이는 중앙에서 비바람의 재해를 막아주도록 하늘에 빌고 징, 북, 장구, 벅구는 바깥에서 마당을 밟으며 쇠잽이를 보호한다.

14. 오방놀이굿
다섯 방위에 화평과 강령을 비는 마당으로, 상쇠의 신호에 따라 치배들이 연풍대를 돌고 엎어 빼기를 반복한다.

15. 품앗이
이웃 간에 일손을 주고받는 데서 전승된 가락이다.

16. 미지기(밀고땡기기)
논갈이를 위해 논 설기를 하는 마당이다.

17. 판놀음(놀이마당)
잡색과 각 악기의 기량을 뽐내는 가락이다.

18. 쌈굿
양지, 음지 마을의 풍장 겨루기를 하는 굿으로, 두 마을이 상쇠와 부쇠의 가락에 맞춰 기량을 겨루고, 이긴 마을은 악기를 치켜들고 함성을 지른다.

19. 쌍진풀이

음지마을과 양지마을이 사이가 나빠져 두 줄로 나뉘었다가 한가운데로 다시 모여 화합한다.

20. 칭칭이굿(방아굿)

농사일을 마치고 저녁나절에 풍물꾼 모두가 “치나칭칭 나네” 하고 선소리에 맞춰 고달픈 시련을 매기고 받으며 노래를 부른다.

달성이천농악은 달성 이천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으며, 12차 진굿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판굿에 농사굿과 일종의 액막이굿 그리고 두 마을 간의 싸움굿 등 구성이 다양하나, 대개 농사굿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상황이 전개된다. 내용이 중복되거나 순서가 뒤바뀌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판굿 순서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 황해도 / 만구대탁굿 / 만구대탁굿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김천시장(장려상)
상금 2,000

만구대탁굿은 황해도 지역에 전승되는 굿으로, 집안의 번창과 가족의 건강, 무병장수 등 산 사람의 길복[吉福]을 비는 동시에, 노인이 죽은 뒤 저승에 편히 들기를 기원하는 목적으로도 연행하는 굿이다. 한 사람이 평생에 3번 이상은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해도굿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굿이라고 할 수 있다.

황해도만구대탁굿은 달리 '만구대택[萬口大澤]굿' 또는 '만수대탁굿'으로도 불린다. 이 굿은 크게 두 개의 굿이 이중적으로 구성된 형태를 띤다. 앞부분은 재수굿인 철물이굿의 제차와 같은 구성으로 진행된다. 이는 산 사람을 위한 굿이다. 전반부에서 산 사람을 위한 굿을 끝내면 제단(마지와 상차림)과 악사의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 넋굿으로 들어간다. 넋굿에서는 산 노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저승굿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노인을 업고 도령을 돌며 산수왕으로 길베를 가른다.

보통 굿이 12거리로 짜여져 있는 반면, 이 굿은 그의 배수인 24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화와 무구, 제물, 굿당 등으로 다양하게 장식한다. 굿 진행 시 악사(잽이)의 구성도 쌍장구, 쌍징, 쌍바라 (소바라, 대바라), 태평소, 쌍피리, 해금, 대금 편성 등을 통해 일반적인 구성보다 더 풍성하게 꾸민다. 굿의 진행은 대규모 거리가 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는 3일, 보통은 5일에서 7일, 길게는 15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대회 당일에는 황해도만구대택굿 24거리 중 네 번째 '산천거리', 다섯 번째 '칠성거리', 스물한 번째 '장군거리(작두거리)' 등 3개 굿거리를 중심으로 연행했다.

각 굿거리별로 주무 역할은 산천거리의 강옥희, 칠성거리의 김계순, 장군거리(작두거리)의 변재석이 맡았다. 실연을 위해 악기는 장구 1, 징 1, 피리 1, 제금 1이 쓰였으며, 소품으로는 대나무깃대 1개, 굿상 1식, 전개 12개, 오색만발장 1개, 작두대 1개, 드럼통 2개, 깃대 9개, 꽃가마 1개 등이 쓰였다.

황해도만구대택굿의 24거리 제차

1. 주당물림거리 → 2. 부정거리 → 3. 초감홍거리 → 4. 산천거리 → 5. 칠성거리 → 6. 제석거리(소굿놀이굿 포함) → 7. 소대감거리 → 8. 사냥거리 → 9. 생타살거리 → 10. 군웅거리 → 11. 익은타살거리 → 12. 성주거리(지정닦이, 심봉사, 방아찍기, 사또나리굿 포함) → 13. 잔내림거리 → 14. 영전거리 → 15. 대감거리 → 16. 서낭거리 → 17. 말명거리 → 18. 조상거리 → 19. 신장거리 → 20. 성수거리 → 21. 장군거리(작두거리) → 22. 광대거리 → 23. 터주상영거리 → 24. 마당거리

실연 굿거리

첫 번째 굿거리 '산천거리'

본격적인 굿이 시작되는 거리로, 일명 '상산맞이거리' 또는 '산거리'라고 하며 신들을 굿청으로 모셔오는 굿이다.

두 번째 굿거리 '칠성거리'

명을 담당하는 칠성님을 모시는 거리로, 무당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명과 복을 기원하는 굿이다.

세 번째 굿거리 '장군거리(작두거리)'

장군복으로 옷을 갖춰 입고 여러 장군신을 모신 후, 쌍작두 위에 올라서 춤을 추며 공수를 하는 굿이다.

황해도에서는 다양한 무속전통이 전승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만수대탁굿 또는 만구대택굿은 황해도 굿의 정수가 모두 종합되어 있는 굿거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회에서 시연한 절차들이 만수대탁굿의 정수를 잘 드러내는 굿거리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굿의 올곧은 전승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굿거리를 통해 문화적 전통유지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 / 우동리당산제 / 우동리당산제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김천시장(장려상)
상금 2,000

우동리당산제는 우동리 마을의 수호신, 즉 으뜸 신격으로 마을 뒷산 주령에 서의[棲依]하는 산신[山神]을 모시는 천룡제[天溶劑]와 마을 입구를 수호하는 동구신[洞口神]을 위해 솟대당산제를 지내는 것으로, 마을에서 오래 지속된 전통이다.

당산신의 신체[神體]나 서의한 장소의 설치 구조가 산신, 동구당신 또는 오방신, 노거수, 석간입석(石竿立石), 짐대 등의 다중적[多重的]인 형태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보존회에서는 우동리당산제에서 진행하는 천룡제와 솟대당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천룡제

우동리의 천룡제는 음력 정월 14일 밤 10시경에 마을 뒷산 노신봉 밑 주령날맹이에서 지낸다. 주령날맹이는 마을의 뒷동산 격인 야트막한 소나무 산인데, 마을과는 200m에 상거한 지점이다. 신격[神格]은 산신으로 흔히 산신제를 모신다고 한다.

◈ 솟대당산과 짐대신앙

우동리 뒤로는 천룡신인 산신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으나, 마을 앞이 크고 넓게 트여 병마와 악귀 등 재앙의 쉬운 침입을 보비(補裨)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큰 나무를 심고 천룡신의 보조하위 신격[補助下位神格]인 당산신을 모시며 오리솟대를 세웠다고 전한다.

천룡제와 솟대당산제 진행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된다. 주민들 중 다수는 풍물을 치는데, 주민들이 장구 10, 징 2, 꽹과리 2, 북 2 등을 연주하고, 전체 진행은 화주(김상곤), 상쇠(이상백) 등이 주도하고,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해설자(김명희)를 투입했다. 실제 진행을 위한 소품으로는 용줄(100m) 1개, 나무 1개, 솟대 1개, 우물 1개, 명기 2개, 깃발 9개 등이 쓰였다.

우동마을당산제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는마당(당산솟대 세우기)

당산신을 모시는 마을 사람들이 오리솟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 정월 초하루 새벽에 소와 닭이 각 3번씩 울면 제관과 화주 4인이 당산과 주변 우물을 깨끗이 한 다음 흙을 뿌리고 금줄을 치며 예를 올린다. 예가 끝나면 농악이 울리고 지역 남자 10명이 당산에 솟대를 세운다.

둘째, 우물굿

우동리 마을에 물맛이 좋은 공동 우물이 있어 그 우물이 마르지 않고 맛이 계속 이어지게 굿판을 벌이며 기원하는 마음에서 굿을 올린다. 상쇠가 우물을 한 모금 마시며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원하는 우물굿을 올린다.

셋째, 당산제

우동리당산제는 우동리의 연운[年運]과 식재[息災]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祭儀]다. 신간목으로 베어온 소나무를 다듬어 오리솟대 신간주를 조성하며 제의를 준비한다. 오리의 머리가 서북쪽을 향하게 세우고, 삼헌관이 제례를 갖춰 술잔을 세 번 올린 후 축관이 축문을 사르는 것으로 제를 맺는다. 당제가

끝나면 풍물이 시작되어 마을 주민들과 잔치를 벌인다.

넷째, 마을돌기(용신놀이)
마을 사람들이 완성된 암·수의 두 용줄을 메고 풍물패를 선두로 마을(고삿길)을 돌며 잡귀를 쫓아낸다.

다섯째, 신랑.신부 예맞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개방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고 비녀목을 질러 연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남녀신의 성적 결합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 행위다.

여섯째, 줄다리기
삼판양승제로 진행된다. 예맞이를 마치면 신랑(남자), 신부(여자 · 미혼남성)이 양 편으로 나뉘어 줄다리기로 승부를 겨룬다. 삼판양승제로 이뤄지며, 여자 편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일곱째, 솟대당산 옷 입히기
풍물굿을 선두로 용줄을 메고 솟대당산으로 가서 새로 만들어 세운 당산신간[當山神竿]에 당산할매 옷입히기를 한다. 신부 용줄의 머리 부분을 시작으로 당산 일부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감아 올린다.

여덟째, 마당놀이(달집태우기)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과정으로, 당산 옷입히기가 끝나면 신랑의 용줄을 놓고 그 위에 대나무를 쌓는다. 대나무 단에는 주민들의 소원을 적어 걸어놓고 불을 피워 풍물장단에 맞춰 당산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큰절을 하며 의례를 맺는다.

우동리당산제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우물굿, 당산제, 용신놀이, 줄다리기, 당산할매 옷입히기가 짝을 이루면서 전통적인 양상을 잘 보인 것에 중요성이 있다. 한 마을의 전통이 잘 유지되어온 형태이므로, 민속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 대전광역시 / 감천춘사새신 / 대전서구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대전의 중심을 흐르는 갑천[甲川] 유역에서 행해졌던 신굿(새신[賽神])이다. 이 고장에 사는 마을 주민들의 안가태평[(安家泰平)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함께 기원하는 행사보제[行事報祭] 민속신앙놀이다. 갑천팔경 중 제1경인 춘사새신은 봄철, 즉 춘분날로부터 다섯째 무일[戊日]에 갑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 강기슭에서 토지신과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민속놀이로 구성한 작품이다.

놀이는 여섯 마당으로 나뉘는데, 첫째 마당이 만년골과 용골 마을 사람들의 당산제로 시작되고, 둘째 마당은 다음 날 아침 동구굿으로, 셋째 마당은 오곡건립(1장 마당굿, 2장 조왕굿, 3장 샘굿)으로, 넷째 마당은 무격[巫覡]들의 신굿(하백굿)으로, 다섯째 마당은 양마을의 합수굿으로 만년골마을과 용골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화합하며, 여섯째 마당에서 두 마을이 아쉬운 석별을 하며 뒤풀이를 잇는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일당산제

춘사새신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당산에 모여 제를 지내는데, 그동안 금기를 지켰던 제관이 주관해 자정쯤 주요 남성들만 당산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새신을 위해 제를 지낸다. 제관이 기수(햇불)들과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당산에 이르는데, 매년 새신을 잘 치르게 해달라는 바램을 비는 의식이다.

2. 동구굿

춘사새신 날 아침 해가 뜨면, 마을 입구에서 나팔수(태평소)가 삼초하면 아침을 먹고 새신 드리는 첫 순서로, 풍물패들은 복장과 악기를 챙겨 동청마당에 모여든다. 풍물패가 다 모이면 상쇠를 중심으로 풍물을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남정네, 아낙네, 무동)은 기수 주변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면 풍물패가 앞장서서 중앙 마당으로 간다.

3. 오곡건립 - 1장: 마당굿, 2장: 조왕굿, 3장: 샘굿

풍물패 앞에서 마당쇠가 전곡[錢穀] 자루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같이 건립에 참여하자고 소리치면 화답하며 함께 건립[乾粒]에 참여한다. 차례로 마당굿, 조왕굿, 샘굿을 한다.

4. 하백굿

갑천변에 두 마을의 대열이 도착하면 촌장 지시에 따라 장막을 치고 하백굿 준비를 한다. 장막을 다 치면 기수들이 각 마을 촌장을 중심으로 둘러선다. 촌장이 주문을 왼다. 이어 상쇠가 소리를 받으며 꽹과리 신호에 따라 풍물패가 장단을 치며 강변을 세 번 돈다. 그러는 동안 아낙네들은 제상을 차린다. 제상 준비가 끝나면 풍물패와 아낙네는 인사 가락에 맞춰 갑천을 향해 세 번 절한다. 자연스럽게 만신이 나와 강변을 향해 용왕굿을 한다. 용왕굿이 끝나면 본격적인 합수굿을 들어가기 위한 놀이가 한판 벌어진다.

5. 합수굿

하백굿이 끝나면 갑천에 다리를 놓아 양쪽 마을이 합수한다. 다리 중간에서 거북이를 띄워 풍년을 기약하고 형님 마을도 정한다. 춘사새신이 잘되어 흥겹게 놀고 음식을 나눠 먹고, 술판, 난장판 등 신명 껏 한바탕 놀면서 자연스레 두 마을이 하나의 원을 이루며 돈다. 다리를 건너온 마을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맞은편은 일렬로 서서 배웅해 준다.

6. 뒤풀이, 퇴장

두 마을 각각 자기 공동마을에 도착해 마을 사람끼리 무동을 선두로 원형으로 하나되어 모았다 풀었다 반복하며 신명 나게 논다. 그러다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는 대형을 하고 상대방 마을과 덕담을 주고 받는다. 풍물패 상쇠의 신호에 따라 상대마을의 대형을 마주 보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세 번 반복한 후, 인사굿을 하고 서로 손을 흔들며 마을로 향한다(퇴장한다).

춘사새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례 민속신앙놀이 중 하나다. 특히 송몽인의 시집《금암집》속〈춘사새신〉을 복원 재현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여전히 큰 굿의 형태로 남아있는 점도 매우 특별하다.





● 충청북도 / 중원들소리 / 중원들소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중원들소리는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마제마을에 전승되는 보리농사의 노동요를 엮은 것이다. 보리농사는 먼저 씨앗을 파종하고 보리를 덮은 후 보리밟기, 보리타작, 방아찧기의 순으로 이뤄지며, 이러한 보리농사 순서에 따라 작품을 구성했다. 이 작품은 2011년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해 대상을 받았다. 최종남(여, 57년생) 외 마을 사람 69명이 참여해 1960년대부터 잊혀간 보리농사 노래를 계승하기 위해 재현했다고 한다.

1. 보리덮는소리

(받는소리) 쿵닥쿵닥 잘도한다
(메기는소리) 봄에 뿌리면 봄보리요
가을에 뿌리면 가을보리
보리씨 뿌리는 서방님아
손이 얼어 못 뿌리나
골을 타는 농부님아
흙이 너무 딱딱하네
허리가 아파서 쉬었다 하세
앞에서 덮는 아낙네야
먼 산에는 꽃이 피고
아지랑이 아롱아롱 하고
품 팔러 간 도련님은
이 보리 피면 오시려나
얼른하고 장터를 가세

2. 보리밟는소리

(받는소리) 밟아주세 밟아주게 이보를 밟아주게
(메기는소리) 한겨울에 솟은보리 밟아주게 밟아주세
엄동 설한풍에 자란보리 밟아주오
이 보리를 밟아주면 개떡이나 먹을까
짚신이나 있어야지 발이 시려 못하겠네
시누이도 같이 하고 시동생도 같이하세
올해도 풍년들고 내년에도 풍년오네
이 발도 밟아주고 저 논도 밟아주세
서산에 해지니 얼른하고 집에가세

3. 도리깨질소리

(받는소리) 으싸 - 으싸
(메기는소리) 여기도 때리고
갈보리도 때리고
봄보리도 때리고
고개든 보리 때려
너무나 힘이 든다

보리술 먹고 할까
힘 맞추고 발 맞추고
누가 누가 때리나
빨리빨리 때려라

4. 방아소리

자진아라리가 3소박 4박으로 빨라진 곡이다.

<긴방아타령>

(받는소리) 쿵더덩 쿵더덩 찧는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밤마실가나
(메기는소리) 겉보리 찧기는 힘들어도 봄보리 찧기는 신이나네
아침에 뜨는 해는 뜨고싶어 뜨나 저녁에 지는 해는 지고싶어지나
일락은 서산에 해떨어 지니 월출은 동녘에 달솟아 온다
저건너 잔솔밭은 기별도 없는 데 우리네 인생은 한도 많네
우리가 살며는 몇만년 사나 늙기전 젊어서 놀아나볼까
저건너 물레방아는 물을 안고 도는 데 우리집에 서방님은 날 안고 돌줄몰라
봄철인지 갈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에 황하춘절이 날일러주네
날가라네 날가라네 날가라네 디딜방아 못한다고 날가라네
디딜방아 못하는 건 일년이지 아들딸 못낳는건 평생일세
넘어가세 넘어가세 넘어를 가세 자진에 방아로 넘어를 가세

<자진방아타령>

(받는소리) 쿵더덩 쿵더덩 찧는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밤마실가나
(메기는소리) 영감아 땡감아 지게품 팔아서 재계떡이라도 사주려나
고추나 당초가 맵다한들 우리네 인생만 하오리까
울타리 뜯으면 오신다더니 행랑채 뜯어도 오질 않네
죽으라는 시어머니는 아니죽고 죽지말라는 친정엄마는 왜죽었나
시어머니 없으면 좋아했더니 보리방아 물붜노니 또 생각나네
시집살이 못한다고 가라면 갔지 술담배 아니먹곤 못 살겠네
강 건너 갈적엔 큰맘먹고 갔더니 문고리 잡고서 발발떠네
저 건네 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나같이 또 묵는구나
여보시오 아낙네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날도덥고 힘드니 쉬어나 가세

보리농사와 관련한 일을 여자들의 노래로 엮은 작품이며, 이번 대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아리랑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에 전승되는 자진아라리의 변형 악곡이 방아소리로 사용되는 점이 특이하다.



● 서울특별시 / 수표교다리밟기 / 수표교다리밟기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수표교다리밟기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세시풍속의 하나다. 고려시대부터는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각자 자기 나이 수대로 다리를 밟으면 그해에 다리에 병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재앙을 막는다고 하는 신앙적인 풍속이 있었다. 정월대보름 다리밟기에는 일반 서민은 물론 양반을 포함한 많은 남녀노소가 밤을 지새우며 다리밟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리마다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부녀자들은 음식을 냇물에 던져 복을 빌기도 하고, 남자들은 농악대를 앞세우고 무동을 서게 하기도 해 다리 위에서나 다리 근처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즐겁게 지낸다고 했다. 양반들은 대보름 하루 전인 14일 저녁 수표교(조선시대 한양 청계천의 대표 다리)에서 다리를 밟았는데, 이것을 '양반 다리밟기' 또는 '양반 수표교 다리밟기'라고 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다리만 밟는 것이 싱겁다고 하여 육조에서 가무별감에게 명해 흥겨운 가무와 연희를 곁들이라 해서 답교놀이의 각 배역이 정해지는데, 가무별감을 비롯해 집사와선소리패, 꽃무동, 상좌, 소무, 왜장려, 곤나쟁이, 양반, 악사 등이 등장했으며, 이때부터 순수한 수표교다리밟기 놀이로 발전한 것이다.

홍석모의《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옛날 한양에서는 저녁에 종이 울리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다리밟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잡했고, 수표교와 광교가 가장 심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 또한 구한말 왕실과 관청에 그릇을 납품하는 공인이었던 지규식이 쓴《하재일기[荷齋日記]》1891년 1월 15일자 일기에는 수표교다리밟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조선시대에는 정월대보름에 한양 수표교에서 다리밟기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표교다리밟기는 수표교를 모형으로 만든 다리를 두고, 위, 아래, 주변 등지에 80여 명의 소리꾼과, 악사, 주민이 흩어져 각자 역할을 배분해서 연행한다. 악기는 장고 2, 북 2, 제징 2, 금 2, 소고 20, 태평소 1 등으로 구성된다. 연행시 선소리꾼으로는 정혜교가 참가했고, 그 외 11명의 소리꾼이 소리를 메기고 받는형식으로 진행했다.

수표교다리밟기는 아래와 같이 총 6과장으로 진행된다.

제1과장 '다리밟기'
악사들이 굿거리장단에 맞춰 본기를 선두로 영기가 서고, 그 뒤로 집사, 별감, 무동, 상좌, 소무, 왜장녀, 곤나쟁이, 악사, 산타령패, 양반 순서로 다리 위로 올라가 다리를 두 바퀴 돌아 내려와서 디귿(ㄷ)자 모양의 대형을 만든다.

제2과장 '장무동춤'
양반이 다리 위에서 계속 춤을 추며 다리를 밟고, 양반을 제외한 전원이 다리 아래 'ㄷ'자 모양에서 판을 시작한다. 이때 장단이 늦은타령으로 바뀌면 무동은 양쪽에서 마주 보며 20보씩 전진했다가 다시 뒤로 20보씩 후진하며 춤을 춘다. 이때, 나머지 전원은 자기 나름대로 흥겹게 춤을 춘다.

제3과장 '산타령'
무동춤이 끝나면 모갑이가 앞산타령을 선창하고, 산타령패가 소고를 들고 덤부리산 장단을 치며 한가운데로 원을 그리며 모여든다.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을 좌우로 돌며 신명 나게 부른다.

제4과장 '춤판'

소무춤, 상좌춤, 왜장녀와 곤나쟁이 춤을 타령 장단에 맞춰 춘다.

제5과장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모갑이가 방아타령으로 넘기면 선소리패는 다시 가운데로 원을 그리며 모여들어 좌우로 돌면서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경복궁타령을 부른다.

제6과장 '뒤놀음'과 '길놀이'

선소리패의 소리가 끝나면 무동을 태우고 전원이 가운데로 돌아와 신명 나게 논 다음 대기를 선수로 해 입장 순서로 다리 위를 돌아서 내려오면 끝이 난다.

다리밟기는 정월달 세시풍속의 하나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수표교다리밟기는 여러 문헌과 문집 등에서도 명확하게 그 전래를 이야기하고 있어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다리밟기의 형식에 대한 의미가 더욱 강조되면서, 민속놀이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래놀이로 남기를 기대한다.





● 함경북도 / 백두산선녀춤 / 함북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백두산은 민족 발상의 성지로서, 이에 대한 전설도 적지 않다. 백두산선녀춤은 일제강점기 명고수 겸 전통무용가 고 한성준(1874~1942)이 함북지역 민속을 재구성한 춤으로, 1930년에서 1940년 초까지 청진권번에 있던 수양딸인 심화영(충남 승무 보유자, 1913~2009)을 찾아가 그곳에서 1년간 춤을 가르치고 공연감독을 맡아 행사를 총지휘했는데, 이때 선녀춤을 가르친 것이다.

1. 길놀이(입장과 정렬)

2. 백두산 서낭당 축조와 신령님 모시기

아낙네들과 동네 사람들이 백두산자락의 서낭당에 돌을 올려 쌓는 일을 시작한다. 끝으로 연회를 주관하는 대표가 고을의 원님에게 마지막 돌을 건네면서 제단 중수를 끝맺음한다. 서낭당 제단 앞에 단군님과 백두산 신령님과 선녀님, 조상님을 모시는 의식을 치르며, 원님과 양반 주도 하에 동네 사람들이 절을 한다.

3. 백두산선녀춤

마을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절을 하고 양옆에 부채꼴로 도열하면 하늘에서 백두산으로 내려오듯 선녀들이 등장해 도열하고, 악사들의 반주에 맞춰 선녀춤을 춘다.

(1) 선녀들이 입장해 세 곳에 일렬로 선다.
(2) 음악이 나오면 세 원으로 움직이며 돈다. 부채를 안으로 바깥으로 흔든다.
(3) 다시 세 원이 세 줄로 서서 제자리에서 돌면서 어른다.
(4) 세 줄마다 각각 2열이 되어 마주 보고 서서 서로 교차한다.
(5) 세 줄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되돌아온다.
(6) 세 줄이 각기 원을 만들어 안쪽을 향해 앉으며 춤춘다.
(7) 앉은 채 돌아서 객석을 보고 비스듬히 춤춘다.
(8) 반대 방향으로 비끼면서 춤춘다.
(9) 천천히 일어난다.
(10) 원으로 돈다.
(11) 세 원을 세 개의 'V' 모양으로 만든다.
(12) 서서히 각기 두 줄을 만들어 마주 본다.
(13) 두 줄이 각기 마주 보고 엇갈리기를 한다.
(14) 풀면서 다시 세 원을 만든다.
(15) 돌면서 다시 세 줄을 만든다.
(16) 제자리에서 어른다.
(17) 둘씩 어깨를 대고 돈다.
(18) 제자리에서 큰 원을 만든다.
(19) 풀면서 일렬로 퇴장한다.

4. 뒤풀이춤

아낙네들과 양반들까지 동참해 영산인 백두산이 있는 함경도 내 고장이 제일 좋다고 하며 즐겁게 허튼춤을 추고 인사를 하며 퇴장한다.

함경북도에서 새로이 복원한 작품으로, 한성준이 만든 무용 '선녀춤'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아리랑상을 수상했다.



● 평안북도 / 영변성황굿 / 평북영변대제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영변성황굿은 평안북도 영변 지방에서 전승한 굿으로, 달리 '영변성황대제'라고도 부른다. 현재는 영변성황대제보존회에서 보존·전승하고 있다.

평안북도에서는 영변당굿과 철산당굿이 유명했다. 영변의 제단은 북당과 남당이 있었다. 북당에 좌정한 신은 북부동, 남당에 좌정한 신은 남부동의 수호신이었다. 북당의 경우 시장 상인들이 결성한 장터계에서 제비를 부담했으며, 일부는 읍민들이 십시일반 보탰다.

대제는 일 년에 한 번 또는 격년으로 벌였으며, 길일을 택해 5일 정도 진행했다. 주민들은 공동체 신앙으로서 질병을 면하고 입신출세의 신덕을 입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막대한 제비를 부담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영변성황대제에 참여했다. 때문에 성황대제 때는 마을 주민들이 가을걷이를 끝내고 햇곡식을 집집이 추렴해 마을의 안녕을 소망하고 액운을 물리치며 태평성대와 길흉화복을 기원했다.

성황제가 끝나면 무녀들이 당굿을 시작한다. 성황제 의례는 감흥굿, 칠성굿, 타살굿, 영정굿, 조상굿, 성황굿, 대감굿, 사신풀이굿, 작두굿, 뒤전풀이 순으로 진행한다. 당굿은 보통 4~5일에서 1주일간 계속되는데, 이 기간 무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진행한다.

연행을 위해 당산(장승)1개, 초가집 1채, 울타리 2개, 다리(8쪽) 1식, 샘 1개, 하천 1식, 장막 2개 횃불 2개, 지게 2개, 화투불 1개, 제상 1개, 깃발 16개, 풍물악기 23개, 나팔 1개, 거북 1개, 자루 1개, 바가지·항아리 13개, 가래 3개, 말목 3개, 메 4개, 의상 다수를 준비한다.

굿거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마당 '입장'
대기, 가마, 수레, 제관, 당주, 피리, 장고, 제금, 무녀, 대감, 장군, 도령, 평민 등이 입장한다. 주악이 울리면 위 순서로 단상에 올라가 일렬로 인사 후 뒤를 돌아 관주에게 인사한 뒤, 주악이 울림과 동시에 제단에 모이고, 주악이 그치면 대제를 시작한다.

둘째마당 '성황대제'
신목(소나무)과 성황당에 일동 정숙한 자세로 주위에 둘러서 성황당에 위패를 점안하고, 제관이 촛불을 밝혀 향을 지핀 다음 현작재배하면 당주가 비나수로 청배한다.

셋째마당 '성황굿'
대제를 마친 후 당주가 비나수, 만세받이, 성황맞이굿, 장군거리를 차례로 마치면 노적꾼이 들어와 무녀와 춤을 춘다. 춤이 끝나면 제관이 제전그릇에 돈을 놓고 당주는 덕담을 하고 술을 빚어 손님에게 대접한다.

넷째마당 '복나누기'
성황맞이 노래를 하며 복주머니에 쌀, 금전을 넣어 평민과 무녀에게 던져주는데, 복주머니는 곧 '복'을 의미한다. 모두 마치면 일렬로 정돈해 심사위원과 관중에게 인사하고 퇴장한다.

영변성황굿은 점차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평안북도의 민속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전통 양식을 복원해 전승하고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정연 보유자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영변성황대제보존회에서 후속 세대에게 온전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강원도 / 홍천 겨리소모는소리

종목 생업민속 - 현지심사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우수상)
상금 2,000

‘겨리소 모는 소리’는 강원도 영서 북부지역에서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할 때 부르는 소모는 소리다. 전형적인 동고서저 지형인 강원도의 산간은 비탈이 많아 소(호리) 한 마리로는 힘에 부쳐 주로 두 마리 소(겨리)와 함께 농작을 하며, 연장(쟁기) 또한 연행자가 직접 만든다. 농기계의 발달로 식용을 목적으로 한우를 키우는 경우는 많아졌지만, 밭을 일구는 일소를 키우는 집은 사라져 가고 있는 요즘, ‘겨리소 모는 소리’는 다행이도 원형에 가깝게 보존·전승되고 있다.

겨리소모는소리 1

이러 마마마마
마마마마 어 마마마마 허 드렁밑에 두렁밑에 잘못하면 발다쳐
우겨서 우겨서 어디여허허 우후 어후우 이러 어디여 안야 우겨서
안야 우겨서 어디여 마 마 마마 마마 어디여 이러 의 즛즛
어허허허 우 이러치 안소는 디려시구 마라소는 우겨서라 어디 우후
이러이러 이러이러 어의 이러마마 에 이거 안야
이러디 어디여 고랑에 이러디 이조고랑에 안소는 우겨서 마라소는
어이거 이러 어 엉하후 어이러더처 안소야 우거서 이러 디디
바다만한 논 다 갈었구나 우리소 말 잘듣는다
이러디 이러 마마마마 아냐 어이거 제고랑들어서야지
마마 여의어치 와하우 여의
저 마라소는 우겨서라 안소 우겨서 왜 이렇게 버덕버덕해냐
말 안들으면 맞어 말 잘들으면 좋지 와하와하
이러디 어뎌어뎌 안야 드렁밑에 바삭 들어서야지
베폭을 뜨구 가야지 마마 이러디 안야 안야 니려서 어허후
어이구 안소 제 서야지 제소제서 마라 우거셔라 우겨서

겨리소모는소리 2

이러 쯧쯧
어이 이러 올라서 저소 마마마
이러 어이 어디여 넘나들지 말고서
비켜서지 말고 우겨서라 이러이러 마마
어이 후 이러 올라서라 이소야 말 잘들어라
말 잘들어야 콩삶아 점심줄께
자자 어서가자

계속 변화하는 농촌의 농사환경 속에서 소를 이용한 논농사 관련 일소리는 심각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소몰이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겨리의 경우, 안소와 마라소가 짝을 이뤄야 하는데, 요새는 짝집도 없고 소가 있어도 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모는소리를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만, 그 중에서 직접 소를 키우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참가자와 같이 직접 실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례를 남기는 것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전라북도 / 남원 물제(기우제) / 중군마을 부녀회

종목 의례 - 현지심사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상금 1,000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에서는 기우제를 '물제' 또는 '무제'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곳에서 전승되는 물제는 기우제를 일컫는 말이다. 물제는 가뭄이 든 해에 하지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마을 아낙들이 모두 동참해서 진행한다.

예전에 많은 지역에서는 여성만 기우제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오랫동안 단절되었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그해의 생존과 연결되었던 '가뭄'을 막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마을 '어미들의 울음놀이'이자 제의로서 연행된 것이다.

중군리의 물제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증언한 자료를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

[고증자료]

"여기는 주로 부인들이 막 챙이를 둘러쓰고, 물가에 가서 울고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물제가, 하지를 지내고 나서도 비가 안 오면. 동네에서 단체적으로 나가니께. 술을 먹고 얼크니 술을 취해야 돼. 여자들만 가..키를 둘러고 우는 사람, 옷을 벗고 우는 사람, 그래야 비가 와. 오직 딱했으면 그러겠어요. 아이고 매 치고 우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 하늘님이 쳐다보고 얼마나 딱하면 저러것냐고 그만 비를 내려 줘. 남자들은 먼 발치서 쳐다보고 있지. 놀지... 낮으로는 안 했고, 주로 밤으로, 저녁으로 가서 했어. 그 전에는 목욕탕이 냇물이잖아요. 그런께 거기 나가서 막 울고, 불고, 어째서 그런가 비가 오긴 와요. 키를 다 뒤집어쓰고 한 여남은 명이 뒤집어쓰고 울어. 그러지요 뭐, 술김에서도 울고, 서러워서도 울고, 옆에 사람이 울면 따라서도 울고 그런당께, 울다가 웃다가 옷을 할랑 벗고 도굴도굴 뛰뎅기(뛰다니는)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울면서 뭐 술이 취해야 된당께. (비가)안 온께. 곡식은 다 타가는 데 올 때가 돼서."

(2008년 조사, 마을 주민 인터뷰 자료 중)

남원 물제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해 질 녘(또는 한밤중)에 마을 아낙네들은 각자 집에서 키를 들고 나와 마을 앞으로 흐르는 임천강으로 나간다.

2. 강에 도착한 아낙네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각각 키를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강물을 치며 울음소리를 내고 통곡하면서 물제를 행한다.

여성 민속은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그 은밀함으로 인해 숨겨져 있거나 전승에 제약을 받아 단절된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전통민속이지만,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현지 민속을 통해 발굴된 중군동의 '물제'가 이러한 전통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는 단절된 상태의 것을 복원한 사례이므로, 마을전통으로서 전승을 지속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경상북도 / 안동 윷송놀이 / 도촌마을

종목 민속놀이 - 현지심사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상금 1,000

'윷송놀이'는 경북 안동시 도촌마을에서 정월 노달기에 지신밟기 이후 으레 행하는 한국 유일의 현존 향요로, 유교적 규범 하에 있는 가부장적 장년 남성들의 '윷놀이를 통한 흥풀이'를 엿볼 수 있는 민속이다.

도촌마을에서는 건궁윷말(말판 없이 머릿속으로 말을 옮기는 방식)로 놀이가 진행되는데, 놀이판의 승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춤을 추며 노래(윷송)를 부른다. 특히 윷노래는 도송, 개송, 걸송, 유송, 모송의 다섯 가지와 구구가 및 화조가 등이 있는데, '개'가 필요할 때 개가 나오면 개송을 부르고, '걸'이 필요할 때 걸이 나오면 걸송을 부르는 방식이다. 그리고 구구가와 화조가는 때때로 저포송에 이어 부른다. 그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도송

일월 성진 분명하니 천도가 적실하고 산천초목 분명하니 지도가 적실하고
인의예지 분명하니 인도가 적실하다 위아하고 겸애하신 양묵도를 도라 하랴
인의하고 예지하신 공맹도를 도라 하지

2. 개송

산호고수 육칠척은 보배 자랑 왕개로다 상인 삼척 비수검은 협수고풍 형가로다
동문에 괘관하고 영수에 세이하니 소부허유 절개로다
수양산은 고사리 기장을 채웠으니 백이숙제 절개로다

3. 걸송

제왕문에 스승하니 요순우탕 호걸이오 도덕문을 스승하니 공맹안증 호걸이요
변사 중에 출류하니 소진장의 호걸이요 언어 중에 출류하니 제아자공 호걸이요
조수 중에 출류하니 봉황 기린 호걸이요

4. 유송

늙으신가 늙으신가 탁문군이 늙으신가 백두음이 무상 일고 고당명경 아니 온데
비백발은 무삼 일고 황염경연 유색신은 누른 것을 물드리고 백유잔설 매화로는
흰백자가 머물렀다

5. 모송

당태종 가일연에 헌수하든 손숙모야 주목왕 요지연에 헌도하든 서왕모냐
의강남수 초당전에 권아옥상 삼중모냐 지상우금 유풍모는 두릉야로 청편이요
만고운소 일우모냐

윷놀이가 전국에서 성행하던 것임을 감안하면, 윷판과 함께한 노래가 전승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안동 지역에서도 특정 가문, 즉 안동 권씨가 세거하는 마을에서만 연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놀이의 전승과 맥락을 같이한다. 안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정월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시장이나 각종 모임, 공터 등에서 윷놀이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윷놀이가 활성화되어 있다. 윷놀이가 생생하게 전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윷놀이하는 소리 역시 자연스레 연행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윷놀이하는 소리가 가장 확실한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안동에서만 나온다

는 점에서 안동 윷송놀이는 매우 소중한 민속이라 할 수 있겠다.





● 강원도 / 인제풀썰기 / 원대리 마을 주민

종목 생업민속/현지심사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상금 1,000

주로 산간지역에서 전승되어 마을 품앗이로 행해지는 '풀써는 소리'는 논에 거름으로 넣을 갈이나 풀을 베어 퇴비를 만들기 위해 작두로 썰면서 하는 소리다. 두 명의 작업자가 '쌍작두'를 이용해 풀을 썰기 때문에 경험과 순발력을 갖춘 연희자가 다음에 작두질할 풀의 종류를 개사해 노래로 일러줘, 작업자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

예전에는 비료가 없어 모두 논이나 밭에서 풀을 베어 넣었다. 풀은 마을 사람들이 산에 가서 공동으로 베어 왔으며, 이것을 작두로 썰어 거름을 만들었다. 논에 넣었던 갈풀이나 밭에 넣었던 짐풀 대부분 둘이 딛는 쌍작두로 썰었는데, 풀을 작두에 넣어주는 사람, 끌어내는 사람, 풀을 갖다 놓아주는 사람, 풀더미를 만드는 사람 등을 포함한 7~8명이 동원된다. 이때 풀을 작두에 넣는 사람이 노래로 작두를 딛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풀의 상태를 일러주어 작두를 딛는 다리의 힘을 조정하도록 했다.

풀써는소리 사설에서 '우물할미 속갈비'는 무른 것을 말하는데, 야문 나무는 박달나무, 물푸레나무, 싸리나무 등을, 무른 나무는 오동나무 등을, 우물할미 열까지와 지렝이 갈빗대는 풀을 말한다.
풀써는 소리는 가락이 많지 않고 말로 외치듯이 부르지만, 간혹 곡조가 들어가기도 한다. 또 사설은 작두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익살맞은 은유로 재미있게 표현한다.

인제풀썰기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한다.

1. 인근 야산에서 풀 베어오기

한 집의 풀 베는 날이 정해지면 7~10명이 모여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 풀과 나무를 베서 지게에 져온다. 한 사람이 보통 7~8번, 한 집에 쌓인 풀이 지게로 70짐 이상 된다.

2. 풀짐이 모이면 작두로 풀썰기

산과 들에서 베어 온 풀은 마당에 쌓아놓고, 작두로 30cm 정도씩 썰어놓는다. 풀베기는 마을 품앗이로 행해지는데, 풀썰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마당 가득 풀과 나무를 쌓아놓으면 작두로 썬다. 한쪽은 나무를 옮겨주고, 한쪽은 작두로 써는데, 이때 사용되는 작두는 손작두가 아닌 두 명이 발을 사용해서 쓰는 쌍작두 또는 발작두다. 발작두는 작두칼 사이로 나무를 밀어주는 사람과 작두를 밟아 써는 사람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무마다 강도와 굵기가 달라 써는 사람에게 나무의 종류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가락에 싣고 해학과 풍자를 섞어 기운을 부추기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풀썰기 노래'다. 풀썰기 노래는 대체로 재담이 좋고 순발력 있는 사람이 부른다.

3. 퇴비더미 만들기

베어온 풀들은 겨우내 외양간 바닥에 펼쳐놓는데, 이렇게 하면 소들이 깨끗하게 지낼 수 있고, 무엇보다 소의 오줌과 똥이 바닥에 펼쳐진 풀과 섞이며 자연스럽게 퇴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진행 시 가사는 손에 옮겨지는 나무마다 붙여지므로, 그 가짓수가 매우 많다. 그 내용을 일부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십리 안짝 오리나무
둥둥 울려라 북나무
방귀 꼈다 뽕나무
칼로 찔러 피나무
곶감꽂이 싸리나무
뱅뱅이 쑥대 지랭이 갈빗대

자 안고 지고 막 드간다 자 이거는 안개 오짐 안개 오줌이다
우물할미 속갈비 가 막 안고 지고 막 드간다
자 이거는 뭐이냐 양지짝에 노랑싱거리 음지짝에 시먼 먹싱거리
막 드간다 이거는 물렁한 이거는 하마 몇 년 묵은 낭기다 이거는

풀썰기에 따른 공동작업은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유래한 민속이다. 비료가 나온 후로 직접 풀을 썰던 풍습은 대부분 사라져 현재는 전승이 단절된 상태다. 따라서 홍천군의 풀썰기 민속은 소멸위기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전승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특히 심흥규 가창자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 연행에 강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3.10.03~10.06,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1. 개괄

한국민속예술축제는 해방 이후 서구문물 유입에도 한국 고유의 주체성을 지키는 전통과 민속을 보존하고 전승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한국민숙예술축제를 통해 많은 작품이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민족 고유의 전통에서 파생된 민속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전승해 축제의 성격으로 승화했다. 또한 전국의 소중한 민속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점으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양했다.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단양팔경과 소백산의 수려한 풍경으로 유명한 단양에서 열렸다.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첨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20회 전국청소년예술축제와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단체의 합동 공연을 통해 감동적인 무대를 선물했다.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민속축제 천년의 흥! 신명나는 단양에서!”라는 주제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반부 19개 팀, 청소년부 13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벌였다. 청소년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가 불참했고, 일반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가 불참했다.

특별행사로는 김대균 줄타기와 함께 충청북도 민속인의 예술마당 〈신명나는 곤나비〉와 민속명인전, 그리고 전통문화예술공연으로 〈땅끝에서 땅끝으로〉가 펼쳐졌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전통공예 및 지역특화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지역특산물 홍보마당 등을 펼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제54회 경연에 참여한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ᄌᆞ팟ᄇᆞᆯ리는소리’ (제주시오라동민속보존회), 함경남도 ‘돈돌날이’ (함경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강원도 ‘범암골목도소리’ (화천목도소리보존회), 경상남도 ‘의암별제’ (진주민속놀이보존회), 전라남도 ‘전어잡이시연’ (진월전어잡이소리보존회), 인천광역시 ‘인천염전밭갈이놀이’ (인천염전놀이보존회), 경상북도 ‘경산중방농악농사굿12마당’ (경상중박농악보존회), 울산광역시 ‘허계굿’ (울산전통고유민속보존회), 대구광역시 ‘가루뱅이농악’ (가루뱅이농악보존회), 경기도 ‘광지원농악’ (광주광지원농악보존회), 충청북도 ‘정월대보름지신밟기’ (옥천군청산면민속보존회), 함경북도 ‘백두산선녀춤’ (함북민속예술보존회), 부산광역시 ‘다대포후리소리’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광주광역시 ‘무돌농악’ (무돌농악단), 대전광역시 ‘방아미 아들바우 방생축원놀이’ (대전중구문화원), 전라북도 ‘정읍농악 문굿과 판굿’ (정읍시립농악단), ‘황해도 황해도화관무’ (황해도화관무보존회), 평안남도 ‘향두계놀이 (향두계놀이보존회), 평안북도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등이다,

2. 참가 종목

● 평안남도 / 향두계놀이 / 평남향두계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한반도 북부 지방인 평안도 청천강 건답직파 지역에는 '황두'라는 독특한 명칭이 있다. 이는 불교에서 비롯한 것으로, 향촌공동체 조직이 된 '향도' 또는 향도품어리 등의 '향도'를 평안도 방언으로 '항두' 또는 '황두'로 발음한다. 향두계놀이는 소리가 주가 되고 춤과 몸짓이 곁들여져 음악에 맞춰 어우러지는 놀이 형식의 종합 민속연희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입장'

입장 후 자당 중앙에서 한바탕 논 후, 소리꾼과 농악대는 절구통 뒤편으로, 농부와 아낙네는 논으로 간다.

- 보리타작 마당: 기수와 아낙네들은 자기 위치로 가는 동안 농부들이 '타작소리', '방아타령'을 부르며 보리타작을 한다.

제2장 '모내기'

- 모심기 준비과정: 보리타작 후, 논 앞에서 한판 놀고, 논으로 가 모찌기를 준비한다.
- 모찌기 및 모심기: 삿갓과 도롱이를 논두렁 뒷마당에 벗어둔 후 못자리에 'U'자형으로 선다. 모찌기 소리에 맞춰 모를 찐다(이북 지역은 이모작을 하지 않고, 볍씨를 직접 뿌려 벼농사를 짓기도 함). 모를 다 심으면, "다 심었네!" 하면서 논두렁으로 이동해 논두렁 밟기를 준비한다.
- 논두렁 밟기: 모심기가 끝나면 농부들은 두 줄로 각각 나뉘어 논두렁을 타고 앞쪽으로 춤추면서 빠르게 이동하고, 적당히 뒤섞여 춤춘다. 상농부 지시에 따라 허리에 뒷짐을 지고 논두렁 밟기를 하며, 뒤쪽 마당으로 이동한다.

제3장 '김매기'

- 초벌 논매기: 농부들은 호미를 들고 일자로 선다. "다 베었네" 하고 일어서서 뒷마당 아낙네들과 새참을 먹으러 간다. 새참, 가래질소리와 쑥 연기 피우기 쑥화로가 논으로 나와 곤충을 쫓고 병충해 예방 두레농악을 치고 논다.
- 만벌(세벌) 논매기: 농부들은 우장을 입고 삿갓을 쓰고 논으로 들어간다. "다 매었네" 하면 다 함께 흥겹게 춤춘다. 풍년 기원 두레놀이 및 퇴장으로 신명 나는 두레놀이로 끝난다.

향두계놀이는 평안도의 지역성을 갖는 두레소리 또는 두레놀이인데, 소리에 있어서는 요성(떠는소리), 들청(높은소리), 가성(속소리), 비성(콧소리) 등을 구사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 지역 방언을 구사하는 대사가 북한 연희의 고유성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 경기도 / 광지원농악 / 광주광지원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국무총리(최우수상)
상금 10,000

광지원농악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에 전하는 웃다리농악의 한 형태다. 광지원리는 서울과 남한산성 교차로에서 남한산성 입구가 시작되는 곳에 있으며, 지형 대부분이 완만한 구릉지대다. 전승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광지원농악의 유래는 200년 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며, 광지원리에서는 1960~70년대까지도 안말과 바깥말, 섬말의 잽이들 25~30여 명이 정월 초이튿날부터 대보름 전날까지 집집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고, 대보름날에는 개개인이 마련한 나뭇단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태우는 해동화놀이를 하며, 온 마을이 대보름 행사를 즐겼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농촌 가락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광지원농악 판제는 가새벌림과 같은 사각진법과 당산벌림과 같은 디귿 자형 놀이 등을 진행하는 군악적[軍樂的]인 형태의 진법과, 새미의 복색과 비나리 등에서 엿볼 수 있는 불교축원적[佛敎祝願的]인 형태의 진법, 사통백기, 오방진 등을 통해 유추되는 풍년을 기원하는 농사안택적[農事安宅的) 원형구조의 진법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장단은 다른 웃다리 농악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별채굿 가락은 다른 지역의 짝쇠나 엎어빼기 장단과 다르며, 짝쇠가락에 비해 치는 타수가 하나 적고, 상쇠와 부쇠가 번갈아가며 연주한다. 남사당의 짝쇠가락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순하고 토속적인 느낌을 준다. 제자리 연풍대에서는 짝수와 홀수의 혼합적인 장단 붙임으로 다른 지역의 웃다리 농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광지원농악 판굿은 시작을 알리는 굿머리부터 인사굿, 돌림벅구, 앞당산벌림, 당산, 여장놀이, 반달진, 용트림, 농사풀이, 좌우뛰기, 두줄백이, 오방진, 가새벌림, 사통백이, 자욱뛰기, 쌍진놀이, 뒷당산벌림, 개인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또한 판제에는 6개의 일채, 16개의 이채, 11개의 삼채, 4개의 사채, 3개의 별채굿, 4개의 잦은 삼채, 5개의 길군악칠채, 2개의 육채, 2개의 육채 넘김, 2개의 자욱뛰기, 1개의 쩍쩍이장단, 1개의 타령장단, 2개의 인사굿 장단이 사용된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작고해 단 몇 분만이 기억하고 있는 광지원리의 농악을 1997년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의 지원으로 복원해 전승하고 있다.

광주광지원농악보존회가 실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굿머리

등장 부분이며, 기수와 태평소 다음으로 쇠와 징수, 다음으로 장구, 북, 소고, 피조리 순으로 입장한다. 이때 일체, 자진가락, 사채, 자진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2. 인사굿

전 치배가 입장해 상쇠의 신호가락에 맞춰 다 같이 큰 원을 만든 후, 옆 뛰기를 하다가 맺은 후 인사한다. 이때 덩덕궁이, 자진가락, 인사굿 가락 순서로 진행한다.

3. 돌림벅구

안쪽에는 소고잽이가 한 줄로 원을 만들고, 쇠, 징, 장고, 북잽이들과 피조리가 반시계방향으로 바깥원을 만들어서 돈다. 소고잽이는 돌 때 허공잽이를 한다. 별채굿으로 시작해서 자진가락으로 넘어간

다.

4. 앞당산벌림

잽이들이 두 줄로 서고, 소고잽이는 반대편에서 한 줄을 만든다. 덩덩덩딱으로 시작해 여장놀이, 마당삼채를 친 후, 제자리연풍대와 벅구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5. 오방진

상쇠가 길군악 장단을 내면서 시작하는데, 농악대가 동, 서, 남, 북, 중앙의 다섯 군데서 차례로 방울진을 쌓는다. 중앙의 잽이들이 옆뛰기를 하고, 소고잽이들은 자반 뒤집기를 한다. 길군악 칠채로 시작해, 육채, 마당삼채, 자진가락, 사채변형, 자진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6. 가새벌림, 사통백이

악기잽이와 소고잽이, 피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 교차하는 대형을 이루는 가새벌림을 진행한 후, 넷으로 갈라져 작은 원을 만들고 각각 도는 사통백이를 진행한다. 별채굿 가락으로 시작해 자진가락, 덩덕궁이, 자진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7. 좌우치기

잽이들이 큰 원을 만들어 오른쪽으로 한 발짝씩 세 발짝 띄우다가, 왼쪽으로 세 발짝, 앞과 뒤로 세 발짝씩 발을 띄며 움직이는 원 좌우치기를 한다. 이후 악기별로 줄을 맞춰 서서 네줄백이 좌우치기를 하며, 이때 오른쪽, 왼쪽, 뒤, 앞의 순서로 진행한다. 가락은 잦은삼채로 시작해 일채를 치고, 앉은상, 자진가락, 잦은삼채, 덩덕궁이 순으로 진행한다.

8. 쩍쩍이

앞치배와 소고·피조리가 각각 한 줄을 만들어 양쪽으로 나뉘었다가 뒤에서 만나 교차한 다음, 한 줄로 큰 원을 만든다. 쩍쩍이 가락을 치며, 치배는 안쪽에 원을 만들고, 소고와 피조리는 바깥에 원을 만든다. 같은 대형으로 타형을 내어 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 후 안과 밖을 번갈아 보다가 소고잽이들과 치배들이 원을 교차한다. 옆뛰기를 돌다가 소고는 밀벅구를 하고, 치배와 피조리는 연풍대를 돈다. 가락은 쩍쩍이, 타령, 넘김장단, 자진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9. 뒷당산벌림

벅구놀이, 쇠놀이, 무동놀이, 열두발상모 순으로 진행한다. 개인 놀음이 주를 이룬다.

10. 인사굿

중앙에서 잽이들이 옆뛰기를 하고 소고잽이들은 자반 뒤집기를 하고, 퇴장으로 이어진다. 가락은 덩덕궁이, 마당삼채, 자진가락, 인사굿 순으로 진행하고, 별채굿 가락으로 퇴장해서 휘모리 가락으로 끝을 맺는다.

광지원농악에 대한 지속적인 전승 활동과 과정은 경기도 지역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 지정 이전에 보존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광주종합고(현 광주중앙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광지원농악을 전승하고, 전공자를 배출함으로써 계속 전승의 폭을 넓혀왔다. 또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로 시립광지원농악단을 만들어 지속적인 보존·전승을 위한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하겠다.





● 강원도 / 범암골목도소리 / 화천문화원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목도소리'는 산간에서 나무를 한 후 땅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부르는 노동요다. 특히 삼이 깊은 강원도 화천의 화악산, 대성산 등지에는 나무가 많아 '다목'이라는 마을에서 하던 소리다. 범암골의 목도꾼 소리는 신현규 소리꾼이 전승한 소리를 바탕으로 한다. 신현규 소리꾼은 일제강점기부터 이 소리를 직접 듣고 자란 현장 체험자다.

목도소리는 산간에서 집단으로 힘을 발휘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선율에 강한 힘이 들어간다. 목도는 통나무나 돌덩이 같은 무거운 물체에 줄을 감아 그 줄에 목도채를 끼운 다음, 양쪽에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른다. 물체의 무게나 크기에 따라 2도, 4도, 6도, 8도, 16도 등으로 사람 수가 늘어며, 목도꾼들이 서로 걸음을 맞추기 위해 소리를 한다. 소리는 앞패와 뒷패로 나뉘어 선후창으로 주고받으면서 진행하며, 앞에 가는 패가 주도한다. 사설에는 전방의 지형을 알려주거나 사기를 북돋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며, 이따금 우스갯소리를 넣기도 한다.

대개 4인 1조의 일꾼들로 구성하며, '어이도 산호'로 목도소리를 해서 목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다.

실연된 범암골목도소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장·산신제

풍물패놀이 일꾼들이 입장해서 산신제를 지낸다. 가운데 제사상을 두고 두 명의 제관이 제를 지내기 시작하면 풍물패가 악기를 울리고, 이후 일꾼들이 무릎을 꿇고 산신제를 지낸다. "범암골 산신령께 고합니다. 우리 일꾼들 오늘 하루 아무 사고 없이 일 잘할 수 있게 보살펴 주기옵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기원한다.

2. 벌목·운재

4인 1조로 '어이도 산호' 노래를 부르면서 벌목하는 과정을 연출한다. 두 명의 일꾼이 깍장쇠뢰 작은 통마루를 찍어 옮기기도 한다. 운동장 한가운데는 작은 통나무를 옮기는 일꾼들이, 운동장 바깥쪽으로는 지게를 진 일꾼들이 일렬로 지나가며 산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벌목을 형상화한다.

3. 목도 - 어깨에 메고 옮기기

4인 1조로 4도를 지어 작은 통나무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한다. 옮길 때 목도꾼들은 "어이도 산호 / 가자가자" 노래를 부른다. 통나무를 멘 일꾼들이 운동장 한편에 조형물(배) 주변으로 원을 그리며 모여들어 배 앞으로 나르기, 외나무 건너서 배로 나르기를 진행한다.

- **배 앞으로 나르기**

  배가 있는 곳으로 통마루를 차례로 나른다.

- **외나무 건너서 배로 나르기**

  외나무다리를 넘어가는 과정을 연출한다. 이어서 배 앞에 나무를 쌓고, 바가지로 물을 뿌린다. 큰 통나무에 앉은 소리꾼(신현구)과 사공들이 타 있는 큰 배가 출현하고, 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하는데, "아리아리 스리스리 뱃놀이를 가자"로 다 함께 노래한다.

4. 마무리 - 풍물한마당

목도들이 다 나오면 모두 큰절을 하고, 일꾼들은 큰 통나무를 내려놓고 어깨춤을 한판 추며 퇴장한다.

범암골목도소리는 산이 깊은 지역에서 대규모 공동작업으로 진행하는 나무자르기에 뒤이어 나무나르기 등의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다. 작업의 특성상 위험한 과정이 노출되어 있고,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작업 참여자들의 합심이 필요하다. 범암골에 전해지는 목도소리는 이러한 과정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속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신현규 옹의 소리를 통해 잘 전승된 현장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 함경남도 / 돈돌날이 /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돈돌날이'는 함경남도에서 전승하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민요다. 돈돌날이 춤은 누구든지 바가지 장단 또는 북 장단과 노래에 맞춰 춤판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돈돌날이'란 '동틀 날'에서 비롯된 말이며, 세상에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 담겨 있다. 주로 한식 및 단오에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시풍습의 하나로서 모래산과 남대천에서 연행을 했다. 함경도의 독특한 춤사위인 달래 춤과 넋두리 춤이 곁들여져 토속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며, 북과 바가지, 자배기 장단이 신명을 돋운다. 이 작품은 돈돌날이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봄철나비, 미나리 꽃, 전갑섬 타령, 삼천리 노래, 양유나 청산, 라리라 돈돌리띠리, 내 고향 북청, 흘레레 레뗄레, 가자, 가자, 리라 리라 라리요, 좋구 좋소 등 다양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돈돌날이에 연행된 춤사위는 일명 '달래 춤'이라고 하는데, 북과 바가지, 퉁소, 징이 조화를 이룬 장단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춘다. 홀개치기를 제외하면 정형화된 춤사위는 없지만, 흥과 신명이 고조되면 자기만의 독창적 춤사위로 관객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춤사위의 특징은 손이 어깨 위에서 손목과 팔이 내려오지 않고, 어깨와 손목과 오금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자연스러움을 더하며, 오금과 발뒤꿈치를 이용해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부녀자들이 흥과 신명이 고조되면 집단으로 춤사위를 연행하는 것을 '넋두리 춤'이라고 한다. 둥글게 원을 만들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회전을 많이 해 생동감이 넘치며, 춤사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돈돌날이에 연행된 장단은 굿거리 장단과 자진 굿거리 장단의 중간 정도 되는 장단이다. 부녀자들이 북과 함지 및 자배기를 이용해 장단을 연주하는데, 북이 전체 장단의 완급을 조절하며 놀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바가지 장단은 커다란 함지에 물을 가득 부어 바가지를 띄우고, 바가지 속에 놋그릇과 수저와 젓가락을 넣어 소리를 낸다.

<돈돌날이>

(후렴)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 강산아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이 강산 서산에>

이 강산 서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일출 동산에 해가 솟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쏠라이쏘>
쏘쏘 쏠라이쏘 거스러미도
남대천이 거스러미 반짝거린다
쏘쏘 쏠라이쏘 거스러미도
모래산에 거스러미 반짝거린다

<리라 리라 라리요>
내고향 좋아요 내고향 좋아요
우리 북청 고을이 내고향 좋아요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우리네 부모는 나를 고이 길러서
짝을 지어 주려고 시집을 보내네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수해양천에서 따님이 왔노라
시집을 안가겠다고 맹세를 하여도
가매채 올리면 할 수가 없구나
명주이불을 덮기만해도
이불속에서 풍니만 하노라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인조이불은 덮었지만해도
하룻밤 정리를 잊지만 마세요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라리라 돈돌리띠리>
라리라 라딸라 라리라 라딸라리요
리띠리띠 리릴라
다리가 리리 띠띠릴리
야야 이 사람아 넬네레넬 걸어라
남대천변으로 가잔다
다리가 리리 띠띠릴리
리띠리띠 리릴라
라리라 라딸라 라리라 라딸라리요
리띠리띠 리릴라
라리라 돈돌 리띠이리

리띠리띠 리띠이리

<전갑섬타령>

양천전촌에 전갑섬이 오매한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갱피방아찧기가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별안대이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밥임나르기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해안전촌에 말이났소
나는좋아요 나는좋아 해안퉁소가 나는좋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좋구 좋소>

좋구 좋소 에라 좋구나
이십살 애들이 놀기 좋구나
십팔세 젊은시절이 놀기 좋구나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아름다운 매화꽃이 곱게 피었네
라리라 이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함경도의 돈돌날이는 노래와 춤, 악기 연주가 함께 하는 재미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여자가 부르는 노래들을 엮은 것으로, 악곡의 수가 많으며, 장단과 춤사위에서 함경도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전라남도 / 전어잡이시연 / 진원전어잡이소리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전어잡이 소리는 어부들이 작업하는 모든 모습을 담은 소리다. 노 젓는 소리로 잠을 깨우고, 전어를 잡기 위해 준비하며, 전어를 잡아 장사꾼에게 파는 모든 과정을 소리로 표현했다. 바다로 나갈 때는 새벽잠을 깨우고, 전어잡이에 집중하기 위해 지형지물을 소리하며, 작업 중에는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흥이 있는 소리를, 포구로 돌아올 때는 선원들의 애환과 삶을 소리한다. 그 소리의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바다로 나가는 소리 / 바다로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소리) 전어 배는 주로 새벽에 망덕포구 선소선착장에서 바다로 나가는데, 선원들의 새벽잠을 깨우고, 모든 잡념을 버리게 하며, 오직 전어잡이에 집중하도록 주변 지형지물을 소리한다. 또한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의 이동 과정을 소리한다.

2. 노 젓는 소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과정을 표현한다.

3. 그물 내리는 소리

사공이 고기 노는 것을 소리나 눈으로 확인 후, 그물을 내릴 때 선원들의 각자가 해야 하는 행동을 소리로 한다.

4. 그물 담는 소리

(그물 당기기) 사공이 물밑 그물에 전어가 많이 있어 전어가 도망가기 전 빨리 그물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를 노래로 한다.

5. 가래질소리

사공이 그물에 들어온 전어를 확인 후, 선원들에게 작업 도구(조끼)를 준비하고 전어를 배에 퍼 실으면서 부르는 노래이자, 잦은가래소리 가래질소리를 하면서 배에 전어를 퍼 싣는 힘들고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모두 신이 나서 부르는 노래다.

6. 만선 긴소리

(만선 포구로 돌아오기) 만선 했을 때, 큰 배는 배 앞에 작은 배는 배 뒤에 만선 깃대를 꼽고, 선원들은 모두 소리, 춤, 장난 절반으로 흥이 나게 자신의 마음에 담긴 애환과 삶을 함께 노래한다. 포구로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 소래포구로 돌아올 때의 노 젓는 소리는 나갈 때와는 다른 기분으로 부르며, 구절이 다양하다.

7. 도부꾼 전어 퍼주는 소리

(전어 퍼주기) 포구에 도착해 도부꾼(장사꾼)에게 전어를 퍼주면서, 도부꾼이 장사 후 수입이 많아야 다음에도 많은 도부꾼이 온다는 노래를 부른다.

8. 마당놀이

(풍장 한마당) 도부꾼에게 전어를 퍼준 후, 포구에 나온 사람과 선원들이 어울려 춤추고 노래한다.

전어잡이 소리는 어로 작업 중 힘듦과 고달픔을 달래는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날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지혜와 애환을 엿볼 수 있다.




● 경상북도 / 경산중방농악 농사굿12마당 / 경산중방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경산중방농악은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에 전하는 농악으로, 당산굿과 지신밟기의 형태가 잘 살아 있다. 예로부터 마을 무병과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당산제를 지내고, 마을 마당밟기와 지신밟기를 하며 지신、조왕신、삼신、업신 등 집집이 지신밟기를 한다. 특히 중방동에서 지내는 당산제는 무속인들과 경산중방농악보존회가 매년 당산나무를 찾아가 풍년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주요 수호신으로 모시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중방동의 당산나무는 수령이 380년이 넘은 것으로, 경상북도 지정수(11-10-6-1-1)로 된 바 있어, 중방동의 역사와 전통을 말해주는 증거 중 하나다. 현재 보존회가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더불어 이를 보존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화목을 빌어줌으로써 결집을 이어 나가고 있다.

중방농악은 연예농악대인 걸립패가 연행하는 농악이 아니라, 마을의 두레농악대가 연행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무병과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독특한 놀이 형태와 짜임새로 펼쳐진다. 그러므로 굿과제, 지신밟기로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구성은 농사굿 12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덧배기장단에 선이 굵은 동작들이 이어지고, 경상도의 특이한 다드래기인 연풍굿과 엎어배기 동작들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확인된다.

연행 과정은 유일하게 농사와 풍년을 주제로 구성한 12달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눠 풍물가락과 진놀이로 표현한다.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4열로 입장해 당산나무에서 당산제를 올린 후 원진을 만든다. 원진을 만든 후 인사하고, 상쇠와 부쇠는 원진 안으로 들어간다. 빠르게 진행하면서 연풍대를 행한다.

2. 농사진굿
일명 '土'자 만들기로, 원진에서 흙 '토' 자를 만든다. 이것이 완성되면 두 번 앉고 제자리에서 회전한다.

3. 오방진
덧배기 과정으로, 덧배기가락과 동작으로 농부가 필요한 전답을 표현한 진놀이다.

4. 허허굿
새때와 잡귀 몰아내기 과정으로, 작은 원 6개를 만들어 회전한다. 상·하·전·후진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들녘에 새떼와 잡귀 귀신을 몰아내는 모습을 보인다.

5. 물레방아굿
치배들이 물레방아와 자반뒤집기 장면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먼저 큰 원진에서 상쇠의 신호에 따라 쇠, 징 1줄, 북 2줄, 장구 2줄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물레방아살을 만든다. 물레방아를 돌려 곡식을 찧는 동작으로, 벅구들은 원 주변에서 자반뒤집기로 물 떨어지는 형상을 연출한다.

6. 무지개(부처뱅이굿)

치배들이 무지개와 연꽃 형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먼저 무질서하게 판을 만든 후에 여름 나절 들녘에 무지개가 뜬 형상을 재현하고, 삼라만상 우주를 뜻하며 연꽃이 피었다 졌다 하는 모양을 만든다.

7. 오행굿

원진을 형성하면서 느린 덧배기 장단에 모내기 농요를 부르면서 지친 몸을 달랜다.

8 싸움굿(세다툼)

원진에서 상쇠 줄과 부쇠 줄로 나뉜다. 2열로 만든 뒤에는 서로 밀고 들어온다. 도랑(부처뱅이 강)을 중심으로 아랫마을과 윗 마을간 세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구성한다.

9. 화해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면서 상호 갈라진 후에 상쇠. 부쇠 줄을 나눠 쌍진을 만들면서 서로 갈라지고, 상·부쇠 응답 가락에 손을 흔들어 화답한 후 합진하며 화해하는 장면을 만든다.

10. 판놀이굿

농사일 재현과 함께 각 치배와 기량을 뽐내는 개인놀이 마당이다.

11. 덕석말이

마당에 펴 놓은 멍석을 말아 농한기 때 실경에 걸어두는 과정으로, 진을 풀어 나올 때는 추근추근 춤을 추면서 흥겹게 다음 진을 만들어간다.

12. 큰굿

태극진 후 퇴장: 원진에서 태극진을 만들어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관중석을 향해 인사 후 퇴장한다.

경상중방농악이 전형적인 마을굿을 주제하는 농악의 형상을 드러낸다. 특히 농악의 흐름을 자연과 농사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특별하다. 두레농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복원해 전승함으로써 중요한 지역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공동체 의례와 농악, 일소리가 연결되면서 중요한 문화적 원천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놀이의 흐름이 잘 정리됨으로써 농악의 소중한 가치가 잘 전승되기를 기대한다.





● 전라북도 / 정읍농악 문굿과 판굿 / 정읍시립농악단

종목 농악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호남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 가운데 전라 서부·서남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달리 '우도농악'이라 일컫는다. 정읍은 우도농악의 주요 전승지로,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1910년대 '600만 교도'를 자랑하던 당시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의 보천교에서는 이 농악을 종교의례 양식으로 채용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전승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정읍농악은 다른 지역 농악에 비해 그 내용이나 형식이 고도로 발달해, 예술성이 뛰어나다. 정읍농악이 기악 연주를 중심으로 하면서, 악[樂], 가[歌], 무[舞], 희[戱]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치배 구성면에서 장구가 크게 발달했다는 점, 집단놀이뿐만 아니라 각 치배가 높은 예능 실력을 자랑하는 '개인놀이'로 발달한 점을 자랑으로 삼는다.

문굿과 판굿을 출품한 팀은 정읍농악 보유자인 유지화(정읍시립농악단)로부터 고증을 받았다. 연출을 위한 소품으로 당산나무, 고사상 등이 활용되었다.

정읍농악의 연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얼림굿 - 입장굿
인사 후 상쇠를 기준으로 마주 보고 횡대로 서서, 청령소리굿, 이채, 이루삼채, 넘기는 가락, 이채 순으로 진행한다. 인사굿을 한 장단 친 후 멍석말이진법으로 넘어간다.

2. 당산굿 - 멍석말이
치배들이 소라모양에서 소용돌이 모양의 원으로 감아 돌아들었다가 다시 풀어나가는 멍석말이진을 선보인다. 무대 한가운데서 다시 멍석말이진법을 한다.

3. 이열종대 자진
빠른 삼채로 상쇠가 삼진삼퇴(세 번 전진 했다가 세 번 후퇴하는 동작)를 하며 여러 재주를 발휘한다. 종대로 짝을 이뤄 옆품살이(서로 등을 기대고 고개를 돌리며 서로 마주보는 동작)를 하고 콩등지기를 한다.

4. 앉은진풀이 - 이자진(두줄)이 일진(한줄)으로 변함
징, 장구, 북을 제외한 나머지 치배들이 화살표 방향과 같이 쪼그려 앉아 다시 자기 자리로 앉은 상태의 진풀이를 한다. 이후 상쇠가 대열 사이를 오고 가며 이자진이 일자진으로 변한다.

5. 일려종대 일자진

(1) 영기중심
영기 앞에서 마을에 굿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과정으로, 영기가 좌우 'X'자로 오고 가는 행동을 하면, 치배들은 악기를 치고 팔을 들며 좌우로 몸을 흔든다.

(2) 멍석말이
마을의 허락을 받으면, 상쇠는 중앙에서 멍석말을 한 후에 좌우로 나뉜 영기를 멍석말이 진으로 농악대와 합류시킨다. 다시 상쇠가 중앙에서 멍석말이 진을 한다.

6. 매도지-원 만들기

원진을 만든 후 빠른 삼채를 치며 쇠·장구가 안쪽에 원을 만들고, 상쇠의 매도지 신호를 듣고 연풍대 또는 자반 뒤집기를 하며 문굿으로 마무리한다.

7. 호호굿(판굿)

호호굿은 세 개의 겹원 상태에서 작은 겹원을 만들며 상쇠의 난타로 시작한다. 장단 뒤에 '호호' 하는 구음을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호호굿머리, 호호굿, 본 장단, 자진호호굿으로 구성된다. 호호굿을 치며 작은 겹원을 풀고 큰 원으로 진을 다시 구성한다.

8. 좌우지기

호호굿을 치며 겹원에서 큰 원을 만든 후에는 자진호호굿으로 바뀌는데, 전체 치배들이 약을 치며 좌측 한 번, 우측 한 번 옆으로 뛰어다닌다. 그 후 상쇠 신호에 따라 안으로 한번 밖으로 한번,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오며, 두 번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변가락을 치고 다시 뒤로 나간 후 제자리에 앉아 변가락을 친다. 그 뒤 상쇠가 하나, 둘 또는 셋씩 지그재그로 풀어 나온 후 쌍방울진을 위한 11자 진을 구성한다.

9. 쌍방울진

상쇠가 모든 치배를 홀·짝으로 나눠 상쇠줄과 부쇠줄을 만들며, 11자 진 양쪽 줄에서 서로 교차하며 가세치기를 두 번 한 후, 다시 11자 진을 만들어 미지기를 준비한다.

10. 미지기

가세치기를 한 후, 조금 좁은 11자 진 미지기로 들어간다. 이때 치배들은 자진반삼채를 치며 상쇠줄을 먼저 두 번 당기고, 두 번 밀고, 서로 한 장단씩 뒤로 물러 공간을 만든다. 다시 11자 진이 되었을 때 상쇠 신호에 된삼채로 가락을 바꾸며 짧은 매도지로 마무리 짓는다.

11. 벙어리 삼채

짧은 매도지 후 상쇠줄과 부쇠줄은 바깥으로 반원을 만들며 돌고, 상쇠와 부쇠가 양쪽에서 만나기 전 벙어리삼채가락으로 바꾸면서 두 줄로 흩어져 있던 치배들을 다시 한 줄로 만든다.

12. 매도지

한 줄을 만든 치배들은 세 개의 겹원으로 구성하고, 긴 매도지로 셋째 마당을 마무리한다.

정읍농악은 호남의 대표적인 우도농악으로 전통을 이어왔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1996년 전라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정읍시와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전승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지역 특성이 드러난 농악의 면모를 통해 전통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부산광역시 / 다대포후리소리 /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종목 민요
수상 충북도지사(은상)
상금 4,000

다대포후리소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대에 전승되는 멸치잡이와 관련한 어로요(어로 노동요)다.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가 전승하고 있는 이 소리는 1981년 발굴·시연된 이후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고, 1987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매년 자체 발표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각종 초청공연과 부산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다대포 지역은 오랜 어촌으로 최근까지 멸치 후리질을 해 왔으며, 멸치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던 토착 어민이 많아 멸치잡이 후리질에 관한 어로요 및 어로 풍속이 다른 지방보다 많이 전승되어오고 있다. 특히 멸치젓은 이 고장의 명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국방의 요충지로서 진이 설치되면서 멸치 잡는 방법도 수군조직을 모방해 조직력, 규율, 협동력을 토대로 작업 과정을 개선했다. 또한 멸치잡이 과정에 노래를 곁들임으로써 어로 생활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잊게 하는 등 능률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 왔다. 다대포후리소리는 멸치잡이 후리질 순서에 따라 부르며, 전체 7과장으로 구성된다.

1. 그물을 배에 싣는 소리

멸치 떼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후리그물을 해변으로 옮겨 배에 싣는다.

(받는소리) 에-헤 사리야
(메기는소리) 에-헤 사리야

사려보세 사려보세	그물 한 채를 사려 보세
여보시오 어부님네	이 그물을 낼 적에는
어이해 내었는고	멸치잡이를 가려하니
그물이 없어 못 가겠네	그물 한 채 내자하니
명주실이 어디있소	뒷동산에 뽕을 심어
앞동산에는 잠실을 지어	누에 한판을 길렀더니
뽕잎으로 밥을 주니	무럭 무럭 자라나서
한잠 두잠 석잠 잔 후	구슬같은 고치를 쳤네
그 고치를 따 가지고	돌고 물레 실을 뽑아
가랑 물레 실을 잦아	큰 아기 손끝으로
그물 한채 내어다가	웃시울에 우끼를 달고
아랫시울에 닻을 달아	그물 한 채 꾸며다가
고깃배에 사려 실어	

2. 용왕제

바다를 향해 용왕에게 무사태평과 풍어를 기원하며 고사를 지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전 비나이다 (악기)
동해바다 용왕님요 서해바다 용왕님요
남해바다 용왕님요 북해바다 용왕님요
물밑에는 황실용왕 물위에는 청실용왕
청실황실 용왕제를 지극정성 드리오니
사해바다 용왕님요 굽어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네들 멸치잡이 가기위해
조그마한 조각배에 그물한채 내어싣고
오색가지 서낭기와 용왕깃발 달은후에
돛대한상 높이달고 밧줄사려 실은후에
부모형제 차자들을 손흔들고 작별한후
풍악울려 배띄우고 만경창파 들어가니
간데마다 순풍만나 무사태평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 비나이다.

3. 그물놓는 소리

고깃배를 저어 바다로 나가 그물을 놓는다.

(받는소리) 이여사

(메기는소리) 달도밝고 고요한데 우리어부 벌어진덴
멸치생각 절로난다 동해바다 용왕님요
남해바다 용왕님요 사해바다 용왕님네
용왕님의 은덕으로 이 그물을 놓거들랑
재수소망 점지하소 멸치만선 시켜주소
물색좋다 도미등아 팔팔뛰는 숭어등아
반짝이는 멸치등아 우리후리 다들오소
화조월석 오는춘풍 뉘힘으로 막을손가
바람아동풍아 불질마라 오는멸치 돌아간다
뒷동산에 진달래는 봄을맞아 만발하고
다대포라 앞바다에 메러치가 풍년일세
객사지둥 벌어진덴 왕거미줄이 제격이요
선주선원 벌어진덴 메르치가제격이요
우리어부 벌어진덴 술담배가 제격이요
쓸쓸한강변에 단막을 짓고요
넘실대는 파도위에 갈매기는 춤을추고
우리어부 노래한다 다 놓았소 예

4. 후리소리

멸치 떼를 둘러싸고 그물을 치면 수십 명의 남녀 어부, 아낙들이 양쪽에서 벼릿줄을 당긴다.

(받는소리) 어기여차 당겨나 주소

(메기는소리) 동해바다 며르치도 다대포로 몰려오고
남해바다 며르치도 다대포로 몰려오고
용왕님의 은덕으로 멸치풍년 돌아왔네
산은 첩첩 천봉이요 물은잔잔 백옥인데
우리다대 꽃이피네 꽃이피고 봄이오니
멸치풍년 아닐소냐 만경창파 푸른물에
멸치떼가 몰려오네 푸른푸른 봄배추는
찬이슬을 기다리고 다대포라 우리어부
멸치오기 기다린다 여기여차 당겨주소

5. 그물 터는 소리

후리질을 해 그물을 해변까지 끌어다 놓고, 그물에 걸린 멸치를 가운데로 모으기 위해 그물을 쪼으면서 부른다.

(받는소리) 어산자

(메기는소리) 산자로다 젖며르치가
많이도 들었구나 오뉴월
삼복더위에 황소붕알같이
늘어졌구나 고래등 같이
둥둥 떴다 녹산 이방우같이
쩍 벌어졌구나 반갑도다
이메르치야 어데서 놀다가
이제사 왔나 기장 바다에서
놀다왔나 대마도 바다에서
놀다왔나 학수고대
기다린 매르치 오늘날에
당도했네 무쇠같은
내동무들아 힘을 주어서
그물을 많이잡고 앞을 숙였다
뒤로 넘어가면 쪼아나주소
그만쪼으고 메르치를 펍시다

6. 가래질소리

그물에 잡힌 멸치를 소쿠리에 가래로 퍼 담아 어장에 설치된 저장 통에 운반한다.

(받는소리) 어 능청 가래로다

(메기는소리) 이가래가 누가랜고 다대포첨사의 가래로다
이가래가 누가랜고 한선주의 가래로다
용왕님의 은덕으로 메르치 풍년이 되었구나
십오야 둥근달은 삼경인들 변할소냐
똘똘뭉친 우리어부 일구월심 변할소냐
양류색이 천만사인데 오는춘풍 막을소냐
양류색이 사사록하니 오륙촌이 다대포요
무정세월 한허리를 양류사로 메어놓고
우리어부는 가래질한다

7. 풍어소리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어장에서 어부와 마을 사람들이 “쾌지나 칭칭 나네”를 부르며 한바탕 신명 나게 논다.

(받는소리) 쾌지나 칭칭 나네

(메기는소리)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괄세마라
어제까지 청춘인데 오늘날에 백발일세
청천 하늘 잔별많고 바다에는 멸치많네

정월이라 대보름은 우리나라 명절이라
골골마다 칭칭소리 즐겁게도 들려오고
이월이라 한식절은 나무마다 춘기들고
가지가지 순이난다 삼월이라 삼짓날은
강남에서 나온제비 내왔노라 헌신하고
소상강변 기러기는 내가노라 하직한다
용왕님이 주신복지 태평무궁 빛내보세
칭칭소리 잘한사람 만난주로 대접하고
칭칭소리 못한사람 탁주일배 벌주로세
쾌지나 칭칭 나네

다대포의 멸치잡이 후리질은 1960년대 초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곳 어민들은 그 작업 과정은 물론 어로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멸치잡이에 드는 어구와 작업의 방법을 재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리소리 역시 다대포 나름의 특성을 간직한 채 보존·전승되고 있어 민속적이고 음악적 가치가 뛰어난 전통 민속문화라 할 수 있다. 다대포 후리질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충북도지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 대구광역시 / 가루뱅이농악 / 가루뱅이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가루뱅이농악'은 마을과 개인의 풍농 및 가정의 기원을 목적으로 하는 두레풍물로, 대구광역시의 영산인 팔공산 기슭 용수동에서 전승되어오고 있다. 가루뱅이농악의 전승 지역인 용수동에는 '지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 밑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 속에 용이 살았다고 한다. 굴 앞에는 용이 먹는 용수가 있어, 이 물을 먹고 용이 하늘로 승천해 이 지역을 용천동이라 불렀으며, 지금도 굴의 흔적과 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용수동의 지명은 행정구역 통폐합 때 용천동과 수대동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며, 약 100여 년 전부터 칡넝쿨이 많다는 의미로 '갈방'으로도 불렀는데, 이것이 변해 지금의 가루뱅이가 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가루뱅이농악은 이 마을을 개척한 배 씨와 구 씨가 마을 입구에 나무를 심고 제사(동제)를 지내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농악의 장단은 대부분 자진모리와 휘모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사를 짓는 형상의 농사굿과 싸움굿, 빠르게 돌아가는 연풍굿과 다드래기가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굿거리·휘모리·호호딱딱 장단 등과 어우러져 농악을 이룬다. 장단 중에는 특히 농악대가 이동할 때 길을 가며 치는 길매구 장단과, 흥겹게 춤을 출 수 있는 길살풀이 장단이 특이하다. 다른 지역보다 북의 크기가 크고 소리가 웅장한 것이 특징이며, 검은 수술이 달려있는 영기 또한 가루뱅이농악의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다.

가루뱅이농악의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길매굿:** 입장

2. **인사굿:** 인사

3. **물밀굿:** 원 모양, 방향전환과 넘기

4. **연풍굿:** 원 모양, 6회 돌고 앉아 넘기

5. **싸움굿:** 11자 모양 2줄 놀이, 밀고 당기기와 사이치기

6. **쌍진굿:** 각각 달팽이진 두 개씩 2회 후 하나로 합침

7. **길살풀이:** 달팽이진을 풀어 원을 만듦

8. **호호굿:** 원 모양, 호호 딱딱

9. **벅구놀이:** 원 모양, 상모놀이

10. **굿거리:** 원 모양으로 대형 만듦

11. **오방진굿:** (1) 십자진(+모양 대형 후 풍차 돌리기)

(2) 오방진(동·서·남·북 한가운데로 원모양 만듦)
(3) 오방진풀이(원모양 5개를 풀어 큰 원 1개 만듦)

12. **개인놀이:** 꽹과리, 소고, 북, 장구 순으로 개인놀이

13. **멍석말이:** 좌우, 중앙의 순서로 달팽이진을 만들고 풀기

14. **인사 및 퇴장:** 원 모양으로 퇴장 (악기별로 줄을 만들어 퇴장)

가루뱅이농악은 두레풍물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지금도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사굿과 싸움굿, 빠르게 돌아가는 연풍굿과 다드래기,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굿거리·휘모리·호호딱딱 장단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판굿을 구성하고 있다. 길매구 장단과 길살풀이 장단 등 고유한 장단이 연주되고 있는 점에도 가치를 둘 수 있는데, 매우 발달한 장단과 벅구놀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증과 고찰이 필요하다
.



● 충청북도 / 정월대보름지신밟기 / 옥천군청산면민속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3,000

지신밟기는 땅의 신이 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에서 유래했다. 마을 사람들이 지신밟기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해 자기 마을이나 이웃 마을을 방문해서 으레 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공동체 제사의례의 일종으로 세시풍속에 포함된 시기는 상당히 오랜 연원을 지닌다.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신밟기는 6·25 전쟁부터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된 1970년대 중반까지 명맥이 끊어졌다가, 1970년대 후반 지역 원로들을 주축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1. 설치

조형물 설치 후, 각 시설물에서 마을의 일상생활을 재현한다.

2. 입장·동고사

“동네 주민들 동고사 지내러 가세” 상쇠 선창 후 입장한다.

3. 우물고사

동고사를 지낸 후 우물로 이동해 당도하면 동네 주민들이 절을 한 후 용왕굿을 진행한다.

4. 문굿

대문 앞에서 풍물소리를 멈춘 후 선소리를 한다.

5. 성주굿

집 앞에서 고사를 지내고 상쇠의 선소리 후 주민 전체가 뒷소리를 한다(메기고 받기 형식).

6. 조왕굿

부엌으로 풍물단이 들어간다. 풍물 멈춘 후 상쇠소리를 한다.

7. 터주굿

장독대로 풍물단이 들어간다. 풍물 멈춘 후 상쇠소리를 한다.

8. 신명풀이 풍장 한마당

마당 가운데서 전체인원 어우러지며 논다.

마을 전체와 개별 가정을 동시에 축원하던 지신밟기는 진정한 마을 공동체 의례라고 할 수 있지만, 당굿에서 시작해 집돌이로 이어가는 등 전래하는 방법으로 지신밟기를 진행하는 마을은 현재 많지 않다. 다만 마을의 풍물패가 뜻을 두어 정초에 허락된 집이나 상점에 가서 풍물을 치고 덕담을 해 주는 형태의 지신밟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마을공동의례는 소멸하고, 개별 가정의 복덕만을 축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 광주광역시 / 무돌농악 / 무돌농악단

종목 농악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무돌농악은 호남농악 중에서도 우도농악에 속한다. 예로부터 전승한 미륵동의 판굿농악을 중심으로, 칠석동의 고싸움놀이농악, 소촌동의 당산농악, 산월동의 풍장농악, 옥동(평동)과 유계동(동곡)의 걸립농악 등 광산구 지역에서 연주되는 다양한 농악을 집대성했다.

농사일과 더불어 연주하는 호남우도 농악이 갖는 다양한 특징은 물론, 전통 진법 등이 흥겨운 가락과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예술적 창조 정신과 함께 전승되었다. 판굿은 대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시작해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되는 긴 과정이다. 여기에는 가락을 중심으로 한 음악적 요소를 포함해 무용·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져 종합적인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무돌농악의 쇠가락은 굿의 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락의 끊고 맺음이 다른 지역보다 확실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고, 앞가락과 뒷가락의 쇠가락을 항상 한 쌍으로 묶어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돌농악의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장·질굿마당

굿머리를 마친 후 입장해 인사굿, 오채질굿, 된오채질굿, 늦은알채굿, 벙어리삼채, 벙어리일채, 된삼채, 응매깽, 잦은일채 순으로 질굿마당을 진행한다. 전 과정에 걸쳐 원진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주변으로 잡색들이 이동한다.

2. 오방진굿마당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에 방울진을 치며, 원진과 개인놀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다섯 방향의 '진'은 군대에 병사들이 머무는 진영을 뜻하는 말이다. 오방진굿을 연희한 후, 구정놀이, 쇠놀이, 쇠장구놀이를 이어 하고, 매도지가락으로 맺는다.

3. 호허굿마당

좌우진퇴, 지신매기, 지신밟기, 콩등지기, 용틀임 등 다양한 진법을 진행한다. 특히 좌우진퇴는 우동작, 좌동작, 진(進)동작, 연꽃의 꽃봉오리 같은 형태의 연봉치기, 퇴(退)동작 등 다섯 동작으로 구성한다.

4. 개인놀이마당

치배들이 'ㄷ'자 모양으로 정열한 뒤, 악기별로 놀이를 진행하는데, 소고놀이, 북놀이, 징놀이, 쇠놀이, 장구놀이, 12발 상모놀이 등 잽이들의 집단놀이와 개인놀이를 펼친다.

호남우도농악에 속하는 광주 광산구의 무돌농악은 미륵동 농악을 근간으로 하면서 광주 광산구의 여러 마을 농악을 집대성한 것이다. 광산구에는 무돌농악 외에도 광산농악, 산월농악, 칠석농악 등이 있으므로, 이들 농악과 다른 점이 어떠한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예컨대 쇳가락의 끊고 맺음이 다른 지역보다 확실하다거나, 앞가락과 뒷가락의 쇠가락이 항상 한 쌍으로 묶여 연주되는 점 등이 흥미롭다.



● 황해도 / 황해도화관무 / 황해도화관무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한국문화재재단(동상)
상금 3,000

황해도의 화관무는 꽃으로 장식된 화관을 머리에 쓴 무희들이 마치 강강술래의 모습과 같이 원을 그리며 추는 춤이다. 해주와 개성의 권번 기녀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이름을 떨치던 민천식 선생이 동란 이후 월남해 자리 잡은 인천에서 인천국악원장을 지내며 해서 지방의 춤을 전승했는데, 화관무가 그중 하나다. 지금은 그 맥이 그의 제자 김나연 선생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화관무의 본디 모습은 집단으로 추는 춤이다. 그 목적은 공동체와 애국심을 극대화해, 나라의 태평성대와 백성의 안녕을 추구하는 현세적인 길복이 담겨있다. 그래서 화관무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민천식류 화관무는 정중동과 동중정 속에 이루어지는 억제와 절제의 규제 속에서 기교와 재간을 극대화해 섬세함에 화려함을 더한 표현미를 강조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화관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해서 지방의 특징인 한삼뿌림이다. 해서 지방의 탈춤에서와 같이 외사위, 양사위, 비낄사위 등 모두 한삼뿌림으로 처리한다. 또한 한국 무용의 발디딤새와 손놀림새, 몸굴림새 등 세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무용예술로 승화하고 있다.

화관무의 반주 음악으로는 도드리와 허튼타령장단을 연주하는데, 이는 해서탈춤, 해주검무, 화관무 등 해서 지방 연희에 두루 쓰이는 장단이다. 황해도화관무의 연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장
무용수들이 중앙 앞쪽에 좌우로 정렬한다.

2. 중앙정렬
무용수들이 양쪽으로 정렬해 서면 음악이 연주된다. 좌우로 정렬한 무용수들이 한가운데로 모인다.

3. 일자정렬
양쪽으로 정렬한 무용수들이 다시 한가운데로 모여 춤을 춘다.

4. 3개의 원
무용수 전체가 3개의 원을 만들어 춤을 춘다. 중앙 원은 왼쪽으로 회전하며, 양쪽 원은 화살표 방향에서 풀리기 시작한다.

5. 겹원
양쪽 원이 중앙 원을 에워싸며 무용수들이 다시 하나의 원을 만들며 춤을 춘다. 안쪽 원은 오른쪽, 바깥쪽 원은 왼쪽으로 돈다.

6. 마무리
두 원을 이룬 상태에서 큰 절로 춤을 마무리한다.

7. 퇴장
경연자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원을 풀며 정렬해 퇴장한다.

황해도화관무는 새로이 선보인 종목이다. 민천식 선생이 만든 무용이므로, 민속적인 맛보다는 전문 공연예술의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 황해도화관무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문화재재단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조팟발리는소리 / 제주시오라동민속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단양군수(장려상)
상금 2,000

‘조팟불리는소리(조밭 밟는 소리)’는 제주도에서 조 농사 때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2012년 제51회 탐라문화제 민속예술 경연부문에서 은상을 받은바 있다.

조는 까다로운 경작 기술이 필요한 곡물로, 주로 토질이 푸석푸석하고 찰기가 약하며 보수력이 낮은 ‘뜬땅’에서 많이 경작하며, 목장 밭에서 주로 경작하는 ‘마시리’, 좋은 양토 밭에서 경작하는 ‘호박시리’, 밭을 가리지 않던 ‘강돌와리, 동고시리’ 등 1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화산섬이라 보통의 경우 화산토가 가지는 풍성한 지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제주 땅은 거칠기가 그지없다. 그런 땅을 일궈 잡곡, 새 - 모초[茅草], 촐 - 목초[牧草] 등을 재배한 것이다. 이런 토질 상황에서 지력은 물론 땅도 해거름이 아닌 4년의 기간을 거치는 것을 ‘쉬돌림’ 또는 ‘골매올림’이라 하는데, 그 어원이 어딘지 밝혀진 바가 없고, 지역적인 쓰임새만 조사되었을 뿐이다.

제주인에게 목축은 삶 그 자체였다. 제주 남정네들은 소와 말[牛馬]을 한 가족으로 여기는가 하면, 일생을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론 생활 자산이며,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새왓’(띠[茅]밭)을 의도적으로 넓게 조성했다. 우마의 먹이인 ‘촐’ 또한 새왓에서 재배하나, 제주 토양이 워낙 척박한 탓인지 ‘새’를 재배하고 나면 땅이 지력을 잃고 황폐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경의 지혜로 ‘쉬돌림’을 한 것이다.

한편, 기력이 왕성한 ‘새’ 밭은 뿌리가 워낙 많아 따비나 쟁기로 갈아엎을 수가 없고, ‘새’의 뿌리 기력이 쇠해질 때야 비로소 밭을 갈 수 있었는데, 이런 밭을 ‘쎈 밭(많이 거친 밭)‘이라 했다. 쎈 밭을 갈고 농사를 계속할 방법이 바로 쉬놀림이고, 그 과정이 보통 4년 걸렸다 한다. 쎈 밭에서 새를 베어낸 후 첫 번째 짓는 농사가 ‘조 농사’다.

첫째마당 ‘저릿쇠 놀이(밭갈이)’

‘쎈 밧’ 첫 밭갈이는 음력 2~3월 중 따비를 이용해 가는데, 워낙 힘이 들어 한 사람이 100평(330㎡)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마리 소에 쟁기를 매워 갈곤 했고, 이를 저리(표준어 ‘겨리’)라 했으며, 대략 하루 500평(1,650㎡) 정도의 쎈 밧을 갈 수 있었다. ‘따비’ 질은 보통 2인 1조로 후진행 완성형[後進行 完成型]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의 마지막은 벙에(표준어 ‘흙덩이’) 잣는 일이었다. 소로 고랑을 만든 후 그 위에 풀을 뒤엎으면 새의 뿌리가 썩어 땅을 비옥하게 하는 과정을 ‘소들린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농사 작업 과정은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따비 질 소리’, ‘마소 ᄆᆞ는 소리’, ‘흙 벙에 부수는 소리(새왓 이기는 소리)’ 등의 노동요가 전승되고 있다.

둘째마당 ‘밧 불리는 소리(파종과 밭매기)’

알드르(숙전)와 웃드르(목산전)의 경우, ‘공중이’(귀뚜라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소서와 하지 절기에 파종한 후 그루 거시림과 섬피 질, 씨앗 뿌리기, 밧 불림 과정을 거친다. 파종 전 두 차례 밭갈이(양밧데기)를 하며, 양밧데기가 끝난 후 나뭇가지를 서로 엉키고 설켜 만든 끌개인 ‘섬피’ 또는 ‘설피’로 소나 말을 이용해 곧바로 섬피 질 끌개 작업을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사람이 직접 끌곤 했다.
다음 단계로 씨앗을 파종한다. 조는 푸석한 뜬 땅에 잘 자라는 곡물이기는 하지만 파종 후 발아가 잘

되도록 잘 밟아주기 위해 마소의 발을 빌려서 밟기를 하는데, 이를 '밭볼림'이라 한다. 한편 파종 후 곳에 따라 2~4차례 김매기를 한다. 첫 김매기를 '초불 검질', '씨 ᄉᆞ끔 검질' 또는 '방골름 검질'이라 했는데, 이는 조 씨앗을 손으로 흩뿌려 놓아 발아가 잘 된 것도 있고, '방'이라 부르는 한 곳으로 치우친 싹도 있어 일정 간격을 맞춰 잘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과정에는 '사데 소리(진 사데소리, 짧은 사데소리)', '밧볼리는 소리', '아웨기', '홍애기', '상사소리' 등의 노동요를 불렀고,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셋째마당 '풍농마당(수확과 탈곡)'

힘든 농사 과정이 끝난 후 제주도 전역 공히 상강 무렵에 수확을 했다. 수확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으며, 연자매가 있기 전에는 도리깨와 마께(방망이)로 탈곡하고, 조짚은 눌을 쌓아 겨울내 우마의 건초 또는 땔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마당질소리', 'ᄆᆞᆯ 방애소리', '고레 ᄀᆞ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조팟발리는소리는 조 농사와 관련한 여러 민요를 엮은 작품으로, 매우 귀한 소리들이 담겨 있다. 제주도의 환경과 농사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단양군수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평안북도 / 평안도다리굿 / 평안도다리굿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단양군수(장려상)
상금 2,000

우리나라는 전국에 망자의 저승천도를 위한 굿이 있으며, 서울의 새남굿, 진오기굿 등과 같은 형태의 지역 사례가 많다. 이중 평안도다리굿은 오래전부터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사령[死靈]굿으로, 망자[亡者]의 한을 강신무[降神巫]를 통해 풀고, 이승의 미련을 떨친 채 저승에 편히 안주하기를 비는 굿이다.

평안도다리굿은 규모가 크고 불교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으로, 평안북도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굿 형태다. 다리굿의 구성은 열 네거리로 되어 있다. 신[神]께 아뢰는 당 울림을 시작으로, 잡귀를 물려 굿청을 정화하는 '주당푸념', 신들을 청해 들이는 '앉은청배', 명[命]을 주는 칠성신과 복을 주는 제석[帝釋]을 모시는 '칠성굿', 잡귀영정을 풀어먹이는 '영정거리', 서낭을 모시는 '기쁨·서낭굿', 재수를 빌어주는 흥겨운 '대감굿'으로 이어진다. 대감굿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망자[亡者]를 위한 굿에 들어가 망자가 무당의 입을 통해 생전에 맺힌 한을 풀어가는 '기밀굿'을 한 다음, 저승사자를 모시는 '사자[使者]굿', 망자의 저승천도를 비는 '다릿발세경'을 하고, 이어지는 뒤풀이에서 굿에 들어온 잡귀를 모두 풀어먹여 보내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다리굿은 살아있을 때 하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해 부유한 집안에서는 나이든 노인을 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산다리굿'이라 칭한다. 다릿발이라고 불리는 기다란 무명을 굿당 밖에 걸어 놓고 굿을 하는데, 이 다릿발은 사자[使者]다리, 망인[亡人]다리, 조상다리, 세천[西天]다리를 뜻하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총 열네 거리로 구성되며,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일곱 자, 일곱 치 길이의 삼베와 무명천(근래에는 소창을 사용함)을 준비해 놓고 대무당이 굿소리를 하면서 다릿발을 오가며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인도한다. 평안도다리굿의 연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장

제관이 제단을 향해 술을 따르고, 향을 꽂고, 촛불을 켜 제를 올린다. 제를 마치면 무녀가 청배무가로 "오늘날이야"를 시작하면 피리와 장구가 "에헤야"로 받으면서 굿을 시작한다. 무녀가 신을 청하는 무가를 진행할 때, 다른 단원은 제단을 꾸미고, 공연준비를 한다. 주무가 무녀가 앞장서고, 나머지 단원들이 입장해서 각자 위치에 선다.

2. 사방문 열기

무녀가 '넋상' 앞으로 가서 긴염불을 시작한다. 피리와 장구가 장단을 맞추고, 점차 잦은염불로 바꾼다. 무녀는 나비 옷으로 갈아입고 넋상 주위를 돌며 법구춤을 추고, 이를 마친 후 세천다리가 있는 곳으로 간다.

3. 배따라기

무녀 세천다리(베)를 가르며 넋두리를 시작한다. 무녀가 넋두리를 마치면 무녀 1인과 또 다른 무녀 1인이 베 사이를 돌며 법구춤을 춘다. 이때 사자가 나타나서 진행을 방해한다.

4. 마무리

무녀가 가른 베를 사려서 사자에게 넘겨주고, 갈 때 쓸 노잣돈도 준다. 이후 무녀가 "지정보살 지정보살" 염불을 외면서 단원들은 퇴장한다.

평안도다리굿은 현재 김남순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평안도의 대표적인 민속문화다. 죽은 자의 넋을 달래고 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적 색채를 띤다. 또한 대표적인 북한 지역 민속문화로서 일찍이 학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인 만큼, 지역 전통과 특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전승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인천광역시 / 인천염전밭갈이놀이 / 인천염전일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단양군수(장려상)
상금 2,000

인천염전밭갈이놀이는 문헌 각사등록[各司謄錄]의 기록을 토대로, 인천 서곶에서 바닷물을 퍼올려 염밭에 넣었다가 염도가 높아진 다음 가마솥에 조려 생산하던 재래식 사염법을 사용한 소금 생산 과정을 민속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드는마당

놀이 깃발을 앞세우고 무든 놀이꾼들이 연모를 메거나 이고 등장한 후, 관중에게 인사하고 농악에 맞춰 한바탕 앞놀이를 한다.

2. 염밭갈이마당

각종 쟁기를 들고 나와 염밭을 간다. 이는 바닷물을 넣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골고루 바닷물이 스며들어 간기가 배도록 밭을 간다.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고, 쇠스랑을 들고 밭을 골고루 편 다음 써레질을 한다. 써레질이 끝나면 아낙들이 호미를 들고 밭을 맨다.

<염밭가리 노래>

어기어차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어기어차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메기꾼이 초창[初唱]을 세 번 연거푸 부른다.)
어기어차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어찌나 하니 일시에 놓고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강경 활에 감돌아 든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박연 하니 띠눈 입구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음) 밭가리 하세 (메김) 홍단 입에 나 돌아든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밭가리 하세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평택 같이 흘러가는 물이라도 밭가리 하세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간데 족족 정들여 놓고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음) 밭가리 하세
(메김) 아까운 청춘 다 늙었구랴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아서라 말어라 괄세를 마소 어기어차 밭가리나 하세 (받음) 밭가리나 하세
(메김) 언제나 또다시 만나서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영 틀렸구 다 틀렸구랴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메김) 아서요 말어요 그리를 말어요 어기어차 밭가리 하세 (받음) 밭가리 하세
(메김) 정류장 같이 떠날까요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받음) 차산에 새로다

3. 물푸기소리

염밭 뒤에 흐르는 바닷물을 쯔레('용탕'이라고도 함) 두레박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 올린다.

<물푸기 노래>

하나요 (하나로구나)
한평생 좋은 세월 어디다가 다 버리구

둘이요 (둘이로구나)

두손이 젓갈이 되도록 소금섬을 부여잡았네

셋이요 (셋이로구나)
섰으나 앉았으나 생각하면 장탄식이요

넷이요 (넷이로구나)
네놈에 꾐이냐 내놈에 우둔이냐

다섯이요 (다섯이로구나)
다소간에 식솔들을 떼어놓구

여섯이요 (여섯이로구나)
염밭에 찾아들어 이 고생이 웬말이냐

일곱이요 (일곱이로구나)
일가친척 보고지고 일가친척 보고지고

여덟이요 (여덟이로구나)
팔팔한 세얼이 반여든이 되었구나

아홉이요 (아홉이로구나)
구만리 같은 우리청춘 허송세월 하지말구

열이요 (열이로구나)
열심히 일을하여 만금쥐고 귀`향하세

4. 자염마당

소금을 만드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묘사한다. 물푸기와 염밭 손질, 그리고 염정[鹽井]에 간기벤 흙과 바닷물을 운반 및 투입한다. 웅덩이에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을 퍼다가 솥에 붓고 불을 때서 소금을 조려 만드는 과정을 연출한다. 소금장수들이 소금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투전놀이를 한다. 소리꾼은 염정에 염꽃을 나를 때 열두 달 상사거리를 부른다. 후창은 없다.

5. 소금내기마당

드디어 소금이 완성될 환희의 순간이다. “소금 낫다”는 소리에 투전을 멈추고 소금장수들이 몰려든다. 염부들의 수불림 소리에 맞춰 소금이 팔리고, 소금 장수가 부르는 애환이 서린 소금 장수의 노래가 흥미로움의 절정에 이른다. 소금을 다 팔면 모두 모여 춤을 추면서 마무리한다.

<소금장수의 노래>

어제장에 천량이요 오늘장에두 천량이요
한달육장 매장해두 수천량씩 재수있소
소금장사 소금장사 간곳마다 짭짤하네
싸게파는 소금이요 인심좋은 소금이요
상감님에 숙수나인 소금없인 다틀리구
사대부집 산해진미 소금없인 속절없소
일년양식 저갈에두 소금없인 다틀려요
오사리육젓 추젓 동백젓, 이름많은 새우젓에
조개젓이며, 어리굴젓 증아젓에 곤쟁이젓
홍합젓이며 꼴두기젓에 황새기젓 밴댕이젓네
창난젓 명란젓이며 소라젓에 갈치젓이

이소금이 없다보면 이세상에 생겼을까
반년봉사 평생양식 건건치는 어떠한가
배추김치 나박지에 석박지며 깍두기요
외소박이 꼬들배기 채김치에 것절이며
동치미는 어떠한가 소금없이 된다든다
장모시겐들 소금없이 집안가풍 이을손가
막된장에 간장이요 고추장에 청국장이요

6. 뒤풀이

오랜 공정 끈에 소금을 생산한 기쁨의 한마당을 펼치며, 화합의 장으로 막을 내린다.

소금 채취 방법을 그대로 재현한 염전밭가는소리는 그 자체로 매우 긴요한 의의를 지닌다. 염전밭가는소리는 소금 생산 방식이 획일화된 공법인 천일 염법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예전 자염법의 성립 과정에서 형성된 소리라는 점에서 염전 노동요로 전통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 허계굿 / 울산전통고유민속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단양군수(장려상)
상금 2,000

허계굿은 운산 남구 장생포에 전하는 전통굿으로, 달리 '일광월광 허계굿'이라고도 하며, 신라시대 서라벌(경주) 신라국 궁전에서 행해 왔던 굿이기도 하다. 동해안에서 불국사, 기림사, 동축사, 오어사, 보경사 등 불교 사찰 전각의 닫집과 야단법석의 대형괘불과 일산、화개、번 등 다양한 장엄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울산의 일광월광 허계굿은 불교의 사상성과 장엄성의 영향을 받은 강신무에 의한 지역굿이라 할 수 있다.

허계굿을 할 때는 마당 한가운데에 10여 미터 높이의 서낭대를 세우고, 오색 천을 서낭대 꼭대기에서부터 땅까지 길게 드리운다. 무녀들이 이 끈을 잡고 둥글게 서는데, 주무녀가 진행하는 일광월광 굿거리 절차에 따라 서낭대를 시계방향으로 돌며 허계굿을 한다. 허계굿에 앞서 고풀이를 하는데, 고풀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의 아닌 죄를 짓어 죽은 영혼이 극락왕생 못하고 무주고흔으로 떠돌고 있으므로, 그 영혼을 서낭대에 일광월광 신을 모셔 열두비단에 고를 푸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허계굿에서는 허계장군 오방색 고를 잡은 선녀들이 춤을 추며 고를 감고 풀기를 반복한다. 허계장군은 그 명칭의 의미를 현재 알기가 어렵고, 신체를 허공에 매달고 하는 것을 볼 때 천신과의 상관성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천신에게 죽은 이의 천도를 비는 굿이나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달래는 신의 굿거리로 보고 있다.

허계굿의 연행에는 무녀 또는 그 소리를 받아서 부르는 염정열, 김방화, 서노미, 변화숙, 추상옥, 김정숙 등이 소리꾼을 담당했으며, 그 외 오색줄을 잡고 고를 묶고 푸는 선녀들이 등장했다. 굿반주 악기로는 꽹과리, 장구, 징, 북, 태평소를 썼으며, 그 외 허계등과 12색 오색줄, 삼층등, 가마배, 제사상, 고풀이 밧침대, 깃발 등을 소품으로 사용했다.

허계굿의 연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거리 '부정굿'
소리꾼이 부정꾼과 소리를 하면 악사들은 장단을 맞추고, 허계대의 일광월광 줄을 잡은 선녀들이 제자리에서 춤을 춘다.

제2거리 '고풀이'
소리꾼들이 앞소리, 뒷소리를 메기면 일광월광대의 줄을 잡은 선녀들이 고를 감고 풀기를 반복한다. 이때 뒷소리로 "메고감고 메고감고"를 할 때는 고를 감고, "풀고풀고 또 풀고"를 할 때는 고를 푸는 방식으로 반복한다. 고풀이를 진행하는 동안, 제관은 일광월관 제사를 지낸다.

제3거리 '허계굿'
소리꾼들이 허계굿 소리를 하면, 고를 잡은 선녀들이 춤을 추며 고를 감고 풀기를 반복한다. 허계굿을 하는 동안 제관들은 허계 제사를 지낸다.

제5거리 '해원풀이'
제를 모두 마치면 띄워두었던 허계, 가마배, 삼층 등을 내려 영혼을 보내는 춤을 춘다. 춤이 끝나면 소품을 모아 불에 태우는 의식을 한다.

보존회에서 제출한 관련 무가를 일부 붙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거리

사바세계 남선부주
경상도로 돌아들어
해원은잡아 신사년이요
일진은잡아 ( )일이요
천하부정 지하부정
수하부정 토목부정
재물에 손재부정
석달열흘 백일부정
영정부정 대부정
해동조선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대동안에
달의월색은 팔월상달
이정성을 드립니다.
원가부정 근가부정
년월일시 사부정
관재시비 걸린부정
흙나라가들던 토신부정
일체소멸 시키소서

(2) 당산거리

태고천지 천황씨에는
쌀나무에는 쌀이열리고
까막까치가 설법하시고
오방세계가 문이열리시고
국은잡아 삼한국이요
천상에계시는 골메기
흑사도포 둘러입고
하늘같은 갓을쓰고
산천마다 골메기당산님
동방에는 청제당산님
서방에는 백제당산님
중앙에는 황제당산님
해도둘이요 달도둘이요
밥나무에는 밥이열리시고
나무들이 왕래하고
오구제석 천왕문열리시고
도는잡아 십삼도라
당산성황님도 내림하시고
송앙갓 내리쓰고
지하에도 내림한다고
마을마다 골메기당산님
남방에는 적제당산님
북방에는 흑제당산님
이축원을 드립니다.

(3) 산신거리

팔도명산 산신님네
낮은산은 소산이요
낮은산은 명기주고
황해도 구월산산신님
강원도 금강산산신님
경기도 삼각산산신님
경상도 태백산산신님
제주도 한라산산신님
오봉산 산신님네요
문수산 산신님네요
높은산은 대산이요
높은산은 정기주고
함경도 백두산산신님
평안도 묘향산산신님
강원도 설악산산신님
충청도 계룡산산신님
전라도 지리산산신님
울산광역시 무룡산산신님
가지산 산신님네요
이 축원을 드립니다

(4) 용왕거리

천상에는 은하수용왕
부용수 황금용왕님네요
사해바다 용왕님
청용황용 놀던 용왕님
오색무지개 다리놓던용왕님
모진풍랑 막아주신용왕님
지하에는 황하수용왕
금천용왕님 단수강용왕님
동해바다 용왕님
수륙천리 다니던용왕님
육로도천리요 수륙도천리라
모든만사형통 소원빌어 주십시오

허계굿은 특정 지역에서 무주고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의식이다. 그 형식과 내용이 불교 또는 오구굿 등 여러 종교와 관련한다는 점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전통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온전한 하나의 굿인지, 아니면 특정 굿거리에 관련한 부분만 재구성한 것인지는

검증을 해야 한다. 보존회가 정리한 무가 사설에는 일광월광에 관한 내용이 3절까지 있는데, 울산문화원연합회에서 해당 종목을 발굴했으므로, 지역문화로서 온전하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함경북도 / 백두산선녀춤 / 함북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단양군수(장려상)
상금 2,000

백두산선녀춤은 일제강점기 명고수 겸 전통무용가 고 한성준(1874~1942)이 함북지역 민속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춤으로,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이어 다시 출전한 것이다.

1. 길놀이(입장과 정렬)

2. 백두산 서낭당 축조와 신령님 모시기

아낙네들과 동네 사람들이 백두산자락의 서낭당에 돌을 올려 쌓는 일을 시작한다. 끝으로 연회를 주관하는 대표가 고을의 원님에게 마지막 돌을 건네면서 제단 중수를 끝맺음한다. 서낭당 제단 앞에 단군님과 백두산 신령님과 선녀님, 조상님을 모시는 의식을 치르며, 원님과 양반 주도 하에 동네 사람들이 절을 한다.

3. 백두산선녀춤

마을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절을 하고 양옆에 부채꼴로 도열하면 하늘에서 백두산으로 내려오듯 선녀들이 등장해 도열하고, 악사들의 반주에 맞춰 선녀춤을 춘다.

(20) 선녀들이 입장해 세 곳에 일렬로 선다.
(21) 음악이 나오면 세 원으로 움직이며 돈다. 부채를 안으로 바깥으로 흔든다.
(22) 다시 세 원이 세 줄로 서서 제자리에서 돌면서 어른다.
(23) 세 줄마다 각각 2열이 되어 마주 보고 서서 서로 교차한다.
(24) 세 줄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되돌아온다.
(25) 세 줄이 각기 원을 만들어 안쪽을 향해 앉으며 춤춘다.
(26) 앉은 채 돌아서 객석을 보고 비스듬히 춤춘다.
(27) 반대 방향으로 비끼면서 춤춘다.
(28) 천천히 일어난다.
(29) 원으로 돈다.
(30) 세 원을 세 개의 'V' 모양으로 만든다.
(31) 서서히 각기 두 줄을 만들어 마주 본다.
(32) 두 줄이 각기 마주 보고 엇갈리기를 한다.
(33) 풀면서 다시 세 원을 만든다.
(34) 돌면서 다시 세 줄을 만든다.
(35) 제자리에서 어른다.
(36) 둘씩 어깨를 대고 돈다.
(37) 제자리에서 큰 원을 만든다.
(38) 풀면서 일렬로 퇴장한다.

4. 뒤풀이춤

아낙네들과 양반들까지 동참해 영산인 백두산이 있는 함경도 내 고장이 제일 좋다고 하며 즐겁게 허튼춤을 추고 인사를 하며 퇴장한다.

백두산선녀춤은 이번 대회에서 단양군수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경상남도 / 의암별제 /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의암별제는 논개사적비로 역사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논개의 사적은 임진왜란 직후 유몽인의『어우야담』에 기록된 바 있으나, 공식 사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주에서 논개를 기리는 것은 진주 백성들의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논개가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자 진주 백성들이 지속해서 관에 그 행적에 대한 포상을 요청한 것이다. 1722년(경종)에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의암'으로, 논개의 제사를 지내던 논개사를 '의기사'라 이름 붙이고, 강 위 언덕에 비를 세워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이후 1868년에 사당을 중수하고, 기녀들로만 치르는 풍류제례인 '의암별제'를 창설했다. 첫 제례를 베푼 무진년만 해도 기녀 3백여 명이 모여 악·가·무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성대한 의식을 치렀고, 사흘간 벌인 여흥 잔치 역시 가히 장관이었다고 전한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절된 '의암별제'가 1992년에 복원되면서 풍류 제례이자 여성이 주축이 된 대동 축제로 발전했다.

의암별제는 진설찬어촉석루상, 채화삽어 각기상, 헌관이하 개성복 루하대립, 영신례[迎神禮], 상향례[上香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사신례[辭神禮], 여흥가무[餘興歌舞] 순으로 진행한다.

의암별제 진행을 위해 유영희, 양지선 등이 소리를 맡았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장구, 좌고 등의 악기로 반주했다.

의암별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장

제관이 등장해 알자가 신주를 받들고 대축과 함께 신 위앞에 나아가 신주를 대축에게 건네주면, 대축은 그것을 받아 교의에 안치한다. 조촉이 양쪽으로 갈라선 다음, 알자 대축은 내려와서 제 집사 석에 선다. 삼헌관은 헌관석에, 악장은 당상악관을 인솔하고 당하악관은 휘수의 인솔 하에 자기 자리로 들어선다. 제집사는 두 줄로 자기 자리에 서고, 무관은 일무석에 나가 선다.

陳設饌於 矗石樓上	제찬을 갖춰 촉석루에 차려놓는다
彩花插 各器上	채화를 제수 위에 꽂아 장식한다
獻官以下 皆成服 樓下待立	헌관 이하 제집사가 예복을 갖추고 촉석루 아래 대기해 선다
行迎神禮	영신악을 연주하고 영신례를 행한다

2. 제례

독을 열고, 촛불을 켜고, 상보를 걷고, 봉향·봉로는 향을 피운다. 신을 맞이하는 예와, 향을 올리는 예를 행하며,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때 논개를 상징하는 의암부인의 영혼을 보내는 예를 행한다.

行上香禮	삼상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린다
行初獻禮	초헌관이 초현악에 맞춰 초헌례를 올린다
行亞獻禮	아헌관이 아헌악에 맞춰 아헌례를 올린다
行終獻禮	종헌관이 종헌악에 맞춰 종헌례를 올린다

3. 헌무 및 퇴장

行辭神禮	의암별곡과 별무에 맞춰 내빈분향 및 음복례와 망요례를 행한다

餘興歌舞　　제찬을 물리고 여흥가무를가 펼치며 헌무는 진주검무로 한다

의암별제는 역사적 근원이 분명한 지역 고유의 제례다. 지역에서 이를 제례로서 전승한 것은 물론, 여성을 주축으로 성대한 풍류제례인 대동축제 한마당으로 이어왔다. 지역 공동체가 지역성을 지키면서 유지해 온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논개를 통해 민족 충혼을 기리는 전통을 지키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대전광역시 / 방아미아들바우방생축원놀이 / 대전중구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방아미아들바우방생축원놀이'는 방생재와 같이 행한다. 아들바위에서 아들 점지를 빌고, 왼손으로 아들 바위 틈 사이에 돌을 던지며, 물가에서 방생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곳 방생재는 일곱 가지 방생의 공덕 중 주로 '자식 없는 사람이 방생을 하면 산모가 보호받고 순산하게 된다'는 것에 믿음을 두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다.

1. 아들바위 치성

섣달 그믐달 밤, 공씨 부부가 동네 아낙들과 함께 아들바위에 올라가 아들을 얻기 위한 치성을, 자식이 있는 아낙들은 자식의 건강과 행운을 비는 치성을 드린다. 제관들을 앞세우고 마을기를 든 기수들과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돌고, 제상을 준비해 산제를 지내러 간다.

2. 디딜방아 액맥이

디딜방아 두 대 정도에 방아를 찧고, 마을 사람들이 액막이 풀이를 한다. 마을에 액운이 있을 때 다른 마을 디딜방아를 훔쳐 와 액귀를 몰아내는 제형. 따라서 마을의 돌림병이나 홍역이 돌면 이웃 마을 디딜방아를 훔쳐 와 액맥이 놀이를 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켰다. 훔쳐온 디딜방아를 상여에 올려 상여소리를 하면서 마을로 이동한다. 마을 사람들이 디딜방아를 맞이하고, 디딜방아를 돌며 액막이 놀이를 한다. 액막이 끝난 후 마을 어귀에 방아를 세워 놓는다.

3. 보막이

보를 만들기 위한 기구를 가지고 풍물패와 마을 사람들이 이동해 목도 소리에 맞춰 보를 쌓는다. 보를 막음으로써 마을의 안녕과 한 해 풍년을 기원하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들임으로써 가족의 건강과 부모에 대한 공덕을 기린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연장을 들고 보막이 장소로 노래를 부르며 이동한다. 보막이를 시작한다.

4. 방생 - 수륙재

스님의 범패소리에 마을 사람들과 아낙들은 보위와 불가에서 방생을 하고, 아들바위에서 왼손으로 돌을 던져 아들 낳기를 기원했다. 조상의 천도를 빌고,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기 위해 아들바위에 기원하는 수륙제와 방생을 하는 토속신앙이 전해져 오고 있다. 아들바위에 돌을 던져 아들을 점지해 달라는 치성도 전해진다.

스님이 범패를 시작한다. 자손이 급한 공씨 부부가 마을 대표로 방생을 하고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방생을 한다. 방생을 한 공씨 부부는 아들바위에 치성을 드리고 돌을 던진다. 이어서 마을 사람들도 방생을 한 후 아들바위에 치성을 드리고 돌을 던지며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이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축제마당으로 마무리한다.

방아미아들바우방생축원놀이는 조상의 혼을 흠모하고 기리는 유교사상, 산 물고기를 살려주는 적극적 선행을 통해 방생 공덕을 쌓는 불교사상, 아들바위에 기도를 올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통 토속신앙이 병합된 독특한 형식을 띠는 점이 특별하다.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4.10.02~10.05,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1. 개괄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출범한 국가 규모의 민속축제로, 1994년부터는 청소년의 민속예술 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개최해오고 있다. 축제(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400여 종이 넘는 민속을 발굴했고, 그중 130여 종 이상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총 54회를 치른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사라져가는 전국의 민속예술을 발굴·복원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예술축제다.

제1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쳐 서구문물이 유입되는 중에 민족문화의 보존, 전승 및 고양을 목표로 하는 경연대회 방식으로 출발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개최된 제1회와 제2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 '하회별신굿'과 '봉산탈춤'은 전국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힘입은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해 오늘날에 이른다.

이 축제를 통해 지난 54년간 총 487여 개 민속을 발굴했는데, 특히 사물놀이의 대중화를 이끌어 낸 김덕수 등 수많은 민속예술인이 이 축제 출신이며,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등 일부 작품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민족예술로 발돋움하는 크나큰 결실을 거두었다.

제55회 민속예술축제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에서 열렸다. 특히 울산시 달천광산의 철제련 작업 중에 불린 노동요 '울산달내쇠부리놀이'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충청남도 '웅소성리 호상놀이', 강원도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 등 자칫 사라질 수도 있던 우리의 소리를 재현한 작품이 다수 참가해 뜻깊은 경연을 펼쳤다.

다양한 특별공연과 행사도 함께 했다. 밤에 열린 행사 '막걸리와 민속' 외에도 경연 중간 초청공연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와 전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 대상 수상작인 평안남도 '향두계놀이 등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전통 장터를 재현한 부대행사를 마련, 민속장터 체험마당과 전통 먹거리 마당, 장터에서 볼 수 있던 민속공연 등을 펼쳤다.

아리랑의 고향 정선에서 펼친 제55회 한국민숙예술축제는 우리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전국 각지의 민속예술인이 참가해 훌륭한 문화유산을 배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또한 지름 50m의 대형경연장을 지름 30m의 전통경연장으로 축소해 대형화를 막고, 경연 현장과 객석 간격을 줄여 교감을 배가했다. 뿐만 아니라 경연 시간을 30분으로 줄여 출품작의 눈대목과 주요 장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제55회 경연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20개 팀으로, 경상남도 '남해오십집들이굿놀음'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보존회), 인천광역시 '방죽맥이' (인천토속민요놀이보존회), 충청북도 '전래동요와 남한강뱃소리' (단양소리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 '날외소금줄래기' (대정읍민속보존회), 평안남도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대구광역시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회원읍 설화리 노인회), 경상북도 '이서들소리' (이서들소리보존회), 광주광역시 '월계동상여소리'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 함경남도 '돈돌날이' (함경남도북청민속예술보존회), 평안북도 '영변성황대제' (평안북도영변성황대제보존회), 전라남도 '영광홍농들노래'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 강원도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 (봉평전통민속보존회), 대전광역시 '계족산무제' (대덕문화원), 전라북도 '임실두레놀이' (임실두레놀이전승회), 함경북도 '두만강뗏목놀이소리'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부산광역시 '부산농악'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회), 울산광역시 '울산달내쇠부리놀이' (울산달내쇠부리놀이보존회), 충청남도 '웅소성리 호상놀이' (웅소성리상여소리보존회), 경기도 '평택와야

골거북놀이' (평택거북놀이보존회), 황해도 '최영당군당굿 작두거리' (최영장군당굿보존회) 등이다.

2. 참가 종목

● 충청남도 / 웅소성리호상놀이 / 웅소성리상여소리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20,000

백제시대에 축성된 토성인 '웅소성'에서 그 지명이 유래한 충청남도 논산시 혜미면 웅소성리에는 예로부터 상여소리가 전해내려오는데, '웅소성리호상놀이'는 마을의 전통 상례를 반영해 놀이 형태로 탈바꿈한 경연작이다. 상가의 상례 절차와 출상 이후 운구 장면을 중심으로 놀이를 전개했다. 운구 장면에서 지역에 전승하는 상여소리를 주요하게 구연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상여소리는 선소리꾼과 상여꾼이 주고받는 선후창 형식이며, 선소리꾼은 망자 입장에서 사설을 구성한다. 초반은 늙어 가는 것에 대한 회한과 회춘의 바람, 중반은 치유 시도와 실패, 후반에는 죽음 이후 후회 말고 젊었을 적에 덕을 닦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웅소성리호상놀이의 출상 의식은 대떨이, 출상, 하직인사, 발인제, 노제, 징검다리 건너기, 외나무다리 건너기, 언덕오르기 순으로 진행한다. 출상할 때의 장례 행렬은 명정, 만장, 지전, 공포, 요여, 운아 상여, 복인, 조객 순으로 한다.

대떨이는 출상 전날 저녁에 상여꾼들이 상가(호상을 당하거나 여유가 있는 집)에 모여 빈 상여를 메고 소리와 발을도 맞춰 보면서 놀이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죽은 사람의 사위나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를 상여에 태우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마을을 도는데, 고인의 친구나 친척을 찾아가 작별인사를 한다.

발인제는 발인 준비가 모두 끝나면 축관이 발인을 읽으면서 시작한다. 요령잡이가 요령을 흔들어 상여를 메도록 상여꾼을 불러모으고, 상여를 멘 상여꾼이 앉아서 출발소리로 "우여 우여 우여"를 두 번 반복한 뒤 일어선다. 상주, 안상주, 딸 등이 고인에게 마지막 하직인사를 드리며 상여는 출발해 대문을 나선다.

출상 이후에는 하직인사와 노제를 진행한다. 동구 밖에 이르면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노자를 걸어주며 정을 표하기도 하고, 마을 노인들은 아쉬움을 달래는 춤을 추며 하직인사를 한다. 노제는 미처 조문을 못한 조객의 인사를 받고, 고인을 위해 마지막으로 음식을 마련해 마지막 제사를 올린다. 이 틈에 상여꾼들은 먼 길을 가는 도중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 노제가 끝나고 다시 운구를 시작하면 한동안 요령만 흔들고 상여소리를 하지 않는다. 잠깐의 정적으로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후 징검다리, 외나무다리 건너기, 언덕오르기 등 본격적인 운구 장면이 이어진다. 상여가 징검다리, 외나무다리 앞에 오면 상주와 사위 등 복인은 돈을 걸고, 상여꾼에게 절을 하며, 무사히 건너 주기를 부탁한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 상여꾼들은 발이 물에 빠지지 않게 한발 한발 소리에 맞춰 건너간다. 좁은 외나무다리에서는 서로 마주 보고 발을 한 데 모아 상여를 받치고 이동한다. 이때 선소리꾼은 선소리로 발을 맞춰 건너갈 수 있게 돕는다. 가파른 산이나 언덕을 오를 때는 고인을 편히 모시기 위해 앞쪽 상여꾼이 상여를 어깨에서 내리고, 뒷사람은 연초대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수평을 맞춘 후 운구한다.

전형적인 상례 절차를 놀이 형태로 훌륭하게 탈바꿈했다. 실제 상례를 잘 반영했고, 전통 상여소리의 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무대용으로 구성했지만, 전통적인 면모가 잘 드러났다. 특히 선소리꾼과 상여꾼이 조화를 잘 이뤄 운구 장면을 훌륭히 재현했고, 선소리꾼의 소리도 탁월해 예술성을 한껏 높였다.

상가에서 시작해 출상과 운구의 과정을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조화롭게 연출해 공연작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 또한 상주, 선소리꾼, 상여꾼이 각자의 몫을 적절히 수행해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었다.





● 경상북도 / 이서들소리 / 이서들소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국무총리(최우수상)
상금 15,000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전승하는 농업노동요를 '이서들소리'라 한다. 이서들소리는 나무꾼 신세타령인 어사용, 땅을 다지는 망깨소리. 보리타작소리, 논농사에 부르는 모찌는소리와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방아찧는소리, 그리고 칭칭이소리 순으로 진행한다.

연행 과정은 총 여덟 개 과장으로 구성된다.

1. 입장

2. 나무꾼 신세타령

<어사용>
구여구여 갈마구여 지리산 천 갈마구야
들어보소 들어보소 이내 한 말씀 들어보소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잘 먹고 잘사는데
이내 팔자 무슨 죄로 나무꾼 신세로 늙어갈꼬
애달프고 가련하다 이내 신세는 가련허다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말라 불이 되니
어매어매 울어매야 이히이이
뭣할라고 나를 낳아 이 고생을 시기는고
놈 날적에 나도 나고 내날 적에 놈 낳건만
이내 팔자 무슨 죄로 나뭇꾼 신세가 늙어갈꼬
나무짝도 짝이 있고 버선짝도 짝이 있고 짚신짝도 짝있는 데
짝이 없는 이내 팔자 어느 곳에 짝을 찾을꼬
후~ 후~

3. 망깨소리
원형 망께는 여덟 명이 천천히 돌며 땅을 다지고, 개인 망께는 앞뒤로 돌아가며 땅을 다진다.

<망깨소리>
어이여러차아
어이여러차아
천근 망깨는 공중에 돌고
열두자 말고 흙은 땅밑에 돈다
키작은 양반은 앞에 스고
키 큰 양반은 뒤에 스소
망깨를 높이 들고
도시만 고루 꺽어주오
고루고루 다져주소
물밑에 용왕님네
농사짓게 비내리주소

이못둑이 터질랑게
여기저기 살펴주소
구망끼소리 그만하고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부모님 섬길라네
망깨소리 이만하고

4. 보리타작

<옹헤야>

(받는소리) 옹헤야
(메기는소리) 어절씨구
잘도 한다
잘도 해요
이보리가
깨구리 보린가
폴짝폴짝
잘도 뛴다
이보리가
쥐새낀가
보리집 속으로
살살 긴다
이보리가
양반 보린가
수염도 길고
수염도 길다
이보리가
황금보린가
옹글기도
옹글구나
옹헤야
옹헤야
여보시오
일꾼들아
앞산 넘어
비들어 온다
얼른얼른
뛰드려 패고
뛰드려 패라

(받는소리) 때리고
(메기는소리) 때리고
때리고
요놈도
때리고

저넘도
때리고
요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라
때리고
때리라
얼씨구
잘한다
(받는소리) 옹헤야
(메기는소리) 보리타작
이 과정이
듣기보다
더디구나
사람잡네
사람잡어
보리타작
하다가는
사람 죽네
사람 죽어
얼렁얼른
뚜드려패고
뚜드려패라
(받는소리) 때리라
(메기는소리) 여놈도
때리고
저놈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라
때리고
때리라
잘한다
얼씨구
이럭저럭
하다보니
보리타작
다했구나
모내기를
하러가자

5. 모찌기와 모내기

<모찌는소리>
조루자 조루자 이모구 자리를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이모구 자리를 조루자
시집살이 어렵구나 앞집뒷집 개도짓네
골목골목 사람소리 모찌기하러 나온구나
이서 천지 넓은 들에 이모춤이 시집가네
어매어매 울어매야 나는 언제 시집가노

<모심는소리>
물꼬야 점점점 다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로갔노
문에야 대전복 손에 들고 00집에 놀러갔지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 커서 열매 열래
이달 크고 훗달 커서 칠팔월에 열매열지
서울이라 남정자에 점심잔이 늦어가네
찹쌀 닷말 밉쌀 닷말 이고 가니 늦었구야
능청 능청 저비리 끝에 무정 하다 울오랍아
나도 죽어 후생가서 낭군 님을 섬길래라
오늘 해는 다 저무는가 골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야 부모님 어디가고 연기난줄 모르는고
초롱야 초롱아 양사초롱 임에 방에 불밝혀라
임도 주고 나도 누워 초롱불은 누가 끌고

6. 논매기

<논매는소리>
에히여루 오홍헤야
오홍소리 잘도 한다
논을 매는 농부님들
이내 한 말씀 들어보소
이 논배미 논을 매어
천석 만석 쏟아지소
잘도 매고 잘도 맨다
우리네 일꾼들 잘도나 한다
얼른 매고 바삐 매자
일락 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 동령에 달이 뜬다
이 논배미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넘어가자

7. 방아 찧기

<방아타령>
오 오호 방아야
오 오호 방아야

이방아가 어드메뇨
혼자 찍는 녹두방아
경상도라 디딜방아
나락도 찧고 보리도 찧고
삼천석을 이뤄내니
백옥같은 은미로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봉양드릴 은미로다
연찬 방아로 돌려주오
방아 찧다가 도망갈라
저기 가는 저 아저씨
디딜방아를 밟아주소
우리 문을 엿들어보니
각씨란 년이 도망을 갔네
고추 땡추가 맵다해도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8. 칭칭나네 놀이

<칭칭이소리>
칭이나 칭칭나네
노세 노자 젊어 놀아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
시월아 니월아 가지를 마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늙는다
새끼 백발은 쓸 곳이 있고
인간 백발은 쓸 곳이 없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 삼월 봄이 오면
그 꽃 다시 피련마는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더 젊은 시절에 놀고 놀자

이서들소리는 경상북도의 대표 민요인 어사용과 옹헤야, 칭칭이소리, 모노래, 자진모노래를 포함한 작품이다. 특히 고로의 남녀 소리꾼들이 참여해 깊은 맛의 옛 소리를 부르면서 큰 감동을 안겼다. 이서들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날외 소금 졸래기 / 대정읍민속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날외'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와 동일리의 옛 지명으로, '햇볕이 많이 들어 열매가 잘 영그는 지역'이란 설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50년대까지 전통 제염법을 사용했는데, 일광으로 해수의 수분을 뺀 다음 재가열해 농도 짙은 소금으로 만들고, 맑은 날 햇볕에 말려 짚으로 짠 용기(맥망탱이)에 퍼 담았다가 내다 파는 방식이었다. 노동요의 가사 내용으로 보아 소금이 환금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노래 대목과 사설, 대사에서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날외 제염은 총 다섯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래사장에 바닷물을 뿌려 증발시키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 염도가 짙어지면 모래를 모아 정제 과정을 거치고 불을 지펴 소금을 만든다.

1. 입장, 소금밥안들기

모래를 운반하고, 땅을 고르며, 모래를 다져 골고루 편다.

(받는소리)　이야홍
(메기는소리)　허어으어어 홍아기소리로 고낭
멀고 먼 헤이어 남쪽나라 제주나라에서 강원도 볼레왔수다 오호호오야
제주명산 한라산 강원도 명산 설악산 오대산이 만나는 누물이요 에헤이오호오나
역꾼님네는 힘을 합하여 일심동력으로 에헤이 소금을 만들어
강원도에서 팔고 갑시다 오호오호 호오오오나
부지런이 일을 하야 헤 헤이 이이 제주 명품 소금을 만들어 봅시다 옹호오호오오야
어그두 여차하 어허어엉 잘매가자 허

2. 해수뿌리기

바닷물을 허벅으로 운반해 모래밭 옆 물동에 채운다. 골고루 물을 뿌리고 당그네(밀레)로 편다.

3. 소금모으기

소금을 염전에 모은다. 우천 시에는 노람지(이엉)을 준비한다.

(받는소리)　어기여차 저여차 소금밭가자
(메기는소리)　쿵쿵 치는 북소리는
천지가 진동하도록 내다치소
금강산도 허리굽어 보게
넘도 허리도 굽어 본다
백두산도 허리굽어 본다
백두산이 높다고 하지만
요내 말 보다 높을 소냐
어기두 여차 소금밭 가게
우리 어멍 나를 날적에
무슨 날에 나를 나서
요런 고생을 하여놉 수과
쿵쿵 치는 북소리는
역꾼님네 힘을 돋구와주고

자로시던 우리 부모
좋은 날에 나를 났으면
요런 고생이 또 있을까 하
넓고 넓은 저바당 몰은
마를 날이 있을손가
부지런히 일을 하여
명품 좋은 제주소금
이 소금 팔면은 금이 날까
저 소금 팔면은 금이 날까
금도 나고 옥도 난다
어여차 어여차 소금밭 가게

4. 시술통에 정제하기

소금을 시술통에 모은다.

5. 소금만들기

시술통에 붙을 지피고 절판에 불을 때 소금을 정제한다. 소금이 완성되면 출하하고, 한바탕 석살림굿을 펼친다.

<서우젯소리>

(받는소리) 아 하아아양 에헤에헤에용
(메기는소리) 아하아 서우젯소리가 넘고난다
칠성판을 등에 지고 혼질두질 깊은 물속에
시퍼랑 한 저바다를 건너야 가실적에
어느야 누구가 나를 도와나 주실거나

제주도의 제염 작업을 재현하고 관련 노래를 엮어 출품했다. 강원도에 올라온 제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즉석에서 가사로 만들어 부른 선소리꾼의 능력이 돋보였다. 제주도의 날외 소금 줄래기는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부산광역시 / 부산농악 / 부산구덕민속예술민속예술보존협회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부산농악(옛 '아미농악')은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음력 정초에 가가호호 돌아가면서 며 농악을 치고 고사를 지내는 '지신밟기'가 지역으로 확대된 형태의 걸립농악이다. 초기 아미농악단의 주된 활동은 음력 정월 초사흘 아미동을 시작으로 음력 6월 포항 구룡포까지 부산 일대를 거쳐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긴 여정의 걸립이었다고 한다.

'아미농악'은 1958년 개최된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각종 농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상을 휩쓸었다. 특히 1977년에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농악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1980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면서 명칭이 아미농악에서 '부산농악'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신밟기 중심이었던 아미농악의 연희 구조가 판굿의 놀음놀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부산농악은 부산농악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며, 지신밟기는 부산농악과는 별도로 2011년 '고분도리 걸립'으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부산농악은 강인함과 부드러운 춤이 가미된 경상도의 지방 특색을 잘 나타내는 농악으로, 춤사위가 다양하고 덧배기 장단이 다수 삽입되어 있다. 또한 상쇠놀이 상모와 벅구놀이, 설장구 기능이 뛰어나며, 특히 북놀이는 춤사위와 북가락의 기교가 일품이다. 전체 12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모듬굿
흩어진 농악단원들을 집합하기 위해 상쇠가 단마치를 울리면 전원이 모인다.

2. 길굿
행진굿인 길군악을 치면서 판굿 마당으로 나간다.

3. 맞춤굿
삼채가락과 구채가락을 치며, 상쇠의 신호에 원진과 역원진을 돈다.

4. 마당굿
상쇠의 신호에 맞춰 늦은 춤장단으로 노는 상모꾼들의 웃장놀음이 일품이다.

5. 문굿
영기를 교차해 세우고, 남의 집 문을 들어서면서 집주인을 부르는 문굿을 친다.

6. 오방진굿
동·서·남·북·중앙을 돌며 오방의 잡귀를 몰아낸다.

7. 호호굿
치배들이 갈 지(之)자로 뛰면서 원진으로 돌며 호호굿을 친다.

8. 우물굿
치배들이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고르면서 쉬는 마당이다.

9. 영산다드래기

농사풀이마당을 하기 전 영산다드래기로 휘몰아쳐 이전 판굿을 마무리한다.

10. 농사풀이

버꾸잽이들이 일년 농사 과정을 모의 동작으로 그려내는 마당이다. 씨뿌리기, 모찌기, 모심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하기, 탈곡하기, 볏섬쌓기 등을 차례로 연희한다.

11. 풍년굿

느린 덧뵈기가락에 맞춰 춤을 추며, 농사일을 마치고 풍년이 든 기쁨을 표현한다.

12. 개인놀이

상쇠놀이, 대북놀이, 소고놀이, 장고놀이, 12발상모로 대미를 장식한다.

부산농악은 개방과 혼용에 근간을 둔 근현대 부산 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부산농악은 경상도를 비롯한 각 지역 전문 풍물 연희자들이 전승 주체가 되어 부산 지역 가락과 연희에 각 지역 뜬쇠들의 가락과 연희가 어우러지면서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그리하여 다른 경상도 지역 농악에 비해 느린 4박 굿거리장단이 많고, 치배들의 춤사위가 다채로우며, 농사일을 모의하는 놀이인 농사풀이가 있다. 또한 북춤과 들버꾸춤, 상모돌리기 등 연희자들의 기예가 뛰어나고, 개인놀이가 발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강원도 /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 / 봉평전통민속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다. 강원도 평창시 봉평에서는 실제 밭농사나 화전 부데기를 통해한 메밀 농경이 흔히 이뤄졌다. 메밀 추수 시기가 되면 도리깨를 이용해 낟알을 떨어냈는데, 혼자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도리깨질을 하며 함께 소리를 했다. 이렇게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는 마을에서 공동 노동을 하는 모습을 재현한 경연작이다.

이 놀이는 보통 타령장단이나 북장단에 맞춰서 진행한다. 봉평메밀도리깨질에는 후려치기, 엇치기, 양손치기, 혼자치기, 둘이치기, 돌려치기, 나란히치기 등이 있다. 경연은 태치기, 도리깨질, 건부재기날리기, 두벌 도리깨질, 풍년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태치기는 '초벌치기' 또는 '아이치기'라고도 한다. 도리깨 없이 메밀 다발을 탯돌에 터는 행위를 말하며, 태치기 소리를 하면서 박차에 맞춰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

메밀 태치기가 끝나면 남은 나락을 털기 위해 도리깨질을 한다. 마당에 메밀을 늘여놓고 후려치기, 엇치기, 양손치기, 혼자치기, 둘이치기, 돌려치기, 나란히치기 등을 한다. 이때 도리깨질소리를 하는데, 목도리깨꾼이 도리깨를 들고 선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종도리깨꾼 전체가 후렴을 받는다. 도리깨질소리는 목도리깨꾼과 종도리깨군의 노동 동작을 박자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흥을 돋워 지겨움을 덜고 힘을 내도록 한다.

건부재기날리기는 태치기와 도리깨질 다후 메밀 나락에 섞인 검불이나 잡티를 날리는 행위를 이른다. 키로 바람을 일으켜 건부재기를 날리기도 한다, 또 왕골자리를 접어 나비가 나래짓을 하는 것처럼 바람을 키기도 해 '나부질'이라고도 한다.

도리깨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아있는 나락을 다시 한 번 털어내기 위해 두벌 도리깨질을 한다. 나락 한 톨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 반복해서 도리깨질을 하는 것이다. 두벌도리깨질까지 마치면 메밀 알곡 수확을 기뻐하며 모두가 어우러져 풍물을 치고, 도리깨를 들고 춤을 추면서 풍년놀이를 한다.

강원도 평창의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는 지역 특성을 잘 표현한 경연작이다. 봉평의 메밀 농작을 토대로 도리깨질의 형태와 소리를 실감 나게 그렸다. 마당이라는 노동 장소의 특성은 물론과 노동 도구인 도리깨 사용을 공연 안에서 잘 표현했으며, 특히 목도리깨꾼과 종도리깨꾼의 행위를 통해 타작하는 노동과 노래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볼 수 있었다. '박자'로 공동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도 잘 나타냈다. 후려치기, 엇치기, 양손치기, 혼자치기, 둘이치기, 돌려치기, 나란히치기 등 다양한 도리깨질 행위를 보여준 점에서도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전라남도 / 영광홍농들노래 /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

종목 민요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7,000

영광홍농들노래는 영광 홍농읍 마을에서 농사 때 부르던 논농사소리를 엮은 것이다. 이 지역은 공동작업인 두레가 성행했고, 두레꾼 농부들이 즐겨 부르던 지역 고유의 농요가 여럿 전해오고 있다. 홍농들노래는 모심는소리, 돈두렁밟는소리, 논매는소리와 오임쌓는소리, 장원질 노래 등으로 구성된다.

1. 모심기

<모심는소리>

(받는소리) 에헤에에루 사뒤요
(메기는소리) 어라 농부님네 이내 말 듣소
어라 농부님네 이내 말 들어
한 일자로 들어서서
한 포기 두 포기 모를 심세
어우러 진다 어울러지네
상사소리가 어울러지네
시절이로세 시절이로세
우리 농부님네 시절이로구나
다 되어 간다 다 되어가네
서마지기 논배미가 다 되어가네
노자 좋구나 젊어서 놀고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에헤에에루 사뒤요

2. 논두렁밟기

<논두렁밟는소리>

(받는소리) 어야
(메기는소리) 어기장 아기장 어허야
뒤뚱뒤뚱
잘도 나가네
너도 나도
밟아보세
먼저 밟고
돌아갈 때
야금야금
밟아 보세
일심동력
한심써서
너도 나도
밟아보세
어야

일락서산
해지기전에
빨리빨리
밟고가세
어야

3. 김매기

<초벌매는소리 - 긴소리>
(받는소리) 오호 마뒤요
(메기는소리) 어어허 어허어허어 어어어허 어 세사는 금삼척이요
(받는소리) 어 그렇제!
(메기는소리생애는 주일배를
(받는소리) 우르르르르
(메기는소리서정 강상월이요 동각 설중매 다리고 완월장치 놀고 가세
(받는소리) 어 그렇제!
(메기는소리오오오 허어허 오오 놀고가세
(받는소리) 세화 아아 오호 오호오야아 오오오 마뒤요
(메기는소리어어허 어허어허어 어어어허 어
불갑산 연실봉에 연실따는 저 큰아가
연실일랑 내 따줄것이니 내 품안에 잠드소서
(받는소리) 어 그렇제!
(메기는소리오호 허어허 오오 잠드소서
(받는소리) 세화 아아 오호 오호오야아 오오오 마뒤요
(메기는소리어어허 어허어허어 어어어허 어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오늘이 장 만경손과 간다네 간다네 정든님 따라 나도 간다네
(받는소리) 어 그렇제!
(메기는소리오호 허어허 나도 간다네
(받는소리) 새화 아아 오호 오호오야아 오오오 마뒤요

<두벌매는소리 - 절싸소리>
아 절싸 절싸 하 절싸 절싸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들마소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허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니꽃진다고 서러마소
오동 복판 거문고는 줄만 골라도 소리가 난다
제비는 적어도 강남을 가고 참새는 적어도 알을 낳네
다되어 가네 다되어 가네 이참 골새가 다되어가네
아 절싸 절싸 아 절싸 절싸

<만드리>

<긴소리>
(받는소리)　　제화아 하아 허어어어허 어어아 야하 오호오 마뒤요

(메기는소리) 오호오호오오 어어허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 마라
장안 호걸이 다 늙는다
(받는소리) 어 그렇제!
(메기는소리) 오호오 허어어 어어어 다 늙는다
(받는소리) 세화 아아 오호 오호오야아 오오오 마뒤요

<세벌매는소리>
에헤에 어헐사 만들손가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삼천리 강산에도 풍년이 왔네
불과 같이 더운 날에
냇골같이 짙은 논에
우리 농부님들 고생도 많네
시들시들 봄배추는
밤이슬 오기만을 기다리네

4. 오임쌓기

<네벌매는소리>
(받는소리) 어허야하 어허어여
(메기는소리) 양쪽 배미는 둘러나 쌓고
모를 잡세 모를 잡세
둥글 넓적 소쿠리같이
고기잡이 그물치듯
돌을 잡세 돌을 잡세
먼디 사람 듣기 좋게
가까운데 사람 보기 좋게
돌을 잡세 돌을 잡세
오~오~ 어허~

5. 장원질

<장원질소리>
(받는소리) 아리사 저리사
(메기는소리) 가세 가세 어서나 가세
수만 석을 짊어지고서
주인집 문전에 당도허니
술과 안주도 많이도나 주시네
오날같이 좋은 날에
노래 한 자리나 불러보세
오날 날은 여기서 놀건만
내일 날은 어디로 갈거나
가세 가세 어서나 가세

영광홍농들소리는 논농사를 지을 때 부르던 소리를 모은 작품이다. 영광은 전라남도 영산강권에 속한다. 이 지역의 특징을 가장 날 나타내는 소리는 시조처럼 느리게 부르는 '긴소리'다. 홍농들소리에는 긴소리 외에도 모심는 '상사소리', 논매는 '절싸소리', 그리고 논매기 마지막에 둥글게 둘러싸는 오임 쌓는 소리까지 다양한 논농사소리가 포함되어 있다. 영광홍농들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문화재청장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 충청북도 / 전래동요와 남한강뱃소리 / 단양소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상)
상금 7,000

단양에서 전승하는 전래동요와 남한강 뱃소리를 엮은 작품이다. 단양에서는 농경사회의 일상을 풍자한 민요와, 아동이 보는 사회적 시각에서 파생한 전래동요를 구전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성재소리, 진뜨기타령, 실구대타령 등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한강은 강원도에서 단양과 충주를 지나 서울로 통하는 교통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뱃길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에 따라 띠뱃노래(소금배소리)와 짐을 싣고 한양으로 내려가면서 부르는 짐배노래가 함께 전해져오고 있다.

1. 입장

<자장가>
아강아강 우지마라 늑어머니 진조밥이 싹이 나면 온다더라
아강아강 우지마라 우리 어머이 진조밥이 싹이 나도 안오시네
아강아강 우지마라 늑어머니 삶은 팥이 싹이 나면 온다더라
아강아강 우지마라 우리 어머이 삶은 팥이 싹이 나도 안오시네
아강아강 우지마라 그림 한 계 회를 치면 온다드라
아강아강 우지마라 우리 어머이 그림 한 계 회를 쳐도 안오시네

2. 동요 및 놀이 시연

<성재소리>
열어주게 열어주게 동대문을 열어주게
엄동설한 모진바람 손이시려 못열겠네
손이시려 못열거든 장갑줄게 열어주게
못열겠네 못열겠네 장갑줘도 못열겠네
열어주게 열어주게 남대문을 열어주게
동지섣달 설한풍에 발이 시려 못열겠네
발이 시려 못열거든 버선줄게 열어주게
못열겠네 못열겠네 버선줘도 못열겠네
열어주게 열어주게 서대문을 열어주게
북풍한설 찬바람에 귀가 시려 못열겠네
귀가시려 못열거든 남바위줄게 열어주게
못열겠네 못열겠네 남바위줘도 못열겠네

<송아지따기>
송아지 따세 송아지 따세
집에 소는 무슨 소 우리 소는 검은 소
저기 저기는 우리 소 저기저기 저기가
우리 소라네
아니오 우리 소요
우리 소는 점박이소
우리 개도 점박이소

송아지따세 송아지따세
집에 소는 무슨 소 우리 소는 검은 소
저기 저기는 우리 소 저기저기 저기가
우리 소라네
아니오 우리 소요
우리 소는 점박이소
우리 개도 점박이소

<실구대소리>
꼬꾸대 꼬꾸대 꼬꾸대 틀이 늦어가네
절이세 절이세 갈쿠야 비척 절이세
유리야 장판 절이세
실구대 실구대 틀이 늦어가네

3. 뱃소리
올라왔소 소금배가 도담산봉 양반들아
금년에도 철석철석 소금배가 당도했네
기다리던 양반손님 어서 나와 반기시오
어서어서 불어주게 동남풍아 불어주게
양월양천 올라가네 도담산봉 접어든다
술걸러서 가져오게 목이 말라 못가겠네
술이술렁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놀다가세

4. 이별의 노래
못믿을건 한양손님 밧줄하나 풀러노니 부지거처 떠나가네
인제가면 언제오나 기약없이 떠나가네
잘가시오 한양손님 머나먼길 이별일세
잘있거라 주모들아 변치말고 잘있으면
명년삼월 돌아와서 다시한번 만나보세
어이가나 한양뱃길 비틀비틀 소금배야
설어워서 못가겠네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전래동요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는데, 단양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뱃소리를 엮은 작품으로 출전했다. 특히 전래동요는 아이들이 직접 부르면서 맛을 살렸다. 전래동요와 남한강 뱃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사진파일 손상>	

● 경기도 / 평택와야골거북놀이 / 평택거북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강원도지사(은상)
상금 7,000

‘평택와야골거북놀이’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의 옛 지명인 ‘와야골’에서 전승되던 거북놀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연작이다. 거북놀이는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추석에 행해진 놀이인데 대개 내륙에서 행해졌는데, 평택만은 해안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거북놀이는 마을 청소년들이 추석에 성묘를 다녀온 후 수수대로 거북이를 만들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던 놀이로, 동네의 잡귀를 쫓고 마을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했다고 한다. 거북놀이는 경기도와 충청도 등 주로 내륙에서 추석에 행했는데, 평택은 해안지역이라 주목할 만하다.

평택와야골거북놀이는 큰 거북이 형상으로 대장거북을 만들고, 참가자가 새끼거북이가 되어 함께 놀이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수숫잎을 따서 5각형의 형태로 거북 등을 꾸미고, 거북잽이 네 명이 이를 들고 돌아다닌다. 새끼거북은 수숫잎을 엮어 모자, 상의, 하의를 각각 만든다. 이를 양 어깨에 두르는데, 치마 형태로 허리에 두르고, 고깔 형태로 엮어 머리에 쓴다. 수수옷을 엮을 때 소리꾼은 엮는 소리를 한다.

평택와야골거북놀이는 장승굿, 문굿, 대청굿, 터주굿, 우물굿, 조왕굿, 마당굿, 마을판굿 순서로 진행한다. 경연에서는 길놀이, 문 들어가기, 우물돌기, 터주빌기, 정지고사, 마당놀이, 거북뒷놀이, 마당뒷놀이 순으로 진행했다. 길놀이는 농기, 영기, 용기가 앞서고 그 뒤를 대장거북, 새끼거북, 농악대, 동네 주민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농악대가 덩덕궁이 가락을 치면서 이동한다.

방문할 집에 당도하면 대문 앞에서 소리를 한다. 이 소리에 집주인이 나와 절을 하는 등 거북을 정중하게 맞이한다. 이후 농악을 치면서 대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간다. 마당에 들어서면 먼저 우물을 향한다. 마당을 한 바퀴 돌고 거북이와 농악대는 우물을 향해 선다. 우물에서 용왕에게 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사설을 왼다.

장독대 앞으로 이동한 후, 새끼거북들은 대장거북을 중심으로 춤을 추며 돌고, 수장거북은 떡메를 치는 시늉을 하며 비손을 한다. 일부는 두레박을 떠서 물로 목을 축이면서 놀이를 계속 한다. 장독 터주가리 주위에서 터주신에게 기원을 하고, 여자 집주인은 장독 위에 정화수를 놓고 비손을 한다. 정지(부엌)으로 이동 후에는 조왕굿을 하는데, 평택와야골거북놀이에서는 이를 ‘조왕고사’ 또는 ‘정지고사’로 부르며, 비나리를 하는 특징이 있다.

고사가 끝난 후에는 희극적인 행위가 이어진다. 거북들이 동네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놀다가 갑자기 배고픔을 호소하며 쓰러지는데, 이때 집주인은 술과 음식을 가지고 나와야만 한다. 주인집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거북들은 다시 일어나 집안과 마을에 무병장수와 풍년을 빌어주며,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 농악 가락에 맞춰 다시 춤을 추며 신명을 풀어낸다.
한바탕 놀이가 끝나면 집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다시 놀이기, 대장거북, 새끼거북이, 농악대, 마을 주민 순으로 대문을 나온다. 이때 농악대는 돌림법고 가락을 치며 흥겹게 이동을 한다.

평택와야골거북놀이는 세시절기에 맞춰 진행했던 놀이를 훌륭하게 재현했다. 수숫옷을 만드는 과정부터 거북놀이의 전체 절차가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대장거북과 새끼거북을 포함한 구성원의 이동은 물론, 집안에서 이뤄진 행위가 순차적으로 잘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조왕굿을 통해 비나리를 하는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사소리에 산세풀이, 액살풀이, 삼재살풀이, 호구역살풀이, 장사풀이, 농사풀이, 성주풀이, 달거리 액막이 타령, 뒷명불 드오가 같이 다양한 소리가 있음을 확인했

다. 경연 특성상 시간 제약으로 이를 다 구연하지는 못했지만, 그 실체는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북들이 배고파 쓰러지고, 집주인이 배고픔을 달래주는 희극적인 장면을 훌륭하게 재현해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 계족산무제 / 대덕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상금 5,000

‘계족산무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의 계족산 정상에서 행하던 기우제를 바탕으로 한 민속이다. ‘계족산’이란 명칭은 산의 형태가 닭의 발과 같이 등성이가 이어져 있고, 사이마다 골이 깊은 데서 유래했으며, ‘닭다리산’으로도 부른다. 또한 가뭄이 심하게 들면 산이 울고, 산이 울면 비가 온다고 해 ‘비수리’라고도 한다.

하지가 지나고 초복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좋은 날을 택해 계족산 정상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냈다. 특별한 점은 부녀자가 주관하는 유왕제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계족산 무제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부녀자들의 유왕마지기 무제는 물을 관장하는 용신에 대한 의례로 물까부르기와 날궂이로 구성되는 한편,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계족산 무제에서는 계족산 상봉에 올라 장작을 쌓아 올리고 불을 질러 비를 부르는 의식을 거행한다.

계족산무제는 솥뚜껑 훔쳐내기, 유왕제, 마을길놀이, 샘굿, 암장찾기, 산신제, 비부르기, 비맞이 순으로 진행한다. 우선 부녀자들이 주관하는 의례부터 시작한다. 한 아낙이 솥뚜껑을 훔쳐 머리에 이고 달아나면, 다른 아낙이 작대기로 솥뚜껑을 치며 따라간다. “내 솥뚜껑 훔쳐간다”란 소리에 맞춰 아낙네들이 각자 솥뚜껑을 들고 나와 냇가로 이동한다. 냇가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유왕제를 시작한다. 키에 물을 담아 물까부르기를 하고, 둠벙으로 뛰어들어 몸을 씻고 물을 뿌리며 날궂이를 하는데, 이때 용왕님께 비를 기원하는 의식이 핵심이다.

유왕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냇가로 이동해 마을길놀이를 한다. 각 마을 풍물패가 냇가에 모여 한바탕 풍물판을 벌인다. 냇가에서 좌상를 중심으로 샘굿을 한다. 샘굿이 끝나면 물과 제수음식, 횃불, 마을기, 황토 가래 등을 지고 계족산 정상으로 이동한다.

계족산에 올라서는 먼저 암장찾기를 한다. 몰래 암장한 시신을 찾으면서 가래질소리를 한다. 암장찾기가 끝나면 황토를 깔아 정화한 후 제상을 차리고 산신제를 지낸다. 계족산의 기운이 영험하고 명당이 많아 몰래 암장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마다 어김없이 마을에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암장을 찾아내 기우제를 올렸다고 한다.

암장찾기와 산신제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비부르기를 진행한다. 각자 장작과 생솔가지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를 높이 쌓아 올린다. 쌓아 올린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고, 논메는소리도 하고, 춤을 추면서 비부르기를 한다. 또한 삿갓을 쓰고 짚으로 만든 도롱이를 입고 물병의 물을 뿌려 삿갓과 도롱이를 적시기도 한다.

산에서 내려올 즈음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서 신명 나는 대동놀이판을 벌린다. 가져온 삿갓과 키 등을 하늘로 집어 던지며 가뭄을 해소한 것을 축하한다.

계족산무제는 지역 특성과 역사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경연작이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세속에 이르기를 계족산이 울면 비가 온다” 라는 기록이 있는 점, 계족산을 비수리라고도 하는 점, 계족산에 있는 산성의 특정 부분을 우술성[雨述城]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그러한 특성과 가치를 알 수 있다. 계족산 무제와 부녀자 중심으로 진행하던 유왕제를 함께 구성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며, 남성 중심의 산신과 여성 중심의 수신 의례를 구분한다는 점 역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계족산무제는 음양의 조화, 유교식 제례와 무속적 제례의 구분 등 우리 민속이 지닌 복합적인 가치를 잘 드러내는 공연이라 할 수 있다.





● 전라북도 / 임실두레놀이 / 임실두레놀이전승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5,000

'임실두레놀이'는 전라북도 임실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두레' 전통을 보여주는 민속이다. 두레는 논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공동 노동'을 위해 만들고 가꾼 생활문화다. 이에 따라 임실두레놀이도 논농사를 지으면서 행한 두레의 공동 노동과 세시절기에 따른 놀이로 그 구성을 보여주면서 임실 지역의 한 해 농사 과정을 압축해 전달하고 있다. 두레농악은 필봉농악 가락을 주 가락으로 하며, 마을굿을 진행한다.

임실두레놀이는 굿머리, 모내기, 김매기, 상머슴뽑기, 농신제, 상머슴입장, 두레판굿, 대동굿 순으로 구성된다. 풍물패가 기굿을 치려고 농기를 중심으로 상수 뒤쪽으로 모이면, 어름굿을 치면서 하수 앞쪽으로 써래꾼과 소가 입장한다. 풍물패와 농부들이 상수 뒤쪽에서 을자진을 그리며 입장한다. 입장이 끝나면 농군들이 모내기와 김매기를 한다. 이때 선소리꾼이 모내기 때는 상사소리, 김매기 때는 문열가와 어휘싸호소리를 한다.

모내기와 김매기가 끝나면 상머슴뽑기를 한다. 마을 농부들이 무대 앞에 앉아서 상머슴 뽑는 마을 회의를 한다. 상머슴을 뽑은 후에는 다 같이 모여 농신제를 지낸다. 마을 사당에 제를 올리는 행위를 한다. 그리고 상머슴이 사다리를 타고 나발을 불며 풍물패와 같이 풍장을 치며 한 바퀴 돈다. 풍물패는 양옆으로 갈라서고 가운데서 상머슴을 태우고 논다. 산아지타령을 하며 상머슴을 중심으로 신명풀이를 진행한다.

한해 농사가 끝나면 고생한 머슴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두레판굿을 한다. 그리고 두레꾼과 풍물패, 마을 사람들이 무대 가운데로 모여들어 대동굿을 한다. 을자진으로 무대 가운데에 모여들면서 방울을 말고, 구경꾼도 끼어들어 신명을 풀며 대동굿을 마무리한다.

임실두레놀이는 두레를 중심으로 한해 논농사의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상머슴뽑기와 상머슴을 놀리는 장면이 있으나, 논농사소리에서 행위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두레판굿과 대동굿이 이어져 연출상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필봉농악가락'을 중심으로 한 농악 가락이 잘 드러난 것에 의의가 있으며, 모내기 때 상사소리, 김매기 때 문열가와 어휘싸호소리, 상머슴등장 때 산아지타령 등이 잘 구연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광주광역시 / 월계동 상여소리 /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

종목 민요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5,000

월계동 상여소리는 광주광역시 월계동에 전승하는 장례의식요다. 육지 상여소리의 전형으로, 출상 전날 밤 빈 상여를 놀리면서 부르는 삼경소리, 출상일 상여가 나가기 직전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르는 발인 축원소리, 상여 머리를 마을로 향하고 부르는 하직소리, 상두꾼이 상여를 장지까지 메고 운반하면서 부르는 출상소리, 다리를 건너면서 하는 소리, 산에 오르면서 하는 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느린 가락, 중모리, 중중모리 등 다양한 장단으로 구성된다. 가사 내용은 유.불.도가 습합된 축원이주를 이루며, 운상 과정에 따른 지시, 망인의 생애와 당부, 그리고 유족과 주민들의 송별 내용 등이 남도 사투리와 함께 즉흥으로 불린다.

요즘은 장례를 치를 때 상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영구차로 운상하며, 묘를 쓸 때도 불도저를 동원하므로 전통적인 장례 모습과 상여소리를 접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재현한 월계동 상여소리는 남도의 일생의례와 예술 전통 내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월계 상여소리는 발인축 읽는 소리, 발인소(느린관암보살소리), 운상소리(너화넘소리),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소리(자진어널소리), 산에 오르면서 하는 소리(어이가리소리)로 구성된다.

1. 발인축 읽는 소리

발인제를 지내면서 축을 읽는 소리다. 박자 없이 음영한다.

영이기가 왕즉유택 제진견례 열결종천

2. 발인소리 - 느린관암보살소리

상여를 멘 채 3회 반복하고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다. 메기는소리는 읽어나가듯이 읊고, 받는소리는 길게 늘여 빼서 부른다. 메기는소리는 박자가 불규칙하지만, 받는소리는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르기 때문에 느린 3소박 4박자에 맞다.

(받는소리) 관아~아~아 보오~허~보살
(메기는소리)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동네앞산이 북망산천.
이제가면 언제오실까 오시는 날이나 일러를 주시소.
사람이 살며는 몇 백 년이나 사드냔 말이냐.
죽음에 이르러 남녀노소가 없구나.
서른 두 명 유대꾼은 운상을 하여 보세.

3. 운상소리 - 너화넘소리

상두꾼이 상여를 장지까지 메고 운반하며 하는 소리다. 중모리장단에 맞으며, 1장단을 메기고 1장단을 받는다. '미솔라도레'의 메나리토리를 사용해 거뜬거뜬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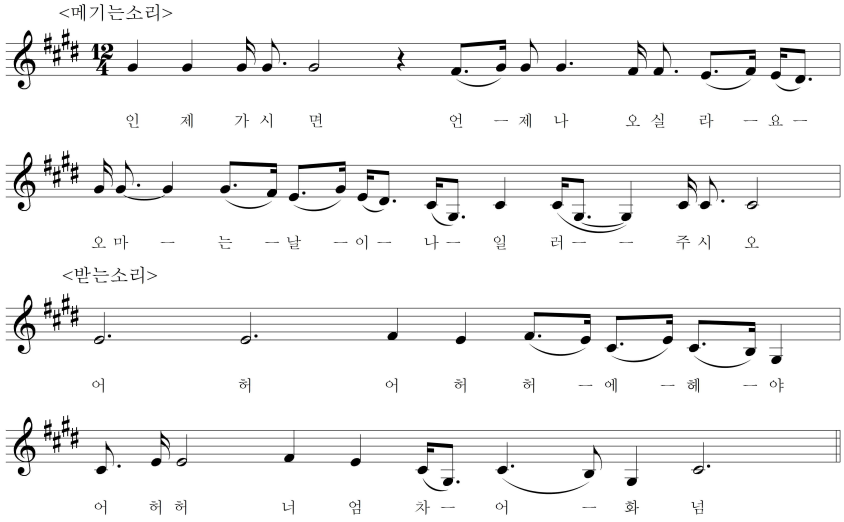
(받는소리) 어~허~ 어허허 에헤야 어허허 너엄 차 어~ 화 넘
(메기는소리) 인제 가시면 언제나 오실라요 오마는 날이나 일러주오
동방 화개 춘풍시에 꽃이 피거든 오실라요
비류직하 삼천척허니 의시 은하 낙구천 일세
만산 호랑이 술주정 허고 물가 가재는 사두걸음 치네
말은 가자고 네 굽을 치는 데 임은 붙들고 아니 놓네
부귀영화 받던 복락 오늘 날로 가이 없네

천당인가 극락인가 열산 고해 기중이라
인간 칠십 고래 희라 고인이 먼저 일렀어라
잘 있거라 잘 있거라 고향 산천아 잘 있거라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앞 산이 북망 일세
무심 허네 무심 허네 저승사자님도 무심 허네
황천에 무일~점 허니 오늘 밤은 어디서 날까
차문 주점이 하처 재요 목동이 요지 행화촌이라
오동잎 너울거리는 밝은 달밤에 화답가를 하려는가

운상소리-너화넘소리

중모리장단

<메기는소리>



4.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소리 - 자진어널소리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부르는 소리다. 중중모리장단에 맞으며,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잘 어울린다. 박자가 빠른 것은 발을 옮기는 호흡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받는소리) 어~너얼 어하~ 널
(메기는소리) 올라간다 올라간다 준령태산을 올라간다
무정세월 여류하야 인생 일장춘몽이라
황천길이 멀다 더니 건너 앞산이 황천이네
애들 쓰네 애들 쓰네 유대군들 애들 쓰네
오늘 날은 여기서 놀고 내일 날은 어디서 놀까
옷고름 끝에는 옥단초요 댕기 끝에는 백단초라
천정 세월은 인정수요 춘만 건곤은 복만가라
잠든 나를 깨우지 말고 가시는 임을 붙잡아 주게
내년 욧때 춘삼월에 꽃피고 잎 피면 다시 옴세
못 가겠네 못 가겠네 노수가 없어서 못 가겠네
이산 저산 고사리 꺾어 선영 공대 하여 보세
너도 죽어 이길 이요 나도 죽어 이길 이다
밤은 적적 삼경인디 어느 친구 날 찾는가?
차문 주점 하처재요 목동이 요지 행화촌이라

5. 산에 오르면서 하는 소리 - 어이가리소리

산에 오르는 마지막 노래로, 애조를 섞어 부르는 소리다. 너화넘소리와 같은 중모리 장단이지만, '미라시도'의 육자배기토리를 사용해 슬프고 애절한 느낌이 강하다.

(받는소리) 어~허 허~어 허~너허 어이가리 너엄 너화너

(메기는소리) 울지마라 울지마라 느그 울면 나 못간다
저승길이 멀다더니 죽고 나니 저승이로구나
연화대교 가십시다 신선대로 가십시다
영이기가 하였으니 가실 곳은 유택이요
칠산 바다에 어선이 뜨고 월출산봉에 달이 솟네
갈 때 보고 올 때 보고 두 번 보면 정 붙는다
야월 공산 깊은 밤에 저 두견새 울음 운다
바람아 퉁탱 부지 마라 추풍낙엽이 다 떨어진다
새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광주광역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민속문화 전승이 어려워진 곳이다. 그 때문에 근래에는 주로 농악 분야에서 출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민요에서 간혹 농요가 나온 바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회에 상여소리로 출전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제는 보기 어려워진 상여소리 일습을 모두 찾아내 구성한 점도 높이 살 만하다. 월계동 상여소리는 재단이사장인 동상을 수상했다.





● 경상남도 /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 /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한국문화재재단(동상)
상금 5,000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은 경상남도 남해군 오곡마을에서 새로 집을 지을 터의 부정과 악귀를 없애기 위해 성주신을 비롯한 가신들을 모시는 제의를 하는 민속이다. 제의뿐만 아니라 매구패들의 굿놀음, 백두산 두꺼비 업을 모시는 행위 등을 포함해 마을잔치의 모습으로 연행했다. 또한 마을 당산나무에서 대주를 현관으로 모시고 당산제를 한 후, 마을 공동우물로 가서 새미굿을 하는 남해 지역 집들이의 특징도 반영했다.

이 놀이는 입장, 당산제 및 새미굿, 문굿, 성주, 조왕굿, 업맞이, 곡간굿, 잔치한마당, 매구판굿, 퇴장 순으로 진행했다. 지신밟기 굿 가락에 맞춰 입장을 하고, 대주를 현관으로 모셔 분향, 현작, 고축, 재배 순으로 현관례를 진행한다. 현관례가 끝나면 메구는 당산굿을 하고, 당산굿이 끝나면 우물로 이동해 새미굿을 한다.

집 밖 의례가 끝나면 마당으로 들어가서 오방진굿을 친다. 가신 중 최고의 신격으로 대접받는 성주신한테 먼저 대주가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그 후 매구패가 성주굿을 하고, 성주굿이 끝나면 바로 조왕굿을 한다.

마당에서 성주굿과 조왕굿을 끝내면, 메구는 대문 밖으로 나가 백두산 업을 맞이한다. 동네 사람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대문 안에서 담장 너머로 구경을 할 뿐이다. 업쟁이는 업에게 백두산 업인지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면 대문 안으로 모셔 대접을 한다. 풍성하게 업을 대접한 후에는 곡간으로 이동해 곡간굿을 한다.

가신을 모시는 의례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서 '치나친친노세'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잔치처럼 어울려 논다. 노래가 끝나면 대주영감은 매구패와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매구패들의 판굿이 이어지고, 매구판굿이 끝나면 퇴장한다.

경상남도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은 실제 의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요소를 첨가한 작품이다. 새집을 지으면 집들이를 하면서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에 가서 당산굿을 하고, 공동우물에서 새미굿을 하는 과정이 잘 보였고, 집안의 여러 가신, 특히 업을 모시는 장면까지도 확인되어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전체 구성은 산만해 아쉬움이 남는다. 업을 모시는 장면을 연극적으로 구성했는데, 무대 공연 특성상 잘 표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의례 이후 마을잔치나 매구패들의 판굿으로 구성된 것 또한 전체 놀이의 의미를 희석한듯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울산광역시 / 울산달내쇠부리놀이 / 울산달내쇠부리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정선군수(장려상)
상금 3,000

‘울산달내쇠부리놀이’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달천광산에서 생산된 토철을 용해한 후 판장쇠를 만드는 과정을 반영한 작품이다.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면서 노동요를 불렀는데, 이것이 ‘불매가’며, 이를 쇠부리노래, 풀무질소리, 불무소리 등으로도 한다. 주원료인 토철과 숯, 나무 등의 연료를 운반해야 하고, 쇠부리로 규모에 따라 작업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울산달내쇠부리놀이는 고사, 쇠부리, 금줄소각, 놀이 순으로 진행했다, 전주대리인 소리에 따라 금줄을 열고 기수, 소달구지, 편수, 쇠쟁이, 숯쟁이, 운반꾼, 풍물 순서로 질굿장단에 맞춰 입장한다.

입장 후에는 유교식 고사가 이어진다. 축문을 읽고 제례가 끝나면 다시 풍물을 치면서 고사상을 중심으로 어깨춤을 추며 돌면서 제사음식을 나눠 먹고 음복을 한다. 고사상을 중심으로 모여든 부리꾼들은 공양주가 주는 술잔을 받으며 시음을 하고, 공양주나 전주는 계속해서 부리꾼에게 음식과 술잔을 권한다. 이 상황은 축관이 철상명령을 내릴 때까지 계속된다.

고사가 끝나면 불편수는 골바닥에 불씨로 불을 지피는 행위를 한다. 숯쟁이들은 지게로 숯을 운반해 쇠부리로 안을 채우며, 동시에 쇠쟁이들도 소쿠리에 토철을 담아 로 안을 채운다. 쇠부리로에 불이 붙으면 불매대장에게 “불매 올려라!”하고 외치며, 불매대장의 지시를 받은 불매꾼은 “불매 불자” 하면서 불매판을 발로 밟아 디딘다.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면 골편수는 용광로 위를 오르며 긴 쇠망치로 두드려 쇳물이 고인 정도를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면 “쇳물 내자!”소리 지르면서 쇠창을 잡고 초롱구멍을 뚫는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쇳물 나온다!” 환호하면 “출출, 콸콸” 소리를 지르면서 흥겹게 논다. 판장쇠 판에 쇳물을 넣어 판장쇠를 담금질해 소달구지에 싣는다.

앞선 작업이 끝나면 불매꾼, 운반꾼, 쇠쟁이, 숯쟁이 등은 불매 주위에 쳐진 금줄을 걷으며 용광로에 태울 준비를 한다. 한쪽 끝을 전주가 쇠부리로 위에서 받아서 쇠부리로에 집어넣어 태운다.

작업이 다 끝나면 모두가 어울려 흥겹게 출을 추며 끝을 맺는다. 지게와 소쿠리는 지게목발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부리꾼과 전주도 함께 어우러져 신명 나게 춤을 춘다.

<불매가>

어이 여허 불매야
불매 부는 여러분들 어이 여허 불매야
불매 부는 내력이나 어이 여허 불매야
알고나 부는고나 어이 여허 불매야
옛날옛적 시원선생 어이 여허 불매야
조작으로 만든 불매 어이 여허 불매야
불매는 있건만은 어이 여허 불매야
불매 부는 여러분들 어이 여허 불매야
시원선생 어디갔나 어이 여허 불매야
태고 때 시절 언제라고 어이 여허 불매야

시원 선생 있을 쏘냐 어이 여허 불매야
어절씨구 불매로다 어이 여허 불매야
저절씨구 불매로다 어이 여허 불매야
이불매 이름은 무엇인고 어이 여허 불매야
경상도 더불매라 어이 여허 불매야
이 쇠는 어디 쇠고 어이 여허 불매야
달래골의 토철이라 어이 여허 불매야

울산달내쇠부리놀이는 달천광산을 중심으로 한 쇠부리터의 노동 모습을 반영한 경연작이다. 전주와 불매군, 운반꾼, 쇠쟁이, 숯쟁이 등 다양한 인물군 등장으로 방대했던 지역사회의 모습을 재현했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작품을 통해 전통사회의 공동 노동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사에서부터 판장쇠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잘 드러났다. 그리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울산 지역의 쇠부리소리를 잘 구연했으며, 노동의 과정과 소리도 잘 어우러졌다.




● 대구광역시 /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 화원읍설화리노인회

종목 민요
수상 정선군수(장려상)
상금 3,000

달성 설화리의 상여소리를 작품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는 낙동강 연안의 비옥한 땅에 자리한 전형적인 농촌이다. 약 500년 전 성주 배씨가 입향해 마을을 이루고, 다음으로 김해 김씨와 나주 임씨가 입촌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왔다. 예로부터 이 마을 청년들은 부모를 위해 계를 모아 상여를 마련하고, 상여소리를 익혀왔다. 소리는 발인제를 지내고, 출상을 하면서 하직하는 소리, 대문 나가는 소리, 거릿제소리, 언덕을 오르고 내려가며 부르는 소리, 좁은 길 가는 소리, 다리 건너는 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1. 발인제

영이기가 왕진유택 재진견내 영결종천

2. 출상소리

선소리꾼이 북을 치며 앞으로 전진하고, 그 뒤를 상여꾼이 따른다.

(받는소리) 오호용 오호용 오호헤야 오호홍
(메기는소리) 어제 나절 성튼 몸이 저녁 나절 병이 들어
인삼 녹용 약을 쓴들 약덕인들 있을손가
무녀 불러 굿을 한들 굿덕인들 있을손가
찾는 것은 냉수로다 우리 부모 엄마불러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북망 산천을 찾아가자
인제 가면은 언제 오나 언제 다시 만나볼까
이십 전후 출가시켜 자식나서 길러보니
부모은공 갚자하니 어영간에 백발되고(후략)

3. 마을 밖에 나가는 소리

(받는소리) 오후오 시요 오호오 시요
(메기는소리) 이리 오소 이리 오소
백발 상주 이리 오소
우리 부모 만리갈때
노자돈도 갖고 오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명년 삼월에 봄이오면
너는 다시 피겠마는
우리 인생 한번 가니
다시 올줄을 왜모르요
북망 산천을 찾아가서
무덤을 안고 통곡을 하니
무정하다 우리 님은
왔느냐 소리도 아니하네(후략)

4. 외나무 다리 건너는 소리

(받는소리) 어화넘차
(메기는소리) 이리 오소 백발상주님
이리 오소 우리 부모
만리 갈 때 노자돈도
갖고 오소 스물너이
상두꾼들 외나무 다리
건너갈 때 발을 맞촤
조심하소 옛늙은이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늘 내가
당해보니 대문밖이
저승일세(후략)

5. 다리소리

(받는소리) 오호오호 다리여
(메기는소리) 다리주소 다리주소
천년 유택 다리주소
만년 유택 다리주소
흙골라 친구삼고
잔디잎을 옷을 삼고
이리오소 이리오소
백발상주 이리오소
우리 부모 만리 갈 때
노자돈도 갖고 오소
전라도라 지리산은(후략)

대구광역시에서 소박한 상여소리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해 출전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악곡을 부르며, 노잣돈을 뜯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번 대회에서 정선군수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인천광역시 / 방죽맥이 / 인천토속민요놀이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정선군수(장려상)
상금 3,000

방죽맥이는 과거 인천 지역에서 불렸던 둑 막는 소리다. '방죽'이란 물이 넘치거나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둑을 말하며, '방죽맥이'는 방죽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죽막이'를 사투리로 표현한 것이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이 빠졌을 때 말을 박고 둑을 쌓아 방죽으로 만든 후, 그 안에 갇힌 물을 말려 농토로 만든다. 이때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 방죽을 쌓는 작업인데, 마지막에 양쪽에서 막아 들어간 방죽의 중간 연결 부분인 개결수를 막아 방죽을 완성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서동, 안동포 난점 한들마을, 폐렴 장도 등의 바닷가 집성촌에서는 이러한 방죽맥이를 빈번히 해왔다. 심혁연(77세)과 조덕연(76세)에 의하면, 어린 시절 방죽맥이를 하던 모습을 본 경험이 많고, 그 당시 불렀던 노래들을 기억한다고 한다. 현재의 경서동 방죽맥이 소리는 이러한 고로들의 기억으로 다시 복원된 것이다.

공사를 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는 소리로 "모르세"를 외치는데, 이는 "모이세"의 변형으로 보인다. 방죽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방죽을 쌓을 부분의 갯벌을 일부 제거하고 흙을 옮겨 채운 후, 그곳에 돌을 놓고 말뚝을 박아 기초 공사를 한다. 말뚝은 갯벌에 놓고 전후좌우로 흔들어가면서 깊게 박은 다음, 말이 갯벌과 만나는 밑 부분에 돌을 박아 단단히 고정한다. 말뚝을 기초로 해 흙을 퍼 날라 방죽 모양을 만들어나간다.

방죽을 만드는 과정에는 다양한 토목노동요가 불린다. 흙을 풀 때는 가래질을 하므로 가래소리를 부른다. 무거운 돌이나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목도소리를 부른다. 말을 박을 때, 그리고 방죽을 다지는 과정에서는 땅을 다지는 소리를 노래한다. 이처럼 방죽맥이에 불리는 토목노동요는 농사노동요보다 훨씬 일찍이 단절되어 남은 수가 많지 않다. 또한 경기도와 황해도의 특성이 섞인 노동요이면서도 서해안 어업노동요와의 연계성이 짙은 악곡을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가진 소리라 할 수 있다.

1. 일나가기 (입장식)

마을 사람들은 모르세(모이세)를 외치며 일터로 나간다.

2. 가래질소리 - 흙푸기

뚝을 만들 자리에 있던 갯벌을 떠내고, 그곳에 흙을 퍼 날라서 땅을 단단하게 만든다. 많은 양의 흙을 푸기 위해 세 사람이 하나의 조를 이뤄 가래질을 한다. 가래는 보통의 삽보다 큰 크기로 가래를 든 사람 이외에 가래 양쪽으로 줄을 달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도록 해 힘을 보탠다. 가래질을 할 때는 <어하넝청 가래여>의 가래질소리를 노래하며 일을 하는데, 이는 함께 노래를 해야 세 사람의 호흡이 맞아서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래질소리로부터 본격적인 뚝쌓기가 시작된다.

서해안의 조기잡는 배에서도 그물에 걸린 조기를 퍼낼 때 가래질을 하는데, 이때 부르는 가래질소리와 방죽맥이의 가래질소리는 음악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또 조기잡이 배에서 부르는 배치기소리와도 비슷한 느낌이 있다. 두 곳에서 모두 가래라는 도구를 사용해 일을 하는 것이며, 내용이 다를 뿐 푸는 동작도 유사해 동일한 음악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흔히 서해안 지역에서 뱃노래와 육지의 일노래가 비슷한 구조로 불리거나 동일한 악곡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흔하다. 이런 점이 이 지역 노동요의 특성으로 보인다. 또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의 노래와 황해도의 노래가 섞여 사용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3. 목도소리 - 돌나르기

뚝을 쌓을 자리로 돌을 옮겨 뚝의 틀을 갖추는 작업이다.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 목도소리를 부르며 일을 한다. 목도소리는 여러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함께 옮기는 과정에서 부르는데, 이 노래에 맞춰 발을 움직여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옮길 수 있어 노래가 매우 중요하다. 목도는 큰 돌이나 나무를 밧줄로 동여매고 어깨에 걸친 나무에 걸어서 드는데, 두 사람이 하면 2목도, 네 사람이면 4목도, 여덟 사람이면 8목도라고 한다.

4. 상사소리 - 말뚝박기

말뚝박기는 방죽맥이의 기초 공사에 해당한다. 말은 갯벌에 놓고 전후좌우로 흔들어가면서 깊게 박은 다음, 말이 갯벌과 만나는 밑 부분에 돌을 박아 단단히 고정한다. 이 작업을 할 때는 <닐닐닐 상사디야>의 상사소리를 부른다.

5. 방아소리 - 뚝다지기

뚝을 다지는 과정에서는 방아소리를 한다. 땅을 다질 때는 큰 돌을 새끼에 맨 달구(또는 지짐돌)로 들어올렸다가 내리면서 다지므로, 역시 여러 일꾼의 호흡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래를 함께 부르며 박자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방아소리 계열은 경기도 일대에서 땅 다지는 소리로 널리 불리고 있어, 이 문화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 방죽고사

방죽이 완성되면 주인은 많은 음식과 돼지를 잡아 그간 애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

7. 뒤풀이

방죽 완성을 축하하며, 한바탕 신명을 풀어낸다.

인천광역시와 같이 도시화가 진행된 곳에서 과거의 민요를 재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일을 기억하는 고로들을 찾아 노래들을 엮어 출전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인천광역시의 방죽맥이는 이번 대회에서 정선군수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함경북도 / 두만강뗏목놀이소리 /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정선군수(장려상)
상금 3,000

'두만강뗏목놀이소리'는 예부터 함경북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인 목재를 채집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노동요다. 벌목한 나무를 떼로 엮어 강 하류 지역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는 이를 '뗏목꾼'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뗏목 위에서 일주일 정도 여정을 보내면서 고됨과 외로운 신세를 읊조렸던 것이 지금의 두만강뗏목놀이소리로 남게 된 것이다. 강 위에서 뗏목놀이를 하던 마을 사람들이 뭍으로 와서 재현하고 즐기던 것이 형태를 갖추면서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으나, 기본 내용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해 산판 생활과 뗏목 생활을 담아낸 것이다.

1. 마을 치성과 환송

벌목꾼들이 벌목하러 떠나는 날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에 모여 벌목장으로 떠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서낭신에게 고하는 의식을 치른 후 즐거운 마음으로 아쉬운 이별을 하며 산으로 보낸다. 깊은 산에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짐승들이 살고 있어,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 악기를 연주하고 신방곡이란 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올라간다.

<신방곡>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아이고 내 딸 공덕아 아이고 내 딸 심청아
내어디 갈까 에헤에 산으로 갈까 에헤에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지리
아이고 내 딸 잠자게 아이고 내 딸 놀아게
내 어디 갈까 에헤에 산으로 갈까 에헤에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2. 벌목꾼 산 오르기

산에 올라 벌목할 지경을 설정하고, 평평한 곳의 나무를 대표 나무로 선정하며, 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오늘부터 벌목할 것임을 목신에게 알리는 의식을 행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후 벌목을 한다.

3. 나무치성과 벌목하기

벌목하기 전, 나무 앞에 고사상을 차려놓고 벌목 허락을 청원하는 의식을 행한 후 벌목하며 부르는 노래로, 나무하는 소리와 톱 소리를 부르는 등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노래에 모두 담아 표현한다.

<나무 하는 소리>

여기도 산이구나 에야
에헤야 에헤야
좋은네 소리나 한마디 하고 보자 에야
에헤야 에헤야

일락 서산에 해떨어지고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우리야 인생 또 산간다네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청솔가지 찍어내여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한짐가득 찍어보세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우리들에 차지도 못하고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이런 고생하고 사네 에야하아
에헤야 에헤야

<톱질하는소리>
슬렁슬렁 당기어라
이 나무 허리가 가늘어간다
이헤 에헤야 어서 어서 당겨라
이 나무 넘어 넘어 간다
이헤 에헤야 어서 어서 당겨라
이 나무 넘어 넘어 간다

4. 나무를 목도해 산 아래로 운반
벌목한 나무를 산 아래로 운반하는 과정 중 목도로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힘을 합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요로 목도소리를 부르면서 운목해 산에서 내려온다.

<목도소리>
엥여차 엥여엥여 엥여차
엥여엥여 엥여허 엥여차
엥여허 엥여차 엥여허 엥여차

5. 부녀자들의 하루일과
주부들이 가정을 위해 내조하는 모습으로, 절구질하며 키질하고 옷감에 푸세를 하는 다듬질과, 다리미와 인두로 옷을 손질해 가족들에게 의복을 입혀 내보내는 일상을 표현한다.

6. 뗏목 떠나보내기
엮어진 뗏목을 강물에 띄우기 전, 용왕신과 바람신에게 뗏목의 운행을 보살펴 탈 없이 다녀오게 해 달라는 고사를 올린 후, 가족과 친지들은 전송한다. 뗏목꾼들은 뗏목을 타고 가는 긴 여정을 노래로 표현한 유벌가[流筏歌]를 부르며 항해한다. 목적지에 당도해서는 뗏목을 건네주고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신고산타령>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차 가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밤봇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뗏목소리>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빙글빙글 두만강수로 내려간다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야디야
들어간다 물은 콸콸 가슴 두근두근
00물이 넘는다 어떻게 갈까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야디야

7. 어울림한마당

뗏목꾼들이 무사 귀환한 기쁨을 가족은 물론 온 동리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춤추고 노래하며 해후하는 흥겨운 마당놀이며, 일곱 마당으로 작품을 마감한다.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에서 나무하는 소리, 목도소리, 뗏목소리 등을 엮은 새로운 작품으로, 이번 대회에서 정선군수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황해도 / 최영장군당굿 작두거리 / 최영장군당굿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정선군수(장려상)
상금 3,000

'최영장군당굿'은 실존 인물인 최영 장군을 모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최영장군당'에서 황해도굿 형식으로 연행하는 굿이다. 최영 장군은 고려 후기 위기에 처한 고려 왕조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충신이나, 조선 개국으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인물이다. 민중들에게 비운의 영웅으로 인정받으면서 무교의 신으로 또는 종교적 존재로 추앙되면서 '나라의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을 축원하는' 특정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최영장군당굿은 소[素]굿과 육[肉]굿으로 나눠 진행하며, 굿이 드는 날부터 묵는 날 오전까지는 '소굿'으로 진행하는 굿거리로, 묵는 날부터 나는 날까지는 '육굿'으로 진행되는 굿거리로 구성한다. 당굿의 전체 과정은 총 스물네거리다.

*** 최영장군당굿 스물네거리**

① 신청울림, ② 당맞이, ③ 일월맞이, ④ 상산맞이, ⑤ 초부정거리, ⑥ 감흥거리, ⑦ 소대감거리, ⑧ 성주거리, ⑨ 칠성, 제석거리, ⑩ 별상거리, ⑪ 영정거리, ⑫ 말명거리, ⑬ 군웅거리(사냥거리 포함), ⑭ 타살거리, ⑮ 대감거리, ⑯ 먼산장군거리, ⑰ 토일성수거리, ⑱ 신장거리, ⑲ 최영장군거리(작두거리 포함), ⑳ 대신거리, ㉑ 창부거리, ㉒ 조상거리, ㉓ 목신서낭거리, ㉔ 마당거리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 시 전체 스물네거리 중 작두거리를 연행했다. 작두거리는 주신인 최영 장군과 여러 장군신을 모시고 작두를 타며 나라 공수를 내리는 과정을 진행한다. 서경욱이 연행의 주무를 맡았고, 그 외 제자들이 참여했으며, 장구, 징, 제금, 피리, 태평소, 대금, 해금 등 악기가 연주되었다.

최영장군당굿의 작두거리 연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정식

깃발, 악사, 무당이 차례로 최영 장군이 출정하는 모습으로 등장해 자리를 정돈한다.

2. 청배

최영장군거리의 시작 부분으로, 주무가 방울을 흔들면서 신을 청하는 청배무가를 가창하면 상장구가 무당의 소리를 받는다. 그 외 조무들도 함께 소리를 받으면서 진행한다.

3. 장군춤

청배를 마친 주무가 빠른 춤 장단에 맞춰 최영 장군의 장군복을 입고 그를 형상하는 춤과 작두 놀리기를 하며, 장군칼춤을 추면서 신의 강림을 보여준다.

4. 작두타기

최영 장군의 춤을 추던 무당은 높이 쌓아 올린 작두로 올라가 작두타기를 한다. 주무는 작두 위에서 만백성과 국태민안을 위한 공수를 내린다. 작두를 타고 내려와 장군기 뽑기를 하거나, 신장이나 여러 장군 등을 모시는 과정을 이어서 한다.

5. 퇴장

최영 장군은 황해도 무속에서 매우 중요한 장군신으로 인지되는 신격이다. 이러한 역사 속 인물이 무

속의 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속의 역사성과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당굿으로 진행하는 대형 규모의 굿을 특정 부분만 공연해야 하는 제약이 아쉽다. 최영장군 거리를 작두거리를 통해 연행함으로써 황해도 굿의 전통적 특성이 확인된다.





● 평안남도 / 평양검무 / 평양검무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3,000

평양검무는 평안도의 대표 작품 중 하나다. 평양검무 전승자 이봉애 선생은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리 출신으로, 평양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녀 서문여고를 졸업했다. 그의 나이 14세에 평양권번 출신 예기 김학선을 만나 평양검무를 사사했고, 현재는 이봉애 선생의 제자들이 평양검무를 전승하고 있다. 이봉애 선생은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해마다 정기공연을 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평양검무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평양검무는 입춤, 앉은 춤, 칼춤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입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일자 사위

2. 앉은 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두 손 모아 허리춤
(3) 옆으로 허리춤
(4) 두 손 위로 모아 허리춤

3. 칼춤
(1) 한칼 사위
(2) 쌍칼 사위
(3) 서서 기본 동작사위
(4) 반돌기
(5) 칼 뽑기 동작
(6) 양팔 벌려 두 번 돌리기
(7) 건곤 사선 사위
(8) 반돌기 사위
(9) 앉는 연풍 사위
(10) 까치 사위
(11) 번개 사위
(12) 머리 쓸기 사위
(13) 인사 사위
(14) 하늘 치기 사위
(15) 빨리 돌기 사위
(16) 양팔 벌려 칼 돌리기 사위
(17) 유진 유퇴
(18) 도는 연풍 앉아 칼 돌리기
(19) 머리 쓸며 까치 사위
(20) 칼로 땅치기 사위
(21) 돌아서 기본사위

(22) 좌우 칼 돌리기
(23) 번개사위
(24) 앞 돌리기
(25) 번개 사위 4, 2, 4
(26) 마지막 인사

평양검무는 제51회와 제53회 민속예술축제에 이어 다시 출전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신명상을 수상했다.




● 함경남도 / 돈돌날이 / 함경남도북청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돈돌날이'는 함경남도에서 전승하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민요다. 돈돌날이 춤은 누구든지 바가지 장단 또는 북 장단과 노래에 맞춰 춤판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돈돌날이'란 '동틀 날'에서 비롯된 말이며, 세상에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 담겨 있다. 주로 한식 및 단오에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시풍습의 하나로서 모래산과 남대천에서 연행을 했다. 함경도의 독특한 춤사위인 달래 춤과 넋두리 춤이 곁들여져 토속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며, 북과 바가지, 자배기 장단이 신명을 돋운다. 이 작품은 돈돌날이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봄철나비, 미나리 꽃, 전갑섬 타령, 삼천리 노래, 양유나 청산, 라리라 돈돌리띠리, 내 고향 북청, 흘레레 레뗄레, 가자, 가자, 리라 리라 라리요, 좋구 좋소 등 다양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돈돌날이에 연행된 춤사위는 일명 '달래 춤'이라고 하는데, 북과 바가지, 퉁소, 징이 조화를 이룬 장단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춘다. 홀개치기를 제외하면 정형화된 춤사위는 없지만, 흥과 신명이 고조되면 자기만의 독창적 춤사위로 관객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춤사위의 특징은 손이 어깨 위에서 손목과 팔이 내려오지 않고, 어깨와 손목과 오금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자연스러움을 더하며, 오금과 발뒤꿈치를 이용해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부녀자들이 흥과 신명이 고조되면 집단으로 춤사위를 연행하는 것을 '넋두리 춤'이라고 한다. 둥글게 원을 만들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회전을 많이 해 생동감이 넘치며, 춤사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돈돌날이에 연행된 장단은 굿거리 장단과 자진 굿거리 장단의 중간 정도 되는 장단이다. 부녀자들이 북과 함지 및 자배기를 이용해 장단을 연주하는데, 북이 전체 장단의 완급을 조절하며 놀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바가지 장단은 커다란 함지에 물을 가득 부어 바가지를 띄우고, 바가지 속에 놋그릇과 수저와 젓가락을 넣어 소리를 낸다.

<돈돌날이>
(후렴)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 강산아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이 강산 서산에>
이 강산 서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일출 동산에 해가 솟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쏠라이쏘>
쏘쏘 쏠라이쏘 거스러미도
남대천이 거스러미 반짝거린다
쏘쏘 쏠라이쏘 거스러미도
모래산에 거스러미 반짝거린다

<리라 리라 라리요>
내고향 좋아요 내고향 좋아요
우리 북청 고을이 내고향 좋아요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우리네 부모는 나를 고이 길러서
짝을 지어 주려고 시집을 보내네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수해양천에서 따님이 왔노라
시집을 안가겠다고 맹세를 하여도
가매채 올리면 할 수가 없구나
명주이불을 덮기만해도
이불속에서 풍니만 하노라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인조이불은 덮었지만해도
하룻밤 정리를 잊지만 마세요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라리라 돈돌리띠리>
라리라 라딸라 라리라 라딸라리요
리띠리띠 리릴라
다리가 리리 띠띠릴리
야야 이 사람아 넬네레넬 걸어라
남대천변으로 가잔다
다리가 리리 띠띠릴리
리띠리띠 리릴라
라리라 라딸라 라리라 라딸라리요
리띠리띠 리릴라
라리라 돈돌 리띠이리

리띠리띠 리띠이리

<전갑섬타령>

양천전촌에 전갑섬이 오매한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갱피방아찧기가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별안대이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밥임나르기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해안전촌에 말이났소
나는좋아요 나는좋아 해안퉁소가 나는좋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좋구 좋소>

좋구 좋소 에라 좋구나
이십살 애들이 놀기 좋구나
십팔세 젊은시절이 놀기 좋구나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아름다운 매화꽃이 곱게 피었네
라리라 이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돈돌날이는 함경남도에 전승하는 민요로, 제53회와 제54회에도 출전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신명상을 수상했다.



●평안북도 / 성황굿 / 영변성황대제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성황굿'은 평안북도 영변 지방에서 전승한 마을굿으로, '영변성황대제'라고도 부른다. 현재는 영변성황대제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평안북도에서는 영변당굿과 철산당굿이 유명했다. 영변의 제단에는 북당과 남당이 있었다. 북당에 좌정한 신은 북부동, 남당에 좌정한 신은 남부동의 수호신이었다. 북당의 경우 시장 상인들이 결성한 장터계에서 제비를 부담했으며, 일부는 읍민들이 십시일반 보탰다. 예전부터 남당보다 북당의 세가 우세했다고 한다.

대제는 일 년에 한 번 또는 격년으로 벌어지며, 길일을 택해 5일 정도 진행했다. 주민들은 괴병을 면하고 입신출세의 덕을 입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막대한 제비를 부담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대제에 참가했다. 성황대제는 마을 주민들이 가을걷이를 끝낸 후 햇곡식을 집마다 추렴해 마을의 안녕을 소망하고 액운을 물리치며 태평성대와 길흉화복을 기원하는 의례다.

성황제가 끝나면 무녀들이 당굿을 시작한다. 성황제 의례는 감흥굿, 칠성굿, 타살굿, 영정굿, 조상굿, 성황굿, 대감굿, 사신풀이굿, 작두굿, 뒤전풀이 순으로 진행한다. 당굿은 강신굿, 대감놀이, 거리굿 순으로 보통 4~5일에서 1주일간 계속된다. 무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구경하던 주민들이 합세해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성황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장

주악이 울리면 일동은 순서에 따라 입장해 원형으로 선다. 제관이 성황위폐를 들고 기수를 뒤따라 들어온다. 동자·동녀는 청사초롱을 들고 제관을 뒤따른다. 당주는 기수와 제관을 따라 제단 앞으로 가고, 장군은 제관 및 당주를 호위한다. 그 뒤를 무녀들이 춤을 추면서 따르고, 이어서 마을 주민들이 따른다.

2. 감흥 및 성황청배

제관이 촛불을 켜 향을 지피고, 술잔에 술을 따라 올리며, 제전 그릇에 지전을 올린다. 이어서 당주가 감흥청배를 시작한다. 그 이외의 일행은 청배가 시작되면 성황목을 향해 빈다.

3. 축원덕담 및 성황넋두리

당주는 청배무가가 끝이 나면 축원 덕담을 마을 주민들에게 하며, 축원 덕담을 받는 사람들은 "예, 그럼요.", "도와주세요" 등으로 받는다. 당주는 덕담이 끝나면 "성황님 모시러 가자"를 시작으로 성황넋두리를 한다.

4. 성황다리 밟기

당주는 주악이 빠른 장단으로 이어지면 술병과 북어를 들고 성황다리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해서 성황다리밟기를 한다. 당주가 춤을 추며 제단 안쪽으로 들어오고, 마을 주민들은 장단이 울리면 음악에 맞춰 다 같이 어우러져 춤을 춘다.

5. 제장물리기

당주는 성황신복 일체를 벗은 후 제장복을 입고 과일을 꼽아 두었던 삼지창을 들어 액운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고, 이어서 신장까지 논다. 마을 주민 일동은 당주 주변으로 모여들어 복을 비는 행위를 하면서 춤을 추기도 한다.

6. 성황(천감)놀이

당주는 바닥에 있던 성황천을 들고 놀리다가 성황천을 감아서 제가집에게 주면서 복을준다.

7. 돈타령

성황천감놀이까지 마치면, 당주가 마을 공동체의 복을 빌고, 안녕을 기원하는 돈타령을 한다.

8. 복나눠주기

당주가 제장에 술을 뿌리고, 술단지의 술을 제관에게 권하고 복을 주는 덕담을 하며 춤을 춘다. 이때, 주변에 참여한 사람들은 게 복술과 복주머니를 관객들에게 나눠 주기도 한다.

9. 퇴장

일행은 원을 그리며 퇴장한다.

영변 성황굿은 북한 지역의 민속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전통적인 양식을 복원한 북한 지역문화의 원천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출전의 경우 성황다리밟기, 제장물리기, 성황천감놀이를 진행한 점은 원형의 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성황대제로서의 의미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과정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5.10.08~10.11,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1. 개괄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 규모의 민속축제로, 현재까지 축제를 통해 400여 종이 넘는 민속종목을 발굴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서도 그 위상을 인정받아 이제는 세계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6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올해 제56회를 맞이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평택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탈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행사를 선보여 시민과 청소년이 민속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새로이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경연참가자의 밤'이라는 순서를 따로 마련해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변신했다. 이번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민속예술이 과거의 전통을 바탕 삼아 미래를 지향한다는 본질을 구체적으로 실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개막공연으로 평택농악청소년예술단이 <예운>을 선보이고, 특별행사로 10월 9일 청소년의 밤 '가면 쓰고 다 같이 춤을'을 마련해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했다. '탈과 춤으로 하나 되는 청소년 문화축제'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청소년 문화를 형성했으며, 다양한 문화와의 조화와 통합으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장을 열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함께 한국 탈과 춤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배우는 '청소년 워크숍 - 즐겁게 탈탈'이 운영되었다. 각국의 다양한 탈 제작과 제작된 탈을 통한 탈춤을 연습하고 악기를 통한 우리 고유의 소리를 배우며 소리와 어우러지는 움직임 연습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56회의 경연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19개 팀으로, 인천광역시 '쑥대고잔 지경다지기'(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 평안남도 '평양검무'(평양검무보존회), 대구광역시 '달성 설화리상여소리'(달성 설화리 상여소리보존회), 황해도 '만구대탁굿'(만구대탁굿보존회), 부산광역시 '수영농청놀이'(수영농청놀이보존회), 전라북도 김제농악 '마당굿과 두둑잽이굿'(지평선농악단), 함경북도 '두만강뗏목놀이소리'(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평안북도 '평안도다리굿'(평안도다리굿보존회), 함경남도 '돈돌날이'(함남 북청민속예술보존회), 충청남도 '천안거북놀이'(천안거북놀이보존회), 강원도 '태백문곡동 웃벌마을 산간민요'(택백문곡웃벌마을 산간민요보존회), 경상북도 '구미 무을(선산)농악'(구미농악단), 충청북도 '입석리 선돌제'(입석선돌제보존위원회), 광주광역시 '용전걸궁농악'(전통용전농악회), 전라남도 '현천용천제'(향토민속문화보존회), 울산광역시 '와 아리라 고풀이굿'(울주문화원(와아리라고풀이굿보존회)), 경기도 '철산리 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광명농악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등이다.

2. 참가 종목

● 제주특별자치도 /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20,000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는 제주도 가문동에서 행해지던 원담을 통한 어업 행위를 재현한 작품이다. 가문동은 큰코지, 코생이코지, 안큰코지, 너북코지라는 네 개의 코지가 유명해 '가무코지'라고도 부른다. 원담은 '갯담'이라고도 하는데, 돌을 높이 쌓아 밀물 때 들어온 고기떼가 썰물이 되면 돌담에 갇히도록 한 어로시설을 말한다. 원담은 보통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조했는데, 거름을 잘 마련하면 소작을 얻기 쉬었을 정도로 멜 컬름이 중요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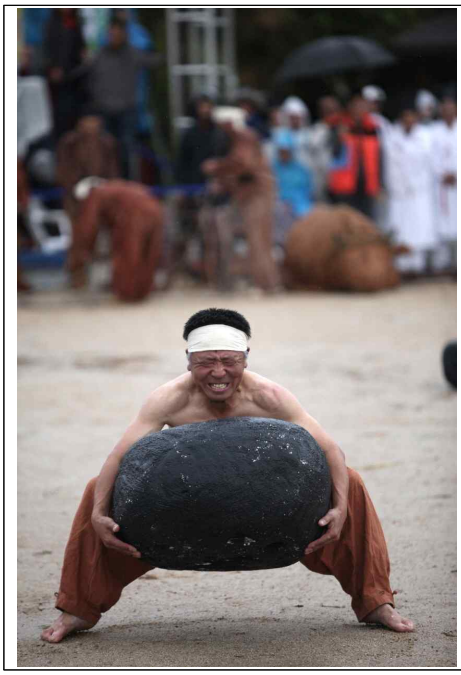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는 멜 컬름(거름), 원담 역시, 그물ᄀᆞ사, 멜 들었저 순으로 구성되며, 농사를 짓는 모습과 함께 거름 밟는 소리를 재현한다.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끝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아끈코지 양쪽을 축담해 잇는다. 바다 밑바닥을 주변보다 깊게 파서 썰물 때도 물이 고이게 만든다. 원담의 안팎을 수평으로 쌓고, 파도가 강하게 치는 부분은 곡선형으로 만든다. 접장의 지시에 따라 푸지게는 등에 돌을 지고 나르며, 지게는 두 사람이 돌을 들어주면 밑으로 들어가서 돌을 진 후 나른다. 목도꾼은 목도소리가 나오면 선소리에 맞춰 "어영차 나" 소리를 받아주며 큰 돌을 나른다.

원담이 완성되면 마을 사람 가운데 삼헌관을 뽑아서 그물ᄀᆞ사(고사)를 진행한다. 삼헌관은 해신과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에게 각각 고사를 올린다. 제물을 준비해 해신에게 유교식 제를 지낸 후 다시 제상을 따로 차려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에게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싸서 바다에 나가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바다에 던진다.

썰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원담에 가서 잡은 물고기를 확인한다. 원담에 갇힌 물고기를 궤엄지에 꽂거나 바구니에 담고, 멜은 족바지로 거려서 지게에 지고 와 바닥에 말린다. 원담에서 물고기를 풍성하게 얻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는 제주도의 어로잡이 과정을 반영한 경연작이다. 제주도의 전통과 마을 공동 노동의 모습을 훌륭하게 재현했다. 특히, 원담 축조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돌을 나르는 모습을 잘 나타냈으며,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 원담을 곡선으로 쌓는 실제 전통을 잘 표현했다. 전통이 왜곡 없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훌륭한 무대공연이라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 구미 무을(선산)농악 / 구미농악단

종목 농악
수상 국무총리(최우수상)
상금 15,000

구미 무을(선산)농악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의 마을에 전승하는 농악으로, 경상북도 내륙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이라 할 수 있다. 300여 년 전 경북 구미 수다사(水多寺)에 있던 정재진 스님(법명 미상)이 현몽한 일과 구전하는 내용을 소재로 풍물 가락을 만들어 인근 부락으로 전파했는데, 그것이 무을진굿의 유래라 할 수 있다. 정재진의 쇠가락을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에 사는 이군선이 집대성했다. 이후 상쇠의 계보는 무을면 오가리의 이남문과 윤필선, 그리고 무을면 무이리의 최일영으로 이어졌고, 최일영 상쇠는 무을면 무이리 김칠봉, 김인금, 무을면 안곡리의 김신배 상쇠를 배출했다. 진굿의 면모를 보여주는 무을농악은 전투적인 동작들이 돋보이며, 북놀이와 소고놀이는 판굿의 백미다.

무을진굿은 전형적인 전투 농악으로, 북 가락이 웅장하고 장쾌하고, 소고놀음이 발달하며, 예술성이 뛰어나고, 힘차고 박진감이 넘치며, 다양한 진을 빠르게 구연한다. 특히 무을농악의 행위를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영남풍물의 진수를 보여준다.

구미농악단이 실연한 무을(선산)농악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굿(행진곡, 인사굿)
농악에서 행진할 때 쓰이는 가락으로, 길군악이라고 한다.

2. 마당닦이
3분의 3박이며 경쾌하고 씩씩한 장단이다.

3. 정적궁
상쇠와 종쇠가 원진을 그리며 이동해 빠른 장단으로 논다.

4. 도드래기(엎어빼기, 덮어빼기)
도드래기는 별신굿을 할 때 집집이 지신밟기를 하며 치던 가락으로, 판안다드래기, 영산다드래기 등에도 쓰인다.

5. 품앗이굿
전 인원이 원을 그리며 돌고, 한가운데에 상쇠와 종쇠가 서로 가락을 주고 받는다.

6. 영풍굿
품앗이가 끝나고 쇠의 가락이 바뀌면 연풍대를 하며, 소고는 가락에 따라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기세를 자랑한다. 가락에 맞춰 각자 옆으로 뛰면서 춤춘다.

7. 허허굿
허허굿은 전투굿의 일종으로 자기 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알리는 장단과 신호로 이어진다. 가락에 맞춰 “허허” 하는 구령을 하며 신호한다.

8. 기러기굿(너랑나랑 둘이돌기)
기러기굿에서 악기잽이들이 양팔을 벌려 색띠를 쥐고 옆뛰기를 한다. 너랑나랑 둘이돌기 다음에 판굿

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둘이돌기를 하면서 연결한다.

9. 판굿(마당굿)

판굿은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악기잽이마다 상쇠 지휘에 따라 각기 원진을 그리면서 오방진을 치고, 기량을 펼친다.

10. 채굿(수박치기)

소고잽이들이 한가운데로 나와 춤을 추며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다. 춤을 추다 제자리를 빙빙 돌기도 하며,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을 가볍게 치기도 한다.

11. 진굿(진풀이)

군사굿 형태의 격렬한 진풀이가 특징인 놀이로, 마치 적을 포위하고 격전을 벌이는 모습과도 같아 역동적이고 신명이 난다. 정저굿 장단에서 시작해 똘똘말이로 감을 때 격렬한 장단을 친다. 끝날 무렵에는 상쇠의 술령수와 장의 신호에 따라 정저굿 가락을 치면서 푼다.

12 덧배기

격렬하게 몰아친 후 느리면서도 흥겨운 덧배기로 이어져 새로운 분위기로 몰아간다.

무을(선산)농악은 구전을 통해 그 역사적 연원이 확인된 것으로, 그 전통성과 지역적 독자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인정받은 바 있다. 일명 진굿으로 불리는 경상도 내륙 지역의 꿋꿋하고 강한 군악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강하면서도 멋들어지게 흥겨운 덧배기가락을 자랑으로 삼는다. 무을(선산)농악의 지역 특색이 뚜렷하고, 역사적 명분이 분명한 만큼 제대로 전승하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 용전걸궁농악 / 전통용전농악회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용전걸궁농악은 걸립농악에서 소리굿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농악대가 집집이 찾아가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는 축원덕담을 하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 돈과 곡식을 모으는 과정을 차례로 보여준다. 상쇠는 성주굿에서 성주풀이와 중천맥이, 액막이, 업타령, 노적타령으로 집안의 복을 빌고 업과 노적을 쌓아주는 춤과 노래를 펼치며, 이어서 잽이들이 개인 장기를 펼치는 구정놀이를 한다. 이후 모두가 성주를 향해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맺는다. 특히 대포수가 좌창과 우창을 데리고 걸립을 허락받는 장면은 호남 지역 농악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

용전걸궁농악의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어울림 가락과 허락

집주인에게 걸립굿을 해도 좋은지 허락을 받는 과정이다. 동네 마당에 농악대가 집결해 울림굿 가락을 치면, 대포수와 창부 두 명(좌창, 우창)이 걸립을 할 집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부른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 협상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2. 문굿 가락과 집안 입장

대포수와 창부가 걸립굿을 허락받으면, 농자기(농기)와 영기 두 개를 앞세우고 마당에 입장한 다음 마당밟이를 한다. 마당밟이를 한 농악대가 대청 앞에 늘어서고 잽이들의 장기를 보여주면서 성주신을 즐겁게 하는 놀이를 한다.

3. 걸립굿 소리와 춤 연희

농악대가 대청을 향해 서서 노래와 춤을 추면서 걸립굿을 한다. 성주 고사상을 앞에 놓고 농악대가 재담과 덕담으로 주인을 즐겁게 하고, 춤과 노래 과정을 보여준다.

용전걸궁농악은 전통적인 걸립 과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리는 중천맥이, 액막이, 업타령, 노적타령 등을 전승하고 있다. 걸립을 허락받는 과정에서는 마을을 벗어난 걸립인지, 아니면 마을 내 지신밟기인지 구분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영산강 유역에 위치해 기름진 평야가 있던 용전마을은 논농사와 관련한 농요가 발달해 용전들노래보존회에서 다양하게 보존하고 있다. 농악에서 전승하는 다양한 소리굿과 용전들노래의 공유와 상관성 여부도 흥미롭다.



● 경상남도 / 거창디딜방아상여액막이소리 / 거창디딜방아액막이소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 마을의 한 집에서 전염병이 발병하면 온 마을로 퍼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인명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액막이 풍습도 다양했다. 디딜방아 훔쳐오기는 전염병 특히,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액막이 방편으로 거창지방에 두루 성행했다. 이것은 방아의 절구공이가 마마 자국을 낸다는 신앙에서 기인한 것인데, 방아 손님을 상여에 태워 보냄으로써 액막이가 된다고 믿었다.

정월대보름 전후로 이웃 마을 어느 집에 있는 디딜방아를 밤중에 가서 몰래 훔쳐 오는데, 이를 위해 마을 아낙네들은 사전에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워 연습을 한다. 지정한 날짜가 오면 훔칠 방아가 있는 집으로 가는데, 디딜방아를 훔치려면 주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집에 모여 물레질, 다듬이질, 삼삼기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물레소리나 다듬이소리, 삼삼기소리 등을 한다. 시간이 되면 방아를 훔칠 집으로 가는데, 이때 방아를 무사히 훔쳐 나오면 다행이나, 만약 주인이 이를 알게 되면 방아를 못 훔쳐 가게끔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한다. 그러면 훔치러 갔던 사람들은 그 집에서 물러 나와야 한다. 그런데 방아를 훔쳐 일단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주인이 알았다 해도 방아를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일단 집밖으로 나온 디딜방아를 다시 집 안으로 들이면 오히려 주인집에 부정이 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인은 디딜방아를 이미 도둑맞은 것을 알 때도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서 그 디딜방아를 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부정된 것을 집에서 물려낸다는 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단 방아를 무사히 훔쳐 집 밖으로 나오면 집 앞에 미리 준비한 상여 위에 방아를 얹어 둘러메고 디딜방아 상여메기 소리를 하며 마을로 옮긴다. 이때 상여 뒤에는 가상주가 따르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한다.

마을로 옮긴 상여는 다음 날 아침 마을 당산나무에 세워 놓는데, 이때 호박의 붉은 속을 상여에 바른 다음 문종이를 겹으로 접어 상여에 붙이고, 왼쪽으로 꼰 새끼로 묶어두며, 붉고 푸른 천을 엮어 당산나무 주위에 둘러쳐 놓는데, 이는 잡귀를 물리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방아는 머리 쪽을 아래로 가게 하고, 다리를 위로 올라가게 세워 놓으며, 그 곳에는 여인의 꼬장중우를 씌워 두거나(거창읍 가지리 개화, 가북면 우혜리), 여인의 속바지나 삼베 수건, 그리고 속 적삼을 걸어두기도 한다(마리면 대동리 시목). 방아는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게 세워 둔다.

제물은 백시루 떡을 사용한다. 백시루 떡을 찔 때 가시가 있는 나무를 열 십[十] 자로 해 시루 위에 얹어 찌는데, 이것 역시 잡된 것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떡은 시루채 방아 앞에 놓는데, 시루떡 한가운데 칼을 꽂아둔다.

마을 공동재정이 넉넉한 곳에서는 무당에게 청해 마마 배송굿을 한다. 굿은 부정거리, 청배, 당산거리, 홍수맥이, 마마별상 배송거리, 뒷전거리 순으로 진행하며, 이때 홍수맥이 타령을 부른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마을에서는 그 곳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을 선정해 제를 올리는데, 제물을 차려놓고 축관이 축을 읽고 나면 제관이 제를 올린다. 이때 축관은 “앞도 당산 뒤도 당산, 영명하신 당산님네, 우리가 이래 비는 것은 당산 손님으로만 이래 비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 해 날아들고 묻어들고 질금질금 따라든 잡귀 잡신을 우리 마을에서 모두 실어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제명에 간 귀신, 몽달귀신, 처녀귀신, 오다가다 죽은 귀신 모두 다 모아서 우리 마을에서 확 쓸어 가지고 가옵소서” 하면서 절을 하는데,

축은 마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나면 마을 주민이 한 사람씩 나와 모두 자기 집안의 재액을 물리쳐 달라는 소원을 빈다. 제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이때 떡을 떼어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풍물을 울려 하루를 흥겹게 보낸다. 풍물을 치는 것도 신을 즐겁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거창 액막이 디딜방아 훔쳐오기에는 민속과 민요, 무속과 무가가 공존한다. 특히 <디딜방아 상여소리>와 <액막이 타령>과 같은 무가는 무속인들이 굿판에서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일반 주민 사이에서도 널리 전승했다는 것에서 또 하나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1. 방아찧기소리

간다고 간다고 가더니만 십리도 못가서 발병났네
덜커덩 덜커덩 디딜 방애 언제나 다찧고 임마중갈꼬
가마솥 콩죽은 펄펄끓고 방안에 애기는 깽깽우네
시엄니 죽으라고 공수했더니 보리방애 물붜논게 생각나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싶어 졌나 날두고 가는 님 가고싶어 갔나

2. 다듬이소리

저넘에 천불이 나고 울엄니 고생은 냉물이 났네
야밤중 깊어도 임오지않고 다듬이 소리에 수심만 진다

3. 물레소리, 삼삼기

<물레소리>

물레야 비리빙빙 휘 돌아라 대밭에 김도령 문밖에 있네
물레통 밑에서 잠자는 총각 언제나 커갖고 내 낭군 될꼬
물레야 비리빙빙 휘 돌아라 대밭에 앉은 낭군 밤이슬 맞네
물레야 돌거든 방안에 돌고 임오야 물레는 문밖에 돈다
물레야 돌아라 비리빙빙 돌아라 오르락 내리락 장기춤 소리
자다가 들어도 다가가 소리 아마도 우리 님 소린가보다

<삼삼기소리>

이삼삼아 옷 해 입고 무덤산에 놀로가세
칠월인가 팔월인가 벌초군이 만발했네
다 죽거라 다 죽거라 삼씨 장수 다죽거라
이삼저삼 삼을 적에 두 무릅이 다 붉혔네

4.질구내기소리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고야 병 병들면 못노나니다 하 얼씨구
가 갔으믄 갔제 제가 설마나 갈소냐
한이 영추야 네가 잘 있거라 하 명년 하 더울제 너 나 다시 올거나 하하 얼씨구
가 갔으믄 갔제 제가 설마나 갈소냐

5. 디딜방아 액막이상여소리

<상여소리>

(받는소리) 너너 너와 넘차 너화 넘차 방애요
(메기는소리) 너너 너와 넘차 방애태운 호사로다
이방애가 누방앤고 방아님네 방애로세
하게차게 차려입고 이마저마 불러보소
경상도라 거창뜰에 자주안차 좌정하니
자식없는 가중에는 아들자식 마련하고
떠나가소 떠나가소 거창땅을 떠나가소

<자진상여소리>

(받는소리) 너화넘차 방애요
(메기는소리) 가세가세 어서가세
돌좋고 정자좋아
동·서·남·북 대명천지
왔던 길로 돌아가세
날밝으면 못간단다
바삐바삐 길몰아라
정성으로 보내오세
고이고이 보내오세

<상여소리>

(받는소리) 너너 너와 넘차 너화 넘차 방애요
(메기는소리) 너너 너와 넘차 너화 넘차 방애요
마마방애 상여태워 남구위에 던져노니
이마 저마 봤던 손님 이집 저집 있던 손님
영험하고 기험하신 사주별상 마마님네
연지치고 얼굴에다 금으로다 닦은 마마
너너 너와 넘차 너화 넘차 방애요

6. 액막이타령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정월에 드는 액방아는 대보름날에 막고
이월에 드는 액방아는 이월 한식날 다 막아낸다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삼월에 드는 액방아는 삼월 삼짓날 막고
사월에 드는 액방아는 연등불로 다 막아낸다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오월에 드는 액방아는 오월 단오로 막고
유월에 드는 액방아는 유월 유둣날 다 막아낸다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칠월에 드는 액방아는 칠월 칠석날 막고
팔월에 드는 액방아는 한가윗날 다 막아낸다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구월에 드는 액방아는 구월 구일날 막고
시월에 드는 액방아는 안택고사로 다 막아낸다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점으로다 점지를 하고 0000 발원이오
명일랑은 동방석이 복일랑은 석숭이고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무쇠주머니 돌돌 말아 수명장수 발원하고
연년에 드는 삼재팔난 막아내는 액막이라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거창디딜방아상여액막이소리는 잊혀진 디딜방아 훔치기 민속을 재현한 것으로, 다양한 여자들의 일노래로 구성을 잘한 작품이다. 방아찧기, 다듬이, 삼삼기, 물레 등을 하면서 불렀던 여러 노래를 엮었는데, 대부분 아리랑 계열의 민요에 개사가 된 형태였으며, 질구내기소리는 사당패소리 중 길군악 계열 악곡의 흔적이 보였다. 상여소리는 이 지역 상여소리에 방아와 마마신의 내용을 담아 불렀으며, 액막이소리는 무당굿에서 부르는 노래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창디딜방아상여액막이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평안북도 / 평안도다리굿 / 평안도다리굿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평안도다리굿은 오래전부터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사령[死靈]굿으로, 망자[亡者]의 한을 강신무[降神巫]를 통해 풀고, 이승의 미련을 떨친 채 저승에 편히 안주하기를 비는 굿이다.

다리굿은 살아 있을 때 하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해 부유한 집안에서는 노인을 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산다리굿'이라 칭한다. 다리굿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상다리, 사자다리, 망자다리, 수왕다리 등으로 불리는 '다릿발'이다. 일곱 자, 일곱 치 길이의 삼베와 무명천(근래에는 소창을 사용함)을 준비해 놓고 대무당이 굿소리를 하면서 다릿발을 오가며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인도한다. 다리굿에서 부르는 무가는 '산염불', '비나수', '푸념' 등을 사용한다.

평안도다리굿으로 실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무녀와 그 일행이 입장해서 굿을 할 준비를 한다. 상주가 제를 올리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무녀가 굿을 시작한다.

2. 사방문 열기

무녀가 넋상 앞으로 이동해 긴염불과 잦은염불로 청배한 후 법구춤을 춘다.

3. 배따라기

무녀 중 한 사람이 다리(베)를 가르고 넋두리를 한 후, 다른 무녀들이 등장해서 각각 다리를 돌며 법구춤을 춘다. 이때 사자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움직임을 취한다.

4. 마무리

굿이 끝나면 마무리를 하고, '지장보살'을 염불하며 무녀를 따라 퇴장한다.

평안도다리굿은 죽은 자의 넋을 달래고 천도하는 의례로서 종교적 성격을 띤다.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문화로 일찍이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이다. 전형적인 다리굿의 면모를 잘 전승할 수 있도록 민속 전체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존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부산광역시 / 수영농청놀이 / 수영농청놀이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경기도지사(은상)
상금 7,000

수영농청놀이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그 명칭이 놀이로 되어 있으나, 소리가 주 종목이다. 수영은 1671년(현종12)부터 1894년 갑오경장까지 경상좌도수군절도영이 있던 곳이며, 수영강을 끼고 해변에 자리 잡은 대집단 공동체의 자연마을이었다.

이 지역은 8·15 당시만 해도 98%가 농민이었으나, 지금은 1가구의 농가도 없이 도시화가 이뤄졌다. 수영 사람들은 100여 년 전부터 공동작업의 조직화와 능률화를 위한 농청이 1960년대까지 존속했다고 하지만, 그 연원을 삼한시대 두레의 유풍이라 생각하면 고대로 소급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넓은 경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 인력을 극복하고자 일찍부터 두레 형식의 협동조합격인 농청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청원은 노동력이 있는 남녀로 구성되는데, 남자는 중노동을 위주로 하며, 여자로 구성된 내방청원[內房廳員]은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되, 모내기 철에는 모찌기와 모심기에 동원된다.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그 규율이 엄하므로, 만일 어기면 곤장으로 다스리고 심하면 추방했다고 한다. 수영농청놀이는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등 농요가 주를 이루고, 여기에 보리타작소리와 소싸움을 첨가한다. 이렇게 수영농청놀이와 농요는 엄격한 조직과 규율 속에서 운영되던 농청의 각종 작업 과정과 그에 따르는 민요들을 정리해 표현한 향토 예능이다. 특히 논농사의 작업들을 많이 반영해 농민의 생활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수영농청놀이는 '두레'의 일종이다. 두레는 지역에 따라 농사[農社], 농기[農旗], 농계[農契], 목청[牧廳] 등으로 불려왔다. 부산광역시 수영 지역은 고려 현종 때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개설한 이후 1894년 갑오경장으로 폐영[廢營]할 때까지 수군의 요새지였다. 지리적 특성으로 바다와 면한 수영성 동문 밖의 주민들은 어업과 염업에, 남북문 밖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했다. 따라서 생업 형태에 따라 좌수영어방놀이와 수영농청농요 등이 형성되었다.

영각수의 집합 신호에 따라 풍물패가 잠시 흥겹게 풍물을 울린다. 이 사이에 남녀 농청원은 놀이마당 입구에 행렬을 지어 선다. 행렬의 맨 앞에는 농청기와 농기를 앞세우고 영각, 호적, 꽹과리, 징, 장고, 북을 각각 하나씩 든 풍물패가 뒤에 선다. 이어 정자관을 쓴 양반이 따르고, 그 뒤로 검정소를 모는 소몰이, 쟁기를 지게에 진 농부, 누렁소를 모는 소몰이, 써레를 지게에 진 농부 순으로 선다. 그 뒤로는 가래를 어깨에 짊어진 목가래꾼과 줄가래꾼들이 따른다. 농청원들 뒤에는 내방청원인 부인들이 따른다. 이 가운데는 술동이를 이고 있는 한 사람과 함지박을 이고 있는 한 사람이 각각 포함된다. 행렬 맨 끝에는 도리깨, 풍석, 자루바가지, 대빗자루, 갈쿠리, 밀개, 대소쿠리, 키 같은 여러 농기구를 짊어진 농청원 한 사람이 따른다. 소리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찌기노래

1행이 3~4음절 4구로 된 2행시가 한 토막을 이루고, 선·후창으로 분창하니 선창은 독창이고 후창은 제창이다.

(선) "일월이 돋아와도……" (후) "매화대를 꺾어들고 ……"

2. 모심기노래

모찌기와 같이 주로 내방청원이 담당하며, 3~4음절 4구 1행이 앞뒤로 이어진다.

(선) “이논에다 모를심아 ……” (후) “우리부모 산소등에 ……”
모내기소리는 아침·중참·점심·후참·석양 등에 따라 가사와 가락이 달라진다.

3. 김매기노래

논김을 매는 남자들의 소리다. 북을 세 번 울리면 일제히 “에이 에이”를 두 번 하고, 앞소리가 “에ㅡ 헤ㅡ 아ㅡ 아” 라고 하면 뒷소리도 그 같이 하는데, 후창의 가사는 동일하다.

4. 보리타작소리

수영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하므로, 보리타작을 모내기와 동시에 한다. 가락은 1음보격으로 단조롭다.
(선) “어화” (후) “어화”(이하 동) (선) “때려라. ……”
모든 작업을 마치면, 동·서부로 나눠 소싸움을 하며, 판굿으로 끝맺는다.

수영농청놀이는 사라진 전통문화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되살린 것으로, 공동작업 과정과 농사노동요가 연희의 핵심이다. 도시화가 이뤄진 수영에서 농청이라는 농촌 자치조직의 공동작업과 놀이 과정, 그리고 그들이 부르던 농요를 재현한 것은 이 지역의 음악적·민속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협동, 단결, 근면 등 공동작업에 깃든 조상들의 정신 유산을 전승한다는 의미도 크다.




● 대구광역시 /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 달성설화리상여소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경기도지사(은상)
상금 7,000

달성 설화리의 상여소리를 작품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는 낙동강 연안의 비옥한 땅에 자리한 전형적인 농촌이다. 약 500년 전 성주 배씨가 입향해 마을을 이루고, 다음으로 김해 김씨와 나주 임씨가 입촌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왔다. 예로부터 이 마을 청년들은 부모를 위해 계를 모아 상여를 마련하고, 상여소리를 익혀왔다. 소리는 발인제를 지내고, 출상을 하면서 하직하는 소리, 대문 나가는 소리, 거릿제소리, 언덕을 오르고 내려가며 부르는 소리, 좁은 길 가는 소리, 다리 건너는 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1. 발인제

영이기가 왕진유택 재진견내 영결종천

2. 출상소리

선소리꾼이 북을 치며 앞으로 전진하고, 그 뒤를 상여꾼이 따른다.

(받는소리) 오호용 오호용 오호헤야 오호홍
(메기는소리) 어제 나절 성튼 몸이 저녁 나절 병이 들어
인삼 녹용 약을 쓴들 약덕인들 있을손가
무녀 불러 굿을 한들 굿덕인들 있을손가
찾는 것은 냉수로다 우리 부모 엄마불러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북망 산천을 찾아가자
인제 가면은 언제 오나 언제 다시 만나볼까
이십 전후 출가시켜 자식나서 길러보니
부모은공 갚자하니 어영간에 백발되고(후략)

3. 마을 밖에 나가는 소리

(받는소리) 오후오 시요 오호오 시요
(메기는소리) 이리 오소 이리 오소
백발 상주 이리 오소
우리 부모 만리갈때
노자돈도 갖고 오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명년 삼월에 봄이오면
너는 다시 피겠마는
우리 인생 한번 가니
다시 올줄을 왜모르요
북망 산천을 찾아가서
무덤을 안고 통곡을 하니
무정하다 우리 님은
왔느냐 소리도 아니하네(후략)

4. 외나무 다리 건너는 소리

(받는소리) 어화넘차
(메기는소리) 이리 오소 백발상주님
이리 오소 우리 부모
만리 갈 때 노자돈도
갖고 오소 스물너이
상두꾼들 외나무 다리
건너갈 때 발을 맞촤
조심하소 옛늙은이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늘 내가
당해보니 대문밖이
저승일세(후략)

5. 다리소리

(받는소리) 오호오호 다리여
(메기는소리) 다리주소 다리주소
천년 유택 다리주소
만년 유택 다리주소
흙골라 친구삼고
잔디잎을 옷을 삼고
이리오소 이리오소
백발상주 이리오소
우리 부모 만리 갈 때
노자돈도 갖고 오소
전라도라 지리산은(후략)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는 제55회 대회에 이어 연달아 출전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문화재청장인 은상을 수상했다.





● 인천광역시 /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 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경기도지사(은상)
상금 7,000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인천 지역의 경서동, 오류동, 반월촌 등지의 바닷가 마을에서 집을 짓기 전 집터 다지기를 할 때 부르던 노동요다. 이 작품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김준완(90), 허영로(82) 등의 고로들이 기억하던 소리를 복원한 것이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크게 집터 다지기 전에 지내는 터 고사, 땅 고르기, 땅 다지기로 구성된다. 그리고 일 중간의 여흥 장면과 일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뒤풀이 마당이 추가되어 있다.
집터를 다질 때는 무거운 지경돌이나 지경목을 열두 가닥(십이지 방향)의 동아줄로 묶은 다음, 집 지을 곳에 모여 동아줄 가닥을 나눠 잡고 노래에 맞춰 일제히 들어 올렸다가 힘찬 발구름과 함께 돌을 땅에 내려뜨린다. 이때 떨어지는 속도가 돌이나 나무둥치의 무게에 더해져서 땅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거운 돌이나 나무를 들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소요되는데, 이때 힘든 노동을 슬기롭게 해내기 위해 노동요인 지경소리를 부르는 것이다.

집터를 고르게 만들기 위해 흙을 퍼서 옮기는 작업에는 가래질소리가 불린다. 가래는 보통의 삽보다 큰 크기로 하며, 가래를 든 사람 외에 가래 양쪽으로 줄을 달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겨 힘을 보탠다. 가래질을 할 때는 <어하능청 가래여>의 가래질소리를 노래하는데, 이는 세 사람이 함께 노래를 해야 호흡이 맞아서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의 조기 잡는 배에서도 그물에 걸린 조기를 퍼낼 때 가래질을 하는데, 이때 부르는 가래질소리와 앞서 설명한 흙을 푸는 가래질소리는 음악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또 조기잡이 배에서 부르는 배치기 소리와도 느낌이 비슷하다. 두 곳 모두 가래를 사용해 일을 하며, 그 내용이 다를 뿐 푸는 동작도 유사해 동일한 음악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해안 지역에서 뱃노래와 육지의 일노래가 비슷한 구조로 불리거나, 동일한 악곡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땅을 부분적으로 다지는 작업에는 방아소리가 불린다. 방아소리 계열은 경기도 일대에서 회다지와 같이 땅을 다지는 동일 작업에서 널리 불리고 있어, 경복궁 건립 당시에도 방아타령이 토목노동요로 불리면서 경복궁타령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에 방아소리가 불리는 것은 경기 지역 방아타령권에 속하는 문화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메기고 받는 가창 방식으로 노래하며, 경쾌하고 뚜렷한 흐름새의 고조로 특징을 이룬다. 지경꾼들은 메김소리 때 잠시 피로를 풀고 힘을 비축했다가 받는소리와 동시에 일제히 지경돌을 당겨 올렸다가 내려친다. 지경소리는 무거운 지경돌이나 지경목을 일제히 들어 올리기 위한 신호 역할을 하며, 지경꾼들이 각자 동작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1. 입장

2. 터고사

<고사소리>
천개우주 하날되고 지개주축 땅생기니
국태민안 범년자 시화연풍이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둥하야

삼각산 뚝떨어져 계양산에 뻗은 줄기
봉황이 생겼으니 봉에 등에다 터를 닦고
학을 눌러 대궐을 짓고 대궐 밖은 육두로다
어영문 화각산은 각도 각읍을 마련헐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는 백호로다
이 고사를 지낼 적에 무슨 고산지 알어보소
이씨가중에 집을 짓되 정성으로 터를 닦어
원극허면 이씨대주 금명전에 김씨부인
비나이다 비나이다 만복을 비나이다

3. 가래소리

<가래소리>

(받는소리) 어화 능청 가래야하
(메기는소리) 어화 능청 가래야하
천지현황 생긴 후에
일월성진 밝았으니
동방에는 청제지신
남방에는 적제지신
서방에는 백제지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한가운데 황제지신
오방지신 힘을받어
동네사람들 모두 나와
깊이 파서 번쩍 들어
단단하게 밟아주세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보시오 주인님네
막걸리 한 잔 먹고 허세
저 하늘에 저구름아
구경하랴 머물었네

4. 방아소리

<방애타령>

(받는소리) 헤헤 헤헤야 허허라 우겨라 방애로 구나
(메기는소리)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를 아까운 이 청춘 다늙는다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를 잡으러 내안간다
밥도 먹구 술도 마시고 백한 삼년만 살다가 가세
니가 살면 천년을 사나 내가 살면은 만년을 사나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을 보고서 웃지를 마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이 더욱 섧다
명년 삼월이 꽃피련만 나는 언제나 다시 오나
너는 다시 피련마는 나는 언제나 다시 오나

5. 아낙네소리마당

<나나니타령>
나나나 산이로구나 아니 놀고 뭘할소냐
소연평 산은 칡산이요 엔평산은 춤산이로다
신작시 강변에 아가씨나고 바람만 불어도 다 쓰러진다네
장산곳 마루에 북소리나더니 이삼일만에 배돌아온다네
우리집 새서방 게장이 좋아서 게딱지 타고서 낚시질 간다네

6. 지경다지기

<지경소리>
(받는소리) 에 여라 지경이야
(메기는소리) 다져주세 다져나 주세
단단하게 다져나 주소
이 집 한번 짓자하면
일심 공덕 다 들였으니
대궐같은 집을 짓세
이 명당을 살피어보면
백두 대간이 뻗쳤나요
계양산이 생겼는데
계양산 난맥이 떨어져서
이 터전이 생겼구나
좌를 보면 청룡이요
우를 보면 백호로다
명당일세 명당일세
쾅쾅 찧어라 지경이야
동네 내력을 보자하니
석탄면에서 반을 떼어
천마산에 정기받어
한강수에 물줄기로
망망대해에 이루었네
여보시오 지경꾼들
일심써서 다져나주소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가까운 사람은 보기나 좋게
우리네 인생 살고지고
이 터에다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아보세

7. 신명풀이

인천광역시 쑥대고잔 지경다지기소리는 집터 다지기 전에 지내는 고사, 땅 다지기, 그리고 방아타령, 땅 다지기가 끝난 뒤 상량식과 대동마당으로 나뉜다. 이 작품은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도지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 전라북도 / 김제농악 마당굿과 도둑잽이굿 / 김제시우리문화연구회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5,000

김제농악은 호남 지역에서 전승하는 많은 농악 중 하나다. 특히 우도농악으로 분류되는 전라도 평야지대의 농악으로, 김도삼, 나도숙, 현판쇠, 백남윤에 이르러 예능적으로도 중요한 면모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제농악은 가락이 풍성하고 판의 구성이 다양하며, 치배들과 잡색들이 한 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도둑잽이굿, 일광놀이 등 연희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우도농악의 특징인 고깔을 쓰고 연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랫놀음이 발달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쇠 놀이, 설장구 놀이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김제농악은 용당기와 농기, 영기, 나팔, 좌상, 중좌상, 총각좌상, 상쇠, 부쇠, 삼쇠, 징, 설장구, 부장구, 삼장구, 수법수, 부법구, 삼법구, 팔법구, 대포수, 창부, 구대진사, 양반, 광구, 각식광대, 조리중, 무동한 쌍, 중광대 등으로 편성된다.

전통적인 김제농악의 형식은 당산제로 시작해 걸궁굿, 기맞이굿, 망월굿, 줄굿, 칠월칠석굿, 지심매기굿, 영풀베기, 주당매기, 무제굿, 노적굿, 기싸움, 술매기굿, 배굿, 보매기굿, 기타굿, 판굿으로 이어진다.

김제농악의 판굿은 주된 가락이 풍류굿, 덩덕궁이, 오채질굿, 호호굿 등이며, 구체적인 진행은 '내드림'을 시작으로 느린오채질굿, 자진오채질굿, 풍년굿, 양산도, 느린삼채, 자진삼채, 벙어리삼채, 오방진, 호호굿, 거듬살이, 미지기, 두마치굿, 일광놀이, 짝드래기, 노래굿, 구정놀이, 문굿, 도둑잽이, 탈머리굿, 탈복으로 구성된다.

김제농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마당
농악대가 입장해서 원형을 이룬 상태에서 오채질굿, 풍년굿, 양산도, 삼채굿 등을 한다.

둘째마당
오방진을 치면서 큰 원을 그리다가, 세 방향에서 진오방진을 치면서 달팽이진을 만들었다가 풀기를 반복한 후 다시 큰 원을 그리며, 삼채, 빠른삼채, 매도지로 마무리한다.

셋째마당
원형을 이뤄 호호굿을 진행하다가 도둑잽이굿을 진행한다. 도둑잽이굿은 잡색의 수장인 포수가 상쇠의 꽹과리를 훔쳐갔으므로, 상쇠와 치배들이 꽹과리를 훔쳐간 도둑을 찾아내기 위해여러 놀이와 재담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도둑잽이굿을 할 때는 원형 옆에 있는 문복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등의 장면을 연출하고, 도둑을 잡으면 다시 원형을 만들어 달어치기를 하다가 원형 안에서 두 줄을 만들고, 빠른삼채, 매도지로 마무리한다.

개인놀이
꽹과리, 장구, 고깔소고, 열두발상모 순서로 개인놀이를 한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의 하나로, 특히 판굿의 다양한 진풀이와 함께 뒷굿의 도둑잽이를 전승하고 있어

서 민속예술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호남의 지역성을 잘 간직하면서도 과거에 명성이 높았던 여러 치배가 존재하면서 예술적인 기량을 높였던 만큼,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충청남도 / 천안거북놀이 / 천안거북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상금 5,000

충청남도 천안거북놀이는 천안 구덕리에서 전승하는 거북놀이를 재현한 작품이다. 거북놀이는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추석에 행해진 놀이다. 이 놀이는 마을 청소년들이 추석에 성묘를 다녀온 후 수수대로 거북이를 만들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던 놀이로, 동네의 잡귀를 쫓고 마을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했다고 한다.

천안거북놀이에는 특별한 유래가 있다. 고려 현종 때 가뭄과 흉년이 계속 들어 현종이 고을을 돌아보다가 천안부 직산현에 와서 머무르던 중, 꿈에 신라 문무왕이 나와 한가위에 거북을 보내겠으니 거북을 닮은 마을에서 수숫잎으로 옷을 해 입고 거북놀이를 하라고 했다. 천안군 입장면 구덕리가 거북이 형상이라 추석에 대신들과 주민들이 그곳에서 거북놀이를 했더니 이듬해에 풍년이 들었다. 이를 계기로 구덕리 주민들은 추석마다 거북놀이를 했다고 한다.

천안거북놀이는 문굿, 우물굿, 터주굿, 대청굿, 마당거북놀이로 구성된다.

- 질라래비가 거북이를 이끌고 가면 그 뒤를 기수, 거북이·남생이, 남종·여종, 마을 사람, 무동, 소고, 악기잽이 순으로 따라간다. 질라래비를 따라서 대문 앞에 도착하면 문굿을 하고, 삼배 후 대문을 들어간다.

- 집안에 들어서면 먼저 우물로 향한다. 삼채를 치고 마당을 지나 자진가락을 치며 우물굿을 한다. 질라래미가 사해 용왕님을 향해 축원을 올리면서 우물굿을 한다. 축원 후에는 자진가락을 맺고, 삼배 후 덩더궁이 가락을 치며 이동한다.

- 마당으로 이동해 터주굿을 한다. 마당에 도착하면 마당삼채 자진가락을 맺고, 질라래미의 축원을 시작한다. 질라래미가 질토지신, 오방관신에게 기원을 한다. 기원이 끝나면 자진가락을 맺고, 삼배 후 다시 덩덕궁이 가락을 치며 이동한다.

- 대청 앞에 도착하면 사통을 풀고 대청굿을 한다. 대청 위 대들보에 있는 대주신에게 치성을 드린다. 집주인은 마루에 돗자리를 펴고 큰상을 앉힌다. 한지나 흰 보자기로 상을 덮고, 그 위에 쌀 한 말 정도를 올려 숟가락을 꽂고, 그 위에 실타래를 올린다. 준비가 끝나면 상쇠가 고사를 올린다.

- 대청굿이 끝나면 질라래비의 선창에 따라 마당으로 가서 다양한 행동과 춤을 추면서 거북을 놀린다. 이때 쩍쩍이춤, 꼽추춤, 작대기춤 등을 신명 나게 춘다.

충청남도 천안거북놀이는 천안 구덕리의 특별한 유래를 바탕으로 구성한 경연작이다. 다만 이것이 공연에서 잘 드러나지 못했고, 거북놀이 구성원에서 남종·여종, 마을 사람, 무동, 소고가 전통적인 모습이었는가에도 의문이 든다. 또한 문굿, 우물굿, 터주굿, 대청굿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무대에서 잘 구성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 경기도 / 철산리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 / 광명문화원(광명농악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5,000

철산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는 300여 년 전 경기도 철산리 소하리 일대에 돌림병이 발병했을 때, 이를 물리치는 의식을 재현한 작품이다. 보통 정월대보름 당산제가 끝나면 여성들이 인근 마을로 디딜방아를 훔치러 가고, 훔쳐온 디딜방아를 마을 입구에 거꾸로 세워 둔 후 부인들 속곳을 거꾸로 입혀놓으면 잡귀나 질병을 막는다는 믿음이 있다. 이 놀이는 돌림병이 돌자 마을 대동회의를 열어 제물을 올리고, 이웃마을 디딜방아를 훔쳐 거꾸로 세워 놓은 후, 주위에 부엌칼을 세우고, 솥뚜껑을 거꾸로 이고, 왼새끼로 금줄을 치고, 마을 입구에서 치성을 드리며 역병이 물러가기를 기원했던 모습을 재현했다.

놀이는 목신제, 당산제, 디딜방아 찧기, 역병창궐, 디딜방아 훔치기,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마을대동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 당산제는 당산나무 앞에서 제물을 올리고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제의는 문향강산, 초헌, 독촉, 아헌, 종헌, 소지의 순으로 한다. 소지가 끝나면 마을 사람 모두 음복을 하고 농악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 당산제가 끝나면 논일·밭일을 마치고 사람들이 절구와 디딜방아로 곡식을 찧는다. 곡식을 찧으면서 방아소리를 한다. 이때 이웃마을에 돌림병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돈다. 부녀자들은 액막이를 해야 한다고 수선을 떨고, 마을 회의를 열어 액맥이를 할 것을 결정한다.

- 액막이를 위해 남자는 왼새끼를 꼬아 마을 주위에 금줄을 두르고, 부녀자들은 디딜방아를 훔칠 장소를 모색한다. 밤이 되면 아낙네들은 상주 한 명을 정하고 장정 서너 명을 앞세워 미리 봐둔 이웃마을로 디딜방아를 훔치러 간다. 장정들이 방아를 떼어오면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부녀자들은 함께 방아를 메고 온다. 이때 선소리꾼이 상여소리를 하며, 마치 상여가 나가듯이 방아를 마을로 가지고 온다. 이때 마을 부녀자 중 한 명은 잡귀를 쫓기 위해 솥뚜껑을 머리에 이고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따라온다.

- 훔쳐 온 디딜방아가 마을에 도착하면 농악대와 남자들이 행렬을 맞이한다. 디딜방아 다리에 피 묻은 여자의 고쟁이를 입혀 마을 입구에 세우고 왼새끼를 걸친다. 디딜방아 주변에 집집이 가져온 부엌칼을 꽂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부녀자들은 고쟁이를 벗어 디딜방아와 금줄에 걸고, 사방에 팔죽을 뿌려 역병이 물러나기를 기원한다.

- 액막이가 끝나면 음복을 나눈다. 역병이 물러가면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함께 대동놀이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손님마마가 물러갔다”, “괴질이 물러갔다” 등 환호를 지르며 한바탕 신명을 푼다.

경기도 철산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는 300여 년 전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놀이 형태로 만든 경연작으로, 액막이 과정을 이야기 전개에 맞춰 무대 공연으로 재현한 점이 탁월했다. 또한 광명농악을 기반으로 한 농악이 잘 어우러졌다. 전체적으로 잘 짜인 구성을 보여준 무대 공연이었다.





● 황해도 / 만구대탁굿 / 만구대탁굿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한국문화재재단(동상)
상금 5,000

만구대탁굿은 황해도 지역에 전승되는 굿으로, 단골의 구설과 액운을 막고, 국태민안을 기원한다. 달리 '만구대택[萬口大澤]굿' 또는 '만수대탁굿'으로도 불린다. 이 굿은 크게 두 개의 굿이 이중적으로 구성된 형태를 띠는데, 앞부분은 재수굿인 철물이굿의 제차로, 후반부는 넋굿으로 진행된다.

제53회 대회 참가 당시에는 24거리 중 3개 굿거리, 즉 네 번째 '산천거리', 다섯 번째 '칠성거리', 스물한 번째 '장군거리(작두거리)'만 연행했다.

1. 산천거리

본격적인 굿이 시작되는 거리로, 맑은 정기를 가진 산천의 신들을 굿청으로 모셔오는 굿이다.

2. 칠성거리

칠성님을 모시는 거리로 모든 사람들의 명과 복을 빌어주는 굿이다.

3. 장군거리(작두거리)

주무가 여러 장군신을 모신 후에, 쌍작두 위에 올라서 액운을 막아달라는 기원을 하면서 춤을 추고, 만백성의 나쁜 액을 작두로 눌러주며 공수를 하는 굿이다.

만구대탁굿은 황해도 지역에 전승되어온 다양한 무속전통 중 황해도굿의 정수가 종합된 굿거리다. 굿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로는 의의가 있는 작업이었으나, 본래 굿이 가진 큰 규모의 성격이 축제 시연 현장에서는 제약된 채 연행되므로, 그 특징을 잘 살리는 과정과 전통적인 형태 그대로 완결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 강원도 / 태백문곡동웃벌마을산간민요 / 태백문곡동웃벌마을산간민요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평택시장(장려상)
상금 3,000

태백문곡동웃벌마을산간민요는 태백시 문곡동 웃벌마을에서 전승하는 민요를 묶은 작품이다. 이 지역의 <아라레이>는 정선아라리의 영향을 받은 소리다. 이 작품은 태백지역에서 산에 제사를 지내는 산멕이와 <아라레이>, 갈풀써는 소리와 엽전노름놀이인 사스랭이소리, 그리고 기타 민요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산멕이소리

산속이나 깊은 계곡, 산의 중턱, 산의 정상 같은 장소에서 가내 평안과 가축의 번성을 기원하며 제를 올리는 의식이다. 징을 연주하며, 독경소리로 손비빔을 했다.

2. 태백아라레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불원천리 정선땅에 돈벌러 왔다가 꽃같은 요내 청춘 탄광에서 늙네
작년간다 올해 간다 석삼년이 지나고 내년 간다 구년 간다 열두 해가 지났네
상지연못 깊은 물은 낙동강의 근원이요 깊은 막장 검은 탄은 먹고 사는 근본일세
십리앞산 줄감나무야 밤이나 덜썩 열어라 광지에 아줌마들아 줄밤따러 가세
문어낙지 오징어는 먹물이나 품지 이내 몸 목구멍에는 검은 가래가 끓네
속리고개 속리새는 자물새 고개인가 돈벌러 들어왔다가 오도가도 못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3. 갈풀썰이

매년 음력 7월경이 되면 농사를 위해 집집이 돌아가며 갈풀썰이를 두레형으로 펼쳤다. 퇴비를 장만하기 위해 작두로 갈풀을 썰 때는 갈풀써는 노래를 부른다. 각종 나무 이름을 나열하는 재미있는 곡이다.

(받는소리) 아 좋다 갈풀이야
(메기는소리) 풍덩풍덩 풍덩새 풍덩새가 우는구나
자작자작 들어간다 자작나무 울어리라
불싸리 들어간다 양반쌍놈 객지기다
양반쌍놈 들들나무 보리기가 황장목이다
실리앞산 줄밤나무 새화황잎 새초나무
장인장모 딸까시 엄중시댁 엄중나무
동·서·남·북 짚덤불은 토끼 양식 가늠나무

메뚜기 담뱃대에
지렁이에 갈빗뼈다
양자무 뼉다구다
숫처녀에 불알이다
물씬물씬 물렀구나
울어리다 울어리
벌벌떠는 사시나무

칭칭울었다 칭칭나무
방귀뀌었다 뽕나무는 냄새난다 개똥나무
멀어진다 머루나무 달아난다 다래나무
깡충뛴다 깨금나구 벋어난다 버드나무

4. 사스랭이소리

사스랭이는 200여 년 전부터 태백 지역에 전해 내려오던 것으로, 상갓집에서 밤샘을 할 때나, 의병이 밤에 번을 설 때 하던 엽전노름이다. 노름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주로 숫자풀이를 하는 불림이다.

5. 여흥소리

'나물 뜯는 소리'는 여가를 이용해 산나물을 캐러 가서 놀이와 함께 유희를 즐기며 부르는 민요다. 엮음 아리랑은 아리랑에 랩(rap)과 같은 가사로 흥을 돋우기 위해 즉흥으로 주절주절 엮는 소리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부르는 여러 노래를 엮은 작품이다.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가사가 돋보이다. 갈풀써는 소리에서는 작두질을 할 때 나무의 성질에 따라 힘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의 성질을 일러주는 가사들이 흥미롭다. 나무타령의 나무 이름을 푸는 가사도 재미있다. 사시랭이와 같은 불림소리와 여러 재미있는 노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인데, 이를 묶어 작품으로 구성하고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대회에서 평택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함경남도 / 돈돌날이 / 함경남도북청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평택시장(장려상)
상금 3,000

'돈돌날이'는 함경남도에서 전승하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민요다. 돈돌날이 춤은 누구든지 바가지 장단 또는 북 장단과 노래에 맞춰 춤판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돈돌날이'란 '동틀 날'에서 비롯된 말이며, 세상에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 담겨 있다. 주로 한식 및 단오에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시풍습의 하나로서 모래산과 남대천에서 연행을 했다. 함경도의 독특한 춤사위인 달래 춤과 넋두리 춤이 곁들여져 토속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며, 북과 바가지, 자배기 장단이 신명을 돋운다. 이 작품은 돈돌날이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봄철나비, 미나리 꽃, 전갑섬 타령, 삼천리 노래, 양유나 청산, 라리라 돈돌리띠리, 내 고향 북청, 흘레레 레뗄레, 가자, 가자, 리라 리라 라리요, 좋구 좋소 등 다양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돈돌날이에 연행된 춤사위는 일명 '달래 춤'이라고 하는데, 북과 바가지, 퉁소, 징이 조화를 이룬 장단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춘다. 홀개치기를 제외하면 정형화된 춤사위는 없지만, 흥과 신명이 고조되면 자기만의 독창적 춤사위로 관객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춤사위의 특징은 손이 어깨 위에서 손목과 팔이 내려오지 않고, 어깨와 손목과 오금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자연스러움을 더하며, 오금과 발뒤꿈치를 이용해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부녀자들이 흥과 신명이 고조되면 집단으로 춤사위를 연행하는 것을 '넋두리 춤'이라고 한다. 둥글게 원을 만들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회전을 많이 해 생동감이 넘치며, 춤사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돈돌날이에 연행된 장단은 굿거리 장단과 자진 굿거리 장단의 중간 정도 되는 장단이다. 부녀자들이 북과 함지 및 자배기를 이용해 장단을 연주하는데, 북이 전체 장단의 완급을 조절하며 놀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바가지 장단은 커다란 함지에 물을 가득 부어 바가지를 띄우고, 바가지 속에 놋그릇과 수저와 젓가락을 넣어 소리를 낸다.

<돈돌날이>

(후렴)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 시내 강변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 강산아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 리라 리라리 돈돌날이요

<이 강산 서산에>

이 강산 서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일출 동산에 해가 솟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새날이 밝아온다

<쏠라이쏘>
쏘쏘 쏠라이쏘 거스러미도
남대천이 거스러미 반짝거린다
쏘쏘 쏠라이쏘 거스러미도
모래산에 거스러미 반짝거린다

<리라 리라 라리요>
내고향 좋아요 내고향 좋아요
우리 북청 고을이 내고향 좋아요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우리네 부모는 나를 고이 길러서
짝을 지어 주려고 시집을 보내네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수해양천에서 따님이 왔노라
시집을 안가겠다고 맹세를 하여도
가매채 올리면 할 수가 없구나
명주이불을 덮기만해도
이불속에서 풍니만 하노라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인조이불은 덮었지만해도
하룻밤 정리를 잊지만 마세요
리라 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라리라 돈돌리띠리>
라리라 라딸라 라리라 라딸라리요
리띠리띠 리릴라
다리가 리리 띠띠릴리
야야 이 사람아 넬네레넬 걸어라
남대천변으로 가잔다
다리가 리리 띠띠릴리
리띠리띠 리릴라
라리라 라딸라 라리라 라딸라리요
리띠리띠 리릴라
라리라 돈돌 리띠이리

리띠리띠 리띠이리

<전갑섬타령>

양천전촌에 전갑섬이 오매한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갱피방아찧기가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별안대이촌에 말이났소
나는싫소 나는싫소 밥임나르기 나는싫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양촌전촌에 전갑섬이 해안전촌에 말이났소
나는좋아요 나는좋아 해안퉁소가 나는좋소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좋구 좋소>

좋구 좋소 에라 좋구나
이십살 애들이 놀기 좋구나
십팔세 젊은시절이 놀기 좋구나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아름다운 매화꽃이 곱게 피었네
라리라 이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돈돌날이는 제53회 대회부터 네 번 연속 출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평택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전라남도 / 현천용천제 / 향토민속문화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평택시장(장려상)
상금 3,000

‘현천용천제’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마을에서 행하는 용천제를 재현한 경연작이다. 현천마을의 현천은 ‘물이 귀하다’란 의미로 붙여진 지명이다. 현천마을은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인 국사봉은 영험하기로 유명하다. 국사봉 천제단에는 고려 때부터 현감이 제을 올렸다고 한다. 이 산 중턱에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용천이 있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용천에서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천제를 지냈다고 한다. 용천제를 지낸 후에는 용천수를 큰 샘으로 끌어오는 의식을 행한다.

현천용천제는 솟대세우기, 용물 달아오기, 샘고사, 대보름줄다리기, 지신밟기 순으로 구성된다. 주민들이 모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액운을 막기 위해 솟대를 세운다. 솟대를 세워 액막이를 한 후에는 놀이판을 진행한다.

솟대를 세운 후에는 용천샘의 물을 달아오는 행위를 한다. 이때는 모의로 용물을 달아오는 행위를 하며, 용천 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을 허락받는다.

용천샘에서 달아온 물은 마을의 큰 샘으로 이어진다. 용천샘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큰 샘도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다. 이를 통해, 마을의 물이 마르지 않고 풍년이 되도록 기원한다.

샘고사가 끝나면 주민들은 편을 나눠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를 통해 마을의 화합을 다진다. 그리고 농악을 치면서 지신밟기를 하며, 마을의 번영과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빈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어우러져 신명을 푼다.

전라남도의 현천용천제는 지역 특수성에 기반해 창작한 작품이다. 현천마을 용천제에 대한 유래와 특징이 뚜렷해 이를 공연 형식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의 통일성에는 아쉬움이 있다. 같은 정월대보름 풍습이라고 할지라도 ‘용천제’라는 제목에 맞는 구성에 있어 전체적인 의미와 전통성을 흐리게 된다. 마을의 용천제에 집중해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함경북도 / 두만강뗏목놀이소리 /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평택시장(장려상)
상금 3,000

'두만강뗏목놀이소리'는 예부터 함경북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인 목재를 채집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노동요다. 벌목한 나무를 떼로 엮어 강 하류 지역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는 이를 '뗏목꾼'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뗏목 위에서 일주일 정도 여정을 보내면서 고됨과 외로운 신세를 읊조렸던 것이 지금의 두만강뗏목놀이소리로 남게 된 것이다. 강 위에서 뗏목놀이를 하던 마을 사람들이 뭍으로 와서 재현하고 즐기던 것이 형태를 갖추면서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으나, 기본 내용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해 산판 생활과 뗏목 생활을 담아낸 것이다.

1. 마을 치성과 환송

벌목꾼들이 벌목하러 떠나는 날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에 모여 벌목장으로 떠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서낭신에게 고하는 의식을 치른 후 즐거운 마음으로 아쉬운 이별을 하며 산으로 보낸다. 깊은 산에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짐승들이 살고 있어,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 악기를 연주하고 신방곡이란 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올라간다.

<신방곡>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아이고 내 딸 공덕아 아이고 내 딸 심청아
내어디 갈까 에헤에 산으로 갈까 에헤에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지리
아이고 내 딸 잠자게 아이고 내 딸 놀아게
내 어디 갈까 에헤에 산으로 갈까 에헤에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2. 벌목꾼 산 오르기

산에 올라 벌목할 지경을 설정하고, 평평한 곳의 나무를 대표 나무로 선정하며, 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오늘부터 벌목할 것임을 목신에게 알리는 의식을 행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후 벌목을 한다.

3. 나무치성과 벌목하기

벌목하기 전, 나무 앞에 고사상을 차려놓고 벌목 허락을 청원하는 의식을 행한 후 벌목하며 부르는 노래로, 나무하는 소리와 톱 소리를 부르는 등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노래에 모두 담아 표현한다.

<나무 하는 소리>

여기도 산이구나 에야
에헤야 에헤야
좋은네 소리나 한마디 하고 보자 에야
에헤야 에헤야

일락 서산에 해떨어지고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우리야 인생 또 산간다네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청솔가지 찍어내여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한짐가득 찍어보세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우리들에 차지도 못하고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이런 고생하고 사네 에야하아
에헤야 에헤야

<톱질하는소리>
슬렁슬렁 당기어라
이 나무 허리가 가늘어간다
이헤 에헤야 어서 어서 당겨라
이 나무 넘어 넘어 간다
이헤 에헤야 어서 어서 당겨라
이 나무 넘어 넘어 간다

4. 나무를 목도해 산 아래로 운반
벌목한 나무를 산 아래로 운반하는 과정 중 목도로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힘을 합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요로 목도소리를 부르면서 운목해 산에서 내려온다.

<목도소리>
엥여차 엥여엥여 엥여차
엥여엥여 엥여허 엥여차
엥여허 엥여차 엥여허 엥여차

5. 부녀자들의 하루일과
주부들이 가정을 위해 내조하는 모습으로, 절구질하며 키질하고 옷감에 푸세를 하는 다듬질과, 다리미와 인두로 옷을 손질해 가족들에게 의복을 입혀 내보내는 일상을 표현한다.

6. 뗏목 떠나보내기
엮어진 뗏목을 강물에 띄우기 전, 용왕신과 바람신에게 뗏목의 운행을 보살펴 탈 없이 다녀오게 해 달라는 고사를 올린 후, 가족과 친지들은 전송한다. 뗏목꾼들은 뗏목을 타고 가는 긴 여정을 노래로 표현한 유벌가[流筏歌]를 부르며 항해한다. 목적지에 당도해서는 뗏목을 건네주고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신고산타령>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차 가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밤봇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뗏목소리>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빙글빙글 두만강수로 내려간다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야디야
들어간다 물은 콸콸 가슴 두근두근
00물이 넘는다 어떻게 갈까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야디야

7. 어울림한마당

뗏목꾼들이 무사 귀환한 기쁨을 가족은 물론 온 동리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춤추고 노래하며 해후하는 흥겨운 마당놀이며, 일곱 마당으로 작품을 마감한다.

두만강뗏목놀이소리는 제55회에 이어 출전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평택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평안남도 / 평양검무 / 평양검무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평택시장(장려상)
상금 3,000

평양검무는 평안도의 대표 작품 중 하나다. 평양검무 전승자 이봉애 선생은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리 출신으로, 평양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녀 서문여고를 졸업했다. 그의 나이 14세에 평양권번 출신 예기 김학선을 만나 평양검무를 사사했고, 현재는 이봉애 선생의 제자들이 평양검무를 전승하고 있다. 이봉애 선생은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해마다 정기공연을 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평양검무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평양검무는 입춤, 앉은 춤, 칼춤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입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일자 사위

2. 앉은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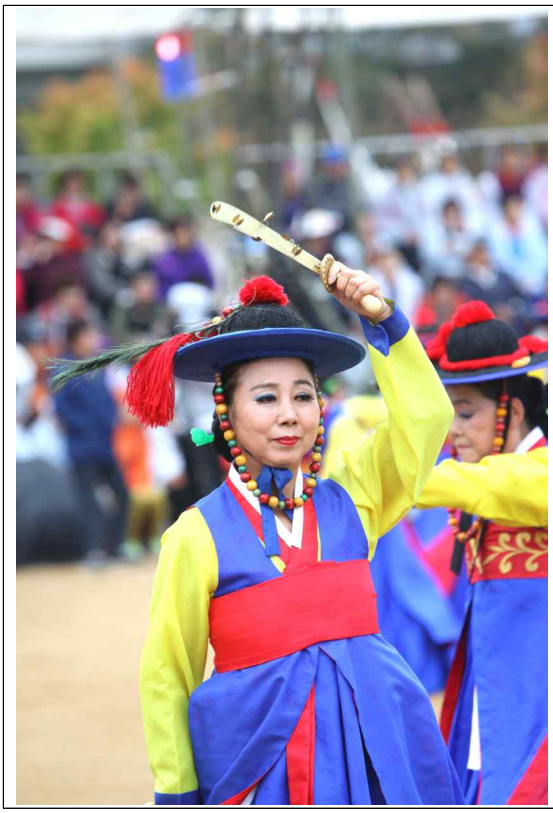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두 손 모아 허리춤
(3) 옆으로 허리춤
(4) 두 손 위로 모아 허리춤

3. 칼춤

(1) 한칼 사위
(2) 쌍칼 사위
(3) 서서 기본 동작사위
(4) 반돌기
(5) 칼 뽑기 동작
(6) 양팔 벌려 두 번 돌리기
(7) 건곤 사선 사위
(8) 반돌기 사위
(9) 앉는 연풍 사위
(10) 까치 사위
(11) 번개 사위
(12) 머리 쓸기 사위
(13) 인사 사위
(14) 하늘 치기 사위
(15) 빨리 돌기 사위
(16) 양팔 벌려 칼 돌리기 사위
(17) 유진 유퇴
(18) 도는 연풍 앉아 칼 돌리기
(19) 머리 쓸며 까치 사위
(20) 칼로 땅치기 사위
(21) 돌아서 기본사위

(22) 좌우 칼 돌리기
(23) 번개사위
(24) 앞 돌리기
(25) 번개 사위 4, 2, 4
(26) 마지막 인사

평안남도의 평양검무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여러 차례 출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평택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충청북도 / 입석리선돌제 / 입석선돌제보존위원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입석리선돌제’는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에서 선돌에 치성을 드리는 행위를 반영한 작품이다. 입석리 마을 입구에는 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선돌 7개가 서 있는데, 여기서 마을 이름 ‘입석리[立石里]’가 유래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선돌이 있는 곳이라 해 ‘선돌백이’라고도 부른다. 입석리 주민들은 선돌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다. 그래서 선돌에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작은 돌을 선돌 위에 던져서 그 돌 위로 올라가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

입석리선돌제는 입장, 힘겨루기, 선돌나르기, 선돌쌓기, 금줄꼬기, 금줄감기, 콩심기, 애기씨돌 선돌에 얹기, 선돌제의식, 비손하기, 풍년놀이, 퇴장 순으로 구성된다. 우선 풍장패가 길놀이를 하며 입장을 한다. 마을 주민들이 전부 입장하면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힘겨루기는 무거운 돌 들기로 한다. 더 무거운 돌을 드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이 힘겨루기에 따라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역할이 달라진다. 진 마을은 무거운 선돌을 나르고, 이긴 마을은 선돌을 쌓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 함께 금줄꼬기를 한다. 왼새끼로 금줄을 꼰 후 마을의 부정과 액운을 막기 위해 선돌에 감는다. 금줄감기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흩어지고, 아낙네들은 콩심기를 하며 소리를 한다.

콩 심는 소리가 끝나면 아낙네들은 다시 선돌에 가서 아이를 얻고자 선돌 위에 애기씨돌을 던져 올린다. 던진 애기씨돌이 선돌에 얹어지면 아이를 잉태한다고 해, 성공한 아낙네들은 신명 나게 춤을 추고, 실패한 아낙네는 땅을 치고 통곡한다.

이런 행위가 끝나면 선돌에 가서 축원고사를 지낸다. 마을 주민들은 횃불을 들고 등장해 병이 낫기를 기원하거나 아들 출산을 기원한다. 고사와 비념이 끝나면 풍년놀이를 해 모두 나와 한바탕 신명 나게 논다.

충청북도의 입석리선돌제는 지역 특성을 토대로 한 경연작이다. 마을 상징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공연을 구성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전통에서 벗어난 요소가 다수 첨가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힘겨루기를 해 역할을 나누고, 선돌을 새롭게 쌓아 올리는 과정이 놀이 본래의 전통인지 의문이 든다. 마을 상징물인 선돌의 소중함을 나타내기보다는, 공연 자체를 위해 짠듯한 구성이 아쉬움을 더한다. 반면 아낙네들의 아이 출산을 위해 비념을 하거나, 애기씨돌을 얹는 모습은 소중한 전통을 재현했다고 판단된다.




샘골
잦띠 마을
당골 마을

● 울산광역시 / 언양 와 아리라 고풀이굿 / 울주문화원(와아리라고풀이굿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언양 와 아리라 고풀이굿’은 울산광역시 언양읍 남부리에서 행했던 무속의례를 토대로 구성한 작품이다. 원래는 매년 정초 또는 삼월 삼짇날에 울주 언양읍성 밖에서 하던 의식놀이다. 무당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와 아이라 고풀이굿은 언양 지역 사람들이 고를 가슴에 맺힌 한과 응어리로 보고, 어렵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굿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도와주며 굿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난관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굿은 긴 솟대 끝에 여섯 가닥의 광목을 내리걸고, 전체를 땋은 다음(원[元]고), 중간쯤에서 세 가닥으로 나누고(중[中]고), 다시 아래에서 여섯 가닥으로 풀어놓는데(세[細]고), 이 줄을 ‘고’라고 한다. 이 고를 나눠 잡고 사설에 따라 하나씩 풀어간다. 이때 앞 추임새에 “와 아이라 와 아이라” 하는 가사를 넣는데, “와 아이라”는 ‘아닌 것이 아니라 맞다’는 뜻이다. 아물이굿은 고는 다 풀고 난 뒤, 고로 입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굿을 말한다.

언양 와 아리라 고풀이굿은 들마당 고달이굿, 안마당 고풀이굿, 날마당 아물이굿으로 구성된다. 들마당 고달이굿에서는 고줄 5가닥을 한 데 매고, 다시 5가닥으로 갈라내 세상고를 달대에 달아 맨다. 무당이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고를 끌고 굿판으로 들어오고, 삿된 귀신을 향해 포고를 하며 대중들과 어우러져 놀며 내림을 한다. 휘몰이장단으로 한판굿판을 벌인 다음, 객귀를 물리면서 솟대에 고를 달고 비나리를 한다. 고달이 솟대는 미리 설치하는데, 꼭대기에 걸이를 달아 고를 아래에서 걸어 끌어올린다. 수무당이 첫소리를 하면 춤꾼은 긴 무포를 양손 끝에 잡고, 두 팔을 수평으로 벌려 다섯 번 회전 후 오방춤을 춘다.

안마당 아울이굿은 달대에 달린 고를 진정 풀어내는 굿이다. 한 고에 수십 명씩 붙어 세고를 잡고 춤을 추듯 사설에 맞춰 풀어 나간다. 원고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며, 장단은 자진모리장단이다. 수무당, 선무당이 고를 푸는 고풀이사를 읊을 때마다 “와 아리라” 추임새를 넣는다. 부정에 부정을 걸어 긍정화하는 절묘한 추임새다. 화랭이들은 계속해서 “와 아리라” 추임새를 넣는다.

고풀이굿을 통해 모든 고액은 풀어졌지만, 가슴에 맺힌 상처는 남아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날마당 아물이굿을 한다. 아물이굿은 남은 상처가 아물게 쓰다듬어 주는 과정으로, 풀린 고를 마당 밖까지 끌어내는 굿이다. 상처가 아물게 아물이사를 읊는다. 이때 “이랴이랴 워 워 워 어띠이대로” 등의 추임새를 하면서 소를 부리듯이 다스려 상처를 추스른다.

울산광역시 언양 와 아리라 고풀이굿은 해방 전 연행하던 것을 복원해 새로 구성한 공연작이며, 무속의 세시 의식이 놀이와 공연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또한 무당이 아닌 일반 사람이 무당의 고풀이굿을 차용해 구성과 연출을 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악·가·무 등을 종합한 형태를 띤다.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6.10.13~10.16,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1. 개괄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일제강점기의 문화 탄압과 6·25 전쟁으로 사라져가던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첫 막을 올렸다. 지난 1994년부터는 청소년에 대한 민속예술 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개최해오고 있다.

전국의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가장 유서 깊은 축제인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렸다.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본격적인 일정 전부터 대회 기간 내내 전주시 주요 장소를 방문해 팔도민요와 판·굿 등 민속예술을 선보여 경연 참가자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의 참여를 끌어냈다.
특히 축제 둘째 날인 14일에는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폐막 후 이북5도를 포함한 전국 시·도 참가팀과 전주 지역 전통예술단체, 전주 시민들이 경기전에서부터 국립무형유산원까지 함께 공연하며 행진하는 야간 퍼레이드 '온고을 길꼬내기'를 진행해 축제의 흥을 돋웠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대한민국 민족예술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행사도 열려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처음 시작한 토크콘서트에는 14일과 15일 소리꾼 장사익과 이준익 감독이 각각 참석해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고유의 민족예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관객과 소통했다. 이와 함께 민속예술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13일 학술대회에서는 진정한 민속 축제의 방향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시민들은 전주 대표 음식 비빔밥을 재해석해 선보인 먹거리 마당과 탈춤과 남사당놀이를 배워볼 수 있는 교육 마당, 프리마켓 등을 통해 직접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축제를 즐겼다.

제57회 경연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20개 팀으로, 강원도 '동호리 멸치후리기' (동호리마을회), 광주광역시 '광주 수완골 화전놀이' (굿마당남도문화연구외), 황해도 '놀량사거리' (놀량사거리보존회), 경상남도 '솟대쟁이놀이' (솟대쟁이놀이보존회), 평안북도 '영변성황대제' (영변성화대제보존회), 함경북도 '두만강뗏목놀이소리'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원마을 옥가리초집 짓는 소리'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마을회), 대구광역시 '날뫼북춤' (날뫼북춤보존회), 평안남도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인천광역시 '인천읍내걸립농악' (인천풍물연구보존회), 함경남도 '토성 정월대보름놀이' (함남 북청민속예술보존회), 충청북도 '목계나루뱃소리' (중원민속보존회), 경기도 '수원두레' (수원두레보존회), 부산광역시 '다대포후리소리' (다대후리소리보존협회), 충청남도 '천안거북놀이' (천안거북놀이보존회), 전라남도 '내평리 길쌈놀이' (내평리길쌈놀이보존회), 경상북도 '안동제비원성주굿풀이' (안동제비원성주굿풀이보존회), 울산광역시 '울산병영서낭치기' (울산중구문화원), 대전광역시 '대전웃다리농악'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 전라북도 '전주기접놀이' (사단법인 전주기접놀이보존회) 등이다.

2. 참가 종목

● 전라북도 / 전주기접놀이 /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20,000

‘전주기접놀이’는 전라북도 전주시 남서쪽 삼천변 주변 너른 뜰을 형성하고 있는 평화동과 삼천동의 두레꾼들이 용기[龍旗]를 가지고 놀던 놀이를 재현한 작품이다. 이 지역에서는 각 마을에서 기를 제작해 놀이를 펼쳤는데, 전주기접놀이는 백중날 여러 마을의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굿뫼기(합굿)’를 하며 기놀이를 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술메기를 통해 농군을 위로하고, 술·음식과 함께 기놀이를 하며 마을 간 화합과 연대를 도모하던 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주기접놀이는 회의 마당, 경연마당, 대동마당, 전송마당 등 총 네 마당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먼저 만두레의 풍경이 보인다. 만두레 소리를 부르면서 마지막 논매기를 마치고, 상머슴을 놀리며 한 해 농사의 끝을 자축하는 장면을 재현한다. 이때 합굿놀이를 주최하고자 하는 마을이 총회를 열어 합굿 일정을 결정한 후 이웃한 형제마을을 초청한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동을 통해 각 마을에 전해진다.

합굿날 초대에 응한 상·하촌마을이 용기를 앞세워 주최 마을로 향한다. 이때 주최 마을은 동구 밖에 나가 손님을 정중히 영접한다. 이처럼 기인사를 나눈 후 넓은 공터에 집결해 합굿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때부터 마을별로 농악을 필두로 해서 개인놀이, 기놀이, 기싸움 등 힘과 기예를 겨루는 치열한 경연을 벌인다.

특히 용기놀이가 절정에 달해 마을 사람들의 흥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개의 용기가 한데 뭉치는데, 이를 ‘용기부딪치기’라고 한다. 서로 기를 맞대놓고 높이 뛴다.뛰는데, 깃봉이 땅에 떨어진 마을은 곧 기의 제작연도를 현재로 바꾸며, 마을 주민들은 모두 상위 마을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기세배를 한다. 경쟁을 통해 승패가 가려지면 형님마을과 아우마을이 결정되고, 이로써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험악했던 분위기는 농악 한마당을 통해 신명의 장으로 전환된다. 농악을 매개로 하나가 되면서 이내 합굿뫼기의 진면목인 대동굿판이 형성된다. 치열하게 싸우던 기잽이들도 이때는 깃발을 놀리며 신명 나게 즐긴다. 이처럼 신명의 절정을 이루던 합굿이 끝나면 초청한 마을이 각 마을의 중간 지점까지 환송한다..

전주기접놀이는 전라북도 전주시, 즉 지역의 전통 풍경을 공연으로 승화한 좋은 본보기며, 만두레와 술메기 전통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과할 수 있다. 한 해 농사의 반을 매듭짓는 백중 무렵, 용기를 놀리던 놀이 문화를 통해 백중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의 소중함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논농사 전통 속에서 기[旗], 특히 용기를 위하는 문화의 가치와 의의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 지역 술메기 전통의 원형인가는 뚜렷하지 않다.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기놀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합굿뫼기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전라남도 / 내평리 길쌈놀이 / 내평리길쌈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무총리(최우수상)
상금 15,000

'내평리 길쌈놀이'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의 여성들이 길쌈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로, 삼베, 모시, 명주, 목화, 동식물 등을 가공해 의복을 만들기까지 일련의 길쌈 과정을 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화순에는 논농사뿐 아니라 밭농사가 성행했는데, 무명은 특히 잘 되는 밭농사 중 하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밭에 무명을 심고 김을 매는 일을 함께 했고, 무명이 열리면 그 무명을 따서 길쌈을 했다. 예로부터 불리던 노래를 직접 조사해 길쌈 과정과 함께 전개한 특징이 있으며, 무명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무명을 따고, 길쌈을 하는 전 과정을 놀이로 재현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주요 과정에서 하는 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화씨를 파종하며 부르는 소리

보리까시라 까끌한들 시아버지같이 까끌헐게
호박잎삭 까칠한들 시어머니같이 꺼칠헐게
호박노물 뚝뚝한들 시아재같이 뚝뚝헐게
시금치노물 새파란들 동서같이 새파럴게
고추당초 맴다한들 시누같이 매울쏜가?

2. 김매기소리

시금시금 시어머니 시집가는 삼일만에
매뜽같이 짓은 밭을 나 혼자서 매라하네
매뜽같이 짓은 밭을 나 혼자서 매고나니
금봉채를 잃었다네 금봉채를 찾고보니
새벽달이 뜨고 나네
사래길고 장찬밭을 나 혼자서 다매라 하네
못다맬 밭 다 매고 나니 금봉채만 잃고 가네
못다맬 밭 다 매고 나니 골골마다 연기가 나네

3. 샛거리(새참)소리

둥당게당 둥당게당 / 당게 둥당게 둥당게당
둥당게당 둥당게당 / 당게 둥당게 둥당게당
둥당게 타령을 누가냈냐? / 건방진 큰 애기 네가 냈내

4. 명따는소리

옹당동당 떠가신 구름 우리 땅에 가신 구름
우리 땅에 가시거든 편지 한 장 전해주소
편지랑께 무슨 편지 동지섣달 서남풍에
맨발 벗고 나 못살아 삼사월 긴긴해에
점심 굶고 나 못살아
실로가세 실로 가세 우리나 동생 실로 가세
마당에 들어서니 우리나 동생 거둥보소
야이년아 썩을년아 너도 간께 그러드냐
나도 온께 그러드라 성님도 종종 신겨주소
나도 종종 신겨주소

(생략)
시엄씨 흉본게 시원허네 시원해. 시원허네 시원해
빨리 베를 짜서 우리 딸 시집보내세!!

5. 물레소리
물레야 자세야 어리뱅뱅 돌아라 / 어리렁 스리렁 잘도나 돈다.
바람 솔솔 부는 날 구름 둥실 뜨는 날
월궁에서 놀던 선녀 옥황님께 죄를 짓고
물레야 자세야 어리뱅뱅 돌아라 / 어리렁 스리렁 잘도나 돈다.
인간으로 귀양 와서 좌우산천 둘러보니
한도 많고 꿈도 많은 인간세계 여기로다
물레야 자세야 어리뱅뱅 돌아라 / 어리렁 스리렁 잘도나 돈다.
물레살은 팔형제요 겅구지는 세네답
물레대를 두른 양은 북두칠성 두르는 듯
물레야 자세야 어리뱅뱅 돌아라 / 어리렁 스리렁 잘도나 돈다.
물레소리는 들려나오는 데 이웃집 도련님 밤이슬 맞는다.
물레야 자세야 어리뱅뱅 돌아라 / 어리렁 스리렁 잘도나 돈다.
장독 위에 복숭아는 봉기봉기 흔들흔들
물가상의 수양버들 가지가지 흔들흔들
물레야 자세야 어리뱅뱅 돌아라 / 어리렁 스리렁 잘도나 돈다.

6. 베틀소리
하늘에다가 베틀 놓고 구름잡어 잉애 걸고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요내 다리 두 다리라.
잉에 대는 삼 형제요 사침대는 형제로다
대추나무 북에다가 참나무 보두집에
덜거덩 덜거덩 짜느랑께 편지 왔네 편지와.
앞문에서 받어가꼬 뒷문에서 펴보니
우리어매 죽었다고 부고 왔네 부고 왔어
버선 벗어 품에 품고 비녀 빼서 땅에 꽂고
머리 풀어 산발하고 신발 벗어 손에 들고
한 모퉁이 돌아간께 까마 귀소리 처량하네
두 모퉁이 돌아간께 널짱소리 가슴치네
세 모퉁이 돌아강께 상여소리 왠 소리요
사립문에 들어서니 그저께나 오시든가
어저께나 오시든가 오나가나 오나가나
울어봐도 소용없고 땅을 쳐도 소용없네
시집살이 석삼년에 친정 문전 못가보고
요내 일만 했더니 우리 어매 죽었다네.
우리 어매 죽었다네.

화순지방에서 길쌈을 하며 부르던 소리를 조사·수집해 그 과정을 재현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길쌈 이전의 과정, 즉 베를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작업 과정을 재현한 것도 높이 살 점이다. 마을 단위로 여성들의 길쌈 두레가 형성되면서 무명을 심는 일부터 공동작업을 진행했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 새참을 먹으며 하는 소리, 베를 짜면서 둥당개 타령을 부르는 점 역시 전라남도에서 흔히 발견되는 면모다. 또한 소리와 더불어 사설에서도 다양한 서사민요가 있다. 이렇듯 화순

지역의 길쌈소리는 그 자체로 전승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 하원마을 옥가리초집 짓는 소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마을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제주도에서 출품한 옥가리초집 짓는 소리는 옥가리초집을 짓는 과정과 이때 부르는 노동요를 함께 구성한 작품이다. 옥가리초집은 새[茅]를 지붕에 나란히 펴서 쌓고, 긴나무(옥가리)를 가로 눌러 매어 짓는 집을 말한다.

제주 사람들은 농경부터 주거까지 무엇 하나 바람과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했다. 특히 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바람을 막기 위해 돌로 담을 쌓았고, 지붕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줄 대신 '옥가리'를 이용했다. 하원마을 사람들은 옥가리초집을 지을 때 서로 협동했는데, 산에 가서 재목을 베어오는 사람, 집터 다지는 사람 등 각기 소임을 나눠 수눌음으로 집을 마련하기도 했다. 평토작업, 나무베기, 나무내리기, 나무깎기, 흙질, 집줄 등 힘들고 고된 작업이 있을 때마다 마을에는 '옥가리초집 짓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1. 터다지기, 나무베기, 깎기

<집터다지기소리>

(받는소리)　어허 홍애야
(메기는소리)　삼세번째랑 들렁 놓자
유구단을 살펴보니
한라 영산 줄기 뻗어
우굴쭈굴 내려오니
천리내룡이 일색이요
어허 홍애야(후략)

2. 목재결구, 흙질, 집줄놓기

<흙질하는소리>

(받는소리)　아아하아야 에에헤요
(메기는소리)　작두리 걸머지고 자개도치 둘러메어
불터진개 올라가서 산신고시 지내놓고
버드낭 처자그네 0000 그차보자(후략)

<흙올리는소리>

(받는소리)　이야호 어허어어어 홍애로구나
(메기는소리)　이여차 소리에 흙골라가는 소리로구나
흙골립세 흙골립세 지붕우뜰에 흙골려봅서
지붕에 흙을 잘 골아서 여름엔 선선하고 겨슬엔 맨드롱또똣 갠영허영수다

<새올리는소리>

(받는소리)　이야호 어허어어어 홍애로구나
(메기는소리)　이여차 소리에 새올라가는 소리로구나

<줄올리는소리>

(받는소리)　　이야호 어허어어어 홍애로구나
(메기는소리)　이여차 소리에 줄올라가는 소리로구나

3. 새펴기, 옥가리엮기

<옥가리올리는소리>
(받는소리)　　이야호 어허어어어 홍애로구나
(메기는소리)　이여차 소리에 옥가리 올는는 소리로구나
옥가리랑 지붕꼭대기에서 빨리랭 엮고 내려웁서
이옥가리는 어디건고 영실 000 내영수다

<서우젯소리>
(받는소리)　　아아아하아양 에에헤에헤요
(메기는소리)　이때 저때 어느땐가 천고마비 계절인데
지난 불러 제일하고 00은 불러 집을 짓자
동쪽에는 곳간 짓고 서쪽에는 마덜 짓고
남쪽에는 사랑채짓고 중앙에는 본채를 지어
자손창성 헐자릴세 부귀영화 누릴 자리
이집 진지 삼년만에 0000 0000
아들을 나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나면 열녀로다
소를 나면 천군되고 말을 나면 영마로다
아아아하아양 에에헤에헤요
탁주 한잔을 먹었드니 어깨춤이 절로나네
먼디 사람 듣기 좋게 곁이 사람 보기 좋게
춤을 추멍 놀아줍소 흥겨웁게 놀아줍소
요런 때에 못 놀면은 어떤 때에 놀아보나
일심동력 하여보난 잠깐전이 달었수당
쏙암수다 쏙암수다 역꾼님네 쏙았수다
역꾼님네 힘을 빌어 일심동력 허여보난
옥가리 초가삼간 다 지어졌수다
폭큰 속았수다 이번소리로 모십수다

제주도의 다양한 민요를 엮은 이 작품은 옥가리초집이라는 제주도의 독특한 주거문화를 소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옥가리초집 짓는 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충청북도 / 목계나루 뱃소리 / 중원민속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목계나루 뱃소리는 충주 부근 남한강 유역에서 전승하던 강뱃소리로 구성한 작품이다. 목계나루는 여러 나루터 중 가장 크고 역할이 컸던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아 배가 들어올 때면 큰 시장을 이뤘다. 목계나루는 8도의 살기 좋은 5촌 중의 하나라 해 '오목계'라고 불렸다. 목계는 교역이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중원문화의 발상지로서 한양, 경상도, 강원도를 잇는 중요한 나루며, 갈수기에도 뱃길이 닿는 최상류의 상업 포구였다.

목계나루 뱃소리는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그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부르던 노젓는 소리, 배를 끌 때 부르던 배끄는 소리, 나루터에 도착해 돛과 닻을 내리며 무사히 도착한 안도감과 기쁨을 노래한 뱃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객고를 풀며 가무를 즐기다 기생과 뱃사공 사이에 정이 들어 서로를 그리워하며 헤어질 때 애절하게 부르는 이별가도 포함된다. 그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놀이마당

2. 노젓는 소리

<노젓는소리>

(받는소리) 어이여 어허 어 어 허이야
(메기는소리) 어서가세 올라가세 날 저물기 전에 어서가세
한강물은 흘러흘러 산림풍경 너른 뜰에
0000 그린 병풍 웬갖 00 좋은 풍류
어허 세상 벗님네들 우리인생 어이하여
공수레 공수거를 아는 이가 몇몇인가
세월 가기는 강물 같고 이 몸 늙기는 바람결 같네
바람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어서 빨리 노를 저어 옥계에다 배를 대고
목계나루 주모들과 술이나 한 잔 하여보세

3. 배끄는 소리

<배끄는소리>

(받는소리) 어이야 어기야
(메기는소리) 어이야 어기야
여울물이 모질다
바위때기 조심하세
왼쪽 땡겨라
오른 쪽도 땡겨라
바위에 부딪칠라
어서어서 끌어주게
먼데 사람 듣기좋고
곁에 사람 보기좋게
일심으로 끌어주세

어떤 사람 팔자좋아
호위호식 잘사는데
이내 팔자 기박하여
끌패를 못면허고
배끌어서 먹고사나
남 날적에 나도 났고
나날 적에 남 났는데
여우같은 부인있나
토끼같은 자식있나
짚신도 짝이 있고
버선목도 짝있는데
이내 팔자 기박하여
꺼꺼머리 신세인가
여보시오 끌패님네
신세한탄 그만하고
어서 어서 배끌어서
목계에다 배를 대고
목계나루 팔모들과
술이나 한 잔 하여보세
어야 어기야
어야 어기야

<노젓는소리>

(받는소리) 어이여 어허 어 어 허이야
(메기는소리) 한숨 돌리고 올라가세 0000 다건너 왔네
다 왔네 목계나루 논내리고 밭내리세

4. 뱃소리

(받는소리) 어이여 어허 어 어 허이야
(메기는소리) 어허야 허 어 어 허이야
천석배가 당도했네 목계나루 손님네들
삼백리 마포에서 돛을 달고 올라왔소
기다리던 손님네들 어서어서 반기시오
충청도라 목계나루 돛을 달고 올라왔소
목계나루 주모들아 술걸러서 가져오게
주모들에 거동보소 술동이를 들쳐이고(후략)

5. 뱃고사

6. 이별가

가네가네 떠나가네 목계나루 떠나가네
잘있거라 주모들아 변치말고 잘있거라
너와 나에 맺은 정은 상봉헐 날 있을테니
대쪽같이 모진 마음 00라도 끊지말고
송죽같이 굳은 절개 날 오기만 기다리게
마포나루 댕겨와서 다시 한번 만나보자

어이가나 한양뱃길 비틀비틀 장사배야
못가겄네 못가겠네 내님 두고서 못가겠네

7. 뒤풀이

강에서 부르던 뱃노래를 소재로 했다는 점이 특이하나, 악곡의 수가 많지 않아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바닥이 얕을 때 배를 끌어주는 사례와 주모들과의 뒷이야기가 함께 한다. 목계나루 뱃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경상남도 / 솟대쟁이놀이 / 솟대쟁이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솟대쟁이놀이'는 1900년대 전후 진주 지역을 본거지로 경상남도 일대를 떠돌며 예능을 팔던 유랑예인집단 '솟대쟁이패'의 놀이를 재현한 작품이다. '솟대패'로도 불린 이들은 주로 솟대타기나 줄타기 등으로 구성된 놀이를 했다. 솟대쟁이놀이는 1930년대 사라진 솟대쟁이패를 진주농악 중심으로 재현한 것이다.

놀이의 주요 구성은 놀이판 한가운데 솟대와 같은 긴 장대를 세운 후, 그 꼭대기로부터 양편으로 두 가닥씩 줄을 늘여놓고 솟대타기나 줄타기 등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 또한 솟대쟁이패는 버나, 살판, 병신굿을 하기도 했다. 솟대타기는 쌍줄백이와 새미놀이로 나뉘는데, 특히 쌍줄백이는 줄타기와 비슷하나 다른 점은, 나다닐 수 있는 줄이 두 개이고, 그 위에서 물구나무서기, 팔걸음, 줄 위를 구르는 고물 묻히기 등 재주를 부린다는 것이다.

솟대쟁이패 구성원은 서로 교류가 잦았으며, 그 조직이 남사당패와 비슷했다고 전해진다. 솟대쟁이패와 남사당패는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교류했고, 놀이 내용 면에서도 서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살판, 얼른, 버나, 벅구놀이 등은 남사당패가 솟대쟁이패와 교류하면서 놀았던 종목이기도 하다(솟대쟁이패는 특히 벅구놀이에 특출함을 보였다고 한다). 두 패거리를 직접 왕래했던 송순갑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여덟 살 때 솟대쟁이패에 들어가 '이우문'이라는 진주 사람에게서 살판을 배웠다고 한다. 패거리는 이우문을 중심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 활발히 활동하다가 이후 해체했다고 한다.

솟대쟁이패는 해체 후 진주에 다시 모여 옛 솟대쟁이패굿을 연행하면서 포장걸립이나 뜬쇠패로 농악경연대회에 참여했다. 특히 솟대쟁이패의 연행 종목 가운데 농악은 해방 이후 강두금 선생(현재 진주삼천포농악 인간문화재 김선옥 선생의 외조부)이 진주농악회를 구성하면서 그 계통을 이어갔고, 황일백, 조명수, 송철수, 윤판옥, 김도생, 문현재, 조판조 등의 명인들이 당대에 같이 활동하면서 기능을 전수했다.

1965년 7월 문화재 보호 정책의 하나로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가 있은 후, 이듬해 6월 29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 '농악12차'로 명명되어 전승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활동 중인 박염 선생과 김선옥 선생은 솟대쟁이패 출신 명인들을 사사해 '진주삼천포농악' 인간문화재로 활동하며 그 계통을 잇고 있다. 또한 솟대쟁이패의 거점이었던 진주에서는 솟대쟁이놀음의 복원·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솟대쟁이놀이는 남사당패와 더불어 근대 유랑예인집단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민속이다. 오광대, 살판 등 전문적인 민속 체기·곡예·기예를 포함한 다양한 놀이를 솟대쟁이패에서 행했다. 이미 오래전 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삼천포농악을 중심으로 솟대쟁이패의 옛 영광을 되살리고자 하는 점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솟대쟁이패의 위상을 되살리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는 동시에 창조적으로 발전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솟대쟁이놀이


쟁이놀이

● 울산광역시 / 울산병영서낭치기 / 울산중구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전북도지사(은상)
상금 7,000

‘울산병영서낭치기’는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동에서 전승하는 민속놀이로, ‘병영’은 옛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가 주영한 영성지였다. 이 놀이는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매귀악), 줄다리기(마두희), 달집태우기, 씨름 등의 세시풍속과 함께 연행했다. 병영서낭치기는 울산이 산업도시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병영을 중심으로 매년 정월대보름 지신밟기와 같은 축약된 형태로 꾸준히 시행해 오던 중 전통을 살려 재현한 것이다.

병영서낭치기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울산 병영 일대의 여러 마을을 동·서·남·북 네 개로 나눠, 방위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의 옷을 차려입은 농악대가 서낭기를 앞세우고 집집이 찾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하던 것이다. 특히 가정집에서는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함께 몰려나와 달집을 불태우며 어울려 놀았는데, 의식적인 성격이 다분한 놀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달이 떠오를 무렵에는 달집을 사르고, 기[旗]싸움과 풍물 겨루기 등으로 놀음판을 벌였다. 이를 통칭해 ‘서낭치기’라고 하는데, 서낭치기가 끝난 뒤에는 작은 서낭대를 밭머리에 가서 불사르기도 했다. 이 풍속은 영조 25년(1749)에 발간된 《학성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병영서낭치기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형식의 연희로, 울산의 병영이 고려시대 이후로는 지역의 병기 창고이자 군수물자를 저장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 문화와 마을 풍속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신밟기와 매귀악 등의 보편성을 공유하면서도 군사 지역의 성격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놀이는 군사 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세시풍속의 성격도 담긴 울산의 소중한 민속이다. 1970년 중구 남외동 주민 이종길 씨(남, 86)의 구술 제보로 발굴한 소중한 자료를 토대로 재현되고 있는 서낭치기는 1920년대까지 연희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병영서낭치기놀이가 병영성 각 마을의 개별성보다는 마을 네 곳의 통합을 강조하는 놀이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월대보름 전후에 행했던 각 동네의 지신을 밟는 민속문화가 연합해 보다 큰 규모의 지역 축제로 승화했다는 점에서 대동놀이의 특징을 갖췄다고 하겠다.

울산병영서낭치기는 울산 지역에 전승되는 민간 나례 매귀악의 일종이이며, 매귀악의 일반 성격과 절차를 공유하면서, 군사기지였던 병영의 지역 특수성을 다분히 이어받으며 전승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속놀이인 만큼, 이를 놀이로 구성하고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점은 가치 대단히 높은 일이다. 놀이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월대보름의 세시적 성격과 두레의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듯한데, 여러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매귀악의 성격을 강조하는 놀이인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산광역시 / 다대포후리소리 /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7,000

다대포후리소리는 부산광역시 다대포에 전승되는 멸치 후리질소리를 민속놀이로 재현한 작품이다. 부산 다대포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어촌이다. 최근까지 멸치 후리질을 해 왔으며, 멸치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던 토착어민이 많아 멸치잡이 후리질에 관한 어로요 및 어로 풍속을 풍부하게 전승해왔다. 특히 다대포 후리소리는 멸치잡이 후리질의 순서를 소리와 노동 작업을 곁들여 일정하게 놀이화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물을 싣는 과정부터 풍어를 축하하는 풍어소리까지 멸치잡이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1. 그물싣는소리(사리소리)

에-헤 사리야

사려보세 사려보세 에-헤 사리야
그물한채를 사려보세 에-헤 사리야
멸치잡아 무엇하리 에-헤 사리야
열두독 젓을 담아 에-헤 사리야
황금빛에 맛들거든 에-헤 사리야
첫째독은 헐어다가 에-헤 사리야

2. 용왕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동해바다 용왕님요 서해바다 용왕님요
남해바다 용왕님요 북해바다 용왕님요
육지에는 풍년들고 바다에는 풍어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3. 그물놓는소리

이여사

달도 밝고 이여사
고요한데 이여사
며르치생각 이여사
절로난다 이여사
어기여차 이여사
저어나 주소

4. 그물당기는소리(후리소리)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용왕님 은덕으로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메르치 풍년이 돌아왔네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산은 첩첩 천봉이요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물은 잔잔 백옥인데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우리 다대포 꽃이 피네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꽃 피고 봄이 오니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메러치 풍년이 아닐쏘냐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십오야 둥근 달이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삼경인들 변할쏘냐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똘똘 뭉친 우리 어부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일구월심 변할쏘냐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만경창파 푸른 물에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메르치 떼가 몰려오네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5. 그물터는소리(산자소리)

에- 산자

많이도 들었구나　　에- 산자
오뉴월　　에- 산자
삼복 더위에　　에- 산자
황소 붕알같이　　에- 산자
늘어졌구나　　에- 산자

6. 가래소리

어- 넝청 가래로다

이 가래가 누가랜고　　어- 넝청 가래로다
한 선주의 가래로다　　어- 넝청 가래로다
이 가래가 누가랜고　　어- 넝청 가래로다

7. 풍어소리

쾌지나칭칭나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쾌지나칭칭나네
이수강변 백로 가자　　쾌지나칭칭나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쾌지나칭칭나네
시냇가에는 자갈도 많다　　쾌지나칭칭나네
정월이라 대보름날　　쾌지나칭칭나네
달밤에 나온 소년들은　　쾌지나칭칭나네
답교하고 노니는데　　쾌지나칭칭나네
이월이라 한식날은　　쾌지나칭칭나네
나무마다 춘기 들고　　쾌지나칭칭나네
가지마다 순이 난다　　쾌지나칭칭나네

다대포 후리소리를 놀이형식으로 구성해 출품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물을 어장으로 옮겨 배에 실으면서 하는 소리, 풍어를 기원하며 용왕고사를 지내는 소리, 풍어를 자축하며 부르는 소리 등 다양한 어업 노동요를 살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옛 어민들의 삶과 작업환경, 그리고 선후창 방식의 소리를 이처럼 놀이로 구성해 전승한다는 것에 매우 큰 가치가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어종과 그 소리가 달라지는데, 멸치잡이 중에서도 후릿그물을 이용한 멸치잡이와 관련한 소리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온고을 길쌈내기	

● 대전광역시 / 대전웃다리농악 /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상)
상금 7,000

웃다리농악은 우리나라 중부에 해당하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일컫는 용어다. 대전·공주 지역의 웃다리농악은 충청·경기 지역의 농악 가운데 지금도 연희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악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서 최근까지 웃다리 풍물은 고인이 된 송순갑, 이원보, 최성구, 양도일 등의 주도로 전승되었으며, 현재는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에서 전승을 책임지고 있다. 대전의 웃다리농악은 한때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중앙농악회에서 운영한 '대전웃다리농악대'를 통해 연행된 농악이 송순갑 어른에 의해 정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전 웃다리농악의 판굿은 굿패들이 가지고 있는 갖은 기예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마당에서 벌이는 굿판이다. 경쾌하고 흥청거리는 가락에 맞춰 진풀이도 생동감이 넘치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대전웃다리농악은 인사굿, 돌림벅구, 당산벌림, 칠채 오방감기와 풀기, 무동쾌자놀이, 소고절굿대놀이, 십자걸이, 사통백이, 좌우치기, 쩍쩍이, 풍년굿, 고사리꺾기, 도둑잽이굿, 소고판굿놀이, 개인놀이(따벅구, 설장구, 쇠놀이, 소고놀이, 살판, 버나, 죽방울, 12발놀이), 퇴장굿 순으로 연행한다.

1. 외돌림벅구(멍석말이)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고, 상쇠를 중심으로 잽이들과 새미들이 네 개의 원을 겹으로 만들어 이채를 치며, 벅구는 바깥 원에서 자반뒤집기를 한다.

2. 당산벌림(양상치기, '乙'자진)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을 풀어 잽이 한 줄, 벅구 한 줄, 새미 한 줄로 'ㄷ'자 대형을 갖추고, 상쇠는 연타채를 치면서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쪽으로 가서 내주는 가락을 4박을 친 다음, 상쇠가락에 따라 벅구 전원이 앞으로 8보 걸어간 다음 제자리에서 2박자에 이어 이채가락을 치면, 벅구는 양상을 돌리고 솟음벅구를 한다. 연타채를 치면 벅구는 제자리로 복귀한 후 삼채가락에 따라 벅구들이 '乙'자형 방향으로 이동하며, 잽이와 두줄로 마주 보면서 된삼채가락으로 넘어가면 악사와 벅구는 빠른 사사와 일사를 돌린다.

3. 칠채오방진
상쇠의 머리가락으로 칠채를 치면서 중앙진을 만든 후 연타채와 벙어리칠채 장단을 연주하고, 된삼채 장단에 이어 이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벅구들은 상쇠신호가락을 듣고 자반뒤집기를 한다. 중앙진을 풀어 나올 때는 짝쇠가락을 치며, 당산벌림 대형을 만든다.

4. 소고절굿대놀이(쌍줄백이, 외줄백이)
상쇠가 연타채를 치면서 돌사위로 맺고, 놀이 삼채 첫 가락은 제자리에서 들으며, 두 번째, 세 번째 가락에서 일보 전진 후 제자리에서 놀이삼채가락에 맞춰 앉아 서고를 2회 한다. 외줄백이 대형을 만들기 위해 잽이의 한가운데를 향해 이동할 때 상쇠는 쇠채발림을 한다. 외줄백이 대형이 만들어지면 놀이삼채가락에 맞춰 상쇠의 신호에 따라, 벅구줄 전체가 앉고 서고를 2회 반복한다. 삼채가락을 치면서 벅구 전체는 부쇠 방향으로 'ㄷ'자 형태를 그리면서 잽이를 향해 들어올 때 쌍줄을 만들고, 가락에 맞춰 수벅구 쪽부터 앉아 서고를 주고 받는 식으로 2회 반복한다.

5. 십자걸이

잽이들은 삼채가락을 치면서 당산대형을 풀어 반원을 그리고, 정면을 향해 일렬로 대형을 만들며, 벅구와 새미 전체가 잽이의 한가운데를 교차하면서 십자 대형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서 이채가락으로 맺는다.

6. 사통백이

삼채가락을 치면서 십자 대형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태극선을 따라 상쇠원, 잽이원, 수벅구원, 끝벅구원 순으로 풀어 나오면서 큰 원을 만든다.

7. 고사리꺾기

큰 원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상쇠의 연타채가락 신호에 따라 모든 출연진이 한가운데를 보면서 앉는다. 시계방향으로 놀이삼채를 치면서 잽이를 태극선 형식으로 따고 나오다가 가락을 삼채가락으로 바꾸고, 수벅구부터 끝벅구까지 잽이들의 사이로 한 명씩 들어가서 일렬종대 대형을 만든다.

8. 도둑잽이굿

일렬종대 대형에서 삼채가락에서 이채가락으로 맺으면 벅구는 상쇠 쪽으로 일보 나오며, 이채가락으로 치고 맺으면 제자리로 들어간다. 이것을 상쇠의 신호에 따라 반복한다. 삼채가락으로 상쇠는 벅구줄을 달고, 부쇠는 잽이 줄을 달아 서로 반대 방향 좌우 직각으로 돌아 정면을 향해 쌍줄로 들어온 다음, 쌍줄이 안으로 돌아 나오면서 상쇠의 연타채 신호가락에 따라 전 대원이 개인놀이 대형을 만든다.

9. 개인놀이

소고놀이, 상쇠놀이, 설장구, 살판, 무동놀이, 12발(긴채상)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10. 내돌림벅구

상쇠가 된삼채가락을 치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며 큰 원을 만들면, 수벅구가 벅구 전원을 이끌고 잽이 안쪽으로 자반뒤집기로 들어오다가 작은 원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 선다. 상쇠는 이채가락을 치다가 짝쇠가락으로 넘기며, 이때 벅구는 엎어백이, 제자리연풍대, 양상을 하면서 솟음벅구 옆상치기까지 한 후 인사굿으로 마무리한다.

11. 퇴장

행진 가락을 치고 멍석말이를 풀고 이채가락으로 맺으면서 3~4줄로 퇴장한다.

웃다리농악은 대전 농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른 시기에 지역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웃다리농악의 전형을 잘 전승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 활동은 물론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하면서 웃다리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인천광역시 / 인천읍내걸립농악 / 인천풍물연구보존회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5,000

'인천읍내걸립농악'은 인천 문학동에 전하는 민속놀이로서, '낭걸립' 형태로 진행한다. 또한 짧게는 보름, 길게는 달포에 걸쳐 인천 읍내 가가호호를 돌며 걸립을 해 모은 곡식과 돈으로 안관당제를 봉행하는 추렴 형태의 걸립농악이다.

이 농악의 근원지는 옛 인천의 부읍 소재지였던 문학동이다. 인천 읍내(문학동)에서 시작해, 여무실(관교동 일원), 밤나무골(율목동), 싸리재(내동), 경동, 중앙동, 관동까지 짧게는 보름, 길게는 달포에 걸쳐 인천읍내 가가호호를 돌며 걸립을 돌았다고 전한다.

걸립패는 문학산 정상에서 사방지신에게 걸립을 고하는 사방굿을 치는 것으로 시작해 성황제를 지내고, 국사기(신표)와 낭기(성황기)를 앞세워 마을로 내려와 집돌이를 한다. 인천읍내걸립농악의 전체 절차는 길굿, 사방굿, 서낭제, 들당산굿, 대동샘굿, 판굿, 고사굿, 날당산굿 등 총 여덟 개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길굿

걸립패 행중이 상청(숙소)에서 국사기와 낭기(용기), 농기, 영기를 앞세우고 제수를 차려 농악을 울리며 제를 올린 후, 마을의 신격을 모시는 문학산 안관당터 성황당으로 가서 걸립을 고하는 서낭제를 지낸다.

2. 사방굿

성황당에서 동방청제지신, 서방백제지신, 남방적제지신, 북방흑제지신에게 걸립을 고하는 사방굿을 친 후에 서낭제를 지낸다.

3. 서낭제

봉주취위[奉主就位], 분향강신[焚香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망요례[望燎禮], 음복례[飮福禮] 순으로 진행한다.

4. 들당산굿

걸립패가 마을 어귀에 도착해 걸립 여부를 물어 허락이 떨어지면 깃발을 흔들어 걸립(곰뱅이)이 텄음을 알리고, 걸립패들이 깃발을 흔들어 이에 응답하고 마을로 들어간다.

5. 샘굿

마을에 들어간 걸립패가 마을 대동우물에 가서 마을의 질병을 물리치고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샘굿을 한다.

6. 판굿

걸립패가 대동마당으로 가서 농악 판굿을 연주하는 등 갖은 기예를 보여준다.

7. 고사굿

집가심을 원하는 마을 주민이 있는 집을가가호호를 도는 집돌이를 한다.

8. 날당산굿

걸립패는 마을에서 걸립을 모두 마치면 마을 어귀에서 날당산굿을 치고 걸립을 마무리한다.

인천읍내걸립농악은 인천의 지역문화를 잘 담고 있으며, 걸립농악의 전형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지역문화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드러내는 가락과 구성에 대한 면모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 대구광역시날뫼북춤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5,000

날뫼북춤은 대구 비산동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북춤이다. 비산동의 옛 이름 '날뫼[飛山]'는 날아온 산이라는 뜻으로,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다 어느 여인의 비명 소리에 놀라 땅에 떨어져서 동산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또 다른 유래도 있는데, 옛날 지방관리가 순직했을 때 백성들이 이를 추모하기 위해하고자 봄·가을에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다. 날뫼의 원고개는 달성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 나들길이었다. 옛날 고을의 원이 이 길로 부임할 때, 마을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맞이하던 관습이 날뫼북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백성의 추앙을 받던 한 목민관이 순직하자, 이곳에 무덤을 쓰고 봄가을로 제사를 올렸는데, 이때 외로운 원님의 혼을 달래기 위해 북을 울리며 춤추던 관행이 날뫼북춤으로 이어졌다고도 한다.

이 춤은 같은 지역의 비산농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독립된 춤사위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에 나오듯, 정월대보름에 비산동 일대 동제당인 '천왕대'에서 행하던 마을 제사 '천왕매기굿'의 지신풀이 '천왕매기'와 더불어 두드러지게 발달한 북만을 가지고 추는 '북춤'으로, 경상도 덧배기가락과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날뫼북춤은 크고 투박한 북을 메고 각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멋스럽게 추는 것이 일품으로, 다음과 같이 12개 순서로 진행된다.

1. 길굿, 길군악
풍물꾼이 징검다리, 논두렁, 밭두렁, 산길 등을 이동할 때 치는 장단이다.

2. 정적궁이
뛰는 듯한 걸음으로 진행하며, 군사굿의 요소가 두드러진 장단이다.

3. 반직굿
북넘기 등 고난도의 북묘기를 연속으로 펼친다. 이 순서를 '마당굿'이나 '자반득'으로도 부른다.

4. 엎어빼기
북넘기와 앉을상을 반복하는데, 이때 활달하고 씩씩하면서 현란한 춤사위를 펼친다.

5. 다드래기
일명 '버꾸놀음'이라고도 하며, 연풍대가 빠르게 돌아가서 강렬하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

6. 싸움굿, 버꾸사설마당
전쟁놀이 형태로, 백병전을 할 때와 같이 진행하고, 화합으로 마무리한다.

7. 모듬굿
여러 악기 중 북만 치는 장단으로, 북소리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8. 굿거리
북소리에 흥겨운 어깨춤을 동반한다.

9. 강강술래
북을 치면서 좌우로 돌며 바깥을 향해 옆으로 뛴다.

10. 허허굿
추임새 "허허를 넣으며, 북잽이들이 양발을 솟구쳐 뛴다.

11. 오방진
다섯 방위에 화평과 강녕을 비는 춤판이다.

12. 덧배기굿(뒷마당풀이)
북잽이들의 어깨춤으로, 일명 '덧배기들놀이'라고도 한다.

날뫼북춤은 1983년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84년에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날뫼북춤보존회에서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 날뫼북춤은 진도북놀이, 밀양오북춤, 부산농악의 북놀이, 동래지신밟기의 북놀음 등 농악과 깊은 관련이 있거나 놀이로서 전승되는 경우와는 다른, 원님 추모와 관련한 유래가 있는 것이 독특하다. 또한 개인 북춤, 군무로 추는 북춤 등 다양하면서도 창조적인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총 12개 마당으로 전해지는데, 출연 시기에 따라 명칭, 내용, 순서 등에 차이가 있다. 물론 고유 명칭과 이칭 모두 잘 보존되어야 하지만, 소개하고 전승하는 측면에서는 일관된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 강원도 / 동호리 멸치후리기 / 동호리 마을회

종목 민요
수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상금 5,000

'동호리 멸치후리기'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해변의 작은 마을에서 해 오던 멸치잡이를 말한다.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멸치후리기는 여러 사람이 바다에 나가 합심해 멸치를 잡아야 하는 공동 어업이라 협동에서 나오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멸치를 후리기에 적합한 선소리와 받는소리가 농요로 발전한 것이다. 요즘은 여러 환경 문제로 멸치 유입이 없어져 멸치후리기 또한 사라져가고 있다. 동호리에서는 이러한 전통 어업 방식을 보존하고자 멸치 후리기 방법을 재현하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호리 멸치후리기 전통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1. 용왕제

2. 망지기 출현

멸치 떼가 나타났다는 소리와 함께 망지기가 망루에 올라 연막을 피우고 소리를 질러 선원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3. 배에 그물싣기

선원들은 망지기 신호에 따라 그물을 여럿이 나눠 메고 배에다 실으면서 소리를 한다.

(받는소리) 허여자하
(메기는소리) 허여자하
에여라하
허이여라하

4. 배내밀기

그물을 다 실었으면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백사장에서 바다로 내밀기(든대질)를 한다.

(받는소리) 하리여
(메기는소리) 하리여허
허리여허
하리여

5. 노젓는소리

배가 바다에 띄워지면 선장과 선원들은 노를 저어 가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

(받는소리) 뒤여차
(메기는소리) 허이여차
아이여차
허기영차

6. 그물당기는소리

바다에 그물을 다 던지고 나면 선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양쪽에서 그물을 당기면서 소리를 한다.

(받는소리) 뒤여차
(메기는소리) 허이여차
아이여차
허기영차

7. 산대질소리

그물을 당겨 멸치가 한곳으로 모이면 산대질 소리를 하면서 족대로 멸치를 퍼낸다. 퍼낸 멸치는 가마솥에 삶아서 가마니 등에 말린다.

(받는소리) 어 산자
(메기는소리) 어허 산자
어이 산자

(받는소리) 어허 힘이다
(메기는소리) 어허 힘이다
어허 힘이다

<가래소리>
(받는소리) 에라소 가래라소
(메기는소리) 에라소 가래라소
이번 산대는 용왕님의 산대요
요번 산대는 누구의 산대냐
이번 산대는 선주의 산대요
다음 산대는 누구의 산대냐
이번 산대는 사공들의 산대요
다음 산대는 누구의 산대냐
요번 산대는 망지기 산대요
다음 산대는 누구의 산대냐
이번 산대는 선원들의 산대요
다음 산대는 누구의 산대냐
요번 산대는 동호리 산대요
에라소 가래라소
화란춘성 만화방창
때는 좋다 벗님네야
명산소라 구경갈 때
죽장 망혜 단표자로
바다에는 달도 좋다
젊어 노세 놀세 젊어 노세
청천 하늘에 별도 많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손발시러 못하겠네
멸치잡아 논궈먹고
멸치 잡아 등따시고
멸치 잡아 먹고 산다
동호리 바다에는 멸치도 많네
어기야 자차 동호리 멸치

어기야 자차 힘을 내서
어서 빨리 멸치를 퍼내세
여보시오 빨리 빨리 퍼내세요

8. 대동놀이

멸치후리기를 마무리 하면 농악대와 함께 만선을 축하하며 흥겨운 놀이를 펼친다.

동해안의 멸치잡이소리는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양양군 동호리의 소리가 소개되었다. 힘이 드는 일인 만큼 많은 가사 없이 구호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동호리 멸치잡이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 / 수원두레농악 / 수원두레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한국문화재재단(동상)
상금 5,000

'수원두레'는 수원 지역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증언에 따르면, 수원두레는 수원 화성이 축성될 때 설치된 군악과 농악, 굿판이 영향을 미치면서 판굿과 고사굿이 농악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 풍물이 두레농악의 속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에 비해, 수원두레는 질서와 법도가 있는 화려한 군악과 도시풍물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악과 농악이 어우러져 진쇠장단, 터벌림장단 등 경기도 도당굿의 장단이 내포되어 있다.

지난 130여 년간 경기재인청을 거쳐 이동안 선생이 수원두레를 유지한 후, 정진태, 전용식, 유병하, 황산만 등이 이어왔으나 여러 사정으로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를 임광식 선생이 재현하면서 다시 전승되었다.

수원두레는 수원 화성 축성 시 군인의 근무 형태 및 수원 주민들이 행한 고사소리를 기초로 하며, 원천 우물굿, 성밟기, 입성놀이 등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어있다. 서열이 남매의 사연을 담은 '단무동 놀이', 그리고 경기도 웃다농악의 대표격인 평택농악이나 안성남사당놀이와는 대조되는 고유의 소리굿, 고사굿, 잔굿, 춤굿, 마당굿 등 지역 전통이 담긴 놀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수원두레의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걸립굿
허가 농악대를 이끄는 하주가 피조리와 함께 마을 이장에게 걸립을 허가받으러 간다.

2. 입장굿
마을 이장이 허가를 하면 마을 입장굿을 한다.

3. 당산굿
마을에 들어가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나무나 당산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4. 마을우물굿
마을 공동우물에 한해의 기원과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 우물굿을 친다.

5. 문굿
마을을 집집이 다니며 걸립굿을 시작한다. 첫 집에 들어가면 걸립의 시작을 알리는 문굿을 친다.

6. 마당밟기
문굿을 치고 대문에 들어가 마당에서 마당밟기를 하면서 지신을 달래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7. 집안우물굿
가장 전염병이 잦은 집의 우물에서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물굿을 연주한다.

8. 터주굿
장독대의 신들에게 장맛이 변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터주굿을 연주한다.

9. 조왕굿

부엌의 신인 조왕신에게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왕굿을 연주한다.

10. 성주굿

집의 신 중 가장 중요한 성주신에게 집안의 안녕, 명과 복을 기원하는 고사 덕담을 하고 악기를 연주한다.

11. 판굿

성주굿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흥겨운 놀이판을 벌인다.

수원두레농악보존회는 2002년부터 지속해서 농악대회에 참석하거나 공연 활동을 펼치면서 수원두레의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악을 전공한 젊은 농악인들이 지역 농악을 살리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 충청남도 / 천안거북놀이 / 천안거북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전주시장(장려상)
상금 3,000

기호 지방[畿湖地方] 대부분에서 행해졌던 '천안거북놀이'는 충청남도 천안 지역에서 수확의 절기인 추석 명절에 거북이를 앞세워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민속놀이를 재현한 작품이다. 천안거북놀이에 대한 기록은 1941년 무라야마 지준이 발간한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서 살필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긴 거북놀이를 고증을 통해 재현하고 놀이화한 의의가 있다.

이 놀이는 거북이, 남생이, 질라래비, 농악대 등으로 놀이패가 구성된다.

- 한 사람이 수수 잎으로 장식한 거북 형태의 맷방석을 뒤집어쓴 채 머리를 내밀면, 질라래비가 거북 목에 끈을 매고 데리고 다니며 놀린다.

- 거북이 부잣집 대문 앞에 도착하면, 질라래비가 "문엽쇼 문엽쇼 수문장군 문엽쇼" 하고 외친다. "구렁이 복은 굴러들고, 제비복은 날아들고, 삼태미 복은 안아드리고, 만인간이 오복 만복을 등에 다 가득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라고 외치며 놀이패가 도착했음을 알린다. 이때 그 집에서 "들어와서 놀아라" 라고 대답을 하면, 질라래비는 거북을 데리고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인사를 한다. 그러고는 우물, 터주, 대청 등을 차례로 돌며 고사 덕담으로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한다.

- 축원을 모두 끝내면 마당에서 일종의 연희극이 시작된다. 거북이 갑자기 쓰러진다. 질라래비는 거북이 쓰러졌음을 알리고, 어디가 아픈 것인지 이리저리 살펴본다. 거북이 배가 고픈 시늉을 하면, 질라래비는 "이 거북이가 서해를 건너오느라고 힘이 지쳐 누워있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고 주인에게 청한다. 질라래비는 주인에게 음식을 얻어먹은 후 "거북아, 거북아. 이제 먹이는 나왔으니 이 음식을 먹고 춤이나 한 번 추고 가자" 한다. 농악소리에 맞춰 '놀아 놀아 놀아라 어여영차 놀아라'와 같은 거북노래를 부르며 한바탕 신명 나게 논다.

천안거북놀이는 기호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민속이며, 이를 경연 목적으로 구성하고 나온 것에 의의가 있다. 거북놀이 자체만으로 지역성이 강조된 특수한 형태의 놀이라는 것이 인식된다. 거북놀이와 농악놀이의 성격, 그리고 '가장행렬'과 같은 특성을 아우른다는 점과, 놀이의 주술성과 원초적인 성격 역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다만 거북놀이는 수수의 수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특성을 농악대가 이끄는 정월달의 집돌이와 구분해 전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경상북도 / 안동제비원성주굿풀이 / 안동제비원성주풀이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전주시장(장려상)
상금 3,000

성주신은 집을 지키는 수호신, 즉 가신[家神]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집안의 어른인 가장[家長]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격이다. 안동제비원 성주굿은 다른 지역의 성주굿과 달리, 순전히 성주를 모시기 위한 과정과, 성주를 모신 뒤 성주신을 즐겁게 섬기는 과정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다시 말해, 성주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굿을 한다는 점에 독자성을 둔다. 특히 성주신받이를 할 때 홍두깨를 세워성주신이 내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특별하다.

안동제비원성주굿풀이의 연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신(請神)

부정[不淨] 물리기: 성주굿풀이를 하기 전, 부정한 것을 물리기 위해 풍물패와 솔가지로 물을 뿌리는 정화의식이다.

- 신령님과 성주신 맞이굿: 큰무당이 신령님과 성주신을 청해 모신다.

2. 안동제비원성주풀이 서사무가

성주실 사리기: 큰무당이 성주풀이 서사무가를 시작하면서 대주[垈主]의 나이 수 만큼 실을 사린다.

- 대주의 집을 짓는 과정과 성주 봉안
  (1) 대목 및 역군 등장: 8도 목수와 집 짓는 연장을 멘 역군들이 등장한다.
  (2) 산신제: 성주목을 베기 전 산신에게 제를 올리는 과정
  (3) 목도행렬: 벌목한 목재를 옮기는 과정
  (4) 지경다지기: 2개의 달구로 집터를 단단히 다지는 과정
  (5) 치목[治木]: 목재를 다듬고 손질하는 과정
  (6) 집짓기, 성주 신체 접기: 역군들이 집짓기를 마치면 큰무당은 한지로 성주 신체[神體]를 접는다.
  (7) 성주상 차림, 성주받이 제의: 본가 대청 앞에 성주상을 차리고, 대주 부부가 성주상 앞에 나아가 절을 한 후 홍두깨를 세워 성주신이 내린 것을 확인한 다음, 성주를 대청마루 동자목에 봉안한다.

3 대동놀이

오신[娛神]: 성주신을 기쁘게 하고자 참여자와 풍물패가 한바탕 춤을 춘다.

- 치야칭칭: 선소리꾼의 소리에 이어 참여자 일동이 '치야칭칭나네'의 후렴구를 부르면서 풍물패와 어울려 춤을 춘다.

전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성주본풀이가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면모가 성주신의 근본을 안동제비원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구전 전통으로 볼 때, 안동 제비원은 문화·역사적 의미가 매우 깊은 장소다. 그러나 안동제비원성주굿풀이 자체가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전통 민속의례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성주풀이 서사무가의 구연 형태와 주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광주광역시 / 광주 수완골 화전놀이 /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전주시장(장려상)
상금 3,000

‘수완골 화전놀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전승하는 놀이로, 진달래꽃이 피는 3월 삼짇날 즈음, 상하촌 아낙네들이 함께 만나 마을 옆 야산의 평평한 등지에서 종일 화전놀이를 즐겼던 데서 유래했다. 마을에서는 화전놀이를 하기 위해 공동 기금을 갹출하거나, 몇몇 부잣집에서 술과 안주 등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었는데, 이것으로 아낙네들은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지져 먹으며 각종 놀이를 함께 즐겼다는 특징이 있다.

화전놀이를 할 때는 아리랑타령, 산아지타령, 물레타령, 도라지타령, 둥덩이타령, 성주풀이 등을 불렀다. 더불어 닭발싸움, 꼽사춤, 노래경연 등을 함께 진행했다. 이긴 쪽에서는 환호성을 질러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이날이 되면 엿장수와 약장수는 물론, 화장품장수들까지 몰려와 작은 야산을 덮을 지경이었는데, 장사치들이 모여 재주를 뽐내니 마을 사람들은 이를 즐기기도 했다.

또한 농악대가 개인놀이를 하는 등 수완동에 화전놀이가 있는 날에는 그 소문을 듣고 인근 마을 아낙네들도 동참해 장기를 뽐내며 함께 놀았다. 더불어 정월대보름 놀이인 줄다리기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적 성격을 다분히 보여줬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율동에 맞춰 진법 및 태극을 만들며 신명 나게 화전놀이를 마무리했다.

화전놀이는 여성들이 평소 숨겨두었던 다양한 재주를 마음껏 드러내는 경연장이 되기도 했으며, 놀이판은 연극과 엉덩글씨, 봉사놀음, 꼽사춤과 병신춤, 모의혼례와 닭싸움 같은 다채로운 놀이로 채워졌다. 노래와 춤, 가사 짓기 등으로도 하루를 즐겼다. 가사는 즉흥으로 지은 것이 많았으나, 미리 집에서 지어온 가사를 낭송하기도 했다. 지난 시절 여성들은 화전놀이를 통해 집 안에만 있으면서 느낀 답답함에서 잠시 벗어나 홀가분해질 수 있었다. 화전놀이가 여성들의 해방구 구실을 톡톡히 했던 셈이다.

수완골 화전놀이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산이나 들로 나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놀면서 앞으로 다가올 노동의 괴로움을 미리 위로하는 공동체 잔치를 놀이로 만든 것이다. 신세타령으로 서러움을 달래고 신명을 풀어내는 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남성이 아닌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한 마당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경연을 위해 무대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황해도 / 놀량사거리 / 놀량사거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전주시장(장려상)
상금 3,000

'놀량사거리'는 서도 산타령을 뜻하며, 흔히 '놀량'으로 부른다. 나아가 '선소리', '산타령', '놀량', '입창' 등으로도 부른다. 서서 부르는 소리, 즉 '선소리' 또는 '입창'이며, 산천 경계를 유람 삼아 떠도는 내용이라 '산타령'이기도 하다.

놀량의 유래는 적어도 19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재효의 판소리 <놀부가>에도 "산천초목이 성림한데..." 라는 대목이 보이고, <봉산탈춤> 3과장에도 보인다. '놀량패'는 사당패와 함께 전국을 도는 전문 연희집단 중 소리를 중심으로 판을 짰던 집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당패 또는 놀량패의 소리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이 '산타령'이었다. 산타령에서는 모갑이 1인이 선창을 하고, 이후 다 같이 군무를 추면서 뒷소리를 한다. 초목이, 놀량, 사거리, 중거리, 경발림 등으로 구성된다.

1. 놀량사거리

에라디여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녹양[綠楊]에 벋은 길로 북향산[北香山] 쑥 들어도 간다 에헤에헤이에-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춘수[春水]는 낙락[落落] 기러기 나니 훨훨 낙락장송이 와자지끈 딱 부러졌다. 마들가지 남아 지화자자 좋을씨구나, 지화자자 좋을씨구나 얼씨구나 좋다 말 들어도 보아라

인간을 하직[下直]하고 청산[靑山]을 쑥 들어도 간다. 에헤에헤이에- 어허야 요홀 네로구나.

황혼 아니 거리검쳐 잡고 성황당 숭벅궁새 한 마리 낙에 앉고, 또 한 마리 땅에 앉아 네가 어디메로 가자느냐, 네가 어디메로 가자느냐, 네가 어디메로 가자느냐. 이 산 넘어가도 거리숭벅궁새야, 저 산 넘어가도 거리숭벅궁새야, 에-

어린 양자[糧資] 고운 태도, 눈에 암암[暗暗]하고 귀에 쟁쟁(쟁쟁).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니로구나, 소원성취로 비나니로구나. 에- 나 헤 요홀 네로구나.

2. 앞산타령

나네노 니하나 에헤에 에헤에 노오 나에게 헤에요 산하지로구나

천 관악산[冠岳山] 염불암[念佛庵]은 연주대[戀主臺]요 도봉불성[道峯佛性] 삼막[三幕]으로 에헤 둘렀다.

에헤 에헤로 지히 이히이 지로구나 말을 네야 나아헤에로 산이로구나

3. 뒷산타령

나지아 산이로구나 에- 두견아 에- 어허야 지구에- 에도 산이로구나.

여초목[與草木]이 동남풍에 거리숭벅궁 우는 소리 장부[丈夫] 요내 열촌의 간장을 다 녹여 낸다

나뭇잎만 똑똑똑 떨어져도 한병[漢兵]인가 의심하고 새만 좌르르르 날아들어도 자룡[子龍]의 삼지창[三枝槍]만 여겨 의심한다

갈까 보다 말까 보다 임을 따라 갈까 보다 자룡이 월강[越江]하던 청총마[靑총馬] 비껴 타고 이내 일신[一身]이라도 한양을 따라갈까나

에라 놓아라 나 못 놓겠구나 에라 놓아라 나 못 놓겠네 엄지 장[長]가락이 다물어 빠지고 새끼손가락이 삼동에 나는 데 에- 어머니 아시면 매맞겠네 짜장 깊은 정을 생각하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놓겠다

4. 경발림(景四거리)

중원지변방[中原之邊方]이요 일세[日勢]는 요란한데 삼산반락[三山半落]에 청천외[靑天外]요 이수중분[二水中分]에 백로주[白鷺洲]란다

어디로 가자고 날만 졸라 어디로 가자고 지그렁직신 날만 조리조리 졸졸이 따라 안성[安城]에 청룡[靑龍] 가잔다

수락산[水落山] 폭포수[瀑布水]요 둥구재며 만리재라 약잠재며 누에 머리 용산[龍山]삼개로 에라 다 둘렀단다

연산[蓮山]의 김 덕선[金德善]이 수원의 북문[北門]지어 나라의 공신[功臣]되어 수성옥이 와류감투 꽉 눌러 쓰고 어주[御酒] 삼배[三盃] 마신 후에 앞에는 모 흥갑[牟興甲]이 권 삼득[權三得]이 송 홍록[宋興祿]에 신 만엽[申萬葉]으로 쌍화동[雙花童]세고 어전[御前] 풍악을 꽝꽝 치면서 장안[長安] 대로상으로 가진 신래[新來]만 청한다.

놀량사거리는 경기와 서도 선소리 산타령의 악곡 이름이다. 첫 번째 곡이기 때문에 선소리 산타령 자체를 놀량사거리로 부르는 일이 많다. 이 작품은 전주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평안남도 / 평양검무 / 평양검무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전주시장(장려상)
상금 3,000

평양검무는 평안도의 대표 작품 중 하나다. 평양검무 전승자 이봉애 선생은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리 출신으로, 평양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녀 서문여고를 졸업했다. 그의 나이 14세에 평양권번 출신 예기 김학선을 만나 평양검무를 사사했고, 현재는 이봉애 선생의 제자들이 평양검무를 전승하고 있다. 이봉애 선생은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해마다 정기공연을 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평양검무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평양검무는 입춤, 앉은 춤, 칼춤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입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일자 사위

2. 앉은 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두 손 모아 허리춤
(3) 옆으로 허리춤
(4) 두 손 위로 모아 허리춤

3. 칼춤

(1) 한칼 사위
(2) 쌍칼 사위
(3) 서서 기본 동작사위
(4) 반돌기
(5) 칼 뽑기 동작
(6) 양팔 벌려 두 번 돌리기
(7) 건곤 사선 사위
(8) 반돌기 사위
(9) 앉는 연풍 사위
(10) 까치 사위
(11) 번개 사위
(12) 머리 쓸기 사위
(13) 인사 사위
(14) 하늘 치기 사위
(15) 빨리 돌기 사위
(16) 양팔 벌려 칼 돌리기 사위
(17) 유진 유퇴
(18) 도는 연풍 앉아 칼 돌리기
(19) 머리 쓸며 까치 사위
(20) 칼로 땅치기 사위
(21) 돌아서 기본사위

(22) 좌우 칼 돌리기
(23) 번개사위
(24) 앞 돌리기
(25) 번개 사위 4, 2, 4
(26) 마지막 인사

검무는 조선시대 각 지방 감영에 설치된 교방청에서 전습, 지역 명칭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었다. 조선시대 평양은 지방 감영과 교방청이 있던 곳으로, 평양검무는 주로 명기들 연행했다. 또한 평양부와 병영에서 행하던 의례와 민간의 각종 연향에도 검무가 연행되었다. 평양검무의 복색은 궁중의 검기무처럼 전복을 입고 전립을 썼다. 양손에는 단검을 들고 췄는데, 당시에는 직검이었으나 현재는 고리를 단 회전검을 쓰는 경우가 많다. 4인무 또는 8인무로 인원을 편성한다. 평양검무는 긴 염불 음악에 무원들이 무대 중앙에 칼을 들고 앞에 나와 열을 지어선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혀 칼을 놓고 양팔을 들어 활개를 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판석도리, 앉은 춤 두손 뒤로 모아 허리춤, 연풍대, 앉은춤 칼 사위, 앉은춤의 쌍칼사위, 검을 반 바퀴 돌려 팔에 얹기, 칼 뽑기, 양팔 벌려 두 번 돌리기, 칼을 팔등에 얹어 반 돌기, 연풍대, 까치걸음, 번개사위 등을 연행한다. 평양검무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여러 차례 출전하고 있는 작품이며, 이번 대회에서는 전주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함경북도 / 두만강뗏목놀이소리 /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두만강뗏목놀이소리'는 예부터 함경북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인 목재를 채집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노동요다. 벌목한 나무를 떼로 엮어 강 하류 지역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는 이를 '뗏목꾼'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뗏목 위에서 일주일 정도 여정을 보내면서 고됨과 외로운 신세를 읊조렸던 것이 지금의 두만강뗏목놀이소리로 남게 된 것이다. 강 위에서 뗏목놀이를 하던 마을 사람들이 뭍으로 와서 재현하고 즐기던 것이 형태를 갖추면서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으나, 기본 내용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해 산판 생활과 뗏목 생활을 담아낸 것이다.

1. 마을 치성과 환송

벌목꾼들이 벌목하러 떠나는 날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에 모여 벌목장으로 떠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서낭신에게 고하는 의식을 치른 후 즐거운 마음으로 아쉬운 이별을 하며 산으로 보낸다. 깊은 산에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짐승들이 살고 있어,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 악기를 연주하고 신방곡이란 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올라간다.

<신방곡>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아이고 내 딸 공덕아 아이고 내 딸 심청아
내어디 갈까 에헤에 산으로 갈까 에헤에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지리
아이고 내 딸 잠자게 아이고 내 딸 놀아게
내 어디 갈까 에헤에 산으로 갈까 에헤에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2. 벌목꾼 산 오르기

산에 올라 벌목할 지경을 설정하고, 평평한 곳의 나무를 대표 나무로 선정하며, 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오늘부터 벌목할 것임을 목신에게 알리는 의식을 행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후 벌목을 한다.

3. 나무치성과 벌목하기

벌목하기 전, 나무 앞에 고사상을 차려놓고 벌목 허락을 청원하는 의식을 행한 후 벌목하며 부르는 노래로, 나무하는 소리와 톱 소리를 부르는 등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노래에 모두 담아 표현한다.

<나무하는소리>

여기도 산이구나 에야
에헤야 에헤야
좋은네 소리나 한마디 하고 보자 에야
에헤야 에헤야

일락 서산에 해떨어지고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우리야 인생 또 산간다네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청솔가지 찍어내여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한짐가득 찍어보세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우리들에 차지도 못하고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이런 고생하고 사네 에야하아
에헤야 에헤야

<톱질하는소리>
슬렁슬렁 당기어라
이 나무 허리가 가늘어간다
이헤 에헤야 어서 어서 당겨라
이 나무 넘어 넘어 간다
이헤 에헤야 어서 어서 당겨라
이 나무 넘어 넘어 간다

4. 나무를 목도해 산 아래로 운반
벌목한 나무를 산 아래로 운반하는 과정 중 목도로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힘을 합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요로 목도소리를 부르면서 운목해 산에서 내려온다.

<목도소리>
엥여차 엥여엥여 엥여차
엥여엥여 엥여허 엥여차
엥여허 엥여차 엥여허 엥여차

5. 부녀자들의 하루일과
주부들이 가정을 위해 내조하는 모습으로, 절구질하며 키질하고 옷감에 푸세를 하는 다듬질과, 다리미와 인두로 옷을 손질해 가족들에게 의복을 입혀 내보내는 일상을 표현한다.

6. 뗏목 떠나보내기
엮어진 뗏목을 강물에 띄우기 전, 용왕신과 바람신에게 뗏목의 운행을 보살펴 탈 없이 다녀오게 해 달라는 고사를 올린 후, 가족과 친지들은 전송한다. 뗏목꾼들은 뗏목을 타고 가는 긴 여정을 노래로 표현한 유벌가[流筏歌]를 부르며 항해한다. 목적지에 당도해서는 뗏목을 건네주고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신고산타령>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차 가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밤봇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뗏목소리>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빙글빙글 두만강수로 내려간다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야디야
들어간다 물은 콸콸 가슴 두근두근
00물이 넘는다 어떻게 갈까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야디야

7. 어울림한마당
뗏목꾼들이 무사 귀환한 기쁨을 가족은 물론 온 동리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춤추고 노래하며 해후하는 흥겨운 마당놀이며, 일곱 마당으로 작품을 마감한다.

두만강뗏목놀이소리는 두만강 일대에서 벌목 및 뗏목 제작, 목재 운반 등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소리를 말한다. 함경도의 개마고원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진 낙엽송 산림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원목을 채벌해 백두산 동남부 해발 1,500m 이상 되는 무산고원 하구인 삼장까지 운반한다. 그리고 채벌한 원목들을 서로 묶어 뗏목을 만든 후 두만강에 띄워 운반한다. 이 과정에서 뗏목꾼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구전되어 오늘날 두만강뗏목놀이소리로 전승되었다. 이 작품은 제55회와 제56회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신명상을 수상했다.





● **함경남도 / 토성 정월대보름놀이 /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토성 정월대보름놀이'는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에서 전래한 것으로, 정월대보름 2~3일 전에 신청과 도청 한복판에서 펼쳐지던 민속놀이를 무대에 올린 것이다. 참고로 정월대보름은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보름날로써, 농사의 시작일이기도 해 큰 명절로 여겼다. 토성 정월대보름놀이는 사자놀이, 돈돌날이, 횃불싸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북청군 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보름에 사자놀이 중심으로 놀았던 반면, 토성리에서는 돈돌날이와 횃불싸움도 함께 중요한 놀이 과정으로 여겼다. 이번 대회에서 토성 정월대보름놀이는 돈돌날이, 횃불싸움, 두상, 노장마당, 군무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월대보름 고사를 지내고 난 후, 마을 부녀자들은 집에서 함지, 바가지, 자배기, 놋그릇과 같은 북을 가지고 나와 돈돌날이 민요를 부른다. 북을 치는 부녀자가 중심이 되어 놀이를 이끌고, 흥이 난 부녀자들은 함지에 물을 붓고 바가지를 띄워 북과 비슷한 장단으로 연주한다. 민요와 장단에 흥이 오른 부녀자들은 원진을 만들어 춤을 추고, 원진 안에 들어가 신명 나는 놀이판을 벌였다.

이때 마을 청년들은 횃불싸움을 하러 토성산성을 돈다. 싸움을 벌이다 몸이 지치면 싸움을 멈추고 도청으로 집결한다. 횃불을 들고 집결하면 이들이 조명 역할을 한다. 횃불을 조명 삼아 일종의 연희극을 펼친다. 마을의 두상이나 노장이 사자를 초청해 벽사진경과 안과태평을 기원하는 매귀의식을 거행하고, 사자는 우물과 정지에서 바가지를 가지고 나와 액운을 쫓는 의미로 깨뜨린다.

두상과 꼭쇠가 사자를 앞세워 집집이 돌아다니며 잡귀와 재앙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춤을 추며, 마을 공동 기금을 걷는다. 사자가 바가지를 깨뜨리고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사자와 함께 군무를 펼친다. 넋이 나가도록 흥겨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일년 내내 편안하기를 기원한다. 즉, 집집이 돌아다니며 잡귀를 쫓고 복록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고 귀밝이술을 얻어먹는 등 초복재화를 벌이는 대동놀이였다.

함경남도 민속으로서 토성리 정월대보름놀이를 적극 전승하고자 이번 대회를 통해 선보였다. 한식날 여성들이 행하던 돈돌날이와 남성들의 횃불싸움이 결합된 양상이 특징적이며, 더불어 북청군 지역을 대표하는 사자놀이까지 결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을 주민 모두 적극적으로 이날을 기리고 놀이를 즐겼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평안북도 / 성황굿 / 영변성황대제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성황굿'은 평안북도 영변 지방에서 전승한 마을굿으로, '영변성황대제'라고도 부른다. 현재는 영변성황대제보존회에서 보존·전승하고 있다. 평안북도 영변 당굿의 제단은 북당과 남당이 있었고, 예전부터 남당보다 북당의 세가 우세했다고 한다.

대제는 일 년에 한 번 또는 격년으로 벌어지며, 길일을 택해 5일 정도 진행했다. 성황대제는 마을 주민들이 가을걷이를 끝낸 후 햇곡식을 집마다 추렴해 마을의 안녕을 소망하고 액운을 물리치며 태평성대와 길흉화복을 기원하는 의례다.

성황제가 끝나면 무녀들이 당굿을 시작한다. 성황제 의례는 감흥굿, 칠성굿, 타살굿, 영정굿, 조상굿, 성황굿, 대감굿, 사신풀이굿, 작두굿, 뒤전풀이 순으로 진행하며, 당굿은 강신굿, 대감놀이, 거리굿 순으로 진행한다.

영변성황대제에서 연행하는 춤은 접신을 표현하는 의례로, 신이 지시하는 행동이나 언어를 가무악 형식으로 표현하며, 영변 지방에서는 이를 거상악[擧床樂]이라 부른다. 사용하는 악기는 타악기로, 장구, 피리, 제금 등을 연주하며, 장구는 상장구와 하장구로 구성된다. 상장구는 술말이 역할을 하면서도 무악의 대장이며, 제관만신은 상장구와 절대적인 호흡을 맞추면서 성황대제를 이끌며 푸념을 직접 행하거나 뒷전을 전담하는 등 놀이에서 이인자 역할을 한다. 주로 사용하는 장단은 푸념장단, 비난수장단, 긴염불장단, 자진염불장단, 굿거리장단, 벅구장단, 굿장단 등이 있으며, 이중 푸념, 비난수, 긴염불, 자진염불은 청배장단이다. 춤 장단으로는 굿거리장단, 굿장단, 벅구장단이 쓰인다.

성황굿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장
음식을 진설해 거상을 하고, 깃발, 피리, 장고 2, 제금 2, 동자, 동녀, 제관, 제관, 만신, 재가집, 마을 사람 순으로 입장한다.

2. 당제
제관과 제관만신이 거상을 하며, 마을에 안녕을 빌고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삼배를 올린다.

3. 비나수
당산에 마을과 주민의 복을 기원한다.

4. 성황넋두리
남성황과 여성황을 모시고 마을에 평안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국태민안을 축원한다.

5. 제장굿
제관만신이 성황필을 감아 당제를 올린 것에 대한 응답을 구한다.

6. 동자굿
제관만신에게 동자신이 접신되어 동자굿을 행한다.

7. 돈타령

제관만신이 선소리를 하면 악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뒷소리를 하면서 부자가 되도록 축원한다.

성황굿은 북한 지역의 민속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전통 양식을 복원해 북한 지역문화의 원천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황대제로서 전승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이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평안북도 무속의 전통적인 형태가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이 기울여지기를 기대한다.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7.09.21~09.24, 경상남도 김해시 수릉원)

1. 개괄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민속예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처음 그 막을 열었으며, 1994년부터는 청소년에 대한 민속예술 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개최해오고 있다. 축제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민속예술의 우수성을 선양할 뿐 아니라, 공연을 통한 전통 민속문화 창달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을 목표로 삼는다.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9월 21일부터 24일 동안 나흘에 걸쳐 김해시 수릉원에서 개최되었다. 김해는 가야국의 중심이자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유적으로 남아 있는 전통문화의 고장이다.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릉 옆에서 펼쳐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는 전국 14개 시·도 학교 대표 14개 팀이 참여해 기량을 뽐냈으며, 전국 15개 ·시·도 및 이북5도 대표 20개 팀이 한국민숙예술축제에 참가해 각 고장의 민속예술을 선보이면서 오랜 기간 연마해 온 기량을 겨뤘다.

이번 축제에는 전년도 우승팀인 '강화용두레질소리'와 '전주기접놀이' 가 초청공연을 펼쳤다. 또한 국가긴급보호 무형문화재 박정임 명인의 발탈과 김대균 명인의 줄타기 공연은 관람객이 우수한 우리 민속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시했다.

또한 대회 최고상을 받은 '모전들소리'는 방아타령, 모심기소리, 논매기소리 등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우리 소리를 신명과 함께 생생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58회 대회 경연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20개 팀으로, 충청남도 '공주걸립농악' (공주시걸립농악보존회), 강원도 '원주오리골농요' (원주어리랑보존회), 황해도 '황해도화관무' (황해도화관무보존회), 제주도 '솥 굽는 역시' (덕수리민속보존회), 함경남도 '토성정월대보름놀이' (함남 북청민속놀이보존회), 울산광역시 '울산쇠부리소리' (함남 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경북도 '애원성' (함경북도 애원성보존회), 평안남도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인천쑥대고잔 '지경다지기' (인천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보존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산농악' (지산농악보존회), 충청북도 '괴산군 여사왕 대도듬놀이' (한국예총괴산지회), 경상북도 '모전들소리' (문경모전들소리보존회), 전라북도 '정읍농악 판굿과 일광놀이' (정읍농악보존회), 경상남도 '창원퇴촌농악' (창원퇴촌농악보존회), 부산광역시 '부산고분도리걸립굿' (부산고분도리걸립보존회), 경기도 '이천 용면리 용줄다리기' (이천문화원), 평안북도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전라남도 '담양농악 풍장놀이' (우도농악담양보존회), 대구광역시 '용수 가루뱅이농악' (가루뱅이농악보존회), 대전광역시 '고아역시 숯뱅이두레' (대전서구문화원) 등이다.

2. 참가 종목

● 경상북도 / 모전들소리 / 문경모전들소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20,000

'모전들소리'는 경북 문경시 모전동 등지에서 전승하던 논농사에 불렀던 농요 및 노동요를 모아 구성

한 작품이다. 모전동과 동로면 등지에서 전승한 노래가 주를 이루는데, 모전동의 민요는 故 양수봉에게 민요를 배운 김제수(남, 60세)가, 동로면의 민요는 故 변상득, 故 송재봉에게 민요를 배운 금명효(남, 37세)가 명맥을 잇고 있다.

모전들소리에는 산악 지형이 주를 이루는 문경의 지역 특수성에 따라, 땅을 개간하기 전이나 농사를 시작하기 전 마을 당산 및 토지신에게 고하는 고사소리인 지신밟기, 흙을 올리거나 수로를 팔 때 부르는 가래질소리, 여기서 나온 바위나 나무를 옮기면서 하는 목도소리, 논농사 때 부르는 모심기소리, 방천다지는소리, 논매기소리인 상서소리, 방애소리, 에히용소리 등의 농요가 있다. 또한 각 마을 장정들이 마을로 돌아오며 힘겨루기를 하는 기싸움놀이, 농사일이 끝난 후 농사장원을 했다는 의미로 상일꾼을 걸채에 태워 부르는 쾌장소리와 상여소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1. 지신밟기

<지신밟는소리>

에헤로 지신아　　지신아 밟아 누르자
정월이월 드는액은　　이월 영등에 막아주고
삼월사월에 드는액은　　사월 초파일로 막아주자
오월유월에 드는액은　　유월 유두로 막아주고
칠월 팔월 드는액은　　팔월 한가위 막아주자
구월 시월 드는액은　　시월 상달로 막아주고
동지 섣달 드는액은　　섣달 그믐날 막아주자
일년하고 열두달　　삼백하고 육십오
이살저살 모으다가　　성주을병에 소멸하고
잡귀야 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우리 동민들에게로
에헤로 지신아

2. 가래질

<가래소리>

어 허 가래요　　어 허 가래요
앞에서는 땡기주고　　어 허 가래요
뒤에서는 밀어주고　　어 허 가래요
항우장사 조자룡이　　어 허 가래요
지가그리 힘이쎈들　　어 허 가래요
우리농군 당할손가　　어 허 가래요
어쌰~ 어쌰~ 어쌰~
어 허 가래요　　어 허 가래요
상주뜰이 넓다해도　　어 허 가래요
우리군정 힘을쓰니　　어 허 가래요
한나절도 안걸릴세　　어 허 가래요
낙동강수 이리와서　　어 허 가래요
이집논에 대다주소　　어 허 가래요
어쌰~ 어쌰~ 어쌰~

3. 목도

<목도소리>

어여차 어허 어여차 어허
어기여차 어허 어여차 어허
통나무지고 어허 어여차 어허
황소걸음 어허 어여차 어허
발을맞아 어허 어여차 어허
나아가세 어허 어여차 어허
이집주인 어허 어여차 어허
목마를때 어허 어여차 어허
술도주고 어허 어여차 어허
배고플때 어허 어여차 어허
밥도주세 어허 어여차 어허
어여차 어허 어여차 어허
참잘한다 어허 어여차 어허
우리농군 어허 어여차 어허
힘을내세 어허 어여차 어허
발을맞아 어허 어여차 어허
한발한발 어허 어여차 어허
나아가세 어허 어여차 어허
참잘한다 어허 어여차 어허
다와간다 어허 어여차 어허
어기여차 어허 어여차 어허

4. 모심기

<모심는소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 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 주소
아리랑 춘자가 보리쌀을 씻다가 이도령 피리소리에 오종을 퍽 쌌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 주소
오줌을 쌋으면 적게나 쌌나 낙동강 칠백리에 홍수가 다 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 주소
둥아 둥아 두리나 둥아 섭만 좋도록 두리나 둥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 주소
요게도 꼽고 조개도 꼽고 쥔네 속곳 밑에도 꼬자를 주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 주소
유월 새벽달에 모를 심더라도 광만 고르게 숨가나 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 주소

5. 방천다지기

<방천다지는소리>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이방천을 다진다고 어여차 어허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버쩍들어 발뜽찍고 이방천을 다질적에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양사방 내기티에 바웃돌을 주추를 삼아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바웃돌이 몇 개든고 양사방 내 모티에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초가삼간 집을지어 어여차 어허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양친부모 모실적에 만수무강 일도야 없고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그자손이 날적에는 나랏님께 충성을 하고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일년농사 질적에는 천하대풍 문제도 없다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어디군정 모였는고 문경하고 모전이라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높은데를 골라노소 엎어졌다 자빠졌다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이짝으로 돌아가서 저짝으로 돌아나 오게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일년농사 질적에는 천하대풍 문제도 없다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참잘해요 우리군정 어여차 어허 오호이 오호 어여차 어허

6. 앞방천다지기

<달구소리>
오 달구요 오 달구요
달구소리 나거들랑 오 달구요
삼천만의 군정들요 오 달구요
물레돌듯 돌아가며 오 달구요
수레돌듯 돌아가며 오 달구요
연자돌듯 돌아가며 오 달구요
우렁쿵쿵 다아주게 오 달구요
오 달구요 오 달구요
우리군정 들어보소 오 달구요
칠년대한 가뭄날에 오 달구요
억수같은 비가와도 오 달구요
이방천은 까딱없고 오 달구요
북풍한설 설한풍에 오 달구요
대포같은 눈이와도 오 달구요
이방천은 까딱없네 오 달구요
우리군정 참잘한다 오 달구요

7. 논매기 - 상서소리

<두불매는소리 - 상서소리>
에 헤에 에헤 아 여 이오 오오 상서디여
에 헤에 에헤 아 여 이오 오오 상서디여
밤이되면 속잎나고 낮이되면 가지 벌어 아 여 상서로구나
에 헤에 에헤 아 여 이오 오오 상서디여
일취월장 자라나니 우리농군 홍복일세 아 여 상서로구나
에 헤에 에헤 아 여 이오 오오 상서디여
아약노약은 다 빠지고 일등군정 만 골라섰구나 아 여 상서로구나
에 헤에 에헤 아 여 이오 오오 상서디여
일등군정 모였으니 요만한일 못할소냐 아 여 상서로구나

에 헤에 에헤 아 여 이오 오오 상서디여

8. 논매기 - 방애소리와 에히용소리

<방애타령>

에 헤에 방애요	에 헤에 방애요
방애소리가 나거들랑	에 헤에 방애요
강태공에 조작방애	에 헤에 방애요
강태공은 어디가고	에 헤에 방애요
방애나 홀로 놀아나나	에 헤에 방애요

<에히용소리>

에히용 소리가	에히용
나거들랑	에히용
먼데사람은	에히용
듣기나 좋고	에히용
젙에 사람은	에히용
보기나 좋게	에히용
에히용	에히용
에히용	에히용
에히용	에히용

9. 기싸움놀이

풍물과 함께 한바탕 놀다가 두짓계와 일진계 장정 둘이 기싸움을 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함께 어울린다.

10. 장원질

<행상소리>

간다 간다 나는간다 농군들 등을타고 나는가요	어하 어하 어허이 어하
사자하니 고생이요 죽자고 드니 눈물이로다	어하 어하 어허이 어하
춘초는 연연록이요 왕손은 귀불귀라	어하 어하 어허이 어하

<쾌장아 칭칭나네>

어제청춘 오늘백발	쾌장아 칭칭나네
이가빠져 말이세나	쾌장아 칭칭나네
귀가멀어 님이갔나	쾌장아 칭칭나네
아릇방이라 앉은손님	쾌장아 칭칭나네
이리와서 술한잔 하세	쾌장아 칭칭나네
우리집 할마이 어데갔나	쾌장아 칭칭나네
마늘당파 씨다하고	쾌장아 칭칭나네
간장초장이 없어서리	쾌장아 칭칭나네
안주삼구로 내다가 주게	쾌장아 칭칭나네

모전들소리는 논농사에 부르는 농업노동요와, 가래질과 목도에 부르는 토목노동요, 지신밟기에 부르

는부르는 기원의식요, 장원질에 부르는 유희요와 의식요에 해당하는 상여소리, 그리고 기싸움놀이 등이 포함된 복합 구성 작품이다. 다양성과 촘촘한 구성이 돋보이며, 이번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광주광역시 / 광주지산농악 / 지산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국무총리(최우수상)
상금 15,000

'광주지산농악'은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상류 새암 들녘에 있는 마을 '지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악을 재현한 것이다. 지산은 그 지리적 이점으로 농사가 무척 발달했으며,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온갖 제액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굿과 마당밟이(뜰밟이)를 거행했고, 농사철에는 농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두레굿을 쳤고, 마을 공공자금 모금을 위한 걸립굿을 쳤다. 이런 마을 행사에는 늘 농악패가 앞장섰고, 이것이 오늘날 지산농악으로 전승된 것이다.

광주지산농악은 호남 서부의 곡창지대에서 정읍, 고창, 이리(익산), 영광 등지로 전승된 '호남우도농악'에 속한다. 호남우도농악에는 다채로운 진[陳]놀음이 발달했고, 상쇠의 부포놀음과 설장구 등의 개인놀이가 발달했다. 이렇게 다른 지역 농악에 비해 화려하고 섬세한 가락을 간직한 호남우도농악의 특징은 광주지산농악으로 올곧이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호남우도농악이 뛰어난 예술성을 간직한 것은 이 지역에 걸출한 농악 명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상쇠는 전경환(영광), 정종석(광주지산), 이주완(광주), 장구는 김오채(영광), 최막동(광주), 김성수(나주), 심상문(담양), 법고는 강대륙(영광), 박용하(고창) 등의 명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호남의 중심지 광주에서도 많은 활동을 펼쳤고, 이로써 광주지산농악은 오늘날과 같은 독특한 가락과 복색, 개인놀이, 진법 등이 발달할 수 있었다.

광주지산농악은 호남창극단에서 활동했던 용전마을 상쇠 정종석(광주 지산)에 이어 정영을이, 김오채류 설장구는 김학중, 김홍식, 김오채, 김동언, 이대휴, 정영을이, 설북은 광산농악의 서창순 대를 이은 진준한이, 영무장농악의 고깔소고는 강모질, 김양술, 박용하, 정영을이 전승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산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질굿마당

내드름굿 일·이·삼채가락을 마친 후 일채로 입장해 오채질굿, 된오채질굿, 갖은일채, 벙어리삼채, 벙어리일채, 된삼채, 음매갱, 일채를 친다.

2. 오방진마당

오방진은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에 진을 치는 것이다. 덕석몰기로 진을 쌓아 연주하다, 가락을 난타로 털어서 앉았다, 삼채가락으로 풀고 나온다. 이후 반삼채, 매도지가락으로 맺는다.

3. 호허굿마당

원형진을 만들고 열두마치(12채), 허허굿, 자진허허굿을 친다. 좌·우·진·퇴(좌우치기, 연봉치기)를 한 뒤 지심매기, 지신밟기, 콩등지기, 용틀임, 두줄치기, 좌·우·진·퇴, 가세치기를 한 다음, 개인놀이 대형인 'ㄷ'자진으로 치배들을 세운다.

4. 개인놀이

치배들이 개인 기량을 한껏 보여주는 마당이다. 잡색놀이,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열두발상모놀이 등을 하고, 인사굿을 한 다음 휘몰이로 퇴장한다.

광주지산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의 특징인 느린 가락에 부드럽게 변화를 주며 한가로운 듯한 박자감으로 연주를 시작해 흥을 돋은 후, 점차 경쾌한 흐름으로 신명을 살리다 끝을 맺는 기승전결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다채로운 가락 구성이 쇠가락과 춤사위로 이어지면서 우도농악의 주요한 특징인

밑놀이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우도농악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광주지산농악이 지역 전통문화의 소중한 유산으로 잘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대전광역시 / 숯뱅이두레 / 대전서구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숯뱅이두레'는 숯뱅이(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과 용문동 일대의 옛 지명)에 전해지던 두레를 놀이로 구성한 것이다. 농신제, 아시매기, 가래질소리, 이듬매기, 새참멕이, 못줄놀이, 만물매기, 뒤풀이 등으로 진행한다. 뒤풀이는 만물매기를 마치고 좌상 댁에 가서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며 모두 함께 신명 나게 노는 흥겨운 두레 농악놀이로, 논농사의 과정과 소리, 농악이 다 함께 어우러진다. 연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논매기소리

에헤~이 에헤~이 어럴~럴~럴 상~사 뒤여~
농사법은 누가졌나 신농씨가 지었다네
한일자로 늘어서서 이곳저곳 살펴보세
모폭사이 자란폭은 호미밥으로 덮어주고
논바닥에 자란풀도 호미밥으로 덮어주세
조상님께 봉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세

<잦은소리>

어럴럴럴 상사디
해가지네 마을마다 저녁준비 연기나네
호미놀림 어서하세 었차었차 었차 었차
었차 었차 었차 었차

2. 가래질소리

가래로세 가래로세 어기 었차 가래질
여보시게 가래꾼들 이내말좀 들어보게
일년이면 열두 달 윤달들면 열세달이오
춘하추동 사계절 오유월이 지나가고
육칠월이 다가오면 비가많아 장마와서
논뚝밭뚝 무너지고 마을길도 무너졌네
무너지고 끊어져도 가래밥으로 막아보세
가래질은 뉘배웠나 어기어차 잘도하네
어기 었차 가래질 어기 었차 가래질

<자진소리>

칠월장마 다시와도 어기 었차 가래로세
잘 다져서 안전하네 어기 었차 가래로세
잘다졌네 잘다졌네 어기 었차 가래로세
가래로세 가래로세 어기 었차 가래로세

3. 새참멕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전 사해용왕님전 비나이다
살피소서 살피소서 우리농군 살피소서
숯뱅이골 금년농사에 우리농군 살피소서
낫날에 손이비고 삽날에 발이비고

호미 끝에 손등찍고 지개질에 발목삘제
살피소서 살피소서 우리농군 살피소서
숯뱅이서 정성모아 농군안녕 기원하니
농군정성 받으시고 금년농사 풍년대풍 비나이다.
고시레

숯뱅이두레는 지역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두레와 두레소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매기소리에서는 상사소리류 소리로 일정하게 진행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또한 만물매기를 하고 농민을 기리는 놀이를 진행하는 점에서도 전형적인 두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솥 굽는 역시 / 덕수리민속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전승하는 '솥 굽는 역시'는 무쇠 솥을 만드는 과정을 놀이로 구성한 것이다. '불미'라는 주물업을 통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무쇠 솥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하다. 덕수리는 무쇠 솥, 쟁기, 낫 등을 생산해 제주도 전역에 보급한 마을이다. 이 과정에서 불미 기술이 발달했는데, 청탁불미, 디딤불미, 발판불미 등으로 전개되었으며, 현재는 6인 1조로 2개 조가 교대로 바람을 일으키는 '발판불미'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솥, 보습, 볏 등과 같이 비교적 큰 농기구를 만들 수 있다. 놀이는 뎅이굽기, 풀무질하기, 쇳물붓기, 솥, 보섭 꺼내기, 뒤풀이 순으로 이어진다. 불미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판불미노래

아-하에헤요

불무나 불엉 담배나 먹자 아-하에헤요
떳다떳다 홍애산이 떳다 아-하에헤요
요불무는 웬불무용 아-하에헤요
이불무랑 불어보소 아-하에헤요
서른여덟 이빠디가 허우덩싹 아-하에헤요
떳다떳다 홍애산이 떳다 아-하에헤요
엿날엿적 조상님네 아-하에헤요
요일멍 살았던가 아-하에헤요
요일안해도 살건마는 아-하에헤요
힘을내영 불어보소 아-하에헤요
요놀레들엉 잠을깨소 아-하에헤요
어야차 두야차 상사랑이로다 아-하에헤요
낮에는 낭고지가고 아-하에헤요
밤이되면 요솟불앙 아-하에헤요
독안앞으로 내리는물은 아-하에헤요
무쇠녹은 냇물이요 아-하에헤요
젯대장이 저걸음보소 아-하에헤요
꼬박꼬박 졸지말앙 아-하에헤요
요놀레들엉 잠을깨소 아-하에헤요
여른여덟 이빠디가 허우덩싹 아-하에헤요
대자오치 불무노래 아-하에헤요
석자오치 화시겟대 아-하에헤요
자두치 양짓머리 아-하에헤요
석자오치 양짓무끌 아-하에헤요
어깨소리 울어가면 아-하에헤요
새벽달이 떠오른다 아-하에헤요
불로익은 요내몸이 아-하에헤요
날이샌들 지칠소냐 아-하에헤요
여야차 두야차 상사랑이로다

솥 굽는 역시는 불미 공예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는 점, 특히 제주도 전 지역에 보급되는 농기구와 생활도구를 만들던 마을에서 전승하는 불미 공예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무쇠를 용광로에 녹여 흙으로 만든 틀에 쇳물을 부어 넣는 작업 등의 과정을 놀이로 일정하게 구성한 점으로도 소중한 가치를 지녔으며, 특히 야철의 신 '참봉신'에게 지내는 제의와 전통 야금술 과정을 재현한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판단된다.





● 울산광역시 / 울산쇠부리소리 / 울산북구문화원(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울산쇠부리소리'는 울산지역에서 쇠를 생산하고 다루면서 했던 민속과 노래를 엮은 작품이다. 제44회, 제49회,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바 있으며, 제55회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민요 종목으로 참가했다.

삼한시대부터 철을 생산했던 울산에서는 토철, 즉 철 성분이 많이 함유된 토철과 철광석, 모래를 녹여 판장쇠(쇳덩이)를 만드는 작업 형태가 존재했는데, 이 제련 작업을 예부터 '쇠부리'라 불렀고, 쇠부리를 하기 위한 송풍에는 일명 '불매(풀무)'를 사용했다. 풀무질은 쇠부리 작업을 하는 동안 쉼 없이 계속해야 하므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이 쇠부리 작업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불매소리'다.

이러한 철 생산 과정을 되새기고, 당시의 몸짓과 소리를 정리해 재현한 것이 울산쇠부리소리다. 이 작품은 두서면 인보리에 생존했던 고 최재만(당시 81세)의 고증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작품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다르레기와 길장단을 연주하면서 입장한다.

2. 고사 마당

전주와 부리꾼들의 제례에 이어 축문을 읊어 제를 올린다. 제가 끝난 후 음복을 하는 과정에서 자진 덧배기 장단을 연주해 흥을 돋우었다.

3. 쇠부리 불매소리 마당

<쇠부리 불매소리>

홍굴레~더	홍굴레~더	홍굴레~더
(받는소리)	어 허어	불매야
(메기는소리)	어허어	불매야
	아야여로	불매야
	아야여로	불매야
	이짝구비	불매야
	저짝구비	불매야
	우리여덟	불매야
	신때난다	불매야
	이불매가	누 불매고
	경상도	도불매
	아야여로	불매야
	아야여로	불매야
	놀아보자	불매야
	불앞편수	불매야
	쿵덕쿵덕	불매야
	우리 여덟	불매야

불앞편수 불매야
장짹놓고 불매야
울퉁불퉁 불매야
우리 여덟 불매야
아이야 사이야
쿵덕쿵덕 불매야
얼씨구야 불매야
저절시구 불매야
놀아보자 불매야
아이야 대자야
아야여로 불매야
우리 여덟 불매야
놀아보자 불매야
쿵덕쿵덕 불매야
호호호 불매야

<자진불매소리>

호호대이 호호대이 잘한다
홍굴레 홍굴레 홍굴레
(받는소리) 어여루 불매야
(메기는소리) 어여루 불매야
달이식네 불매야
퍼떡디뎌라 불매야
불매부는 여러분들
불매부는 내력이나
알고나 부는거나
옛날옛적 시원선생
조작으로 맨든불매
불매는 있건만은
시원선생 어디갔나
태고적시절 언제라꼬
시원선생 있을손가
어열시구 불매로다
저절시구 불매로다
쿵덕쿵덕 잘도분다
이불매 이름은 무엇인고
경상도 도불매라
쇠는 어디쇠냐
달내골에 토철이라
옛시적에 구충당이
십년세월 쇠를찾아
세상천지 헤매다가
찾고보니 달내토철
이쇠녹여 솥만들고
이쇠녹여 훌쩡쇠떠서

천석만석　　풍년이라
숯은숯은　　어디숯고
도덕골에　　참숯이라
쇠도끼로　　내려쳐서
밤낮없이　　구웠다네
어이여로　　불매로다
얼시구절시구　　불매로다
쿵덕쿵덕　　불어주소
무룡산에　　산신령님
용당골에　　용왕님요
이부리가　　잘도되면
반달같은　　논빼미사서
서말찌솥에　　이밥퍼서
부모봉양을　　하여보세
국태는　　민안하고
시화　　연풍하니
아니놀고　　무할소냐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건곤　　북만가다
배가고파　　밥을먹고
목이말라　　술을먹어
얼시구나　　절시구나
저절시구　　불매로다
잘도분다　　잘도부네
일심동체　　하여주소
쿵덕쿵덕　　디뎌주소
불앞편수　　거동보소
초롱구멍　　뚤거놓고
갈팡질팡　　하는구나
쇳물난다　　쇳물일세
불매디디는　　꾼들보소
쇳물일세　　쇳물일세
잘한다 홍굴레 홍굴레 홍굴레

4. 쇠부리 금줄 소리 마당

<쇠부리 금줄 소리>

(받는소리)　호호호 불매야 호호호 불매야
(메기는소리)　호호호 불매야 호호호 불매야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하수라
불매조종은　도불매라　시원선생의　조작불매
쇠는쇠는　농소달천의　의립선생의　토철일세
금년해분　병신년에　무룡산신께　발원이요
이짝저짝　신때나고　쇳물마다　장척나소
이쇠부리　잘도되면　집도짓고　장개도가고

이쇳물을 녹여다가 쟁기가래 맨들어서
반달같은 논빼미사서 부모봉양 하여보세
이쇳물을 녹여다가 철궁창검 맨들어서
우리나라 수호하고 국태민안 하여보세
재수주고 복도주고 운수대통 발원이요

5. 애기 어르는 불매소리 마당

<애기 어루는 불매소리>

불매불매 불매야
불매딱딱 불매야
풀 딱딱 불매야
여기가 어디멘고
비영산전 아닌가베
이불매는 누불매고
경상도라 도불매
쇠는쇠는 어디메쇠
달내쇠골 수철이라
숯은숯은 어디숯고
경주황룡골 숯이다
맨든쇠는 어딜가노
전라도라 자랑쇠
철궁창검 맨들어서
이나라를 수호하고
은삼동구리 맨들어서
할아부지 노리개요
은장도를 다듬어서
우리엄매 치장하고
은밥그릇 맨들어서
우리손자 밥을담네
금자동아 은자동아
만첩산중에 칠기동아
워석워석 잘커거라
남은쇠는 모아갖고
짜깨칼로 맨들어서
너가부지 장시가서
밤한되를 사왔네
살강밑에 묻어노니
머리깜은 생쥐가
오머가머 다까묵고
다문한개 남았는거
벌거지가 다파묵고
으슥으슥 드는칼로
애비는 껍지주고
어미는 보네주고

알퀄랑　　니캉내캉
둘이서　　농갈라묵자
불매딱딱　　불매야
풀 딱딱　　불매야
불매딱딱　　불매야
풀 딱딱　　불매야

6. 성냥간 불매소리 마당

<성냥간 불매소리>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불매불매　　불매야
불매불매　　불매야
불매딱딱　　불매야
불매딱딱　　불매야
불딱딱　　불매야
불딱딱　　불매야
이불매는　　어디불매
경상도　　도불매
쇠는쇠는　　어디쇤고
달내라　　토철이요
숯은숯은　　어디메숯
황룡골　　백탄이다
만든쇠는　　어딜가노
전라도라　　자랑쇠로
철궁창검　　만들어서
우리나라　　수호하고
자리랑자리랑　나온다
자랑자랑　　나온다
농부연쟁이　　나온다
온갖연쟁이　　나온다
큰머슴쇠는　　훌쩡쇠
꼴머슴쇠는　　가래쇠
온갖무쇠가　　나온다
온갖잡쇠가　　나온다
농부연쟁이　　나온후에
목수연쟁이　　나온다
대짜구도　　여덜비
소짜구도　　여덜비
온갖무쇠가　　다나온다
온갖잡쇠가　　다나온다
불　불　　불매야

불　불　　불매야
불매불매　　불매야
불매불매　　불매야
풀　딱딱　　불매야
풀　딱딱　　불매야
딱딱딱　　불매야
딱딱딱　　불매야
불매불매　　불매야
불매불매　　불매야
울메불매　　불매불매
울메불매　　불매불매
울메불매　　불매불매

7. 쇠부리 난장놀이

현재도 철공업이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한 전통을 찾아 작품을 구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울산 쇠부리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 / 이천용면리 용줄다리기 / 이천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경남도지사(은상)
상금 7,00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 전승되는 '이천용면리 용줄다리기'는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행했던 민속놀이다. 예전에는 매년 했으나 현재는 격년으로 하며, 마을에 재앙이나 흉사가 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 용줄다리기는 보통 볏짚거두기, 줄드리기, 빗장지르기, 힘겨루기, 마무리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천시는 예로부터 대규모 줄다리기를 진행했던 지역이다. 용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참여해 즐기는 용면리의 중요한 마을 행사였다.

이 놀이는 '용줄'을 만들기 위한 볏짚을 모으면서 시작한다. 두레패가 풍악을 울리고 마을을 돌며 가가호호 방문해 축원을 하고, 집집이 준비한 볏단을 내놓는다. 거둬들인 볏단을 마을 입구 느티나무 옆에 쌓아두고 줄을 만든다. 흔히 이를 '줄드린다'고 하는데, 용줄 만들기는 경험이 많은 마을 어르신의 자문을 받은 젊은 장정들이 도맡아 한다. 가닥줄을 꼬아 숫줄과 암줄을 만드는데, 마을 아낙네가 줄을 넘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여인이 줄을 넘어가면 줄이 끊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줄을 지키기기 위해 밤을 새기도 했다고 한다.

이윽고 정월대보름날이 되어 밤하늘에 커다란 보름달이 떠오르면 빗장지르기를 시작한다. 숫줄에 올라탄 숫줄장군이 행렬을 시작하고, 마을 입구에 놓아둔 암줄에도 암줄장군이 올라타 숫줄을 맞이한다. 마을을 상징하는 만장기와 각종 영기가 앞장서고, 마을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뒤따른다. 양편이 마주서면 서로 상대방의 기를 꺾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침내 수줄을 암줄에 찔러 넣고 비녀목을 지른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연결된 부분 앞에서 마을 촌장의 주도로 고사를 지내는데, 이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고사가 끝나면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마침내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숫줄 편에는 남자가 서고, 암줄 편에는 여자와 아동이 선다. '삼 판 이 선승제'로 겨루는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들기 때문에 용줄다리기는 언제나 암줄이 승리한다. 한바탕 신명 나는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썰어 논에 거름으로 뿌린다. 이긴 쪽의 줄을 가져가 거름에 섞으면 농작물이 잘 여물고, 지붕에 올려놓으면 아들을 낳으며, 소를 먹이면 소가 튼튼하게 잘 자란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로 다퉈 한 움큼씩 잘라간다. 여흥이 남은 마을 사람들은 대동놀이를 즐기며 지신밟기를 하고, 산에 뜬 보름달을 보며 달맞이를 즐기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용면리 줄다리기는 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민속놀이다. 볏짚을 거둬 큰 줄을 드리고, 대보름 저녁에 줄다리기하는 과정을 경연용으로 꾸며 나온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줄다리기할 때 성별로 구분해 겨루기하는 점이 특이하다. 줄다리기에서는 언제나 여자 편이 승리하는데, 남녀 관계를 모방해 주술적 성격이 강한 특징을 드러내는 줄다리기를 간직하고 전승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 인천광역시 / 인천쑥대고잔 지경다지기 / 인천서구문화원 인천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7,000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인천 지역의 경서동, 오류동, 반월촌 등지의 바닷가 마을에서 집을 짓기 전 집터 다지기를 할 때 부르던 노동요다. 이 작품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김준완(90), 허영로(82) 등의 고로들이 기억하던 소리를 복원한 것이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크게 집터 다지기 전에 지내는 터 고사, 땅 고르기, 땅 다지기로 구성된다. 그리고 일 중간의 여흥 장면과 일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뒤풀이 마당이 추가되어 있다.

집터를 다질 때는 무거운 지경돌이나 지경목을 열두 가닥(십이지 방향)의 동아줄로 묶은 다음, 집 지을 곳에 모여 동아줄 가닥을 나눠 잡고 노래에 맞춰 일제히 들어 올렸다가 힘찬 발구름과 함께 돌을 땅에 내려뜨린다. 이때 떨어지는 속도가 돌이나 나무둥치의 무게에 더해져서 땅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무거운 돌이나 나무를 들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소요되는데, 이때 힘든 노동을 슬기롭게 해내기 위해 노동요인 지경소리를 부르는 것이다.

집터를 고르게 만들기 위해 흙을 퍼서 옮기는 작업에는 가래질소리가 불린다. 가래는 보통의 삽보다 큰 크기로 하며, 가래를 든 사람 외에 가래 양쪽으로 줄을 달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겨 힘을 보탠다. 가래질을 할 때는 <어하능청 가래여>의 가래질소리를 노래하는데, 이는 세 사람이 함께 노래를 해야 호흡이 맞아서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의 조기 잡는 배에서도 그물에 걸린 조기를 퍼낼 때 가래질을 하는데, 이때 부르는 가래질소리와 앞서 설명한 흙을 푸는 가래질소리는 음악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또 조기잡이 배에서 부르는 배치기 소리와도 느낌이 비슷하다. 두 곳 모두 가래를 사용해 일을 하며, 그 내용이 다를 뿐 푸는 동작도 유사해 동일한 음악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해안 지역에서 뱃노래와 육지의 일노래가 비슷한 구조로 불리거나, 동일한 악곡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땅을 부분적으로 다지는 작업에는 방아소리가 불린다. 방아소리 계열은 경기도 일대에서 회다지와 같이 땅을 다지는 동일 작업에서 널리 불리고 있어, 경복궁 건립 당시에도 방아타령이 토목노동요로 불리면서 경복궁타령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에 방아소리가 불리는 것은 경기 지역 방아타령권에 속하는 문화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메기고 받는 가창 방식으로 노래하며, 경쾌하고 뚜렷한 흐름새의 고조로 특징을 이룬다. 지경꾼들은 메김소리 때 잠시 피로를 풀고 힘을 비축했다가 받는소리와 동시에 일제히 지경돌을 당겨 올렸다가 내려친다. 지경소리는 무거운 지경돌이나 지경목을 일제히 들어 올리기 위한 신호 역할을 하며, 지경꾼들이 각자 동작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1. 입장

2. 터고사

<고사소리>
천개우주 하날되고 지개주축 땅생기니

국태민안 범년자 시화연풍이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둥하야
삼각산 뚝떨어져 계양산에 뻗은 줄기
봉황이 생겼으니 봉에 등에다 터를 닦고
학을 눌러 대궐을 짓고 대궐 밖은 육두로다
어영문 화각산은 각도 각읍을 마련헐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는 백호로다
이 고사를 지낼 적에 무슨 고산지 알어보소
이씨가중에 집을 짓되 정성으로 터를 닦어
원극허면 이씨대주 금명전에 김씨부인
비나이다 비나이다 만복을 비나이다

3. 가래소리

<가래소리>

(받는소리) 어화 능청 가래야하
(메기는소리) 어화 능청 가래야하
천지현황 생긴 후에
일월성진 밝았으니
동방에는 청제지신
남방에는 적제지신
서방에는 백제지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한가운데 황제지신
오방지신 힘을받어
동네사람들 모두 나와
깊이 파서 번쩍 들어
단단하게 밟아주세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보시오 주인님네
막걸리 한 잔 먹고 허세
저 하늘에 저구름아
구경하랴 머물었네

4. 방아소리

<방애타령>

(받는소리) 헤헤 헤헤야 허허라 우겨라 방애로 구나
(메기는소리)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를 아까운 이 청춘 다늙는다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를 잡으러 내안간다
밥도 먹구 술도 마시고 백한 삼년만 살다가 가세
니가 살면 천년을 사나 내가 살면은 만년을 사나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을 보고서 웃지를 마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이 더욱 섧다
명년 삼월이 꽃피련만 나는 언제나 다시 오나

너는 다시 피련마는 나는 언제나 다시 오나

5. 아낙네소리마당

<나나니타령>
나나나 산이로구나 아니 놀고 뭘할소냐
소연평 산은 칡산이요 엔평산은 춤산이로다
신작시 강변에 아가씨나고 바람만 불어도 다 쓰러진다네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나더니 이삼일만에 배돌아온다네
우리집 새서방 게장이 좋아서 게딱지 타고서 낚시질 간다네

6. 지경다지기

<지경소리>
(받는소리) 에 여라 지경이야
(메기는소리) 다져주세 다져나 주세
단단하게 다져나 주소
이 집 한번 짓자하면
일심 공덕 다 들였으니
대궐같은 집을 짓세
이 명당을 살피어보면
백두 대간이 뻗쳤나요
계양산이 생겼는데
계양산 난맥이 떨어져서
이 터전이 생겼구나
좌를 보면 청룡이요
우를 보면 백호로다
명당일세 명당일세
쾅쾅 찧어라 지경이야
동네 내력을 보자하니
석탄면에서 반을 떼어
천마산에 정기받어
한강수에 물줄기로
망망대해에 이뤘네
여보시오 지경꾼들
일심써서 다져나주소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가까운 사람은 보기나 좋게
우리네 인생 살고지고
이 터에다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아보세

7. 신명풀이

쑥대고잔 지경다지기소리는 이제 대도시가 되어 찾아보기 어려운 옛 민속을 찾아내 복원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제56회 대회에 이어 다시 출전했으며, 이 대회에서는 문화재청장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 대구광역시 / 가루뱅이농악 / 가루뱅이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상)
상금 7,000

'가루뱅이농악'은 마을과 개인의 풍농 및 가정의 기원을 목적으로 하는 두레풍물로, 대구광역시의 영산인 팔공산 기슭 용수동에서 전승되어오고 있다. 가루뱅이농악의 전승 지역인 용수동에는 '지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 밑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 속에 용이 살았다고 한다. 굴 앞에는 용이 먹는 용수가 있어, 이 물을 먹고 용이 하늘로 승천해 이 지역을 용천동이라 불렀으며, 지금도 굴의 흔적과 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용수동의 지명은 행정구역 통폐합 때 용천동과 수대동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며, 약 100여 년 전부터 칡넝쿨이 많다는 의미로 '갈방'으로도 불렀는데, 이것이 변해 지금의 가루뱅이가 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가루뱅이농악은 이 마을을 개척한 배 씨와 구 씨가 마을 입구에 나무를 심고 제사(동제)를 지내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농악의 장단은 대부분 자진모리와 휘모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사를 짓는 형상의 농사굿과 싸움굿, 빠르게 돌아가는 연풍굿과 다드래기가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굿거리·휘모리·호호딱딱 장단 등과 어우러져 농악을 이룬다. 장단 중에는 특히 농악대가 이동할 때 길을 가며 치는 길매구 장단과, 흥겹게 춤을 출 수 있는 길살풀이 장단이 특이하다. 다른 지역보다 북의 크기가 크고 소리가 웅장한 것이 특징이며, 검은 수술이 달려있는 영기 또한 가루뱅이농악의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다.

모든 풍물꾼들이 무리 지어 신명 나게 펼치는 놀이와 뛰어난 개인 기량을 뽐내는 놀이의 형태가 잘 어우러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모임굿:** 풍물악기 연주. 공연장 밖에서 장단 연주

2. **입장과 인사:** 풍물악기 연주. 공연장으로 입장해 원진에서 인사

3. **물밀굿:** 풍물악기 연주. 원진을 돌며 연행

4. **연풍굿:** 풍물악기 연주. 원진에서 돌고 앉고 넘기 연행

5. **싸움굿:** 풍물악기 연주. 11자진에서 미지기, 가세치기 연행

6. **쌍진굿:** 풍물악기 연주. 두 줄이 각각 멍석말이진 연행

7. **길살풀이:** 풍물악기 연주. 멍석말이진 풀어 원진 만들기 연행

8. **호호굿:** 풍물악기 연주. 원진을 돌기 연행

9. **벅구놀이:** 풍물악기 연주. 원진에서 채상소고놀이 연행

10. **굿거리:** 풍물악기 연주. 원진을 돌기 연행

11. **십자진**: 풍물악기 연주. 십자진을 만들어 연행

12. **오방진**: 풍물악기 연주. 5개의 원진을 만들어 연행

13. **악기놀이**: 풍물악기 연주. 꽹과리, 북, 장구, 소고 놀이 연행

14. **멍석말이**: 풍물악기 연주. 멍석말이진 만들고 풀기 연행

15. **인사와 퇴장**: 풍물악기 연주. 인사 후 퇴장

가루뱅이농악은 두레풍물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매우 발달한 장단과 벅구놀이가 큰 특징이다. 두레농악에서 유래한 가루뱅이농악이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고 뛰어난 놀이 형태를 갖추게 된 지리적·예능적 영향 관계를 정리하면, 대구지역 농악은 물론 경북농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전라북도 / 정읍농악 판굿과 일광놀이 / 정읍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5,000

호남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 가운데 전라 서부·서남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달리 '우도농악'이라 일컫는다. 정읍은 우도농악의 주요 전승지로,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1910년대 '600만 교도'를 자랑하던 당시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의 보천교에서는 이 농악을 종교의례 양식으로 채용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전승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정읍농악은 다른 지역 농악에 비해 그 내용이나 형식이 고도로 발달해, 예술성이 뛰어나다. 정읍농악이 기악 연주를 중심으로 하면서, 악[樂], 가[歌], 무[舞], 희[戱]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치배 구성면에서 장구가 크게 발달했다는 점, 집단놀이뿐만 아니라 각 치배가 높은 예능 실력을 자랑하는 '개인놀이'로 발달한 점을 자랑으로 삼는다.

'정읍농악 판굿과 일광놀이'는 잊혀져가던 일광놀이를 복원·재현한 작품으로, 얼림굿, 오채질굿, 오방진굿, 호허굿, 일광놀이, 개인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정읍농악의 판굿은 화려한 부포놀이와 개인놀이 중 장구놀이가 백미라 할 수 있다.

정읍농악 문굿과 판굿의 연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얼림굿
굿의 일구는 과정으로, 상쇠를 기준으로 마주 보고 횡대로 서서 청령소리굿으로 시작해, 이채, 이루삼채, 넘기는 가락, 이채 순으로 진행한다.

2. 오채질굿
우도농악의 대표 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오채질굿을 시작으로 풍년굿, 늦은삼채, 삼채, 연풍대, 매도지 순으로 진행한다.

3. 오방진굿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 순으로 멍석말이진법을 진행한다. 경연 시에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중앙에서 한 번만 진행한다.

4. 호허굿
일종의 점호굿 형식으로, 전쟁 중 또는 전쟁 후 아군의 피해 상황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을 농악으로 묘사한 진법이다. 상쇠의 난타로 시작해 호호굿머리, 호호굿, 본 장단, 자진 호호굿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호굿은 세 개의 겹원 상태에서 작은 겹원을 만들며 상쇠의 난타로 시작한다. 장단 뒤에 '호호'하는 구음을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호호굿머리, 호호굿, 본 장단, 자진호호굿으로 구성된다. 호호굿을 치며 작은 겹원을 풀고 큰 원으로 진을 다시 구성한다.

5. 일광놀이
쇠는 태양을 상징하며, 태양의 소멸과 부활을 핵심적주제로 형상화한 놀이다.

6. 개인놀이
채상소고, 쇠놀이, 장구놀이, 열두발상모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악기별 놀이꾼들이 나와 재주를 뽐내

는 과정으로, 특히 쇠놀이와 장구놀이는 정읍농악(호남우도농악)의 백미로 손꼽힌다.

정읍농악은 가락의 다양성과 진법의 화려함으로 일찍부터 관심을 받아 호남의 대표 우도농악으로 자리 잡았고, 그에 따라 명성을 얻은 연희자도 다양하다. 1996년 전라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면서 전통 가락이 가진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읍농악은 단순한 하나의 농악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와 시대성을 반영한 지역 농악으로서 그 가치를 보존·전승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부산광역시 / 부산고분도리걸립굿 / 부산고분도리걸립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5,000

‘부산고분도리걸립굿’은 집집이 풍물을 치고 다니며 굿을 해주고 돈과 곡식을 얻는 걸립이 유명했던 옛 고분도리 지역(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에서 유래한 걸립굿이다. 1860년 무렵에 세워진 대신동 지역의 당산인 ‘시약산 당산’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것을 감안하면 부산분도리걸립굿은 약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정초에 제액초복 또는 벽사진경을 기원했던 지신밟기 형태이지만, 복을 빌어 준 대가로 쌀이나 돈을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걸립굿이라 부르기도 했다. 돈과 곡식을 얻는 걸립농악이라는 특성상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짜임새 있는 마당굿 구성, 잽이들의 뛰어난 기량, 성주풀이와 용왕굿이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부산고분리걸립굿의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마당 ‘출정굿, 당산굿, 우물굿’
걸립패가 기원굿을 할 마을을 선정하면 선왕 농기 앞에 원형으로 서서 인사를 하며 출정을 기원하는 출정굿을 한다. 다음으로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 마을 수호신인 당산을 찾아 당산굿을 울리고, 마을 우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깨끗한 물이 많이 나오도록 기원하는 우물굿을 재현한다.

둘째마당 ‘대문굿-, 성주굿, 조왕굿’
집안의 안택을 기원하는 벽사의식으로, 대문굿, 정낭굿, 마구간굿, 곳간굿, 집안의 수호신인 성주지신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성주굿, 조왕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상쇠가 소리하는 성주풀이가 특색으로, 성주의 탄생과 고난의 역정, 성주로 좌정하기까지의 사설이 신화의 줄거리처럼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셋째마당 ‘용왕굿’
어촌의 풍어와 뱃사람들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굿으로, 바다신인 용왕을 달래 마을이 일 년 내내 풍성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재물과 만복이 오도록 살을 푸는 굿이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고분도리의 지역 특색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순서로, 바닷가나 선창에서 하던 굿을 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넷째마당 ‘개인놀이, 술굿’
모든 굿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걸립패들이 마을의 마당에서 한바탕 판굿을 치며 춤판을 벌이고, 들벅구, 북, 장구, 상모, 열두발상모 순서로 개인놀이를 한다. 분위기가 고조되면 중앙 선왕기를 중심으로 멍석 모양의 대형을 만들어 술굿 “술먹세 술먹세 얼른 치고 술먹세, 조포국에 김나고 미역국에 땀난다”를 크게 외치면, 마을 사람들과 걸립패들이 어울려 대동 한마당을 이룬다.

2011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부산고분도리걸립은 성주풀이 사설의 세밀한 구성, 용왕굿 과장의 연행, 버꾸놀이 연희의 음악적 다양성 등 다른 지역의 걸립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대 최고의 풍물잽이였던 유삼룡, 이명철, 정상렬 등이 직접 짠 연희로 알려진 이러한 내용들은 음악적 구성과 사설의 짜임새가 대단히 뛰어나다. 현재도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일원에서 실제 정초에 걸립을 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전통 민속이다.


00;01;47;22

● 강원도 / 원주오리골농요 / 원주문화원·원주어리랑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상금 5,000

원주오리골농요는 강원도 원주에서 전승하는 원주어리랑, 갈뜯기 소리, 모심기와 논매기에 불렀던 농업 노동요와 원주오리현 농악을 한데 묶은 작품으로, 2015년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행구동, 흥업면, 호저면 등 여러 지역에서는 과거 비료나 거름 등이 부족해 산에서 갈을 뜯어 거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때 불렀던 소리가 <원주어리랑>과 <갈뜯기소리>다. 또 갈을 뜯어 논에 거름을 내고 논을 갈아 모심기를 할 때 불렀던 <모심기 소리>, 김을 맬 때 부르던 <단허리소리>, 마지막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농악으로 마을 공동체의 단결을 이뤘다.

1. 갈뜯기

<갈뜯기소리>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는 못하겠네 주야장천에 요 노릇을 나는 못하겠네
요놈에 노릇을 다 그만 두고 팔도야 강산을 구경갈까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신세타령>
오호
오호오호 아 오호오에 어러하오
치악산 밑에는 곰살미 있고 곰살미 밑에는 곰천이 흐른다
오호오호 아 오호오에 어러하오
치악산 중턱에 실안개 돌고 우리집 안방에 정든임 돈다
오호오호 아 오호오에 어러하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서러마라
오호오호 아 오호오에 어러하오
명년 삼월 돌아오면 꽃은 다시 피련마는
오호오호 아 오호오에 어러하오
인생 한번 죽어지면 다시 오지 못하느니
오호오호 아 오호오에 어러하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남에 집 머슴은 일도 많다
오호오호 아 오호오에 어러하오
시내에 강변엔 돌도 많고 종가집 며느리 말도 많다
오호오호 아 오호오에 어러하오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가 어떻든가
오호오호 아 오호오에 어러하오

2. 원주어리랑

<원주어리랑>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치악산 시루봉이 돈대미라면 두 번다 기색은 다 내것일세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치악산 밑에는 봉살미있고 봉살미 기슭에 곰천이 흐른다
치악산 중턱에 실안개 돌고 우리집 안방에 정든님 돈다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김도령이 따다주신 남갑사 댕기 곤때도 아니묻어 당사주왔네
슬슬슬 동풍에 궂은비 오고 시화야 연풍에 우리님 온다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안느니 알타리 쓰러진골로 뒷집에 김도령 골비러 가세
모시배 참나무 쓰러진 골로 우리야 삼동사 산나물 가세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시아버지 돌아가니 좋다더니 다리잎이 떨어지니 또 생각나네
시어머니 돌아가니 좋다더니 보리방아 물붜노니 또 생각나네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울타리 밑에는 꼴매는 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받아먹게
떡은 다 받아서 팽개치고 손목은 잡고서 발발떤다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도라지 캐려면 도라지 캐지 남의 도령 이끌고 덤불속 웬말
내가 언제야 뭐라고 했나 내 님이 바빠서 활개질했지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 모심기

<모심기소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에헤야 어러리야
꽂아주게 심어주게 꽂아주게 오종종 줄모를 심어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기 꽂고 저기 꽂고 너두 나두 삼배출 자리로 심어주게
아 헤 아라리오 어리랑 에헤야 어러리요
갈라면 갈라면 진작 가지 정들여 놓고서 갈랐든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기 꽂고 저기 꽂고 너두 나두 열두폭 줄모를 심어주게
아 헤 아라리오 어리랑 에헤야 어러리요

<자진모심기소리>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넘어 달린 꽃 보기나 좋지 요내 같은 0000 매맞을 징조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4. 논매기

<단허리소리>
(받는소리) 오화 훨씬 단허리야
(메기는소리) 억조창생 만인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농사를 누가 냈나

천지 원앙 생긴 후에
복희씨가 종자를 마련하여
신농씨가 밭을 갈어
부작에 뿌린 종자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은 찬이슬 맞어
일취월장 잘자렀네
00에 본을 받어
00후성 뜻을 받어
이 농사를 지어나 보세

<갈뜯기소리>와 <모심기소리>는 긴아라리 계열, <원주어리랑>와 <자진모심기소리>는 자진아라리 계열의 소리로, 두 소리가 함께 전승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원주오리골농요는 이번 대회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평안남도 / 평양검무 / 평양검무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동상)
상금 5,000

평양검무는 평안도의 대표 작품 중 하나다. 평양검무 전승자 이봉애 선생은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리 출신으로, 평양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녀 서문여고를 졸업했다. 그의 나이 14세에 평양권번 출신 예기 김학선을 만나 평양검무를 사사했고, 현재는 이봉애 선생의 제자들이 평양검무를 전승하고 있다. 이봉애 선생은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해마다 정기공연을 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평양검무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평양검무는 입춤, 앉은 춤, 칼춤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입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일자 사위

2. 앉은 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두 손 모아 허리춤
(3) 옆으로 허리춤
(4) 두 손 위로 모아 허리춤

3. 칼춤

(1) 한칼 사위
(2) 쌍칼 사위
(3) 서서 기본 동작사위
(4) 반돌기
(5) 칼 뽑기 동작
(6) 양팔 벌려 두 번 돌리기
(7) 건곤 사선 사위
(8) 반돌기 사위
(9) 앉는 연풍 사위
(10) 까치 사위
(11) 번개 사위
(12) 머리 쓸기 사위
(13) 인사 사위
(14) 하늘 치기 사위
(15) 빨리 돌기 사위
(16) 양팔 벌려 칼 돌리기 사위
(17) 유진 유퇴
(18) 도는 연풍 앉아 칼 돌리기
(19) 머리 쓸며 까치 사위
(20) 칼로 땅치기 사위
(21) 돌아서 기본사위

(22) 좌우 칼 돌리기
(23) 번개사위
(24) 앞 돌리기
(25) 번개 사위 4, 2, 4
(26) 마지막 인사

평양검무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여러 차례 출전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함경남도 / 토성 정월대보름놀이 /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김해시장(장려상)
상금 3,000

'토성 정월대보름놀이'는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에서 전래한 것으로, 정월대보름 2~3일 전에 신청과 도청 한복판에서 펼쳐지던 민속놀이를 무대에 올린 것이다. 참고로 정월대보름은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보름날로, 농사의 시작일이기도 해 큰 명절로 여겼다. 토성 정월대보름놀이는 사자놀이, 돈돌날이, 횃불싸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북청군 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보름에 사자놀이 중심으로 놀았던 반면, 토성리에서는 돈돌날이와 횃불싸움도 함께 중요한 놀이 과정으로 여겼다. 토성리 사람들은 정월대보름 전일에 돈돌날이와 사자놀이를 연행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전염병이 들어 죽는다는 속설을 강하게 믿는 등 벽사의식이 강한 민속놀이라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 대동놀이이자 축제로 전승되었다. 토성 정월대보름놀이는 이번 대회에서 돈돌날이, 횃불싸움, 두상, 노장마당, 군무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월 초, 신청[神廳]에서 정월대보름놀이 준비로 음률도감과 존위(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촌수가 높은 사람)를 비롯한 소수만이 참여한 가운데 고사를 거행했다. 고사를 지낼 때는 돼지를 잡고 고기를 삶은 물에 쌀로 죽을 쒀 그릇에 담아 정지(부엌), 굴뚝, 장독간에 올려놓는다. 고사를 마치고 마을 청년들이 신청 대문 앞에 묶어 두었던 새끼줄과 소나무를 풀고 퉁소와 북을 치며 잡귀와 재앙을 쫓고 흥겹게 놀이를 하며, 마을 사람들은 준비한 삶은 팥과 강낭콩을 나눠 먹으며 놀이를 즐겼다고 전한다.
정월대보름 고사를 지내고 난 후, 마을 부녀자들은 집에서 함지, 바가지, 자배기, 놋그릇과 같은 북을 가지고 나와 돈돌날이 민요를 부른다. 북을 치는 부녀자가 중심이 되어 놀이를 이끌고, 흥이 난 부녀자들은 함지에 물을 붓고 바가지를 띄워 북과 비슷한 장단으로 연주한다. 민요와 장단에 흥이 오른 부녀자들은 원진을 만들어 춤을 추고, 원진 안에 들어가 신명 나는 놀이판을 벌였다.

사자놀이는 총 4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제1마당
마을에 진사, 노덕(벼슬아치 부인)이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가옥에서 손주와 며느리를 대동해 사자놀이를 초청하고, 벽사진경과 안과태평을 기원하는 매귀의식(지신밟기)을 거행했다.

제2마당
진사가 손주를 사자에 태우고 어린아이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제3마당
김진사 댁의 내력을 소개한 후 사자놀이를 초청하고 사자놀이를 진행했다.

제4마당
사자가 부엌에 들어가 춤사위를 펼치다 바가지를 가지고 중문으로 나와 액운을 쫓으려고 바가지를 깨뜨리는 장면이 진행되었다. 또한 어린 아이를 사자에 태워 수명장수를 기원하고, 집집이 돌아다니며 잡귀를 쫓고 복록을 기원하는 놀이를 하고 와서 귀밝이술을 얻어먹으며 초복재화를 벌이는 대동놀이를 했다.

함경남도의 민속놀이를 적극 전승하고자 토성리에 전래하던 정월대보름놀이를 경연작으로 내세운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한식날 행해지던 여성들의 놀이인 '돈돌날이'와 남성들의 '횃불싸움'을 결합했을 뿐 아니라, 더불어 북청군 지역의 전형인 '사자놀이'까지 함께 행해, 정월대보름 마을 주민 모두 적극적으

로 정월대보름을 기리고 즐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전라남도 / 담양농악 풍장놀이 / 우도농악담양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김해시장(장려상)
상금 3,000

'담양농악 풍장놀이'는 평야 지역에서 발달한 우도농악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농악이다. 넓은 농경지에 옥토를 가진 담양에서 이웃과 이웃의 농군이 함께 모여 농악을 치던 전통적인 형태를 간직해왔다. 농사철에 품앗이하며 농사의 고단함과 피로를 덜고, 노동력을 높이기 위한 농부들의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전통 민속놀이다.

담양 우도농악은 물품기(드래질소리), 모판밟기(오위소리, 자진오위소리), 모찌기(먼들소리), 모심기(상사소리), 초벌매기(애리사소리, 지화자소리), 한벌매기(오호소리, 떨아지소리), 만드리(사뒤여소리), 장원질(저리서 소리, 방개둥개소리), 아롱대롱(아롱소리)로 구성된다.

또한 우도농악담양보존회에서는 기초판굿을 모듬굿, 오채질굿, 오방진(동살푸리), 구정놀이, 호허굿, 개인놀이, 파장굿 등 총 7개 과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담양농악은 초벌매기, 한 벌매기, 만드리가 끝날 무렵, 사람들이 논 한구석으로 모여 서로 "위" 하고 소리치면서 그해 농사를 장원한 농군에게 흙탕물을 던지며 장난을 하다가, 논두렁에 나와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장원질 소리와 풍장굿을 치며 마을에 돌아오면, 집 주인과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신나고 흥겨운 큰 판을 이룬 대동 풍장놀이로 전해져왔다. 실현한 담양농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기
입장. 인사. 드래질소리에 맞춰 물품기

2. 모찌기
풍장굿 장단에 먼들소리모찌기

3. 모심기
풍장굿 장단에 상사소리에 맞춰 모심기

4. 초벌매기
풍장 장단에 애리사소리, 지화자소리에 맞춰 초벌매기

5. 한 벌매기, 만드리
풍장을 치며 오호소리, 떨아지소리, 사뒤여소리에 맞춰 한벌매기, 만드리. 농군들이 장난치고 놀며 소에 상머슴을 태운다.

6. 장원질
풍장굿 장단에 저리서소리, 방개둥개소리에 맞춰 상머슴이 소를 타고 마을로 들어간다.

7. 대동 풍장놀이
풍장굿 장단과 아롱소리에 농군들과 마중 나온 마을 주민들이 함께 큰 판을 이뤄 개인 기량을 뽐내면서 흥겹고 신나게 한바탕 논다.

담양농악은 일찍이 전라남도의 우도농악으로 그 명성을 이어왔으며, 지속적인 보존회 활동을 통해 그

전통적인 면모를 잘 유지하고 있다. 김동언 보유자를 중심으로 젊은 연행자들을 통해 전승·보존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작품이 전통적인 우도농악, 특히 두레농악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은 담양농악의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이 '장원질'이라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 공주걸립농악 / 한국민속예술협회공주지부 공주시걸립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김해시장(장려상)
상금 3,000

웃다리농악은 우리나라 중부에 해당하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일컫는 용어다. 대전·공주 지역의 웃다리농악은 충청·경기 지역의 농악 가운데 지금도 연희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악이라 할 수 있다. 공주걸립농악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산재한 갑사, 신원사, 마곡사 등에서 불사를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국가의 척불숭유정책으로 재정이 궁핍했던 절에서 불사를 위해 승려들이 꽹과리, 징, 북을 치며 가가호호 방문해 모금을 하던 것이 민간에 전파되어, 마을에서도 공동사업이 있을 때마다 걸립농악을 치며 모금을 했다. 공주 지역에서는 유구한 세월 동안 걸립농악이 전승되어 왔다. 1940년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해방 후 김복섭 선생이 다시 걸립농악을 계승했다.

공주걸립농악의 순서는 당산굿을 시작으로, 우물굿, 문굿, 성주굿, 뒤굿, 칠채오방진, 절굿대놀이, 개인놀이(버나, 땅재주, 무동놀이, 열두발), 멍석말이, 인사굿으로 이어지며, 이렇게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의례를 행한 뒤 그 집에서 마련한 고사상의 제물을 받아온다. 제물로 고사상에 얹어놓은 쌀과 돈은 걸립패의 공금으로 쓰인다. 공주걸립농악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산굿
걸립농악단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장으로, 마을 입구에서 당산나무에 절을 올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의식이다. 흔한 삼채가락으로 세마치 풍장을 치고, 잦은마치로 맺고 절을 한다.

2. 우물굿
마을의 안녕과 우물이 마르지 않고 깨끗한 물만 나오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상쇠의 축원과 함께 운율에 맞춰 단마치 풍장을 치는데, 몰이가락 등으로 불린다. “뚜르세 뚜르세 물구녁을 뚜르세” 하는 식의 짧은 축원소리를 하고 난 후 치는 가락이다.

3. 문굿
대문 앞에서 치는 풍장으로, 상쇠의 덕담과 함께 걸립패들이 “문여소 문여소 주인주인 문여소” 하고 주인을 부르며 단마치 풍장을 친다.

4. 성주굿(축원고사덕담)
집안의 안녕과 만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이때 다드래기 풍장을 치는데, 이는 마당에서 성주 축원을 할 때 축원소리 반주로 치는 풍장이다. 삼채로 시작해 굿거리를 섞기도 하며, 소리가 끝나면 잦은마치로 맺는데, 굿거리를 낮게 치며 가락을 다스려 친다 하여 ‘다드래기 풍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5. 뒤굿(뒷굿, 칠채)
뒤굿은 고사를 지낸 후 걸립패가 마당에서 농악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노는 굿으로, 판굿놀이가 이어진다. 칠채(길군악)는 상쇠의 칠채 머리가락에 따라 전 대원이 칠채를 치며, 이채가락으로 끝낸다. 나올 때는 당산놀이로 연결한다.

6. 당산놀이
당산대형에서 상쇠의 가락에 맞춰 벅구잽이들과 꽃나비(피조리)들을 놀린다. 이때 벅구잽이들은 농사

를 짓는 과정을 상모를 돌리며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하는데, 밭갈이, 씨뿌리기, 김매기, 볏짚나르기, 탈곡하기 등을 하고, 꽃나비들은 깨끼춤을 추며 고사리 꺾기, 물푸기 등의 놀이를 한다. 이때 세마치(삼채)가락, 잦은 세마치가락, 물풍딩이가락, 잦은마치 가락을 주로 친다.

7. 개인놀이

농악대가 갖은 재주를 보여주는 놀이판으로, 벅구놀이, 쇠놀이, 버나놀이, 꽃나비 무딩이[舞童] 놀이, 땅재주놀이, 열두발상모놀이를 진행한다.

8. 돌림벅구

풍장판 전형의 멍석말이로, 칠채 길군악가락과 벙어리칠채가락, 칠채몰이가락을 치면서 놀다가 맺고, 세마치(삼채)가락을 치면서 쇠잽이들이 가락을 주고 받으며 품앗이 가락을 치고, 잦은 세마치(빠른삼채)와 잦은마치 가락을 치고 맺는다.

공주걸립농악은 충청도의 대표 농악으로, 현재 한국문화예술협회 공주지부에서 시·동·면민이 합심해 전승하고 있다. 특히 공주생명과고등학교가 공주걸립농악 전승에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처럼 걸립농악의 전형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유지되므로 그 전승력이 크다고 하겠다. 공주걸립농악은 지속해서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황해도 / 황해도화관무 / 황해도화관무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김해시장(장려상)
상금 3,000

황해도화관무(황해도 무형문화재 제4호)는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관을 머리에 쓰고, 오색 한삼을 공중에 뿌리며 추는 춤을 말한다. 2013년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 동상을 받은바 있다.

화관무는 한국전쟁 이후 남하해 인천에 전수소를 설립하고, 인천 국악원장을 지내며 수많은 후학을 양성한 민천식(1898-1967,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예능보유자)이 전승한 춤이다. 민천식은 2년간 이왕직 아악부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았던 정재의 형식을 민속춤에 녹여내 현재의 황해도화관무를 완성했다.

화관무의 본디 모습은 집단으로 추는 춤이다. 그 목적은 공동체와 애국심을 극대화해, 나라의 태평성대와 백성의 안녕을 추구하는 현세적인 길복이 담겨있다. 그래서 화관무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민천식류 화관무는 정중동과 동중정 속에 이루어지는 억제와 절제의 규제 속에서 기교와 재간을 극대화해 섬세함에 화려함을 더한 표현미를 강조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화관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해서 지방의 특징인 한삼뿌림이다. 해서 지방의 탈춤에서와 같이 외사위, 양사위, 비낄사위 등 모두 한삼뿌림으로 처리한다. 또한 한국 무용의 발디딤새와 손놀림새, 몸굴림새 등 세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무용예술로 승화하고 있다. 황해도화관무의 연행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주감사의 향연을 알리는 대사를 하면, 무용수들이 입장해 열을 맞춰 정렬한다.

2. 양쪽으로 정렬한 무용수들이 다시 한가운데로 모여 춤을 춘다.

3. 무용수 전체가 3개의 원을 만들어 춤을 춘다. 중앙 원은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며, 양쪽 원은 화살표 방향에서 풀리기 시작한다.

4. 양쪽 원이 중앙 원을 에워싸며 무용수들이 다시 하나의 원을 만들며 춤을 춘다. 안쪽 원은 오른쪽, 바깥쪽 원은 왼쪽으로 돈다.

5. 두 원을 이룬 상태에서 큰 절로 춤을 마무리하고, 경연자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원을 풀며 정렬해 퇴장한다.

황해도화관무는 근대에 만들어진 춤을 토대로 하지만, 전통에 기반해 정재와 민속춤을 섞어 만든 작품이다. 황해도 문화의 고갈을 일정 부분 해소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대회에서 김해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평안북도 / 평안도다리굿 / 평안도다리굿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김해시장(장려상)
상금 3,000

우리나라는 전국에 망자의 저승천도를 위한 굿이 있으며, 서울의 새남굿, 진오기굿 등과 같은 형태의 지역 사례가 많다. 이중 평안도다리굿은 오래전부터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사령[死靈]굿으로, 망자[亡者]의 한을 강신무[降神巫]를 통해 풀고, 이승의 미련을 떨친 채 저승에 편히 안주하기를 비는 굿이다.

평안도다리굿은 규모가 크고 불교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으로, 평안북도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굿 형태다. 다리굿의 구성은 열 네거리로 되어 있다. 신[神]께 아뢰는 당 울림을 시작으로, 잡귀를 물려 굿청을 정화하는 '주당푸념', 신들을 청해 들이는 '앉은청배', 명[命]을 주는 칠성신과 복을 주는 제석[帝釋]을 모시는 '칠성굿', 잡귀영정을 풀어먹이는 '영정거리', 서낭을 모시는 '기쁨·서낭굿', 재수를 빌어주는 흥겨운 '대감굿'으로 이어진다. 대감굿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망자[亡者]를 위한 굿에 들어가 망자가 무당의 입을 통해 생전에 맺힌 한을 풀어가는 '기밀굿'을 한 다음, 저승사자를 모시는 '사자[使者]굿', 망자의 저승천도를 비는 '다릿발세경'을 하고, 이어지는 뒤풀이에서 굿에 들어온 잡귀를 모두 풀어먹여 보내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다리굿은 살아 있을 때 하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해 부유한 집안에서는 나이든 노인을 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산다리굿'이라 칭한다. 다릿발이라고 불리는 기다란 무명을 굿당 밖에 걸어 놓고 굿을 하는데, 이 다릿발은 사자[使者]다리, 망인[亡人]다리, 조상다리, 세천[西天]다리를 뜻하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총 열네 거리로 구성되며,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일곱 자, 일곱 치 길이의 삼베와 무명천(근래에는 소창을 사용함)을 준비해 놓고 대무당이 굿소리를 하면서 다릿발을 오가며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인도한다. 연행된 평안도다리굿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장

주무가 앞장서고 뒤이어 조무와 상주 등이 등장한다. 제관이 제단을 향해 술을 따르고 향을 꽂아 촛불을 켜고 제를 올린다. 곧바로 대제가 시작되고, 이어서 주무가 청배무가로 "오늘 날이야" 라고 가창하면, 피리와 장구가 "에헤야" 라고 받기 시작하면서 청배를 이어간다. 청배무가로 "사파세계 남선부주 해동제일은 대한민국이라. 만신의 조정은 전라 나주 금성이 만신의 조종이요" 하면서 조상의 혼을 불러 드리는 의식을 이어간다.

2. 사방문 열기

주무가 넋상 앞으로 이동해 긴염불을 시작하면, 피리와 장구가 장단을 받는다. 무녀는 긴염불로 "한 년단년은 시월팔일이고 이 정성에 불쌍한 영가들 극락왕생하라는 염불이다 나무이문제정상 나무비고원직상 나무설때법나상 나무신색진금상 나무도슬내오상 나무비랍갱승상 나무사문유관상 나무설산수도상 나무수하한마상 나무록관전법상 나무쌍림널반상이여!" 라고 외친다. 무가를 가창하면 피리와 장구와 단원들 모두 "에헤야" 하며 장단을 받는다. 주무가 잦은염불로 넘기면서 "제일전에 진광대왕 도산지옥 제이전에 초광대왕 화탕지옥 제삼전에 송제대왕 한수지옥 제사전에 오관대왕 금수지옥 제오전에 염라대왕 발설지옥 제육전에 변성대왕 독사지옥 제칠전에 태산대왕 좌마지옥 제팔전에 평등대왕 추마지옥 제구전에 도시대왕 철상지옥 제십전에 전륜대왕 흑산지옥 면하소서"로라며 십대왕의 지옥풀이를 함으로써 사방문 열기를 진행한다. 잦은염불까지 마친 주무가 나비옷으로 갈아 입고, 넋상 주위를 돌며 법구춤을 춘다.

3. 배따라기

법구춤을 마친 주무가 세천다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세천다리(삼베천)을 가르며 넋두리를 시작한다. “오늘날이야 여봐라 금일망제에 달뜬세계에 별뜬세계에 청사초롱에 불밝히고 백련화 홍련화 만발한대로 상주상으로 보일레느냐”라고 외친 후에, “금일망제 불쌍한 남녀노소 내고향 동기 산천 다 버리고 부모형제 다 버려두고 가는 데 가다 어디냐 금일영가 모실려고 연잎 따서 돛을 세우고 가랑잎 따서 돛단배를 지어 놓고 넋일랑 넋반이요 혼일랑 혼반이요 이승 강도 서른세 강 저승 강도 서른세 강 계수나무 아흔아홉 강을 건너라 하니 이승 강도 마지막이고 저승 강도 마지막이구나 오늘 이 정성 받고 금일망제 불쌍한 영가들 오색무지개 띄워 놓고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누나”라고 한다.

4. 마무리

먼저 주무가 세천다리 사이를 오가며 베를 가르고, 베를 사려서 사자에게 넘겨주며, 저승 갈 때 쓸 노자돈으로 저승돈을 걷어서 준다. 이를 모두 마치면 주무가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며 앞장서 퇴장하면, 그 외 출연자들이 뒤를 따라서 퇴장한다.

평안도다리굿은 평안도에서 전승한 우리나라 사령굿 중 하나다. 북한에 속한 평안도의 대표 민속문화로, 죽은 자의 넋을 달래고 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사방문열기와 배따라기는 다리굿의 주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데, 망자의 넋을 달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주요 기능을 한다. 이 과정에서 세천다리를 가르는 것은 곧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가르는 것으로, 극락왕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이 지역 특색을 잘 유지한 채 전승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함경북도 / 애원성 / 함경북도 애원성 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함경북도에서 전승한 향토민요 '애원성'에 퉁소 반주와 바가지 장단을 곁들이고, 춤을 더해 작품을 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칠성단에 제사, 돌 쌓아 올리기

2. 흰 수건 춤으로 정성을 다해 축원 드리기

(후렴) 에에~에헤야 얼사마 좋구 좋다 얼럴럴 거리고 상사디야
백두산꼭대기에 칠성단 묻어 놓고 아들 딸 낳기만 발원이로구나
산아산아 에루화 동대산아 부모님 형제겐 이별산이로구나
풍년이 왔다고 부르지 말아라 이물을 건너면 월강죄란다네
무산령 넘어에 정든 안깐 두고 두만강 뗏목에 이내몸 실었네
부령 청진 간 낭군은 돈벌이 갔구요 북망산천 간 낭군은 여 이별이로구나
술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추고 돈없는 천지에 영웅도 우노나
오늘밤은 그 얼매나 갔는지 북두칠성이 앵 돌아졌네
해삼위 항구가 그 얼마나 좋길래 신개척이 찾아서 반봇따리 쌌네
마우재 양지전에 정들 뻔 하다가 왜놈의 권연지에 몽땅 속았구나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정든임 없으면 적막강산이라
가지를 마오 갈 생각마오 동대산 바람은 이별바람이오
북간도 찬바람 네 불지 말아라 우리네 독립군 손발이 다 언다
한반도 강산에 전선줄 느리더니 큰오래비 간곳이 뚱딴지로구나
삼천리 강산이 넓다고 하지만 우리네 살 곳은 함경도 뿐이다
갈적에 열어보니 개가 컹짖고 울적에 다시 보니 새벽달기 우노나

애원성은 함경북도의 대표 종목이다.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수의 종목만을 전승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같은 작품의 반복 출연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힘든 과정을 꿋꿋이 받아들이고, 해마다 연습을 거쳐 전승의 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005년 제46회 대회에서 경기도지사상인 은상을, 제51회와 제52회 대회에서 아리랑상을 받은 애원성은 이번 대회에서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신명상을 수상했다.




● 경상남도 / 창원퇴촌농악 / 창원퇴촌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창원퇴촌농악'은 경상남도 창원시 퇴촌동(현 사림동) 주민들이 매년 당산제를 지내면서 당산 신을 즐겁게 하고 지역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벌린 굿판에서 유래했다. 이 농악에는 마을의 '창원의 집 앞' 느티나무에 관한 전설이 얽혀 있다. 이 느티나무(수령 360여 년)에는 창원군 상남면 봉림리 뒷산 북시골(부처골)에 위치한 봉림사[鳳林寺]에서 생긴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하는데, 이 나무는 퇴촌마을의 당산목으로 숭앙받게 되었다. 순흥 안씨 가문이 해마다 정초에 이곳에서 잡귀를 몰아내고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풍물굿을 해 온 것으로 전한다.

창원퇴촌농악은 퇴촌마을 고로 및 주민들이 당산굿에 농악을 치던 전통을 유지해 왔으나,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전승하지 못하게 되자 지역 풍물꾼들을 영입해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퇴촌농악의 원형은 퇴촌마을의 안도호(구 상쇠), 안일영, 안교용, 안재호, 안용곤 등의 증언에서 알려졌다. 그에 따라 1991년에 창원퇴촌농악보존회를 창립,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속해서 전승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퇴촌마을의 순흥 안씨 집안이 창원시에 기증한 '창원의 집'은 퇴촌마을과 퇴촌농악의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얼림굿 - 일체, 영산다다래기
얼림굿이란 풍물굿을 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치배들을 끌어모으는 가락으로, 준비된 치배들은 하나둘 상쇠의 일채에 맞춰 농기 단기를 중심으로 모여들며, 굿을 위한 치배들의 다스름 역할도 더불어 한다. 일채를 마치고 다다래기 도입과 노는가락, 맺음가락으로 얼림굿을 마무리한다.

2. 질굿(길굿) - 질굿신호(덧배기), 질굿 본가락(덧배기), 질굿맺음가락(덧배기)
길굿은 이동할 때 행하는 굿이다. 상쇠의 지휘 아래, 농기, 단기, 영기, 나팔, 태평소, 쇠, 징, 북, 장구, 상모, 잡색 순으로 일렬 종대로, 또는 경우에 따라 이열 종대로 행진을 한다. 즉 판제를 하기 위한 마당으로 이동하는 놀이굿이다. 상모는 꼭지상으로 한다.

3. 선고굿(인사굿) - 인사굿가락(덧배기)
인사굿은 본격적으로 마당굿을 하기 전 관객에게 인사하는 과정이다. 횡대로 진행하다 원진 형태로 만든다. 상쇠, 부쇠, 종쇠와 기수(농기 1, 단기 1, 영기 2)는 원 중앙에서 사방으로 향한다. 잡색들은 원밖에서 상쇠 신호에 따라 인사굿을 한다. 잡색과 나팔 태평소는 일렬로 관객을 향해 인사한다.

4. 들당산굿 - 영산다다래기, 당산인사굿가락(일채)
인사굿이 끝나면 상쇠는 다른 치배들을 인솔해 원의 중심에 있는 농기, 단기, 영기(당산)를 중심으로 멍석말이를 한다. 가락은 영산다다래기가락으로 빠르게 휘몰아친다.

5. 살풀이굿 - 살풀이가락(굿거리)
들당산굿을 마친 상태에서 살풀이굿 쇠 신호에 따라 시작한다. 창원퇴촌농악의 굿거리장단은 살풀이가락이라 칭한다. 들당산굿 상태에서 상쇠의 신호 가락을 듣고 모든 치배와 잡색, 상모수가 멍석말이 된 상태에서 살풀이 내는 가락과 함께 두 장단 정도 풀려나면서 각자 흩어져 신명 나게 흩은굿의 형태로 신명을 돋운다. 한가운데에 있던 기수는 살풀이 장단 시작과 동시에 원진 밖의 관객을 향해 일렬 횡대로 도열한다.

6. 선잽이굿 - 덧배기가락, 모듬가락(덧배기 모듬가락)
살풀이하는 가락을 신호로 흩어져 있던 치배 상모꾼들이 상쇠의 주도로 원진 대형을 이루며, 덧배기 가락으로 모듬굿과 선잽이굿으로 진행한다.

7. 사방오토굿 - 덧배기가락
상쇠의 신호에 따라 상쇠 부쇠를 중심으로 사방에 소 원진을 만든다.
사방오토굿 도입 가락, - (2)사방오토굿 앉은잽이 신호 가락, 제자리 돌기, 엎어 배기 순으로 진행한다.

8. 멍석말이굿 - 덧배기가락
멍석말이굿을 사방오토굿(사방선고굿) 앉은잽이가 끝내는 마지막 장단 이후 바로 멍석말이굿가락이 시작되며, 다음과 같이 사방오토굿 진을 풀고 멍석말이 진이 시작된다.

9. 미지기굿 - 덧배기가락, 영산다다래기, 모듬굿가락
미지기굿은 멍석말이굿에서 풀려 나와 상쇠 신호에 맞춰 두 편으로 나뉘어 모듬굿과 휘모리장단으로 밀고 당기며 힘을 겨루는 진법이다. 상모수 역시 안쪽에서 두 편으로 갈려 마주 본다.

10. 강강술래굿 - 덧배기가락, 영산다다래기, 일채
미지기굿에서 한 줄로 강강술래굿으로 진입하며, 치배들은 안쪽에서 소원진을 만들고, 상모수는 바깥쪽에 대원진으로 치배들을 감싸고 강강술래굿의 진법을 만든다.

11. 호호굿 - 호호굿가락, 덧배기가락
강강술래굿의 원진 상태에서 난타가락으로 두 원진을 한 원으로 만들고, 한 호흡 쉬어 간 뒤, 호호굿 가락으로 도입한다.

12. 개인놀이 - 살풀이가락, 덧배기가락, 영산다다래기가락
상쇠놀음, 설장구, 북 놀음, 상모놀음, 열두발상모놀음, 잡색춤 등이 있다. 다양한 가락을 사용하며, 살풀이, 덧배기, 영산다다래기가 주류를 이룬다.

13. 날당산굿 - 영산다다래기, 인사굿(덧배기가락)
개인놀이가 끝나면 상쇠의 인솔 하에 원진을 만든다. 원진이 만들어 지면 상쇠의 신호에 따라 사방신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한다.

창원퇴촌농악은 당산목에 대한 유래가 분명하고, 마을의 토착 세력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지역 농악으로서 그 전통성이 명확하다. 특히 농악대가 당산굿을 주관하는 제의성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두레농악과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귀안택축 원설[埋鬼安宅祈願說]의 축원걸립농악[祝願乞笠農樂]을 그 특징으로 한다. 창원퇴촌농악은 이처럼 농악대의 의례적 기능이 강조되어 역사성을 증명하는 지역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민속이라 하겠다. 이러한 특징을 인정받아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농악경연대회에서 수상 행렬을 이어왔다.




민속 예술축제

● 충청북도 / 괴산군 여사왕 대도듬 놀이 / 한국예총괴산지회(괴산국악협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여사왕리 마을이 전승하는 '여사왕 대도듬 놀이'는 출상 전날 밤, 빈 상여를 메고 망자의 자손과 친척집을 돌아다니는 장례의식을 놀이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여사왕리에는 마을의 장례를 관장하는 '연반계'가 있었고, 모든 집이 의무적으로 이 계에 가입했다. 연반계를 중심으로 상여꾼을 모집해 장례의식을 거행했다. 여사왕 대도듬 놀이는 상갓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과정부터 둘째 아들 집에 들러 제사를 지내며, 사위를 상여에 태우고 동네를 도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놀이다.

여사왕리는 마을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장례문화인 대도듬 놀이를 마을 차원에서 화합해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장례문화가 잘 전승되고 있으며, '곳집'이라 불리는 상엿집에서 사용하던 상여가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박종석(남, 1936년생), 조용관(남, 1937년생), 조준행(남, 1936년생), 방대원(남, 1943년생), 조용한(남, 1938년생) 등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으로, 노용길(남, 1939년생) 외 79명의 마을 사람들이 잊혀가는 대도듬 놀이 전승에 참여하고 이를 재현했다.

괴산 대도듬 놀이는 주로 부잣집에서 호상일 때 장례식 전날 밤 빈 상여를 메고 망자의 자손과 친척의 집을 돌아다니는 의식이다. 예행연습의 의미도 있고, 상주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절차로도 볼 수 있다. 지금은 화장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약 30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흔히 행하던 장례문화이다. 빈 상여를 메고 갈 때 앞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앞소리를 하면, 상여꾼들이 "유희유희 유희야 오 ~호 유희야" 하고 뒷소리를 하며 걸어가는데, 이때 발의 동작이 노래의 박자와 일치해야 한다. 빈상여놀이의 시작과 끝에 풍물패가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다.

괴산 여사왕 대도듬 놀이는 호상 여부에 따라 진행되고, 각 상황과 과정에 따라 마을 전체가 놀이 공간으로 확장되는 면모가 특징이다. 특히 상여에 사위를 태우고 마을을 도는 행위는 유희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두꾼들이 돈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이거나, 다음 날 있을 출상을 위한 예행연습의 기능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8.10.12~1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

1. 개괄

한국민속예술축제는 2019년 60회째를 맞이하는 역사와 의미가 깊은 축제다. 긴 세월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고유의 축제로 인정받으며, 많은 민속 종목이 축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민속은 우리네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으므로, 향유층이 넓고, 지역별로 다양한 개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지역이 가진 독특한 문화를 공유하고 재미를 더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축제로서, 지난 60여 년 전국 각지의 민속예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왔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민속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재주재주'라는 주제어와 함께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성읍민속마을에서 열렸다. 사전행사에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녀, 제주어, 제주 전통문화가 서울 밤코냉이(올빼미족)를 유혹하는 무대를 펼쳤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제주정신을 대표하는 '해녀' 문화를 사진전을 통해 관람객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이북5도를 포함한 전국 20개 시·도 대표 1,200여 명이 각 지역을 대표해 출전했으며,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12개 시·도 대표 700여 명이 참가해 사라져 가는 민속예술과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에 앞장섰다. 또한 축제 내내 각·시도 대표를 응원하는 응원단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축제를 찾아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우리 민속예술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전국 민속예술단체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연대회를 경쟁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다.

제59회의 경연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20개 팀으로, 황해도 '최영장군당굿' (최영장군당굿보존회), 광주광역시 '광주산월농악'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 경상북도 '영천명주농악' (영천명주농악보존회), 전라남도 '밤골마당밟이' (보성군 율어변 밤골농악단), 전라북도 '갑만경 외애맛들 들노래' (갑만경외애맛들노래보존회), 울산광역시 '울산병어서낭치기' (울산중구문화원), 인천광역시 '꼬댁각시놀이' (인천토속민요놀이보존회), 강원도 '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 (평창방림삼세삼굿놀이보존회), 대구광역시 '날뫼북춤' (날뫼북춤보존회), 충청북도 '보은장안농요' (보은군 장안면 전통민속보존회), 평안북도 '평북농요' (평북농요보존회), 대전광역시 '계족산무제' (대덕문화원), 부산광역시 '구덕망깨터다지기' (구덕망깨터다지기보존회), 경상남도 '의령집돌금농악' (의령문화원 의령집돌금농악보존회), 평안남도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 '두미신창흙싸움놀이' (한경면 민속보존회), 함경북도 '두만강뗏목놀이소리' (함경도민속예술보존회), 경기도 '화성두레농요'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충청남도 '논산전통두레풍장' (논산시 전통두레풍물보존회), 함경남도 '토성정월대보름놀이' (함경남도 북청민속예술보존회) 등이다.

2. 참가 종목

● 충청남도 / 논산전통두레풍장 / 논산시전통두레풍물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20,000

‘논산전통두레풍장’은 충청남도 논산시 서북부권의 두레로, 모내기부터 여름 두레먹는날까지 두레꾼들이 즐겨온 일노래와 풍장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전반부에는 두레풍장을 앞세우고 모내기 현장으로 이동하는 길나래비 풍장과 함께, 모를 심으며 부르는 못방구소리가 핵심적으로 연행된다. 후반부에는 논매기 여름 두레 풍장을 연행하고, 만물논매기소리를 하는 과정과 두레먹이가 진행된다. 꽃나비를 앞세우고 춤을 추며, 두레 먹는 곳으로 향하는 과정과 농기를 세우고 ‘딱따구리 풍장’을 치며 농기고사를 지내는 전개를 통해 두레먹이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두레먹이를 하는 과정에는 멍석말이를 하며 두레꾼들이 함께 즐기는 풍장마당을 구성했으며, 장구 개인놀이판을 벌여 재주와 흥을 뽐내는 과정을 통해 두레풍장의 신명을 드러냈다.

1. 모심는소리(못방구치는소리)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월출 동녘에 달이솟아 우리님 오는길을 저 달이 밝혀주네
에~~헤~~야 아하 어~~허 허 허~~아 아루상, 어~~허~어 디~~여~~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에~~헤~~야 아하 어~~허 허 허~~아 아루상, 어~~허~어 디~~여~~
빨래를 갈려면 물가로 가지 저건너 솔밭에는 무엇하러 가느냐
에~~헤~~야 아하 어~~허 허 허~~아 아루상, 어~~허~어 디~~여~~
시집살이 못하며는 친정살이를 할망정 술 담배 안하고서는 나는 못살겠네
에~~헤~~야 아하 어~~허 허 허~~아 아루상, 어~~허~어 디~~여~~

2. 논매는소리(만물소리)

어허 두리메차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풍경은 꽃이펴서 봄나비 모이는 데 우리네 인생은 논 마당이로 가는구나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여보시요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이 농사를 지어다가 나라에는 국곡을 바치고 부모님께 효도하세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서경은 해가져서 저물어 가는디 우리님은 오지않고 해만 이다지 떨어지네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바람아 광풍아 부지를 말어라 저건너 낙엽이 다 떨어지네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이논배미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잦은소리: 얼카 산이냐, 얼카뎅이냐

논산전통두레풍장은 두레를 짜 그를 중심으로 풍장을 연주하면서 일을 하고, 두레소리와 더불어 한 전통을 놀이로 구성한 경연작이다. 윤종만을 중심으로 하는 논농사소리와 장구놀이가 각별하고, 이를 무대용으로 구성해 두레풍장의 신명을 되살리고자 한 점에 가치가 있다. 다만 논두렁을 벗어난 두레풍장의 전통과 신명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에는 의문이 있으므로, 두레풍장 전통에 대한 전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강원도 / 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 / 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무총리(최우수상)
상금 15,000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서 전승하는 '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는 '피삼 만드는 과정'을 놀이화한 것으로, 1986년 계촌3리 주민들이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굿놀이'는 '삼고굿놀이'로도 불리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 삼 구덩이에서 삼을 삶는 과정이 마치 굿놀이처럼 흥겹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삼베를 만드는 재료와 삼가마를 이용해 삼나무를 찌고 대마 껍질을 벗겨내는 등 피삼을 얻기 위한 과정이 놀이로 구성되었다. 이 놀이는 삼푸기, 삼치기와 삼굿 터치기, 화집쌓기와 삼모리기, 화집잡기와 고사지내기, 짐물주기, 삼 꺼내기와 놀이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삼베삼굿놀이는 작업 과정에 소리를 동반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구래질 소리(쟁기질소리, 소모는소리)

이러이러 이소야
쟁기지고 방림면 삼밭 갈러가자
갈밭이 많아 오늘에는 어렵겠구나
이러어~허 이소야
능청떨지말고 골로 들어서 서라
너무 올라가는구나
어디여 소 내려서라
이러어 이러어 이소야
부지런히 다녀라
워~워 자~
조금 쉬었다가 갈아보자
자 그만 쉬고 마저 갈아보자
이러 일어서라
일어어야 이소
이러어허 이소~
부지런히 갈고 가자
어차 어디여 이소
돌아서라 어디 돌아서라
이러어허~

2. 삼굿터치는 소리(가래질소리)

어~차! 어~차!

앞으로 한 발짝씩	어~차! 어~차!
주춤 주춤 나면서	어~차! 어~차!
가래질하세 가래질하세	어~차! 어~차!
힘들다고 장난치면	어~차! 어~차!
높은 데는 자네허고	어~차! 어~차!
낮은 데는 내가하여	어~차! 어~차!
대궐같은 삼가마 만들어	어~차! 어~차!
비단같은 삼베를 만드세	어~차! 어~차!
어~차! 어~차!	어~차! 어~차!

3. 화집쌓는 소리(목도소리)

허기장차 허기장

화집을 만드세 화집을 만들어 허기장차 허기장
큰 돌댕이는 목도질로 허기장차 허기장
마카 함께 들어봐요 허기장차 허기장
무엇에다 쓸 것인가 허기장차 허기장
이맛돌로 쓸 것이네 허기장차 허기장
낭구 목도 날라보세 허기장차 허기장
허기장차 허기장 허기장차 허기장
이보게들 우리 장제이들 허기장차 허기장
비이단이 좋다한들 허기장차 허기장
방림 강포만 하겠는가 허기장차 허기장
대굴령이 높다한들 허기장차 허기장
우리 장제이들 발아래다 허기장차 허기장
항우장사 힘 좋다 한들 허기장차 허기장
우리 장제이 제일일세 허기장차 허기장
장하요 우리 초군

4. 짐물주기 소리

늦어지네 늦어지네 배가 둥겡이에 붙었는데
젯노리는 아이 오민 애가 나네 애가 나
어낭을 올라섰나 엄방에 빠졌는가
어테 아이오나 때를 에우기가 아이 에롭네

5. 삼 꺼내며 부르는 소리(아라리)

날라가네 날라가네 날가라고 하네
삼베질삼 못한다고서 날가라고 하네

대화방림 부는 바람아 쉬엄쉬엄 불어라
문재전재 넘는 애 목매여 가네

운교계촌대화방림에 딸 놓지를 말아라
강냉이 밭 아이 두벌에 잔허리 꺾는다

뒷마을 수삼대궁은 늙고야 늙는데도
민속공연 구경 온 손님들은 늙도 젊도 마셔요

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는 삼베를 짜는 과정을 놀이로 승화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작업 과정과 노동요가 어우러져 공동 노동의 전통을 살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삼베 두레'라는 점과, 목도소리, 가래질소리, 소모는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전하고 있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된다.


제 1마당
삼 푸 이
제 2마당
삼굿
제 3마당
삼굿터치기
제 4마당
짐
평창방림 삼베삼굿놀이



● 충청북도 / 보은장안농요 / 보은군장안면전통민속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보은장안농요’ 또는 ‘장안두레농요’는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전역에 전승되어온 논농사소리다. 2016년 보은군 민속경연대회와 2017년 제23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서 각각 대상을 받아 이번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첫 출전을 했다.

이 농요는 논농사 중 모찌기, 모심기, 초듬 아시매기, 이듬 논 뜯기 작업에 불렸던 노래들을 엮은 것이다. 이 노래들은 두레를 통한 협동, 일의 능률 향상과 작업 과정에 걸친 힘든 노동을 신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 보은군 전역에서 조사되는 민요는 각 부락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은군 특유의 메나리조 음계와 농요 가사가 지역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모찌는소리>와 <모심는소리>는 전형적인 선후창 방식으로, 선소리가 메기는 가사를 뒷소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복창[復唱] 형태를 지녔다. 보은장안농요는 들나가기, 모찌기, 모심기, 점심참수 나오기, 초듬 아시메기, 이듬 논뜯기, 신명풀이의 순으로 구성된다.

1. 들나가기

일을 하러 들에 나가는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공연장에 입장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2. 모찌기

모찌는 소리는 하루 중 일을 시작하는 새벽에서 아침 이른 시간대 일부에만 부르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설사 있더라도 가사가 짧고 단순하다. 선소리꾼이 부른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복창 방식이다.

> 들어야 내세 들어 내세 이 모자리를 들어 내세
> 뭉쳐 내세 뭉쳐 내세 이 모자리를 뭉쳐 내세
> 잡아 가게 잡아 가게 이 모자리를 잡아 가게
> 이 모자리 뭉쳐낸 후에 이웃배미다 웜겨 심세

3. 모심기

보은군의 전통 모심기 방식은 ‘산식’이라 불렸다. 산식은 모줄 없이 간격을 띄워 심는 방식이다. 현지 어르신들의 고증에 의하면, 왜정 때 산식으로 모를 심어 놓으면 왜경이 와서 모를 마구 뽑고 엉덩이를 걷어차고 해, 결국 줄모로 다시 바꿨다고 한다. 줄모는 일제시대 때 수확 효율 증대를 위해 강제로 차용한 방식인데, 획일적인 줄모의 도입은 기계화 이전부터 모심는소리가 약화된 이유 중 하나로 짐작된다. 모심는소리는 선소리꾼의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방식과, 선소리꾼의 가사에 대구가 되는 가사를 부르는 선후창 방식 등 두 종류가 전승된다.

> 담상에 담상 닷마지기 반달 같이 짓을 달세
> 지가야 무슨 반달이냐 초승 달이 반달일레
> 초승에 달만 반달이냐 그믐 달도 반달일레
> 그믐에 달만 반달이냐 우리 님도 반달일레
> 여기 꽂고 저기꽂고 삼배출 자리로 꽂아주세
> 이논 배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 장잎이 훨훨 영화론가 열매가 열어야 영화로세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잠시 잠깐 놀다 가세
지여 가네 지여가네 점심 참수가 지여가네
점심참만 지여가나 어린 아기도 젖달라네
우리님은 워디 가고 점심 할 줄을 모르시나
원달 같은 밥 광우리 샛별 같이 떠나오네
오늘 해도 다됐나베 골골 마다 연기나네
일락 서산 해는지고 월출 동녁에 달이솟네

4. 점심 나오기

12명의 아낙네가 점심을 갖춰 놓은 두렁을 한 바퀴 돌며 나온다.

5. 초듬 아시매기

모를 심고 나서 이십일 내지 한 달 반포 정도 지나면 파종한 모가 논바닥에 뿌리를 내린다. 이 시기에 호미로 모의 뿌리를 끊어주는데, 이는 모의 생명력을 강하게 하고, 모의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며, 나락 열매가 많고 굵게 열리게 하는 농사법이다. 호미로 한 포기 한 포기 모의 뿌리를 끊어주는 신중한 작업을 '초듬' 또는 아시매기'라 부른다.

(받는소리) 에헤야 사니가 저러헌다
(메기는소리) 이러허구 저러한다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쌈 들어보소 오늘날은 여기서 메구
내일날은 어디서 메나 두팔에다 힘은 주어
논바닥만 뒤집어 주게 닷마지기 논배미가
소리바람에 다매어가네 이 논배미를 얼른매고
장구나배미로 넘어가세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곁에 사람은 보기나 좋게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호의호식을 하련마는
우리야 농부들 팔자가 기박혀 불과 같은 뜨거운 날에
날구장천 땅만 파네 이러허구 저러한다
여 다맸네 이요호호호

6. 이듬 논 뜯기

두 번째 논매기는 모의 생장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풀을 없애고, 작물 포기 사이의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다. 예부터 “호미 끝에 자연히 일백 그루의 벼가 생긴다.” 하고, “싹이 사람의 노력을 안다.” 하며 김매기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그리고 “상농[上農]은 풀을 보지 않고 김을 매고, 중농[中農]은 풀을 보고야 비로소 김을 매며, 풀을 보고도 김을 매지 않는 것은 하농[下農]이다.” 라는 속담에서처럼 잡초 방제에서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받는소리) 이러허이고 저러현다
(메기는소리) 이러허이고 저러헌다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가차운 사람은 보기나 좋게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호의호식을 하련마는 우리야 농부들 팔자가 박혀
불과 같은 뜨거운 날에 날구장천 일만 허네
이 논 배미를 얼른 매어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북소리에 소리를 맞춰 자진 가락으로 넘어가세

<자진 이듬 논뜯는 소리>

(받는소리) 이러허고 저러헌다
(메기는소리) 이러허고 저러헌다　　이러허고 저러헌다
홍두께 날등에 줄파리 앉듯　　빨래줄에 남자리 앉듯
앞둑 질잡이 달려 주소　　뒷둑 질잡이 소리만 하소
쌈갈 이에 들어 섰네　　폭퍼졌네 나팔쌈인가
뚤뚤 말았나 멍석 쌈인가　　이러허고 저러헌다

7. 신명풀이

모두 한데 모여 신명 나게 풍물을 울리며 춤을 춘다.

보은장안농요는 새로이 발굴되어 참가한 작품으로, 고령의 남성 가창자로만 팀을 꾸려 고졸한 소리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옛 농법을 상세히 고증했고, 숨어있던 선소리꾼을 찾아낸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 화성두레농요 /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화성두레농요'는 화성 지역의 논농사소리를 엮은 작품이다. 화성은 조선조 이래로 국토확장사업으로 인한 간척농지 확대가 계속되었고, 이에 벼농사를 주축으로 하는 농업이 생활의 근간이었다. 농업 노동에 있어 두레가 서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이에 따라 일과 휴식 간에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농요다. 화성두레농요는 주로 '모내기소리'와 초벌의 '상사디소리', 재벌의 '얼카덩어리', 세벌의 <에키나 방아> 등의 '논맴소리', 지게놀이에 쓰인 '상여소리' 등을 포함한다.

1. 입장

2. 모심기

<모심는소리>

(받는소리) 여기두 하나 저기 또 하나
(메기는소리) 여기두 하나 저기 또 하나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이 논배미에 모를 내세 우리 논물 퍼다가 모를 내세
이 논배미를 어서다 심고 넓적배미로다 넘어가세
여기다 저기다 매드래도 사방줄 맞게만 꽂아주오
오가다 가다가 꼽드래도 삼배출 자리에만 꼽아주오
이 논배미를 어서 다 매고 장구배미로다 넘어가세
여기두 하나 저기 또 하나

3. 새참먹기

4. 초벌(아시매기)

<상사디소리>

(받는소리) 헐 럴럴 상사데야
(메기는소리) 헐 럴럴 상사데야
여보시오 농부님네들
사이사이에다 호미를 넣어
마치같이도 팍엎어보세
이 논배미를 다하고 나면
장구배미로 넘어를 간다
장구배미를 다매고 나면
최진사님이 건너를 온다
최진사님에 뒤쪽에는
머리 큰 놈이 늘어서 오고
머리 큰 놈에 앞 줄에는
종새기들이 들어서 오네
훨럴럴 상사데야

5. 기우제

부인들이 우물에 모여 물을 퍼 올리고 적시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과정이다.

6. 두벌(재벌매기)

<얼카덩어리>

(받는소리) 얼카덩어리
(메기는소리) 얼카덩어리
여보시오들
농부님네들
사이사이에다
호미를 넣어서
팍엎어 보세나
빙빙돌면서
팍 엎어 보세나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7. 지게놀이

'상여소리'에 맞춰 지게를 이용해 상여놀이를 하는 과정이다.

<상여소리>

(받는소리) 호호 호오 어거리 넘차 호오오
(메기는소리) 호호 호오 어거리 넘차 호오화
간다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으로다 나는 간다
이 세상에 나 태어날 적에 빈손으로다 태어났다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할 적에 빈 손으로다 가는구려
호호 호오 어거리 넘차 호오화

8. 논두렁 밟기

논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논두렁을 밟는 과정이다.

9. 세벌(만물매기)

<에키나 방아소리>

(받는소리) 헹 헤어호 헤어어호 헤에 이여라 치나 에키나 방아로고
(메기는소리) 헹 헤어호 헤어어호 헤에 이여라 치나 에키나 방아로고
(메기는소리) 헤에에이에 시아버지 죽었다고 좋다고나 하더니
나뭇간을 들여다보니 생각이 난다 호오오오호오
(받는소리) 헹 헤어호 헤어어호 헤에 이여라 치나 칭이나 방아로고

10. 멍석말이

모든 농사를 마치고 풍농을 축원하는 과정이다.

11. 퇴장

화성두레소리가 대회 첫 출전 작품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널리 불리는 얼카덩어리소리, 상사디소리와 함께 사당패소리 계열의 방아타령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전라남도 / 밤골마당밟이 / 보성군율어면밤골농악단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율어 밤골농악은 좌도농악에 속하며, 주변 농악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높은 산과 강으로 격리된 지형으로 인한 고립성으로 향토색이 짙게 담겨있다. 율어 지역은 깊은 산중에 넓은 평야가 있어 자립 문화를 형성한 지역으로, '곰북현'이란 소읍성이 있어, 성을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하면서 농악을 쳤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제의식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고립된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 못지않게 독특한 농악이 성행했다.

율어 밤골농악은 정월달과 백중에 두레놀이를 하면서 많이 쳤는데, 특히 정월대보름날 열두 당산제를 지낸 후 마당밟이와 판굿을 한 달 정도나 쳤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한다. 마당밟이는 당산제를 지낸 다음 날부터 집집이 다니면서 고사소리와 덕담으로 집안의 무사 안녕을 비는 굿으로, 성대하게 진행된 것을 큰 자랑으로 삼는다.

밤골농악은 농기, 마을기, 영기, 쇠, 농부, 징, 장구, 큰북, 벅구, 대포수, 조리중, 양반, 각시 등으로 구성된다. 농악대 쇠잽이의 복색은 다른 지역과 달리 검은색 바탕에 삼색이 등에 달린 쾌자를 입으며, 머리에는 부들 상모를 쓰고 종이나 깃털을 다는 특징이 있다. 그 외 치배들인 징, 장구, 북, 벅구의 복장의 겨우, 예전에는 흰색 바지저고리에 삼색을 둘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청색 조끼를 입고 삼색을 두르며,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밤골농악의 마당밟이는 가장 먼저 길굿을 치고, 골목으로 가서 대문 앞에서 문굿을 친다. 이때 치는 문굿은 동문 앞에서 쳤던 문굿과는 다르며, 간단한 사설과 함께 친다. 그다음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을 한 바퀴 돈 후 부엌으로 가서 좋은 사설과 덕담을 하면서 조왕굿을 신명 나게 친다, 그다음으로 성주굿을 치고, 샘굿, 장꼬방굿, 노적굿을 차례로 친 후 간략하게 마당에서 판굿을 치며, 술과 음식이 나오면 먹고 쉬었다가 개인놀음을 하기도 한다.

밤골농악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굿

굿머리 가락으로 길굿을 치며, 대문 앞으로 이동한 후 문 앞에 두 줄로 서서 "문여소 문여소 / 쥔쥔 문여소" 라고 소리를 내면서 문굿을 친 후,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농악대가 다같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

2. 마당굿

농악대가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 마당으로 입장한 다음, 인사굿과 마당굿을 차례로 진행한다. 농악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안가태평과 명복을 기원하는 소리를 부르는데, 이 과정은 샘굿, 정제굿, 성주굿, 액맥이, 장독굿, 노적굿 순으로 진행한다.

3. 판굿

마당밟이로 집안 곳곳을 모두 돌고, 모든 농악대가 마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놀이판을 펼치는 과정이다. 모든 치배가 채굿과 버꾸놀이를 하며 한판 논다.

율어 밤골농악는 좌도농악의 강한 가락과 진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증언자인 박동균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 낙안과 인근 지역의 뜬쇠였던 한골 서점암 상쇠에 의해 그 전통적인 가락의 맥이 꽃을 피웠다고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그 명맥이 오랫동안 끊긴 상태에서 이를 복원하고자 한 노력과 함께 현재의 모습으로 정리한 것은 특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법구와 소법구로 나뉘는 전통적인 지역색을 잘 살려낸 것은 소중한 결실이다. 이러한 밤골농악의 진법과 가락의 지역적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복원해 독자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 부산광역시 / 구덕망깨터다지기 / 구덕망깨터다지기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제주도지사(은상)
상금 7,000

부산 구덕산 자락 일대에 전해지는 '구덕망깨터다지기'는 신라시대에도 성했을 만큼 유서가 깊은 민속이다. '망깨소리'는 큰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또는 길을 다질 때 망깨라는 돌 뭉치로 땅을 다지면서 불렀던 노동요다. 구덕망깨터다지기는 본디 건축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던 전통 건축기법이었다. 따라서 범어사 사찰, 다대첨사, 동래부사 등의 터를 다질 때도 이를 행했다고 한다.

구덕망깨소리는 2음보의 율격이 반복되는 형식을 토대로 하며. 선후창 방식으로 부른다. 먼저 오방지신을 다진 후, 부산의 망깨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노래하고, 이어 망깨질을 하는 집터에 대한 자랑으로 이어진다고 하며, 이 집터에 살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기원하며 '쾌지나 칭칭소리'를 부르면서 터다지는 과정을 마무리한다고 한다.

구덕망깨터다지기를 하면서 소리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터잡기와 가래질

닦읍시다. 닦읍시다 어여차 가래야
어여차 가래야 어여차 가래야
이집터를 닦읍시다. 어여차 가래야
이집터를 닦아놓고 어여차 가래야
이터에다 집을 짓고 어여차 가래야
만수무강 현판달고 어여차 가래야

2. 작은 망깨질

어여차, 망깨야 어여차 가래야
이망깨가 뉘망깬고 어여차 가래야
여러분의 망깨로다 어여차 가래야
천근망깨는 공중에 놀고 어여차 가래야
우리망깨꾼들은 어여차 가래야
소리맞춰 잘도한다 어여차 가래야

3. 큰 망깨질

어여차, 망깨야 어여차 가래야
이집터를 바라보니 어여차 가래야
남산은 봉이로다 어여차 가래야
주산은 당산이라 어여차 가래야
갑산은 지자로다 어여차 가래야
여산은 도읍이로다 어여차 가래야

4. 쾌지나칭칭 소리

쾌자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여보시오 여러분들 쾌지나 칭칭나네
이내말씀을 들어보소 쾌지나 칭칭나네

이세상에 만물중에 쾌지나 칭칭나네
사람밖에 또있는가 쾌지나 칭칭나네
남날적에 낳건만은 쾌지나 칭칭나네
어떤사람은 복이많아 쾌지나 칭칭나네
고대광실 높은집에 쾌지나 칭칭나네

구덕망깨터다지기는 신라시대에도 행했을 만큼 유서가 깊은 민속인데, 이 민속을 보존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수자나 장학생 지원 비용 부족 등 지역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보유하면서 전승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번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해 대중들에게 구덕망깨터다지기를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두미신창흙싸움놀이 / 한경면민속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7,000

'두미신창흙싸움놀이'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집을 짓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행하는 놀이로, 노동의 힘겨움을 덜고, 마을 사람들끼리 호흡을 맞출 수 있게끔 한다. 제주 특유의 관습인 수놀음으로 행해졌던 조파종, 조검질(김매기)의 수놀음마당을 가장 먼저 선보였고, 그다음 온 동네 사람들이 수눌면서 초가집을 짓는 과정을 연행했다. 이 과정은 낭썰기, 오리기, 집터다리는 달구질, 흑역시, 상량식, 흑불리기, 흑싸움 순으로 구성된다.

두미신창흙싸움놀이는 총 네 개 마당으로 나뉘며, 그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마당 '조파종과 조검질(김매기)'

입장과 인사가 끝나면 소모는소리와 더불어 농사짓는 모습을 재현한다. 이때 부족한 노동력을 벌충하고자 서로 노동력을 제공해 공동작업을 한다. 개별 농사보다 능률이 높고, 일손 제공에 대해 직접적인 대가 지급 없이 후일 자신의 노동력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음력 6월에 하던 조 파종 후 밟기 수눌음과 음력 7월경에 하던 조검질 수눌음을 사대소리에 맞춰서 해나간다.

2. 둘째마당

마을 촌장이 "오늘은 날도 좋아 구월중이 근당허연 저 웃카름 당장칩이 장남애기영 성골왓 전적칩이 무남독녀 외똘애기 장게들고 시집간 저 성골왓디 새집 짓엉 살역군님네 모다들엉 초집훈 번 지어봅주!" 라는 말을 하면 목수 일행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초가를 짓는다.

- **첫째거리**

'낭썰기와 오리기'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목도를 하며, 마을로 돌아와 초가를 짓는 데 쓸 수 있도록 나무를 여러 크기로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 **둘째거리**

'집터 다리는 달구질'은 집을 짓기에 앞서 땅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으로, '달구소리'에 맞춰 여러 사람이 함께 규칙적으로 달구질을 한다.

3. 셋째마당

- **첫째거리**

'흑역시[役事]'는 벽체와 지붕을 칠할 흙을 파내 운반해오는 과정이다. 황수(큰목수)가 "역군님네, 이제랑 힘을 내영 흑역시 훈 번 허여봅주!" 라고 하면 괭이와 갈래죽 등으로 땅을 파서 적당한 흙을 마련하고, 이것을 산태, 지게, 굴체 등에 실어 운반하거나 소를 동원해 운반한다.

- **둘째거리**

'상량[上樑]' "도리지둥 몬딱 세왓져. 이제랑 상ᄆᆞ루 올령 입주상량허자!" 소리를 시작으로 상량식을 진행한다.

4. 넷째마당

- **첫째거리**

'흑 불리기'는 운반해온 흙을 마당에 고르게 펼쳐놓고 보릿짚이나 기신세, ᄀᆞ시락 등을 섞어 골고루 짓이기며 다지는 과정이다. 이때 보릿짚 등을 날라다 흙 위에 뿌리는 사람, 물을 길어다 뿌리

는 사람, 흙을 밟는 사람, 쇠스랑으로 흙을 뒤집는 사람 등 다양하게 분업을 하며, 소를 동원해 흙을 밟기도 한다.

- **둘째거리**

'흑싸움'은 잘 이겨진 흙을 지붕과 벽체에 바르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흙을 메주덩이 정도의 크기로 뭉쳐 지붕 위로 던지면 그것을 받아 골고루 펴서 바른다. 양쪽에서 흙을 바르던 사람들 중에 장난기가 심한 사람이 '태기'에 숭숭 뚫린 구멍 사이로 맞은편 사람에게 흙을 던지면, 흙에 맞은 사람이 다시 반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며 모든 사람이 뒤엉켜 흙덩이를 서로에게 던지는 '흙싸움'으로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벽이나 천장에 바를 흙을 이겨서 던지고 받는 과정에서 행하는 놀이가 바로 '흙싸움놀이'다. 대개 작업 끝에 시작하면서 피로를 씻어내는, 일종의 여흥놀이라 할 수 있다. 두미신창흙싸움놀이는 제주도의 전통 초가 건축방식과 관련한 민속문화를 원형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고, 그 결과물을 이번 대회에 출품한 것으로 결실을 보았다.





● 평안도 / 평북농요 / 평북농요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상)
상금 7,000

'평북농요'는 평안북도에서 불린 농요를 엮은 작품으로, 이전에 출전한바 없는 초연작이다. 북한의 향토민요 자료가 남한에 소개된 후부터 여러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작품 역시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평북농요는 겨우내 굳어 있던 논밭을 쇠스랑으로 파내어 흙덩이를 깬 후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김을 매고, 가을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낫으로 베어 추수한 후 방아를 찧어 밥을 짓고, 떡을 빚는 등 풍년의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누며 즐기는 두레의 삶을 표현했다.

1. 입장

2. 논고르기

<논고르는 소리>
이랴 이랴 이랴 이랴
이랴 이 소 이랴 빨리 돌아가자 이랴 이소 대가리 올라간다
이논배미 걸고야 저 논배미 골지
우물우물하다가는 못도는구나 이랴이랴이랴 이랴 이 소
이랴 이소야 빨리 빨리 돌아가세 에
남김없이 깨깨잡어 간다

<쇠스랑소리>
(받는소리) 에야하 에헤 헤요호오오오 소스랑아
(메기는소리) 에야하 에헤 헤요호오오오 소스랑아
소스랑 소리 정 잘도 허다

<자진소스랑소리>
(받는소리) 에야라 에히요리 소스랑아
(메기는소리) 에야라 에히요리 소스랑아
우리나 계원들 다 모여서서
0000소스랑으로
자주나 쫑쫑 쪼아나 보아라
일락 서산에 해가 떨어져
음반에 씻어서 저녁밥 먹어
집으로 돌아 가여를 갑시다

3. 씨뿌리기

<씨뿌리는소리>
(받는소리) 에에헤여로 밟아보자
(메기는소리) 에에헤여로 밟아보자

이랑은 길고 둥실대니 푸른 하늘 청색이라
종달새는 높이 떠서 밭갈기를 재촉한다
씨를 뿌려 싹나오면 열매맺어서 풍년온다
제처논 밥을 못다마 먹고 임을 따라서 갈까보다

4. 모내기

5. 김매기

(받는소리) 에헤에 아하아하아하 어허어네로 매고가자
(메기는소리) 에헤에 에헤에 어야 어허어네로 매고가자
못다맬 논 다 매면 준치반찬 놓아준다
금반지나 찌던 손이 보리 자루가 웬일이요
저기 나오는 저 할마니 점심 광주리 이고온다

(받는소리) 에헤야 데야 호미로다
(메기는소리) 에헤야 데야 호미로다
이 논에는 물채가 좋아
천여가지가 더 들렀다
천여석도 날듯하다
금년 농사 이렇게 되면
우리나 살림이 풍부하네
삼천석이 썩 날 듯 하니

6. 추수하기

<벼베기-낫소리>

(받는소리) 닐닐 닐리리야 니리 닐리리 닐리리
니나나노 닐리리야 닐 닐리리 닐리리
(메기는소리) 닐닐 닐리리야 니리 닐리리 닐리리
피양의 조종은 모란봉 서울 조종은 삼각산
출라도 다리는 삼대도 능라도 다리 숭악도
얼씨구 좋구나 절씨구나 아니나 노지는 못하도다

7. 방아찧기

절구통을 중심으로 일꾼들이 둘러서서 추수한 곡식을 절구통에 넣고 방아 찧는 소리를 한다.

(받는소리) 얼커덩 쿵덕 잘도 찧네 얼커덩 쿵덕 잘도 찧네
(메기는소리) 얼커덩 쿵덕 잘도 찧네
이 마당에 방아를 찧자 쿵덕쿵덕 잘도 찧네
이 방아 이름은 무엇이냐 평북에 디딜방아
한섬 두섬 찧어내니 백옥 같은 흰쌀이라
앞집 방아를 찔라면 개가 무서워 못 찧고
뒷집 방아를 찔라면 어디 무서워 못 찧고
방아 방아 잘도찧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얼커덩 쿵덕 잘도 찧네 얼커덩 쿵덕 잘도 찧네
얼커덩 쿵덕 잘도 찧네 얼커덩 쿵덕 잘도 찧네

7. 퇴장

논고르는소리부터 쇠스랑소리와 호미소리, 닐리리타령 등이 이 작품을 통해 새로 복원되어 불렸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민속을 발굴해 출전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 황해도 / 최영장군당굿 / 최영장군당굿보존회

종목 의례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5,000

'최영장군당굿'은 실존 인물인 최영 장군을 모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최영장군당'에서 황해도굿 형식으로 연행하는 굿이다. 최영 장군은 고려 후기 위기에 처한 고려 왕조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충신이나, 조선 개국으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인물이다. 민중들에게 비운의 영웅으로 인정받으면서 무교의 신으로 또는 종교적 존재로 추앙되면서 '나라의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을 축원하는' 특정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최영장군당굿은 소[素]굿과 육[肉]굿으로 나눠 진행하며, 굿이 드는 날부터 묵는 날 오전까지는 '소굿'으로 진행하는 굿거리로, 묵는 날부터 나는 날까지는 '육굿'으로 진행되는 굿거리로 구성한다. 당굿의 전체 과정은 총 스물네거리다.

*** 최영장군당굿 스물네거리**

① 신청울림, ② 당맞이, ③ 일월맞이, ④ 상산맞이, ⑤ 초부정거리, ⑥ 감흥거리, ⑦ 소대감거리, ⑧ 성주거리, ⑨ 칠성, 제석거리, ⑩ 별상거리, ⑪ 영정거리, ⑫ 말명거리, ⑬ 군웅거리(사냥거리 포함), ⑭ 타살거리, ⑮ 대감거리, ⑯ 먼산장군거리, ⑰ 토일성수거리, ⑱ 신장거리, ⑲ 최영장군거리(작두거리 포함), ⑳ 대신거리, ㉑ 창부거리, ㉒ 조상거리, ㉓ 목신서낭거리, ㉔ 마당거리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 시 전체 스물네거리 중 작두거리를 연행했다. 작두거리는 주신인 최영 장군과 여러 장군신을 모시고 작두를 타며 나라 공수를 내리는 과정을 진행한다. 서경욱이 연행의 주무를 맡았고, 그 외 제자들이 참여했으며, 장구, 징, 제금, 피리, 태평소, 대금, 해금 등 악기가 연주되었다.

최영장군당굿의 작두거리 연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정식

깃발, 악사, 무당이 차례로 최영 장군이 출정하는 모습으로 등장해 자리를 정돈한다.

2. 청배

최영장군거리의 시작 부분으로, 주무가 방울을 흔들면서 신을 청하는 청배무가를 가창하면 상장구가 무당의 소리를 받는다. 그 외 조무들도 함께 소리를 받으면서 진행한다.

3. 장군춤

청배를 마친 주무가 빠른 춤 장단에 맞춰 최영 장군의 장군복을 입고 그를 형상하는 춤과 작두 놀리기를 하며, 장군칼춤을 추면서 신의 강림을 보여준다.

4. 작두타기

최영 장군의 춤을 추던 무당은 높이 쌓아 올린 작두로 올라가 작두타기를 한다. 주무는 작두 위에서 만백성과 국태민안을 위한 공수를 내린다. 작두를 타고 내려와 장군기 뽑기를 하거나, 신장이나 여러 장군 등을 모시는 과정을 이어서 한다.

5. 퇴장

최영장군은 황해도 무속에서 중요한 신격이자 영웅신적 존재요, 고려조의 공신이며, 비운의 장수로 통한다. 최영장군당굿은 대규모 굿이기는 하나, 해당 굿의 특징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토일성수거리, 신장거리, 장군거리, 작두거리만 진행하는데, 이는 장군거리와 연동되면서 주요한 황해도의 신격을 모시는 굿거리다. 황해도 무속의 전통을 드러내는 문화재로서, 굿의 차별성에 대한 정리가 요구된다.





● 전라북도 /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 김만경외애밋들노래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5,000

김제는 우리나라 논농사의 가장 중심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일과 관련한 다양한 농요와 민속놀이가 성행해왔다.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역시 전 과정이 농사짓는 행위를 묘사하며, 농사를 지으며 부르던 노래가 구전되어 온 것이다. 집터잡는노래, 달구질노래, 집들이노래, 액맥이노래, 논꾸미는노래, 모심는노래, 지심매는노래, 만두리(마지막 김매기)노래, 만경 산타령, 벼베는노래, 등짐노래, 타조(타작)노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입장

2. 논꾸미는노래

<논 꾸미는 소리>
(받는소리) 어허라 어허어야
(메기는소리) 어허라 어허어야
가노라 간다 내 돌아 간다
임을 따라 내 돌아 간다
이해 저해 다 보내고
우리 농군들 욕들보네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장구 배미로 건너가세
여기 저기 골골배미
우리 같이 모를 심세

3. 모심는노래

<상사소리>
(받는소리) 여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뒤여
(메기는소리)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어화 농부들 말들어보아
여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뒤여
이마 우에 흐르는 땀은 방울 방울 열매맺고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구나 김만경 들판에 풍년이 왔네

<자진상사소리>
(받는소리) 여화 여루 상사디야
(메기는소리) 여화 여루 상사디야
여보소 농부들 말듣소 어화 농부들 말들어
나렸다네 나렸다네 전라 어사가 나렸다네
떠들어 온다 떠들어온다 떠들어 온다 점심밥이 떠들어온다

4. 지심매는노래

<초벌매는소리>
나하하 헤 헤에헤에 헤에헤에 노리 헤헤 어 어디가 산아지로구나 에헤에
바람불고 비오는 줄을 알면은 어느 누가 빨래질을 갈까 에헤에

나하 아헤 헤헤에에헤헤에헤에 놀이 헤 헤 거 거뉘가 산아지로 구나 에 헤에

5. 만두리노래

<만경산타령>

(받는소리) 에야 뒤야 에에헤에야 에야 뒤여 상사디로 구나

(메기는소리) 욕들보네 욕들보아 우리 농군들 욕들보네
말은 가자고 네 굽을 치는디 님은 잡고 낙루만 허네

(받는소리) 어 어루화 사리여

(메기는소리) 징장사는 운봉덕
나팔 장사는 고창덕
바작장사는 00덕
이엉차 소리가 가깝구나
이엉차~

6. 장원질

(받는소리) 어허이 둔대 어허이 둔대

(메기는소리) 어허이 둔대가 둔대로세
가세 가세 어서들 가세 주인네 집으로 가 술들 먹세
여봐라 춘향아 내말을 들어 비개 높거든 내 팔을 비어라

7. 등짐노래

추수한 벼를 짊어지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농요를 한다.

(받는소리) 아허 어허어 야 어허기야

(메기는소리) 가네 가네 나는 간다 저를 짊어지고 나는 간다
하늘같은 내 딸이로 실같은 흙위에다 태산같이 짊어지고 나는 간다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주인이 닭을 잡고 기다리니 어서 가세

8. 방아 찧는 소리

벼를 타작하고 홀태로 치면서 방아를 찧고 농요를 부른다.

9. 마무리

김제는 농토가 넓은 평야지대로, 이곳의 농요를 모아 작품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만경외애밋들 들노래는 이번 대회에서 국립국악원장인 동상을 수상했다.





● 대전광역시 / 계족산무제 / 대덕문화원

종목 의례
수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상금 5,000

‘계족산무제’는 민간의 기우제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사람들은 계족산 자락에 취락을 형성하면서 살아왔는데, 산을 끼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일원에 회덕현의 치소가 자리했고, 《세종실록지리지》에 “계족산은 회덕현의 사람들이 진산[鎭山]으로 삼는다. 향인이 이르기를 날이 가물 때 산이 울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기록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에도 그와 관련한 유래가 전하는 것으로 볼 때 유서가 깊은 민속이라 할 수 있다.

계족산무제는 옛 회덕현의 소재지였던 읍내동과 인근의 대화동, 오정동, 중리동, 송촌동, 법동, 와동, 비래동, 연축동 등 수백 명의 사람이 참여했던 지역 공동 행사였다고 전한다. 해방 이후 40여 년 전까지 지속된 후 그 명맥이 끊겼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발굴과 고증이 이루어진 후부터 재현되고 있다.

계족산무제는 여름이 무르익도록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를 올리는 과정으로, 여성 중심 과정과 남성 중심 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일명 ‘유왕제(용왕제)’로 불리는 의례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주관한다. 부녀자들의 유왕제는 물을 관장하는 용신에 대한 의례로서, 물 까부르기와 날굿이로 구성되며, 마을의 신성한 샘과 용소(냇물)에서 행한다. 반면 고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며 남성들이 주관하는 ‘무제’는 회덕 고을의 진산인 계족산 상봉에서 거행되는 유교식 제의다.

현재 복원된 상태로 전승하는 계족산무제는 전반부에 여성 중심의 ‘유왕제(용왕제)’와 중반 이후에 남성 중심의 ‘유교식 제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솥뚜껑 훔쳐내기, 유왕 맞이하기, 마을 길놀이, 임천-샘굿, 산 오르기, 암장 찾기, 무제-제례, 물 까부르기, 비 부르기, 대동난장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실연된 계족산 무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솥뚜껑 훔쳐내기

아낙들과 할미가 모의를 하고, 아낙 둘이 자세를 낮추고 바쁜 걸음으로 과부집으로 가서 솥뚜껑을 훔쳐 도망 나온다. 과부 1은 솥뚜껑을 들고 뛰다 중간쯤 왔을 때 머리에 이고, 과부 2는 부지깽이로 치며 간다. 임천 아낙네들이 다 같이 간다.

2. 유왕마지기 무제

마을 아낙들이 갑천 쪽과 계족산 쪽에서 각각 키를 쓰고, 빗자루를 들며, 광주리에 바가지와 제수 음식을 담아 임천에 모인다. “무제 지내러 가세~” 라고 하면서 횃불, 솥, 키, 바가지, 광주리, 풍물패 등이 갑천 유왕마지기로 간다. 도착하면 솥뚜껑을 한쪽에 내려놓고 백설기와 제수 음식을 진설한 후 아낙이 재배를 올리고, 아낙의 축원 소리에 손을 비벼 염원한다. “물까불러라~” 라고 하면 풍물패가 삼채를 치면서 키를 들고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며 물을 까부르고, 바가지를 든 아낙들은 부지런히 갑천물을 담아 키에 부어 키질을 하거나, 둠벙에 뛰어들어 몸을 씻고 물을 뿌리는 등 여러 행위를 한다.

3. 마을 길놀이

계족산 주변 마을 사람들이 용기와 농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며 모여들기 시작한다. 만나면 깃발과 제관들이 원안으로 들어가고 풍물패와 큰 원을 만들어 이채로 흥을 고조하고 함성을 지르며 논다.

4. 임천 - 마을샘굿

도롱이와 삿갓을 쓴 농군들이 임천에서 마을기를 맞이하고. 지게꾼들은 느티나무 옆에 지게를 정렬한다. 임천에 모여 우물 주변에 둘러서서 샘굿을 하고, 정성스레 무제에 필요한 물을 떠서 계족산에 오른다.

5. 산오르기

계족산에 오를 때는 횃불, 영기, 용기, 농기, 마을기(참여 마을기), 비내리기를 기원하는 글귀기[此山鳴則必雨], 풍물패(쇠·징·장구·북), 제관(초헌관·집사·좌상·아헌·종헌), 지겟꾼 외 여러 참여자 순으로 오른다. 계족산에 도착하면 대형을 만들고 무제를 올릴 장소로 간다.

6. 암장찾기

동·서·남·북으로 가래와 삽, 괭이가 위치해 가래질소리에 맞춰 가래질 동작을 하며 암장을 찾는다. 제관들은 가래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춤을 추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운다. 암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제를 준비한다.

7. 무제

황토지게꾼이 황토를 넓게 펼치고 나서 제상을 차린다. 제상을 차릴 때 지게꾼들과 농군들은 한가운데에 불을 지필 장작준비를 한다. 제관들은 절차에 따라 기우제에 해당하는 무제를 올린다.

8. 비부르기

남자들이 미리 쌓아놓은 장작에 불을 피우고, 이후 한바탕 함성과 풍물을 친다.

9. 논메는소리

소리를 하면서 깃발과 함께 서로 어울리며 굿거리 춤을 춘다. 흥을 높이기 위해 뭉쳐서 난장으로 논다.

10. 뒤풀이 - 비맞이

영기를 앞세우고 삼채를 치면서 돌다가 “단비가 온다“ 외치며 이채 난장을 튼다. 가락을 맺으면 삼채를 치며 무더기로 퇴장한다. 이채로 맺고 모두 마친다.

물은 농경에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자연의 선물이다. 특히 농사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뭄이 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있었는데, 의례 행위를 통한 대안이 바로 ‘기우제’였다. 기우제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의식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사와 여성민속을 통한 주술 행위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계족산무제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남성과 여성 집단이 행하는 이중적 기우제가 모두 담겨있어 중요한 민속자료라 할 수 있다.





● 평안남도 / 평양검무 / 평양검무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동상)
상금 5,000

평양검무는 평안도의 대표 작품 중 하나다. 평양검무 전승자 이봉애 선생은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리 출신으로, 평양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녀 서문여고를 졸업했다. 그의 나이 14세에 평양권번 출신 예기 김학선을 만나 평양검무를 사사했고, 현재는 이봉애 선생의 제자들이 평양검무를 전승하고 있다. 이봉애 선생은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해마다 정기공연을 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평양검무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평양검무는 입춤, 앉은 춤, 칼춤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입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일자 사위

2. 앉은 춤

(1) 수상수저[手上手底]: 서서 기본 동작
(2) 두 손 모아 허리춤
(3) 옆으로 허리춤
(4) 두 손 위로 모아 허리춤

3. 칼춤

(1) 한칼 사위
(2) 쌍칼 사위
(3) 서서 기본 동작사위
(4) 반돌기
(5) 칼 뽑기 동작
(6) 양팔 벌려 두 번 돌리기
(7) 건곤 사선 사위
(8) 반돌기 사위
(9) 앉는 연풍 사위
(10) 까치 사위
(11) 번개 사위
(12) 머리 쓸기 사위
(13) 인사 사위
(14) 하늘 치기 사위
(15) 빨리 돌기 사위
(16) 양팔 벌려 칼 돌리기 사위
(17) 유진 유퇴
(18) 도는 연풍 앉아 칼 돌리기
(19) 머리 쓸며 까치 사위
(20) 칼로 땅치기 사위
(21) 돌아서 기본사위

(22) 좌우 칼 돌리기
(23) 번개사위
(24) 앞 돌리기
(25) 번개 사위 4, 2, 4
(26) 마지막 인사

평양검무는 대회에 여러 차례 출전해온 북한 출신 이북5도민들의 공연작품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광주광역시 / 광주산월농악 /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

종목 농악
수상 서귀포시장(장려상)
상금 3,000

광주산월농악은 낟가릿대 세우기가 그 중심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산월동에는 정월대보름 당산제와 당산굿을 연행할 때 당산 앞에 낟가릿대를 세우고, 마당밟이를 할 때도 낟가릿대를 들고 다니며, 판굿을 할 때도 세워놓는 전통이 있다. 산월동의 농악을 조사한 이현옥의 증언에 따르면, 산월동에서는 낟가릿대를 세워놓고 천황씨·지황씨·인황씨 등을 언급하며 풍년을 기원했다고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은 동쪽으로 영산강이 자리하고, 서편으로는 삼각산(높이 98.6m)이 위치한 배산임수형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포산[浦山], 월봉[月俸], 봉산[鳳山] 등이 있고 1990년대 초까지 전체 300여 호에 이르는 큰 마을이었다. 1990년대 초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해마다 정월대보름 당산제와 당산굿을 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마당밟이를 했으며, 2월 초하루에는 새끼줄을 채찍처럼 만들어 소리를 내는 뙤기치기(새 쫓기)를 했다.

산월농악은 정월대보름 당산굿을 시작으로 10일~15일에 걸쳐 마당밟이를 하고, 저녁마다 마당밟이하는 집에서 판굿을 연행하던 전통에서 유래했다.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산굿과 마당밟이의 절차만 기억하고 판굿의 구체적 연행순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호남우도농악의 상쇠로 이름난 최화집, 송광쇠 등이 활동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판굿의 형태는 우도농악의 전형을 따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현재의 산월농악은 예술단체 '굿마당'에서 광산구 지역의 민속예능 발굴·재현을 위해 인근 주민들을 만나 면담하는 등 조사 과정을 거친 후, 낟가릿대를 세우고 진행하는 당산굿과, 마당밟이에서 행하는 판굿을 재현한 것이다. 이에 산월농악을 당산굿, 오채굿, 오방진 및 구정놀이, 허허굿 및 지신매기, 콩등지기, 개인놀이 등 총 여섯 마당으로 정리했다.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에서 실연한 산월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준비 및 입장

벼가릿대, 지개꾼, 아낙, 종목기, 농자기, 영기, 대포수, 양반, 참봉, 조리중, 할미, 색씨, 비리쇠, 홍작삼을 든 조와 태평소, 쇠, 징, 장구, 북, 소고 등의 치배로 나눠 입장한다. 뙈기치기가 먼저 입장하고, 2명이 번갈아 딱·딱·딱·딱 친다. 상쇠는 일채가락을 내어 털어준다. 상쇠가 칠채가락으로 시작하고, 치배와 잡색이 장단에 맞춰 동시에 입장한다. 한 무리가 벼가릿대 앞에 제상을 준비하고 재물을 올리면, 대포수가 초헌관으로서 먼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향에 돌린 후 모사에 술을 붓고 이배 절을 한 후 강신례를 마친다. 풍물패는 칠채가락에서 달팽이로 말 때 가락을 몰아 맺고, 바로 진굿 가락을 내어 제상 앞에서 3회에 걸쳐 덕석몰이를 한 후에 제단 앞에 줄을 맞춰 선다.

2. 당산제

집례는 홀기 순으로 진행한다. 제를 마치면 상쇠가 "여보게 치배들~ / 예~ / 오늘은 정월 열나흗날 새해 첫 보름을 맞이해 천황씨 지황씨 신농씨 신령님들께 올해 농사가 풍작을 이뤄 주십사 축원 드리면서 신나게 농악놀이나 한번 해 보세~ / 오 그러세~"라고 한 후에, 휘모리 일채, 이채, 삼채, 휘모리 털고 제상 앞에서 인사를 올린 후에 제상을 모두 철상한다.

3. 질굿마당

상쇠는 오채굿 가락을 생략하고 된오채굿을 치면 반시계방향으로 원진을 만들면서 시작한다. 질굿마

당은 된오채질굿, 잦은일채굿(풍류굿), 세마치굿, 벙어리삼채굿, 벙어리일채굿, 된삼채굿, 음매깽 순으로 진행한다.

4. 오방진

상쇠가 오방진 가락을 낸다. 진오방진으로 바꾼 후 반시계방향으로 뛰면서 상쇠가 자진오방진으로 바꿔면 연풍대로 돌면서 덕석몰이를 한다.

5. 호허굿

열두마치, 호허굿, 좌우진퇴 연봉놀이, 김매기, 마당밟기 순으로 진행한다.

- 열두마치: 상쇠가 장구 앞에서 치고, 치배는 앉아서 일채를 치다가 열두마치를 3회 반복한다.
- 호허굿: 쇠꾼은 원래 자리로 돌아와 반시계방향으로 원진하면서 호허굿을 친다.
- 좌우진퇴 연봉놀이: 우측, 좌측, 전진, 제자리 중앙, 뒤로 한 장단에 한 걸음씩 이동한다.
- 김매기: 앉아서 1보씩 움직인다.
- 마당밟기: 허리를 숙이고 가락에 맞춰 4보씩 움직인다.

6. 콩꺽자(용틀임) 및 두줄배기

쇠가 시작 가락을 치면 치배들은 한가운데를 보고 앉아 있는다.

- 상쇠가 “콩꺽자 콩꺽자 두룩 넘어 콩꺽자” 외치면서 지나가면, 치배들은 일어서 따라가면서 용틀임을 한다.
- 두줄배기: 두줄배기를 만든 후 가위치기를 하고, 삼채가락을 내며, ‘ㄷ’자 대형을 만든 후 재넘기기 휘모리로 맺음한다.

7. 개인놀이

쇠가 발림가락을 내면서 잡색들을 불러래는 잡색놀이로 시작한 후,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8. 퇴장

휘모리로 인사한다.

산월농악은 낟가릿대를 세우고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적 면모를 담고 있으므로, 농악의 주술적 기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특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이르는 볏가릿대 풍속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어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산월농악의 전통적인 면모를 굿마당에서 진행해 복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산월농악의 면모를 지속적인 고증·복원을 통해 더욱 전통을 살린 모습으로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 함경북도 / 두만강뗏목놀이소리 /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서귀포시장(장려상)
상금 3,000

'두만강뗏목놀이소리'는 예부터 함경북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인 목재를 채집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노동요다. 벌목한 나무를 떼로 엮어 강 하류 지역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는 이를 '뗏목꾼'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뗏목 위에서 일주일 정도 여정을 보내면서 고됨과 외로운 신세를 읊조렸던 것이 지금의 두만강뗏목놀이소리로 남게 된 것이다. 강 위에서 뗏목놀이를 하던 마을 사람들이 뭍으로 와서 재현하고 즐기던 것이 형태를 갖추면서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으나, 기본 내용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해 산판 생활과 뗏목 생활을 담아낸 것이다.

1. 마을 치성과 환송

벌목꾼들이 벌목하러 떠나는 날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에 모여 벌목장으로 떠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서낭신에게 고하는 의식을 치른 후 즐거운 마음으로 아쉬운 이별을 하며 산으로 보낸다. 깊은 산에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짐승들이 살고 있어,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 악기를 연주하고 신방곡이란 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올라간다.

<신방곡>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아이고 내 딸 공덕아 아이고 내 딸 심청아
내어디 갈까 에헤에 산으로 갈까 에헤에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지리
아이고 내 딸 잠자게 아이고 내 딸 놀아게
내 어디 갈까 에헤에 산으로 갈까 에헤에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나질이 나질이 나질나질 나질이 리리

2. 벌목꾼 산 오르기

산에 올라 벌목할 지경을 설정하고, 평평한 곳의 나무를 대표 나무로 선정하며, 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오늘부터 벌목할 것임을 목신에게 알리는 의식을 행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후 벌목을 한다.

3. 나무치성과 벌목하기

벌목하기 전, 나무 앞에 고사상을 차려놓고 벌목 허락을 청원하는 의식을 행한 후 벌목하며 부르는 노래로, 나무하는 소리와 톱 소리를 부르는 등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노래에 모두 담아 표현한다.

<나무하는소리>

여기도 산이구나 에야
에헤야 에헤야
좋은네 소리나 한마디 하고 보자 에야
에헤야 에헤야

일락 서산에 해떨어지고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우리야 인생 또 산간다네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청솔가지 찍어내여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한짐가득 찍어보세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우리들에 차지도 못하고 에야 하아
에헤야 에헤야
이런 고생하고 사네 에야하아
에헤야 에헤야

<톱질하는소리>
슬렁슬렁 당기어라
이 나무 허리가 가늘어간다
이헤 에헤야 어서 어서 당겨라
이 나무 넘어 넘어 간다
이헤 에헤야 어서 어서 당겨라
이 나무 넘어 넘어 간다

4. 나무를 목도해 산 아래로 운반
벌목한 나무를 산 아래로 운반하는 과정 중 목도로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힘을 합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요로 목도소리를 부르면서 운목해 산에서 내려온다.

<목도소리>
엥여차 엥여엥여 엥여차
엥여엥여 엥여허 엥여차
엥여허 엥여차 엥여허 엥여차

5. 부녀자들의 하루일과
주부들이 가정을 위해 내조하는 모습으로, 절구질하며 키질하고 옷감에 푸세를 하는 다듬질과, 다리미와 인두로 옷을 손질해 가족들에게 의복을 입혀 내보내는 일상을 표현한다.

6. 뗏목 떠나보내기
엮어진 뗏목을 강물에 띄우기 전, 용왕신과 바람신에게 뗏목의 운행을 보살펴 탈 없이 다녀오게 해 달라는 고사를 올린 후, 가족과 친지들은 전송한다. 뗏목꾼들은 뗏목을 타고 가는 긴 여정을 노래로 표현한 유벌가[流筏歌]를 부르며 항해한다. 목적지에 당도해서는 뗏목을 건네주고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신고산타령>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차 가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밤봇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뗏목소리>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빙글빙글 두만강수로 내려간다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야디야
들어간다 물은 콸콸 가슴 두근두근
00물이 넘는다 어떻게 갈까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허야
어허여차 어야디야

7. 어울림한마당

뗏목꾼들이 무사 귀환한 기쁨을 가족은 물론 온 동리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춤추고 노래하며 해후하는 흥겨운 마당놀이며, 일곱 마당으로 작품을 마감한다.

두만강 뗏목소리는 제55회 제56회, 제57회 대회에 이어 네 번째로 이번 대회에 출전해 서귀포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함경남도 / 토성정월대보름놀이 / 함경남도북청민속예술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서귀포시장(장려상)
상금 3,000

'토성정월대보름놀이'는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에서 전래하는 놀이로,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마을의 벽사진경과 안과태평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연행한다.

놀이 방식은 음력 정월 5일에서 10일 사이 역학에 능통한 사람에게 놀이 날짜를 받아 정하고, 신청대문 앞에 새끼줄과 소나무를 묶어 세워둔다. 정월 초, 정월대보름 놀이 준비를 위해 마을에서 소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낸 후 마을 부녀자들은 집에서 가사 도구(함지, 바가지, 자배기, 놋그릇 등)와 북을 가지고 나와 돈돌날이 민요를 부른다. 마을 청년들은 횃불싸움을 하러 토성산성을 돈다. 싸움을 벌이다 몸이 지칠 때 횃불싸움을 중지하고 도청으로 집결한다.

돈돌날이를 연행한 부녀자와 횃불싸움에 참여한 청장년, 그리고 사자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청에 집결하면 본격적으로 사자놀이가 시작된다. 사자놀이에 참여하는 인원은 퉁소 3-4명, 북 1명, 징 1명, 나팔 3명 정도이며, 때로는 전문 악사가 토성리를 찾아와 놀이에 참여하기도 한다. 사자놀이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령, 양반, 꺽쇠, 거사, 사당, 점쟁이, 사자로 구성되며, 사자는 입에 횃불을 물고, 춤을 추며 도청을 한 바퀴 돈다. 이는 잡귀와 재앙을 몰아내는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액운을 쫓기 위해 이들을 사자에 태우거나, 사자 안에 들어가 놀이를 하도록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자는 사자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토성정월대보름놀이의 연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고사마당

- 고사를 지내기 위해 사전 준비한 고사상을 준비하고 북 1명, 존위, 부존위, 음률도감, 유사가 입장한다.
- 북을 세 번 친다.
- 존위가 고사상에 무릎을 꿇고 유사는 집사 역할을 한다. 술 한 잔을 고사상에 먼저 바치고 전부 합동 배례를 한다. 먼저 존위가 초헌을 하고, 축문을 고하고, 부존위가 아헌을 하고, 음률도감이 종헌을 한 후에 합동 배례를 하고 마친다.
- 유사가 고사가 끝났음을 선언하면, 악사는 악기들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령 등 탈을 쓴 사람들이 춤사위를 연행한다.

2. 부녀자 마당

- 북을 치는 부녀자가 "액운을 쫓고 잡귀를 몰아내며, 복록을 불러들이는 돈돌날이를 놀아보자." 하며 외치면, 부녀자 일동이 돈돌날이 민요를 부르며 길놀이를 한다.
- 북이 간주장단을 치면, 퉁소가 연주하고, 부녀자들은 바가지, 자배기(항아리) 장단을 치며 민요를 부른다.
- 유걸이(거지)가 놀이판 한판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춤을 연행한다. 유걸이가 퇴장하고 난 후, 북이 "아지미들 낼래 들어옵쎄." 하고 말하면 머리에 자배기(항아리)를 얹은 부녀자들이 들어와서 한판 넋두리 춤을 춘다.

3. 사자놀이 마당

- 마을 주민들이 한차례 놀고 난 후 북이 울리면, 사자가 입에 횃불을 물고 맹렬한 기세로 도청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 사령은 커다란 막대기로 운집한 사람들을 원 밖으로 몰아내고, 존위, 부존위, 음률도감, 양반, 꺽쇠, 유사, 사당, 거사, 악사 등이 들어온다. 이때 사자는 악사 앞에 앉아있다.
- 사자가 3진 3퇴 춤사위를 추는데, 이는 잡귀와 재앙을 쫓고 마을에 액운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때 매괴놀이를 위해 지신밟기를 한다.
- 마을 사람들은 가락에 맞춰 손뼉 장단을 치고 어깨춤을 춘다. 부녀자들이 들어와서 퉁소 가락에 맞춰 춤을 추고, 거사, 사당, 존위, 부존위, 음률도감, 사령 등,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원안으로 들어와 춤을 춘다. 이때 벽사진경과 안과태평을 위해 대동놀이를 행한다.

토성정월대보름놀이의 제보자인 김어금은 1954년 1.4 후퇴 때 월남했다. 그는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불렸던 민요와 관원놀이, 정월대보름놀이에 대한 기억을 소상히 하고 있어, 그의 기억을 토대로 놀이를 구성할 수 있었다. 남한에서 연행된 적이 없는 이 놀이를 분단 이후 복원해 전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일이며, 이번 대회에 선보일 수 있던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 날뫼북춤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서귀포시장(장려상)
상금 3,000

‘날뫼북춤’은 1983년 제2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1992년 제33회 문화부장관상, 1996년 제37회 노력상, 2016년 제57회 동상, 2018년 제59회 장려상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다. 1984년 7월 25일에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지정되었다.

서구 비산동 일대에서 행해지던 날뫼북춤은 비산농악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두드러지게 발달한 북춤이다. 비산동의 옛 이름이 ‘날뫼’라 날뫼북춤이라 부른다.

이 지역에 있는 날뫼의 원고개는 달성과 달내(금호강) 사이에 퍼진 넓은 들을 가로지르는 나들이 길로, 즉 대구의 관도였다. 옛날 고을의 원이 부임해 올 때 날뫼의 원고개에서 행차를 쉬어 갔는데, 이러한 부임 행차 때마다 백성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맞이했다고 한다. 날뫼북춤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 백성들의 추앙을 받던 이 고을의 한 원님이 정사를 돌보다가 순직했다. 그 후 사람들은 원님의 외로운 혼을 달래주기 위해 춘추의 제향 때마다 북을 울리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날뫼북춤으로 이어졌다 한다.

날뫼북춤은 열두 마당으로 구성되며, 길굿, 길군악, 인사굿, 정적궁이, 반직굿, 엎어빼기, 다드래기, 모듬굿, 살풀이굿, 강강술래, 허허굿, 오방진, 덧배기굿(뒷마당풀이) 순으로 연행한다. 악사는 쇠, 징, 장구, 띵 각, 태평소로 구성되며, 북춤은 독무와 군무로 나뉜다.

날뫼북춤의 구성은 비산농악과 유사해, 모의 군사굿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쇠가락은 마당마다 변화가 다양하며, 대표적인 춤의 기조는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가락 춤사위로 되어있다. 일사불란한 단체 무악을 이루고 있어 힘이 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협동심과 단결력을 느끼게 한다.
날뫼북춤의 춤사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정적궁

상쇠가 치는 단마치에 대원들이 자신의 보폭으로 쇠가락에 맞춰 허리춤, 어깨춤을 추면서 원형으로 돌다가, 상쇠가 2채, 7채 가락으로 정적궁을 치면 전원이 허리춤과 어깨춤으로 돌면서 넘어가는 것이다. ‘자반득이(반짓굿)’는 상쇠의 다양한 쇠가락에 맞춰 군무의 묘를 살리면서 덩실거리는 덧배기춤으로,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2채, 3채, 4채, 8채, 12채 순으로 단체 무악을 이루며, 마지막에는 덧배기가락으로 전원이 돌면서 어깨춤과 허리춤을 흥겹게 춘다.

2. 엎어빼기

상쇠가 2채로 시작해 4채로 넘어가고, 설북이 2채와 3채를 치면 전 단원이 동시에 한 바퀴 돌면서 세 번, 네 번 엎어빼고 돌아가면서 춤을 춘다. ‘다드래기’는음 3채로 시작해 단모리 7채가락으로 넘어가며, 이때 전 단원은 몸을 뒤집어 엎어빼고 빠른 사위로 돌면서 춤을 추는 것이다.

3. 허허굿

설북이 2채에서 4채로 넘어가면서 갈지자 뜀으로 이끌어가면 이에 따라 뛰놀다가 호호딱딱하는 허허굿을 하는 것이고, ‘모듬굿’은 설북이 단마치로 1채, 2채, 3채를 치면서 원을 그리며 모였다 흩어지는 형태를 3번 거듭하고 나서, 설북의 장단에 맞춰 4채, 8채, 12채로 친 다음 대북을 높이 뒤집으면서 춤을 추는 것이다.

4. 살풀이

한해 농사 과정을 상징하는 춤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흥겨운 장단과 우렁찬 북소리에 맞춰 전원이 어깨춤을 추면서 돌아가는 것이고, '덧배기'는 덧배기 들놀이가락으로 대북이 3채, 6채를 몰아치고 흥겨운 굿거리장단으로 한데 모여 춤을 추는 것이다.

날뫼북춤은 1983년 제24회 출전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차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날뫼북춤은 서귀포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경상북도 / 영천명주농악 / 영천명주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서귀포시장(장려상)
상금 3,000

'명주농악'은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에서 전승하는 민속이며, 경상북도 남부 지방풍물놀이의 전형을 보여준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 당산나무에 제를 지내고 풍물꾼들이 길굿, 문굿 가락을 치며, 마을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며 동네의 무사태평을 기원했다. 세벌 논매기가 끝난 뒤에도 풍물을 잡히는 등의 전통이 이어져 농사굿의 놀이마당도 가미되어 있다. 명주농악은 1993년 경북농악대회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지역 농악의 면모를 잘 간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점차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자, 영천문화원을 중심으로 명주농악단을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영천명주농악은 당굿에서 유래한 놀이와 가락이 보존·전승되어 농악의 소박함과 경북 가락의 전통성이 함께 이어져 온것이 특징이다. 가락에서 영남농악의 투박하고 빠른 면모가 그대로 확인되며, 길을 갈 때 치는 가락인 질쇠, 빠르게 연주되는 자진모리를 가리키는 탈쇠, 춤을 출 때 사용하는 굿거리장단인 춤쇠 외에도, 똘똘말이처럼 이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용어들을 간직하고 있어 고유의 지역색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한 '丁'자, '土'자, '田'자 등을 만드는 글자 놀이를 비롯해, 논썰기(논갈기), 볍씨뿌리기, 모내기, 모심기, 김매기, 나락베기, 타작, 수차돌리기 등의 과정이 포함된 농사굿이 있어 마을 공동체의 의례적 면모와 농업 활동에서 나오는 농악의 기능이 다양하게 확인된다.

구성 인원에는 제한이 없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복색은 흰바지저고리와 행전, 그리고 검은색 조끼로 구성된다. 모두가 홍.황.청 3색으로 쇠꾼과 장구, 소고꾼은 상모를 쓰고, 그 외 악기잽이는 흰색 고깔을 쓴다. 잡색은 각각 고유의 의상을 입는다.

영천명주농악보존회가 전승하는 명주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질쇠
문굿, 입장굿, 마당굿, 질굿, 인사굿의 순으로 진행한다. 독자적인 겹가락의 쇠를 치면서 진행한다.

2. 글자풀이
치배들이 '丁', '土', '田'자를 만든다. 각 글자는 장정이 흙을 일구어 밭은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3. 살풀이
원형으로 돌면서 살풀이춤을 추다가 상쇠와 종쇠가 다가와 '마치'를 넣으면, 멈춰 서 한 바퀴를 돌면서 "좋고 좋다"고 외친 다음 다시 살풀이장단으로 논다.

4. 부정굿·호호굿
부정굿으로 마당의 부정을 밝고 난 후 호호굿으로 기쁨을 표현한다.

5. 정풍기굿
자진모리장단으로 돌다가 상쇠가 마치를 넣으면 물방아대형을 만든다. 물방아대형에서 상쇠가 마치를 넣으면 물레방아 돌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6. 오방진굿

쇠, 잡색이 중앙에서 원형을 만들고 징, 북, 장구, 법고는 동·서·남·북에 각각 원형을 그리면서 진풀이를 한다.

7. 논썰기

풍물패들이 두 줄로 벌어져서 마주 보고, 상쇠의 마치에 맞춰 서로 엇갈리게 지나가면서 논 써는 흉내를 낸다.

8. 농사굿

상모잽이들이 나와 모의 농사굿을 하는 과정으로, 씨뿌리기, 모심기, 김매기, 나락베기 등을 한다.

9. 북놀이

악기별 개인놀이를 한다. 북놀이는 먼저 잽이들이 큰 원을 만들고, 다시 북을 치면서 원을 조았다 풀었다 하면서 단체놀음을 한다.

10. 똘똘말이

영기, 서낭기, 농기를 가운데 세우고 잽이들이 빠른 가락에 맞춰 원진을 감았다 푼다.

11. 인사

한바탕 뒤풀이 후에 인사를 한다.

12. 길군악

행진가락에 4열로 대형을 맞춰 퇴장한다.

영천 명주농악은 점차 해체되어 가는 현대 농촌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한 자연촌락의 주민들이 유지하던 짙은 향토색을 잘 이어오고 있는 농악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전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통의 중요한 면모인 가락과 놀이의 형태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 꼬댁각시놀이 / 인천토속민요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꼬댁각시놀이'의 시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서 주로 전승하던 놀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이 놀이는 일종의 '주술'에 해당한다. 정초나 추석에 춤과 노래를 함께 부르며 점을 치는데, 이때 점을 치는 주체는 무당이 아닌 일반 여성이다.

꼬댁각시놀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빨랫방망이나 대나무 가지 등에 신이 내리게 하고 그 신에게 묻는 것이며, 두 번째는 특별한 목적 없이 신을 내리게 해서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한 놀이라 특별히 세시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며 수시로 할 수 있었다. 다만 정월대보름과 오월 단오, 팔월 추석 등의 명절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노는 기회가 생겼으므로, 단순히 놀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도 했다.

꼬댁각시놀이는 꼬댁각시를 기리고, 그에 대해 노래하며, 그가 신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믿는 놀이라는 점에서 무가와 내용 구성이나 기능이 유사하다. 신이 내려서 춤을 추는 동작은 만신들의 강신 현상과 유사한 모습이다.

꼬댁각시놀이의 연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장식

마을 사람들이 장단과 함께 춤을 추며 입장한다. 출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와 경연장을 원형으로 돈다.

2. 놀이마당

(1) 청신, 꼬댁각시 혼 부르기

한 사람을 뽑아 반지를 손바닥 사이에 끼워 앉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을 둘러앉아 '꼬댁각시 나오신다' 라는 노래를 해준다. 가운데 있는 여자가 반지를 떨어뜨릴 때까지 반복해서 부른다.

(2) 강신, 꼬댁각시 혼이 내림

꼬댁각시의 혼이 가운데 앉은 사람에게 내리면, 반지를 떨어뜨리고 일어나 춤을 춘다. 이때 반지는 그 사람의 허리춤에 매달아줘야 한다. 주변의 여자들이 궁금한 것을 물으면 가운데 여자가 대답해준다. 꼬댁각시의 혼이 정말 들어왔는지 시험하기 위해 물건을 숨기고 찾는다.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꼬댁각시의 혼에게 아이가 언제 들어서는지, 시집은 언제 가는지 등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것을 묻는다.

(3) 오신, 꼬댁각시 혼과 한바탕 놀기

모두 한바탕 어울려 신명 나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논다. 부르는 노래는 여성들이 주로 부르던 시집살이 노래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다.

3. 신명풀이

풍년을 기원하고 복을 빌며,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어울려 논다.

꼬댁각시놀이의 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세월 지속해온 전통 민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 꼬댁각시를 신으로 기리고, 그가 사람에게 내릴 거라는 믿음은 무당이 연행하는 굿과 그 기능이 비슷하나, 구연자가 평범한 보통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꼬댁각시놀이는 세시놀이와 평상시에 하는 놀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집단으로 행하는 놀이이므로, 여성들은 서로 유대감을 느끼며 한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느꼈을 것이며, 주술 체험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느낌이 더욱 커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 경상남도 / 의령집돌금농악 / 의령문화원 의령집돌금농악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의령집돌금농악에서 '집돌금'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신밟기'를 일컫는다. 의령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아래쪽에 있었지만, 농토가 풍족하고 신반에 큰 장터가 있어 다양한 물자가 오가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다. 특히 1930년대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다 사라진 유랑예인집단 '솟대쟁이패'의 단원이었던 고 송철수 명인의 활동을 젊은 유랑예인집단들이 많이 연행해, 이후 '신반대광대패'를 구성하는 데 큰 일조를 했다. 그러나 고 송철수 명인의 작고 이후 그 명맥이 거의 끊어져, 일부 구전과 기억으로만 전승되던 것을 후세대가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12년 의령문화원농악단과 의령농악단이 시작한 복원·전승의 노력은 2015년 의령집돌금농악보존회 구성으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이들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의령집돌금농악은 솟대쟁이패의 영향으로 마을 두레굿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채상소고와 꽹과리의 부포와 치복, 그리고 잡색들의 탈놀이로 특색을 이룬다.

의령집돌금농악보존회에서 실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및 당산굿
농악대가 입장해서 당산굿으로 굿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한다.

2. 문굿 및 지신밟기
지신밟기의 핵심 과정으로, 문굿으로 시작해 집안 곳곳을 찾아 각 가정의 안녕과 복을 비는 축원을 올린다.

3. 농악
농악으로 판굿을 치면서 한바탕 놀이를 하고, 마무리 후 퇴장한다.





● 울산광역시 / 울산병영서낭치기 / 울산중구문화원

종목 의례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2,000

울산병영서낭치기는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으로, 영조 25년(1749)에 발간된 <학성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병영지역을 네 개의 동네(동·서·남·북)과 중앙풍물패로 구분해, 각 방위에 따라 풍물패들이 오방색 복식을 갖춰 입고, 작은 오방색 서낭기를 앞세워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함께 즐기던 민속놀이다.

놀이를 할 때는 높이 6m의 둑당과 큰 서낭대, 작은 서낭기를 세우고, 풍물을 치면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다 함께 모여 기싸움이나 풍물겨루기(개인놀음) 등으로 판을 벌이고, 작은 기를 불사르면서 판이 마무리된다.

제1과장

- 첫째 마당 '입굿': 각 동네의 풍물패들과 기수, 남신, 여신이 서낭대에 모여 기세배를 하고 각 동네로 이동한다.
- 둘째 마당 '강신': 각 동네의 둑당과 큰 서낭대를 중심으로 모여 지신을 밟고 난 후, 작은 서낭기로 신을 옮기는 연희를 한다. 이것이 신을 내리는 것으로 본다. 이때 기수춤을 춘다.
- 셋째 마당 '합굿': 각 동 풍물패들이 모여 신명 나게 어울리는 합굿을 한다.

제2과장

- 넷째 마당 '백희': 각 동네에서 작은 서낭기를 드리고 나와 기를 휘드르면서 재주를 부려 승부를 겨뤘다는 증언에 따라, 각 동네 풍물패들이 각종 가락과 개인놀이 등으로 다양한 놀이를 펼친다.
- 다섯째 마당 '서낭치기': 동네 사람 모두가 기싸움과 겨루기를 하기 위해 마당에 원형으로 둘러서면, 각 동네 기수들이 기를 들고 나와 기싸움을 펼친다. 이때 기싸움에서 이기는 동네가 파종과 추수가 잘 되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제3과장

- 여섯째 마당 '샘굿': 상쇠의 주도 하에 각 동네의 서낭기와 풍물패들이 샘으로 이동해서 샘굿을 한다.
- 일곱째 마당 '대동놀이(사목살이)': 모든 풍물패, 잡색과 놀이꾼이 마을 네거리에 등걸이를 모아놓고 기와 탈을 태우는 사목살이를 한다. 사목살이를 할 때는 "등걸아 불 살아라" 외치고, 풍물패들와 대동놀이를 한다.

울산병영서낭치기는 농악과 군악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는 그 전형이 전승되지 않아 기록 등을 바탕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이를 민속놀이로 재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복원된 형태가 병영서낭치기의 전형을 담고 있는지를 재고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래 서낭신을 모시는 서낭제 또는 서낭고사와 액을 물리는 소화[燒火] 의식을 더 명확하게 재현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더 드러내야 할 것이다.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9.10.02~10.04,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1. 개괄

2019년은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개최 60회째를 맞이한 해로, 이를 행해온 '60년'은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에서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주기다. '환갑', '주갑', '환력' 등 한 사람의 생애에서도 주목할 만한 뜻을 가지고 기리듯,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역시 이를 기리기 위해 역대 모든 출전 단체에게 문호를 개방해 국가중요문화재도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규모 있는 대회로 열게 되었다.

이는 즉 역대 출전 단체 가운데 한 팀을 뽑는, 이른바 '왕중왕전'의 면모를 선보인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출발한 대회를 전국체전과 연동해 다시 서울에서 열었으며, 서울 출전팀도 참여해 명실 공히 뜻깊은 축제를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개최 기간 찾아올 태풍을 피할 대책이 필요해 서울잠실종합운동장을 활용하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장소를 서울놀이마당으로 급히 바꾸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이 밀려온 탓에 오래 전부터 축제를 준비했던 경기도 팀의 출전을 제약해야 했던 적지 않은 시련을 딛고 일구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1959년 민중의 삶과 생활을 담은 민속예술축제의 첫 회가 열렸다. 이후 제7회 대회까지는 서울에서 열렸는데, 제8회 대회가 부산 공설운동장(현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후 지방 순회로 개최 방식이 변경되면서 대회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중요무형문화제 제도가 구축되었는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문화재로도 지정되면서 대회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1980년대 들어서는 각 지방의 축제와 연계해 대회를 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1981년 제22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국제화를 시도했다. 직할시로 승격된 인천에서 열린 대회에 일본 민족예능국제교류협회와 인도 칼라세트라트루프가 찬조 출연해 민속무용과 민요를 선보인 것이다. 이때부터 민속예술축제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것이 경연에서 축제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어, 1999년부터 '한국민속예술축제'로 새 이름을 붙이고 운영방식과 심사기준 등 축제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전면 개편했다.

1994년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개최한 첫해로 기록된다. 민속예술을 발굴·보존·전승함에 있어 청소년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중고등학생의 민속예술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지금까지 이어진 운영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그간의 궤적을 반추하는 축제로, 제1회부터 제59회까지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단체들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 모였다. 16개 시·도와 이북5도에서 선발된 21개 단체가 참여했고,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9개 학교와 단체가 참여했다.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보고 듣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체험프로그램은 농악·탈춤·놀이·농요 등 총 네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탈춤 종목으로는 고성오광대보존회,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동래야류보존회·함남 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나서 직접 탈을 만들고, 탈춤도 배워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포 통진두레놀이보존회와 강화용두레질소리보존회는 농요 마당을 준비해 용두레질을 체험해보고 벼를 수확하며 부르던 농요도 배울 수 있도록 해 60년 생일을 맞이하는 축제를 성대하게 치렀다.

제60회 대회 경연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21개 팀으로, 울산광역시 '울산달리농악'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 울산달리농악보존회), 평안북도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충청남도 '논산전통두레풍장' (논산시전통두레풍물보존회), 제주도 '가문동 아끈ᄀᆞ지 원담역시' (하귀2리민속보존회), 대전광역시 '부

사칠석놀이’(부사칠석놀이보존회), 경기도 ‘김포통진두레놀이’(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전라북도 ‘순창농요금과들소리’(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 강원도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평안남도 ‘향두계놀이’(향두계놀이보존회),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음’(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대구광역시 ‘날뫼북춤’(날뫼북춤보존회), 황해도 ‘봉산탈춤’(봉산탈춤보존회), 충청북도 ‘목계나루뱃소리’(중원민속보존회), 서울 ‘바위절쌍상여호상놀이’(강동구바위절마을호상놀이보존회), 인천광역시 ‘열두가락의 맥 (脈) 강화용두레질소리’(강화용두레질소리보존회), 부산광역시 ‘동래야류’(동래야류보존회), 경상북도 ‘하회별신굿탈놀이’(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산농악’(지산농악보존회), 전라남도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화순내평리길쌈놀이보존회), 함경북도 ‘애원성’(함경도애원성보존회), 경상남도 ‘고성오광대탈놀이’(고성오광대보존회) 등이다.

2. 참가 종목

● 경상남도 / 고성오광대탈놀이 / 고성오광대보존회

종목 가면극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20,000

‘고성오광대’는 주로 정월대보름에 연행되었으며, 이는 조선 말기부터 활발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결국 광복을 맞이하고 난 직후인 1946년이 되서야 가야극장과 시민극장에서 다시 고성오광대를 볼 수 있었다. 이후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곧 사단법인 고성오광대보존회를 구성했다.

‘오광대’는 탈을 쓴 광대 다섯 명이 등장하는 놀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과,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불렸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오광대는 다섯 과장이 아닌 여섯 과장이나 일곱 과장으로 구성되기도 하기에, 경남 일대의 탈놀이를 모두 ‘오광대’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다섯 명의 광대가 등장해 오광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에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고성오광대 각 과장은 연극성이 매우 뚜렷하다. 1960년대 이전과 재현 당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시간을 거치며 조금씩 그 구성이 변했는데, 현재는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과장 ‘문둥북춤’
천형의 한을 표현하는 전반부와 한의 승화를 표현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조상이 지은 죄로 자손이 문둥이가 되었다는 전반부의 한을 신명으로 승화하며 북과 북채를 쥐고 힘껏 춤을 춘다.

제2과장 ‘오광대놀이’
양반과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말뚝이가 등장해서 양반을 조롱하는 대사를 주고받으며, 양반과 어울려 춤을 춘다. 말뚝이는 봉건사회에서 서민을 대변해 자신들의 설움을 이야기하고, 양반을 비판하는 서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다. 말뚝이의 춤사위와 양반춤이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말뚝이의 춤은 보폭이 크고, 전체적으로 힘이 넘친다. 이에 비해 양반의 춤은 여유롭고, 유유자적하다.

제3과장 ‘비비’
양반을 아흔아홉 명 잡아먹은 상상의 동물 비비가 양반 한 명을 더 잡아먹으면 승천할 수 있다 하며

양반 비비를 노린다. 양반 비비는 자신이 양반이 아니라고 하며 비비의 위협을 피해 가려 애를 쓴다.

제4과장 '승무'

승무과장은 승려의 파계행위를 보여준다. 세속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스님의 이야기를 대사 없이 춤으로만 그려낸다. 선녀가 먼저 등장해 춤을 추고 있으면, 승려가 뒤이어 등장해 선녀를 유혹해 함께 퇴장한다.

제5과장 '제밀주'

처와 첩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이번 축제에서는 '백인 덧배기'라는 장이 새롭게 덧대어졌다. 고성오광대는 지난 50여 년간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전국의 대학생,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윤석 보유자를 필두로 초심자부터 40년 이상 오광대를 전수한 이들이 모두 모여 기본춤을 춘다.

고성오광대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민속놀이로, 전수가 매우 활발해 비교적 많은 사람이 체험해본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전통성과 함께 현재까지도 널리 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고성오광대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고성오광대가 제60회 대회를 맞이해 과장을 새롭게 꾸며 선보인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민속문화가 보존되고 전승되기 어려운 지금,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속문화가 더 널리 전승되고, 원형이 더 소중히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광주광역시 / 광주지산농악 / 지산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국무총리(최우수상)
상금 15,000

'광주지산농악'은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상류 새암 들녘에 있는 마을 '지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악을 재현한 것이며, 걸립굿, 두래굿, 마당밟이 같은 집단노동과 함께 굿으로 사용되면서 그 전통의 맥을 이어왔다. 광주지산농악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굿머리를 장식하는 오채질굿은 2소박과 3소박이 어우러지는 혼합박으로 구성되어 미묘한 맛과 변화를 준다. 이 고장 전통 농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둘째, 가락이 비교적 한가로운 듯한 흐름의 연주로 시작해 흥을 돋우면서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등 가락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긴장과 이완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벙어리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셋째, 상쇠와 쇠꾼, 장구잽이들이 교대로 연주하는 짝드름이 발달했다.

넷째, 흐름새가 다채롭고, 다양한 가락을 구성하며, 쇠가락과 춤사위 발달로 윗놀이보다 아랫놀이에 치중해 장구가락이 매우 발달하는 등 북 놀이와 고깔소고가 잘 발달되어 있고, 개인놀이가 뛰어나다. 다양하며 느린 가락을 부드럽게 변화를 주면서 경쾌한 박자감으로 신명을 살리며 끝을 맺는'기경결해'의 구성을 갖는다.

다섯째, 치배의 복색이 화려하며, 고깔 소고놀이는 다른 지역 농악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구성진 몸짓과 발놀음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특히 지금은 사라져가는 고깔소고가 잘 전승되고 있다.

입장굿
연행 순서: 굿머리 내는가락(일채(난타)) → 일채 → 음매갱(1) → 일채 → 이채 → 음매갱(2) → 일채 → 된삼채 → 음매갱(3) → 일채 → 입장 → 인사굿

첫째마당 - 질굿마당
오채질굿은 2분박과 3분박을 병행하는 혼합 박자로 시계반대방향으로 도는 오채질굿과 시계방향으로 도는 된오채질굿(자진오채질굿)이 있다.
연행 순서: 오채질굿 → 된오채질굿 → 갖은일채굿(풍류굿) → 늦은벙어리삼채 → 벙어리삼채 → 된벙어리삼채 → 된삼채 → 음매갱 → 일채가락

둘째마당 - 오방진마당
오방진[五方陳]의 '오방'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에 진을 치는 것을 형상화해, 덕석몰기로 진을 쌓아 연주하다 가락을 난타로 털어서 앉는다. 늦은 삼채가락으로 풀고 나와 자진허허굿을 치며, 좌·우·진·퇴(좌우치기, 연봉치기), 지심매기, 곡심심기, 두줄치기, 좌우진퇴, 외줄백이를 하고 원진을 하다, 쇠와 장구가 구정놀이를 한 다음 반삼채, 매도지가락으로 맺는다.

셋째마당 - 허허굿마당

넷째마당 - 개인놀이

개인놀이 대형인 'ㄷ'자진으로 서서 치배들의 기량을 한껏 보여주는 마무리 마당이다. 잡색놀이,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열두발상모로 마무리하고, 인사굿을 한 다음 휘몰이로 퇴장을 한다.

이렇게 광주지산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의 특징을 올곧이 전승하면서도, 이 고장 특유의 독특한 가락과 놀이를 발달시킨 호남 지역 최고의 농악이라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 하회별신굿탈놀이 /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종목 가면극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놀이다. 하회마을에서는 두 가지 놀이가 전해 내려오는데, 양반계층이 주로 향유하던 '하회선유불꽃놀이'와 하층에서 향유하던 '하회별신굿탈놀이'가 그것이다. 정월대보름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별신굿을 진행했으며, 서낭굿의 형태로도 탈놀이를 크게 벌이곤 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1980년 중요무형문화제 제69호로 지정되었다. 하회탈은 1964년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었다.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동원되는 탈은 양반탈, 선비탈, 각시탈, 중탈, 할미탈 등 9개와 주지탈 2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고려 중엽에 허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에 재앙이 닥쳤다. 그때 허 도령이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는 탈을 깎아야 한다는 계시를 받게 된다. 허도령은 탈을 깎기 위해 집에 금줄을 두르고, 백일동안 칩거하면서 탈을 만들기 시작한다. 어느 날, 허도령을 사모하던 의성 김씨 처녀가 허 도령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게 된다. 그때 허 도령은 열세 개의 탈을 만들고 마지막 하나의 탈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의성 김씨 처녀가 허 도령의 모습을 몰래 훔쳐본 그때, 허 도령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만다. 처녀는 자괴감에 자살하고 서낭신으로 모셔지게 된다. 허 도령이 마지막으로 깎지 못한 탈이 지금 턱이 없는 '이매탈'이라고 한다.

이번 대회에 선보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상설 공연과 달리 안동 하회마을에 깃든 전설을 탈놀이에 가미해 새롭게 판을 짰다고 한다. 주요 장면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온한 물도리동'이라는 장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시작한다. 이 대목이 바로 본래 하회별신굿탈놀이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회마을의 탄생과 탈놀이의 유래를 다룬 장이다. '재앙·계시' 장은 홍수와 가뭄으로 마을이 재앙을 겪는 동안 마을이 점점 황폐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신의 노여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며, 반성하는 의미로 탈을 깎아 만들고 굿을 하면 평안을 되찾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된다. 뒤이어 '하회탈의 탄생' 장이 나오는데, 허 도령이 금줄을 치고 탈막에 들어가 탈을 깎는 것으로, 하회탈이 탄생한 과정을 보여준다. 뒤로 '강신', '무동마당', '주지마당', '백정마당', '양반·선비마당'이 차례로 구연되는데, '강신'은 탈놀이를 지내기 전 성황당에 올라가 신내림을 받기 위해 기원하는 모습이다. 뒤에 펼쳐지는 '무동마당', '주지마당', '백정마당', '양반·선비마당'은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원래는 '파계승마당'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이번 공연에서는 생략된 것인 듯하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탈의 다채로움, 탈을 쓰고 벌이는 재담, 해학적인 몸짓으로 관객의 눈길을 톡톡히 잡아끄는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축제를 위해 지역에 전해지는 설화와 결부해 새롭게 판을 짠 것은 이 설화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신하게 다가갈 기회가 되었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河回別神굿탈놀이


河回別神굿탈놀이

● 평안남도 / 향두계놀이 / 향두계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한반도 북부 평안도와 황해도에 걸친 청천강 유역은 건답(마른 논)인 데다 돌도 많아 농사를 짓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레 두레계가 발달했는데, 이를 '항두' 또는 '황두'라 불렀다. 이런 향두계에서는 농사와 함께 놀이가 발달했다. 이런 향두계에 소리를 중심으로 몸짓이 곁들어진 놀이 형식의 종합 민속 연희가 바로 향두계놀이다.

향두계놀이는 제1장 '씨앗 고르기', 제2장 '씨뿌리기', 제3장 '모심기', 제4장 '김매기', 제5장 '계놀이', 제6장 '추수와 방아찧기'로 구성된다. 꽹과리, 징, 장구, 북이 풍물 반주를 하,며 난봉가, 수심가, 양산도 등 서도소리의 주요 대목을 부르면서 연행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개 장면으로 출품했다. 먼저 마당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마을 사람들과 소리꾼, 농악대가 입장한다. 이후 도리깨질소리를 하며 보리타작하는 시늉을 한다. 방아질을 하면서 타작소리와 방아타령을 부른다.

뒤로 모찌기소리에 맞춰 모를 찌고, 모심을 준비를 한다. 농부들은 모찌기를 끝내면 논두렁 밟기를 준비한다. 농부들은 두 줄로 나눠 논두렁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면서 땅을 꾹꾹 눌러 밟는다. 농부들은 다시 논 안으로 들어가 논매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때 농부들은 호미를 들고 논을 매며, 아낙들은 새참을 준비한다. 논매기가 끝나면 아낙과 농부들이 모여 함께 새참을 먹는다. 새참을 먹으면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농부 두 사람은 술잔을 채워 논으로 가서 고시레를 세 번 한다. 고시레를 한 다음, 만벌 논매기를 한다. 이때 우장을 입고 삿갓을 쓴 이들이 논으로 들어와 마지막 만벌 논매기를 한다. 이 만벌 논매기가 끝나면 풍년을 기원하며 두레놀이를 한다.

향두계놀이는 6·25 전쟁 당시 월남한 서도소리 명창 김정연과 오복녀의 도움으로 남한에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1966년 대회에 나오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 놀이를 보존하고 현재까지 전승하는 데 분명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2009년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향두계놀이는 이번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하며, 지역 민속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 전라남도 /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 /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 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10,000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는 2016년 제57회 대회에 출전해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 내평리는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화순천이 마을 앞으로 넓게 형성되어 논농사가 발달했으며, 마을 뒤로는 밭농사가 논농사 못지 않게 발달해 지역민에게는 중요한 삶의 현장이었다. 이곳 밭에서 무명을 심고 김을 매어 길쌈을 했다.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는 길쌈을 하면서 부르던 소리를 수집해 엮은 것으로, 노동의 고달픔을 노래로 삭이며 승화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제1장 '입장'

한재 넘어 한각구야 두재 넘어 지충개야
겉잎 같은 울 어머니 속잎 같은 나를 두고
임에 정도 좋지만은 자식정을 띄고 간가
울아버지 제비든가 집만 짓고 가고 없네
울어머니 나비든가 알만 실고 가고 없네
백색 같은 흰나비는 부모님 봉상을 입었는가
소복단장 곱게하고 장다리 밭으로 날아든다.
임아 임아 정든 임아 요네 가슴을 짚어 봐요.
밥을 그려 철골이드냐 옷을 그려서 철골이드냐
붕어같이 살찐 몸이 님을 그려서 철골이 됐네
시들시들 봄배추는 밤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양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좋네 저절씨구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제2장 '씨뿌리기'

보리까시라 까끌한들 시아
버지같이 까끌헐게
호박잎삭 까칠한들
시어머니같이 꺼칠헐게
호박노물 뚝뚝한들
시아재같이 뚝뚝헐게
시금치노물 새파란들
동서같이 새파럴게
고추당초 맴다한들
시누같이 매울쏜가

제3장 '김매기'

시금시금 시어머니 시집가는 삼일만에
매뚱같이 짓은 밭을 나 혼자서 매라하네
매뚱같이 짓은 밭을 나 혼자서 매고나니
금봉채를 잃었다네 금봉채를 찾고보니
새벽달이 뜨고 나네
사래길고 장찬 밭을 나혼자서 다매라 하네

못다맬 밭 다 매고 나니　　금봉채만 잃고 가네
못다맬 밭 다 매고 나니　　골골마다 연기가 나네

제4장 '새참 - 둥당게타령'

둥당게당 둥당게당 당게 둥당게 둥당게당
둥당게당 둥당게당 당게 둥당게 둥당게당
둥당게 타령을 누가냈냐 건방진 큰 애기 네가 냈내

제5장 '명따기'

옹당동당 떠가신 구름 우리 땅에 가신 구름
우리 땅에 가시거든 편지 한 장 전해주소
편지랑께 무슨 편지 동지섯달 서남풍에 맨발
벗고 나 못살아 삼사월 긴긴해에 점심 굶고 나 못살아
실로가세 실로 가세 우리나 동생 실로 가세
마당에 들어서니 우리나 동생 거둥보소
야이년아 썩을년아 너도 간께 그러드냐
나도 온께 그러드라
성님도 종종 신겨주소 나도 종종 신겨주소
담박에다 호박심고 담안에다 박을 심어
호박넝쿨 박넝쿨은 이담 저담을 안아준데
우리나 님은 언제나 와서 요내 가슴을 안아줄까
도자리 병풍 연당 안에 잠을 자는 저 처녀야
나는 너를 볼라고 여기를 왔는 데 너는 고히 잠들었냐
바람 불고 비 오신 날에 님오실 줄을 누가 아리
손을 치자니 남이나 알고 눈을 추자니 알수 있나

아홉 폭 달린 하비단치마 귀만 잡고서 들어오세요
얼씨구나 좋네 저절씨구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제6장 '물레질 및 베짜기'

(받는소리)　물레야 자세야 어리뱅뱅 돌아라 어리렁 스리렁 잘도나 돈다
(메기는소리)　바람 솔솔 부는 날 구름 둥실 뜨는 날
월궁에서 놀던 선녀 옥황님께 죄를 짓고
인간으로 귀양 와서 좌우산천 둘러보니
한도 많고 꿈도 많은 인간세계 여기로다
물레살은 팔형제요 겅구지는 세네답
물레대를 두른 양은 북두칠성 두르는 듯
물레소리는 들려나오는 데 이웃집 도련님 밤이슬 맞는다
장독 위에 복숭아는 봉기 봉기 흔들흔들
물가상의 수양버들 가지가지 흔들흔들

<시집살이노래>

하늘에다가 베틀 놓고　　구름잡어 잉애 걸고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요내 다리 두 다리라.
잉에 대는 삼 형제요　　사침대는 형제로다

대추나무 북에다가 참나무 보두집에
덜거덩 덜거덩 짜느랑께 편지 왔네 편지와
앞문에서 받어가꼬 뒷문에서 펴보니
우리어매 죽었다고 부고 왔네 부고 왔어
버선 벗어 품에 품고 비녀빼서 땅에 꽂고
머리 풀어 산발하고 신발 벗어 손에 들고
한 모퉁이 돌아간께 까마귀소리 처량하네
두 모퉁이 돌아간께 널짱 소리 가슴치네
세 모퉁이 돌아강께 상여소리 왠 소리요
사립문에 들어서니 그저께나 오시든가
어저께나 오시든가 오나가나 오나가나
울어봐도 소용없고 땅을 쳐도 소용없네
시집살이 석삼년에 친정문전 못가보고
요내 일만 했더니 우리어매 죽었다네
우리어매 죽었다네
베 잘 짜네 베 잘 짜네 우리 마누라 베 잘 짜네
놓고 짜소 들고 짜소 멀구나 한송이 먹고 짜소
지랄허네 지랄허네 남들으면 어쩔라고
남 들으면 어쩐단가 남도 그렇게 산다네

다 되았네 다 되아 베 한필이 다 되아
다 되았네 다 되아 베 한필이 다 되아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는 부녀자들의 시집살이노래와 길쌈노래를 모아 엮은 것이다. 서사민요와 느린 속도의 흥글소리들의 전승이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 이 노래의 가치는 매우 크다. 더구나 그동안 문화재 종목이나 민속예술축제의 내용이 논농사소리 중심으로 남성들의 농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민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 동래야류 / 동래야류보존회

종목 가면극
수상 -
상금 -

'동래야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일대에 전승되는 탈놀음이다. 196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으며, 1965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동래야류는 1870년대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의 야류[野遊] 조직의 존재와 더불어 그 후 1923년의 연행 기록, 그리고 연희자들의 기억으로 미루어 동래에는 지역민들이 탈춤을 정기적으로 연행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 후 1920년대 이후에는 정월대보름의 줄다리기 행사가 성행하면서탈춤과 줄다리기가 결합한 형태로 연행되었다. 일제 말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 다시 복원되었다.

동래야류는 농경의 풍요를 비는 제의 형식으로 연행되었는데, 이러한 제의적 특성상 연행 시기는 주로 정월대보름 전후였다. 이번 대회에서 동래야류는 여섯 개 장면으로 공연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 장면들은 크게 세 개의 요소, 즉 길놀이, 탈놀이, 뒷놀이로 나눠 살필 수 있다.

동래야류의 첫 장면은 군무마당이다. 악사의 반주에 맞춰 전 출연진이 등장한다. 주요 등장인물을 차례로 소개하는 장면으로, 이 군무마당이 바로 길놀이에 해당한다. 길놀이를 약식으로 연행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탈놀이로, 문둥이과장, 양반과장, 영노과장, 영감·할미과장 등 총 네 개의 과장으로 구성된다.

1. 문둥이과장

큰 문둥이와 작은 문둥이가 무언극으로 날뛰다가 뒹굴면서 춤을 춘다. 그다음은 '양반과장'으로, 오양반과 말뚝이가 출연한다. 말뚝이는 양반을 희롱하고 풍자한다.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무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 영노과장

비비양반이 영노를 만나 펼치는 과장이다. 비비양반은 양반 100명을 잡아먹으면 등천할 수 있는 영노를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자신이 양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이 부분은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낸다.

3. 영감·할미과장

에서는 처첩 간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다. 영감과 할미가 극적으로 만나 상봉하지만, 영감은 이미 작은첩을 얻었다며 제대각시를 데려와 갈등이 벌어진다.

4. 뒷놀이

뒷놀이는 상여놀이로 진행된다. 영감·할미과장에서 할미가 쓰러지게 되는데, 이때 들어온 할미의 상여가 놀이판을 돌다 퇴장하며 마무리한다. 이것은 동래야류의 뒷놀이 장면을 담은 것이다. 연희자와 관객이 어울려 한데 같이 춤을 추며 놀이를 끝맺는다.

이처럼 동래야류의 탈놀이는 주로 부도덕한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른 지역의 탈놀이와 달리, 동래야류의 탈은 주요한 특징이 있다. 턱 부분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덕분

에 탈들끼리 대화를 할 때 더욱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굿거리장단에 맞춰 추는 덧배기춤을 추는 것도 큰 특징이라 하겠다.

동래야류는 시대상과 함께한 소중한 민속이다. 일제강점기에 그 명맥을 잇는 것이 어려워졌다가 다시 복원되었는데, 이는 동래야류가 우리의 근현대사와 함께 숨쉬는 민속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런 민속을 보유하고 계승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이번 대회에 출품해 자리를 빛내준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 황해도 / 봉산탈춤 / 봉산탈춤보존회

종목 가면극
수상 -
상금 -

봉산탈춤은 황해도에서 단오의 명절놀이로 전승되어왔다. 황해도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오일장이 설 때 탈춤놀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전통민속에 대한 탄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광복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과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 민속행사를 제지한 것도 봉산탈춤이 명맥을 유지하는 데 난항을 겪은 주요한 이유다.

봉산탈춤이 복원된 것은 6·25 전쟁 이후 월남한 노장 역의 김진옥과 놀량창 사자마부 역의 민천식에 의해서다. 이들의 노력으로 1967년, 황해도 봉산탈춤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봉산탈춤은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팔목공춤', 제3과장 '사당춤', 제4과장 '노장춤', 제5과장 '사자춤', 제6과장은 양반춤, 제7과장 '미얄춤' 등 일곱 과장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 중 제2과장, 제4과장, 제5과장이 연행되었다.

제2과장 '팔목중춤'
등장인물을 차례로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역동적이고 활달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장단으로, 여덟 명의 목중이 등장해 타령곡을 부른 뒤, 퇴장하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목중들이 모두 제각기 춤과 대사를 하고 나서 다 함께 장단에 맞춰 뭇동춤을 춘다. 이번 봉산탈춤 공연에서는 다섯째, 여덟째 목중이 대표로 등장했다.

제4과장 '노장춤'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제2경 '신장수춤'을 생략하고, 제1경 '노장춤'과 제3경 '취발이춤'을 선보였다. 제1경 '노장춤'에서는 생불이라고 칭송을 받던 노장이 소무에게 유혹을 당해 파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3경 '취발이춤'은 취발이가 노장과 대결하여, 소무와의 사랑을 쟁취한다. 그 뒤 소무와의 아이를 얻고 나서 아이를 기르고 신세한탄을 하는 내용이다.

제5과장 '사자춤'
파계승들을 벌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사자를 보내고, 그 사자가 목중을 잡아먹으려 한다. 목중이 벌벌 떨며 사자에게 회개한다고 하자, 사자는 목중을 용서해준다. 그러자 목중이 타령곡과 굿거리에 맞춰 함께 춤을 춘다. 원래 봉산탈춤에서는 사자가 한 마리가 등장하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더욱 흥을 더하기 위해 쌍사자가 출연했다.

봉산탈춤은 볼거리가 다채롭고, 연극적인 면모가 매우 뛰어난 민속놀이다. 특히 이번 제60회 대회에는 볼거리가 가장 많은 과장을 중심으로 무대를 구성했다. 또한 더 극적인 장면 연출을 위해 사자 한 마리를 더 추가하는 등, 평소보다 공연성과 대중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자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북 지역의 봉산탈춤을 복원해서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대단한 일이다. 활발한 공연 활동과 전승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함경남도 / 북청사자놀음 /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종목 가면극
수상 -
상금 -

함경도에는 여러 사자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청의 사자놀이가 가장 유명하다. '북청사자놀음'은 특히 함경남도 북청군 전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데, 마을의 평안을 빌고 한 해 농사가 풍요롭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놀이를 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도에서 월남한 이들에 의해 남한에 전승되고 있다. 전승되는 과정에서 양식화를 위한 변형이 있었기에, 현재는 원형을 지니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함경남도 북청군 마을에서 전해지는 세시풍속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청사자놀음은 아래와 같이 총 8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과장 '마당돌이'

길잡이가 막대를 휘두르며 장내를 정리하고, 꼭쇠와 양반이 등장해 북청사자놀음을 소개하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제2과장 '애원성춤'

함경남도에서는 원래 없던 장면이라 한다. 함경도에 전해오는 민요 애원성을 느린 장단에 맞춤 춤사위를 추며 부른다.

제3과장 '무용'

사당춤과 거사춤, 무동춤이 차례로 이어진다. 어린아이들이 무동을 타고 판을 오간다.

제4과장 '꼽추'

꼽새춤이라고 불리는 우스꽝스러운 춤사위를 춘다. 해학성이 강한 과장이라 하겠다.

제5과장 '검무'

두 사람이 대치해서 서로 칼춤을 춘다. 원래 이것은 없던 장면이나, 북청 지방의 고유한 춤을 삽입해 볼거리를 다채롭게 만들었다.

제6과장 '넋두리춤'

우아하게 팔다리를 살짝살짝 흔들면서 추는 것이 특징인 춤이다. 이는 북청 지역 여성들이 냇가에서 노래하며 춤추던 모습을 따서 구성한 춤이다.

제7과장 '사자놀이마당'

북청사자놀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처음에는 사자가 몸을 풀면서 간단하게 춤을 추고, 중간에는 사자가 몸을 엎드리고, 기고, 뛰고, 서로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교를 화려하게 선보인다. 볼거리가 풍부한 장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사자가 쓰러지고, 이 사자를 소생시킨다.

제8과장 '공동체 화합마당'

모든 춤을 마치고 마을을 돌며 뒤풀이를 진행하는 것이다. 가가호호를 돌며 사자를 놀게 하고 돈을 받던 장면을 재구성해 무대에 올렸다.

예전에는 사자를 통해 마을의 악귀를 내쫓고 마을이 무사하기를 기원하고자 정월대보름에 이 놀이를 행했을 것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돕고, 신명을 끌어내는 놀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놀이는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북한에서는 아예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민속을 남한에서 원형에 가깝게 전승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의가 크다.





● 울산광역시 / 울산달리농악 /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 울산달리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
상금 -

'울산달리농악'은 1960년대 초기까지 전형적인 농경지였던 울산 달리마을에서 성행했던 노작(두레)농악이다. 각종 문헌자료에 의하면, 조선 중기부터 1960년대까지 이어온 매구놀이는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서낭당 제실의 '골맥이 할매'를 모시고 동제를 지낸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960년대 울산의 공업도시 지정과 더불어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농촌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민속놀이(농악) 활동이 위축되었고, 지역 축제(공업축제, 처용문화제) 및 울산문화원을 필두로 한 문화예술단체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2016년 농악에 관심이 깊은 울산 지역 풍물인들이 모여 울산농악연구회를 결성하는 것부터 달리농악 보존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발굴과 복원 작업을 통해 2016년 울산달리농악보존회를 발족, 2017년 처음으로 창단공연을 펼쳤고, 더욱 확실한 고증과 복원을 위해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달리농악을 알리기도 했다.

제1과장 '서낭당굿'
공연마당 한쪽 귀퉁이에서 치배들을 모아 다드래기로 굿의 시작을 알린다. 매구를 치기 전 먼저 마을 신주인 서낭당에 고하는 과장으로 "누르세 누르세 당신지신 누르세, 풍년에도 반지게 흉년에도 반지게, 내리소 내리소 서낭서낭 내리소"를 외치는 제의식.

제2과장 '질쇠'
서낭당굿을 마치고 큰 새미(우물)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장.

제3과장 '새미굿'
우물가를 검구새끼(새끼줄)을 치며 액운을 막는 과장. 원진 2개를 형성해 반시계방향, 시계방향, 그리고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크게 돌면서 큰 새미굿을 한 후 작은 새미굿으로 마무리한다.

제4과장 '마당굿'
나다리놀이. 일종의 성년식으로 각종 재주를 부리며 낯을 알린다. 자즌자즌 덧배기 장단에 다양한 진풀이와 돌매(상모)돌리기, 소매뛰기(자반뒤집기), 엎어빼기 등 화려한 몸동작을 선보인다.

제5과장 '등걸이굿'
매귀악. 벽사진경의 의미. "등광걸아 괘보살"을 3번 외치며 사악한 기운을 없앤다.

제6과장 '두레굿'
농청놀이. 논매기 작업을 형상화한다. 4열 횡대로 정렬해 밀고 당기며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인다.

제7과장 '오방[五方]굿'
오호지신굿. 오방의 지신을 누르는 과장으로 다섯 방향에 태극진을 감고, "얼화사 지신요 오호지신 눌리자, 얼화사 지신요 굴대장군 눌리자, 얼화사 지신요 물레장군 눌리자"를 외치면서 풍년을 기원한다.

제8과장 '덧배기'

연풍연(장원예). 풍년에 감사하고 서로 축하하며 한바탕 멋들어지게 춤추고 놀면서 고된 농경의 노고를 달랜다.

제9과장 '호허굿'

나락베까리제 또는 나락제. 디딜방아로 나락베까리를 정미하듯 자즌발과 큰 굴림으로 마당을 밟는다.

제10과장 '개인놀이'

농사풀이로 농사짓기의 전 과정을 압축, 형상화한다. 북춤과 들벅구놀이, 12발 상모로 신명놀이판을 벌인다.

제11과장 '개인놀이'

대동놀이. 치배와 구경꾼이 함께 노는 마당.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들어 축제의 판을 즐긴다.

제12과장 '매귀[煤鬼]굿'

퇴장. 모든 판굿을 마무리 짓고 마당에서 퇴장해 액운을 태워 날려 보낸다.





●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 날뫼북춤보존회

종목 무용
수상 -
상금 -

날뫼북춤은 1983년 제2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1992년 제33회 문화부장관상, 1996년 제37회 노력상, 2016년 제57회 동상, 2018년 제59회 장려상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다. 1984년 7월 25일에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지정되었다.

서구 비산동 일대에서 행해지던 날뫼북춤은 비산농악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두드러지게 발달한 북춤이다. 비산동의 옛 이름이 '날뫼'라 날뫼북춤이라 부른다.

이 지역에 있는 날뫼의 원고개는 달성과 달내(금호강) 사이에 퍼진 넓은 들을 가로지르는 나들이 길로, 즉 대구의 관도였다. 옛날 고을의 원이 부임해 올 때 날뫼의 원고개에서 행차를 쉬어 갔는데, 이러한 부임 행차 때마다 백성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맞이했다고 한다. 날뫼북춤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 백성들의 추앙을 받던 이 고을의 한 원님이 정사를 돌보다가 순직했다. 그 후 사람들은 원님의 외로운 혼을 달래주기 위해 춘추의 제향 때마다 북을 울리면서 춤을 추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날뫼북춤으로 이어졌다 한다.

날뫼북춤은 열두 마당으로 구성되며, 길굿, 길군악, 인사굿, 정적궁이, 반직굿, 엎어빼기, 다드래기, 모듬굿, 살풀이굿, 강강술래, 허허굿, 오방진, 덧배기굿(뒷마당풀이) 순으로 연행한다. 악사는 쇠, 징, 장구, 띵 각, 태평소로 구성된며, 북춤은 독무와 군무로 나뉜다.

날뫼북춤의 구성은 비산농악과 유사해, 모의 군사굿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쇠가락은 마당마다 변화가 다양하며, 대표적인 춤의 기조는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가락 춤사위로 되어있다. 일사불란한 단체 무악을 이루고 있어 힘이 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협동심과 단결력을 느끼게 한다.

날뫼북춤의 춤사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정적궁

상쇠가 치는 단마치에 대원들이 자신의 보폭으로 쇠가락에 맞춰 허리춤, 어깨춤을 추면서 원형으로 돌다가, 상쇠가 2채, 7채가락으로 정적궁을 치면 전원이 허리춤과 어깨춤으로 돌면서 넘어가는 것이다. '자반득이(반짓굿)'는 상쇠의 다양한 쇠가락에 맞춰 군무의 묘를 살리면서 덩실거리는 덧배기춤으로,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2채, 3채, 4채, 8채, 12채 순으로 단체 무악을 이루며, 마지막에는 덧배기가락으로 전원이 돌면서 어깨춤과 허리춤을 흥겹게 춘다.

2. 엎어빼기

상쇠가 2채로 시작해 4채로 넘어가고, 설북이 2채와 3채를 치면 전 단원이 동시에 한 바퀴 돌면서 세 번, 네 번 엎어빼고 돌아가면서 춤을 춘다. '다드래기'는음 3채로 시작해 단모리 7채가락으로 넘어가며, 이때 전 단원은 몸을 뒤집어 엎어빼고 빠른 사위로 돌면서 춤을 추는 것이다.

3. 허허굿

설북이 2채에서 4채로 넘어가면서 갈지자 뜀으로 이끌어가면 이에 따라 뛰놀다가 호호딱딱하는 허허굿을 하는 것이고, '모듬굿'은 설북이 단마치로 1채, 2채, 3채를 치면서 원을 그리며 모였다 흩어지는 형태를 3번 거듭하고 나서, 설북의 장단에 맞춰 4채, 8채, 12채로 친 다음 대북을 높이 뒤집으면서

춤을 추는 것이다.

4. 살풀이

한해 농사 과정을 상징하는 춤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흥겨운 장단과 우렁찬 북소리에 맞춰 전원이 어깨춤을 추면서 돌아가는 것이고, '덧배기'는 덧배기 들놀이가락으로 대북이 3채, 6채를 몰아치고 흥겨운 굿거리장단으로 한데 모여 춤을 추는 것이다.

날뫼북춤은 대구광역시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자주 출전해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다. 힘있는 역동적인 동작으로 전국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많은 전승자를 키워낸 종목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 가문동 아끈ᄀᆞ지 원담역시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
상금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는 자연마을 5개동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그중 가문동은 1776년 '자가돈'이라 불린 사람과 '문충순'이라 불린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고 알려진다. 자가돈의 '가'와 문충순의 '문'자를 따서 마을에 가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때때로 '가무코지'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네 개의 'ᄀᆞ지(곶)'가 바다에 돌출해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는 데서 유래했다.

'가문동 아끈ᄀᆞ지 원담역시'는 가문동 작은 곶에 돌담으로 쌓은 가두리를 축조하는 일을 말하며, 여기서 '원담'은 제주도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안가에 돌을 쌓아 만든 담을 일컫는다. 달리 '갯담'으로 부르기도 한다. 원담은 대부분 마을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돌담을 쌓고 보수하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원담을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담을 축조·보수하는 과정은 두레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귀2리에 전승되는 가문동 아큰ᄀᆞ지 원담역시는 마을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생업공간으로 삼아 원담을 쌓고 물고기 잡는 과정을 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첫째 마당 '멜 컬름'
단원들이 입장하는 마당으로 마을 촌장이 시작을 알리면 기수를 필두로 악사 18명과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입장한다. '밧가는소리'와 더불어 농사짓는 모습을 재현하고, 컬름을 뿌리면서 밭을 밟으며 검질(김)매는 모습을 표현했다.

둘째 마당 '원담 역시'
동네 사람들이 아끈ᄀᆞ시에 원담을 축조한다. 섬처럼 암반이 솟아있는 장소를 찾아 돌담을 쌓아나간다. 구석에 쌓아둔 돌을 지게로 날라다 원담을 쌓는데, 이때 목도꾼을 중심으로 소리를 메기고 받는다.

셋째 마당 '그물ᄀᆞ사'
온 마을 사람들이 가문동 포구에 모여 고사를 지낸다. 선출된 세 명의 헌관이 바다에서 익사한 영혼과 해신에게 유교식 제법으로 제를 지낸다. 해신에게 돼지머리, 수수떡, 수수밥, 과일, 술 등 제물을 올려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고, 다시 제사상을 차려 익사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치른다. 그 뒤 바다에 제물을 조금씩 던져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한다.

넷째 마당은 '멜 들었저'
밀물에 몰려든 고기떼가 썰물 때가 되면 원담 때문에 다시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 원담으로 들어가 고기를 주워 담는다. 서로 고기를 더 잡기 위해 다투거나 고기를 꿰엄지에 꽂고 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연출한다.

가문동 아끈ᄀᆞ지 원담 역시는 제주도 도민들이 살았던 방식을 잘 보여주는 민속놀이다. 생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육지의 두레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놀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훌륭한 놀이로 구성해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구연한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 강원도 /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
상금 -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는 강원도 강릉 사천면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민속이다. 강릉 시내에서 북쪽에 위치한 해안 농촌마을인 사천면은 강릉 내에서도 좀상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사천면에서는 한 해 동안 우환 없이 풍농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음력 2월 초엿새 좀상날이 되면 다리밟기와 횃불놀이를 즐겼다. 좀상은 좀성 또는 좀생이라고 부르는 묘성으로, 음력 2월 6일이 되면 이 별의 위치를 보고 그해의 풍흉을 판단했다. 좀생이별이 초생달과 가까우면 흉년이 들고, 멀리 떨어져있으면 길조라고 판단했다. 초생달은 어머니가 이고 가는 밥 광주리고, 좀생이별은 아이들로 묘사하는데, 별과 달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이들이 배가 고파 빨리 따라가는 것으로 해석해 흉년으로 보고, 풍년이라면 여유가 있어 멀리 거리를 두고 가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좀상날에 열리는 것이 바로 답교놀이다. 풍년이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행하는 놀이로, 이번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여섯 마당으로 연행되었다. 으며, 솔문 세우기, 다리굿, 쇠절금, 돌싸움, 횃불놀이(횃불싸움), 다리밟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마당 '솔문 세우기'
양쪽 마을 주민들이 다리 입구에 소나무 가지를 엮어 5m 높이로 솔문을 세운다. 마을 주민들은 영상홍가(산유가)를 부르면서 새를 쫓는다.

제2마당 '다리굿'
농악대 상쇠가 서낭당에 가서 상을 차리고 서낭신을 모신 뒤 마을 다리로 이동한다. 입구에서 상쇠가 다리굿의 시작을 크게 외치면 농악대와 횃불을 든 주민들이 모두 함께 노래하며 다리밟기를 진행하는데, 이때 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인다.

제3마당 '쇠절금'
농악대 상쇠들이 채싸움을 벌인다. 강릉농악 특유의 12채가락을 선보이며, 상쇠들의 기량을 맘껏 뽐낸다. 쇠절금 승부에서 밀리는 마을이 돌팔매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쇠절금의 뒤를 잇는 '돌싸움'이다.

제4마당 '돌싸움'
편을 갈라 작은 크기의 돌을 던지며 모의 승부를 치른다. 이때도 결판이 나지 않으면 횃불놀이를 하기 시작한다.

제5마당 '횃불놀이'
횃불을 들고 상대에게 달려가서, 맞닥뜨린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 싸움에서 이긴 마을은 풍년이 들고, 질병이 창궐하지 않으며, 진 마을은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제6마당 '다리밟기'
횃불놀이가 끝나면 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다리를 밟는다. 이긴 마을은 진 마을에게 화해를 청하고, 진 마을은 수긍하며 두 마을이 화합된다. '술-령-수'라고 외치면서 풍농을 기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세시절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에서 별을 보면서 그해에 풍년이 들 것인지, 흉년이 들 것인지를 점쳐보는 것 역시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세시풍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경사회의 발전과 함께 오래된 세월 전승되어온 민속을 현재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경기도 / 김포통진두레놀이 /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
상금 -

'통진두레놀이'는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지역에서 행해온 민속놀이다. 이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접해 농업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농경 문화의 근원지로 꼽히며, 우리나라 최초의 벼 재배지이기도 하다. 특히 김포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통진면 가현리는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로 꼽힌다.

이러한 까닭에 가현리에서는 두레패의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가현리 곳곳에서 두레패의 활동이 활발했으나, 농업이 점차 기계화되고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1960년대 후반 이후 자취를 감췄고, 1996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제60회 대회에서 연행된 김포 통진두레놀이의 구성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기·오방기·두레기·농산기·마을기 등 깃발을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입장해 인사굿을 한다. 풍물과 함께 농군, 새참꾼, 어린이, 각설이 등이 구성원이며, 이 구성원들은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입장하는 동안 농군들은 마당에 논 형태의 무대를 만든다.

그다음으로 '논갈이 및 써래질'을 하는데, 논으로 흘러내린 흙을 올리는 가래질과 소에 멍에를 얹어 쟁기질을 한다. 논바닥을 고르는 써래질, 물을 퍼 올리는 용두레질을 연행하기 시작한다. 가운데 샌님이 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지시한다.

'볍씨뿌리기'에서는 써래질을 마친 못자리에 재를 뿌리고, 밀대질을 한 뒤에 볍씨를 뿌리며, 소고놀이로 볍씨 뿌리는 장면을 흉내 내며 연행한다. 볍씨를 뿌리는 와중에는 고사덕담을 한다. 악사들이 풍물악기로 흥겹고 빠른 삼동지가락을 연주한다.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못자리의 입종이 잘 되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고사가 끝나면, '모찌기'를 하는 데 농군들이 소를 끌고 나와 모찌기와 논갈이를 하는 것이다. 선창자가 "여러분들 농부님들 모들이나 쪄보세" 하고 소리를 메기면, 후창자들이 "쪘네 쪘네 나도 한 춤을 쪘네"하고 받는다. 그다음 농군들이 마름모 간격으로 '모내기'를 한다. 이때 못줄은 사용하지 않는다.

모내기가 끝나면 아낙들이 광주리를 이고 와 논 바깥에 새참을 차린다. 간단한 먹거리와 막걸리, 농악놀이로 노동의 피로를 씻는 사이 두레질하는 이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진다. 한편 종가래꾼이 남의 논물을 자신의 논에 대려고 논두렁을 끊다 들켜서 싸움이 벌어지는 과정도 연행한다. 이 과정을 '물꼬싸움'이라 하는데, 종가래꾼의 싸움은 마을 간의 다툼으로 번지게 된다. 농기를 두고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고, 결국 한 마을이 기를 뺏기면서 다툼이 종결된다. 기를 뺏긴 마을은 억울해하지만 결국 화합하며, 두 마을이 어우러져 '김매기'를 한다. 김포에서는 김매기를 세 번씩 했는데, 이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도 방아소리, ·상사디소리, 몸돌소리 순서로 잘 구연이 되었다. 김매기가 끝나면 '벼베기'를 한다. 농군들이 낫을 들고 논에 들어가 벼를 베고, 농부들은 벼를 탈곡하기 쉽게 모아서 나른다. 풍년을 기뻐하는 풍물 소리 울려퍼진다. 벼베기가 끝나면 '탈곡하기'가 이어진다. 태질로 벼를 털고, 떨어진 낱알의 수염은 도리깨질로 다듬는다. 마지막으로 탈곡한 곡식은 노적가리로 쌓고, 섬을 쌓는다. 뒤로 농악 장단을 치며 판굿을 하고 마무리한다.

김포통진두레놀이는 노동과 오락이 잘 어우러진 현장을 선보였다. 오락적인 요소로 힘든 농사의 고단함을 덜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그것을 풍년 기원 제의와 연계한다는 점이 두레놀이가 가진 큰

가치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통진두레놀이가 맥이 끊기지 않고 현재까지 보존되어 전승이 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 충청남도 / 논산두레소리 / 논산시전통두레풍물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
상금 -

'논산두레소리'는 논산 지역에 전해지는 민속이다. 금강에서 지류로 흘러나온 논산천이 흐르는 논산시 서북부는 널찍한 평야 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농사를 짓기에 매우 적합하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두레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곳의 두레는 화려한 판굿은 아니지만, 일꾼들이 즐기던 소박한 일노래와 풍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

논산두레소리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진행한다. 모심는소리와 두벌논매는소리를 중심으로 전반부가 진행되고, 후반부에는 논매는 작업을 마치고 모든 이가 정자나무 아래로 이동하는 행차 장면과 여름 두레를 끝내는 의식이자 놀이인 풍장마당을 연다. 두레먹이를 한 후에는 농기를 한가운데 세워 놓고 간단히 예를 갖춘다.

논산두레소리에 대해 구연한 민요 사설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못방구치는소리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월출 동녘에 달이솟아 우리님 오는길을 저 달이 밝혀주네
에~~헤~~야 아하 어~~허 허 허~~아 아루상, 어~~허~어 디~~여~~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에~~헤~~야 아하 어~~허 허 허~~아 아루상, 어~~허~어 디~~여~~
빨래를 갈려면 물가로 가지 저건너 솔밭에는 무엇하러 가느냐
에~~헤~~야 아하 어~~허 허 허~~아 아루상, 어~~허~어 디~~여~~
시집살이 못하며는 친정살이를 할망정 술 담배 안하고서는 나는 못살겠네
에~~헤~~야 아하 어~~허 허 허~~아 아루상, 어~~허~어 디~~여~~

2. 논매는소리

어허 두리메차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풍경은 꽃이펴서 봄나비 모이는 데 우리네 인생은 논 마당이로 가는구나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여보시요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이 농사를 지어다가 나라에는 국곡을 바치고 부모님께 효도하세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서경은 해가져서 저물어 가는디 우리님은 오지않고 해만 이다지 떨어지네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바람아 광풍아 부지를 말어라 저건너 낙엽이 다 떨어지네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이논배미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아~~하 아헤~~에 에헤~~아~~하

잦은소리: 얼카 산이냐, 얼카뎅이냐

논산두레풍장 참가자 대부분은 30년 이상 풍물을 해온 사람들이다. 그만큼 유서가 깊은 민속이라 할

수 있다. 논산두레소리는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논산두레소리가 얼마나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인다. 노동의 현장과 멀어지지 않고, 선조들의 삶 속에서 운영되던 두레의 모습을 논산두레풍장이 잘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민속을 놀이로 꾸며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나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민속을 변화하는 생활상에 맞춰 전승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충청북도 / 목계나루 뱃소리 / 중원민속보존회

종목 민속놀이
수상 -
상금 -

목계나루는 조선 후기에 가장 번성한 항구였다.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세곡을 운송하는 작업이 가장 빈번했고, 각종 물건 수송과 판매에 더불어 정보 교류도 활발히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건너온 생필품이 바로 목계나루에 몰려들었다.

그에 따라 사람들도 자연히 목계나루에 몰려들었는데, 주막이 성행하고, 난전이 열렸으며, 운반을 위해 말과 우마차를 두는 마방집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이 서는 날이면 장꾼과 놀이패들로 시장은 북적거렸다고 한다. 목계나루가 한창 번성할 때는 뱃일을 하는 인부만 해도 5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보아 그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 큰 홍수가 나고, 목계교라고 부르는 다리가 생기면서 나루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목계나루는 쇠퇴해갔다. 개발을 위해 모래를 퍼내고 축대를 쌓으면서 강변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목계나루 뱃소리가 이번 대회에서 연행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놀이마당을 행한다. 깃발과 소달구지를 앞세워 사람들이 놀이판에 입장한다. '최돌'이란 사람을 그리워하며 만든 제머리마빡이라는 인형도 함께 등장한다.

그다음 '노젓는소리'를 부른다. 이 소리는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고단함을 잊기 위해 부르던 소리다. 굿거리장단에 메나리조로 부른다. 이어 '배끄는소리'를 부르는 데 이 소리는 배를 끄는 끌패들이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목계나루에 무사히 도착해 돛과 닻을 내리는 시늉을 하며 뱃소리를 부른다. 이때는 빠른 굿거리장단으로 진행한다. 목계나루에 도착했기 때문에 짐을 내리고 싣고, 배의 안전과 뱃사람의 무사를 기원하는 뱃고사를 지낸 다음, 뱃사공과 기생이 이별하면서 애절하게 부르는 이별가를 연행한다. 느린 굿거리장단에 메나리조로 소리를 한다.

이 모든 장면을 마치고 풍물 장단에 맞춰 신명 나게 뒤풀이를 하다가 퇴장한다.

목계나루는 예로부터 많은 배가 드나들었던 곳이다. 그 때문인지 노젓는소리, 배끄는소리, 뱃소리 등 배와 관련한 민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이 목계나루의 생활상을 짐작해볼 수 있는 민요가 뱃사공과 기생이 이별하면서 부르는 이별가다. 남창과 여창이 메나리조가락으로 함께 부르는 이 이별가는 당대 생활상을 유추해볼 수 있어 의미가 각별하다.

지금은 희미해진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맞이해 민속놀이로 연행함은 이러한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서울특별시 / 바위절 쌍상여 호상놀이 /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종목 민속놀이
수상 -
상금 -

'바위절 쌍상여 호상놀이'는 가정 형편이 좋고 복이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여를 내보내며 했던 호상놀이다. 일반적으로는 십여 명이 상여를 메지만, 호상놀이에서는 상여 자체도 크고, 앞상여꾼만 36명이 등장한다고 한다. 그만큼 보통 상여를 메는 것보다 행렬이 크고 화려하다.

호상놀이는 출상 전날, 빈 상여를 메고 선소리꾼과 상여꾼이 함께 밤새도록 만가를 부르며 발을 맞추는 놀이라고 한다. 암사동 문씨 집안에서 부부가 잇달아 사망해 부부 상여(쌍상여)로 출상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놀이는 서울 강동지역에서 전해지는 민속놀이로, 1960년대 이전까지 전승되다 그 맥이 끊겼었다. 이후 1990년에 마을 유지들의 각고의 노력과 서울특별시와 강동구청의 지원으로 마침내 복원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바위절 쌍상여 호상놀이가 이번 대회에서 연행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혼
고인의 혼을 다시 부르는 의식이다. 지붕 위로 올라가 고인의 이름을 부른다. 이때 고인이 평소에 입던 웃옷을 들고 북쪽을 향해 흔든다.

2. 조장놀이
출상 전날 빈 상여를 메고 노는 놀이다. 상여꾼들은 출상에 앞서 만가를 부르며 발을 맞춘다. 상여를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상여가 대문 앞에 도착하면 나와 세 번 절하고 노잣돈과 술, 음식을 챙겨준다.

3. 발인제
행상 절차에 앞서 상주와 친척들이 준비를 마치고 제를 올린다.

4. 출상
발인제가 끝나고, 상여꾼이 늘어서면 선소리꾼이 요령잡기 소리를 부른다. 이때 농악의 악사가 향토가를 부르며 선두를 이끈다.

5. 상여
상여꾼들이 소리를 주고받으며 나선다. 악사와 명정, 만정을 상여 앞에 세우고, 상여 뒤로는 상주와 복재기, 조객 순으로 따른다.

6. 외나무다리 건너기
상여꾼들이 외나무다리를 건너기 위해 대열을 변경한다. 중심을 잡으며, 4열을 2열로 바꾸고 다리를 건넌다.

7. 논두렁 건너기
상여꾼들은 좁은 논두렁을 만나 다시 대열을 변경한다. 2열은 낮은 자세를 취하고, 나머지 2열은 두

손을 높이 들어 상여 전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8. 징검다리 건너기

상여꾼들이 징검다리를 만나고,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여준다.

9. 노제

상가에 방문하지 못한 조객이 제를 올릴 수 있도록 잠시 상여를 내리고 쉬어가는 시간이다.

10. 달구질

드디어 상여에서 관을 내린다. 분묘를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집터를 다지듯이 고인이 지낼 유택을 짓는다. 이때 덕담을 하고, 방아타령을 부르면서 달구질을 한다.

11. 평토제(제주제)

봉분이 완성된 후에는 관을 묻은 뒤 흙을 다져서 지면과 같이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바위절 쌍상여 호상놀이는 상당히 규모가 큰 민속놀이로, 원래대로라면 약 150명이 참여하고,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앞상여에 36명, 뒷상여에 28명의 상여꾼이 필요하지만, 한국민속예술축제 무대 사정상 80명으로 인원을 줄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쌍상여 호상놀이가 지닌 특유의 엄숙함과 화려함은 단연 돋보였다. 비록 시간을 초과해 연행한 것이 아쉬웠지만, 상례를 놀이로 재현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겠다.





● 대전광역시 / 부사칠석놀이 / 대전중구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
상금 -

부사칠석놀이는 음력 7월 7일에 행하는 마을 공동체 놀이다. 풍장패를 앞세워 길놀이, 황새샘치기, 칠성굿놀이, 견우직녀 상봉놀이, 장치기놀이로 이어지고, 대전을 비롯한 경남 김해, 충남 금산·당진, 전북 정읍, 전남 여수 등 여러 지역에서 연행된 것으로 기록된다. 특히 대전 중구 부사동에서 행해지는 칠석놀이를 '부사칠석놀이'라 부른다.

부사칠석놀이에 관한 주요 설화로는 '부용·사득설화'를 꼽을 수 있다. 백제 시대 부사동은 상부사리(윗마을)와 하부사리(아랫마을)로 나뉘어 있었다. 두 마을은 물을 두고 갈등하는 관계였으나, 이런 상황에서 상부사리의 '부용'과 하부사리의 '사득'이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사득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부용은 사득을 그리워하다 죽고 만다. 몇 년이 지나 두 마을에는 가뭄이 들어 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어느 날 마을 노인의 꿈에 부용이 현몽해 사득과 혼인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이 둘이 혼인하면서 앙숙이었던 두 마을이 화해하고, 고사를 지내자 물이 솟아났다. 이 샘물을 부사샘이라 불렀다. 두 마을은 매년 칠석이면 보문산 선바위에 치성을 드렸고, 부사샘을 정돈해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따라서 부사칠석놀이에서는 두 사람의 넋을 달래는 모의 결혼행위인 합궁놀이가 놀이의 주요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부사칠석놀이는 1992년 대전 중구의 민속놀이로 선정되고, 이듬해 대전직할시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199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부사칠석놀이는 이번 대회에서 총 8개의 장면으로 출품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길놀이를 하면서 입장을 하고, 그다음 선바위에 치성을 드린다. 이 선바위는 보문산 선바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바로 부용·사득설화에 등장하는 곳이자 부사칠석놀이가 부용·사득설화와 연계성이 높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다. 치성이 끝나면 징을 길게 울려 길놀이를 준비한 후, 풍장소리에 맞춰 마주 보고 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한다. 긴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양쪽 마을 좌상이 나와 인사를 올리는 상·하부사리 상면이다. 그다음에는 기싸움이 이어진다. 상부사리와 하부사리의 용기가 등장해 마주치면서 서로 인사한다. 마을을 대표하는 이가 나서 각자의 재주와 힘을 자랑하면서 흥을 돋운다.

부사샘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한 부사샘치기를 하고 난 후에는 샘고사가 이어지고, 그 뒤를 이어 부용·사득 합궁놀이가 연행된다. 영혼 간의 혼례를 통해 이승에서 맺지 못한 사랑을 이어주면서 두 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순서로 놀이마당을 펼친다. 부용과 사득의 혼례를 축하하면서 신나는 가락에 맞춰 피로를 풀고 흥겹게 노는 마당이다. 자개장단에 맞춰 두 마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놀이를 벌인다.

부사칠석놀이는 원래 연행자가 240여 명으로 구성되는 규모가 매우 큰 놀이지만, 대회 참가 정원이 있어 80명만 참여했다. 마을 구성원이 많이 참여하기에 마을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지기에 좋은 놀이다.

부사칠석놀이의 주요 특징은 부용·사득을 기리며 합궁놀이를 한다는 점인데, 이는 풍요로운 생산성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전만의 지역 특색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이 민속이

가지는 가치 역시 매우 크다.





●전라북도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
상금 -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는 2002년 제43회 대회에 참가해 대통령상을 받았고, 2005년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었다.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를 중심으로 대장들녘에서 불려왔던 논농사소리로, 1997년 농요 복원 작업을 시작해 순창민속놀이경연대회에서 첫 선을 보인 후, 1998년에 보존회를 설립해 본격적인 전승 활동을 해왔다.

물품는소리와 농부가형 모심는 상사, 논맴소리인 문열가, 연꽃일래, 담담설음, 방애놀세, 된사거리, 에염쌀 때의 사호소리, 장원질 때의 산아지타령으로 악곡이 구성 되었으며,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시에는 물품기·모찌기, 모심기, 김매기, 장원질의 네 과장으로 나눠 엮었다.
순창 지역 사람들은 모심는 철이 되면 전원이 품앗이로 동원된다. 첫 새벽에 저릅대(삼대) 횃불을 들고 동구 앞에 있는 도깨비 방죽으로 가서 용두레로 물을 품어, 천수답을 적시면서 물품기 소리를 우렁차게 불러왔다.

물 품고 모찌기가 끝나면 일꾼 모두 풍장을 한바탕 울린 후 들녘을 향한다. 모를 심을 때는 북으로 못방구를 치는데, 선창자가 앞소리를 메기고 나머지 일꾼들이 뒷소리를 받는 선후창 방식이다. 모심는 소리는 농부가형의 상사소리를 부르는데, 중모리장단의 긴소리와 자진모리 장단의 자진소리로 나뉜다.
가장 더운 시기에 가장 많은 품을 들이는 김매기 작업 때 부르는 소리가 '김매기소리'며, 이때 부잣집에서는 놉을 얻어서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호락질(개인일)에 의존하나 대개는 상호부조의 품앗이 형태로 공동작업을 한다.

김매기소리로는 호무질, 문열가, 한 벌-연꽃타령, 담담 서름타령, 오호타령, 방아타령, 만드레-사허소리 등이 있다. '문열가'는 호무질 때의 첫소리로, 아침 샛거리 내올 준비를 하라는 신호가 된다. '문열가'란 문을 여는 첫 꼭지 노래라는 뜻이며, '이슬털이'로도 부른다. '솔라도레미' 음계의 남부경토리로 되어 있다. <연꽃일래(배꽃타령, 꽃방타령)>는 독특한 후렴구의 곡으로, 후렴구에서는 "얼씨구나", "절씨구나", "흥흥" 또는 "하하", "조리시고" 내지 "좋을씨고"를 공통어로 선택하기도 하며, 속소리를 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후렴구와 속소리 사용은 사당패소리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즉 배꽃타령과 방아타령, 방개흥게류, 된사거리, 논맴양산도, 갈까타령 등은 모두 사당패소리 계열의 악곡이다.

김매기소리가 끝나면 마을에서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집 머슴을 농사 장원으로 뽑는다. 농사 장원으로 뽑힌 일꾼이나 논 주인을 당사실로 치장한 소의 잔등에 태운 후, 삿갓을 거꾸로 씌우고 풍장을 치며, 나머지 일꾼들이 이를 에워싸 동네 고샅을 함께 돌며 주인집으로 향하는 데, 이때 부르는 소리가 '에야타령'이다. 이는 흔히 '산아지타령'으로 알려진 곡이며, 전라도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 중 하나로서, 흥겨운 일이 있을 때는 기능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한다.

1. 모심는소리(상사소리)

(받는소리) 여어 여어 어루 상사 뒤여
(메기는소리) 모손을 갈라지고 거듬 거듬 심어나 보세
여기도 꽂고 저기 저기도 꽂아나 보세
앞산은 멀어지고 뒤산은 가까워지네
이 논배미를 다 심으면 장구배미로 넘어나 가세

2. 문열가

(앞패) 오늘도 오늘도 심심허으 허니 노래 하나 불러 보세
(뒷패) 형제 형제 말을 타으 타고 형제 고개 넘어 가네

3. 연꽃타령

(앞패) 연꽃일레 연꽃일레 광주 경향이나 방죽이나 연꽃일레 얼량이나 정저리사 절량이나 정저리사 음 나 니나 좋을시고
(뒷패)활 잘쏜다 활 잘 쏜다 전주 한량들이 한량들이 활 잘 쏜다 얼량이나 정저리싸 절량이나 정저리싸 음 나니나 좋을씨고
(앞패) 수 잘 놓다 수 잘 논다 순창 큰애기가 아가씨가 수 잘 논다 얼량이나 정저리사 절량이나 정저리사 음 나니나 좋을씨고
(뒷패) 논 잘 맨다 논 잘 맨다 금과 농군들이 농군들이 논 잘 맨다 얼량이나 정저리사 절량이나 정저리사 음 나니나 좋을씨고

4. 담담설음타령

(메기는소리) 오동동추야헤 달이 동동 밝고 임의 생각 절로 난다
(받는소리) 아이고 담담 서름 서름이야
(메기는소리) 시금털털 개살구 처녀 방에나야 놀러간다
(받는소리) 에헤야 에 히이 어얼싸 좀도 좋네

5. 보리방애짛기

(후창) 에헤라 아 어허 어허이루 어허이루 방애야 어허 어허 에루 놀세
(선창) 절그덩 덩 잘도나 미어보세
(후창) 에헤라 아 어허 어허이루 어허이루 방애야 어허 어허 에루 놀세
(선창) 다 찧었네 다 찧어가네 보리방애를 다찧었네
(후창) 에헤라 아 어허 어허이루 어허이루 방애야 어허 어허 에루 놀세

6. 장원질소리

(받는소리) 에야 뒤야 에헤야 에야 어야 뒤여라 산아지로구나
(메기는소리) 저건너 갈미봉에 비 묻어온다 우장 삿갓 짊어지고 집으로 가세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수가 있느냐 노래부르고 춤도 추며 놀다 가세.

순창논요 금과들소리는 곡조의 분화가 다채롭고, 음계와 선법에 남부경토리와 육자배기토리가 고루 사용되며, 서부 평야지역의 선후창 방식과 동부 산악지역의 교환창 방식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라북도 동남부 지역의 농요로서 문화권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며, 사당패에 의해 남겨져 지역화한 농요가 된 악곡들이 섞여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악곡 구성을 보인다. 전라도 동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전북과 전남에 걸쳐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금과에 특별히 사당패소리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화권적 보편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 함경북도 / 애원성 / 애원성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
상금 -

‘애원성[哀怨聲]’은 1968년 애원성보존회를 창립해 1971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고, 2005년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은상, 2010년과 2011년 대회에서 각각 아리랑상, 그리고 2017년 제58회에는 신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함경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애원성을 함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했다.

애원성은 함경북도 지방에서만 불려온 향토민요다. 노랫말에는 북두칠성, 백두산, 칠성단, 동대산, 해삼위, 북강도, 월강죄, 이별, 신개식[新開殖], 마우재(러시아인), 뙤놈(중국인) 등이 얽힌 가사가 있어 함경도의 문화·지리적 환경을 알 수 있으며, 촌 아낙들의 꾸밈없는 생각과 일상생활의 모습 등을 노래하고 있다.

혼자서 산길을 걸을 때나 혼자서 김을 맬 때 흥얼거리며 임과의 이별의 슬픔, 고단한 살림살이, 유랑민의 애환 등 주로 변방 사람들이 겪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추석이나 단오같은 명절이면 애원성 노랫소리에 남자들은 피리나 퉁소를 즐겨 불고, 여인네들은 넓은 정지에 물동이나 물함지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바가지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곤 했다.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대회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출전하도록 독려했다. 함경북도에서는 대표 종목인 ‘애원성’을 선정했다. 이 종목이 함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사실에서도 그러한 대표성을 읽을 수 있다. 함경북도 출신 주민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신문화가 남겨질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인천광역시 / 열두가락의 맥(脈) 강화용두레질소리 / 강화용두레질소리보존회

종목 민요
수상 -
상금 -

인천광역시의 '강화용두레질소리'는 풍년을 기원하며 작업능률을 올리고 권태와 피로를 덜기 위해 악기를 치며 노래를 부른 데서 시작된 것으로, 농부들이 농번기에 윗동네(양촌마을)와 아랫동네(음촌마을)로 편을 갈라 영농 과정을 경쟁적 협력관계로 설정해, 가락을 율동에 담아 집단으로 가무를 즐기고 영농 작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강화도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다.

각 마을의 김매기가 끝나면 한 마을의 두레패가 주관해 다른 두레패를 초대하고, 호적, 광쇠, 제금, 태징, 북, 장고, 법고, 소고 등을 가지고 한마을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이를 파접농악놀이라 한다. 이때 열두가락을 일정한 순서로 즐겁게 연주하면서 법고, 소고춤꾼들이 볍씨뿌리기, 모심기, 콩심기, 멍석말이 등 농사짓는 모습(농사풀이)을 춤으로 재현한다.

강화용두레질소리는 1986년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03년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이 작품은 강화군에 전승되는 논농사소리와 열두가락 농악을 묶은 것이다. 농요와 농악을 함께 포함하고, 용두레질소리로 이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물품는소리를 특징으로 하며, 열두가락 농악과 쌍피리의 연주가 특색을 이룬다.

이번 작품 '열두가락의 맥(脈) 강화용두레질소리'는 양촌마을, 음촌마을로 편가르기, 모찌기, 모심기, 새참놀이, 김매기, 두렁밟기, 물푸기, 열두가락농악(파접놀이) 등 8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파접농악놀이는 강화도 열두가락의 빠른 가락과 느린 가락, 잔가락 등을 고루 사용해 경쾌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특징이다.

노랫가락

1. 모 찌는 노래

(받는소리) 쪘네 쪘네 여기도 한 침 쪘네
(메기는소리) 너도 찌고 나도 뽑아 다 같이 잘들 찌는구나
땀방울로 적신 모가 충실하게도 잘 자랐네
한 알기 두 알기 뽑는 모가 또 한 침이 되었구나
너도 찌고 나도 뽑아 날마다 잘들 찌는구나
여기도 철렁 저기도 철썩 또 한 침을 닦아 묶네
시집을 간다 시집을 간다 우리 모가 시집간다
우리 모 시집을 다 보내면 금년 농사는 풍년일세
왼손 바른손 맞 맞추니 또 한침을 닦아묶네
참게에는 잡아서 술 안주를 하고요
밤이슬 맞고 햇볕을 받아 곱게 곱게 잘 자랐네

2. 모 심는 노래

(받는소리) 심었네 꽂았네 여기도 한 폭 심었네
(메기는소리) 너도 심고 나는 꽂아 다 같이 잘들 심는구나
아래 웃 논에 지지를 말고 어서 빨리 심어주자
이모 저모 잘 맞추어 메밀모로 심어주자

메밀모를 안맞추면 여기도 저기도 방이 돈다
박석 뒤뜰에도 심어주고 장바구 뜰에도 심어주자
계룡제 뜰에도 심어주고 해당화 골에도 심어주자
해파골장도 심어주고 만리섬 뜰에도 심어주자
육칠월 객수가 아니라면 금년 농사도 풍년일세
으거리 풍년 농사를 지어 우리 딸 시집을 보내야지
땀 흘려서 가꾼 농사 년년히 풍작일세
오늘도 심고 내일도 꽂아 날마다 잘들 심어주자
잘들 심네 잘들 꽂아 일심 협력 잘들 심네
먼데 사람들 듣기 좋고 가까운데 사람들 보기 좋게
바다같이 넓은 논을 해동갑하여서 다 심었구나

3. 김 매는 노래

(받는소리) 에야데야 어허야 어허 어얼사 좋구나
(메기는소리) 김을 매세 김을 매세 모두 다 같이 김을 매세
이골 저골 새놓지 말고 고루고루 매어주자
김매는 데 제격은 뒷손질 잘해야 제격일세
넘어간다 넘어간다 호미 김밥이 넘어간다
다른 집의 점심은 나오는 데 우리 점심이 안 나온다
보리방아를 곱 찧느라 우리 점심이 늦어졌나
그르밭 점심참 대느라고 우리 점심이 늦어온다
갓난애가 잠잔다고 애기 어머니가 잠들었나
콩밭 김매러 나갔다가 점심밥이 늦어지나
어서 빨리 김을 매고 호미시침을 하여보세
바다같이 넓은 논에 산달만치 남았구나

4. 삿갓논 김매는 노래

(받는소리) 앵차 앵차
(메기는소리) 어떤 사람 앵차~팔자 좋아서 앵차~
부귀영화로 앵차~ 잘 살건만 앵차~
이내 팔자는 앵차~어이나 하여 앵차~
땅을 파서 앵차~ 먹고 사나 앵차~

5. 용두레질 노래

(받는소리) 어이야 용두레 물 올라간다.
(메기는소리) 하나 둘에 물올라간다 물줄은 하난데 두레는 열두레
이월 초하루 쥐불 놓는 날 서이 너이도 물올라간다
삼월 삼짓날 제비가 오구요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셨네
오월 단오날 그네를 뛰며는 모기가 안 물어 잠자기 좋구나
육간대청엔 전후퇴 달구요 호박 주추에 부연도 달구요 (중략)

'열두가락의 맥(脈) 강화용두레질소리'는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을 맞아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출전을 기획했으나, 2019년 강화도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의 여파로 출전하지 못했다. 그동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출전 기회를 갖지 못한 대신 덕신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해 청소년부에 출전을 했

던 종목이다. 청소년부에서는 2016년 대통령상을 받은바 있어 전승의 결실을 보여주었던 터라,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 평안북도 /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
상금 -

다리굿은 성황대제(또는 성황굿)와 함께 평안도를 대표하는 무속의례다. 대동강물을 먹고 자란 무당만이 평안도굿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다리굿은 독특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전승·발전해 왔다. 다리굿에서는 서도[西道] 창법의 굿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평안도 문화와 함께 해 온 무당이어야 한다. 이러한 굿소리 창법은 맑고 청정한 목청을 내면서도, 속소리와 콧소리가 섞여 격하게 떠는 목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산염불', '비나수', '푸념' 등 다리굿에서 불리는 소리에서는 서도 창법만이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다리굿에서 진설되는 '감응상'은 굿청 차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굿을 하는 동안 절대로 옮기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는 대들보 같은 굿청의 중심이 바로 감응상이다. 무당은 굿청 옆으로 진설되는 감응상과 둥굴부채(또는 둘레부채)를 중심으로 진설되는 굿상의 동선 사이에서 굿을 행한다. 감응상은 상을 두 개 층으로 해 단을 만들어 진설하며, 상에는 쌀을 수북하게 쌓아 올려놓는다. 모든 굿거리의 시작과 끝은 감응상 앞에서 이뤄진다.

다리굿을 완전하게 하려면 이틀 정도가 필요하다. 굿 제차는 여러 상황과 재가집 형편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략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당울림

굿청에 쇳소리를 내어 굿의 시작을 알린다. 이때 무당을 제외한 악사와 참가자는 굿청 밖으로 피해야 한다. 쇳소리를 듣고 갑자기 달려든 귀신과 부딪쳐 살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주당풀이(또는 주당푸념)

신칼을 들고 소리조로 푸념을 한 후,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굿청을 정화한다.

3. 앉은청배(또는 감응청배)

응당 앞의 의자에 앉아 신령들을 청해 굿청으로 좌정한다.

4. 칠성굿(또는 세천굿, 불사굿)

장삼을 입고, 머리에 고깔을 쓰고, 갱지미(칠성괭징)를 들고서 소리조로 비나수를 한다. 칠성굿에서는 명과 복을 발원한다. 그리고 도래미떡(속이 비어 있는 둥그렇게 만든 하얀 떡. 달리 '칠성떡'이라 함)을 갱지미에 담아 명떡과 복떡이라고 해 팔기도 한다. 이어서 삼지창에 무명을 꽂아 불로 태워 물그릇에 적시면서 길흉을 점치는 수레 올리기(또는 대수레천 올리기)를 한다. 그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재가 섞인 물을 망자 가족들에게 먹인다.

5. 영정굿(또는 녕정굿)

감응상 앞에서 소리조로 푸념을 한 후, 영정 바가지에 든 떡과 과일 객귀, 잡귀 등의 영정을 풀어먹인다.

6. 서낭굿

감응상 앞에서 소리조로 비나수를 한 후, 부채를 들고 서낭춤을 춘다. 삼베와 감응천으로 서낭다리를 만들어, 신령들을 모시고 들어오면 길(서낭다리) 위에 돈을 깐다.

7. 대감굿
대감응상 앞에서 소리조로 비나수를 한 후, 대감춤을 추면서 재복을 달라고 축원한다.

8. 기밀굿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망자를 다루는 굿거리가 시작된다. 감응상 앞에서 비나수를 한 다음 망자의 혼을 불러 생전에 못다한 한을 푼다.

9. 사자굿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갈 사자[使者]를 놀린다.

10. 세경돌기
망자의 혼이 실린 다릿발을 들고 세경을 도는 '다릿발세경'을 한다.

11. 수왕세텬(또는 시왕세천)
열시왕(십대왕) 앞에서 망자를 저승으로 잘 데리고 가겠다고 다짐한다.

12. 몸(망자)다리 들어섬
망자의 넋이 다릿발에 내려 가족들에게 굿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13. 수왕포 가르기
삼베와 무명으로 된 수왕(시왕)포로 저승길(다리)을 만들어 두고, 이를 가르면서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한다.

14. 뒷전
잡귀와 잡신들을 풀어 먹여 보내고 굿을 마무리한다.

다리굿은 본토인 평안도에서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하한 무녀들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평안도굿의 전문적인 장구잽이를 '술말이'라 부른다. 술말이는 무당이 아니지만, 푸념을 하거나 굿을 마무리하는 뒷전 등을 맡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련한 술말이를 차지하려고 쌀 한 말씩을 미리 안겨주기도 했다.

평안도다리굿의 음악적 특징은 쌍장구와 쌍제금 연주다. 두 대의 장구와 제금이 나란히 앉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장단을 친다. 여기에 태평소, 피리, 대금, 해금 등 삼현육각을 더불어 앉히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피리와 태평소 정도가 추가된다. 다리굿에서 추는 춤은 장삼춤과 바라춤이 대표적이다. 대무당이 양손에 대바라를 들고 엇사위로 춤을 춘다. 이를 두고 '거상(또는 거성)한다'고 한다. 거상은 장삼을 양손으로 잡고 하는 경우도 많다.





3.2. 갈래별 서술

51-60회, 가면극 종목의 10년

가면극은 지난 10년간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성과가 가장 미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면극 단체가 일찍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탓도 있거니와, 이미 등록을 완전히 마치고 현장 발굴이 이뤄지지 않는 시점이니 이 현상이 그렇게 의문스러운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가면극이 가진 위력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에 더불어 나타나는 가면극의 비판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회를 향해 내놓는 비판적인 언사와 풍자, 그리고 욕구 해소는 정평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면서 공동체적 신명풀이를 하는 것은 가면극이 가장 역동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회 실상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영역임이 분명하다.

일반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자인팔광대가 1회 출전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60회 대회, 즉 왕중왕전에 출전했다. 해당 팀과 출전 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1> 가면극 종목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
2012(53회)	자인팔광대	자인팔광대보존회	경북
2019(60회)	동래야류	동래야류보존회	부산
	고성오광대탈놀이	고성오광대보존회	경남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경북
	봉산탈춤	봉산탈춤보존회	황해
	북청사자놀음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자인팔광대'는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 전승되는 것으로, 자인단오제의 한 마당으로 부속되어 놀아지던 것이다. 이것을 팔광대의 가면극 놀이로 엮어 그 가치를 드러내는 구실을 했다. 자료 소개와 발굴에 입각한 참여라 더 주목되는 작품이었다.

제60회 대회에서는 여러 가면극이 왕중왕전에 참여했는데,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구성 속에 두 개 작품이 예외적으로 도드라졌다. 그중 하나는 '하회별신굿탈놀이'로, 이 놀이의 생성과 전개 과정을 서사적으로 풀어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마당놀이에 서사극을 도입한 것은 어색한 면모가 없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고성오광대'로, 극적인 전개로 관중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극적 기법을 쇄신한 점이 주목할 만했다. 대개의 가면극이 상투적인 언사와 극적 기술에 치중하지만, 고성오광대만은 고인 물이 되지 않으려 노력한 것이 확실하며, 그 수법을 통해 죽지 않는 전통의 신명을 재발견한 것이 사실이다. 그 점에서 고성오광대는 이름값을 확실히 보여줬다.

51-60회, 농악 종목의 10년

농악은 지난 10년간 가장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종목 가운데 하나다. 농악 그 자체는 물론, 민요·민속놀이와 의례에 걸쳐 서로 깊은 연관성으로 연계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다면적 가치를 담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농악의 유용성과 자치성이 민속 전반에 걸쳐 폭넓게 작용하기에, 가치 구현은 물론 민속예술의 꽃과 같은 구실을 하며, 대회 10년 동안 혁혁한 공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해당 기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농악 작품의 수는 총 35개로, 중복 출전을 제외하더라도 그 수가 30개에 이른다.

농악은 신규 발굴의 폭이 넓다. 그만큼 보유한 면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지만, 다른 종목과 연계하면 다양한 맥락을 형성한다. 농악은 그 기능과 유용성이 다대한 민속예술이다. 그러므로 신규 종목 발굴이야말로 농악이 혁혁한 면모를 발휘하는 원천이다. 아울러 기왕에 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이 출전하거나, 같은 농악 작품이 거듭 출전해 성과를 거둔 것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다.

농악 종목에서 일어난 여러 경로를 중시하고, 농악의 참여 방식을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지난 10년간 나타난 출전과 변화의 내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연에 신규 작품이 출전하거나, 기존 문화재가 출전하거나, 출전을 반복한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제59회에 대회에 출전한 ‘논산두레소리’로, 충청남도 논산·부여·공주 등지에 널리 퍼져 있는 두레풍장의 전통을 토대로 논매는소리를 조화롭게 연계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신규 종목의 새로운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예증이 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 사례는 제52회 대회에 출전해 대통령상을 받은 ‘김천금릉빗내농악’이다. 금릉빗내농악은 출전 당시 이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경연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각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판굿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문화재 지정 당시에 주목하지 않았던 점을 되살려 체계화한 점 역시 유의미하다. 또한 대진풀이 이후에 상사굿을 첨가, 농악의 여러 기능 중 소리굿의 전통을 되살려 이를 무대 공연의 판굿으로 구성한 점에서 값진 의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대구의 ‘달성다사12차진굿’, ‘가루뱅이농악’, ‘광주지산농악’이다. 이 작품들은 같은 농악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이렇게 거듭 출연할 수 있던 것은 특정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생긴 불가피한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진부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대회에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징으로 봐야 한다.

제51회 대회에서부터 제60회 대회까지 출전한 팀과 경로, 즉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일반부 농악 종목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명
2010(51회)	달성다사12차진굿	달성다사12차진굿보존회	대구
	화성마도농악	한국농악보존협회, 수원·화성지회	경기
	덕양풍물	청도덕양풍물단	경북
2011(52회)	금릉빗내농악	금릉빗내농악보존회	경북
	달성다사12차진굿	달성다사12차진굿보존회	대구
	칠석농악	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주
	여수백초가장농악		전남
2012(53회)	달성이천농악	달성이천농악보존회	대구
2013(54회)	광지원농악	광주광지원농악보존회	경기
	범암골농악	화천문화원	강원

	경산중방농악 농사굿12마당	경산중방농악보존회	경북
	정읍농악 문굿과 판굿	정읍시립농악단	전북
	가루뱅이농악	가루뱅이농악보존회	대구
	무돌농악	무돌농악단	광주
2014(55회)	부산농악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회	부산
2015(56회)	구미 무을(선산)농악	구미농악단	경북
	용전걸궁농악	전통용전농악회	광주
	김제농악 마당굿과 도둑잽이	지평선농악단	전북
2016(57회)	대전웃다리농악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	대전
	인천읍내걸립농악	인천풍물연구보존회	인천
	날뫼북춤	대구광역시날뫼북춤보존회	대구
	수원두레	수원두레보존회	경기
2017(58회)	광주지산농악	지산농악보존회	광주
	용수 가루뱅이농악	가루뱅이 농악보존회	대구
	정읍농악 판굿과 일광놀이	정읍농악보존회	전북
	부산고분도리걸립굿	부산고분도리 걸립보존회	부산
	담양농악 풍장놀이	우도농악담양보존회	전남
	공주걸립농악	한국민속예술협회공주지부 공주시걸립농악보존회	충남
	창원퇴촌농악	창원퇴촌농악보존회	경남
2018(59회)	밤골마당밟이	보성군율어면밤골농악단	전남
	광주산월농악	광주산월농악	광주
	영천명주농악	영천명주농악보존회	경북
	의령집돌금농악	의령문화원 의령집돌금농악보존회	경남
2019(60회)	광주지산농악	지산농악보존회	광주
	울산달리농악	울산달리농악보존회	울산

농악의 경우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 지역과 출전 작품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종목에서 동일 작품이 매해 출전해 문제가 되는 것과는 상반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민속예술 종목 중 농악이 민속예술축제의 취지와 진면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51-60회, 민요 종목의 10년

민요는 민속예술의 근간을 이룬다.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의례를 거행하면서도 민요를 부르는 것이 기본 양상이요, 우리 삶의 한복판을 장식하는 것이다. 민요 갈래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소리를 출품해 지역 특성과 소리의 무늬를 신명 나게 구현했다.

10년 동안 민요로 출전한 작품은 총 64개로, 중복 출전을 제외하면 50개에 달한다. 민요 종목에 가장 많이 출전한 지역은 함북으로, 총 8회에 걸쳐 출전했다. 다음으로 인천 6회, 강원, 충북, 전남, 제주 각 5회, 경기, 경남, 함남 각 4회, 황해, 광주 각 3회, 경북, 대구, 부산, 전북 각 2회, 서울, 울산, 충남, 평북 각 1회 출전했다. 여기에는 현지 민속이 포함되므로, 전남과 경기 등의 민요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수치다. 또 함북과 함남, 황해 등 이북5도 지역은 동일 종목이 반복 출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목 수는 많지 않다. 민요 종목의 전체 출전 종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3> 민요 종목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세부 유형	지역
2010(51회)	양양군수동골상여소리	의식요	강원

	질또림소리	건축노동요	제주
	서도선소리산타령	잡가	황해
	마들농요	농업노동요	서울
	봉추들노래	농업노동요	전남
	서창만드리	농업노동요	광주
	애원성	유희요	함북
	아낙일노래와소리	가사노동요	인천
2011(52회)	영광서남면들노래	농업노동요	전남
	동두내두레소리	농업노동요	경기
	영동질골막장소리	광업노동요	충북
	초전보리일소리	농업노동요	경남
	서도선소리산타령놀량사거리	잡가	황해
	애원성	유희요	함북
	오리뜰들노래	농업노동요	경기
	두레소리	농업노동요	경기
	함양들놀이소리	유희요	경남
2012(53회)	함안농요	농업노동요	경남
	송악두레	농업노동요	충남
	고성명태소리	어업노동요	강원
	서창만드리	농업노동요	광주
	답다우는소리	건축노동요	제주
	인천염전일노래	어업노동요	인천
	돈돌날이	유희요	함남
	중원들소리	농업노동요	충북
	영광 칠산어장뱃노래	어업노동요	전남
2013(54회)	돈돌날이	유희요	함남
	다대포후리소리	어업노동요	부산
	조팟발리는소리	농업노동요-밭	제주
2014(55회)	이서들소리	농업노동요	경북
	날외 소금 졸래기	어업노동요-염전	제주
	영광홍농들노래	농업노동요	전남
	전래동요와 남한강뱃소리	어업노동요, 동요	충북
	월계동 상여소리	의식요	광주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의식요	대구
	방죽맥이	토목노동요	인천
	두만강뗏목놀이소리	어업노동요	함북
	돈돌날이	유희요	함남
2015(56회)	거창디딜방아상여액막이소리	의식요, 유희요	경남
	수영농청놀이	농업노동요	부산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의식요	대구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토목노동요	인천
	태백문곡동웃벌마을산간민요	유희요	강원
	돈돌날이	유희요	함남
	두만강뗏목놀이소리	어업노동요	함북
2016(57회)	하원마을 옥가리초집 짓는 소리	건축노동요	제주
	목계나루 뱃소리	어업노동요	충북
	동호리 멸치후리기	어업노동요	강원
	놀량사거리	잡가	황해
	두만강뗏목놀이소리	어업노동요	함북
2017(58회)	모전들소리	농업노동요	경북
	울산쇠부리소리	기타노동요	울산
	인천쑥대고잔 지경다지기	토목노동요	인천
	원주오리골농요	농업노동요	강원
	애원성	유희요	함북
2018(59회)	보은장안농요	농업노동요	충북
	화성두레농요	농업노동요	경기
	평북농요	농업노동요	평북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농업노동요	전북

	두만강뗏목놀이소리	어업노동요	함북
2019(60회)	열두가락의 맥(脈) 강화용두레질소리	농업노동요	인천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	가사노동요	전남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농업노동요	전북
	애원성	유희요	함북

50개 민요 작품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민요의 기능은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등 세 가지로, 노동요는 다시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기타노동요로 나누고, 농업노동요는 다시 논농사소리와 밭농사소리로, 어업노동요는 다시 바다와 강, 염전소리로 분류했다.

<표-4> 민요 작품의 기능별 분류

기능		출품작
노동요	농업노동요 논농사	동두내두레소리,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두레소리, 송악두레, 마들농요, 모전들소리, 열두가락의 맥(脈) 강화용두레질소리, 화성두레농요, 보은장안농요, 봉추들노래, 함안농요(보리, 쌀), 서창만드리, 수영농청놀이,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영광서남면들노래, 이서들소리, 평북농요, 영광홍농들노래, 오리뜰들노래, 원주오리골농요(21)
	농업노동요 밭농사	중원들소리, 초전보리일소리, 조팟발리는소리(3)
	어업노동요 바다	영광 칠산어장뱃노래, 동호리 멸치후리기, 다대포후리소리, 고성명태소리(4)
	어업노동요 강	전래동요와 남한강뱃소리, 목계나루 뱃소리, 두만강뗏목놀이소리(3)
	어업노동요 염전	날외 소금 졸래기, 인천염전일노래(2)
	기타노동요	영동질골막장소리, 울산쇠부리소리, 태백문곡동웃벌마을산간민요(3)
유희요		서도선소리산타령, 돈돌날이, 애원성, 함양들놀이소리(4)
의식요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양양군수동골상여소리, 월계동 상여소리(3)

민요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논농사소리로, 전국 각지에서 '모찌는소리 → 모심는소리 → 논매는소리 → 풍장소리' 구성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모찌는소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대신 스레질소리나 논두렁밟는소리 등을 추가해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밭농사소리에는 보리농사소리가 가장 많은데, 논농사소리 중반에 보리농사소리를 섞어 구성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초반에 논농사소리 중심이었던 것에서 점차 다양한 소리로 기능의 폭이 넓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특히 제주도에서 조밥 밟는 소리가 출전해 기능의 다양성을 더 넓혀 주고 있다.

어업노동요에서는 전남의 '영광 칠산어장뱃노래'와 강원의 '멸치후리기'와 '고성명태소리', 그리고 부산의 '다대포후리소리' 등 네 작품이 바다 일에 부르는 노래로, '남한강뱃소리'와 '목계나루 뱃소리', '두만강뗏목놀이소리' 등 세 작품이 강에서 부르던 노래로 출전했다. 또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르던 '날외소금 졸래기'와 '인천염전일노래'도 어업노동요로 분류했다.

기타노동요로는 광산에서 불리던 '영동질골막장소리', 대장간에서 부르던 소리를 모은 '울산쇠부리소리', 그리고 나무를 하고 톱으로 썰고 하던 '태백문곡동윗벌마을산간민요' 등이 출전한 바 있다.

유희요는 여러 작품에 한 일부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독립적으로 유희요 중심의 작품은 '서도선소리산타령', '돈돌날이', '애원성', '함양들놀이소리' 등 네 가지다. '서도선소리산타령'은 잡가의 일종으로 민요로 보기는 어렵다. '돈돌날이'와 '애원성' 역시 통속민요에 가까운 유희요로 구분된다. '함양들놀이소리'는 현지 민속으로 참가한 작품으로, 화전놀이 때 부르는 놀이노래를 묶은 것이다.

의식요는 모두 상여소리로,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양양군수동골상여소리’, ‘월계동 상여소리’ 등 세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상 민요 종목의 출전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여전히 많은 수의 악곡이 있어야 수상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곡 수를 늘리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끼워 넣은 듯한 양상도 나타났다. 또 동일한 곡에 가사만을 바꿔 여러 곡으로 늘어 놓은 사례도 몇몇 있다. 같은 이유로, 논농사소리만으로는 한 작품을 만들지 못해 여러 기능을 섞어 구성하는 경우도 더러 나타났다. 게다가 인위적 연출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넣으며, 부족한 연기로 집중력을 흩어놓는 사례들이 많이 보인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다면, 점차 민요 종목에서 가창 능력이 뛰어난 고로들을 만나기 어려워진다는 점, 여러 기능을 섞은 작품들이 많아진다는 점, 다양한 기능의 소리들을 섞어 놓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 등이다.

농악으로 등·퇴장을 하거나 악곡 연결을 하고, 마당에 있는 논 크기의 공간을 비닐로 라인을 만들어 구분하고, 공연 중반에 논두렁을 밟거나 새참을 먹는 등의 몇몇 전형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51-60회, 무용 종목의 10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무용이란 신명풀이의 몸짓을 자랑하는 것이다. 춤은 신명이 작렬하는 몸부림의 흔적을 보이는데, 그 범위가 매우 좁은 종목임에도 출품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종목이다. 또한 민속예술 갈래로서 긴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난 10년간 무용 종목에서는 총 13개 작품이 출전했는데, 중복 출전을 제외하면 4개에 불과하다.

<표-5> 일반부 무용 종목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명
2010(51회)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2012(53회)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백두산선녀춤	함북민속예술보존회	함북
2013(54회)	황해도화관무	황해도화관무보존회	황해
	백두산선녀춤	함북민속예술보존회	함북
2014(55회)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2015(56회)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2016(57회)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2017(58회)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화관무	황해도화관무보존회	황해
2018(59회)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날뫼북춤	날뫼북춤보존회	대구
2019(60회)	날뫼북춤	날뫼북춤보존회	대구

무용 종목으로 출전한 작품은 ‘평양검무’, ‘백두산선녀춤’, ‘황해도화관무’, ‘날뫼북춤’이며, 지역도 대구를 제외하면 모두 이북5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무용의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민속무용의 특성상 무용만으로 구성된 독립 종목이 거의 없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품된 작품 전체에 무용이 깃들어 있다. 농요를 부를 때도, 새참을 먹거나 놀이판을 벌일 때도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농악의 연주와 가면극 자체에도 무용이 기본으로 깔린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작품을 모두 농악, 의례, 놀이 등으로 구분하므로, 무용 종목에서는 위 표와 같이 빈약한 모습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무용 종목으로 참여한 작품 대부분은 공연예술화가 되어 있다. 즉 민속적인 특성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이다. 민속예술에서 출발한 작품들이 공연을 거듭하면서 공연예술 작품으로 성격이 변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51-60회, 민속놀이 종목의 10년

민속예술은 삶을 연대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은 것이다. 혼자 놀이를 하지 않고 여럿이 하면서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만큼 소중한 전통은 없다. 인간의 유희본능을 일깨우고, 마당이나 판에서 하나로 뭉치는 실질적인 고안을 민속놀이로 했을 것이다. 그러한 전통을 살리고, 깊은 내력을 이으며, 현대화된 마당에서 펼치는 민속놀이는 우리의 이상을 가장 선명하게 실현하는 수단이다.

예로부터 마당에서 벌어지던 전통 민속놀이를 기반으로 현대화된 무대에서 이를 최적화하는 매개체가 바로 한국민속예술축제다. 놀이를 재현하면서 공동체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표-6> 민속놀이 종목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
2010(51회)	동래지신밟기	부산민속예술보존회	부산
	김해석전놀이	김해민속예술보존회	경남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대전동구문화원	대전
	대명골합두레놀이	대명골합두레보존회	충남
	봉양파대놀이	봉양파대놀이보존회	충북
	탑성놀이	돌문화보존회	전북
	남대천놀이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울산지애밟기놀이	울주문화원	울산
2011(52회)	영등굿떼몰이놀이	용담1동민속보존회	제주
	들골대마지놀이	남면북쌍1리마을회	강원
	전주기접놀이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전북
	서상덕지내·돌개미레놀이	장동덕지천동주민회	충남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	인천
	수영지신밟기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회	부산
	유성봉명리온천수착정놀이	대전민속예술연구회	대전
	경복궁지경닻이기	경복궁지경닻이기보존회	서울
	향두계놀이	향두계놀이보존회	평남
	울산매귀악	울산매귀악보존회	울산
2012(53회)	비금담달애놀이	비금담달애보존회	전남
	구덕망께터다지기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감천춘사새신	대전서구문화원	대전
	안동 윷송놀이	도촌마을	경북
2013(54회)	향두계놀이	평남향두계놀이보존회	평남
	전어잡이시연	진원전어잡이소리보존회	전남
	정월대보름지신밟기	옥천구청산면민속보존회	충북
	인천염전밭갈이놀이	인천염전일놀이보존회	인천

	방아미아들바우방생축원놀이	대전중구문화원	대전
2014(55회)	웅소성리호상놀이	웅소성리상여소리보존회	충남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	봉평전통민속보존회	강원
	평택와야골거북놀이	평택거북놀이보존회	경기
	계족산무제	대덕문화원	대전
	임실두레놀이	임실두레놀이전승회	전북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보존회	경남
	울산달내쇠부리놀이	울산달내쇠부리놀이보존회	울산
2015(56회)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제주
	천안거북놀이	천안거북놀이보존회	충남
	철산리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	광명문화원(광명농악보존회)	경기
	현천용천제	향토민속문화보존회	전남
	입석리선돌제	입석선돌제보존위원회	충북
	언양 와 아리라 고풀이굿	울주문화원	울산
2016(57회)	전주기접놀이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전북
	내평리 길쌈놀이	내평리길쌈놀이보존회	전남
	솟대쟁이 놀이	솟대쟁이놀이보존회	경남
	울산병영서낭치기	울산중구문화원	울산
	다대포후리소리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부산
	천안거북놀이	천안거북놀이보존회	충남
	광주 수완골 화전놀이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	부산
	토성 정월대보름놀이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2017(58회)	숯뱅이두레	대전서구문화원	대전
	솥 굽는 역시	덕수리민속보존회	제주
	이천용면리 용줄다리기	이천문화원	
	토성정월대보름놀이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괴산군 여사왕 대도듬 놀이	한국예총괴산지회	충북
2018(59회)	논산전통두레풍장	논산시전통두레풍물보존회	충남
	평창방림삼베굿놀이	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보존회	강원
	구덕망깨터다지기	구덕망깨터다지기보존회	부산
	두미신창흙싸움놀이	한경면민속보존회	제주
	토성정월대보름놀이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꼬댁각시놀이	인천토속민요놀이보존회	인천
2019(60회)	바위절 쌍상여 호상놀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서울
	부사칠석놀이	대전중구문화원	대전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강원
	김포통진두레놀이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경기
	논산두레소리	논산시전통두레풍물보존회	충남
	목계나루 뱃소리	중원민속보존회	충북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제주
	향두계놀이	향두계놀이보존회	평남

위 표에서 확인하듯, 민속놀이의 일반부 참여 시 중복 출전이 있기는 하지만, 작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작품을 검토해보면 다른 종목으로 분류 또는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민속놀이의 공동체적 신명을 기반으로 무대경연이라고 하는 속성을 버리지 않고 신명을 약동해 서로 연결되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분명 소중한 체험이었을 것이다.

민속놀이를 분류하자면 대결을 중심으로 하는 것, 주술적인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 소리를 주로 하는 것이 작품에서 우세한 속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속성을 거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놀이의 목적을 성하는 것에 대한 유의미한 시도들이 많았으며, 본래의 놀이가 가진 속성을 중심으로 경연용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는 민속놀이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제60회 대회는 모든 놀이를 총괄하는 자리였지만, 소중한 작품 하나하나를 모아 민속놀이의 특장을 보여줬다고 하겠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출품한 '바웃절쌍상여놀이'를 비롯한 충남의 '논산두레소리' 등

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었다. 민속놀이 종목에서는 제51회 8개 팀, 제52회 10개 팀, 제53회 4개 팀, 제54회 5개 팀, 제55회 7개 팀, 제56회 6개 팀, 제57회 8개 팀, 제58회 5개 팀, 제59회 6개 팀, 제60회 8개 팀이 출전했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것, 응용된 것, 반복된 것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51-60회, 의례 종목의 10년

의례 좀목에 출품한 작품들은 제의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이 모두 강한 것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의례 종목은 무속의례와 농악대굿이 양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속의례다. 다만 의례의 표현이 신선했던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출품 숫자로는 북한 지역 굿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며, 특히 무당굿이 다시금 특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농악대굿으로 하는 작품들이 간간이 발견되며, 이외에도 물제를 비롯한 기우제가 출품되어 각별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허계굿', '의암별제', '남원물제', '안동제비원성주굿풀이' 등은 신규 의례로 발굴되어 출품이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굿'은 분명 민속예술에서 중요한 용어지만, 그 뜻의 포괄적인 사용으로 선입견이 상당해 활발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쉬움을 준다.

10년간 의례 종목으로 출전한 작품은 모두 22개로, 중복 출전을 제외하면 총 14개 작품이 경연에 나온 것이다. 중복 출전은 대부분 북한 지역 작품에서 나오며, 이 중에서도 이북5도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변성황대제'와 '평안도다리굿'이 있으며, 특히 이 두 의례는 높은 출전 빈도를 보인다. 또한 마을 성황신을 모시는 마을 의례와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사령굿'이 평안북도를 대표하는 민속으로 출품되었다. 해를 달리하면서 출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선상에서 황해도 또한 무속의례인 '최영장군굿'과 '만구대탁굿'으로 꾸준히 출전을 이어오고 있어 주목된다.

무속의례의 경우 장시간 연행하므로 실제 의례의 목적에 집중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연 조건 속에서 새롭게 공연예술 작품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속예술로서의 가치가 반감되는 현상을 겪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신규 발굴되는 의례는 대부분 농악대를 동반하는 마을굿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는 일반부 출전 작품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7> 일반부 의례 종목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명
2010(51회)	성황굿	영변성황대제보존회	평북
2011(52회)	평안도다리굿	평북민속보존회	평북
	화순능주씻김굿	능주씻김굿보존회	전남
	거창상여소리의식요	거창문화원	경남
2012(53회)	허계굿	울산전통고유민속보존회	울산
	만구대탁굿	만구대탁굿보존회	황해
	우동리당산제	우동리당산제보존회	전북
	수표교다리밟기	수표교다리밟기보존회	서울
	영변성황굿	평북영변대제보존회	평북
	남원 물제(기우제)	중군마을 부녀회	전북
2013(54회)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평북
	허계굿	울산전통고유민속보존회	울산
	의암별제	진주민속예술보존회	경남
2014(55회)	최영장군당굿 작두거리	최영장군당굿보존회	황해
	영변성황대제	평안북도영변성황대제보존회	평북

2015(56회)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평북
	만구대탁굿	만구대탁굿보존회	황해
2016(57회)	안동제비원성주굿풀이	안동제비원성주풀이보존회	경북
	영변성황대제	영변성황대제보존회	평북
2017(58회)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평북
2018(59회)	최영장군당굿	황해도무형문화재 제5호 최영장군당굿보존회	황해
	계족산무제	대덕문화원	대전
	울산병영서낭치기	울산중구문화원	울산
2019(60회)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평북

이 종목은 원래 토착용어 ‘굿’을 사용해야 하나, 여러 이유와 함께 ‘의례’로 대체되었기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작품에 나온 의례를 크게 보면 농악대굿, 무당굿, 장례의식, 보름달에 행하는 의례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목의 주요 근원은 무당굿과 농악대굿이지만, 이를 포괄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므로, 이를 온당하게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시의례와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배경으로 농악대굿과 무당굿이 갈라서 배치된 형국임을 알 수가 있다.

3.3. 압축과 의의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일반부가 이룩한 성과는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 공동체의 신명을 상실한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다. 통합이 사라지고, 고유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변화와 변혁의 시대임을 인정하게 된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그러한 점을 일찍이 예감하고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는데, 민속예술을 위한 '축제'라는 성격을 강조하고, 잠재되어있는 지방 민속을 현지에서 조사하자는 제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축제의 터전을 잘 닦을 수 있었다'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말미암아 문제의 심각성도 일정 부분 드러났다. 분명 축제의 성격이 강조된 점은 바람직했다. 그런데 축제를 지방 예선으로 치르게 되면서 다차원의 행정력 또한 요구되다 보니, '민속의 현지 심사라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이것이 축제에 부합하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곧 현지민속심사 제도는 폐지되었다. 기실 '민속인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자못 축제의 성격에 대한 부분까지 회의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민속예술을 위한 축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정향점을 찾게 되었고, 전망 부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늠자를 구했다. 특히 '고성오광대 탈놀이'가 축제적 성격을 달면서 관객과 배우, 구경꾼과 탈춤꾼이 하나가 되는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졌다. 관객의 참여로 신명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즉 소름 돋는 극적 분위기를 자아낸 것은 축제의 성격이 새로 거듭나게 된 진정한 물꼬를 트게 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잘 연출된 민속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민속예술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했다. 다른 것들의 연출이 죽은 것들을 살려내 일정한 시간 단위로 단순하게 분절해 배분한 것에 견주어, 앞으로 민속예술축제의 출품작들이 무엇을 새롭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왜 그릇보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새삼스럽게 환기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회 60주년을 기념한 왕중왕전은 그야말로 축제의 신명이 넘실대는 가늠자 구실을 한 것임이 명백하다. 신명으로 솟아오르는 밝은 태양이 시련의 파도 위에서 넘실대는 환희와 희망의 모습을 비췄다. 산맥 속에 묻혀 있던 신명의 도가니를 찾아내고 가열해 사람마다 민속예술이라는 신명을 갖게끔 한 것은 분명 값진 일이었다. 우리 민속예술은 결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넣을 방법을 몰라 헤매다가, 마침내 민속예술의 축제적 신명과 정면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현재 진정한 신명이 이어지려 하지 않는 상황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속예술이 가진 일부 한계성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절박함 속에 신규 발굴이라는 책임에서 오는 강박감, 연출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려는 발돋음, 민속예술이 축제일 수 없다는 자괴감이나 허무감 등은 이제 모두 떨쳐내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위대하고 소중한 미래는 민속예술의 민족적 주체성과 관련되는 마음의 연결고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신명으로 하나되는 통합의 시대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없는 민속예술축제만의 위대한 힘이 있다. 홀로 고독하게 고립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여럿이, 함께, 그리고 모두 자연스럽고 풍요롭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삶을 설계하고, 이를 발산하려는 위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민족이 몇천 년의 부피와 시간으로 빚어온 민속예술로 빛을 내는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위대한 저력에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존중되는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고, 자신이 가진 잣대만으로 재는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데 있어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위대한 진전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것도 이러한 신념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사회적 회의나 거리를 무너뜨리는 결단을 과감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민속적인 동질감이 새로운 공동체를 희망하도록 꾀어야만 한다. 그것 없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민속의 정체성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민속의 측면에서 고안해야만 한다. 그것이 한국민속예술축제의 60주년을 되돌아보며 가질 수 있는 전망이다.

4.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10년 성과와 도전(제17회-제26회)

4.1. 회차별 서술

제1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0.10.08~10.09,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후세대를 겨냥해 우리 민속예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전승하고자 개최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와 함께 한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이 민속에 담긴 정서를 함양하고, 우리 것에 대한 교육적 인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같은 장소에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열렸다. 농악을 중심으로, 민속놀이, 의례, 가면극 등이 출품되었고, 모두 15개 단체가 참가했다.

개막 공연 '논두렁밭두렁'을 펼친 공주당두레풍장을 필두로,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서울특별시 서울아이티고등학교의 '웃다리풍물', 경상북도 경주무신고등학교의 '단석풍물', 충청남도 병천고등학교의 '천안거북놀이', 인천광역시 문학정보고등학교의 '범패와 작법무', 강원도 정선중고등학교의 '정선낙동농악', 전라북도 고창성송고등학교의 '고창우도농악', 제주도 대정고등학교의 '평토소리', 대구광역시 조일공업고등학교의 '가루뱅이농악', 경기도 문산제일고등학교의 '웃다리풍물', 전라남도 대서초등학교의 '고흥문굿', 경상남도 칠성중학교의 '고성오광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의 '수영농청놀이', 충청북도 삼성중학교의 '음성거북놀이', 광주광역시 광주동신중학교의 '호남우도농악', 대전광역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대전웃다리풍물' 등이다.

2. 참가 종목

● 충청남도 / 천안거북놀이 / 병천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대통령(최우수)
상금	10,000

'천안거북놀이'는 충청남도 천안에서 한가위에 거북을 앞세우고 집집이 방문해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놀이다. 천안 지역의 거북놀이는 대체로 줄다리기 분포권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벼농사를 주로 하는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실제 거북놀이 전승 지역을 살펴보면, 한강 이남의 경기도 이천을 중심으로 여주, 광주, 용인, 수원, 평택, 충청도는 아산, 음성, 충주, 청주, 전라도는 해남, 경상도는 창녕 등이다. 이 중 천안은 거북놀이가 가장 성행했던 지역으로 손꼽히는데, 자연마을 단위로 행해졌다.

거북놀이는 지신밟기와 그 성격을 같다. 연행 방식도 길잡이를 맡은 거북이 등장해 갖가지 재주를 선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한가위가 되면 마을 풍물패들이 맷방석 위에 수수 잎을 꽂아 거북을 만들고, 한 사람이 몰이꾼인 질라래비가 되어 집집이 방문한다. 거북과 질라래비는 온갖 재

담을 섞어 흥을 돋우고, 가정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어 대접하기도 하며, 쌀 같은 곡식을 내놓아 감사 표시를 한다. 이렇게 모아진 쌀과 곡식을 마을 기금으로 만들고, 상여 마련해 다리 놓기, 우물 파기 등으로 사용했다.

거북놀이는 원래 아이들이 주동해 거북을 만들고, 집집이 다니며 마당놀이를 해준 대가로 방문한 집에서 음식과 쌀을 얻은 것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 놀이에 성인들의 농악이 개입하면서 그 구성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 그런 구성을 갖추게 된 것은 윤병준의 《음성거북놀이조사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그 순서는 순문장[守門將]굿, 용왕굿, 마당놀음, 벅구노름, 조왕굿, 터주굿, 도량굿이다. 이 과정을 다 거치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에서 재현한 거북놀이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길놀이, 문굿, 샘굿, 터주굿, 조왕굿, 마당놀이 순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갑산리는 농악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거북놀이를 했다고 한다.

천안 지역 거북놀이의 유래는 지금부터 약 900여 년 전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뭄과 흉년, 질병이 심해 도둑질이 기승을 부리자, 현종이 직접 민정을 살피기 위해 각 고을을 돌아다녔다. 그가 천안부 직산현에 기거하던 어느 날 깜빡 낮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신라 문무왕이 나타나 한가위에 수륙양생[水陸養生]의 거북이를 보낼 테니 거북과 함께 뛰어놀라고 말했다. 현종은 이튿날 조정중신들과 논의한 끝에 지형을 두루 살펴보다가 입장면 구덕리 마을이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거북놀이를 하게 했다. 그랬더니 이듬해에 벼알이 마치 수수알처럼 풍성하게 여물어 대풍을 이뤘고, 이후 질병도 사라졌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마을은 매년 추석을 맞아 거북놀이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경기도 이천과 충남 천안 등에서 거북놀이에 대해 조사·기록한 내용 중에 “거북놀이는 추석에 농민들이 행하는 놀이로서, 먼저 대나무로 거북 모양을 만든다. 거북을 뒤집어쓴 사람을 선두로 해서 농악대가 뒤를 따라 마을의 각 집 문 앞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그 집의 복을 빌어준다. 이에 답해서 거북을 맞이한 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어 베푼다.”라는 간략한 묘사가 있다. 이를 통해 거북놀이는 일제강점기 이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한가위 민속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가위 저녁에 거북놀이를 할 때는 거북이, 질라래비, 풍물패 등의 놀이패를 구성한다. 놀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한 사람이 수수 잎으로 장식한 거북 형태의 맷방석을 뒤집어쓴 채 머리를 내밀면, 질라래비가 거북의 목에 끈을 매어 데리고 다니며 놀린다.

- 거북이 부잣집 대문 앞에 도착하면 질라래비가 “천석 거북이 들어갑니다. 만석 거북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땅을 쓸면 황금이 쏟아져 나오니 이 댁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라고 외치며 놀이패가 도착했음을 알린다. 이때 그 집에서 “들어와서 놀아라.”라고 대답을 하면, 질라래비는 거북을 데리고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샘, 부엌, 장독, 마루를 차례로 돌며 고사 덕담으로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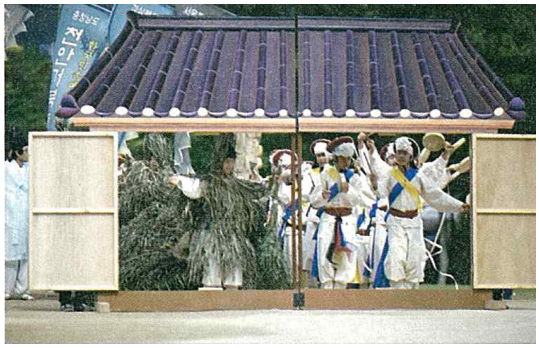
- 축원이 끝나면 마당에서 본격적인 거북놀이가 시작되고, 질라래비가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라고 외친다. 질라래비의 지시에 따라 거북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온갖 재주를 선보인다. 이때 구경 나온 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춘다. 놀이를 마치면 질라래비는 거북이와 함께 주인에게 인사하고 다른 집으로 향한다.

거북놀이의 절차와 함께 흥미로운 것은 등장하는 거북의 유형이다. 이천의 거북놀이처럼 대개 큰 거북 한 마리를 내세우고, 이 거북을 끌고 다니는 질라아비가 설정되어 있다. 평택의 경우에는 원래 큰

거북이 없었는데, 이천의 거북놀이를 본떠서 네 명이 전후좌우로 드는 큰 거북 한 마리를 만들고, 일반 거북의 복장을 한 24명이 등장한다. 2014년에는 다시 사람 두 명이 들어가는 큰 거북으로 대체한바 있다. 천안의 경우는 안에 두 명이 들어간 큰 거북 한 마리와 남생이라고 해 작은 거북 다섯 마리가 등장하기도 한다. 오산 금암동의 거북은 수숫잎으로 이엉을 엮듯이 5m 정도 길게 만들었는데, 앞에는 나무로 만든 머리가 있고, 안에는 다섯 명 정도가 들어간다. 거북을 이끄는 사람이 고사반이나 대화를 주도하며, 거북은 나무로 만든 머리를 이용해 의사 표현을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거북놀이는 이처럼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해 온 마을 사람이 하나되는 대표적인 대동놀이였다.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례와 놀이를 통해 한가위를 자축하고, 집집이 방문해 흥겹게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체감과 협동심이 고조되었다.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집집이 다니면서 축원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추석 저녁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송편이나 얻어먹으려고 거북을 만들어 놀았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풍요기원의 축원 의례적 목적이 아니라, 풍요롭게 수확했음을 감사하는 수확 의례적 속성을 지닌 아이들의 민속놀이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거북놀이는 점차 농악이 개입되면서 굿 절차를 갖춘 어른들의 놀이로 변모했다.





● 강원도 / 정선낙동농악 / 정선중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정선낙동농악'은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 전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농악이다.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농악 전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정월 초 서낭굿을 할 때는 고려 말의 충신 7인(거칠현)의 혼령을 함께 모시는 색다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농악은 악기, 편성, 가락, 판굿의 구성에서 영동 지방 농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까닭에 쇳가락이 힘차고 빠르며, 박자감이 빠르고 강하며 경쾌하다. 현재는 2채, 3채, 4채, 5채, 7채, 12채 등 7~8종의 가락을 주로 사용하며, 구성은 대체로 12과장으로 한다. 다만 마을마다 그 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장소나 시간에 따라 일부 과장을 생략하기도 한다.

낙동농악은 농기수, 단기수, 영기수, 신목수, 호적수, 상쇠,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 법고, 무동으로 인원을 편성하며, 열두발사오는 상법구가 겸한다. 사물은 짝수로 편성하는데, 이는 음과 양의 조화를 고려한 것으로, 소고, 법구, 무동도 이와 마찬가지다. 특히 판굿의 구성에서 멍석멀이가 좌편돌이에서 시작해 중간에 우편돌이로 바뀌는 점은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정선군 남면 낙동리와 선평리 지역 농악이 전승되어온 과정은 상쇠 계보에 나타나는데, 김성진, 김이달, 신왕선 등의 웃대 상쇠들이 확인된다. 현재는 정선군 정선중고등학교 전통농악부 학생들이 낙동농악의 전승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 부산광역시 / 수영농청놀이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금상)
상금 5,000

수영농청놀이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그 명칭이 놀이로 되어 있으나, 소리가 주 종목이다. 수영은 1671년(현종12)부터 1894년 갑오경장까지 경상좌도수군절도영이 있던 곳이며, 수영강을 끼고 해변에 자리 잡은 대집단 공동체의 자연마을이었다.

이 지역은 8·15 당시만 해도 98%가 농민이었으나, 지금은 1가구의 농가도 없이 도시화가 이뤄졌다. 수영 사람들은 100여 년 전부터 공동작업의 조직화와 능률화를 위한 농청이 1960년대까지 존속했다고 하지만, 그 연원을 삼한시대 두레의 유풍이라 생각하면 고대로 소급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넓은 경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 인력을 극복하고자 일찍부터 두레 형식의 협동조합격인 농청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청원은 노동력이 있는 남녀로 구성되는데, 남자는 중노동을 위주로 하며, 여자로 구성된 내방청원[內房廳員]은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되, 모내기 철에는 모찌기와 모심기에 동원된다.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그 규율이 엄하므로, 만일 어기면 곤장으로 다스리고 심하면 추방했다고 한다. 수영농청놀이는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등 농요가 주를 이루고, 여기에 보리타작소리와 소싸움을 첨가한다. 이렇게 수영농청놀이와 농요는 엄격한 조직과 규율 속에서 운영되던 농청의 각종 작업 과정과 그에 따르는 민요들을 정리해 표현한 향토 예능이다. 특히 논농사의 작업들을 많이 반영해 농민의 생활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수영농청놀이는 '두레'의 일종이다. 두레는 지역에 따라 농사[農社], 농기[農旗], 농계[農契], 목청[牧廳] 등으로 불려왔다. 부산광역시 수영 지역은 고려 현종 때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개설한 이후 1894년 갑오경장으로 폐영[廢營]할 때까지 수군의 요새지였다. 지리적 특성으로 바다와 면한 수영성 동문 밖의 주민들은 어업과 염업에, 남북문 밖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했다. 따라서 생업 형태에 따라 좌수영어방놀이와 수영농청농요 등이 형성되었다.

영각수의 집합 신호에 따라 풍물패가 잠시 흥겹게 풍물을 울린다. 이 사이에 남녀 농청원은 놀이마당 입구에 행렬을 지어 선다. 행렬의 맨 앞에는 농청기와 농기를 앞세우고 영각, 호적, 꽹과리, 징, 장고, 북을 각각 하나씩 든 풍물패가 뒤에 선다. 이어 정자관을 쓴 양반이 따르고, 그 뒤로 검정소를 모는 소몰이, 쟁기를 지게에 진 농부, 누렁소를 모는 소몰이, 써레를 지게에 진 농부 순으로 선다. 그 뒤로는 가래를 어깨에 짊어진 목가래꾼과 줄가래꾼들이 따른다. 농청원들 뒤에는 내방청원인 부인들이 따른다. 이 가운데는 술동이를 이고 있는 한 사람과 함지박을 이고 있는 한 사람이 각각 포함된다. 행렬 맨 끝에는 도리깨, 풍석, 자루바가지, 대빗자루, 갈쿠리, 밀개, 대소쿠리, 키 같은 여러 농기구를 짊어진 농청원 한 사람이 따른다. 소리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찌기노래

1행이 3~4음절 4구로 된 2행시가 한 토막을 이루고, 선·후창으로 분창하니 선창은 독창이고 후창은 제창이다.
(선) "일월이 돋아와도……" (후) "매화대를 꺾어들고 ……"

2. 모심기노래

모찌기와 같이 주로 내방청원이 담당하며, 3~4음절 4구 1행이 앞뒤로 이어진다.

(선) “이논에다 모를심아 ……” (후) “우리부모 산소등에 ……”
모내기소리는 아침·중참·점심·후참·석양 등에 따라 가사와 가락이 달라진다.

3. 김매기노래

논김을 매는 남자들의 소리다. 북을 세 번 울리면 일제히 “에이 에이”를 두 번 하고, 앞소리가 “에ㅡ 헤ㅡ 아ㅡ 아” 라고 하면 뒷소리도 그 같이 하는데, 후창의 가사는 동일하다.

4. 보리타작소리

수영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하므로, 보리타작을 모내기와 동시에 한다. 가락은 1음보격으로 단조롭다.
(선) “어화” (후) “어화”(이하 동) (선) “때려라. ……”
모든 작업을 마치면, 동·서부로 나눠 소싸움을 하며, 판굿으로 끝맺는다.

수영농청놀이는 사라진 전통문화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되살린 것으로, 공동작업 과정과 농사노동요가 연희의 핵심이다. 도시화한 수영에서 농청이라는 농촌 자치 조직의 공동작업과 놀이 과정, 그리고 그들이 부르던 농요를 재현한 것은 이 지역의 음악적·민속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협동, 단결, 근면 등 공동작업에 깃든 조상들의 정신 유산을 전승한다는 의미도 크다.





● 대전광역시 / 웃다리농악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충남도지사(은상)
상금 4,000

웃다리농악은 충청도에 전해 내려오는 웃다리풍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웃다리풍물은 충청·경기 지역에서 전승되는 풍물을 가리킨다. 각 농악단 상쇠들이 1950년에 만들어진 남사당패에 관여했던 까닭에 충청권과 경기권의 풍물 구성이 서로 유사하다.

대전웃다리풍물은 조선시대부터 있었으며, 한밭(대전)에서는 두레패를 중심으로 두레풍물과 걸립굿이 성행했다. 고증에 따르면 1550년대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심복마을에서 액을 막아내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열렸다. 1700년대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물굿과 기원제가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19세기부터 최근까지 웃다리풍물은 고인이 된 송순갑, 이원보, 최성구, 양도일 등의 주도로 전승되었으며, 현재는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에서 전승을 책임지고 있다.

대전웃다리풍물의 칠채가락과 무동타기는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꽹과리가락이 섬세하고 경쾌하며, 긴장과 이완, 음악의 원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판굿의 대형변화가 다양하고 개인놀이와 전체합주에서 시작과 맺음이 정확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유성생명과학고는 1994년부터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기 시작한 이래 유수의 업적을 쌓아왔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는 그 전신인 유성농업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대전 지역의 웃다리농악을 전승하면서 웃다리농악 보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대전웃다리농악의 판굿을 중심으로 정리된 연행자료를 전승하고 있다. 전통적인 맥락의 웃다리농악을 찾아 지속해서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경상남도 / 고성오광대 / 철성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충남도지사(은상)
상금 4,000

고성오광대는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하는 탈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탈을 쓰고 태평소, 북, 장구, 꽹과리, 징 등의 음악 반주에 맞춰 춤을 추며 대사를 주고받는 민속연희[演戱]라고 할 수 있다.

고성오광대는 다른 민속가면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면을 쓴 연희자가 춤을 추고 동작을 하면서 대화와 노래를 곁들여 진행하는 탈춤놀이다. 춤은 굿거리장단에 따라 덧뵈기를 춘다. 남사당의 탈놀음을 덧뵈기라 부르는 것처럼 탈놀음 자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덧뵈기춤은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토속무[土俗舞]로 일자[一字] 사위와 활개춤이 주류를 이루며, 한 번씩 배기는 허튼춤이다. 등장인물 일동이 추는 춤은 과장을 나누는 구실을 하면서 주제가 다른 과장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실도 한다.

동작은 등장인물 성격에 맞게 연기하는데, 대체로 몸짓의 폭이 큰 과장된 표현을 한다. 대화는 흔히 재담[才談]이라 하며, 재치와 풍자적으로 가사를 고쳐 부르기 위주로 한다. 대사는 비교적 고정적인 구비관용구[口碑慣用句]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즉흥적인 말로 구성되어 있다. 연희 공간이 원형이라, 등장인물이 대화를 할 때는 빙 돌면서 같은 말을 몇 번 되풀이하는 경우가 잦아 반복적인 대화 표현이 많다. 노래는 사건의 줄거리와 관계가 있는 것도 부르고, 극적 분위기를 돋우는 것도 있다.

유래와 관련한 몇 가지 구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900년경 통영오광대 공연을 보고 고성 사람들이 재미있으니 우리도 한 번 해보자고 해 시작했거나, 통영오광대를 아는 사람이 고성에 와서 가르쳐 줬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촌파 인사들이 창원오광대에서 배웠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던 고성 주변에서 연희했던 오광대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주로 연희했다. 정월 초순에 일심계원[一心契員]들이 농악대를 편성해 고성 읍내의 각 가정과 상점을 돌며 걸립을 하면서 오광대놀이 비용을 마련했다. 공연하기 7~8일 전에는 도독골 산기슭에 있는 잔디밭에서 오광대 탈놀이 연습을 했다. 마을 전체의 행사이면서 구나의식[驅儺儀式]과 축원의 의미를 지닌 일종의 종교적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놀이 당일 저녁, 오광대패가 풍물을 울리며 읍내를 한 바퀴 돌고, 탈놀음 장소인 고성장터 넓은 마당으로 가서 밤새워 놀았다. 이 밖에 객사마당이나 무량리 잔디밭에서 놀이를 한 적도 있었다.

고성오광대도 다른 오광대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로 된 연희가 아니라, 주제가 다른 몇 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과장의 주제는 다른 오광대와 같으나, 앞뒤에 오방신장무[五方神將舞] 또는 사자무[獅子舞]와 같은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의식무가 없고, 주로 오락성이 강한 과장들만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1과장 '문둥북춤'

불구의 문등광대가 굿거리 장단에 맞춰 문등탈을 쓰고 등장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한다. 문둥북춤의 여러 동작은 슬픔과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삶의 중요한 부분들도 보여준다. 문둥북춤의 특징은 한을 표현하는 전반부와, 한의 승화를 표현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천형의 한을 드러내는 슬픔의 춤이 전반부를 이룬다면, 북과 북채를 쥔 채 한을 승화하는 기쁨의 춤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다.

제2과장 '오광대놀이'

문등광대가 퇴장하면 공연마당에 둥글게 앉아 있던 양반 광대들이 덧뵈기 장단에 맞춰 원 양반을 선두로 하여금 마당 안으로 뛰어들면서 모두 군무를 춘다. 특징적인 춤의 형태로는 배김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반들과 말뚝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배김새는 힘차면서도 조화롭다. '고개사위'하면서 가운데를 향해 '안쪽보기' 사위를 취하기도 하고, 바깥을 향해 '앉아배기기'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 과장에 정적이면서 동시에 동적인 우리 춤의 정수를 보여준다. 양반춤은 고성오광대가 민속 연희에서 보여주기 위한 공연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경우다. 말뚝이춤은 양반춤보다 보폭이 크고, 고개사위도 크다. 그래서 삶의 힘이 넘치는 존재로 그려진다.

제3과장 '비비'

제2과장에서 양반 여럿이 흥겹게 놀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잡아먹는 괴물 비비가 나타나면 양반들은 혼비백산해 도망친다. 그중 한 양반을 붙들고 마음대로 놀려대며 혼을 내는데, 비비가 갖은 횡포로 평민들을 괴롭히는 양반을 위협 조롱하면서 양반들의 등살에 쌓였던 울분을 풀게 하는 과장이다.

제4과장 '승무'

승려의 파계적 행동을 보여주는 과장이다. 선녀(소무에 해당)가 먼저 등장해 춤을 추고 있으면, 승려가 등장해 이어 선녀를 유혹해 함께 퇴장한다. 유혹하려는 존재가 먼저 등장해 유혹의 함정, 즉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 유혹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등장해 분위기에 휘말리는 개연적 공연이 되게 했다. 대사는 없고 승려의 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제5과장 '제밀주'

저밀주(첩), 큰어미(할미), 시골영감 사이의 갈등이 그려지는 과장이다. 큰어미는 물레를 잣는 등 노동으로 평생을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시골 영감이 가출했다가 귀가하면서 저밀주를 데려온다. 저밀주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큰어머니 손에서 떨어져 죽는다. 이를 본 저밀주가 큰어미를 떠밀어 죽게 한다. 이어 큰어미의 상여가 나간다. 큰어미 탈의 좌측 색깔은 녹색이고 우측은 고동색이다. 녹색 부분의 입은 위로 올라갔고, 고동색 부분의 입은 아래로 쳐졌다. 녹색은 젊음과 생산을, 고동색은 죽음을 의미한다. 고성오광대 공연에 철학적 깊이를 더한 과장이라 할 수 있다.

고성오광대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부단히 변화를 거쳐 왔다. 영남 지역 탈놀이의 역사가 대개 100여 년을 아우르는데, 그 근간을 유지한 채 현재의 모습을 완성한 것은 대략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성오광대는 그 형식과 과정에 천재적 예인 몇몇이 기여한바가 크며, 그들의 부단한 노력은 존경할 만하다. 노력의 결과로 춤도 다양하며 멋들어진다. 완성도 높은 공연물은 그 안에 반드시 개연적 연결고리를 포함한다.

고성오광대는 과장 간의 개연적 연결고리가 없는 대신, 오광대 전체를 아우르는 춤, 반주, 대사, 노래의 개연적 연결이 조화롭고 삶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다. 민속연희적 요소보다 공연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지만,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연결고리의 역할은 변함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 팽토소리 / 대정고등학교**

종목 민요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팽토소리'는 제주도 대정현에 전승되어오던 장례의식요다. 대정고등학교에서는 이번 대회에 제주도의 장례의식과 민요를 엮어 참가했다.

대정현은 옛날 많은 인사의 위리안치[圍籬安置]로서, 유배 문화의 중심지였다. 제주의 상례에서는 고인을 '토롱' 이라는 유택에 모시기 전까지 임시로 가매장하는 것을 미풍으로 삼았는데, 이는 대정현이 속한 삼읍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위생적이라고 평가받아온 장례 절차다.

이러한 토롱 풍습에 따라, 봉분이 완성될 때까지 서너 차례 봉토를 다지는 달구소리, 이른바 '팽토(평토)짓는 소리'가 있는데, 3소박 4박자의 이 민요는 "에 헤야 달구야" 후렴구를 부르며 망자의 극락왕생과 살아있는 자의 구복을 기원한다. 가사는 달구질하는 작업에서 힘을 권하는 내용,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내용, 인생무상, 집터 다지는 작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에서는 산 사람이 거주하는 집(양택)과 망자가 거주하는 집(유택 또는 음택)을 조성할 때 공히 터다지기를 한다. 장례전통에 따라 유택에 사자를 모시려면 우선 개광이라 해, 관이 들어갈 곳을 파고 하관을 한다. 그런 다음 흙을 덮어나가는 동시에 잔디(제주에서는 '때' 또는 '태역'으로 부름)를 입혀 나간다. 이 과정에서 서너 차례 다지기를 해 봉분을 튼튼히 만들면서 팽토소리를 불렀다.

제주도의 장례 의식이나 달구질소리인 팽토소리를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장례의식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재현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고등학생들에게 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임에도 열성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치하해야 할 것이다. 팽토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국립국악원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전라남도 / 고흥문굿 / 대서초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3,000

'고흥문굿'은 전라남도 고흥에 전해지는 매귀굿을 이르는 말이다. 전라좌수영 휘하 5관 5포 가운데 고흥에 1관 4포 진영이 운영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염포와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한 뒤, 매귀굿으로 군규를 다스렸다는 기록에 근거한다. 정유재란 때 우수영 해전에서 거둔 승리를 두고 민관병의 함성소리와 군악소리로 고금도진 성문을 열게 했다고 해 문굿으로 불렀으며, 고흥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문굿행사와 메귀굿을 꾸준히 전승했다.

일제강점기에 문굿은 군악으로 여겨져 탄압받았다. 이 시기 문굿은 농악으로 개칭되어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했다. 이후 1990년대부터 다시 고흥 지역 상쇠들이 모여 문굿 통합위원회를 결성, 구체적인 굿 진행과 가락이 정리되면서 악보로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흥문굿은 영기를 세우고 두 줄로 늘어서서 농악을 치는 형태로 진행한다. 문을 열기 위한 의식이 별도로 있는데, 이때 쇠잡이들의 동작과 상쇠가 문을 열기 위해 영기에 상모짓을 하는 절차가 특징이다.

고흥문굿은 호남좌도굿의 하나로 군악의 전통으로 매귀굿의 역사성을 갖춘 농악이다. 지역의 전통이 농악의 형태와 연계하면서 주요한 농악의 한 축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악의 형태가 고흥농악을 지키는 보존회뿐만 아니라 지역 초등학생들을 통해 전승되는 것은 의미가 매우 깊다. 특히 문굿의 과정이 매우 정밀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 지역 상쇠들의 모임 '문굿통합위원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 대구광역시 / 가루뱅이농악 / 조일공업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3,000

'가루뱅이농악'의 전승 지역인 용수동은 대구의 영산 팔공산 기슭에 있는 마을이며, 달리 '용천' 또는 '가루뱅이마을'로 불린다. 마을에는 지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 밑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 속에 용이 살았다고 한다. 굴 앞에는 용이 먹는 용수가 있어, 이 물을 먹고 용이 하늘로 승천해 이 지역을 용천동이라 불렀으며, 지금도 굴의 흔적과 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약 100여 년 전부터 칡넝쿨이 많다는 의미로 '갈방'으로도 불렀는데, 이것이 변해 지금의 가루뱅이가 되었다.

가루뱅이농악은 돈이나 곡식을 얻기 위해 행하는 걸립풍물이 아니라, 풍농과 안택 기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두레풍물이다. 선이 굵고 힘찬 북 장단과, 투박하면서도 흥겨운 쇠가락이 특징이며, 개개인의 기량을 펼치는 놀이와 전체 풍물꾼들이 무리지어 신명 나게 펼치는 놀이가 잘 어우러져 있다. 특히 상모잽이의 기량이 돋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명이 난다.

장단은 다른 풍물에 비해 다양하며, 전체적으로 조금 빠른 편이다. 이 농악의 주요 특징을 이루는 것은 '길살풀이'와 '뻑벅구놀음'이다. 길살풀이 장단은 예부터 전해진 것으로, 덧배기 장단의 흥겨운 춤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장단을 칠 때는 경상도의 허튼춤이 느껴진다. 뻑벅구놀음은 화려하면서도 빠른 움직임이 돋보인다. 가루뱅이농악 판굿은 다른 풍물에 비해 풍성한 맛이 있으며, 길굿에서부터 마지막 인사굿까지 다양한 진을 펼친다.

가루뱅이농악 판굿은 길매구, 모임굿, 물밀굿, 연풍굿, 싸움굿, 쌍진풀이, 길살풀이, 허허굿, 뻑벅구놀이, 굿거리, 오방진굿, 놀음판, 덕석말이의 순으로 진행한다.

가루뱅이농악은 다양한 진풀이와 다채로운 명칭이 토속적인 느낌을 더한다. 그 중에서도 빼어나게 발달한 벅구놀음이 눈에 띄는데, 그 연유와 다른 지역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광주광역시 / 호남우도농악 / 광주동신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공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호남우도농악'은 광주광역시 지산면에 전승되는 지산농악을 바탕으로 한 농악이다. 지산농악은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상류 새암 들녘에 있는 마을 '지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악을 재현한 것으로, 걸립굿, 두레굿, 마당밟기 등의 집단노동과 함께 굿으로 사용되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왔다.

호남우도농악은 느린 가락을 부드럽게 변화를 주면서 한가로운 듯한 박자감으로 연주를 시작해 흥을 돋은 다음 점차적으로 경쾌한 흐름으로 신명을 살리며 끝을 맺는 기승전결을 갖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자감이 다채롭고 다양한 가락을 구성하며, 쇠가락과 춤사위 발달로 놀음놀이에서 윗놀이 보다 밑놀이에 치중해 장구가락이 매우 발달했다. 개인놀이 또한 조화롭게 발달해왔다. 쇠놀이, 부포놀이는 그 기교가 다양하면서도 섬세하다.

이 작품은 영무장농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지산농악을 바탕으로 재현한 것으로, 그 전체 과정은 크게 네 마당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마당 '질굿'
내드름굿 일·이·삼채가락을 마친 후 일채로 입장해 오채질굿, 된오채질굿, 갖은일채, 벙어리삼채, 벙어리일채, 된삼채, 음매갱, 일채를 친다.

둘째마당 '오방진'
오방진[五方陳]의 오방[五方]은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에 진을 치는 것을 형상화해 덕석몰기로 진을 쌓아 연주하다, 가락을 난타로 털어서 앉았다 삼채가락으로 풀고 나온다. 이후 쇠꾼놀이, 쇠와 장구놀이 반삼채, 매도지가락으로 맺는다.

셋째마당 '허허굿'
허허굿은 원형진[圓形陳]을 만들고 열두마치(12채), 허허굿, 자진허허굿을 친다. 좌·우·진·퇴(좌우치기, 연봉치기)를 한 뒤 지심매기, 지신밟기, 콩등지기, 용틀임, 두줄치기, 좌·우·진·퇴, 가세치기를 한 다음, 개인놀이 대형인 'ㄷ'자진으로 치배들을 세운다.

넷째마당 '개인놀이'
치배들이 개인 기량을 한껏 보여주는 마무리 마당이다. 잡색놀이,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열두발상모놀이로 마무리하고, 인사굿을 한 다음 휘몰이로 퇴장한다.

동신중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사물놀이, 풍물놀이 등을 끊임없이 학습해 직접 전통민속을 찾는 과정을 지속해왔다.지역 농악을 통해 전통 민속을 찾고 학생들이 민속문화의 정수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라 하겠다. 이 학교 학생들을 통해 지산농악의 전통적인 형태가 잘 정리되어 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라북도 / 고창우도농악 / 고창성송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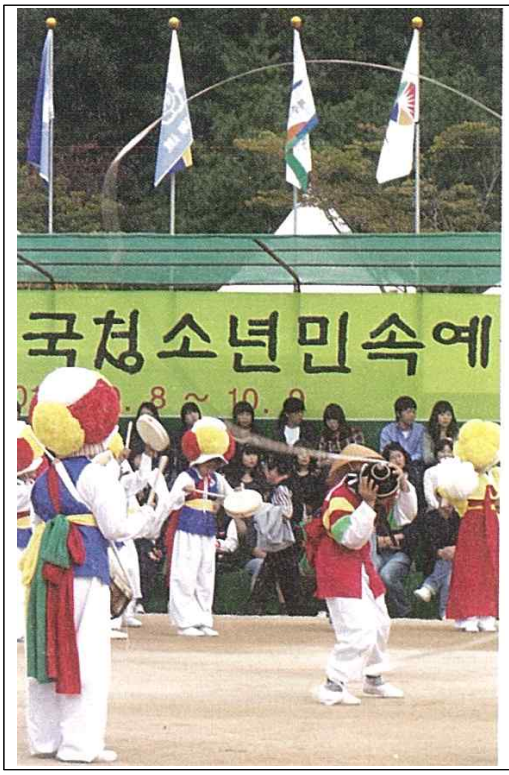
종목 농악
수상 공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고창농악'은 우도농악을 대표하는 농악 중 '영무장농악'으로 불리는 농악 가운데 하나다. 영무장농악은 영광, 고창, 장성, 함평 등지에 발달한 농악을 일컫는다. 호남우도농악 가운데서도 아랫녘 농악은 좀 느리고 웃녘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데, 그 중간 지역인 영광, 무장(고창) 지방은 간이 적당하다고 평한다. 판굿, 매굿, 풍장굿, 당산굿, 문굿, 샘굿 등 다양한 굿을 포함하며, 가락과 발림이 화려한 춤과 놀이가 발달해 있다.

고창농악의 가장 큰 특징은 쇠가락과 장구가락, 고깔소고춤, 잡색놀이에서 찾을 수 있다. 풍성하면서도 음악적 색깔이 짙어서 가락과 발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굿거리가락에 맞춰 몸짓하는 소고춤은 소고잽이의 멋이 제대로 드러난다. 또한 반굿거리와 된굿거리의 다양한 동작은 '꾸리북'이라고 하는 동작과 어우러져 고깔소고의 멋을 잘 보여준다.

1800년대 후반부터 그 명맥을 이어온 인물들이 확인되며, 해방 전후에 활발하게 활동한 이들이 고창농악의 현재 모습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형태는 1980년대를 거쳐 고창농악단이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으므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민속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우도농악보존회를 통해 고창농악의 전승이 꽃을 피우고 있다. 이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농악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성송초등학교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 범패와 작법무 / 문학정보고등학교**

종목 무용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범패와 작법무'는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노래와 무용을 일컫는다. 범패는 진리를 노래하고, 작법무는 춤으로 진리를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가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 차원에서 문학정보고등학교와 인천기계고등학교를 전수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문학정보고등학교가 출전했다.

범패와 작법무는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어 주로 사찰을 통해 전승이 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일반 학생들이 이를 전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아리랑상을 수상했다.





● 충청북도 / 음성거북놀이 / 삼성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천석 거북이 들어갑니다. 만석 거북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거북을 끌고 가는 질라아비가 정해진 집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부르는 거북이 노래다. 충북 음성군은 지역 대표 민속놀이인 '음성거북놀이'의 맥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193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놀이가 중단되어 기억에서 사라졌다가, 1980년대 주민들이 재현해 맥을 잇고 있다. 현재는 매년 향토 축제인 '설성문화제'에서 전통민속놀이 보존 행사로 재현되고 있으며. 해마다 충북민속예술제에 출전하고 있다.

거북놀이는 원래 아이들이 주동해 거북을 만들고, 집집이 다니며 마당놀이를 해준 대가로 방문한 집에서 음식과 쌀을 얻은 것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 놀이에 성인들의 농악이 개입하면서 그 구성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 그런 구성을 갖추게 된 것은 윤병준의 《음성거북놀이조사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다만 거북놀이가 언제부터 형성되고 전승되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거북과 관련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史]》에 수록된 《수로신화[首露神話]》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로신화에는 <구지가[龜旨歌]>가 전해지는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거북을 주술적으로 활용해 자신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거북놀이가 가진 거북 상징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거북이 용왕의 사자로서 물을 상징한다는 점은 농경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거북놀이를 연희한 지역은 감곡면 왕장리, 삼성면 용대리 밤개울, 소이면 갑산리 정주안 등이다. 추석을 지내면 주민들은 마을 공터나 광장에 모여 거북과 질라아비 복장 등 소품을 만는다. 거북은 한 해 풍요에 감사하며 수숫잎, 옥수수잎, 왕골, 볏짚 등을 이용해 성인 남자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든다.

거북놀이는 지신밟기처럼 길놀이, 문굿, 샘굿(용궁굿), 터주굿, 조왕굿, 마당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놀이대는 용기수, 질라아비, 어릿광대, 용기잡이, 농악대 등 주민 19명이 참여한다. 때에 따라 풍물 없이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다.

마을 공터에서 출발해 정해진 집에 도착하면 거북 노래를 부른 뒤, 집 안 우물에서 농악대 장단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춘다. 거북 노래는 시작부터 끝까지 풍년 기원과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달라는 기복[祈福]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장독대 터주가리(터주로 모시는 짚단)로 가서 터주굿을 마친 뒤, 부엌에서 조왕굿을 한다. 조왕굿을 끝내면 마당놀이를 이어가는데, 이때 집주인은 추석에 준비한 떡, 과일, 술 등을 접대한다. 놀이대는 덕담의 뜻이 담긴 거북 노래를 부른 뒤 다음 집으로 향한다.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에서 재현한 거북놀이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길놀이, 문굿, 샘굿, 터주굿, 조왕굿, 마당놀이 순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갑산리는 농악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거북놀이를 했다고 한다.

1. 길놀이

거북과 질라아비 복장 등 소품 제작을 마치면 거북 모형 안에 두 명이 들어가 거북 역할을 한다. 전

체적인 거북놀이 놀이대의 편성을 보면, 맨 앞줄에 용기수가 서고, 그 뒤로 농기수, 영기수, 질라아비·거북, 어릿광대, 의원, 남종, 여종, 머슴, 농악대, 구경꾼 순으로 선다. 길놀이 출발 장소는 마을 어귀나 마을의 큰 공터로, '길가락(좋다 가락이라고도 부르며, 칠채와 굿거리의 혼합 가락)'에 맞춰 미리 정해진 집으로 간다.

2. 문굿

정해진 집 문 앞에 도착하면, 농악대는 오방진 앞가락의 변형 가락을 치다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농악을 멈춘 후 문굿을 하는데, 이때 질라아비는 "천석거북이 들어갑니다 / 만석거북이 들어갑니다 / 문을 열면 만복(석)이 들어오고 / 땅을 쓸면 황금이 쏟아져 나오니 / 이댁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는 덕담을 한다. 덕담이 끝나 주인이 문을 열어 주면 거북을 앞세우고 놀이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

3. 샘굿(용궁굿)

집 안으로 들어선 놀이대는 집 우물로 가서 농악대의 칠채가락과 다드래기 가락, 휘몰이 가락에 맞춰 춤을 추다가 농악을 그친다. 이어 "용왕님! 용왕님! 사해용왕님, 동해용왕 광연왕 / 남해용왕 광덕왕, 서해용왕 광진왕, 북해용왕 광태왕 / 이댁에 샘물이 콸콸 솟게 해 주소서 / 동에는 청연수 남에는 정연수 / 서에는 백연수 북에는 흑연수 / 한가운데에 황연수 모아다가 / 이댁 가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 이물로 밥을 지어 잡수시면 / 일년 열두달 과년 열석달 / 삼백육십오일 내내 갈지라도 근심걱정 / 무안질병 삼재팔난 하나 없이 천지 점지해 주소서" 하는 질라아비의 덕담이 끝나면 농악대 상쇠가, "뚫러라 뚫러라 물구멍만 뚫러라" 하면서 꽹과리 장단을 치면 농악대가 크게 따라 후창한다.

4. 터주굿

샘굿을 마친 놀이대는 장독대나 장독대 옆의 터주가리로 가서 터주굿을 한다. 이때 농악대가 자진모리 가락과 휘몰이 가락을 치다가 멈추면 질라아비가, "말을 먹이면 용마가 되고 / 소를 먹이면 억대우가 되고 / 닭을 먹이면 봉황이 되고 / 개를 먹이면 마구할미 청삽사리 네눈박이 되어 / 이집문간 중방에 턱을 걸고 오시는 손님 받아들이고 / 가는 손님 불러들이고 / 컹컹 짖는 소리 / 이근방 만금복록 이 댁으로 무럭무럭 들어오게 해 주소서" 하고 덕담을 한다.

5. 조왕굿

터주굿이 끝나면 농악 가락을 치면서 부엌으로 가서 조왕굿을 한다. 부엌 문턱에서 질라아비가 거북에게 큰절을 시키면 농악대가 자진모리 가락과 휘몰이 가락을 치다가 멈추고, 질라아비가 "조왕님 조왕님 / 삼만육천 성주대신/팔만사천 제대조왕 / 삼불제석 산신님네 / 산신국사 토지지신 / 조상부모 혼령님네 / 조왕님 조왕님/검은 솥에 화식 익혀 먹을 때도/아무 거침없이 수복다남 부귀영화 누리게 하소서" 하면서 조왕굿 덕담을 한다.

6. 마당놀이

조왕굿을 끝내면 놀이대는 마당에서 한바탕 질펀하게 노는데, 이때 농악대는 좋다가락과 오방진가락, 칠채가락, 육채가락으로 흥을 돋우다 다드래기가락과 휘몰이가락으로 놀이판을 절정에 이르게 한다. 이쯤 되면 거북은 마당을 돌며 흥겹게 놀다가 쓰러지고, 질라아비가 거북이 쓰러졌다고 소리치면 놀이대 일행이 거북 주위로 모여든다.

음성거북놀이는 다른 지역에서 연희하는 거북놀이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여주·이천 지역 거북놀이에서는 거북을 만들면 먼저 거북에게 치성을 드린 후 거북놀이를 시작하는데, 음성거북놀이에서는 별도의 치성을 드리지 않는다. 둘째, 놀이대를 보면 음성거북놀이에는 여주·이천 지역 거북놀이에서 볼 수 없는 의원이 편성되어 있다. 셋째, 여주·이천 지역 거북놀이의 길놀이에서는 장승 앞에서 장승굿(성황굿)과 동네 우물에서 우물굿을 하는데, 음성거북놀이에서는 각 가정의 우물에서 우물굿을 한다. 넷째, 음성거북놀이는 여주·이천 지역 거북놀이 농악대에는 없는 재파리(자바라)를 사용한다.





● **경상북도 / 단석풍물 / 무산중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단석풍물'은 경주시 건천읍에 전해오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경북 지방의 전형적인 농악(농사굿)이다. 건천읍 일대는 동쪽으로 현곡면[現谷面], 선도동[仙桃洞]과 닿아 있고 서쪽으로 서면[西面], 산내면[山內面], 남쪽으로 내남면[內南面], 북쪽으로 서면, 현곡면[見谷面]과 경계한다. 인근 지역에는 마을을 처음 개척한 입향조들이 입구에 나무를 심고 동제를 지내기 시작한 데서 연유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건천읍의 각 마을은 약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월대보름 새벽에 한 해의 풍년과 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동제를 올리고 지신밟기를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평리[新坪理]에서만 동제를 지내고 있다. 동제가 제례 형태로 진행되고 나면, 마을 풍물패가 집집이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고, 지신밟기가 끝난 뒤에는 주민들이 모여 풍물을 치면서 신명 나게 논다.

건천단석풍물의 장단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뜬 농사굿과 밀고 당기는 싸움굿 등에서 나타나는 자진모리, 쌍진굿에서 보이는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 덕석말이때 치는 다드래기 등이 잘 어우러져 있다. 장단 가운데 풍물패가 이동을 할 때 길을 가며 치는 길매구장단과 흥겨운 길살풀이장단이 특이하다. 그리고 진은 양방향으로 감는 쌍진굿, 십자모양의 십자진, 오방진 등이 있다.

현재 건천단석풍물은 제관을 선출할 때 신내림을 받던 풍물굿, 지신밟기, 동제기가 끝난 뒤 주민들이 즐기던 풍물 등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현재 무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통적이 형태로 전승하고 있다. 무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풍물을 배우고 학교 생활이나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 지역사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건천단석풍물이 동제에 그 연원을 두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 농악대의 제의적 성격을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천단석풍물에 농사풀이를 포함하고 덧배기가락 등도 있어 전형적인 경상도 농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풍농을 기원하는 농사풀이와 길살풀이장단을 통해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것 또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경기도 / 웃다리풍물 / 문산제일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문산제일고등학교가 실연한 웃다리풍물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에 전승되는 두레굿으로, '파주교하두레풍물'이라 한다. 교하두레풍물은 경기 지역 웃다리농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교하리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농업과 어업이 발달했다. 특히 기름지고 넓은 토양 덕분에 발달한 농경문화 덕분에 두레굿이 전통적인 형태로 비교적 잘 전승되고 있다. 과거 파주에는 풍물과 도당굿 등 다양한 민속문화가 있는 가운데 마을마다 농악대가 있었으며, 현재 교하리, 와동리, 산남리 등 몇몇 마을에도 전하고 있다.

문산 지역의 농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쇠의 꽹과리 가락이 화려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의 교하두레풍물에는 웃다리 칠채가락과 육채가락, 덩덕궁이장단과 다드래기, 엇놀이가락 등 변화와 진풀이의 화려한 동작이 확인된다. 이는 문산 인근의 개성, 해주, 김포의 걸립농악과 판굿에서 영향을 받았고, 해주의 굿노리가락과 꽃풍장가락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하두레풍물은 보존회를 통해 전승에 힘쓸 뿐만 아니라, 문산제일고가 교하두레풍물을 전승해 이미 2006년도와 2008년도에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출전, 좋은 성과를 얻은바 있다. 이처럼 학교의 지원과 지역의 공동 노력을 통해 10년 가까이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하두레풍물에서는 제의 양식에 따라 굿패라는 풍물잽이들이 축제나 다름없는 가무사제 형식의 마을굿과 제관의 독축과 고사를 올린 후,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 등의 놀이를 주도했다. 전체 가락의 흐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치배들의 수준에 맞춰 상쇠가 주도한다. 실제 산신제와 지신밟기에서는 주로 일체, 자진이채, 사채, 길굿(굿거리), 삼채, 이채 순으로, 두레풍물에서는 일체, 도입장단, 사채, 길굿(굿거리), 마당삼채, 칠채, 육채, 자진이재, 일채 순으로 연행한다.

문산제일고등학교가 실연한 교하두레풍물은 웃다리농악의 전형적인 가락 구성으로 진행하면서도, 지역 공동체 의례와 연계하면서 전통적인 의례적 기능에 대한 분면 역시 잘 전승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교하두레풍물이 파주 농악의 지역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서울특별시 / 웃다리풍물 /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웃다리풍물은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통칭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 전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농악이 전승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확인된다.

서울·경기지역에 전승되는 웃다리풍물은 남사당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기량을 뽐내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가락으로 '길군악 칠채로'를 들 수 있고, 무동놀이가 매우 발달한 것을 그 특징으로 삼을 수 있으며, 화려한 버나와 살판 등의 놀이가 농악놀이에 재주를 더해 백미로 알려져 있다.

웃다리풍물의 판굿에는 보통 4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진풀이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생동감이 넘친다. 이때 농기와 영기, 오방기, 용기 등의 깃발이 앞장서고, 태평소(호적수)와 쇠, 징, 장구, 북, 법고, 무동 등이 뒤따르는 형태로 구성한다.

웃다리풍물이라는 일정한 형태로 놀이가 구현되고 있으나, 이는 대개 남사당패의 풍물놀이를 정리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의 농악적 면모는 아니다. 그러나 연예 농악이 가진 화려함과 다양한 기량으로 청소년이 접근하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이 풍물놀이를 우리 농악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제1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1.10.06~10.07,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우리 민숙예술을 위한 후대를 전승의 주체로서 양성하고 성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대회로, 우리 것에 대한 교육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함께 한다.

제1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 공원 잔디마당에서 개막공연 '벅수제'를 시작으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열렸다. 농악을 중심으로, 민속놀이, 의례, 가면극 등이 출품되었고, 총 15개 단체가 참가했다.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대구광역시 조일공업고등학교의 '가루뱅이농악', 강원도 정선중·고등학교의 '정선낙동농악', 충청남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웃다리농악', 전라남도 고성초등학교의 '조도닻배노래', 충청북도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청주신촌풍장', 서울특별시 서울정의여자고등학교의 '검무', 광주광역시 광주동신중학교의 '호남우도농악', 대전광역시 유성생명고등학교의 '웃다리농악',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고등학교의 '부산농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중앙고등학교의 '제주해녀노래', 경기도 양주백석고등학교 4-H회의 '양주들노래', 전라북도 남원학생농악단의 '남원농악판굿', 경상남도 신반정보고등학교의 '고성오광대', 경상북도 구미 오상고등학교의 '무을진굿', 인천광역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범패와 작법무' 등이다.

2. 참가 종목:

● 경기도 / 양주들노래 / 양주백석고등학교 4-H회

종목 민요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양주들노래는 경기도 양주군에 전승되는 논농사소리를 엮은 것이다. 양주백석고등학교에서는 이 노래를 학생들에게 교육해 2006년 제6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서 노력상과 개인상(선소리꾼 최선희)을 수상했다. 2008년 제7회 축제에 걸쳐 2010년 제8회 축제에도 출전해 대상과 지도자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번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에도 출전하기에 이르렀다.

양주들노래는 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리면서 음악을 위주로 재편한 소리다. 이번에 선보인 양주들노래는 다양한 들노래 중 논농사 과정에서 일과 놀이 및 소리가 적절한 대목을 간추려 압축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소모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마당너구리 순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모는소리

쟁기질과 써레질에 사용되는 소리를 말한다. 이 소리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다. 소에게 명령하는 명령어와 소리가 어우러지는 즉흥적이며 자유분방한 노래다.

2. 모심는소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모심는소리 계열의 송촌말 열소리를 노래한다. 가사가 하나, 둘을 세어 나가기 때문에 열소리라 부르며, 소리에서 양주 일대 특유의 맛이 우러난다.

3. 논매는소리

두레를 결성해 앳논, 두벌, 삼동매기 등 세 차례의 논매기 과정에서 과정에서 부르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논바닥에 들어서면서 하는 소리, 긴방아소리, 꽃방아소리, 훨훨이소리, 상사소리, 새날리는소리 순으로 구현했다.

(1) 논바닥에 들어서면서 하는 소리

논바닥에 들어서 일을 할 때 하는 첫 소리다. “군방님네” 라고 여러 소리꾼들을 부르는데, 다른 고장의 청령부르기와 상통한다.

(2) 긴방아소리

긴방아소리를 비롯한 자진방아, 꽃방아소리 등은 경기도 북부의 특별한 소리다.

(3) 꽃방아소리

꽃방아소리는 경기도 양주의 특별한 소리로, 많은 양의 후렴으로 사설을 메기는 소리다. 화려한 시김새와 굿거리장단의 능청거리는 박자가 경기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4) 훨훨이소리, 상사소리, 새 날리는 소리

논매기를 마무리할 때 부르는 소리로, 빠르고 경쾌한 맛이 있다. 이 소리는 경기도 전역에서 널리 불리는 소리다.

4. 마당너구리

고된 논일을 마치고 농악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장만한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하루의 노고를 풀고, 남은 신명을 달구면서 하는 뒷놀이라고 할 수 있다.

양주는 경기도에서도 많은 수의 논농사소리가 전승되는 지역이다. 소모는소리와 모심는소리뿐 아니라, 6곡의 논매는소리가 구성되어 악곡의 수나 음악적 다양성 측면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소모는소리는 박자나 선율이 모두 즉흥적이고 정형이 없는 것이어서 전승이 무척 어려운 곡인데, 이것을 청소년 팀에서 재현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대전광역시 / 웃다리농악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웃다리농악은 충청도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농악이다. 대전 지역에는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성행했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장승제 등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물굿 등이 있었다. 각 농악단 상쇠들이 전통을 이어오다가 1950년에 남사당패에 관여하면서 충청·경기 지역 풍물 구성이 서로 유사하게 이어져 왔다. 이를 1984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대전 웃다리농악은 꽹과리가락이 섬세하고 경쾌하고, 긴장. 이완의 원리, 음·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판굿의 대형 변화가 다양하고, 특히 아랫지방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무동춤과 칠채가락이 있으며, 개인놀이와 전체합주에서 시작과 맺음이 정확한 특징이 있다.

대전 지역 웃다리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장·인사
(2) 외돌림벅구놀이(멍석말이)
(3) 당산벌림
(4) 칠채 오방감기
(5) 소고 절굿대 놀이
(6) 십자놀이
(7) 사통백이
(8) 원 좌우 전후치기
(9) 4열 좌우 전후치기
(10) 개인놀이-상쇠, 장구, 소고, 무동, 열두발상모,
(11) 소고판굿놀이
(12) 인사·퇴장

유성생명과학고는 1979년에 유성농고 농악반이 만들어진 이래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물론 여러 풍물놀이 또는 농악대회에 참가하면서 유수의 업적을 쌓아왔다. 오랫동안 대전 지역 웃다리농악을 보존·전승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판굿을 중심으로 정리된 연행자료를 전승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맥락의 웃다리농악을 찾아 지속해서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경상북도 / 무을진굿 / 오상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금상)
상금 5,000

무을농악은 경상북도 내륙 지역인 구미에 전하는 농악으로, 구미 북서쪽에 위치한 수다사[水多寺]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0여 년 전 경북 구미 수다사[水多寺]의 스님 정재진(법명 미상)이 현몽한 일과 구전되어 내려오는 내용을 소재로 해 풍물가락을 만들어 인근 부락으로 전파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을농악' 또는 '무을진굿'으로 알려진 농악이다. 이후 이 가락은 이군선(본명 경춘, 1868년 8월 10일생) 상쇠가 집대성했다. 이군선 상쇠가 이름을 날리게 된 계기는 선산에서 큰 건립이 있을 때 그의 쇠가락과 놀이가 12마당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과 박수와 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이군선 상쇠의 제자로는 박희순, 최일영, 윤필선 등이 있는 데 전국의 많은 쇠군들이 쇠를 배우기 위해 무을을 찾았으며, 무을의 쇠가락은 다른 많은 이름으로 전국에 확산되었다.

무을농악 상쇠 계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정재진, 이군선 → 최일영, 박희순, 윤필선, 이남문 → 김신배, 김팔금 → 김칠봉 → 지창식 → 최무웅 → 박원용(현재)

무을농악보존회에서는 무을농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전형적인 전투 농악으로, 북가락이 웅장하고 장쾌하며 소고놀음이 발달해 있다.
- 우수한 예술성을 갖추고 있으며, 연행 과정이 힘차고 박진감이 넘치며, 행위가 다양해 영남 풍물의 진수다.
- 고깔은 크고, 작은 연꽃과 범나비로 장식되어 웅장하고 화려하며 재미있다.
- 전승 계보가 뚜렷한 풍물의 조형이다.

오상고등학교는 1997년 무을농악 전수학교로 지정된 이래 지속해서 무을농악을 전수해 경북지역 고등농악의 강호팀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상고등학교 풍물패 '다사리'는 현재 지도교사와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사리는 지속적인 무을농악 전수 활동을 통해 농악을 전공 삼아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이 다수 있다. 이에 전문적인 기량을 갖춘 연주자를 다수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차후 무을농악의 전통을 올곧게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 충청북도 / 청주신촌풍장 / 충북공업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청주신촌풍장'은 1992년 충북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청주농악의 모태로서, 그 전통성과 역사성을 자랑으로 삼는다. 신촌풍장에 대한 고로 풍물인들의 고증에 따르면, 신촌풍장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전승되었다고 한다. 본래의 청주신촌풍장이 "꽃피는 봄이 오면 논·밭을 일구어 씨 뿌리고, 가꾸어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풍년의 가을에 신명나고 춤추고 기뻐한다. 곡식을 방아 찧고 사방의 온 신들께 감사드리며 신명 나는 놀이로 이를 보답한 후 멍석을 말아 겨우살이로 넘어간다." 라는 표현과 같이 정월대보름, 두레, 백중, 추석 등이 시기에 풍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나, 점차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촌풍장은 돌무(상모)를 다른 지역 풍물에 비해 목덜미 쪽 가까운 뒤통수에 쓰는 특징이 있다. 이는 양사위를 연희할 때 더 큰 원을 하늘로 뻗치기 위한 것으로, 현란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투박하게 몸 가까이 바짝 붙여 양사위를 그리는 돌무(상모)짓을 신총풍장에서는 보물로 여긴다. 특히 신촌풍장에서는 전국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상모의 긴 초리(물체)의 발상지로, 전국의 풍물 명인들에게 확인되었음을 중요한 자랑거리로 삼는다.

신촌풍장의 장단은 다양한 고유명칭을 사용되는데, 곤나비장단(자진모리), 자드래기(자진가락), 두마치(이채, 휘모리), 질곤애비(칠채), 마당일채(육채), 춤장단(굿거리), 날풍장(굿거리), 쩍찍기(쩍쩍이) 등이 확인된다.

청주신촌풍장의 판제는 갈지자굿, 원인사, 꽃봉우리(돌림벅구), 써레질, 네줄좌우치기, 쌍줄백이, 농사풀이, 오방감기(질곤애비), 춤마당(날풍장,굿거리), 쩍찍기, 십자걸이, 연자방아진, 사통백이, 쌍줄백이, 벅구절구놀음, 개인놀음, 멍석말이, 인사 순으로 진행한다.

농악의 전승을 잇기 위해서는 지역 후속세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충북공고가 학생들에게 청주 지역에 전승되는 다양한 민속놀이와 농악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문화의 뿌리에 해당하는 농악을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경상남도 / 고성오광대 / 신반정보고등학교

종목 가면극
수상 전남도지사(은상)
상금 4,000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는 경상남도 고성 지역에서 전승하는 가면극으로, 1964년 12월 2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가면극을 '야류([野遊]'라고 부르고, 서쪽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가면극을 '오광대[五廣大]'라고 부른다. 오광대는 다섯 광대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이름이 붙은 것이며, 초계, 신반, 통영, 고성, 가산, 마산 진동, 가락, 거제, 진주, 산청, 학산, 도동, 서구, 남구 등지에서 전승했다.

고성오광대는 주로 정월대보름날 저녁에 연행되었는데, 보통 일주일 전에 도독골 산기슭에 모여 연습을 했다. 놀이판으로는 장터, 무량리 잔디밭, 밤내, 객사[客舍]마당 등을 사용했다. 장작불을 피워놓고 놀았으며, 인근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과 함께 즐겼다. 앞놀이에 해당하는 걸립이 있기도 했으나, 비용은 주로 연희자 자신들이 조직한 일심계[一心契]에서 부담했다. 그만큼 오락 성격이 강했다.

고성오광대는 본래 서울의 산대놀이에서 분파된 가면극에 속하지만, 해서탈춤이나 산대놀이와는 다른 경남 지방 공통의 향토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고성오광대의 춤사위는 경남의 향토 민속춤인 덧배기춤을 기본으로 하며, 과장의 구성도 산대놀이와 다르다. 또한 경남 지방의 다른 오광대나 야류와 같이 병신춤인 문둥이과장과 영노가 양반의 정체를 확인하는 내용의 영노(비비)과장이 있다. 또 파계승과장의 내용이 간단하고, 할미가 죽으면 봉사가 독경한 후 상여소리를 부르며 상여를 내가는 등 경남 지방 가면극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고성오광대 놀이는 민중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며, 양반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 그리고 처와 첩 간의 갈등 등을 다룬다.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조롱은 매우 신랄하지만, 파계승에 대한 풍자는 약한 편이다.

유래와 관련한 몇 가지 구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900년경 고성사람들이 통영오광대 공연을 보고 재미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해 시작했거나, 통영오광대를 아는 사람이 고성에 와서 가르쳐 줬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촌파 인사들이 창원오광대에서 배웠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던 고성 주변에서 연희되었던 오광대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오광대도 다른 오광대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로 된 연희가 아니라, 주제가 다른 몇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마당 '중춤'
중과 각시가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중이 각시를 유혹하고, 각시는 마주 보며 그에 응하는 요염한 춤을 춘다.

제2마당 '문둥이'
오그라진 손으로 소고[小鼓]를 들고 등장해, 벌벌 떨면서 문둥이 흉내를 내며 춤을 춘다.

제3마당 '오광대'
양반이 위엄을 부리고, 마부인 말뚝이에게 인사를 강요하지만, 말뚝이는 반항한다. 양반이 말뚝이를 윽박지르면 슬그머니 말을 돌려서 변명하고, 양반은 그것을 듣고 속아 더욱더 바보스럽게 된다. 다른 지방 오광대의 양반마당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4마당 '비비'

비비는 무엇이든지 잘 잡아먹는 상상의 동물로, '영노'라고도 한다. 고성오광대에서는 호드기와 비슷한 것을 불어 "비ㅡ비ㅡ" 하고 소리를 내며 양반을 혼내기 때문에 '비비' 또는 '비비촐촐이'라고 한다. 이 마당은 다른 지방 오광대의 영노마당에 해당한다. 비비가 양반을 만나 무엇이든지 잘 잡아먹는다고 위협한다. 양반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양반이라고 하자, 비비가 양반은 더 잘 잡아먹는다고 한다. 양반이 궁여지책으로 너의 할아버지라고 하니, 비비는 잡아먹지 못한 채 욕설만 하고 서로 어울려 덧뵈기춤을 추고 퇴장한다.

제5마당 '제밀주'

본처인 할미가 등장해 집을 나간 영감을 찾아다니고, 영감은 제밀주(혹은 제밀지)라는 첩을 데리고 나타난다. 제밀주가 득남하고 할미가 그 아이를 어르다가 떨어뜨려 죽여서 제밀주에게 맞아죽고, 할미의 상여가 출상한다. 이것은 다른 지방 오광대의 영감·할미마당에 해당한다.

다른 지역의 오광대나 야류와 같이 고성오광대에는 병신춤을 추는 문둥이과장과 정체확인형식의 영노(비비)과장이 있다. 또한 고성오광대의 파계승과장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간단하며, 제밀주과장에서는 할미가 죽으면 봉사가 독경을 한 후 상여소리를 부르며 상여를 내가는 등 경남지방 가면극 공통의 향토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런데 고성오광대는 다른 오광대나 야류에 비해 말뚝이의 대사량이 적은 편이고, 양반들의 비정상적인 모습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예전에는 대개 정월대보름날 객사(고성읍 동해리 소재) 마당이나 시장 거리에서 오광대를 놀았다고 하며, 그 외에 봄에 꽃이 필 무렵이나 단옷날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들 때도 놀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로 보아 고성오광대는 신앙적 성격이 약하고, 오락적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 전라남도 / 조도닻배노래 / 고성초등학교

종목 민요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3,000

'조도닻배노래'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일대에 전승되는 닻배소리다. 2006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 종목이다. 닻배는 큰 닻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닻배라 부르는데, 닻그물이라고도 하고, 정선망이라고도 한다. 자망의 한 종류로 일자 형식을 취하고 있어 조기가 그물코에 꽂혀서 포획된다. 주로 조기잡이를 위해 서해안 일대를 누비며 멀리 항해를 했던 배다. 닻배는 그물도 손수 굵게 짜서 큰 조기만 잡혔으므로 어떤 어항에서든지 대우가 좋았고, 일부 섬 사람들은 이런 환대를 받기 위해 닻배를 타기도 했다. 만선이 되기까지 약 100일 정도 어업을 해야 했으므로, 3개월 치 정도의 음식과 술동이를 싣고 2월 초에 출항해 5월 말경에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닻배노래가 성행하게 된 것은 약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로 소흑산도, 연평도, 어청도, 안마도, 칠산 앞바다 등지에서 조업을 했는데, 조기잡이 그물을 싣는 것부터 조기를 잡아 포구를 돌아오는 과정 중 협동의 능률을 올리고 노동의 고달픔을 극복하고자 어부들이 즐겨 부르게 되었다. 닻배노래의 특징은 서해에서 조기잡이 어선들이 같은 어장에서 작업하다가 서로의 노래가 섞였다는 점인데, 남도의 육자배기토리와 서도의 난봉가토리가 섞인 배치기소리 계열이 바로 그것이다.

닻배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거나 내릴 때, 또는 닻배를 이동할 때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을 닻배노래라고 한다. 어로 작업은 주로 왕등도와 칠산도에서 이뤄졌는데, 상고선을 부르거나 휴식을 취할 때 닻배 안에서 풍장과 닻배노래를 하면 주위의 모든 배가 닻배노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한다. 닻배노래는 창자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뱃동무면 누구나 앞소리에 참여할 수 있고 뒷소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교환창과 제창, 선후창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 고사지내기

소리꾼: 고사북을 울려라(둥둥둥～～～～)
동에는 청제용왕, 서에는 백제용왕, 남에는 적재용왕, 북에는 흑제용왕,
중앙에는 황제도살님 아무쪼록 우리 닻배에 팔뚝만한 조구만 코코마다
주렁주렁 걸리게 해주십쇼.

2. 기와소리(늘어진 삼채가락)

(받는소리) 기와자 좋네 어허 어허 어어허 기와자 좋네
(메기는소리) 돈실러 가자 돈실러가 칠산바다로 돈실러가자
배임자 마누라 열 두 폭치마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칠산 바다에 들어온 조구 우리배 그물로 다 들어 오니라

3. 느린술비소리(중모리)

(받는소리) 어야 술비야 어어허어 술비야
(메기는소리) 우리배 그물은 삼천발이요
남의 배 그물은 오백발 이로다
이제나 가면은 언제나 올거나
망중살 되며는 돌아를 온단다
밀려오는 저 파도는 창해용이 설레이고
뱃삼에 부딪히는 저 파도는 은빛이 찬란허구나

4. 술비소리 (중중모리)

술비소리에 맞춰 그물을 올린다. 느린 소리로 시작해 자진술비소리를 하면 그물을 걷어 올린다.

(받는소리) 어야 술비야 어야 술비야 어기야 술비야
(메기는소리) 이 그물 실어 돈 많이 벌면 우리배 배임자 어깨 춤추고
배임자 마누라 궁실춤 춘다 어기야 술비야 어야 술비야

5. 자진술비소리(자진모리)

(받는소리) 어야 술비야
(메기는소리) 앵필이도 걸려 주고
개필이도 걸려를 주소
쌀조구도 걸려 주고
장대빡대 걸려 주고 꼭대 말뚝이 걸려 주소
민어 상어 걸려 주면
그 누구가 마다 할까
어야 술비야

6. 어기야소리(느린굿거리, 서도민요풍)

(받는소리) 어기야 어기야 듸야
(메기는소리)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건너 백로를 가자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오대광신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잘 사는 데 요놈의 팔자 무슨 놈의 팔자로
죽은 나무 까꿀로타 고서 오늘도 어기야 내일도 어기야

7. 노젓는소리(굿거리)

(받는소리) 어엉차~~ 어 엉차아~~ 흐여라 자차 흐어어어어 어엉차 어엉차~~
(메기는소리)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물 따라 나는 간다
이제가 면 언제나올꼬 망중살 되면은 돌아를 온다
앞산은 점점 가까지고 뒷산은 멀어만진다

8. 자진노젓는소리(자진모리)

(받는소리) 어엉~~차
(메기는소리) 빨리 저어라 더 빨리 저어라 한살물 간다 힘차게 저어라
한살물에 노가 빠지면 우리는 죽는다 힘차게 저어라
여기가 어디냐 칠팔도다 풀등이 있으니 조심해라 바람이 분다 돛 달아라

9. 기와소리(늘어진 삼채가락)

만선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며 부르는 노래다. 서해안 일대에 전승되는 배치기소리 계열이며, 황해도 민요였던 것이 남도 민요가 된 곡이다.

(받는소리) 어 어어화 어화요 어 어화 어화 어어화 어어 어화 어화요
(메기는소리) 돈 실었구나 돈 실었어 우리 집 닻배에 돈 실었구나
배임자 마누라 열 두 폭 치마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배임자 마누라 술동우 이고 발판 머리서 궁실춤 춘다

10. 산아지타령(세마치, 중모리)

집으로 돌아와서 만선의 기쁨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부르는 노래다.

(받는소리)　　에야 듸야 에에에 에야 에야라 듸여라 산아지로구나

(메기는소리)

갈매기는 어디가고 물드는 줄을 모르고 사공은 어디 가서 배 뜨는 줄을 모르나

바다에 저고기는 오리간장을 녹이고 뒷집에 큰 애기는 요네 간장을 녹인다

한국 최남단 보배섬 진도 인심이 좋아서 살기가 좋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진도의 고성초등학교에서 이 소리를 전승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진도 일대에 있는 닻배는 다른 서남해안 지역에서 특화되지 않은 독특한 어로방식으로, 여기에서 불리는 민요 역시 독창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출전한 것도 드문 일이라 더욱 주목할 만하다. 조도닻배노래는 이번 대회에서 국립민속박물관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강원도 / 정선낙동농악 / 정선중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정선낙동농악'은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 전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농악으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전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정월 초 서낭굿을 할 때는 고려 말 충신7분(거칠현)의 혼령을 함께 모시는 색다른 전통이 전해지고 있다.

강원도 낙동농악은 악기, 편성, 가락, 판굿의 구성이 영동 지방 농악과 일부 유사하나, 멍석말이가 좌편돌이로 시작해 중간에 우편돌이로 바뀌는 것은 다른 지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향토적 특색이다. 쇳가락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온바, 그 흐름이 빠르면서도 강하고 경쾌해 옛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가락 7~8종을 주로 사용하며, 놀이 과장은 대체로 12과장이다. 이는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 치배의 수를 짝수로 편성하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한 것이며, 소고, 법구, 무동도 음양의 조화를 위해 짝수로 편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선중고등학교(교장 탁창식, 사진)는 학생 40여 명이 함께 농악대를 구성, 정선낙동농악 등 정선의 문화와 전통이 녹아있는 농악을 계승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예술제에 참가해 입상하는 등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농악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정선아리랑을 가르치는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직접 익히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을 일깨우고 있다.

정선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수한 낙동농악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장굿(시작굿)
모임채가락으로, 전 대원이 모여 4채가락에 맞춰 호흡을 맞춘다.

2. 12채질꼬내기
낙동농악에만 있는 특별한 가락으로, 굿거리와 비슷하나 가락과 맛이 전혀 다르다.

3. 인사굿
원형으로 둘러서서 관객에서 먼저 인사하고, 특이하게 대원 간에도 인사를 나눈다.

4. 4채멍석말이
민 멍석말이라고도 하는데, 빠른 4채가락으로만 멍석말이를 한다.

5. 서낭굿
서낭신을 모시고 서낭굿가락을 치면서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 풍년농사 들을 기원한다.

6. 3채멍석말이
3채, 5채, 2채의 가락을 화려하게 사용하며, 법구잽이의 삼심일사 채상놀이는 다른 지방에는 없는 특수한 놀이로, 낙동농악에만 전해지고 있다.

7. 잽이놀이
큰 원안에 작은 원을 만들어 소고, 법구, 무동, 풍물 순으로 잽이 기량을 선보인다.

8. 농사놀이

원래 가래질, 풀썰기, 논갈기, 씨뿌리기, 모찌기, 모심기, 낫갈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하기, 볏가마나르기, 낫가리가리기 등 12장면이 있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선보인다.

9. 황덕굿

농사를 마치고 마을 주민이 한데 모여, 황덕불을 피워놓고 동고리를 받으며 풍년을 자축한다.

10. 12발상모놀이

닥지를 12발로 길게 이어 붙인 상모를 쓰고, 개구리 마당뛰기, 사사, 양사, 일사 등의 기량을 선보인다.

11. 12채멍석말이

4채로 멍석을 말고 나서 12채가락을 치면서 흥겹게 춤을 춘다. 하늘에 감사하고 풍년의 기쁨을 한껏 누리는 것으로, 이 또한 낙동 농악에만 있는 특색 있는 장면이다.

12. 마침굿

모든 굿을 마치고 관객과 잽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퇴장한다.

정선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승하는 낙동농악은 서낭굿의 전통과 농사풀이의 전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 농악의 특징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강원 지역 민속문화에 대한 전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광주광역시 / 호남우도농악 / 광주동신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여수시장(장려상)
상금 2,000

호남우도(지산)농악은 광주광역시 지산면 일대,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상류 새암 들녘에 인접한 마을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농악을 재현한 것이다. 전형적인 두레 농악인 두레굿, 마당밟기 같은 집단노동과 함께 걸립굿으로 사용된 농악 전통의 맥을 이어 왔다.

이 농악은 느린 가락을 부드럽게 변화를 주면서 한가로운 듯한 박자감으로 연주를 시작해 흥을 돋은 다음 점차적으로 경쾌한 흐름으로 신명을 살리며 끝을 맺는 기승전결을 갖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자감이 다채롭고 다양한 가락을 구성하며, 쇠가락과 춤사위 발달로 놀음놀이에서 윗놀이 보다 밑놀이에 치중해 장구가락이 매우 발달했다. 개인놀이 또한 조화롭게 발달해왔다. 쇠놀이, 부포놀이는 그 기교가 다양하면서도 섬세하다. 북놀이와 고깔소고놀이는 타 농악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구성진 몸짓과 발놀음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특히 지금은 사라져가는 고깔소고가 잘 전승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호남우도농악은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 공로상을 받은 광주지산농악을 토대로 재현한 것이다. 그 구성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드름과 입장굿
입장하기 전에 일·이·삼채가락과 휘모리(일채)가락을 치면서 입장하는 데, 반시계방향으로 원진을 하다가 난타를 치면서 안을 보고 선다.

2. 인사굿
인사굿을 한 번 치면 바깥쪽 관객을 향해 서고, 인사굿을 또 한 번 치면서 인사를 한다.

3. 오채질굿
질굿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원진한다.

4. 된오채질굿
오채질굿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던 것을 상쇠의 신호가락으로 된오채가락을 연주하면서 시계방향으로 원진한다.

5. 갖은일체굿(풍류굿)
시계방향으로 된 오채가락을 치며 진행하다 반시계방향으로 바꿔 갖은일채가락을 치면서 동작한다.

6. 벙어리 삼채와 일채일체
원진을 하던 상쇠가 진을 바깥쪽으로 돌아 시계방향으로 원진하다, 다시 진 바깥쪽으로 돌아 반시계방향으로 돌다 원이 만들어지면, 각각 갈 지[之]자 진법을 구사하면서 원진한다.

7. 오방진·진오방진
느린 오방진가락을 치며 원진하다가 진오방진 가락으로 바꾸면서 점점 빠른 가락으로 동·서·남·북·중앙에 덕석몰이진법으로 진을 친 후 모두 자리에 앉는다.

8. 늦은 삼채
전 대원들이 일어서서 덕석몰이를 풀고 반시계방향으로 원진한다.

9. 삼채(구정놀이)
상쇠와 쇠꾼들이 안으로 들어가 양 일자 대형으로 서서 구정놀이를 한 다음, 짧은 매도지가락으로 가락을 맺으면 장구가 안으로 들어가 장구와 쇠잽이 들이 마주 보고 서서 삼채가락으로 논다. 이후 이들이 시계방향 옆걸음으로 돌면, 바깥 원을 돌던 치배들이 시계방향 옆걸음으로 돌다가 긴매도지가락으로 가락을 맺는다.

10. 열두마치(12채)·허허굿
인사굿을 친 다음 쇠꾼들이 진굿을 치면서 을자진 형식으로 안으로 들어간다. 장구들 앞에 앉아 12채를 친 다음 허허굿을 치면서 원으로 합류한다.

11. 좌우진퇴·연봉치기
잽이들이 상쇠 가락에 의해 '우로 이동' 신호하면 좌로 이동한 다음, '안으로 전진' 상쇠의 신호를 들은 후, 앉고 서고를 2회 반복하고 퇴진한 다음 반시계방향으로 원진한다.

12. 곡심심기와 김매기
모두 허리를 구부리고 곡식을 심는 형태와 앉은 걸음으로 김매기를 하며 원진한다.

13. 콩등지기
콩다발을 서로 바꿔지듯이 서로 등을 대고 짊어지는 형태를 보여 준다.

14. 콩꺽자(용틀음)
치배들이 앉아 있을 때 상쇠부터 순서대로 일어서면서 을자진으로 치배들 사이로 다닌다.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1열 종대 원진을 2열 종대 직진으로 전환한다.

15. 좌우진퇴와 두줄치기
두 줄로 선 치배들이 양쪽으로 벌어졌다 원 위치, 뒤로 퇴진하다 전진해 원 위치에 선 뒤, 양쪽으로 두 줄 치기를 한 다음 마주 보고 선다.

16. 가세치기와 미지기
두 줄이 서로 마주 보고 직진해 상대방 사이로 통과한 다음 미지기를 한다.

17. 구정놀이
잡색놀이,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12발 상모를 한다.

18. 퇴장
일채를 치면서 원진하며, 인사굿을 하고 퇴장한다.

광주동신중학교는 2000년부터 학생들이 전통민속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특히 2010년부터는 광주 지역의 지산농악을 통해 학생들이 전통 농악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전통 농악이 동신중학교 학생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매우 고무적이며, 이에 전통의 기틀을 단단히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農者天

● 전라북도 / 남원농악판굿 / 남원학생농악단

종목 농악
수상 여수시장(장려상)
상금 2,000

남원농악은 호남 지역의 좌도농악을 대표한다. 남원농악은 본래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독우물)의 농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남원 '독우물굿' 계보에 속한다. 소박한 마을농악이었던 독우물굿이 해방을 전후로 고 류한준(1900-1952) 상쇠가 연예농악을 연행하는 이들과 교류하면서 좀 더 세련된 형태의 농악으로 발전해 현재에 이르렀다.

남원농악은 윗놀음이 다양하고 좌도농악이 수준 높은 단계까지 발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좌도농악의 전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락, 진법과 놀음새로 세련된 형태를 보인다. 또한 느린 가락과 빠른 가락이 뚜렷하면서도 그 변주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남원농악의 실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마당 '풍류굿'
굿거리와 삼채로 판굿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마당 '채굿'
일채부터 칠채까지 구성되는 채굿으로 판을 다지면서 치배들의 군사훈련적 성격을 보여준다.

셋째마당 '진풀이, 호호굿, 미지기'
진풀이에서는 다양한 동살풀이 장단의 변주와 진법이 어우러지고, 이어지는 호호굿은 치배들의 중간 점호 과정을 나타내며, 상쇠의 쇠발림이 일품이다. 마지막에는 쇠잽이들의 부포놀음과 치배들의 통일된 동작이 탄성을 자아내며, 미지기로 마무리한다.

넷째마당 '재능기'
쇠, 소고, 장구, 열두발상모 순으로 분야별 개인기를 선보인다.

남원농악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류한준-강태문-류명철 계보로 전승되고 있다. 좌도농악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남원시립농악단을 통해 안정적인 전승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반부 남원시립농악단과 함께 남원학생농악단이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농악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농악단 활동은 평생에 남는 기억이 될 것이며, 때로는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인천광역시 / 범패와 작법무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종목 무용
수상 여수시장(장려상)
상금 2,000

'범패와 작법무'는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노래와 무용을 일컫는다. 범패는 진리를 노래하고, 작법무는 춤으로 진리를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가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 차원에서 문학정보고등학교와 인천기계고등학교를 전수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인천기계고등학교가 출전했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 소속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발우공양은 전체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사물

잠든 새벽의 영혼을 깨운다. 지옥중생 제도하는 범종, 물속중생 천도하는 목어, 허공중생 제도하는 운판, 세간중생 지혜 얻길 발원하는 법고 등 법사물 연주를 하면서 무대 안으로 들어온다. 헌향을 산화락 쇄향수를 비롯한 법공양이 뒤를 따른다.

2. 전발게(법고춤)

발우를 펼치고 공양 준비를 마친다. 두 눈에는 도업 성취를 위한 눈빛이 성성하다. 중생제도 위한 법고춤의 환희가 이어진다.

3. 발우공양(향화게 나비춤)

꽃과 향으로 세간을 장엄하고 나비춤 한 자락 춤을 춘다. 애벌레는 나비의 전신 고치를 깨고 나온 기쁨, 열정과 환희를 춤으로 표현하는 해탈무 한 자락 펼쳐 보인다.

4. 탐욕의 강 건너(명발 바라춤)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로 청한다. 천둥소리 같고 번개와도 같은 바라의 큰 울림은 금모사자의 표호와 같은 것. 된 것, 잡된 것을 모두 제거하고 탐욕의 강 건너 진리 땅에 살게 하라는 기원을 담은 춤을 춘다.

범패와 작법무는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어 주로 사찰을 통해 전승이 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일반 학생들이 이를 전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불가에서 전해지는 의례를 학생들이 직접 수련함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 자신들을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특별시 / 검무 / 정의여자고등학교

종목 무용
수상 여수시장(장려상)
상금 2,000

검무의 시작은 신라시대 '황창랑'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백제의 왕을 시해하고자 왕의 앞에서 칼을 들고 춤을 추던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6명이 무대에서 2열 종대로 서서 추다가 움직이면서 짝을 만나 동작한다.

2. 마주 보고 서서 칼을 놓고 의식을 행하는 춤으로써, 서로 흥을 돋우면서 춤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며, 칼을 들고일어나 춤을 시작한다.

3. 둘이 짝지어 만남과 헤어짐을 하면서 앞으로 뒤로 상반되게 왔다 갔다 한다. 마치 적군과 싸우는 듯한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춤을 이어간다.

4. 이어서 원을 그리면서 주고받듯이 춤사위를 계속한다.

5. 마지막으로 칼을 앞으로 펼쳤다가 칼을 위로 올렸다 내리면서 인사하며 춤을 끝낸다.

그동안 평양검무와 해주검무 등이 주로 출전했으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시 대표로 참가한 정의여고 학생들이 검무를 처음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아리랑상을 수상했다.





● **대구광역시 / 가루뱅이농악 / 조일공업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가루뱅이농악'은 대구의 영산 팔공산 기슭에 있는 용수동이란 마을에서 예부터 전승되어온 농악이다. 용수동은 달리 '용천'이나 '가루뱅이마을'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마을에는 지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 밑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 속에 용이 살았다고 한다. 굴 앞에는 용이 먹는 용수가 있어, 이 물을 먹고 용이 하늘로 승천해 이 지역을 용천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가루뱅이농악은 이 마을을 개척한 배 씨와 구 씨가 마을 입구에 나무를 심고 제사(동제)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행했다고 한다. 가루뱅이농악은 돈이나 곡식을 얻기 위해 행하는 걸립풍물이 아니라, 풍농과 안택 기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두레풍물이다. 장단은 다른 풍물에 비해 다양하며, 전체적으로 조금 빠른 편이다. 이 농악의 주요 특징을 이루는 것은 '길살풀이'와 '뻑벅구놀음'이다. 길살풀이 장단은 예부터 전해진 것으로, 덧배기 장단의 흥겨운 춤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장단을 칠 때는 경상도의 허튼춤이 느껴진다. 뻑벅구놀음은 화려하면서도 빠른 움직임이 돋보인다.

길굿에서부터 마지막 인사굿까지 다양한 진들이 펼쳐지고 각각의 잽이들은 진이 바뀔 때마다 흥겹게 놀이를 한다. 특이한 점은 양쪽으로 진을 감는 '쌍진풀이'가 있다는 것이다. 가루뱅이농악 판굿은 길매구, 모임굿, 물밀굿, 연풍굿, 싸움굿, 쌍진풀이, 길살풀이, 허허굿, 뻑벅구놀이, 굿거리, 오방진굿, 놀음판, 덕석말이 순으로 진행한다.

가루뱅이농악은 두레풍물이지만, 가락이 무척 빠르고 상모놀음이 화려하다. 길살풀이와 물밀굿 등 토속적이면서도 고유한 장단과 진풀이에 높은 가치를 둘 수 있지만, 다양한 진풀이와 놀이에 대한 다각적인 설명과 해석이 요구된다.



크기변환_가루뱅이농악(청소년부,2011-18회)(1)


크기변환_가루뱅이농악(청소년부,2011-18회) (2)

● 부산광역시 / 부산농악 / 부산관광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부산농악'은 오래전부터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음력 정초에 가가호호 돌아가면서 농악을 치며 고사를 지내고 복을 빌어주는 지신밟기 형태의 농악이었다.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고난을 겪어오다, 1953년 '아미농악단'이 발족해 전승해왔다.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널리 알려졌으며, 1980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면서 연희적인 성격이 가미되었다.

이 농악은 다른 지역 농악에 비해 느린 4박자 굿거리장단을 많이 사용하고, 1채, 2채, 3채, 4채, 5채, 7채 등 다양한 장단이 있다. 각 마당에 많은 춤이 삽입되어 있어 치배들의 춤사위가 다채로우며, 다른 지역 농악에 비해 징과 북을 자주 치는 편이다. 상쇠와 부쇠, 그리고 소고잽이들만 상모를 쓰고, 나머지 징, 북, 장고잽이와 그 밖의 놀이꾼들은 고깔을 쓴다. 또한 모의적인 농사풀이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부산농악은 모둠굿, 길굿, 인사굿, 맞춤굿, 마당굿, 문굿, 오방진법, 굿거리굿, 덧배기굿, 호호굿, 우물굿, 다드래기굿, 농사풀이, 풍년굿, 개인놀이, 열두발상모 순으로 연행한다.



크기변환_부산농악(청소년부, 2011-18회)(1)



크기변환_부산농악(청소년부, 2011-18회)(2)

● 충청남도 / 웃다리농악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웃다리농악’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일컫는 용어다. 대전·공주 지역 웃다리농악은 충청·경기 지역 농악 가운데 지금도 연희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악이라 할 수 있다. 한때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송순갑 어른이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전승된 웃다리농악이 1977년 명인(조연출) 정인삼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공주농업고등학교 방과 후 동아리로 전국대회에 나가고, 공주웃다리보존회로 ’88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업적을 쌓기도 했다. 출전 당시 주진영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악반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등 공주 지역 웃다리풍물 전승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농고를 중심으로 농악을 전승해온 사례가 전국에서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지역별 사례 중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공주농업고등학교를 들 수 있다. 공주농고는 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전신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충청도 웃다리농악을 집중적으로 전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근 40년 가까이 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전승학교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농악의 전승을 지역 청소년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여러 차례 수상을 통해 결실을 보았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해녀노래 / 제주중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상금 1,000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바다와 관련한 노동의 종류가 많고, 특히 해녀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존재한다.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데, 고된 노동을 하면서 여러 노래를 부른다.

'제주해녀노래'는 해녀들이 물질하러 나가면서 부르는 어업노동요이다. 마을 해녀들이 돛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면서 노를 저으면서 일할 때 사용하는 테왁, 망사리, 빗창 등으로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를 때는 두 명의 해녀가 교대로 소리를 메기고, 받는 사람들은 "이여싸, 져라져라, 이여도사나, 이여 사나" 등의 후렴구를 붙인다.

해녀노래는 제주 토속 생활용품을 이용한 악기연주는 물론 전통악기와 제주굿에서 쓰이는 연물장단과 허벅장단이 어우러져 신명 나는 무대를 연출한다. 월이자랑, 물긷는 소리, 해녀 노젓는 소리, 서우젯소리 등이 포함을 포함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제주중앙고등학교의 제주해녀노래는 전통적인 해녀 노래 외에도 여성들의 생활노래, 굿소리 등을 함께 연출해 다양한 소리를 선보였다. 전통민속놀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음악과 상황 연출 등이 독특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직접 소리를 익혀서 가창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녹음을 통하거나 창작된 곡을 음원으로 사용해 연출한 무용공연물 형태인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1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2.10.11~10.12,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청소년들이 우리 민속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대회로, 제1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열렸다. 농악을 중심으로, 민속놀이, 의례, 가면극 등이 출품되었고, 모두 15개 단체가 참가했다. 특히 경연 부문은 생업, 의례, 연희, 놀이, 무용, 음악 등 모든 전통민속을 포괄해 전개되었다.

개막 공연 '장승제'와 '월월이청청'을 필두로,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 제주도 함덕고등학교의 '제주큰굿', 경기도 광주중앙고등학교의 '광주지원농악', 강원도 현북중학교의 '양양쟁기동농악', 경상북도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의 '김천빗내농악', 전라남도 순천낙안중학교의 '낙안읍성군악', 경상남도 철성중학교의 '고성오광대', 부산광역시 동래원예고등학교의 '동래지신밟기', 대구광역시대구북중학교의 '날뫼북춤', 서울특별시 세명컴퓨터고등학교와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의 '웃다리농악', 대전광역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웃다리농악', 인천광역시 덕신고등학교의 '강화용두레질소리', 전라북도 김제시 청소년농악단의 '김재농악판굿 및 도둑잽이굿', 충청북도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청주신촌풍장', 광주광역시 광주동신중학교의 '호남우도농악', 충청남도 병천고등학교의 '웃다리풍물' 등이다.

2. 참가 종목

● 경기도 / 광주광지원농악 / 광주중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광지원농악'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에서 농번기, 중추절,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마을의 풍년과 안녕, 마을 공동체 단합을 목적으로 하던 웃다리농악이다. 광주 지역에는 조선시대부터 남한산성 수어청에 파견된 재인청 소속 재인들이 많이 살면서 마을 두레패들과 함께 농악을 치던 것이 전문 연희적 농악으로서 그 명성이 높았다.

광지원농악에서는 농요 소리와 벅구놀이, 무동놀이를 특색으로 꼽는다. 판굿의 진풀이 중 당산벌림을 한 뒤에 치배, 무동, 벅구잽이들이 'ㄷ'자형으로 서고, 상쇠가 나와 벅구잽이들을 이끌고 노는데, 이 과정에서 벅구잽이와 상쇠가 서로 어울려 농사짓는 흉내를 내면서 춤사위를 한다. 벅구잽이들이 늘어서는 대형이나 상징적인 행렬이 모의 농경의례의 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오방진, 가새벌림, 원좌우치기, 네줄백이 좌우치기 등 전체 대형의 변화가 무쌍한 것은 군사 진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광지원농악의 농요소리는 판굿 중에 쩍쩍이가 끝나고 찍었네 소리로 상쇠가 선소리를 내고 나머지 치배들이 후렴을 내는 형식이다. 무동의 깨끼춤, 쾌자춤, 쩍쩍이 춤 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있다.

광지원농악을 전승하던 마을 고로들이 대부분 작고하시고, 단 몇 분만이 기억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

게 여긴 광주시 광주문화원이 광지원리의 농악을 지원해 1997년도부터 복원·전승하고 있다.

광주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광지원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굿머리
등장 부분으로, 기수와 태평소 다음 쇠와 징수, 다음은 장구, 북, 소고, 피조리 순서로 입장한다. 이때 일체, 자진가락, 사채, 자진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2. 인사굿
전 치배들이 입장해서 상쇠의 신호가락에 맞춰 다 같이 큰 원을 만든 후 옆 뛰기를 하다가 맺은 후 인사한다. 이때 덩덕궁이, 자진가락, 인사굿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3. 돌림벅구
안쪽에는 소고잽이가 한 줄로 원을 만들고, 쇠, 징, 장고, 북잽이들과 피조리가 반시계방향으로 바깥 원을 만들어서 돈다. 소고잽이는 돌 때 허공잽이를 한다. 별채굿으로 시작해서 자진가락으로 넘어간다.

4. 앞당산벌림
잽이들이 두 줄로 서고, 반대편에서 소고잽이는 한 줄을 만든다. 덩덩덩딱으로 시작해 여장놀이, 마당삼채를 친 후, 제자리연풍대와 벅구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5. 오방진
상쇠가 길군악 장단을 내면서 시작하는데, 농악대가 동·서·남·북·중앙 다섯 군데에서 차례로 방울진을 쌓는다. 중앙의 잽이들이 옆뛰기를 하고, 소고잽이들은 자반 뒤집기를 한다. 길군악 칠채로 시작해 육채, 마당삼채, 자진가락, 사채변형, 자진가락 순서로 진행한다.

6. 가새벌림, 사통백이
악기잽이와 소고잽이, 피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서 교차하는 대형을 이루는 가새벌림을 진행한 후, 넷으로 갈라서 작은 원을 만들고 각각 도는 사통백이를 진행한다. 별채굿 가락으로 시작해 자진가락, 덩덕궁이, 자진가락 순서로 진행한다.

7. 좌우치기
잽이들이 큰 원을 만들어 오른쪽으로 한 발짝씩 세 발짝 띄우다가, 왼쪽으로 세 발짝, 앞과 뒤로 세 발짝씩 발을 떼며 움직이는 원 좌우치기를 한다. 이후 악기별로 줄을 맞춰 서서 네줄백이 좌우치기를 한다. 이때는 오른쪽, 왼쪽, 뒤, 앞의 순으로 진행한다. 가락은 잦은삼채로 시작해 일채를 치고, 앉은상, 자진가락, 잦은삼채, 덩덕궁이 순으로 진행한다.

8. 쩍쩍이
앞치배와 소고·피조리가 각각 한 줄을 만들어 양쪽으로 나뉘었다가 뒤에서 만나 교차한 다음, 한 줄로 큰 원을 만든다. 쩍쩍이가락을 치며, 치배는 안쪽에 원을 만들고, 소고와 피조리는 바깥에 원을 만든다. 같은 대형으로 타형을 내어 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 후 안과 밖을 번갈아 보다가 소고잽이들과 치배들이 원을 교차한다. 옆뛰기를 돌다가 소고는 밀벅구를 하고, 치배와 피조리는 연풍대를 돈다. 가락은 쩍쩍이, 타령, 넘김장단, 자진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9. 뒷당산벌림

벅구놀이, 쇠놀이, 무동놀이, 열두발상모 순으로 진행한다. 개인놀이가 주를 이룬다.

10. 인사굿

중앙에서 잽이들이 옆뛰기를 하고, 소고잽이들은 자반 뒤집기를 한 후 퇴장한다. 가락은 덩덕궁이, 마당삼채, 자진가락, 인사굿 순으로 진행하며, 별채굿가락으로 퇴장해 휘모리가락으로 끝을 맺는다.

광주중앙고등학교(구 광주종합고)는 학교에 광지원농악전수관을 따로 마련해 15년 이상 학생들이 광지원농악을 전문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이처럼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광지원농악을 전승하고, 적극적으로 농악을 학습할 수 있으며, 향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크게 도움받고 있다. 광지원농악을 오랫동안 학습하면서 학생들이 지역 농악을 전승하고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충청북도 / 청주신촌풍장 / 충북공업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청주신촌풍장'은 1992년 충북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청주농악의 모태로서, 그 전통성과 역사성을 자랑으로 삼는다. 신촌풍장에 대한 고로 풍물인들의 고증에 따르면, 신촌풍장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전승되었다고 한다. 본래의 청주신촌풍장이 "꽃피는 봄이 오면 논·밭을 일구어 씨 뿌리고, 가꾸어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풍년의 가을에 신명나고 춤추고 기뻐한다. 곡식을 방아 찧고 사방의 온 신들께 감사드리며 신명 나는 놀이로 이를 보답한 후 멍석을 말아 겨우살이로 넘어간다." 라는 표현과 같이 정월대보름, 두레, 백중, 추석 등이 시기에 풍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나, 점차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촌풍장은 돌무(상모)를 다른 지역 풍물에 비해 목덜미 쪽 가까운 뒤통수에 쓰는 특징이 있다. 이는 양사위를 연희할 때 더 큰 원을 하늘로 뻗치기 위한 것으로, 현란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투박하게 몸 가까이 바짝 붙여 양사위를 그리는 돌무(상모)짓을 신총풍장에서는 보물로 여긴다. 특히 신촌풍장에서는 전국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상모의 긴 초리(물체)의 발상지로, 전국의 풍물 명인들에게 확인되었음을 중요한 자랑거리로 삼는다.

신촌풍장의 장단은 다양한 고유명칭을 사용되는데, 곤나비장단(자진모리), 자드래기(자진가락), 두마치(이채, 휘모리), 질곤애비(칠채), 마당일채(육채), 춤장단(굿거리), 날풍장(굿거리), 쩍찍기(쩍쩍이) 등이 확인된다.

청주신촌풍장의 판제는 갈지자굿, 원인사, 꽃봉우리(돌림벅구), 써레질, 네줄좌우치기, 쌍줄백이, 농사풀이, 오방감기(질곤애비), 춤마당(날풍장,굿거리), 쩍찍기, 십자걸이, 연자방아진, 사통백이, 쌍줄백이, 벅구절구놀음, 개인놀음, 멍석말이, 인사 순으로 진행한다.

농악의 전승을 잇기 위해서는 지역 후속세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충북공고가 학생들에게 청주 지역에 전승되는 다양한 민속놀이와 농악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문화의 뿌리에 해당하는 농악을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 대구북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날뫼북춤은 대구 비산동에 전승되는 비산농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두드러지게 큰 북으로 추는 북춤이다. 비산대 일대의 동제당인 천왕대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하던 마을 제사인 '천왕[天王]매기굿'의 지신풀이인 '천왕매기'와 더불어 북춤이 두드러지게 발달했는데, 경상도 덧배기가락과 춤으로 구성된다.

'날뫼'라는 지역명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유래한다. 아득한 옛날 달내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서 요란한 풍악소리가 들려 바라보니,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이 떠 온다" 라며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와 산이 되었다 해 '날뫼'라 부르게 되었다. 날뫼의 원고개는 달성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 나들길이었는데, 옛날 고을의 원이 이 길로 부임할 때 마을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맞이하던 관습이 날뫼북춤의 기원이라고 전한다.

날뫼북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첫째마당 '정적궁이'
군사굿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장단의 북춤이 주를 이룬다.

둘째마당 '반직굿'
일명 '마당굿' 또는 '자반득이'라고도 한다. 연풍대, 돌아서 앉기, 서기, 북 넘기 등 고난도의 북 묘기가 펼쳐지는 마당이다.

셋째마당 '엎어빼기'
빠른 덩더궁이 장단(자진모리)으로 이루어지며, 앉고 넘는 동작이 반복된다. 음양의 이치를 표현하는 대목이다.

넷째마당 '다드래기'
휘모리장단의 경상도식 표현이다. 웅장한 북 가락과 회오리처럼 휘돌아가 빠른 연풍대가 펼쳐지며, 발재간이 돋보이는 춤이다.

다섯째마당 '강강술래'
전원이 원형 바깥쪽으로 향하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북을 치는데, 좌·우·좌 순으로 진행한다.

여섯째마당 '허허굿'
질주하듯이 양발을 번갈아 솟구쳐 뛰며, 한 번은 북편과 북테를, 또 한 번은 북편을 치면서 춘다.

일곱째마당 '오방진'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위에 화평과 강녕을 비는 춤판이다.

여덟째마당 '모듬굿'
두 개의 원을 만든다. 모이고 흩어지면서 진행하는데, 다양한 춤사위를 펼치며, 가락이 변화무쌍해 날뫼북춤의 진수라 할 수 있다.

아홉째마당 '개인가락'
북가락이 가장 발달된 것으로, 엇박으로 이뤄진 부분은 북가락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외발 돌며 북테치기 등 개인 가량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열째마당 '살풀이굿'
굿거리 장단으로 진행하며, 풍요와 환희를 표현하는 춤판이다.

열한째마당 '개인놀이'
북춤 중 소수의 기량 높은 북잽이들이 개인 기술을 펼치는데, 북으로 살풀이를 시작해 덩더궁이로 끝을 맺는다.

열두째마당 '덧배기굿'
일명 '덧배기놀이가락'이라 한다. 덩더궁이 장단과 어깨춤이 발달했다.

경상도에서 발달한 큰 북을 치면서 지역 특유의 덧배기장단과 다드래기장단을 주로 연주하며 씩씩한 춤사위를 펼치는 날뫼북춤에는 특유의 남성적인 기개가 느껴진다. 독무와 함께 무대 상황에 따라 5인무, 8인무, 12인무, 24인무 등의 군무가 펼쳐져 구성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돋보인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구북중학교는 날뫼북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어 문화적 소양 함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기변환_날뫼북춤(청소년부, 2012-19회) (1)


크기변환_날뫼북춤(청소년부, 2012-19회) (2)

● 대전광역시 / 웃다리농악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경북도지사(은상)
상금 4,000

대전광역시에 전승되는 웃다리농악은 충청도 웃다리농악의 대표격이다. 대전 지역에는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성행했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장승제 등을 행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오던 각 농악단 상쇠들이 1950년 남사당패에 관여하면서 충청과 경기 지역 풍물의 구성이 서로 유사하게 이어져 왔다.

대전 웃다리농악은 19세기에서 최근까지, 웃다리풍물은 고인이 된 송순갑, 이원보, 최성구, 양도일 등의 주도로 전승되었다. 한 때 맥이 끊어질 위기에도 처했으나, 중앙농악회에서 운영한 '대전웃다리농악대'를 통해 연행된 것을 송순갑 어른이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웃다리농악은 1984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대전 지역은 일찍이 농악이 발달하면서 여러 농악 명인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는데, 지역 농악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농악인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이에 농악이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형태로 변화한 면모가 있다.

대전 웃다리농악은 전체 열세마당의 연행을 구성한다. 의상 특징을 보면, 상쇠와 치배들은 종이 부포를 쓰고, 소고는 긴물채상을 쓰며, 남색 조끼와 흰 저고리를 입고 행전은 차지 않는다. 연희적 특징으로는 판굿의 대형 변화가 다양하고, 특히 아랫 지방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무동춤과 칠채가락이 있으며, 개인놀이와 전체합주에서 시작과 맺음이 정확성을 나타낸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대전 웃다리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마당 '인사굿'
판굿을 하기 위해 일렬로 나가기 직전 한군데 모인다. 북이 점고를 친 다음 징수가 징을 느리고 크게 세 번을 치고, 다스림가락과 이채가락을 친 후 맺는다.

제2마당 '외돌림벅구·멍석말이'
인사를 한 뒤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상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든다. 이채가락을 치면서 벅구는 바깥 원에서 외상이나 양상을 치고 자반뒤집기를 한다.

제3마당 '당산벌림·들당산'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을 풀어 'ㄷ'자 대형을 갖추고, 무동이 없을 때는 '11'자 대형으로 한다. 그리고 상쇠는 연타채를 치면서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쪽으로 가서 내주는 가락을 네 박 친다. 다음으로 벅구 전원이 앞으로 여섯 걸음 걸어간 다음 제자리에서 두 박자에 이어 이채가락을 치면 벅구는 양상을 돌리고 솟음벅구를 한다. 삼채가락에 따라 벅구는 '乙'자 방향으로 이동하며, 잽이와 두 줄로 마주 보면서 된삼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빠른 사사와 일사를 하고, 연타를 치면 번개상으로 맺는다.

제4마당 '칠채오방진'
전 대원은 칠채가락을 치면서 중앙진을 만든다. 중앙진에서 상쇠의 된삼채장단에 이어 이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벅구들은 음상, 외상 등으로 돌리다가 자반 뒤집기를 한다. 중앙진을 풀어 나올 때는 짝쇠가락을 치며, 날당산벌림 대형을 만든다.

제5마당 '절굿대놀이(쌍줄백이, 외줄백이)'
상쇠가 연타채를 치면서 돌사위로 맺고, 외줄백이 대형을 만들기 위해 잽이의 한가운데를 향해 이동할 때 상쇠는 쇠채발림을 한다. 외줄백이 대형이 만들어지면 삼채가락을 치면서 벅구 전체가 부쇠방향 쪽으로 'ㄷ'자를 그리면서 잽이를 향해 쌍 줄을 만들어 들어와, 수벅구 쪽부터 앉고 서고를 반복한다. 다시 삼채가락을 치면서 수벅구 줄은 부쇠 방향으로, 부벅구 줄은 끝북 방향으로 돌아 쌍줄백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 나간 다음 외줄로 나간다.

제6마당 '십자걸이'
잽이들은 삼채가락을 치면서 당산 대형을 풀어 반원을 그리고, 정면을 향해 일렬로 대형을 만들며, 벅구 전체는 잽이의 한가운데를 교차하면서, 십자 대형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서 이채가락으로 맺는다.

제7마당 '사통백이'
삼채가락을 치면서 십자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십자 대형이 동·서·남·북 4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태극선을 따라 돌며 원을 그린다.

제8마당 '좌우치기(원좌우치기, 네줄좌우치기)'
원 상태에서 한가운데를 보면서 이채를 친 다음, 상쇠의 머리가락을 듣고 좌우치기를 한다. 연타채를 치면서 큰 원에서 네 줄을 만들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네 줄이 동시에 한 줄을 만들면서 큰 원을 그린다.

제9마당 '쩍쩍이'
큰 원 상태에서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다가 삼채를 맺고, 쩍쩍이가락을 약 3~4회 정도 친다. 상쇠의 신호를 듣고 쩍쩍이가락을 맺는다.

제10마당 '풍년굿'
굿거리가락에 맞춰 춤을 추다가 굿거리를 맺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상쇠의 연타채가락의 신호로 한가운데를 보면서 앉는다.

제11마당 '개인놀이'
무동놀이, 쇠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살판, 12발(긴채상)놀이를 진행한다.

제12마당 '외돌림벅구·멍석말이'
일명 '덧배기놀이가락'이라 한다. 덩더궁이(자진모리) 장단과 어깨춤이 발달했다.

제13마당 '퇴장'
채가락을 치며 멍석말이를 풀어 나오면서 퇴장을 한 다음, 이채가락을 빠르게 몰아치며 맺고, 절가락을 치고 서로에게 인사한다.

유성생명과학고는 1979년에 유성농고 농악반이 만들어진 이래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물론 여러 풍물놀이 또는 농악대회에 참가하면서 유수의 업적을 쌓아왔다. 오랫동안 대전 지역 웃다리농악을 보존·전승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판굿을 중심으로 정리된 연행자료를 전승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맥락의 웃다리농악을 찾아 지속해서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광주광역시 / 호남우도농악 / 광주동신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경북도지사(은상)
상금 4,000

호남우도농악은 남도의 젖줄인 영무장농악을 바탕으로 50~60년대 말 옛 광주시 지산면 일대서 성행했던 농악이 발전된 형태다. 특히 이 지역은 호남우도농악으로 이름난 정읍, 고창, 영광, 장성 지근이라 상쇠는 전경환(영광), 정종석(광주 지산), 이주완(광주), 장구는 김오채(영광), 최막동(광주), 김동언(담양), 법고는 강대륙(영광), 박용하(고창)으로, 주로 광주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또한 지산농악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가락과 복색, 개인놀이, 진법 등이 화려하게 짜여 있어, 가히 최고의 걸궁 농악이라 할 수 있다.

호남우도(지산)농악은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상류 새암 들녁에 인접한 마을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농악을 재현한 것이며, 걸립굿 두래굿, 마당밟기 같은 집단노동과 함께 굿으로 사용되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왔다.

이 농악은 느린 가락을 부드럽게 변화를 주면서 한가로운 듯한 박자감으로 연주를 시작해 흥을 돋은 다음 점차적으로 경쾌한 흐름으로 신명을 살리며 끝을 맺는 기승전결을 갖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자감이 다채롭고 다양한 가락을 구성하며, 쇠가락과 춤사위 발달로 놀음놀이에서 윗놀이 보다 밑놀이에 치중해 장구가락이 매우 발달했다. 개인놀이 또한 조화롭게 발달해왔다. 특히 고깔놀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전승이 사라져가는 놀이도 잘 보존되어있다.

호남우도(지산)농악은 광주지산농악(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공로상 및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수상)을 토대로 재현한 것이다.

광주 동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호남우도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장굿
반시계방향으로 원진을 하다가 일체(난타)를 치면서 안으로 바라보고 선다.

2. 인사굿
인사굿을 한 번 치면 관객을 향해서 돌고, 상쇠가 인사굿을 내면 다 같이 인사굿을 치면서 절을 한다.

3. 오채질굿
늦은 오채질굿으로 '우[右]질굿' 이라고도 하는데, 상쇠가 첫 가락을 내면 두 번째 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원진한다.

4. 된오채질굿
늦은 오채질(우질)굿을 치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좌[左]질굿 가락으로 전환해 시계방향으로 뛴다.

5. 늦은일채굿
'된오채질굿'가락에 맞춰 뛰다가 상쇠의 동작과 늦은 일체 가락을 내면 또다시 90도 방향으로 전환해 반시계방향으로 전진하는데, 360도 회전과 4걸음 전진 동작을 한다.

6. 늦은벙어리삼채

'늦은일채가락'에 맞춰 360도 회전과 4걸음 전진하면서 상쇠의 신호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늦은 벙어리 삼채로 연결한다.

7. 벙어리삼채

시계방향으로 원진해 원형이 형성되면 다시 원 바깥쪽으로 유턴해 시계방향으로 원진한다.

8. 된벙어리삼채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다시 원이 형성되면 된벙어리 삼채가락을 내면서 갈지[之]진법을 구사한다.

9. 맺음굿

상쇠가 된삼채-음매갱-일체가락으로 연결 가락을 아주 빨리 모아 맺는다.

10. 오방진과 진오방진

오방진은 '다섯방향으로 진을 친다'는 의미로, 시간 관계상 오방[五方]을 모는 대신 삼[三]방향만 감았다 풀었다 해 진오방진 가락에서 덕석몰이 진법 후 모두 자리에 앉는다.

11. 삼채

쇠가 늦은삼채 신호가락을 내면 도입 장단을 치고 일어서서 진을 풀어 시계방향으로 원진한다.

12. 쇠구정놀이

원진하다 원이 형성되면 상쇠와 쇠꾼들만 떼어내어 원안으로 들어가 잽이별 집단 놀이인 쇠구정놀이를 하다 '홑으로맺는가락'으로 가락을 맺는다.

13. 장구정놀이

쇠꾼들을 데리고 장구잽이들에게 다가가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마주 보고 구정놀이를 한다.

14. 맺음굿

'접으로 맺는 가락'을 연주해 모든 가락을 끊는다. 가락이 끊어지면 쇠, 장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15. 허허굿

허허굿의 머리 가락으로 인사굿을 친 다음 쇠꾼들이진굿을 치면서 원안으로 들어가 장구 앞에 앉아 가락을 연주한 뒤 허허굿을 치며 반시계방향으로 원진한다.

16. 좌우진퇴

연봉치기 꽹과리에 의해 좌우진퇴 우[友]동작, 좌[左]동작, 진동작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섰다를 반복한다.

17. 곡심기와 김매기

연봉치기와 퇴장 동작을 한 다음 김매기로 연결해, 곡식을 심는 형태와 같은 동작으로 원진한다.

18. 콩들지기

'등밀기'라고도 하는 데, 등을 마주 댄 상대방을 힘껏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다 상쇠가 이채를 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19. 용틀임

용틀임은 용[龍]의 형상을 진법화한 것으로, 먼저 “콩 꺽자 콩꺽자 두룩 넘어 콩꺽자” 라고 구호를 한 다음 용틀임을 해 시계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 두 줄로 선다.

20. 두줄백이

행진가락을 치며 큰 원을 풀어 나오면서 3~4줄로 만들어 퇴장한 다음, 휘모리가락을 빠르게 몰아치며 맺는다.

21. 가세치기

넓은 11자 형에서 서로 마주 보고 가세 치기를 한 다음, 두 줄에서 한 줄로 합류해 구정놀이 대형으로 선다.

22. 구정놀이

개인놀이는 말 그대로 개인의 기량을 보이는 과정으로 ‘ㄷ’자를 형성해 그 안에서 악기별 집단놀이인 구정놀이를 펼친다.

23. 인사굿

소고, 북, 쇠, 장구, 12발 상모가 끝나면 이채를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원진하다 일채로 가락을 맺고 인사굿을 한 후 퇴장한다.

호남우도농악의 판굿은 삼채굿의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판굿 가운데 오채질굿은 매우 특별한 가락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지역 특색을 지닌 농악을 중학교 학생들이 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 농악을 전승하는 이들과 청소년기 학생들이 함께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은 지역 정체성을 올곧게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 강화용두레질소리 / 덕신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강화도에서 전승하는 '강화용두레질소리'는 물품는소리인 '용두레질소리'와 '논농사소리', 그리고 농사 과정에서 연주되었던 '열두가락파접농악'을 묶어 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은 1986년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03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2호로 지정되었다.

강화도는 예부터 물이 귀한 곳이라 용두레질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다른 논농사소리보다 용두레질노래를 많이 불렀다. 또한 윗동네(양촌마을)와 아랫동네(음촌마을)를 편을 갈라 경쟁적 협력관계로 설정해 모찌기, 모심기, 두렁밟기, 김매기, 물푸기 등의 과정에 열두가락파접농악과 집단적 가무를 함께 했다.

용두레질소리 공연은 양촌마을, 음촌마을로 편가르기, 모찌기, 모심기, 새참놀이, 김매기, 두렁밟기, 물푸기, 열두가락파접농악놀이 등 8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양촌마을, 음촌마을로 편가르기

보통 마을마다 두레가 결성되어 있고, 각 마을은 두레기를 들고 나가 들에 세워 놓고 공동으로 일을 한다. 들에서 일을 하거나, 일하기 위해 이동하다 보면 다른 마을 사람들, 즉 다른 두레패를 만나게 된다. 두레기는 농신이 깃든 신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두레기와 두레기가 만나면 두 신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싸움 결과에 따라 형님기와 아우기로 서로를 칭하면서 아우기가 형님기를 만나면 기 절을 드리는 풍속이 있다. 용두레질소리 공연에서는 서로 맞절을 하는 형태로 연출하고있다.

2. 모찌기

볍씨를 물에 담궈 싹을 틔우고, 그것이 모판에서 자랄 때까지 한 달이 걸린다. 모판의 모가 촘촘히 자라면서 그것을 옮기는 것이 이앙이다.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못자리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한다. 농민들이 배수문을 막아 늦가을에서 봄 영농기 이전까지 강우량을 정수했다가 이앙기에 이르러 그 물로 모판을 만들고, 모가 자라면 모찌는노래와 함께 모찌기를 한다.

(받는소리) 쪘네 쪘네 여기도 한 침 쪘네
(메기는소리) 너도 찌고 나도 뽑아 다 같이 잘들 찌는구나
땀방울로 적신 모가 충실하게도 잘 자랐네
한 알기 두 알기 뽑는 모가 또 한 침이 되었구나
너도 찌고 나도 뽑아 날마다 잘들 찌는구나
여기도 철렁 저기도 철썩 또 한 침을 닦아 묶네
시집을 간다 시집을 간다 우리 모가 시집간다
우리 모 시집을 다 보내면 금년 농사는 풍년일세
왼손 바른손 맞 맞추니 또 한침을 닦아묶네
참게에는 잡아서 술 안주를 하고요
밤이슬 맞고 햇볕을 받아 곱게 곱게 잘 자랐네

3. 모심기

모판에서 쪄낸 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것을 모심기라 한다. 본래는 마름모꼴 간격으로 모를 심는 메밀모를 했으나, 일제강점기부터 줄을 대서 줄에 맞춰 모를 심는 줄모로 바뀌었다고 한다.

(받는소리) 심었네 꽂았네 여기도 한 폭 심었네
(메기는소리) 너도 심고 나는 꽂아 다 같이 잘들 심는구나
아래 웃 논에 지지를 말고 어서 빨리 심어주자
이모 저모 잘 맞춰 메밀모로 심어주자
메밀모를 안맞추면 여기도 저기도 방이 돈다
박석 뒤뜰에도 심어주고 장바구 뜰에도 심어주자
계룡제 뜰에도 심어주고 해당화 골에도 심어주자
해파골장도 심어주고 만리섬 뜰에도 심어주자
육칠월 객수가 아니라면 금년 농사도 풍년일세
으거리 풍년 농사를 지어 우리 딸 시집을 보내야지
땀 흘려서 가꾼 농사 년년히 풍작일세
오늘도 심고 내일도 꽂아 날마다 잘들 심어주자
잘들 심네 잘들 꽂아 일심 협력 잘들 심네
먼데 사람들 듣기 좋고 가까운데 사람들 보기 좋게
바다 같이 넓은 논을 해동갑하여서 다 심었구나

4. 새참놀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새참을 먹고 피로를 달래며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일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을 놀이화한 것이다. 새참놀이 때는 실제로 새참을 들면서 춤추고 노는데, 쌍피리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

5. 김매기

모심기 작업이 끝나면 호미로 애벌김을 매고 두레계를 조직해 두벌김을 매면서 온 들판이 김매기로 절정을 이룬다. 김매는소리는 긴소리와 자진소리로 구분하며, 자진소리는 '삿갓논 김매는소리'라고도 부른다.

<김매는소리>

(받는소리) 에야데야 어허야 어허 어얼사 좋구나
(메기는소리) 김을 매세 김을 매세 모두 다 같이 김을 매세
이골 저골 새놓지 말고 고루고루 매어주자
김매는 데 제격은 뒷손질 잘해야 제격일세
넘어간다 넘어간다 호미 김밥이 넘어간다
다른 집의 점심은 나오는 데 우리 점심이 안 나온다
보리방아를 곱 찧느라 우리 점심이 늦어졌나
그르밭 점심참 대느라고 우리 점심이 늦어온다
갓난애가 잠잔다고 애기 어머니가 잠들었나
콩밭 김매러 나갔다가 점심밥이 늦어지나
어서 빨리 김을 매고 호미시침을 하여보세
바다 같이 넓은 논에 산달만치 남았구나

<자진김매는소리 - 삿갓논 김매는소리>

(받는소리) 앵차 앵차
(메기는소리) 어떤 사람 앵차~팔자 좋아서 앵차~
부귀영화로 앵차~ 잘 살건만 앵차~
이내 팔자는 앵차~어이나 해 앵차~

땅을 파서 앵차~ 먹고 사나 앵차~

6. 두렁밟기

모심기와 김매는 작업이 끝나면 두렁밟기를 한다. 이는 논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본래 두렁을 밟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일은 어디에서나 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특정 절차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단체로 두렁밟기를 하는 일은 흔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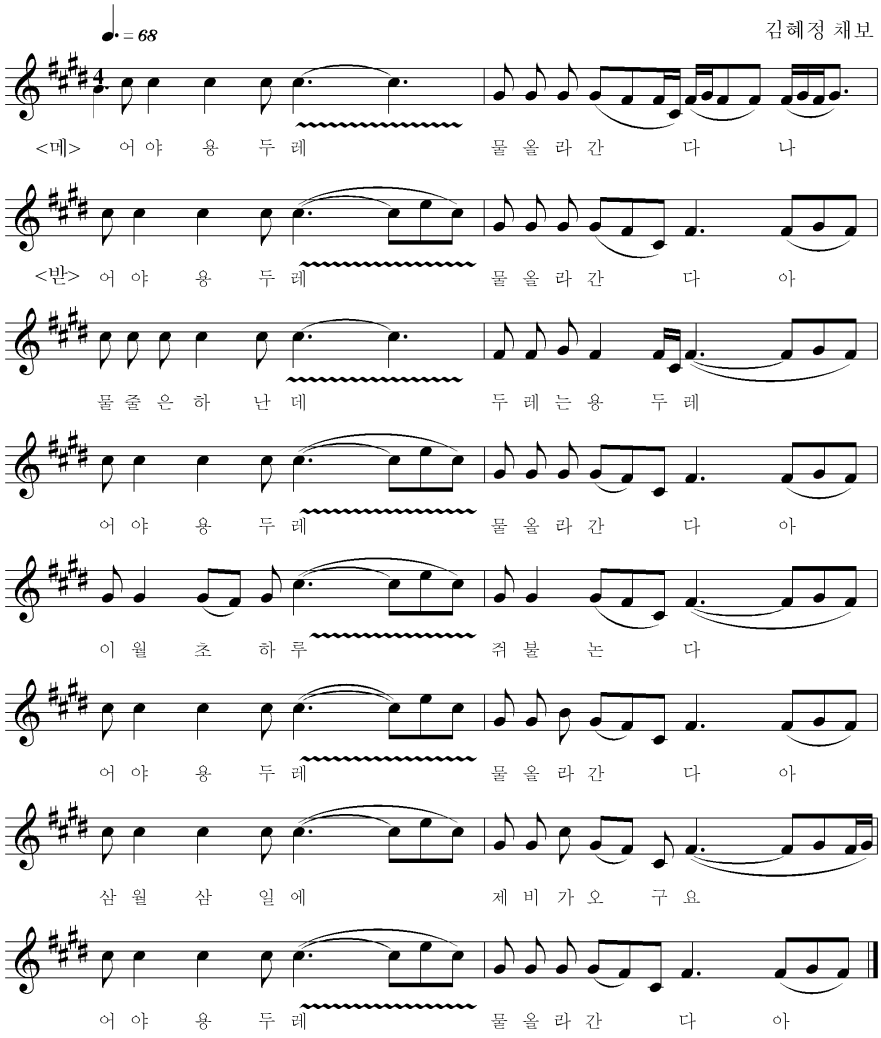
7. 물푸기(용두레질)

갈수기에는 두레를 지반에 따라 3단계까지 설치하고 저수답 물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물푸기를 해야 했다. 이때 흥겹게 용두레질노래를 부르며 물을 퍼올렸다. 넓은 논이나 염전에 물을 대는 작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고된 노동이었기에, 손길을 맞추고 흥도 돋우면서 물푸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받는소리)　어이야 용두레 물 올라간다.

(메기는소리)　하나 둘에 물올라간다　물줄은 하난데 두레는 열두레
이월 초하루 쥐불 놓는 날　서이 너이도 물올라간다
삼월 삼짓날 제비가 오구요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셨네.
오월 단오날 그네를 뛰며는　모기가 안 물어 잠자기 좋구나
육간대청엔 전후퇴 달구요　호박 주추에 부연도 달구요
건드러지게도 잘들 살았네　칠월 칠석날 내리는 빗물은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구나　팔월 한가위 달도 밝구나
구월 구일에 제비가 떠난다　여나문 시절에 잘 먹고 놀았네
동지 팥죽은 맛도 좋구나　일 년은 열 두 달 다지나 가누나
큰애기 나이는 이팔에 십육　큰애기 나이는 이팔은 청춘
딸도 스무살 사위도 스무살　궁합이 좋아서 잘도 살았네
열 일곱 열 여덟 물올라간다　이십안 자식에 삼십안 재물은
농사만 잘지면 이루어지리라　인간 사십은 매지근하구나
오십 당년에 손자놈 보았네　육순 생일은 서글픈 생일날
인간 칠십은 고래희로다　팔십호 동지에 풍년이 왔구나
구십 평생을 산다하여도　죽어지면은 백문이 허사라
백대풍신은 흩날렸구나　삼천 두레에 물올라간다
그저께 것까지 삼천두레라　어야 용두레 물올라간다

용두레질소리



8. 열두가락농악(파접놀이)

모든 논농사를 마치면 풍농을 축원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대개 마지막 논매기라 끝난 시점에 연행하는 것으로 일명 '호미씻'이라고도 한다. 파접놀이 때는 마을의 농악뿐 아니라 옆 마을의 농악대를 초청해 함께 연행하기도 했다. 파접놀이 때도 간단하게 농사풀이를 하는 등 열두가락 농악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정월의 연주처럼 본격적이지는 않다. 농악대의 구성은 호적, 광쇠, 제금, 태징, 북, 장고, 법고, 소고 등이며, 법고, 소고를 연주하는 이들이 볍씨뿌리기, 모심기, 콩심기, 멍석말이 등 농사짓는 모습(농사풀이)을 춤으로 재현한다. 연주하는 열두가락은 올림가락(1채, 2채), 기절가락(5채), 느린길가락(4채), 빠른길가락(7채), 인사가락(마당1채), 땡땡가물어가락(2채), 두렁밟기가락(자진4채), 자진찔러메기가락(5채,6채), 느린찔러메기(새면) 가락(8채), 배치기가락(6채), 삼동주가락(3채, 동리3채, 5채), 끝맺음가락(12채)이다. 농사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하늘법고**

  논자리 위치와 부락단위로 작업을 하는 논농사 때, 마을의 단합 단결을 통해 마을의 풍년을 하늘에 기원하며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 **메밀모**

  각 부락 단위로 작업을 하는 밭농사를 재현한 것이다. 메밀모는 줄을 대지 않고 마름모 간격으로

모를 심는 것을 말한다.

- **새치기**

강화도 전례의 놀이로 동작이 일치함을 재현한 것이다.

- **튼입구**

농사의 작황을 살피는 장면을 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 **상법고,꼬리법고**

양반, 광대, 상법고, 꼬리법고가 같이 놀며 농사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 **영산치기**

마을 전 주민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 단합과 단결을 과시하는 장면이다.

- **볍씨뿌리기**

논농사의 첫 단계인 못자리에 볍씨를 뿌리는 장면이다.

- **두렁밟기**

모심기 전에 논물을 관리하고자 논두렁을 밟는 장면이다.

- **모심기**

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심기를 재현하는 것이다.

- **콩심기**

모내기가 끝나면 밭농사의 콩심기를 하는 장면이다.

- **볏가리쌓기**

들판에 벼를 마당에 쌓는 장면이다.

- **풍년이왔네**

전 놀이 마당의 종언을 알리는 장면이다. 느린찔러메기 가락에 맞춰 춤을 추며 한해 풍년을 기뻐하는 장면이다.

- **멍석말이**

농기를 보호하기 위해 연행자들이 모두 집결하는 것을 재현한 것이다

- **끝맺음인사**

끝맺음 가락(12채)으로 열두가락파접농악놀이 마당을 끝내고 인사를 한다.

덕신고등학교에서는 강화도의 대표 전통무형문화유산인 용두레질소리를 전승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1999년부터 용두레질소리와 관련한 전승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부평학생풍물경연대회와 청소년 축제 등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농부 역할로 40여 명, 소리꾼으로 5명, 풍물반 농악대가 27명이 참가했고, 국립국악원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큰굿 / 함덕고등학교**

종목 의례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3,000

제주도에 전하고 있는 무속으로 가장 대규모의 굿을 '큰굿'이라 이른다. 큰굿은 경륜 있는 큰 심방을 수심방[首巫]으로 해 굿법을 지키며 연행하는 '차례차례재 차례굿'이다. '큰굿'은 전무구를 사용하고, 굿의 목적에 따른 모든 의례를 연속으로 다하는 종합제며, 4~5명 이상의 심방이 동원되어 4~5일 또는 '두이레 열나흘' 동안 하는 대규모 굿이다. 따라서 심방은 큰 무당, 즉 '문서를 아는 심방'이 맡아 굿법을 제하는 완벽한 굿이라 할 수 있다.

심방은 제차 의례부터 굿의 내용, 굿의 원리 등 굿법을 제대로 하는 큰 무당으로서, 사제의 직능, 점사의 직능, 신탁과 영매의 직능, 주의의 직능, 예인광대의 직능을 두루 갖춰야 한다.

굿은 거리의 성격상 청신의례, 공연의례, 기원 및 영신의례, 천도·해원의례, 오신의례, 가신·조상의례, 송신의례 등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신을 모시는 초감제로 시작해 신의 서열에 따라 개별 의례를 진행하는데, 그 방식은 '본풀이', '맞이', '놀이' 등 세 가지 형식을 취한다.

제주 큰굿의 절차를 크게 나눠 정리한 것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신의례(초감제, 초신맞이, 초상계)
신을 모시는 의례

2. 공연의례(추물공연, 석살림, 보세감상)
신을 즐겁게하는 의례

3. 기원 및 영신의례(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초이공맞이, 삼공본풀이, 젯제상)
'삼천천제석궁'에 좌정한 신들을 모시는 개별 의례와 참석 앉힌 신들을 청신하고, 다음 단계 '시왕맞이'를 준비하는 예비굿으로서의 '젯상계'를 하는 의례

4. 천도·해원의례(시왕맞이, 요왕맞이, 세경본풀이, 제오상계)
죽은 영혼의 원한을 풀고, 천도하는 의례로 굿의 절정을 이룸

5. 오신의례(전상놀이(삼공맞이), 세경놀이, 양궁숙임)

6. 가신·조상의례(문전본풀이, 본향다리, 영개돌려세움)
문전본향과 마을영신을 영접하고 기원하며, 생업의 풍등과 악신의 구축을 위한 놀이 과정

7. 송신의례(군웅만판, 칠성본풀이, 각도비념, 말놀이, 도전, 가수리, 뒤맞이)
신을 보내는 과정

함덕고 학생들은 제주큰굿 가운데 불도맞이의 초감제, 수룩침, 질침 등의 과정에 해당하는 의례를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가와 무무를 중심으로 연출해 표현했다.

함덕고 학생들이 제주도의 전통적인 종교적 행위로서 살아있는 큰굿에 접근하고자 한 시도는 매우 의

의가 크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상인 무속을 민속문화로서 인식해 직접 경험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큰굿에 대규모로 참가하는 형식으로 연출해 원형의 면모를 벗어난 모습이 다수 확인되는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상북도 / 김천빗내농악 /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김천시장(장려상)
상금 2,000

'김천빗내농악'은 경상북도 김천시[金泉市] 개령면[開寧面] 광천동[廣川洞] 빗내마을에 전승되어온 금릉빗내농악의 다른 이름이다. 개령면은 금릉군 지역으로, 삼한시대에는 감문국[甘文國]이라는 부족국가가 있던 자리로 알려져 있다. 빗내마을에서는 정월 초엿새에 동제[洞祭]와 농악놀이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유지되어왔다. 특히 농악놀이가 빗신굿과 집적적인 연관성 속에서 유지되어왔고, 그 구성에서 특히 농사굿이 아닌 진[陣]굿으로 발전해온 점은 매우 특별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상쇠의 계보가 정재진, 이군선, 윤상만, 우윤조, 이남춘, 김홍엽, 한기식, 손영만에 이르기까지 뚜렷하게 이어오는 점은 이 농악의 전통과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김천빗내농악에는 질굿, 정저굿, 반죽굿, 다드래기, 연풍굿, 허허굿, 품앗이굿, 판굿, 영산굿, 채굿, 진굿, 굿거리 등의 가락이 있다. 인원은 36~46명 정도로 진굿(군사굿)으로 구성되고, 복색은 흰색 저고리와 흰색 바지에 검은색 조끼를 입으며, 홍·황·청 삼색띠를 띠고, 머리에 전립을 쓴다. 북을 치는 치배들은 흰 꽃으로 장식된 커다란 고깔을 쓰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상쇠는 등판에 특별한 금빛 장신구가 달린 복색을 하고, 앞 이마에 꽃을 달아 지휘자임을 상징하고 있어 독특하다.

빗내농악은 전체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골매기굿, 질굿: 쇠(꽹과리)에 맞춰 모든 풍물꾼이 춤을 추며 행진할 때 치는 가락으로, 빗내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가가호호 지신밟기를 하는 뜻도 된다.

2. 문굿(문굿, 정적궁이): 풍물꾼들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격으로 치는 가락이며, 정적궁이는 원진을 갖춘 판을 벌여 이를 준비하는 굿이다.

3. 마당굿(자진정적궁이, 반죽굿, 엎어베기, 품앗이굿): 상쇠와 중쇠의 가락에 따라 전 풍물꾼이 빠른 가락으로 놀이훈련에 들어가는데, 상쇠와 종쇠가 서로 이동하면서 전 대원을 훈련한다.

4. 영풍굿: 병사의 훈련을 의미하며, 쇠잡이들이 원진 안에서 놀다 원의 선두로 들어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앞으로도 가고 반대 방향으로도 가며, 또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놀이를 한다.

5. 판안다드레기, 소리굿: 상쇠와 종쇠가 소리에 맞춰 쇠가락을 치며, 모든 풍물꾼이 가락에 맞춰 자기 악기와 장비가 이상 없음을 과시하며 신나게 뛰어논다.

6. 기러기굿(기러기굿, 소쩍굿): 기러기굿은 풍물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풍물꾼이 옆으로 뛰며 기러기 모양 팔을 벌려 덩실덩실 춤을 춘다. 소쩍굿은 상쇠와 종쇠가 가락을 번갈아 치며 한가운데로 들어가 몸을 한 바퀴씩 돌며 쇠놀음을 한다.

7. 허허굿: 상쇠가 가락을 치다가 '허허허' 소리를 하면 모든 풍물꾼이 '허허허' 하며 대답을 하는데, 이는 자기 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상쇠가 끝난 후에는 종쇠가 이를 반복하기도 한다.

8. 쌍둥이굿(쌍둥이굿, 오방진굿): 풍물꾼들이 큰 원을 그리며 놀다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두 명씩 짝

을 지어 작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오방진굿은 모든 풍물꾼이 다섯 개의 작은 원을 만드는데, 쇠가 안쪽에서, 북, 장구, 소고(2)는 바깥에서 원을 만들어 돌며 논다.

9. 판굿(채굿, 젯북): 판굿은 풍물꾼들이 양쪽으로 갈라선 굿판 가운데서 쇠놀이, 북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순으로 노는 것이다. 상쇠가 채굿가락을 치면 소고가 한 줄로 소고놀이를 하고 이어 젯북을 치며, 몇몇 소고잡이가 한가운데로 춤을 추다가 빠른 가락에 수박(손뼉)치기를 한다.

10. 영산다드레기: 빗내진굿 중 어려운 가락과 놀이로 격렬한 전투 장면을 나타낸다. 악기와 소고가 두 패로 나뉘어 밀고 당기며 전쟁을 나타내는 격렬한 놀이를 한다.

11. 진굿(가세진굿, 홑진, 접진, 팔자진, 대진풀이): 진굿은 빗내농악이 가진 군사굿의 특징을 보여준다. 상쇠와 종쇠가 두 패로 나뉘어 진을 치며 노는데, 이는 격전을 벌여 적을 포위·섬멸하는 것을 나타낸다. 상쇠가 진을 풀면 모든 풍물꾼은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을 기뻐하며 한데 어우러져 흥을 돋우며 춤을 춘다.

12. 상사굿: 놀이(전쟁)가 끝나고 각기 흩어져 흥겨운 마음으로 각 가정으로 돌아갈 때 느린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상쇠가 '얼룰루 상사듸야'를 선창하면 모든 풍물꾼이 뒷소리를 따라하며 돌아간다.

김천빗내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는 김천농고 시절이던 1970년대부터 금릉빗내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학교다. 지속적인 농악 전승 활동이 치 학교를 통해 진행되면서 현재 보존회원들의 대다수가 김천농고 출신이며, 그 후속 세대들로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금릉빗내농악 전승의 주요한 허리를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그 전승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므로 전통적인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 전라남도 / 낙안읍성군악 / 순천낙안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김천시장(장려상)
상금 2,000

'낙안읍성군악'은 좌도농악의 군악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농악이다. 낙안 지역은 옛날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를 물리치거나 방어할 때 풍물을 울려 병사를 모으고, 군사를 독려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호로 사용되었으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제의식 성격이 강해졌다. 다양한 진법과 진굿을 포함한 열두 마당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남성적이고 가락이 빠르며, 거칠면서도 세련된 것이 특징이다.

쇠잡이의 복색이 다른 지역과 달리 검은색에 삼색이 달린 쾌자를 입는 것이 특징이다. 정월달과 백중에 두레놀이를 하면서 많이 연행되었으며, 마당밟이에 판굿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다.

낙악읍성군악은 열두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들당산
낙안읍성의 동문 밖 들판에서 굿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놀이를 신명 나게 한판 친 후, 농부들을 무동을 태우고 동문 밖 해자 위의 다리로 향한다.

2. 다리굿
'독다리'라고 불리는 해자 위의 다리에서 두 줄로 서서, 사설과 함께 안녕을 기원하면 다리굿을 친다.

3. 문굿
동문 앞에서 한 줄로 서서 영기를 갈라 세우고 뛰어다니면서 영기를 감다가 두 줄로 늘어서서 한 판 굿을 친 후, 영기의 삼지창을 서로 걸어 놓고 상쇠가 문을 열라는 신호로 부포를 삼지창 위에다 올리기를 3회 반복 후, 문이 열리면 성안으로 들어간다.

4. 당산굿
길굿을 치며, 당산으로 가서 자정에 낙안군수를 지낸 임경업 장군께 비각에서 제를 모시고, 당산굿을 치고 벅구놀음을 한다.

5. 마당밟이
당산제를 지낸 다음날 마을의 각 집을 돌며 고사소리와 덕담으로 집안의 무사 안녕을 비는 굿을 한다.

6. 판굿
마당밟이를 마치는 날, 넓은 공터에 모닥불을 피우고 판굿을 친다. 판굿에 대개 군악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놀이를 주로 한다. 칠채 길굿으로 굿판을 정돈하고, 반입굿, 바락굿(풍류굿), 변형 날당산굿, 진굿, 도둑잽이굿, 어허굿, 노래굿, 배나리굿, 등지기굿, 뜀뛰기굿 순으로 놀이를 진행한다.

7. 날당산
모든 굿이 끝나고 치배들이 동네 밖으로 나가는 굿이다. 이때 날당산 가락을 치고 난 후에는 당산이 무섭다고 해 뒤돌아보지 않고 성 밖으로 빨리 나간다. 성 밖 들판에서 한바탕 신명 나게 치고 모든 굿을 파한다.

낙안읍성과 그 인근 지역에서는 70년대 후반까지 뜬쇠였던 '주깽매기'란 분이 상쇠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를 이어서 낙안 평사농악 상쇠인 김종대 선생이 지금까지 낙안과 인근의 농악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순천낙안중학교 60여 명 학생이 낙안읍성군악을 전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한 면모라 하겠다. 특히 다리굿과 당산굿, 마당밟이 등 전통 절차를 그대로 구성해 청소년들이 학습하는 것은 전통 형태를 지속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 전라북도 / 김제농악 판굿 및 도둑잽이굿 / 김제시청소년농악단

종목 농악
수상 김천시장(장려상)
상금 2,000

김제농악은 호남 지역에 전승되는 수많은 농악 중 하나다. 특히 김제의 평야 지대를 바탕으로 여러 마을에서 대동굿 형태로 전승되어온 농악이, 뛰어난 기량을 가진 명인들을 만나 예능적 면모를 갖춘 농악으로 발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으로서 가락이 풍성하고 판의 구성이 다양하며, 치배들과 잡색들이 한 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도둑잽이굿, 일광놀이 등 연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의 특징인 고깔을 쓰고 연희하기 때문에 아랫놀음이 발달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쇠 놀이, 설장구 놀이가 두드러진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김제농악의 전통 형식은 당산제를 시작으로, 걸궁굿, 기맞이굿, 망월굿, 줄굿, 칠월칠석굿, 지심매기굿, 영풀베기, 주당매기, 무제굿, 노적굿, 기싸움, 술매기굿, 배굿, 보매기굿, 기타굿, 판굿으로 구성된다.
김제농악 판굿의 주된 가락은 풍류굿, 덩덕궁이, 오채질굿, 호호굿 등이다.

김제농악의 진행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마당
농악대가 입장해 원형을 이룬 상태에서 오채질굿, 풍년굿, 양산도, 삼채굿 등을 진행한다.

둘째마당
오방진을 치면서 큰 원을 그리다가 오방진을 치면서 달팽이진을 만들었다가 풀기를 반복한 후, 다시 큰 원을 그리며 삼채, 빠른삼채, 매도지로 마무리한다.

셋째마당
원형을 이뤄 호호굿을 진행하다가 도둑잽이굿을 진행한다. 도둑잽이굿은 잡색의 수장인 포수가 상쇠의 꽹과리를 훔쳐간 것을 다시 찾는 과정이다. 이때 상쇠와 치배들이 꽹과리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놀이와 재담으로 진행하는데, 문복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는 등의 장면이 특별하다. 도둑을 잡으면 다시 원형을 만들어 달어치기 하다가 원형크기 안에서 두 줄로 대열을 만들고 빠른삼채, 매도지로 셋째마당을 마무리한다.

개인놀이
꽹과리 부포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열두발상모 순으로 진행한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의 형식을 전승하는 농악으로, 판굿의 다양한 진풀이와 함께 뒷굿에 해당하는 도둑잽이를 전승하고 있어서 민속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호남의 지역성을 잘 간직하면서 과거에 명성이 높았던 여러 치배가 존재해 예술적인 기량을 높였던 김제농악이 현재 김제시청소년농악단을 통해 전통적인 면모를 유지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강원도 / 양양쟁기동농악 / 현북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양양쟁기동농악’은 양양군 현북면 쟁기동 마을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이다. 걸립패 농악은 음력 설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마을 남성들을 중심으로 만월산 성황당에 성황제를 올린다. 성황제는 그해의 안녕과 풍어, 풍년 그리고 액살을 막아 집안에 탈이 없도록 제사를 지낸 후, 신목을 앞세워 마을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지신랍기와 걸립굿을 했다. 이처럼 지신밟기를 통해 터주지신에게 고사를 올려 가택 평안을 기원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 전승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 9월 쟁기동 마을 주민들이 합세해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쟁기동농악보존회를 만들었다.

쟁기동농악은 주로 유희놀이, 진풀이 놀이 그리고 계절풀이 놀이로 구성되며, 짝수로 인원을 구성하고, 부자와 모녀가 연희에 참여해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상쇠의 연주기능이 탁월해 빠른 쇳가락과 다양한 잔가락 연주, 그리고 받아치는 연주의 기교, 명확하고 간결한 넘음쇠, 끊음쇠로 판굿의 움직임에 일체감을 준다. 이렇게 활발하고 율동적이며, 흥겹고 경쾌해 신명 나는 동작의 판굿이 주를 이룬다.

쟁기동농악의 역사적 고증과 의의를 되살리고자 현북중학교 전교생이 현북면에 전해져 오는 쟁기동농악을 전수받아 계승하고 있다. 현북중학교에서는 평소 매주 2시간씩 특별지도를 받아오고 있다.

현북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양양쟁기동농악은 판굿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판굿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작굿
모임채가락으로, 일채가락에 맞춰 기수, 풍물, 소고, 법구, 무동 순서로 도열한다.

2. 12채 길놀이
매우 느린 12채가락으로 흐드러지는 춤사위가 특징이다.

3. 인사굿
원형으로 둘러서서 관중에게 인사한다.

4. 민멍석말이
4채가락으로 멍석말이를 하는데, 말아서 바로 풀어낸다.

5. 서낭굿
서낭신을 모시고 서낭굿가락을 치면서 풍어·풍년, 마을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6. 3채 멍석말이
멍석말이를 하고 3채가락을 치면서 놀이를 한다.

7. 잽이놀이
소고와 법구, 무동, 풍물의 순으로 큰 원안에서 작은 원을 만들서 논다.

- **12채 소고놀이**: 큰 원안에 소고가 들어가서 12채가락에 맞춰 놀이를 한다.
- **5채 법구놀이**: 큰 원안에 법구들이 들어가서 5채가락에 맞춰 상모를 돌린다.
- **3채 무동놀이**: 큰 원안에 무동들이 들어가서 3채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 **2채 풍물놀이**: 큰 원안에 풍물들이 들어가서 2채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8. 농사풀이

농사의 과정을 재현한 것으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논갈기**: 법구가 소를 하고 소고가 소를 부린다.
- **씨뿌리기**: 법구와 무동이 짝을 이루어 씨앗을 뿌린다.
- **모찌기**: 법구와 소고가 짝을 이루어 모를 찐다.
- **모심기**: 법구와 소고가 짝을 이루어 모를 심는다.
- **단오그네놀이**: 법구와 소고가 그네를 만들고, 무동이 그네를 탄다.
- **뱃놀이**: 법구와 소고, 무동이 뱃놀이를 한다.

9. 황덕굿놀이

농사를 마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황덕불을 피워놓고 풍년을 자축하는 놀이다.

10. 12발상모놀이

닥지를 길게 붙인 12발상모를 쓰고 사사, 양사, 일사, 개구리 마당뛰기 등을 선보인다.

11. 여흥군무놀이

4채로 멍석을 말고 나서 12채 질꼬내기를 치면서 풍년에 대한 감사와 무병장수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쟁기동농악에만 있는 놀이다.

12. 마침굿

모든 굿을 마치고 관객과 잽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퇴장한다.

강원도 해안가 지역인 양양 쟁기동에 전승되는 농악으로, 농악의 원형인 제의적 면모와 놀이적 면모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실연된 형태가 강원도 지역 농악의 전형을 담고 있으며, 채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쟁기동농악이 가진 원형적 면모인 제의성과 공동체성을 더 잘 살려서, 현북중 학생들이 전승하는 농악이 쟁기동의 것이면서도 양양만의 특별한 민속놀이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상남도 / 고성오광대 / 철성중학교

종목 가면극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하는 가면극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가면극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탈춤이라고 부르는,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재담을 하는 오래된 우리의 공연예술이다. 5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전체의 행사이면서 구나의식[驅儺儀式]과 축원의 의미를 지닌 일종의 종교적 행사다. 놀이 당일 저녁, 오광대패가 풍물을 울리며 읍내를 한 바퀴 돌고 탈놀음 장소인 고성장터 넓은 마당으로 가서 밤새워 논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둥북춤

굿거리 장단에 문둥탈을 쓰고 등장해 소고[小鼓]를 기묘하게 어루면서 슬픔과 흥분이 엇갈린 북춤을 한바탕 춘다. 양반의 자손으로서 조상들이 누적한 죄과의 인연으로 불치의 문둥병에 걸려 출세치 못하는 골수에 맺힌 원한과 비분 통탄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나, 그 추한 모습의 문둥이 자신은 그래도 양반이라는 특권에 만족해 흥겨운 춤으로 한때 자아도취[自我陶醉]하니, 추[醜] 속에서 미[美]를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다.

2. 오광대 - 광대놀음

원양반, 청보양반, 적제양반, 백제양반, 흑제양반, 홍백양반, 종가도령, 말뚝이 등의 여덟 광대가 한데 어울려 제각기 특징 있는 춤을 추고 재담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봉건사회에서 양반들이 권세 행사로 평민을 괴롭히는바, 천대와 멸시에 울분을 못 참아 상놈보다 더한 양반의 비인간적인 추악상을 낱낱이 들추어내어 신랄하게 조롱 모독하는, 즉 양반 계급에 대한 반감과 모욕을 엿볼 수 있다.

3. 비비 - 탈놀음

여러 양반이 한창 흥겹게 놀고 있을 때, 인신수두[人身獸頭]의 비비가 나타나면 양반들은 혼비백산[魂飛魄散]해 도망치는데, 그중 양반 하나를 붙들고 마음대로 놀려대며 혼을 낸다. 그렇게 뽐내던 양반들도 비비한테는 꼼짝 못한다. 양반 등쌀에 쌓이고 쌓였던 상놈의 울분이 시원하게 풀리는 고장이며, 약육강식[弱肉强食]하는 특권 계급에 대한 조롱[嘲弄]과 보복·징벌을 암시한다.

4. 승무 - 중춤

중이 제자각시(기생)를 유인하는 교태스러운 춤을 추면, 제자각시는 요염한 춤으로 대응해 마침내 한 쌍으로 어울려 한바탕 음탕한 춤을 춘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似而非] 승려들의 추잡한 본능과 이면상[裏面相]을 풍자하며, 파계승에 대한 조롱이다.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 시대 배불 정책으로 인한 선비들의 사고를 포함한 것을 엿볼 수 있다.

5. 제밀주[小母] - 작은어미 놀음

시골 양반이 집을 나가 첩을 얻어 놀아나고 있는데, 영감 찾아 팔도강산을 헤매던 큰어미와 서로 만나게 되고, 작은어미에게 산기[産氣]가 있어 아이를 낳기 위해 몸을 푸는데, 황봉사가 경문을 읽으니 아들을 순산한다. 그 아이를 큰어미가 품에 안고 어루자, 작은어미가 시기 질투해 뺏으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이가 떨어져 죽고 만다. 죽은 아이를 본 작은어미는 큰어미에게 달려들어 차고 때려죽여 버린다. 양반 사회일수록 의례히 처첩[妻妾] 관계가 따르기 마련이니, 평화롭던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그 결과는 패가망신뿐이다. 처첩 관계에서 빚어지는 가정 비극과 죽음에는 빈부귀천이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풍자한 장면이다.

고성오광대 가면극은 정적이면서 동적인 한국 춤의 정수를 보여 준다. 그 중에서 일곱 명의 양반과 말뚝이가 함께 추는 군무, 그 중에서도 까치걸음과 칼뽑기 춤사위는 우주의 기운을 모아들이는 신비로움을 나타내면서 군무의 조화로움까지 드러낸다. 특히 말뚝이의 역할이 두드러진 다른 지역 탈놀이의 양반과장과는 달리, 고성오광대의 양반과장은 말뚝이와 양반의 오광대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인상을 준다. 말뚝이와 양반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장면은 양반과 말뚝이라는 등장인물이 대립적 위치에 있기보다는 호혜적 위치에서 서로 만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반과장에서 양반과 말뚝이가 함께 추는 덧배기춤은 한국 탈놀이 중 군무의 백미를 이룬다. 이때 일곱 명의 양반이 추는 오광대춤과 말뚝이춤의 조화는 춤사위만의 조화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세계의 조화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말뚝이춤은 오광대춤보다 보폭이 크고 고개사위도 크다. 그래서 삶의 힘이 넘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에 비해 양반들의 오광대춤 춤사위는 부드럽고 유장하다. 부드럽고 유장한 춤사위가 군무를 이루는 가운데, 오광대들의 복색까지 조화를 이룬다. 말뚝이춤의 남성적 느낌과 오광대춤의 여성적 느낌이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 부산광역시 / 동래지신밟기 / 동래원예술고등학교

종목 무용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동래지신밟기'는 부산 동래구 지역에 전승되어오던 세시풍속으로, 정월에 집집이 농악을 치면서 축원하고 재액을 빌던 민속이다. 1977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었다.

매년 정초부터 보름 사이에 동래 지역에서 잡신을 눌러 일 년 동안 마을과 각 가정의 안과태평 및 풍농과 재복을 발원하던 종교성을 띤 제의적 농악이라 할 수 있다. '지신밟기'란 이름에서도 연상할 수 있듯이, 뛰고 춤추며 간간이 축원의 풀이를 읊어온 것이 원형이었으리라 추정한다. 그런데 특별히 동래의 지신밟기에는 두 양반(사대부, 팔대부)과 탈을 쓴 젊은 각시, 신분은 보잘것없지만 언제나 양반 행세만 하려 드는 하동과 포수 등이 등장해 극을 펼친다. 하동이 양반과 각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포수는 양반에게 억울함을 당해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관중이 더욱 흥미를 느끼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했던 것이다.

동래지신밟기는 '풍물잽이'와 '잡색'으로 구성되지만, 호남 지방과 같이 상모놀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농악의 장단은 굿거리, 자진모리가 중심이 되고, 춤사위는 허튼춤으로, 일정한 약속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는 흥풀이의 자유무가 중심이 된다. 농악대는 호적 1명, 쇠 4명, 징 2명, 북 5명, 장구 6명, 버꾸 7명, 잡색 12명으로 구성된다. 의상은 흰색 바지저고리에 옥색 조끼를 입고 두루마기를 걸친다.

첫째마당 '주산 지신풀이'

(1) 길굿
마을 앞 공터에 풍물잽이와 잡색이 모이면 풍물잽이가 자진모리 장단으로 농악을 울리고, 잡색이 몸풀이로서 허튼춤을 한바탕 춘 다음, 길쇠장단의 농악을 울리며 깃발을 선두로 상쇠 이하 전원이 종대 행진을 하다, 하동과 포수는 떼로 행렬에서 빠져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니며 신명을 돋운다.

(2) 인사굿
자진모리 장단이 그치고 상쇠의 신호가 울리면, 동네 주산신과 당산신을 향해 두 번 절을 한다.

(3) 주산 지신풀이
자진모리 장단으로 농악이 울리면 잡색은 허튼춤을 추고, 상쇠는 주산 지신풀이를 한다.

둘째마당 '각 가정 지신풀이'

(1) 생원댁 개문풀이
김생원 대문 앞에 당도하면, 개문풀이를 전체가 복창한다.

(2) 마당놀이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허튼춤을 추다가 굿거리 장단으로 전환되면 배김새 춤사위로 바뀌고, 다시 자진모리 장단으로 변경한다. 소고놀이와 북놀이, 잡색놀음으로 개인놀이를 한다.

(3) 대청 지신풀이

상쇠는 대청 지신풀이를 하고, 풍물잽이는 북과 장고의 각을 쳐서 자진모리 장단을 맞춰 준다.

(4) 성주풀이

풍물잽이는 자진모리 장단을 울리고, 잡색은 그에 맞춰 허튼춤을 춘다. 춤이 흥겹게 벌어졌을 때 풍물잽이는 자진모리 장단을 굿거리 장단으로 바꾸고, 상쇠는 성주풀이를 한다.

(5) 위기자

성주풀이가 끝나면 굿거리 장단에서 자진모리 장단으로 변하고, 잡색은 허튼춤을 추다가 자진모리 장단이 휘모리 장단으로 바뀌면, 잡색과 풍물잽이 모두가 두 패로 나눠 마주 보고 서서 함께 밀고 당기는 형상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서고 하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하며 “위기자” 라고 외친다.

(6) 주신풀이

주인 생원과 부인이 술상을 차려 마당 가운데로 가져다 놓으면, 상쇠는 주신풀이를 창한다.

주신풀이가 끝나고 나면,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신명 나게 한바탕 허튼춤을 추다가 하동의 외침으로 다른 생원댁으로 향해 다시 일렬로 줄을 지어 대문 밖으로 나간다.

동래원예고등학교에서는 동래지신밟기로 2011년 부산청소년민속예술제에 출전해 동상을 받았고, 2012년에 재도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추진위원장상인 아리랑상을 수상했다.





● 서울특별시 / 웃다리농악 / 세명컴퓨터고등학교·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웃다리농악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일컫는 지역적 분류 명칭이다. 현재도 보존되고 있는 대전 웃다리농악, 평택 농악, 천안 흥타령농악, 안성 남사당 농악 등 각 웃다리 지역패의 상쇠들은 1950년대 후반에 조직된 남사당패에 그 탯줄을 두고 지역의 특징을 반영해 현재에 전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웃다리농악은 남사당패의 풍물적 요소들이 다수 가미되어 오무동이 더 화려하고, 판굿의 진풀이와 개인놀음을 더 다양하게 펼치는 특징이 있다.

서울 남사당 풍물놀이는 30여 가지의 판굿과 개인놀음, 무동놀이, 12발 상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대회 출전 시에는 웃다리 전통을 유지하며, 세명컴퓨터고등학교와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 웃다리풍물 가운데 외돌림벅굿, 당산벌림, 칠채 오방진, 개인놀이, 설장구, 소고, 버나, 무동놀이, 열두발상모놀이 등을 진행했다.

서울 웃다리풍물의 전체 과장은 다음과 같다.

제1과장 '입장, 인사굿'
판굿을 위해 일렬로 나간다. 징을 크게 세 번 친 후 원형을 만든 뒤 인사한다.

제2과장 '외돌림벅구'
상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들며 휘모리를 친다. 벅구는 밖의 원에서 외상이나 양상을 치기도 한다.

제3과장 '당산벌림'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을 풀어 잽이 한 줄, 벅구 한 줄, 무동 한 줄로 'ㄷ'자 대형을 갖춘다. 상쇠는 연타채를 치면서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 쪽으로 가서 논다.

제4과장 '칠채 오방진'
상쇠의 칠채 머리가락에 따라 전 대원이 칠채를 치면서 동·서·남·북·중앙 진을 만든다. 풀 때는 시계방향으로 벙어리 칠채를 두 번 치면서 푼다.

제5과장 '새미놀이'

제6과장 '절굿대놀이'

제7과장 '십자걸이'

제8과장 '사통백이'

제9과장 '좌우치기'

제10과장 '쩍쩍이'

제11과장 '풍년굿'

제12과장 '고사리꺾기'

제13과장 '벅구판놀이'

제14과장 '개인놀이'
무동놀이, 상쇠놀이, 따벅구, 설장구, 길놀이, 북놀이, 12긴채상놀이 등을 진행한다.

제15과장 '멍석말이'

제16과장 '인사굿'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이 만들어지면 삼채가락을 맺고, 휘모리가락을 치고 맺은 다음 절가락을 친다.

제17과장 '퇴장'
행진가락을 치고 큰 원을 풀어 나오면서 3~4줄로 만들어 퇴장한 다음, 휘모리가락을 빠르게 몰아치며 맺는다.

세명컴퓨터고와 경기여상의 서울 웃다리농악은 남사당패의 영향을 받은 풍물놀이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 구성을 갖췄다. 특히 전 과정을 펼치는 것보다 웃다리농악의 대표적인 가락이 들어간 외돌림벅굿, 당산벌림, 칠채 오방진 등으로 놀이를 구성해, 참여자들 개인놀이로 기량을 뽑낼 수 있게 함으로써 연출의 독자성을 드러냈다.





● 충청남도 / 웃다리풍물 / 병천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상금 1,000

웃다리풍물은 충청·경기 지방에 전승되어온 풍물굿의 한 갈래다. 대개 남사당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두레농악적 성격보다 연예농악적 면모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충청도는 웃다리농악의 주요 전승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굿인 당산굿을 하며, 두레기가 있고, 편성에 있어서도 잡색에 대포수, 각시, 양반 등이 있다.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는 어른들이 무동놀이를 하며, 무동(피조리)들의 단체춤인 '나부춤(나비춤)'을 춘다.

웃다리풍물은 다른 지역 농악에 비해 징과 북의 수가 적으며, 잡색은 무동, 사미, 양반 등이 있으며 무동의 수가 많으며, 가락은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르게 섞어 거칠고 강한 맛을 자아내고, 쇠가락의 가림새가 분명하고, 암채와 수채가락의 다채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펼쳐지는 웃다리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돌림벅구, 당산벌림, 오방감기, 무동놀림, 사통백이, 가새벌림, 좌우치기 등의 진풀이로 집단적 규율성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치배들이 상모를 쓰는 것도 특징이다.

병천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연은 풍물의 열두 마당 중 개인놀이를 중심으로 꾸몄다. 특히 평택농악 보유자인 김용래 선생과 남사당놀이 연행자인 남기문 선생의 고증을 통해 개인놀이와 남사당패의 놀이로만 알려진 것들을 포함해서 다채롭게 구성했다.

웃다리풍물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과장 '웃다리 풍물 - 판굿'

제2과장 '개인놀이, 남사당 놀이 - 벅구놀이, 무동놀이, 12발놀이, 버나놀이, 살판놀이'

제3과장 줄타기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 많은 지역에서 웃다리풍물이 전승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 출전한 병천고등학교는 연예농악적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차별성을 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줄타기를 연습해서 경연장에서 실연한 것은 큰 용기를 가지고 한 시도라 하겠다.





제2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3.10.03~10.0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족 고유의 전통을 전승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 축제 성격으로 개최되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고양하고, 민속의 존재 의의와 전승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구실을 하고자 했다.

제2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생태공원에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열렸다. 농악을 중심으로, 민속놀이, 의례, 가면극 등이 출품되었고, 모두 13 시·도 단체가 참가했다.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제주도 중문고등학교의 '영감놀이', 충청남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공주웃다리충청풍장', 경기도 광주중앙고등학교의 '광지원농악', 강원도 현북중학교의 '양양쟁기동농악', 전라북도 덕암정보고등학교의 '김제농악 판굿 및 도둑잽이굿', 전라남도 진도실업고등학교의 '강강술래', 대구광역시 대평중학교의 '날뫼북춤', 광주광역시 광주동시중학교의 '광주지산농악', 충청북도 괴산오성중학교의 '괴산농악', 인천광역시 덕신고등학교의 '강화용두레질소리', 대전광역시 유성생명과학교등학교의 '웃다리농악', 경상남도 신반정보고등학교의 '고성오광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의 '수영청노리' 등이다.

2. 참가 종목

● 전라남도 / 강강술래 / 진도실업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강강술래'는 주로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지역에서 원시종합예술로 전승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군무며, 중요무형문화제 제8호로 지정되었다.

선창자의 소리에 따라 연희를 행하는 모든 사람이 후창을 하며, 손에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들며 놀이와 함께 춤을 추는 원무로, 소리장단, 놀이,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소리장단에는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즌강강술래가 있으며, 놀이로는 남생이놀이,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기와밟기, 꼬리따기, 덕석말이, 문지기놀이, 수건찾기, 봉사놀이 등 다양한 형태가 전승되고 있다. 또한 놀이마다 독특한 몸짓과 손짓으로 흥겨움을 표현한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명기를 앞세운 연희자들이 소리꾼의 장단에 맞춰 움직이면서 원을 만들고, 명기는 네 모통이에 선다. 연희자들은 긴강강술래 장단으로 시작 인사를 하고, 이어 긴강강술래와 중강강술래, 자즌강강술래의 장단에 맞춰 둥근 원을 그리며 원무를 한다.

2. 남생이놀이

남생이놀이는 원무와 원무 사이에 있는 소리꾼의 자진머리 장단에 맞춰, 선두를 기준으로 홀수는 바깥쪽에서, 짝수는 안쪽에서 서로 마주 보며 춤을 춘다.

3. 어엉타령

어엉타령 장단에 맞춰 한 원을 만들어 춤추던 연희자들 중에서 6명의 무희들이 원 안으로 들어와 춤을 추다가 제 위치에 선다.

4. 청어엮기, 고사리꺾기

연희자들은 자즌 강강술래의 장단에 맞춰 한 원에서 두 개의 원으로 나누고, 다시 4개의 원을 만든다. 그리고 청어엮기와 청어풀기를 한 다음, 다시 두 개의 원을 만들어 고사리꺾기를 한다.

5. 밭갈이, 덕석펴기

연희자들은 덕석몰기라는 소리장단에 한 원으로 만들고, 각각 선두는 빠르게 나선형의 원을 만들다가, 덕석풀기라는 소리장단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풀고, 정방향의 한 원을 만든다.

6. 덕석몰기, 덕석풀기

연희자들은 덕석몰기라는 소리장단에 한 원으로 만들고, 선두는 빠르게 나선형의 원을 만들다가, 덕석풀기라는 소리장단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풀고, 정방향의 한 원을 만든다.

7. 자즌 강강술래

연희자들은 자즌 강강술래의 장단에 두 개의 겹원을 만들고, 밖의 원은 안 원과 반대 방향으로 뛴다. 그러다가 중간에 소리장단에 의해 각각의 원무는 반대 방향으로 뛰다가 한 원을 만든다.

8. 바늘귀 꿰기

한 원으로 뛰던 연희자들은 '바늘귀 꿰기'라는 소리장단에 맞춰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방향을 달리해 두 줄을 만들었다가, 각각의 선두가 소리 장단에 맞춰 연희자들의 사이를 바느질하는 것처럼 뛰어 한 원을 만든다.

9. 손발치기

연희자들은 "손발치기하세" 라는 소리꾼의 선창에 모두 밖으로 향해 섰다가, 소리장단에 맞춰 처음에는 선두를 기준으로 홀수가 앞으로 2보 나오면서 춤추다 제자리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짝수가 나와서 춤추다 제자리로 들어간다.

10. 수건돌리기

연희자들은 소리꾼의 "수건돌리기하세" 라는 선창에 원무하던 자리에 앉아 장단에 맞춰 춤추고, 술래는 수건놓기를 한다. 술래에게 붙잡힌 사람이 원 안으로 들어와 진도아리랑을 가창하면, 무희 6명이 나와 춤을 추고, 나머지 연희자들은 <진도아리랑>의 후렴을 함께 부른다.

11. 자즌 강강술래

연희자들은 자즌 강강술래 장단에 한 원을 만들어 정방향으로 뛰다가, 선두를 따라 밖으로 뛰기를 한다.

12. 기와밟기

연희자들은 밖으로 뛰기를 하다가, 소리꾼이 "어딧골 지완가" 라는 소리장단을 하면, 선두가 본부석을 향해 한 줄로 늘어선다. 그러다 "지와 밟세" 라는 구호에 놋다리를 만들고, 무동은 연희자들이 만

든 놋다리에 올라서서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걷는다.

13. 문지기놀이

기와밟기가 끝난 연희자 중에서 무동을 도왔던 두 명이 문을 만든다. 이때 연희자들은 놋다리 상태로 선두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이끌리며, 선두는 “열쇠 없어 못 열겠네” 라는 소리꾼의 소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와서 “열렸다” 라는 소리에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으로 움직인다.

14. 문쥐새끼, 꼬리따기

연희자들은 놋다리 형태를 유지하며 선두의 유도에 따라 움직이다가, “꼬리따세” ’라는 선창에 선두는 다시 후미를 잡으러 이리저리 돈다. “잡았네” 라는 소리꾼의 소리장단에 선두는 무동을 목마 태우고 원을 만들며 돈다.

15. 퇴장

연희자들은 중강강술래 장단에 맞춰 놋다리 상태를 풀고, 입장하면서 만들었던 원을 만들다가 긴강강술래의 소리장단에 퇴장인사를 한다.

16. 어울놀이

연희자들은 “술래” 라는 소리장단에 한가운데 작은 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선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때 명기는 작은 원 안으로 들어와 춤을 추고, 연희자들 안에 있던 몇몇 무희들은 관객을 모셔 함께 강강술래에 참여해 춤을 출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다가 소리꾼의 장단에 선두는 한 줄로 늘어서서 출구를 향해 나간다.

진도실업고등학교가 재현한 강강술래는 진도 청소년들만의 몸에 밴 통전적 완급의 율동미와 협동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리와 놀이와 춤으로 흥겨움을 표현했다. 또한 소리꾼들이 가창하는 소리가락은 진도의 토속적인 민요가락이 가진 흥겨움과 애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뒤풀이 순서인 어울마당을 통해 관객과 함께 어울려, 우리 선조들의 낙천적이며 대동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영감놀이 / 중문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2호 '영감놀이'는 제주도의 무당굿 중 놀이굿의 하나로서, 도깨비신에 대한 굿인 동시에 놀이다. '영감'은 제주도 방언인 '도채비'를 인격화해 높여 부르는 이름인데, 영감놀이는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종합예술로서 민중의식을 함의하고 있으며, 연극의 시원을 찾아볼 수 있는 가면극으로 알려져 있다. 도채비인 영감신에 대해서는 <영감본풀이>란 신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영감춤은 영감도깨비 일곱 형제가 추는 집단무로, 짚배를 들고 서우젯소리에 맞춰 제장을 도는 집단원무가 기본이 되는 군무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기수, 악사, 심방, 소미, 영감 아낙 순으로 정렬한 후, 중석을 치며 마당으로 입장 후 원을 만들어 인사굿을 친다.

2. 초감제

신을 모시는 절차로, 수심방이 말명을 하고 춤을 춘다. 다음 영감을 청해드린다.

3. 영감청함

중중모리형의 장단에 영감신이 판으로 입장하면, 재담과 춤이 이어진다. 영감신을 청하는 대목은 심방이 <영감본풀이>를 노래하고, 수심방은 영감신을 맞이해 실컷 술을 마신 영감들에게 이별잔, 작별잔을 나누자고 하며, 환자나 가족들에게도 술을 권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판 실컷 놀고 가자고 하며, 〈서우젯소리〉에 맞춰 짚으로 만든 배를 들고 춤을 춘다. 이때 환자나 가족이나 구경꾼들도 함께 어울려 한참 동안 춤을 추며 즐겁게 논 후, 영감신을 배에 싣고 내보낸다.

4. 막푸다시

수심방은 환자를 굿청에 앉혀 돗자리를 환자의 몸에 둘러 주위를 못 보게 감아 놓고, 휘모리 계열의 푸다시를 한다.

5. 배방선

막푸다시가 끝나면 수심방은 소미들을 시켜 제물을 실은 짚배를 바다 멀리 띄워 보낸다. 퇴장은 등장의 역순으로 한다.

영감놀이는 호색적인 도깨비가 여인에게 따라붙어 준 병을 고치는 유감주술적인 굿이면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에는 풍자와 해학이 있어, 종합예술제라고도 칭할 수 있다. 또한 영감놀이는 제주도의 일반적인 무당굿의 형식을 갖추며, 연희적인 놀이의 행식이 혼합되어 있다. 이는 연극에 시원을 둔 가면극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 충청남도 / 공주웃다리충청풍장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교육부장관(금상)
상금 5,000

웃다리농악은 우리나라 중부에 해당하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일컫는 용어다. 대전·공주 지역의 웃다리농악은 충청·경기 지역의 농악 가운데 지금도 연희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악이라 할 수 있다. 이 웃다리농악은 한때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중앙농악회에서 운영한 '대전웃다리농악대'를 통해 연행된 농악이 송순갑 어른에 의해 정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주웃다리충정풍장'은 걸립농악으로, 남사당패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가락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36박 칠채가락'을 으뜸으로 삼는데, 경쾌하고 다양한 겹가락을 고르게 써서 화려하면서도 강한 맛을 자아낸다. 쇠가락의 가림새가 분명하며, 암쇠와 수쇠의 다채로운 가락과 함께 장구의 간결하면서도 흥겨운 홑장단을 가미해 신명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펼쳐지는 공주웃다리충청풍장의 판재는 새미와 벅구의 개인 기량이 우수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좋은 감동을 느끼게 한다. 또한 벅구놀이와 개인놀이는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것들로, 풍물놀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무동과 열두발이 등장한다. 나비꽃놀음 등 변화무쌍하면서 신명 났던 판을 마무리 짓고, 행진가락을 치며 큰 원을 풀어 나오면서 퇴장한다.

공주웃다리충청풍장의 연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인사굿
상쇠의 삼채가락에 맞춰 원형을 만들고 인사한다.

2. 외돌림벅구
상쇠는 된삼채가락을, 잽이들은 휘모리를 치는 동안, 벅구는 자반뒤집기를 한다.

3. 당산벌림
삼채가락을 치며 원을 풀어 당산벌림 대형을 갖춘다. 상쇠가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 앞으로 이동해서 휘모리로 양상을 돌린다. 벅구가 Z자 방향으로 이동, 잽이와 마주 보며 번개상으로 맺는다.

4. 칠채 오방진
상쇠의 칠채 머리가락에 따라 전 대원이 칠채를 치며, 남북 중앙진을 만든다.

5. 새미놀이
상쇠의 삼채에 맞춰 새미들이 땅짚기춤을 춘다.

6. 절굿대놀이
당산벌림 대형에서 상쇠의 가락에 맞춰서 전진하고 제자리에서 놀이삼채가락에 맞춰 앉고 서기를 2회 반복한다. 삼채가락으로 외줄백이 대형을 만들어서 앉고 서기를 2회 반복하고, 쌍줄로 만들어서 앉고 서기 2회 반복, 쌍줄백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나간 다음 외줄로 나간다.

7. 십자걸이
삼채가락으로 당산대형을 풀어 반원을 그리며, 일렬로 대형을 정리한 후 벅구와 잽이가 십자대형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서 휘모리가락으로 맺는다.

8. 사통백이
십자대형에서 동·서·남·북 4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며 태극선을 따라 원을 만든다.

9. 좌우치기
원을 만든 다음 상쇠의 신호로 좌우치기(우삼보-좌삼보-앞삼보-뒤삼보)를 한다.

10. 쩍쩍이
삼채가락을 치면서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다가 삼채를 맺고 쩍쩍이 가락을 친다.

11. 풍년굿
굿거리 가락에 맞춰 춤을 추다가 굿거리를 맺고, 상쇠의 신호로 한가운데를 보며 앉는다.

12. 고사리꺾기
시계방향으로 놀이 삼채를 치면서 잽이를 태극선 형식으로 따고 나오다가 수벅구부터 삼채가락으로 바꾸고 일렬종대형을 만든다.

13. 도둑잽이굿
일렬종대형에서 삼채가락-휘모리가락으로 맺어서, 벅구와 무동이 우측으로 일보 나오기를 반복하고, 다시 삼채가락으로 벅구와 잽이가 두 줄을 만들어서 돌아 나온다. 상쇠의 신호가락으로 전체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개인놀음이 이어진다.

14. 벅구판굿놀이
원을 만들어서 된삼채가락에 벅구가 잽이 안쪽에서 작은 원을 만들고 상쇠는 휘모리가락에서 짝쇠가락으로 넘긴다. 이때 벅구가 옆어배기, 제자리 연풍대, 양상, 솟음벅구 엎장치기를 한다.

15. 멍석말이
상쇠가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겹원을 만든다.

16. 인사굿
삼채가락으로 큰 원을 만들어지면 휘모리로 맺어서, 절가락으로 마무리한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전 공주농고)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충청도 웃다리농악을 집중적으로 전승하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전승학교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농업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농악을 전수해 민속의 뿌리를 이어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공주농고 역시 이러한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통해 지역 농악 전승의 길을 꾸준히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공주생명과학고는 주요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며 노력의 결실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민속
예술축제



● 인천광역시 / 강화용두레질소리 / 덕신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강화도에 전승되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2호 '강화용두레질소리'는 풍년을 구가하며 작업 능률을 올리고, 권태와 피로를 덜기 위해 악기를 치며 노래를 부른 데서 시작된 것으로, 농부들이 농번기철에 윗동네(양촌마을)와 아랫동네(음촌마을)로 편을 갈라 모찌기, 모심기, 두렁밟기, 김매기, 물푸기, 그리고 열두가락파접농악 등 영농 과정을 경쟁적 협력관계로 설정해, 가락을 율동에 담아 집단으로 가무를 즐기고 영농 작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강화도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다.

이 민속놀이의 핵심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용두레질소리에 있다. 용두레를 이용해 물을 푸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강화도는 예부터 물이 귀한 곳이라 용두레질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다른 논농사소리보다 용두레질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촌마을, 음촌마을로 편가르기

보통 마을마다 두레가 결성되어 있고, 각 마을은 두레기를 들고 나가 들에 세워 놓고 공동으로 일을 한다. 들에서 일을 하거나, 일하기 위해 이동하다 보면 다른 마을 사람들, 즉 다른 두레패를 만나게 된다. 두레기는 농신이 깃든 신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두레기와 두레기가 만나면 두 신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싸움 결과에 따라 형님기와 아우기로 서로를 칭하면서 아우기가 형님기를 만나면 기 절을 드리는 풍속이 있다. 용두레질소리 공연에서는 서로 맞절을 하는 형태로 연출하고있다.

2. 모찌기

볍씨를 물에 담궈 싹을 틔우고, 그것이 모판에서 자랄 때까지 한 달이 걸린다. 모판의 모가 촘촘히 자라면서 그것을 옮기는 것이 이앙이다.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못자리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한다. 농민들이 배수문을 막아 늦가을에서 봄 영농기 이전까지 강우량을 정수했다가 이앙기에 이르러 그 물로 모판을 만들고, 모가 자라면 모찌는노래와 함께 모찌기를 한다.

<모 찌는 노래>

(받는소리) 쪘네 쪘네 여기도 한 침 쪘네
(메기는소리) 너도 찌고 나도 뽑아 다 같이 잘들 찌는구나
땀방울로 적신 모가 충실하게도 잘 자랐네
한 알기 두 알기 뽑는 모가 또 한 침이 되었구나
너도 찌고 나도 뽑아 날마다 잘들 찌는구나
여기도 철렁 저기도 철썩 또 한 침을 닦아 묶네
시집을 간다 시집을 간다 우리 모가 시집간다
밤이슬 맞고 햇볕을 받아 곱게 곱게 잘 자랐네
왼손 바른손 맞 맞추니 또 한침을 닦아묶네
우리 모 시집을 다 보내면 금년 농사는 풍년일세
참게~에~는 잡아~서~~ 술 안~주~를 하고~요~~

3. 모심기

모판에서 쪄낸 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것을 모심기라 한다. 본래는 마름모꼴 간격으로 모를 심는 메밀모를 했으나, 일제강점기부터 줄을 대서 줄에 맞춰 모를 심는 줄모로 바뀌었다고 한다.

<모심는 노래>

(받는소리) 심었네 꽂았네 여기도 한 폭 심었네
(메기는소리) 너도 심고 나는 꽂아 다 같이 잘들 심는구나
아래 웃 논에 지지를 말고 어서 빨리 심어주자
이모 저모 잘 살 맞춰 메밀모로 심어주자
메밀모를 안맞추면 여기도 저기도 방이 돈다
박석뒤 뜰에도 심어주고 장바구 뜰에도 심어주자
육칠월 객수가 아니라면 금년 농사도 풍년일세
으거리 풍년 농사를 지어 우리 딸 시집을 보내야지
계룡제 뜰에도 심어주고 해당화 골에도 심어주자
마니산뜰에도 심어주고 괴포골장도 심어주자
땀 흘려서 가꾼 농사 년년히 풍작일세
오늘도 심고 내일도 꽂아 날마다 잘들 심어주자
잘들 심네 잘들 꽂아 일심 협력 잘들 심네
먼데 사람들 듣기 좋고 가까운데 사람들 보기 좋게
바다 같이 넓은 논을 해동갑하여서 다 심었구나

4. 새참놀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새참을 먹고 피로를 달래며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일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을 놀이화한 것이다. 새참놀이 때는 실제로 새참을 들면서 춤추고 노는데, 쌍피리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

5. 김매기

모심기 작업이 끝나면 호미로 애벌김을 매고 두레계를 조직해 두벌김을 매면서 온 들판이 김매기로 절정을 이룬다. 김매는소리는 긴소리와 자진소리로 구분하며, 자진소리는 '삿갓논 김매는소리'라고도 부른다.

<김 매는 노래>

(받는소리) 에야데야 어허야 어허 어얼사 좋구나
(메기는소리) 김을 매세 김을 매세 모두 다 같이 김을 매세
이골 저골 새놓지 말고 고루고루 매어주자
김매는 데 제격은 뒷손질 잘해야 제격일세
넘어간다 넘어간다 호미 김밥이 넘어간다
다른 집의 점심은 나오는 데 우리 점심이 안 나온다
보리방아를 곱 찧느라 우리 점심이 늦어졌나
그르밭 점심참 대느라고 우리 점심이 늦어온다
갓난애가 잠잔다고 애기 어머니가 잠들었나
콩밭 김매러 나갔다가 점심밥이 늦어지나
어서 빨리 김을 매고 호미시침을 하여보세
바다 같이 넓은 논에 산달만치 남았구나

<삿갓논 김매는 노래>

(받는소리) 앵차 앵차
(메기는소리) 어떤 사람 앵차~팔자 좋아서 앵차~

부귀영화로 앵차~ 잘 살건만 앵차~
이내 팔자는 앵차~어이나 해 앵차~
땅을 파서 앵차~ 먹고 사나 앵차~

6. 두렁밟기

모심기와 김매는 작업이 끝나면 두렁밟기를 한다. 이는 논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본래 두렁을 밟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일은 어디에서나 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특정 절차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단체로 두렁밟기를 하는 일은 흔치 않다.

7. 물푸기(용두레질)

갈수기에는 두레를 지반에 따라 3단계까지 설치하고 저수답 물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물푸기를 해야 했다. 이때 흥겹게 용두레질노래를 부르며 물을 퍼올렸다. 넓은 논이나 염전에 물을 대는 작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고된 노동이었기에, 손길을 맞추고 흥도 돋우면서 물푸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용두레질 노래>

(받는소리) 어이야 용두레 물 올라간다.

(메기는소리) 하나 둘에 물올라간다 물줄은 하난데 두레는 열두레
이월 초하루 쥐불 놓는 날 서이 너이도 물올라간다
삼월 삼짓날 제비가 오구요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셨네.
오월 단오날 그네를 뛰며는 모기가 안 물어 잠자기 좋구나
육간대청엔 전후퇴 달구요 호박 주추에 부연도 달구요
건드러지게도 잘들 살았네 칠월 칠석날 내리는 빗물은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구나 팔월 한가위 달도 밝구나
구월 구일에 제비가 간다네 여남은 시절에 잘 먹고 놀았네
동지 팥죽은 맛도 좋구나 일년은 열두달 다 지나 가누나
큰애기 나이는 이팔에 십육 딸도 스무살 사위도 스무살
궁합이 좋아서 잘도 살았네 열 일곱 열 여덟 물 올라간다
이집안 자식에 삼십안 재물은 농사만 잘지면 이루어지리라
인간 사십은 매지근하구요 오십 당년에 손자놈 보았네
육순 생일은 서글픈 생일날 인간 칠십은 고래희로다
팔십호 동리에 풍년이 왔구나 구십평생을 다산다 하여도
죽어지면은 백문이 허사라 백대풍신을 헛날렸구나
삼천 두레째 물 올라간다 그저께 것까지 삼천두레다
우리아부지 많이도 푸셨네~ 어이야 용두레 물 올라간다

8. 열두가락 파접 농악놀이

모든 논농사를 마치면 풍농을 축원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대개 마지막 논매기라 끝난 시점에 연행하는 것으로 일명 '호미씻'이라고도 한다. 파접놀이 때는 마을의 농악뿐 아니라 옆 마을의 농악대를 초청해 함께 연행하기도 했다. 파접놀이 때도 간단하게 농사풀이를 하는 등 열두가락 농악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정월의 연주처럼 본격적이지는 않다

강화용두레질소리는 셈소리로 불리는 여느 지역의 '물 푸는 소리'와 달리, 열두 달을 차례대로 달거리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사설의 세련미가 있고, 각 달의 특징적인 풍광을 유쾌한 정서로 읊는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따라서 경기 지방에서는 드물게 조사되는 '물 푸는 소리'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 수영농청놀이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수영농청놀이는 조선시대 부산 수영 지역에서 농부들이 농청을 조직해 집단으로 농사짓던 모습을 놀이화한 것이다. 조직과 규율 속에서 농사일을 해가는 과정, 특히 논농사 작업을 반영했다. 가래소리, 모찌기, 김매기, 도리깨 타작소리 등의 농요가 중심이 되고, 보리타작과 소싸움을 곁들여 흥을 돋우는 칭칭소리를 부르고 춤을 추며 피로를 푼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가래소리

영각이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동·서·남·북으로 영각을 네 번 분다. 자진모리 장단에 기수를 앞세우고, 모든 연희자가 쟁기와 써레, 황소와 흑소를 몰고 입장해 마당을 한 바퀴 돈다. 모든 연희자가 퇴장하고, 황소와 흑소가 쟁기와 써레로 논을 갈고, 우장을 걸친 가래꾼들이 가래질과 가래소리를 한다. 영각이 울리면 장군이를 지게에 지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오고, 잡사리(비옷)을 걸친 내방청들이 마당 가장자리에 모판을 깐다. 쟁기와 써레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논을 갈고, 가래꾼들이 가래질을 하면 소리꾼이 가래소리를 한다.

2. 모찌기소리

가래소리가 끝나면 가래꾼들이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퇴장하고, 이어 잡사리를 걸친 내방청들이 춤추며 나와 모판 앞에서 선다. 악이 멈추면 내방청들이 허리를 숙여 모를 찌고 소리꾼이 모찌기소리를 한다. 이때 쟁기와 써레, 소는 퇴장하고, 모찌기 뒷일꾼들이 논을 정리하고, 일부는 모 벼루기를 한다. 가래꾼들이 퇴장하면 쟁기와 써레는 그대로 논을 갈고, 뒷일꾼들이 세모리를 밟거나 농기구로 손질해 편편하게 한다. '세모리'란 써레질을 하고 나서 흙이 고르게 통하게 남아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을 농기구로 편편하게 고르는 작업이다.

3. 모심기소리, 도리깨타작

모찌기 소리가 끝나면 다시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내방청들이 걸쳤던 잡사리를 마당 가장자리에 차례로 벗어 놓고, 모를 심기 위해 논으로 나가 일렬횡대 대형을 갖춘다. 악이 멈추면 내방청들이 모를 심고 소리꾼이 모심기소리를 하는데, 이때 뒷일꾼들이 모춤을 옮겨주며 모심기를 거든다. 모심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도리깨타작이 펼쳐진다. 세모리 작업을 하던 뒷일꾼들도 내방청이 잡사리를 벗을 때 같이 퇴장해 우장을 벗고 모심기 뒷일에 나선다. 모를 절반쯤 심어가면 한쪽에 마련된 타작마당에서 도리깨로 보리타작을 하는데, 한 마당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도리깨 타작소리는 하지 않는다. 모심기가 끝나갈 무렵 새참이 나오고, 모심기와 도리깨작업을 끝낸 일꾼들이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새참을 먹는다. 이때 한쪽에서 황소와 흑소에게도 여물을 먹인다.

4. 김매기소리

새참을 먹는 동안 간단한 농신제가 있고, 영각이 울리면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농청원은 김매기 대형으로, 내방청은 호미를 들고 논둑으로 자리를 잡는다. 악이 멈추고 농청원이 김매기를 하면 소리꾼이 김매기소리를 하고 북수가 장단을 받는데, 이때 내방청은 호미로 밭매기를 한다. 김매기가 끝나면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심어졌던 모를 모두 거둬들이고 소싸움 대형을 갖춘다.

5. 소싸움, 칭칭소리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동부와 서부 농청원들과 내방청들이 기를 앞세우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소싸움을 준비하고, 영각이 울리면 소싸움을 벌이는데, 동부농청이 이기면서 다 같이 흥겨운 판굿을 벌린다.

소싸움은 통상적으로 동부농청이 이기게 하는데, 이긴 마을은 이듬해 논농사가 풍년이 되고 진 마을은 밭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긴 쪽과 진 쪽이 한데 어울려 춤과 추임새로 칭칭소리를 부르며 화합의 장을 펼치는데, 별도의 칭칭소리는 하지 않는다.

원래 농사를 지으며 노동요를 부르는 것은 고된 노동의 고달픔을 달래기 위함이지만, 수영농청놀이의 내용은 그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대체로 인생살이의 애환과 신세타령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민속놀이를 하면서 영각, 도롱이, 접사리, 가래, 삭가래, 쟁기, 써래, 풍석, 영기 등 다수의 농기구를 재현한다. 이 놀이가 발굴됨으로써 농청에서 집단으로 농사짓는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 대평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2,000

날뫼(현재의 비산동)의 원고개는 달성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판을 지나는 서울 나들길이었다. 옛날 고을의 원이 이 길로 부임할 때, 마을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맞이하던 관습이 날뫼북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백성의 추앙을 받던 한 목민관이 순직하자, 이곳에 무덤을 쓰고 봄가을로 제사를 올렸는데, 이때 외로운 원님의 혼을 달래기 위해 북을 울리며 춤추던 관행이 날뫼북춤으로 이어졌다고도 한다.

날뫼북춤은 열두 마당으로 구성되며, 악사는 쇠, 징, 장고, 태평소로 구성된다. 북춤은 독무와 군무로 나뉘고, 군무는 무대와 마당 상황에 따라 5인무, 8인무, 12인무, 24인무 등으로 가감해 춤판을 펼친다. 각 과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적궁이
군사굿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장단의 북춤이 주를 이룬다.

2. 반직굿
일명 '마당굿' 또는 '자반득'이라고도 한다. 연풍대, 돌아서 앉기, 서기, 북 넘기 등 고난도의 북묘기가 펼쳐지는 마당이다.

3. 엎어빼기
빠른 덩덕궁이 장단(자진모리)으로 구성되며, 앉고 넘는 동작이 반복된다. 음양의 이치를 표현하는 대목이다.

4. 다드래기
휘모리장단의 경상도식 표현이다. 웅장한 북 가락과 회오리처럼 휘돌아가 빠른 연풍대가 펼쳐지며, 발재간이 돋보이는 춤이다.

5. 강강술래
전원이 원형 바깥쪽으로 향하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북을 치는데, 좌·우·좌 순으로 진행한다.

6. 허허굿
질주하듯이 양발을 번갈아 솟구쳐 뛰며, 한 번은 북편과 북테를, 또 한 번은 북편을 치면서 춘다.

7. 오방진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위에 화평과 강녕을 비는 춤판이다.

8. 모듬굿
두 개의 원을 만든다. 모이고 흩어지면서 진행하는데, 다양한 춤사위를 펼치며, 가락이 변화무쌍해 날뫼북춤의 진수라 할 수 있다.

9. 개인가락
북가락이 가장 발달된 것으로, 엇박으로 이뤄진 부분은 북가락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외발 돌며 북테

치기 등 개인 가량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10. 살풀이굿

굿거리 장단으로 진행하며, 풍요와 환희를 표현하는 춤판이다.

11. 개인놀이

북춤 중 소수의 기량 높은 북잽이들이 개인 기술을 펼치는데, 북으로 살풀이를 시작해 덩더궁이로 끝을 맺는다.

12. 덧배기굿

일명 '덧배기놀이가락'이라 한다. 덩더궁이 장단과 어깨춤이 발달했다.

경상도 고유의 덧배기 장단과 다드래기 장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날뫼북춤은 그 춤사위에서도 경상도 특유의 어깨춤이 잘 표현되어 있다. 다소 어린 중학생들이 길지 않은 기간에 큰 북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숙련하기는 큰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익히는 과정에서 정교한 동작보다는 날뫼북춤의 씩씩한 기개와 활달함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 괴산농악 / 괴산오성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단양군수(장려상)
상금 2,000

괴산농악(감물농악)은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일대에서 전형적인 농부의 삶으로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로, 풍랑(풍물)과 두레춤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 감물면의 지역 농경 생활이 반영된 웃다리농악으로서 군사농악적 면모도 확인된다. 전원이 패랭이로 만든 전립을 쓰고, 흰 바지저고리에 삼색끈을 멘 형식의 간소한 복장에, 빠른 가락과 동작으로 대중의 행진 음악과 축원, 그리고 한풀이가 승화되어 있다. 윗노리의 기교가 뛰어나며, 밑노리의 굿가락이 담백한 것도 특징이다.

괴산농악에서는 곤나비장단, 자진가락, 두마치, 들충장, 날풍장, 춤장단, 쩍쩍이 등의 장단이 전승되고 있다. 가락이 힘차고, 박진감 있으며, 진취적이고, 투박하며, 소박한 맛이 특징이다. 곤나비장단과 자진가락 장단이 반복되어 달아치는 연주와 곤나비장단(자진모리)의 북가락은 전형적인 중부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연주기법을 묘사하고 있다.

오성중학교 학생들이 연행한 괴산농악은 총 열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장, 인사, 돌림벅구, 쌍줄백이, 농사풀이, 오방감기, 쩍쩍이, 원 좌우치기, 4줄 좌우치기, 십자놀이, 사통백이, 소고놀음, 개인놀음,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감물농악은 괴산군 감물면 일대에 전승된 지역 특색을 갖춘 웃다리농악이다. 농악마저 변하는 현대사회에 고로들의 증언과 전승에 대한 노력으로 지역 민속을 지키고 있는 현장을 오성중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괴산감물두레농요는 괴상오성중학교 학생들을 통해 재현되어 이미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서 이미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다. 고로 등 기성세대가 청소년세대와 소통을 이어감으로써 지역 문화가 더욱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대전광역시 /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단양군수(장려상)
상금 2,000

대전광역시에 전승되고 있는 웃다리농악은 충청도의 대표 농악으로, 1984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대전 지역에는 일찍이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성행했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장승제 등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물굿 등이 있었다. 각 농악단 상쇠들이 전통을 이어오다가 1950년에 남사당패에 관여하면서 충청·경기 지역 풍물 구성이 서로 유사하게 이어져 왔다.

대전 웃다리농악은 19세기에서 최근까지, 웃다리풍물은 고인이 된 송순갑, 이원보, 최성구, 양도일 등의 주도로 전승되었다. 한때 맥이 끊어질 위기에도 처했으나, 중앙농악회에서 운영한 '대전웃다리농악대'를 통해 연행된 것을 송순갑 어른이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대전웃다리보존회가 이어받으면서 현재 웃다리농악의 보존과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 웃다리농악은 전체 열세 마당으로 구성해서 연행한다. 놀이적인 분면에서 판굿에서 진풀이의 변화가 다채롭게 진행되면서, 여러 치배들의 놀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웃다리농악만의 특징인 무동춤과 칠채가락을 통해 멋스러움을 더한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대전 웃다리농악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마당 '인사굿'
판굿을 하기 위해 일렬로 나가기 직전 한군데 모인다. 북이 점고를 친 다음 징수가 징을 느리고 크게 세 번을 치고, 다스림가락과 이채가락을 친 후 맺는다.

제2마당 '외돌림벅구·멍석말이'
인사를 한 뒤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상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든다. 이채가락을 치면서 벅구는 바깥 원에서 외상이나 양상을 치고 자반뒤집기를 한다.

제3마당 '당산벌림·들당산'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을 풀어 'ㄷ'자 대형을 갖추고, 무동이 없을 때는 '11'자 대형으로 한다. 그리고 상쇠는 연타채를 치면서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쪽으로 가서 내주는 가락을 네 박 친다. 다음으로 벅구 전원이 앞으로 여섯 걸음 걸어간 다음 제자리에서 두 박자에 이어 이채가락을 치면 벅구는 양상을 돌리고 솟음벅구를 한다. 삼채가락에 따라 벅구는 '乙'자 방향으로 이동하며, 잽이와 두 줄로 마주 보면서 된삼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빠른 사사와 일사를 하고, 연타를 치면 번개상으로 맺는다.

제4마당 '칠채오방진'
전 대원은 칠채가락을 치면서 중앙진을 만든다. 중앙진에서 상쇠의 된삼채장단에 이어 이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벅구들은 음상, 외상 등으로 돌리다가 자반 뒤집기를 한다. 중앙진을 풀어 나올 때는 짝쇠가락을 치며, 날당산벌림 대형을 만든다.

제5마당 '절굿대놀이(쌍줄백이, 외줄백이)'
상쇠가 연타채를 치면서 돌사위로 맺고, 외줄백이 대형을 만들기 위해 잽이의 한가운데를 향해 이동

할 때 상쇠는 쇠채발림을 한다. 외줄백이 대형이 만들어지면 삼채가락을 치면서 벅구 전체가 부쇠방향 쪽으로 'ㄷ'자를 그리면서 잽이를 향해 쌍 줄을 만들어 들어와, 수벅구 쪽부터 앉고 서고를 반복한다. 다시 삼채가락을 치면서 수벅구 줄은 부쇠 방향으로, 부벅구 줄은 끝북 방향으로 돌아 쌍줄백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 나간 다음 외줄로 나간다.

제6마당 '십자걸이'

잽이들은 삼채가락을 치면서 당산 대형을 풀어 반원을 그리고, 정면을 향해 일렬로 대형을 만들며, 벅구 전체는 잽이의 한가운데를 교차하면서, 십자 대형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서 이채가락으로 맺는다.

제7마당 '사통백이'

삼채가락을 치면서 십자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십자 대형이 동·서·남·북 4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태극선을 따라 돌며 원을 그린다.

제8마당 '좌우치기(원좌우치기, 네줄좌우치기)'

원 상태에서 한가운데를 보면서 이채를 친 다음, 상쇠의 머리가락을 듣고 좌우치기를 한다. 연타채를 치면서 큰 원에서 네 줄을 만들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네 줄이 동시에 한 줄을 만들면서 큰 원을 그린다.

제9마당 '쩍쩍이'

큰 원 상태에서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다가 삼채를 맺고, 쩍쩍이가락을 약 3~4회 정도 친다. 상쇠의 신호를 듣고 쩍쩍이가락을 맺는다.

제10마당 '풍년굿'

굿거리가락에 맞춰 춤을 추다가 굿거리를 맺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상쇠의 연타채가락의 신호로 한가운데를 보면서 앉는다.

제11마당 '개인놀이'

무동놀이, 쇠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살판, 12발(긴채상)놀이를 진행한다.

제12마당 '외돌림벅구·멍석말이'

일명 '덧배기놀이가락'이라 한다. 덩더궁이(자진모리) 장단과 어깨춤이 발달했다.

제13마당 '퇴장'

채가락을 치며 멍석말이를 풀어 나오면서 퇴장을 한 다음, 이채가락을 빠르게 몰아치며 맺고, 절가락을 치고 서로에게 인사한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는 '구암풍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농고 시절 1979년 창단된 농악반이 구암풍물반으로 이어지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전 웃다리농악을 전승하고 있다. 유성생명과학고 풍물반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물론 여러풍물놀이 또는 농악대회에 참가하면서 유수의 업적을 쌓아왔다. 오랫동안 대전 지역 웃다리농악을 보존·전승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판굿을 중심으로 정리된 연행자료를 전승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맥락의 웃다리농악을 찾아 지속해서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경상남도 / 고성오광대 / 신반정보고등학교

종목 가면극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고성오광대는 경상남도 고성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탈놀이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양반 계급과 종교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해학을 담아내는 전형적인 탈춤 형태의 연희다. 현존하는 영남형 탈춤 중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승·보존되고 있다. 옛날에는 마을 행사이자 구나의식과 축원의 의미를 가진 종교행사로 행했으며, 저녁 무렵 오광대패가 풍물을 울리며 읍내를 한 바퀴 돌고 장터로 이동해 넓은 마당에서 밤새워 놀았다고 전해진다. 그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반춤

봉건사회에서 권세로 일반 평민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괴롭히는 그 시대 양반의 추악상을 '말뚝이'라는 민중의 대표를 내세워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는 과장이다. 말뚝이의 춤사위는 천·지·인 삼재를 형상화해 인간의 평등과 권리 회복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큰 동작과 활기찬 어깨 짓으로 역동성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양반춤은 부채로 당시 양반들의 권세를 풍자하며, 마치 고고한 선비의 춤처럼 맛깔스럽다. 대사(재담)의 내용 또한 해학적이고, 그 익살스러운 풍자는 선조들의 여유와 풍류를 엿볼 수 있으며, 오방 색깔(청·적·백·흑·황제)의 화려함은 자연의 색으로서 동양의 음양오행사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2. 제밀주

작은어미 놀음으로, 시골 양반이 집을 나가 첩을 얻어 놀아나고 있는데, 영감을 찾아 팔도강산을 헤매던 큰어미와 영감이 서로 만나게 된다. 이때 작은어미가 해산기가 있어 아이를 트는데, 황봉사가 경문을 읽더니 이윽고 아들을 순산한다. 그 아이를 받아 큰어미가 품어 안고 어르나, 작은어미와의 아이 쟁탈을 벌이다 결국 아이를 떨어뜨려 죽이고 만다. 이에 울분을 느낀 작은어미에게 큰어미 또한 죽임을 당한다. 이 과장은 처첩 관계에서 빚어지는 가정 비극과, 죽음에는 빈부 귀천이 없다는 인생의 무상함을 그린 마당이다. 이 과장은 춤보다는 연극적인 면이 강하며, 그 춤사위가 일반 생활의 춤과 흡사하고, 또한 비극으로 끝맺음 하지만 인간은 평등하다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걸쭉한 표현과 흐트러진 춤에서 마당판의 여유와 희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3. 상여놀이

처첩 관계의 기장 비극과 죽음에는 빈부귀천이 없다는 인생의 무상함과, 억울하게 죽은 큰어미의 넋을 달래는 화려한 목상여 놀이로 이어진다.

고성오광대는 등장인물들의 춤사위가 크고, 활기가 넘치며, 역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등장인물들의 걸쭉한 표현과 흐트러진 춤은 마당판의 여유와 희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또 대사의 내용 또한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풍자를 담아 선조들의 여유와 풍류를 엿볼 수 있다.

●강원도 / 양양쟁기동농악 / 현북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양양쟁기동농악’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쟁기동에 전하는 농악으로, 전통적인 성황제와 지신밟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쟁기도에서는 음력 설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만월산 성황당에 제의식을 올린다. 제사를 지낸 후에는 그해의 안녕, 풍어, 풍년을 기원하며, 액살을 막아 집안에 탈이 없도록 터주지신에게 고사를 올려 가택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했다. 이러한 전통 의식에 걸립패의 농악 판굿이 더해지면서 놀이의 유희성이 확대되었다. 전통적인 형태로 전승을 이어오던 쟁기동농악은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 2011년 11월 보존회를 설립했다.

쟁기동 농악은 상쇠의 빠른 쇳가락, 다양한 잔가락, 받아치는 연주 기교, 명확하고 간결한 넘음쇠, 끊음쇠로 판굿의 움직임에 경쾌함과 일체감을 주며, 12채 질꼬내기는 바다를 바라보며 시름을 달래는 애절함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주로 유희, 진풀이, 계절풀이로 구성되어 있는 쟁기동농악은 짝수 인원 구성으로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며, 부자와 모녀가 함께 참여하는 독자성을 보인다.

쟁기동농악은 그 역사적 고증과 의의를 되살려 현북중학교 전교생이 계승하고 있는데, 전교생이 매주 2시간씩 특별지도를 받으면서 농악에 참가하는 등 학교의 특색교육으로도 선정되어 있다. 2012년 3월에 창단공연을 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김현수 학생이 상쇠를 맡았다.

현북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양양쟁기동농악은 판굿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작굿
모임채가락으로, 일채가락에 맞춰 기수, 풍물, 소고, 법구, 무동 순서로 도열한다.

2. 12채 길놀이
매우 느린 12채가락으로 흐드러지는 춤사위가 특징이다.

3. 인사굿
원형으로 둘러서서 관중에게 인사한다.

4. 민멍석말이
4채가락으로 멍석말이를 하는데, 말아서 바로 풀어낸다.

5. 서낭굿
서낭신을 모시고 서낭굿가락을 치면서 풍어·풍년, 마을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6. 3채 멍석말이
멍석말이를 하고 3채가락을 치면서 놀이를 한다.

7. 잽이놀이
소고와 법구, 무동, 풍물의 순으로 큰 원안에서 작은 원을 만들서 논다.

- **12채 소고놀이**: 큰 원안에 소고가 들어가서 12채가락에 맞춰 놀이를 한다.
- **5채 법구놀이**: 큰 원안에 법구들이 들어가서 5채가락에 맞춰 상모를 돌린다.
- **3채 무동놀이**: 큰 원안에 무동들이 들어가서 3채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 **2채 풍물놀이**: 큰 원안에 풍물들이 들어가서 2채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8. 농사풀이

농사의 과정을 재현한 것으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논갈기**: 법구가 소를 하고 소고가 소를 부린다.
- **씨뿌리기**: 법구와 무동이 짝을 이루어 씨앗을 뿌린다.
- **모찌기**: 법구와 소고가 짝을 이루어 모를 찐다.
- **모심기**: 법구와 소고가 짝을 이루어 모를 심는다.
- **단오그네놀이**: 법구와 소고가 그네를 만들고, 무동이 그네를 탄다.
- **뱃놀이**: 법구와 소고, 무동이 뱃놀이를 한다.

9. 황덕굿놀이

농사를 마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황덕불을 피워놓고 풍년을 자축하는 놀이다.

10. 12발상모놀이

닥지를 길게 붙인 12발상모를 쓰고 사사, 양사, 일사, 개구리 마당뛰기 등을 선보인다.

11. 여흥군무놀이

4채로 멍석을 말고 나서 12채 질꼬내기를 치면서 풍년에 대한 감사와 무병장수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쟁기동농악에만 있는 놀이다.

12. 마침굿

모든 굿을 마치고 관객과 잽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퇴장한다.

양양쟁기동농악은 강원도 해안가 지역인 양양 쟁기동에 전승되는 농악으로, 농악의 원형인 제의적 면모와 놀이적 면모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농사풀이의 단오그네놀이나 여흥군무놀이 등은 쟁기동농악의 독자적인 면모로 확인된다. 쟁기동농악이 가진 원형적 면모인 제의성과 공동체성을 더 잘 살려서, 현북중 학생들이 전승하는 농악이 쟁기동의 것이면서도 양양만의 특별한 민속놀이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북중학교가 전승학교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바, 학생들이 전통놀이에 대한 학습 기회를 얻고,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전라북도 / 김제농악 판굿 및 도둑잽이굿 / 덕암정보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김제농악은 호남 지역에 전승되는 수많은 농악 중 하나다. 특히 김제의 평야 지대를 바탕으로 여러 마을에서 대동굿 형태로 전승되어온 농악이, 뛰어난 기량을 가진 명인들을 만나 예능적 면모를 갖춘 농악으로 발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의 특징인 고깔을 쓰고 연희하기 때문에 아랫놀음이 발달했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으로서 가락이 풍성하고 판의 구성이 다양하며, 치배들과 잡색들이 한 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도둑잽이굿, 일광놀이 등 연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김제농악의 전통 형식은 당산제를 시작으로, 걸궁굿, 기맞이굿, 망월굿, 줄굿, 칠월칠석굿, 지심매기굿, 영풀베기, 주당매기, 무제굿, 노적굿, 기싸움, 술매기굿, 배굿, 보매기굿, 기타굿, 판굿으로 구성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쇠 놀이, 설장구 놀이가 두드러진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김제 덕암정보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김제청소년농악단은 김제농악 가운데 판굿과 함께 도둑잽이굿을 중심으로 놀이를 진행했다.

첫째마당
농악대가 입장해 원형을 이룬 상태에서 오채질굿, 풍년굿, 양산도, 삼채굿 등을 진행한다.

둘째마당
오방진을 치면서 큰 원을 그리다가 오방진을 치면서 달팽이진을 만들었다가 풀기를 반복한 후, 다시 큰 원을 그리며 삼채, 빠른삼채, 매도지로 마무리한다.

셋째마당
원형을 이뤄 호호굿을 진행하다가 도둑잽이굿을 진행한다. 도둑잽이굿은 잡색의 수장인 포수가 상쇠의 꽹과리를 훔쳐간 것을 다시 찾는 과정이다. 이때 상쇠와 치배들이 꽹과리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놀이와 재담으로 진행하는데, 문복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는 등의 장면이 특별하다. 도둑을 잡으면 다시 원형을 만들어 달어치기 하다가 원형크기 안에서 두 줄로 대열을 만들고 빠른삼채, 매도지로 셋째마당을 마무리한다.

개인놀이
꽹과리 부포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열두발상모 순으로 진행한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의 형식을 전승하는 지역으로 판굿의 다양한 진풀이와 함께 뒷굿에 해당하는 도둑잽이를 전승하고 있어서 민속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호남지역의 지역성을 잘 간직하면서 과거에 명성이 높았던 여러 치배가 존재해 예술적인 기량을 높였던 김제농악인 김제시청소년농악단을 통해 전통적인 면모를 유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제21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4.10.02~10.03,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청소년이 민족 고유의 전통을 전승·보존하고, 사라져가는 민속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제2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에서 10월 2일부터 3일 양일간 열렸다. 개막 공연으로 '강릉관노가극면'을 선보였으며, 진도실업고등학교가 초청공연으로 '강강술래'를 무대에 올렸다. 주된 종목은 민속놀이, 민요, 농악 가면극, 춤 의례 등 민속 일반으로, 총 13개 시·도 단체가 참가했다.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제주도 세화고등학교의 '숨비소리', 부산광영시 배영초등학교의 '부산농악', 경상남도 양덕중학교의 '함안화천농악', 대전광역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웃다리농악', 광주광역시 광주동신중학교의 '광주지산농악',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와 문화정보고등학교의 '발우공양', 대구 서부중학교의 '날뫼북춤', 경기도 충현고등학교의 '철산쇠머리디딜방아맥막이놀이',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청주신촌풍장', 강원도 영서고등학교의 '원주매지농악', 전라북도 덕암정보고등학교의 '김제농악 판굿 및 도둑잽이굿', 충청남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공주걸립농악', 전라남도 여수시청소년전통연희단 굴렁쇠놀이패의 '호남우도농악' 등이다.

2. 참가 종목

● 경기도 / 철산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 / 광명문화원(충현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철산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는 300여 년 전 경기도 철산리 소하리 일대에 돌림병이 발병했을 때, 이를 물리치는 의식을 재현한 작품이다. 보통 정월대보름 당산제가 끝나면 여성들이 인근 마을로 디딜방아를 훔치러 가고, 훔쳐온 디딜방아를 마을 입구에 거꾸로 세워 둔 후 부인들 속곳을 거꾸로 입혀놓으면 잡귀나 질병을 막는다는 믿음이 있다. 이 놀이는 돌림병이 돌자 마을 대동회의를 열어 제물을 올리고, 이웃마을 디딜방아를 훔쳐 거꾸로 세워 놓은 후, 주위에 부엌칼을 세우고, 솥뚜껑을 거꾸로 이고, 왼새끼로 금줄을 치고, 마을 입구에서 치성을 드리며 역병이 물러가기를 기원했던 모습을 재현했다.

놀이는 목신제, 당산제, 디딜방아 찧기, 역병창궐, 디딜방아 훔치기,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마을대동놀이 순으로 진행한다.

- 당산제는 당산나무 앞에서 제물을 올리고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제의는 문향강산, 초헌, 독촉, 아헌, 종헌, 소지의 순으로 한다. 소지가 끝나면 마을 사람 모두 음복을 하고 농악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 당산제가 끝나면 논일·밭일을 마치고 사람들이 절구와 디딜방아로 곡식을 찧는다. 곡식을 찧으면서 방아소리를 한다. 이때 이웃마을에 돌림병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돈다. 부녀자들은 액막이를 해야 한다고 수선을 떨고, 마을 회의를 열어 액맥이를 할 것을 결정한다.

- 액막이를 위해 남자는 왼새끼를 꼬아 마을 주위에 금줄을 두르고, 부녀자들은 디딜방아를 훔칠 장소를 모색한다. 밤이 되면 아낙네들은 상주 한 명을 정하고 장정 서너 명을 앞세워 미리 봐둔 이웃마을로 디딜방아를 훔치러 간다. 장정들이 방아를 떼어오면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부녀자들은 함께 방아를 메고 온다. 이때 선소리꾼이 상여소리를 하며, 마치 상여가 나가듯이 방아를 마을로 가지고 온다. 이때 마을 부녀자 중 한 명은 잡귀를 쫓기 위해 솥뚜껑을 머리에 이고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따라온다.

- 훔쳐 온 디딜방아가 마을에 도착하면 농악대와 남자들이 행렬을 맞이한다. 디딜방아 다리에 피 묻은 여자의 고쟁이를 입혀 마을 입구에 세우고 왼새끼를 걸친다. 디딜방아 주변에 집집이 가져온 부엌칼을 꽂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부녀자들은 고쟁이를 벗어 디딜방아와 금줄에 걸고, 사방에 팔죽을 뿌려 역병이 물러나기를 기원한다.

- 액막이가 끝나면 음복을 나눈다. 역병이 물러가면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함께 대동놀이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손님마마가 물러갔다”, “괴질이 물러갔다” 등 환호를 지르며 한바탕 신명을 푼다.

경기도 철산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는 300여 년 전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놀이 형태로 만든 경연작으로, 액막이 과정을 이야기 전개에 맞춰 무대 공연으로 재현한 점이 탁월했다. 연극적인 요소가 존재하나, 의례 행위 역시 잘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구성에 광명농악으로 흥까지 끌어올려 무대 예술로서 높은 가치를 보였다.





● 강원도 / 원주매지농악 / 영서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원주매지농악'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에 전승되는 농악이다. 마을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이 농악이 1930년대 이전부터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매지농악은 대보름 지신밟기, 단오서낭제, 두레, 걸립, 잔치판 등 마을의 여러 문화 현장에서 연행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각종 경연대회에 활발히 참가하면서 강원도 영서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1994년 설립된 원주매지농악보존회가 매지농악의 전승과 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원주매지농악은 강원도 원주와 영서 이남권의 전형적인 가락과 진풀이를 가지고 있고, 상쇠의 가락이 다양하고 마을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농악과 두레농악이 결합되어 있으며, 쇄납의 선율은 강원도 토속음악의 특징인 메나리조를 간직하고 있다. 매지농악의 판굿은 길군악가락에 농기를 선두로, 태평소와 상쇠, 부쇠, 징, 장구, 북, 상모, 법고, 무동, 잡색의 순으로 행진을 시작하며, 오방굿(멍석말이)을 하고, 상쇠의 꺾음쇠가락에 따라 뒤치배들이 글자를 만들어나가는 상징굿(글자풀이)을 하며, 이어 상쇠의 덧배기가락에 상모놀이를 하고, 꺾음새 가락에 법고놀이를 한다. 이후 무동놀이, 12발상모, 마무리굿 등을 하면서 한판 놀다가 인사를 하고 길군악을 치면서 퇴장한다.

매지농악은 두레농악을 기본으로, 명절 때는 마을 구성원 다수가 참여하는 대동놀이로 전승되어오고 있다. 판굿의 빠르기는 강릉농악과 비슷하며, 연희 과정의 구성은 웃다리농악과 유사하다. 이러한 특성은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 접경에 위치한 회촌마을의 지리적 위치 때문으로 보인다. 판굿은 길굿, 긴질굿(길군악 칠채), 태극진, 문진, 가세진, 열십자진, 방울진, 36방놀이, 따놀이, 꽃나비진(삼성놀이, 여흥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지농악보존회에서 정리한 매지농악은 전체 9과장이며, 영서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를 실연했다.

1. 길굿

3열로 시작해 질굿을 치며, 대열을 원형으로 구성하고 꺾음쇠 가락에 안팎으로 인사한다.

2. 길악군칠채

긴질굿을 치며 원안으로 들어오며 멍석말이를 하고 품앗이 장단을 친다. 상쇠와 치배가 같이 합굿을 치며 몰다가 자진가락을 치며 멍석을 풀고 나온다.

3. 태극진

멍석말이를 풀면서 자진가락으로 치다가 원을 구성할 때 꺾음쇠에 의해 덩덕궁이가락을 치며 태극진을 구성한다. 꺾음쇠에 의해 앉아서 자진가락을 치고, 덩덕궁이로 일어서서 태극진을 풀어나간다.

4. 운진

덩덕궁이장단으로 원을 돌다가 관중 반대편에서 한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치배들이 하나 건너씩 나뉘어 두 줄로 대열을 형성해 앞으로 전진한다. 앞에 도착해서는 꺽음쇠에 의해 두 줄에 무대 앞까지 와서 마주 보고 가세치기 진으로 진행한다.

5. 문진가세치기

원을 구성하고, 이열을 만든다. 대열이 마주 보고 꺾음쇠에 의해 덩덕궁이 장단에 한 발자국 띄며 맞

은편 치배를 오른쪽 어깨로 비껴가며 교차한다. 꺾음쇠에 의해 한 줄로 맞춰 서고 원을 구성한다.

6. 십자진

치배 별로 열십자로 서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상을 하면 덩덕궁이로 각각 반대로 90도 회전해 교차한 후 열십자를 만들어 선다.

7. 방울진

꺾음쇠에 의해 치배별로 중앙 십자 대형으로 4개 대열이 마주 서고, 꺽음쇠에 의해 4개의 작은 원을 구성해 논다. 이때 좌우치기를 하고, 상쇠가 진을 풀어 원진을 형성한다. 가락도 덩덕궁이를 친다.

8. 개인놀이

따놀이 상쇠, 새미무동, 법구, 열두발상모 등을 진행한다.

9. 꽃나비진

따놀이 후 원진을 구성하고, 세 겹의 원(무동, 치배, 법구)을 구성한다. 꺾음쇠에 의해 3겹의 원을 풀어 하나의 원진을 구성해 덩덕궁이, 자진가락, 이채로 맺는다.

원주매지농악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 지역인 원주의 지역 특색을 잘 보여주는 농악이다. 매지리 회촌마을에서 전통적인 두레농악으로 전승되던 형태에서 농악의 놀이적 측면과 진풀이적 면모가 확대되면서 세련된 농악의 형태로 정착했다. 영서고등학교는 원주매지농악 전승학교로, 졸업생 중 다수가 원주매지농악보존회에 소속될 정도로 오랜 시간 매지농악 전승과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지역 농악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동참은 전통문화의 지속적 보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 경상남도 / 함안화천농악 / 양덕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교육부장관(금상) 5,000
상금 5,000

'함안화천농악'은 경남 함안군 칠북면의 화천마을에 전하는 마을농악이다. 화천마을은 들에 능수양버들이 울창하게 늘어서 있어 '유정리'로도 불리는 마을이다. 광려천이 마을 앞을 가로질러 화천마을로 불리며, 가장 오래된 큰 고목을 골라 '서낭나무(성황목)'로 받들며 해마다 9월 그믐날 촌민 모두가 정성을 드리고, 상달(상월)인 10월 초하룻날 전 동민이 모여 지성으로 대제를 지내며 농악을 울리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함안화천농악은 지신밟기와 풍년굿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풍농과 안택을 기원하며 제의식을 지냈다. 정월 초삼일에는 지신밟기 매구를 쳤으며, 5월 단오에는 능수버들 그늘에서 마을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바탕 놀고, 농번기에는 풍물을 울리면서 일터로 나가 '두렛일'을 함께 했으며, 7월 백중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놀이판을 펼치고, 9월 그믐날 추수가 끝날 즘에는 풋살이라 해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놀며, 10월에는 마을 당제를 지내고, 12월에는 한해를 아쉬워하는 마음에 농악을 울리는 것을 이어왔다. 함안화천농악은 세시적 마을굿으로 연행되어 오며 세시풍속의 하나로 마을 사람들을 화합하는 중심체 역할을 했고, 1945년 8·15 광복 후 농악단을 조직해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

함안 화천마을의 농악은 다른 농악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영산다드래기의 다양한 변주가락 등, 쇠가락의 화려함이 있다. 둘째, 마을 주민이 즐기는 두레 농악이다. 셋째, 상모의 길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길어 작은 원이 더 생긴다. 넷째, 농사짓는 과정을 상모놀이를 통해 표현한다. 기수, 치배, 잡색으로 농악단을 편성하며, 총 열두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덕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함안 화천농악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부름굿
공연에 앞서 영산다드래기 장단을 치며 준비한다.

2. 길굿, 인사굿
기를 앞세우고 상쇠 이하 전 단원이 덧배기 장단에 맞춰 일렬로 행진 후, 원형 대형으로 인사한다.

3. 살풀이굿
살풀이 장단에 맞춰 원형으로 돌며 춤을 춘다.

4. 덧배기굿
덧배기 장단에 맞춰 선잽이는 돌고 서고를 세 번 반복하고, 앉은잽이는 쪼그려 앉아 있다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제자리에서 세 번 돈 후, 돌고 서고를 세 번 반복한다.

5. 사방오토지신굿
사방의 지신에게 제를 올린다. 사방오투 지신굿으로 다섯 개의 원을 만들고 한가운데에 상쇠가 위치한다.

6. 팔진치기굿

상쇠를 선두로 덕석말이처럼 작은 원을 만들었다가 다시 푼다. 진법의 형태는 팔자진, 덕석말이진을 한다.

7. 진놀이굿

상쇠의 신호에 따라 두 줄치기로 11자를 만든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일어 선후 뒤돌아 세 가락 정도 나갔다가, 다시 신호 후 되돌아서서 갈라진 두 줄이 마주 보고 선다.

8. 고사리꺾기굿

상쇠의 신호에 따라 부쇠, 중쇠가 같은 줄에 있는 치배들을 치배 별로 원으로 감아 차례로 돌아 나온다. 마지막 원이 두 개 형성되며 상쇠의 신호에 따라 한 원이 된다.

9. 영산다드래기굿

신령에게 비는 가장 빠른 쇠장단으로 구성된 놀이굿이다.

10. 호호굿

호호가락에 맞춰 전원이 원형으로 돌며 호호를 제창하며 쉬어가는 굿놀이로, 원진에서 별진을 형성한다.

11. 풍년농사기원굿, 개인놀이굿

풍년을 기원하면서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벼베기, 벼타작, 볏짚모으기 등 전 농사과정을 나타내는 놀이굿이다. ‘ㄷ’자 대형에서 각자의 기량을 나타내는 개인 장기자랑을 펼친다.

12. 마침굿

모든 연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함안화천농악은 화천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마을 농악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갖춘 농악을 양덕중학교 풍물패 두드림에서 전승하고 있다.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과 동아리 캠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전승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 충청남도 / 공주걸립농악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상)
상금 4,000

'웃다리농악'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일컫는 용어다. 대전·공주 지역 웃다리농악은 충청·경기 지역 농악 가운데 지금도 연희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악이라 할 수 있다. 한때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송순갑 어른이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월대보름 전후에 행해지는 전형적인 웃다리농악은 농악대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집안에 명복을 기원하는 축원 덕담을 하는 걸립굿의 형태로, 이 과정에 연예농악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면서 다양한 기량을 뽐낸다.

충남과 공주 인근 지역에서 전승된 웃다리농악이 1977년 명인(조연출) 정인삼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공주농업고등학교 방과 후 동아리로 전국대회에 나가고, 공주웃다리보존회로 '88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업적을 쌓기도 했다. 출전 당시 주진영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악반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등 공주 지역 웃다리풍물 전승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연행한 공주걸립농악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산굿
마을 입구에서 당산나무에 인사를 드리고 마을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2. 우물굿
동네의 샘에서 치는 굿으로, 마을의 우물이 마르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나오기를 기원한다.

3. 문굿
걸립할 집에 들어갈 때 허락을 받고 대문을 들어가는 굿이다.

4. 성주굿(축원고사덕담)
곳간, 장독, 부엌굿을 다 치고 집안에서 지내는 안택굿으로, 고사를 지내는 굿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5. 뒤굿
고사를 지내고 마당에서 걸립패가 농악을 치며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노는 굿으로, 판굿놀이가 이어진다.

6. 칠채(길군악)
상쇠의 칠채 머리가락에 따라 전 대원이 칠채를 치며, 남북 중앙진을 만든다.

7. 절굿대놀이(쌍줄백이, 외줄백이)
당산대형에서 상쇠의 세 가락에 맞춰 일동 전진하고, 제자리에서 놀이삼채가락에 맞춰 앉고 서고를 2회 반복한다. 상쇠가 삼채가락을 치며 외줄백이 대행을 만들어 앉고 서고를 2회 반복한다. 다시 쌍줄로 만들어 앉고 서고 2회 반복, 쌍줄백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나간 다음 외줄로 나간다.

8. 개인놀이

버나, 땅재주, 무동놀이 열두발상모 순으로 놀이를 진행한다.

9. 멍석말이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들고 이채를 친다. 벅구는 바깥 원에서 외상이나 양상을 치거나 자반뒤집기를 한다.

10. 인사굿

삼채가락을 치면서 큰 원이 만들어지면 삼채가락을 맺고, 휘모리가락을 치고 맺은 다음, 절가락을 친다. 마지막으로 관중을 향해 인사를 한다.

11. 퇴장

행진가락을 치며 큰 원을 풀고 나오면서 3~4줄로 만들어 퇴장한다.

공주농업고등학교는 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전신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충청도 웃다리농악을 집중적으로 전승하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전승학교라 할 수 있다. 지도자의 의지는 물론 학생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학교생활을 통해 얻은 농악 경험으로 지역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 으뜸 문화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 농악의 전승을 지역 청소년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여러 차례 수상을 통해 결실을 보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충청북도 / 청주신촌풍장 / 충북공업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강원도교육감(은상)
상금 4,000

청주신촌풍장은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지역에 전승되어오던 농악으로, 1992년 10월 23일 지정된 충북 무형문화재 제1호 청주농악의 모태로 전한다. 고로 풍물인들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신촌풍장을 전승하고 고증했다. 돌무(상모)를 돌리고, 무동을 놀리며, 농사일 과정의 판제를 연출해 부락과 부락을 단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연중민속, 월중민속, 두레, 집짓기, 뚝방 쌓기 등을 필수적인 요소로 평한다.

신촌풍장은 돌무(상모)를 다른 지역 풍물에 비해 목덜미 쪽 가까운 뒤통수에 쓰는 특징이 있다. 이는 양사위를 연희할 때 더 큰 원을 하늘로 뻗치기 위한 것으로, 현란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투박하게 몸 가까이 바짝 붙여 양사위를 그리는 돌무(상모)짓을 신총풍장에서는 보물로 여긴다. 특히 신촌풍장에서는 전국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상모의 긴 초리(물체)의 발상지로, 전국의 풍물 명인들에게 확인되었음을 중요한 자랑거리로 삼는다.

신촌풍장의 장단은 다양한 고유명칭을 사용되는데, 곤나비장단(자진모리), 자드래기(자진가락), 두마치(이채, 휘모리), 질곤애비(칠채), 마당일채(육채), 춤장단(굿거리), 날풍장(굿거리), 쩍찍기(쩍쩍이) 등이 확인되며, 그 판제에는 농경의 삶에서 자연히 표현되고 파생되는 몸짓, 춤짓, 대동놀이, 기원놀이, 신명, 의식 등이 내포되어 있다.

충북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연행한 청주신촌풍장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등장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 순으로 갈지자 대형으로 입장한다.

2. 인사
원을 만든 후 제자리에서 인사한다.

3. 꽃봉우리
상쇠가 한가운데에, 소고가 중간 원에, 꽹과리, 징, 장고, 북이 바깥 원에 위치하며, 휘모리장단에서 옆사위 뛰기를 한다.

4. 새조시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네 줄이 되게 대열을 만든다.

5. 네줄백이
네 줄을 만든 후 좌우치기를 한다. 좌우치기 후 양 두 줄이 한가운데를 보고 자진가락을 연주하며 신명 나게 논다.

6. 쌍줄백이
왼쪽 2줄은 꽹과리, 징, 장고, 북이, 오른쪽 1줄에는 소고가 위치한다.

7. 벅구놀이

상쇠가 수벅구를 지휘하며 벅구들의 놀이를 진행한다.

8. 농사풀이
상쇠의 신호로 소고잽이들이 농사 과정을 풀어낸다. 농사풀이는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순으로 진행한다.

9. 오방감기
동서로 영기를 세우고 멍석을 말고, 한가운데에 도든 깃발을 집중시키고 멍석말이를 하며, 자진가락, 휘모리가락을 연주한다.

10. 춤마당
굿거리에 모든 치배가 자유롭게 춤을 춘다.

11. 쩍쩍이
쩍쩍이라는 가락을 연주하며 신명 나게 연희한다.

12. 십자걸이
횡으로는 소고, 종으로는 나머지 치배가 배열해 십자를 형성한 후, 상쇠의 신호를 따라 사방으로 돌며 자진가락 연주한다.

13. 연자방아진
상쇠의 신호로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만 회전한다.

14. 사통백이
십자로 나뉜 네 곳에서 각각 원을 만들어 자진가락을 연주하며 옆사위 뛰기를 한다.

15. 절구놀이
왼쪽의 2열은 악기가 서고, 상쇠와 소고잽이들이 원을 만들어 상모짓을 하면서 절구방아 찧는 모습을 표현한다. 다시 소고잽이들이 오른쪽에서 종대형으로 앞걸음 디디기를 하며 전진한다.

16. 개인놀음
상쇠, 수벅구, 열두발이 각각 개인 기량을 연희한다.

17. 멍석말이, 퇴장
한가운데에 악기 순서대로 멍석을 만다. 휘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돌사위를 연희한다. 인사 후 퇴장한다.

충북공고는 풍물반 '천둥소리'를 통해 학생들이 충청도 청주 지역에서 전승하는 민속놀이를 학습해 지역문화를 익히고 전승하는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농악과 농요 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속문화의 정수를 익히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화 전승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忠北工業高等學校



● 광주광역시 / 광주지산농악 / 광주동신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강원도지사(은상)
상금 4,000

'광주지산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의 중간격인 영무장농악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광주 지산면 일대는 50~60년대 말까지도 다양한 농악이 성행했는데, 이를 토대로 재현한 것이 지산농악이다. 지산면은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상류 새암 들녘에 인접한 마을로, 광주광역시는 물론 인근의 장성군, 담양군과 같이 마당밟이굿은 물론 걸립굿, 두레농악 등이 발달한 고장이다. 지산농악은 영산강 상류 새암들녘에 인첩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악을 재현한 것이다.

지산농악은 걸립굿, 두레굿, 마당밟기 등의 집단노동과 함께 굿으로 사용되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 왔다. 느린 가락을 부드럽게 변화를 주면서 한가로운 듯한 박자감으로 연주를 시작해 흥을 돋은 다음 점차적으로 경쾌한 흐름으로 신명을 살리며 끝을 맺는 기승전결을 갖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자감이 다채롭고 다양한 가락을 구성하며, 쇠가락과 춤사위 발달로 놀음놀이에서 윗놀이 보다 밑놀이에 치중해 장구가락이 매우 발달했다. 개인놀이 또한 조화롭게 발달해왔다. 쇠놀이, 부포놀이는 그 기교가 다양하면서도 섬세하다. 북놀이와 고깔소고놀이는 타 농악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구성진 몸짓과 발놀음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특히 지금은 사라져가는 고깔소고가 잘 전승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동신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지산농악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굿
내드름굿 일·이·삼채가락을 마친 후 일채로 입장해 오채질굿, 된오채질굿, 갖은일채, 벙어리삼채, 벙어리일채, 된삼채, 음매갱, 일채를 친다.

2. 오방진
오방진의 오방은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에 진을 치는 것을 형상화해 덕석몰기로 진을 쌓아 연주하다, 가락을 난타로 털어서 앉았다 삼채가락으로 풀고 나온다. 이후 쇠꾼놀이, 쇠와 장구놀이 반삼채, 매도지가락으로 맺는다.

3. 허허굿
허허굿은 원형진을 만들고 열두마치(12채), 허허굿, 자진허허굿을 친다. 좌·우·진·퇴(좌우치기, 연봉치기)를 한 뒤 지심매기, 지신밟기, 콩등지기, 용틀임, 두줄치기, 좌·우·진·퇴, 가세치기를 한 다음, 개인놀이 대형인 'ㄷ'자진으로 치배들을 세운다.

4. 개인놀이
치배들이 개인 기량을 한껏 보여주는 마무리 마당이다. 잡색놀이,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열두발상모놀이로 마무리하고, 인사굿을 한 다음 휘몰이로 퇴장한다.

동신중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사물놀이, 풍물놀이 등을 끊임없이 학습해 직접 전통민속을 찾는 과정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광주의 지역 농악인 지산농악을 전승함으로써 학생들이 전통 농악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 농악은 그 지역 문화의 원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의 전통적인 형태가 동신중학교 학생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전광역시 / 웃다리농악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대전광역시에 전승되고 있는 웃다리농악은 충청도지역서 전해 내려오는 웃다리농악의 대표적인 농악이다. 웃다리농악은 1984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대전지역은 일찍이 농악이 발달하면서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성행했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장승제 등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물굿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오던 각 농악단 상쇠들이 전통을 이어오다가 1950년에 남사당패에 관여하면서 충청·경기지역 풍물의 구성이 서로 유사하게 이어져 왔다. 대전 지역은 일찍이 농악이 발달하면서 여러 농악 명인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는데, 지역 농악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농악인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전 웃다리농악은 19세기에서 최근까지, 웃다리풍물은 고인이 된 송순갑, 이원보, 최성구, 양도일 등의 주도로 전승되었다. 한때 맥이 끊어질 위기에도 처했으나, 중앙농악회에서 운영한 '대전웃다리농악대'를 통해 연행된 것을 송순갑 어른이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대전웃다리보존회가 이어받으면서 현재 웃다리농악의 보존과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 웃다리농악은 전체 열세 마당으로 구성해서 연행한다. 놀이적인 분면에서 판굿에서 진풀이의 변화가 다채롭게 진행되면서, 여러 치배들의 놀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웃다리농악만의 특징인 무동춤과 칠채가락을 통해 멋스러움을 더한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대전 웃다리농악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마당 '인사굿'
판굿을 하기 위해 일렬로 나가기 직전 한군데 모인다. 북이 점고를 친 다음 징수가 징을 느리고 크게 세 번을 치고, 다스림가락과 이채가락을 친 후 맺는다.

제2마당 '외돌림벅구·멍석말이'
인사를 한 뒤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상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든다. 이채가락을 치면서 벅구는 바깥 원에서 외상이나 양상을 치고 자반뒤집기를 한다.

제3마당 '당산벌림·들당산'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을 풀어 'ㄷ'자 대형을 갖추고, 무동이 없을 때는 '11'자 대형으로 한다. 그리고 상쇠는 연타채를 치면서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쪽으로 가서 내주는 가락을 네 박 친다. 다음으로 벅구 전원이 앞으로 여섯 걸음 걸어간 다음 제자리에서 두 박자에 이어 이채가락을 치면 벅구는 양상을 돌리고 솟음벅구를 한다. 삼채가락에 따라 벅구는 '乙'자 방향으로 이동하며, 잽이와 두 줄로 마주 보면서 된삼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빠른 사사와 일사를 하고, 연타를 치면 번개상으로 맺는다.

제4마당 '칠채오방진'
전 대원은 칠채가락을 치면서 중앙진을 만든다. 중앙진에서 상쇠의 된삼채장단에 이어 이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벅구들은 음상, 외상 등으로 돌리다가 자반 뒤집기를 한다. 중앙진을 풀어 나올 때는 짝쇠가락을 치며, 날당산벌림 대형을 만든다.

제5마당 '절굿대놀이(쌍줄백이, 외줄백이)'
상쇠가 연타채를 치면서 돌사위로 맺고, 외줄백이 대형을 만들기 위해 잽이의 한가운데를 향해 이동할 때 상쇠는 쇠채발림을 한다. 외줄백이 대형이 만들어지면 삼채가락을 치면서 벅구 전체가 부쇠방향 쪽으로 'ㄷ'자를 그리면서 잽이를 향해 쌍 줄을 만들어 들어와, 수벅구 쪽부터 앉고 서고를 반복한다. 다시 삼채가락을 치면서 수벅구 줄은 부쇠 방향으로, 부벅구 줄은 끝북 방향으로 돌아 쌍줄백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 나간 다음 외줄로 나간다.

제6마당 '십자걸이'
잽이들은 삼채가락을 치면서 당산 대형을 풀어 반원을 그리고, 정면을 향해 일렬로 대형을 만들며, 벅구 전체는 잽이의 한가운데를 교차하면서, 십자 대형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서 이채가락으로 맺는다.

제7마당 '사통백이'
삼채가락을 치면서 십자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십자 대형이 동·서·남·북 4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태극선을 따라 돌며 원을 그린다.

제8마당 '좌우치기(원좌우치기, 네줄좌우치기)'
원 상태에서 한가운데를 보면서 이채를 친 다음, 상쇠의 머리가락을 듣고 좌우치기를 한다. 연타채를 치면서 큰 원에서 네 줄을 만들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네 줄이 동시에 한 줄을 만들면서 큰 원을 그린다.

제9마당 '쩍쩍이'
큰 원 상태에서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다가 삼채를 맺고, 쩍쩍이가락을 약 3~4회 정도 친다. 상쇠의 신호를 듣고 쩍쩍이가락을 맺는다.

제10마당 '풍년굿'
굿거리가락에 맞춰 춤을 추다가 굿거리를 맺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상쇠의 연타채가락의 신호로 한가운데를 보면서 앉는다.

제11마당 '개인놀이'
무동놀이, 쇠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살판, 12발(긴채상)놀이를 진행한다.

제12마당 '외돌림벅구·멍석말이'
일명 '덧배기놀이가락'이라 한다. 덩더궁이(자진모리) 장단과 어깨춤이 발달했다.

제13마당 '퇴장'
채가락을 치며 멍석말이를 풀어 나오면서 퇴장을 한 다음, 이채가락을 빠르게 몰아치며 맺고, 절가락을 치고 인사를 한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는 '구암풍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농고 시절 1979년 창단된 농악반이 구암풍물반으로 이어지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전 웃다리농악을 전승하고 있다. 유성생명과학고 풍물반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물론 여러 풍물놀이 또는 농악대회에 참가하면서 유수의 업적을 쌓아왔다. 오랫동안 대전 지역 웃다리농악을 보존·전승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판굿을 중심으로 정리된 연행자료를 전승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맥락의 웃다리농악을 찾아 지속해서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 대구서부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상금 3,000

'날뫼'는 비산[飛山]의 지명으로, '산이 날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날뫼라는 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옛날 금호강[琴湖江]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한 여인이 서쪽 하늘에서 요란한 풍악소리가 나면서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동산이 떠 온다" 라고 비명을 지르자, 날아오던 구름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이를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뫼'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날뫼북춤은 이 지역의 날뫼농악에서 비롯되었는데, 지역 백성의 신임을 얻었던 원님이 정사를 돌보다가 순직하자, 백성들이 원님의 혼령을 달래기 위해 제향 때마다 북을 울리면서 춤을 추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날뫼북춤은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가락에 의한 춤사위와 남성적 기개가 넘치는 군무며, 매우 다양한 판들을 펼치는 데 그 내용과 과정이 비산농악과 흡사하다. 전체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질굿 '길군악'
질굿은 길굿으로, 풍물잡이들이 당산제나 가옥의 지신밟기를 하기 위해 행선지까지 가는 동안의 행군악을 말한다. 열림굿, 질굿, 길군악으로 구분한다.

첫째마당 '정적궁이'
원진 대형으로 만들고 상쇠의 마무리 신호에 따라 원진 바깥쪽을 바라보며 관객들에게 인사한다.

둘째마당 '반짓굿'
몸짓이나 행동 따위를 반으로 줄여서 한다는 '반[半]짓'에서 비롯된 말로, 달리 '마당굿 '또는 '자반득이'라 부르기도 한다. 후반부에 연풍대, 앉을상, 북넘기 등 고난도의 북묘기를 연속으로 펼친다.

셋째마당 '엎어빼기'
북넘기의 춤사위에서 비롯된 말로, '엎는 것'과 '빼는 것'을 합성한 말이다. 북넘기와 앉을상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엎어빼기라고 한다. 북넘기와 앉을상을 연속으로 실시해 활달하고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인다.

넷째마당 '다드래기'
이 마당은 일명 '버꾸놀음'이라고도 하며, 전체적으로 매우 빠르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강렬하고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회오리바람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연풍대가 펼쳐진다.

다섯째마당 '물레돌기'
북재비들이 원진의 바깥을 향해 옆으로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마치 물레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섯째마당 '허허굿'
"허허" 라는 웃음소리에는 잡귀를 몰아냈으므로, 기분이 아주 좋다는 뜻이 담겨 있다. 양발을 번갈아 솟구쳐 뛰며 남성적인 씩씩한 기상을 뽐낸다.

일곱째마당 '오방진'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위에 화평과 강녕을 비는 춤판으로, 빠른 자진모리장단을 치며, 다섯 개의 원진을 만든 다음 다시 원진 대형으로 돌아간다.

여덟째마당 '모듬굿'
서로 다른 장단을 모아 교차시켜 놓은 마당이다. 상쇠는 주로 자진모리장단과 사사구 장단을 서로 대비시켜 장단의 변화를 유도하며, 이 마당에는 다양한 장단과 춤사위가 들어 있다.

아홉째마당 '개인가락'
다른 악기소리는 일절 내지 않고, 북소리만으로 진행한다. 왼발을 앞으로 낸 다음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돌기도 하고, 북채를 360도 회전시키며 북테를 치는 등 매우 섬세하고 다양한 기법을 보여준다. 개인가락이 끝나면 모듬굿 일부를 재현한다.

열째마당 '살풀이굿, 굿거리'
굿거리장단을 사용하며, 환희와 풍요를 상징하는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흥겨운 어깨춤을 추면서 여유로움과 중후한 멋을 표현한다.

열한째마당 '개인놀이'
소수의 북재비들이 자신의 묘기를 펼쳐 보이는 마당이다. 살풀이굿의 마지막 부분에서 북재비들이 뒤로 물러난 후 기량이 뛰어난 3~4명 정도의 북재비가 가운데로 나와 각자 기량을 뽐낸다.

열두째마당 '덧배기굿'
일명 '덧배기들놀이'라고도 한다. 북재비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춘다. 어깨춤을 중심으로 한 이 순서에서 경상도의 멋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인사굿
열두 마당이 모두 끝난 후 북재비들이 관객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한다.

날뫼북춤은 비산농악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역에서 신임을 얻었던 원님을 제사 지내는 유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경상도 지역 특유의 장단인 덧배기장단과 다드래기장단에 맞춰 독무와 군무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것도 다른 지역의 북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생들이 기능적으로 북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춤의 유래와 특징 등을 잘 익히는 것도 전승의 중요한 측면이다.



크기변환_날뫼북춤(청소년부, 2014-21회) (1)



크기변환_날뫼북춤(청소년부, 2014-21회) (2)

● 전라남도 / 호남우도농악 / 여수시청소년전통연희단 굴렁쇠놀이패

종목 농악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여수농악’은 호남우도굿을 근간으로 이중가장놀음이 등장하는 특색 있는 농악이다. 여수우도굿의 역사는 200여 년 전 김외대가 송소마을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고흥의 영향을 받아 고흥문굿 등이 마을굿으로 정착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라우도농악은 쇠치배를 제외한 치배들이 고깔을 쓰며 치복이 매우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가락은 장구를 중요시 하며, 주로 느린 가락이 많으나, 빠른 가락도 곁들여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개인놀이 중에서는 설장구를 백미로 꼽는다. 또한 몸짓은 윗놀이에 치중하지 않고, 발림(발짓)을 중시하는 아랫놀이가 발달했다.

여수농악의 판제는 호남우도굿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10자진접과 잡색놀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편이다. 전체 판제는 모듬굿, 이채굿, 입장굿, 우질굿, 좌질굿, 풍류굿, 양산도, 삼채일광놀이, 된삼채, 매도지, 오방진풀이, 삼채굿, 된삼채, 매도지, 소리굿, 호허굿, 자진호허굿, 멍석말이, 품앗이굿, 십자진굿, 미지기진, 삼채굿, 된삼채, 매도지, 쇠놀음, 채상소고놀음, 장구놀음, 열두발상모놀음, 인사굿, 퇴장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대회 참가팀과 함께 지역 농악 전승을 위해 청소년농악단 또는 청소년연희단을 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지역 문화의 전통을 지역 사회의 후속 세대들이 이어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승의 지속성을 지킬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수시청소년전통연희단의 경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전라북도 / 김제농악 판국 및 도둑잽이굿 / 김제시청소년농악단(덕암정보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정선군수(장려상)
상금 2,000

김제농악은 호남 지역에 전승되는 수많은 농악 중 하나다. 특히 김제의 평야 지대를 바탕으로 여러 마을에서 대동굿 형태로 전승되어온 농악이, 뛰어난 기량을 가진 명인들을 만나 예능적 면모를 갖춘 농악으로 발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으로서 가락이 풍성하고 판의 구성이 다양하며, 치배들과 잡색들이 한 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도둑잽이굿, 일광놀이 등 연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의 특징인 고깔을 쓰고 연희하기 때문에 아랫놀음이 발달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쇠 놀이, 설장구 놀이가 두드러진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김제농악의 전통 형식은 당산제를 시작으로, 걸궁굿, 기맞이굿, 망월굿, 줄굿, 칠월칠석굿, 지심매기굿, 영풀베기, 주당매기, 무제굿, 노적굿, 기싸움, 술매기굿, 배굿, 보매기굿, 기타굿, 판굿으로 구성된다.

김제농악 판굿의 주된 가락은 풍류굿, 덩덕궁이, 오채질굿, 호호굿 등이 있으며, 여기에 도둑잽이굿을 더해 연행의 재미를 돋우고 있다.

김제농악의 진행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드림굿
판굿을 연희하는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내드림굿을 친다.

입장
입장굿을 치면서 원형을 만들어 판굿을 시작한다.

첫째마당
오채질굿을 시작으로 다양한 김제농악가락을 치면서 첫째마당을 연희한다.

둘째마당
오방진굿을 시작으로 진오방진굿을 치면서 여러개의 작은원형을 만들다 다시 큰원으로 해서 마무리한다.

셋째마당
호호굿을 치면서 원형을 만든다.

도둑잽이굿
셋째마당 중간쯤에 도둑잽이굿을 통해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흥을 돋운다. 도둑잽이굿이 끝나면 다시 원형을 만들어 마무리한다.

개인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고깔소고놀이, 열두발상모놀이등 개인놀이를 연희한다. 놀이를 끝내고 다시 원형을 만들어 전체 판굿을 마무리한다.

김제농악은 우도농악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판굿의 다양한 진풀이와 함께 뒷굿에 해당하는 도둑잽이를 전승하고 있어서 민속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호남의 지역성을 잘 간직하면서 과거에 명성이 높았던 여러 치배가 존재해 예술적인 기량을 높였던 김제농악이 현재 덕암정보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김제시청소년농악단을 통해 전통적인 면모를 유지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속적인 농악 학습을 통해 김제농악의 전통적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김제시청소년농악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 제주특별자치도 / 좀녀(해녀)놀이 이어도사나 / 세화고등학교 숨비소리

종목 민요
수상 정선군수(장려상)
상금 2,000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해녀노래 <이어도사나>는 해녀들이 직접 부르기 때문에 <해녀노래>라고도 하며, 이어도사나는 후렴구를 따서 부르는 이름이다. 제주 해녀들이 바다를 오갈 때 부르는 노젓는 소리면서 동시에 한과 그리움을 달래는 노래로, 강한 사투리와 억양이 특징을 이룬다. 가사에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이상향 '이어도'에 대한 바다 여인들의 염원과 해녀일의 고됨을 노래한다.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사용하는 태왁을 장단 삼아 빗창으로 치며 노래하는데, 굿거리, 중모리 등 다양한 장단이 쓰인다. 작품 구성은 입장과 영등굿, 물질작업, 이어도사나의 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입장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을 하기 위해 무속인들이 연물악기(설쇠 대양, 연물북, 연물장구)를, 그리고 제주 해녀들이 태왁, 비창 등 물질도구와 굿을 하기 위한 제물, 제기 등을 들고 등장한다.

2. 영등굿

해녀들의 생계를 담당하는 용왕해신부인을 청해 영등굿을 하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물질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풍요를 기원함과 동시에 가족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진행한다.

3. 물질작업

해녀들이 배를 타고 와서 바다에 태왁을 던지며 물질 작업을 시작한다. 숨비소리(잠수하고 올라오면서 숨이 찬 것을 휘파람 소리처럼 내는 것)와 함께 작업을 하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해 태왁 망사리에 넣고, 지친 몸을 이끌고 불턱 주위로 모여든다.

4. 이어도 사나

작업을 마친 뒤 불턱에 모여 앉아 제주 해녀들의 이상향인 '이어도'를 생각하며, 또한 가족을 위해 계속해야 할 물질에 대한 힘을 얻기 위해 <이어도사나>를 노래한다.

해녀들의 일노래와 제주도 좀녀굿을 엮은 작품으로, 세화고등학교의 '숨비소리' 팀이 공연했다. 민요뿐 아니라 무속음악을 포함한 작품이라 진역 전통문화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선군수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인천광역시 / 발우공양 / 범패와작법무보존회,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

종목 의례
수상 정선군수(장려상)
상금 2,000

'발우공양'은 불가의 식사예절이자 의식이다. 발우공양은 자연에서 얻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또는 자신의 몸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자연의 고마움과 온 세상의 순환원리를 생각하는 과정이다. 식사예절을 지키면서 정신적 평온에 이르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발우공양의 근검절약 정신과, 자연 사랑,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자양분이 된다. 발우공양에서 지옥 중생 제도하는 범종, 물속 중생 천도하는 목어, 허공 중생 제도하는 운판, 세간 중생 지혜 얻길 발원하는 법고 등 법사물을 연주하고, 향을 비롯한 육법공양[六法供養]을 올리며, 발우공양을 서원하면서 바라춤을 함께 연희한다.

법고춤, 나비춤, 바라춤은 작법무로, 불교의식인 재[齋]를 옹릴 때 추는 춤을 이른다. 이 중 나비춤은 부처님의 정법을 상징하는 무용으로, 일명 해탈춤[解脫舞]이라고 한다. 바라춤은 불법[佛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의식[儀式] 도량[道場]을 정화해 성스러운 장소가 되게 하는 춤이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 소속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및 문학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발우공양은 전체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사물

잠든 새벽의 영혼을 깨운다. 지옥중생 제도하는 범종, 물속중생 천도하는 목어, 허공중생 제도하는 운판, 세간중생 지혜 얻길 발원하는 법고 등 법사물 연주를 하면서 무대 안으로 들어온다. 헌향을 산화락 쇄향수를 비롯한 법공양이 뒤를 따른다.

2. 전발게(법고춤)

발우를 펼치고 공양 준비를 마친다. 두 눈에는 도업 성취를 위한 눈빛이 성성하다. 중생제도 위한 법고춤의 환희가 이어진다.

3. 발우공양(향화게 나비춤)

꽃과 향으로 세간을 장엄하고, 나비춤 한 자락 춤을 춘다. 애벌레가 나비의 전신 고치를 깨고 나온 기쁨의 열정을 환희를 춤으로 표현하는 해탈무 한 자락을 펼쳐 보인다.

4. 탐욕의 강 건너(명발 바라춤)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로 청한다. 천둥소리 같고 번개와도 같은 바라의 큰 울림은 금모사자의 표호와 같은 것이다. 된 것과 잡된 것을 모두 제거하고, 탐욕의 강 건너 진리의 땅에 살게 하라는 기원을 담은 춤을 춘다.

발우공양은 불교의 주요 의식으로, 현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낯선 대상일 수 있다. 종교 행위이므로 더욱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통문화에 대해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험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불교의 법사물을 접하고, 이를 직접 연주함으로써 종교와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알 기회를 얻고, 익숙하지 않은 발우공양 과정을 통해 식사에 대해 재인식할 기회를 가진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5.10.08~10.09,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민속의 의의와 정승 상황을 일깨워주고, 젊고 활기찬 축제분위기를 형성해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주된 종목은 민속놀이, 민요, 농악 가면극, 춤 의례 등 민속 일반으로, 총 13개 시·도 단체가 참가했다.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제주도 한림고등학교의 '메구월일석춘경걸궁', 대구광역시 대평중학교의 '날뫼북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와 문학정보고등학교의 '발우공양(식당작법)', 광주광역시 동신중학교의 '광주지산농악', 부산광역시 다대중학교의 '다대포후리소리', 전라북도 김제시청소년농악단의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경상북도 오상고등학교의 '무을농악', 충청북도 괴산오성중학교의 '충북괴산두레농요', 경상남도 철성중학교의 '고성오광대', 경기물류고등학교의 '평택민요 어업요(어로요)', 대전광역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웃다리농악', 충청남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공주걸립농악', 전라남도 순천낙안중학교의 '낙안읍성군악' 등이다.

2. 참가 종목

● 광주광역시 / 광주지산농악 / 광주동신중

종목	농악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광주지산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의 중간격인 영무장농악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광주 지산면 일대는 50~60년대 말까지도 다양한 농악이 성행했는데, 이를 토대로 재현한 것이 지산농악이다. 지산면은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상류 새암 들녘에 인접한 마을로, 광주광역시는 물론 인근의 장성군, 담양군과 같이 마당밟이굿은 물론 걸립굿, 두레농악 등이 발달한 고장이다.

우도농악의 전승 계보를 보면 '상쇠'는 최화집, 강성옥, 박성근, 전경환, 정종석, 정득채, 문한준, 정영을이 전수하고 있으며, '설장구'는 김학중, 김홍식, 김오채, 김동언, 이대휴, 정영을이 이어 받아 김오채류의 설장구로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설북'은 광산농악의 서창순 대를 이은 진준한이 활동 중이며, '소고'는 강모질, 김양술, 박용하, 정영을이 영무장농악의 고깔소고의 맥을 이어받아 전통을 이어온 것이다. 이처럼 호남우도농악의 이름난 재비들이 광주 일대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볼 때, 광주의 지역 농악과 영무장농악 간에 일정한 상호 영향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

현재 현행되는 광주지산농악은 우도농악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걸립굿, 두레굿, 마당밟기 같은 형태로 그 전통의 맥을 이어왔다. 느린 가락을 부드럽게 변화를 주면서 한가로운 듯한 박자감으로 연주를 시작

해 흥을 돋은 다음 점차적으로 경쾌한 흐름으로 신명을 살리며 끝을 맺는 기승전결을 갖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산농악은 박자감이 다채롭고 다양한 가락을 구성하며, 쇠가락과 춤사위 발달로 놀음놀이에서 윗놀이 보다 밑놀이에 치중해 장구가락이 매우 발달했다. 개인놀이 또한 조화롭게 발달해왔다. 쇠놀이, 부포놀이는 그 기교가 다양하면서도 섬세하다. 북놀이와 고깔소고놀이는 타 농악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구성진 몸짓과 발놀음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특히 지금은 사라져가는 고깔소고가 잘 전승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동신중학교 학생들이 지산농악을 실연한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굿

내드름굿 일·이·삼채가락을 마친 후 일채로 입장해 오채질굿, 된오채질굿, 갖은일채, 벙어리삼채, 벙어리일채, 된삼채, 음매갱, 일채를 친다.

2. 오방진

오방진의 오방은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에 진을 치는 것을 형상화해 덕석몰기로 진을 쌓아 연주하다, 가락을 난타로 털어서 앉았다 삼채가락으로 풀고 나온다. 이후 쇠꾼놀이, 쇠와 장구놀이 반삼채, 매도지가락으로 맺는다.

3. 허허굿

허허굿은 원형진을 만들고 열두마치(12채), 허허굿, 자진허허굿을 친다. 좌·우·진·퇴(좌우치기, 연봉치기)를 한 뒤 지심매기, 지신밟기, 콩등지기, 용틀임, 두줄치기, 좌·우·진·퇴, 가세치기를 한 다음, 개인놀이 대형인 'ㄷ'자진으로 치배들을 세운다.

4. 개인놀이

치배들이 개인 기량을 한껏 보여주는 마무리 마당이다. 잡색놀이,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열두발상모놀이로 마무리하고, 인사굿을 한 다음 휘몰이로 퇴장한다.

동신중학교는 2000년부터 사물놀이·풍물놀이 등을 학습해서 직접 전통민속을 찾는 과정을 지속해왔다. 학교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사물놀이반은 2010년부터 풍물패로 전환했다. 또한 지산농악을 전승하기 시작해 학생들이 전통 농악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경연대회에서 수상하는 결실을 보았다. 동신중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산농악 전승이 매우 고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충청북도 / 충북 괴산두레농요 / 괴산오성중학교

종목 민요
수상 교육부장관(금상)
상금 5,000

괴산두레농요는 충북 괴산군 일대에서 전승되던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초듬아시매는소리, 이듬논뜯는소리 등의 농요를 엮은 작품이다. 농악의 비중이 높았으며, 곤나비(꽃나비)장단, 자진가락, 두마치, 들풍장, 날풍장, 춤장단, 쩍쩍이 등의 풍장굿 장단이 연주되었다. 구성과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들나가기

2. 모찌기

모판에서 모를 뽑아 모천을 만든다. 못자리 두 판에 네 무리의 농부들이 모를 찐다.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이모자리 뭉처주게"라며 받는소리를 한다.

3. 모심기

(받는소리) 아라리오 어러리오 아리랑 일송 아라이송아
(메기는소리) 여기 꼽고 저기 꼽고 00자리로 꽂아주게
이 논배미에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잘들 하네 잘들하네 우리야 농부들 잘두하네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잠시 잠깐 놀다가세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 참이 늦어가네
떳네 떳어 무엇이 떳나 밥광우리가 저기 떳네
아라리오 어러리오 아리랑 일송 아라이송아

4. 세이참

새참을 먹는 과정이며, 새참 광주리를 머리에 얹은 아낙네가 입장하면 농부들이 광주리를 받아주며 신명 나게 춤을 춘다.

5. 초듬아시메기

(받는소리) 에 헤에라 방아호
(메기는소리) 에 헤에라 방아호
에 헤에라 방아호
이 방아가 뉘방안가
강태공에 조작방아
강태공은 어디 가고
일꾼들만 놀고있나
오월 단오 당도허니(후략)

6. 논두렁 밟기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농부들이 밟아준다. 괴산의 쩍찍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논두렁을 밟는다.

7. 이듬매기 - 대허리소리

(받는소리) 어 하 슬슬 대허리야

(메기는소리) 어 하 슬슬 대허리야
어 하 슬슬 대허리야
천지지간 만물들은
음양으로 태어나아
음양의 조화로 자라나네
온갖 만물 소생하니
온갖 만물 인간지사
일생 일사 두전이라
이 논자리로 말하자면
만섬지기 논자리라
어깨를 맞춰서
요리 조리 맞춰서
자치소리로 넘어가세(후략)

8. 신명풀이

두레가 끝난 후 다 끝났음을 알리고, 마을 주민들이 깃발을 중심으로 원형을 만들어 신명 나는 마당을 연출한다. 풍물가락은 곤나비 장단과 자진가락, 쩍찍이, 두마치 장단으로 볶아친다.

괴산오성중학교 학생들이 신명 나고 호기 있게 대회에 임했다. 서로 추임새로 공백을 메우고 기를 돋우는 모습이 훈훈했다. 목청껏 소리하는 소리꾼과 응원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이번 대회 출전으로 공동체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고 배웠을 것으로 짐작한다. 괴산두레농요는 이번 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 대평중학교

종목 무용
수상 경기도지사(은상)
상금 4,000

날뫼북춤은 대구광역시 비산동의 농악에서 유래한 북춤 중심으로 연행한 작품이다. 따라서 내용과 과정이 비산농악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도 여러 차례 출전한바 있다. 날뫼북춤은 아래와 같이 전체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길굿, 길군악
길굿은 논두렁이나 징검다리 등을 갈 때, 길군악은 좋은 길을 갈 때 연주한다.

2. 정적궁이
상쇠의 신호에 따라 북잽이들은 반시계방향으로 몸을 회전하는 연풍대를 한다.

3. 반직굿
북넘기 등 고난도의 동작을 연속해서 한다.

4. 엎어빼기
북넘기와 앉을상을 반복해 실시한다.

5. 다드래기
태극진 대형을 만들고 이동한다. 연풍대로 빠르게 돈다.

6. 싸움굿, 버꾸사설마당
북잽이들이 2열로 서서 좌우로 이동한다. 전쟁놀이의 형태로 백병전을 할 때와 같이하고, 화합으로 마무리한다.

7. 모듬굿
두 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한다. 태평소와 띵각에 맞춰 모든 가락을 연주한다.

8. 굿거리
두 명씩 북을 마주 보고 친 후, 두 개의 줄을 세우고 이동한다. 다시 소수의 북잽이가 중간에 원진을 만든다. 북소리와 흥겨운 어깨춤을 동반한다.

9. 강강술래
큰 원을 만들고 각각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한다. 북잽이들이 원진의 바깥을 향해 옆으로 뛴다.

10. 허허굿
2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한다. 북잽이들이 양발을 솟구쳐 뛴다.

11. 오방진
기수를 중심으로 다섯 개의 원진을 구성한다. 다섯 방위에 화평과 강령을 비는 춤판이다.

12. 덧배기굿(뒷마당풀이)

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한다. 북잽이들이 신명 나게 어깨춤을 춘다.

날뫼북춤은 청소년민속예술제에 여러 차례 출전한 바 있으나, 매번 다른 학교에서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평중학교에서 나와 경기도지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메구월일석춘경걸궁 / 한림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메구월일석춘경걸궁'은 제주도 입춘굿의 거리굿과 탈굿놀이를 바탕으로 풍물패 공연과 민요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입춘굿을 춘경[春耕] 또는 입춘춘경[立春春耕]이라고도 하는데, 이 굿을 노는 것을 '춘경[春耕]친다'고 한다. 제주도 입춘굿은 모관황수, 정의황수, 대정황수라고 하는 무당을 대표하는 세 황수가 제주 목관아에 모여야 한다. 메구월일석춘경걸궁은 황수기를 들고 읍성 안을 도는 메구월일석 거리굿, 관덕정마당에서 펼치는 입춘탈굿놀이를 거쳐 풍농을 기원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메구월일석춘경걸궁은 입장, 낭쉐ᄀᆞ사, 거리굿, 탈굿놀이, 파장굿, 퇴장 순으로 진행한다. 입장을 하면 도황수, 대정황수, 정의황수를 중심으로 걸궁패가 낭쉐[木牛] 앞에 서서 '낭쉐ᄀᆞ사'라는 제주도 목우제를 올린다. 낭쉐ᄀᆞ사가 끝나면 황수기를 선두로 해 제주읍성의 성문을 돌면서 거리굿을 펼친다. 각 성문에 도착하면 새해의 액을 내쫓는 '올래ᄀᆞ시'를 걸궁 형태로 진행한다. 거리굿이 진행되는 동안 횡수들은 주민들이 가져온 보리 이삭으로 점을 치는 '보리 고고리점'을 진행한다.

이어서 탈굿놀이를 진행한다. 호장들의 '밧갈이', 농부의 '씨드림', 사농바치와 새의 '방액놀이', 몰사와 호장들의 '담배 참권청'을 노래와 재담을 엮어가며 진행한다. 탈굿놀이가 끝나면 황수, 걸궁패, 탈굿놀이패가 어우러져 판굿을 놀고 서우젯소리로 이어간다.

메구월일석춘경걸궁은 제주도 지역의 무속의례를 추합해 새롭게 꾸민 경연작이다. 무속의례를 전통으로 삼아 다양한 구성을 통해 공연 형태로 꾸린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것에 풍물패와 민요가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 공연을 선보였다. 제주도의 여러 민속을 한 공연을 통해서 보여준 점에서 전체 구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 공주걸립농악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경기도교육감(은상)
상금 4,000

웃다리농악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일컫는 용어다. 대전·공주 지역의 웃다리농악은 충청·경기 지역의 농악 가운데 지금도 연희되는 대표 농악이라 할 수 있다. 공주걸립농악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산재한 갑사, 신원사, 마곡사 등에서 불사를 일으키면서 승려들이 꽹과리, 징, 북을 치며 가가호호 방문하며 모금을 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웃다리농악은 한때 끊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송순갑 어른이 다시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주걸립농악'은 정월대보름 전후에 농악대가 집집이 방문해 농악을 치고, 곡식이나 돈을 모으던 걸립농악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공주걸립농악은 마을입구에서 당산나무에 인사를 드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당산굿을 시작으로 우물굿, 문굿, 성주굿, 뒤굿, 칠채오방진, 당산놀이, 개인놀이(버나, 땅재주, 무동놀이-열두발), 돌림벅구로 이어지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가운데 일부를 진행했다. 공주걸립농악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산굿
마을입구에서 당산나무에 인사를 드리고 마을에 들어가는 의식을 한다.

2. 우물굿
동네의 샘에서 치는 굿으로 마을의 우물이 마르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나오기를 기원한다.

3. 문굿
집에 들어갈 때 허락을 받고 대문을 들어가는 굿이다.

4. 성주굿(축원고사덕담)
성주굿은 곳간, 장독, 부엌굿을 다치고 집안에서 지내는 안택굿을 총칭하는 것으로, 집안의 여러 장소에서 고사를 지내는 굿이다.

5. 뒤굿, 칠채(길군악)
고사를 지내고 마당에서 걸립패가 농악을 치며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노는 뒤굿과 상쇠의 칠채 머리가락에 따라 전 대원이 칠채를 치며, 칠채굿을 진행된다.

6. 당산놀이
당산 대형에서 상쇠의 가락에 따라 상모잽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외 줄배기, 좌우치기 등을 한다.

7. 개인놀이
재비들이 순서대로 재주를 보이는 과정으로 버나돌리기- 땅재주-무동놀이-열두발상모 순으로 진행한다.

8. 돌림벅구
인사를 한 뒤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상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들며, 이채를 치면서 벅구는 밖에 원에서 외상이나 양상을 치기도 하며, 또는 자반뒤집기를 한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는 1970년대 후반 이래 그의 전신인 공주농고시절부터 지금까지 충청도 웃다리 농악을 전승해왔다. 청소년들이 지역 전통 농악을 전승하면서 지역 문화를 지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걸립농악의 전형을 학습해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의 면모를 잘 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상북도 / 무을농악 / 오상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상금 3,000

구미 무을(선산)농악의 발원지는 구미의 북서쪽에 위치한 수다사[水多寺]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수다사에 있던 스님 정재진(법명 미상)이 현몽한 일화가 있으며, 이를 소재로 풍물가락을 만들어 인근 부락으로 전파한 것이다. 후에 정재진의 쇠가락을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에 사는 이군선이 집대성했다.

무을진굿은 전형적인 전투 농악으로, 북 가락이 웅장하고 장쾌하고, 소고놀음이 발달하며, 예술성이 뛰어나고, 힘차고 박진감이 넘치며, 다양한 진을 빠르게 구연한다.

구미농악단이 전승하고 있는 무을농악을 오상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승하면서 놀이를 구성해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굿(행진곡, 인사굿)
농악에서 행진할 때 쓰이는 가락으로, 길군악이라고 한다.

2. 마당닦이
3분의 3박이며 경쾌하고 씩씩한 장단이다.

3. 정적궁
상쇠와 종쇠가 원진을 그리며 이동해 빠른 장단으로 논다.

4. 도드래기(엎어빼기, 덮어빼기)
도드래기는 별신굿을 할 때 집집이 지신밟기를 하며 치던 가락으로, 판안다드래기, 영산다드래기 등에도 쓰인다.

5. 품앗이굿
전 인원이 원을 그리며 돌고, 한가운데에 상쇠와 종쇠가 서로 가락을 주고 받는다.

6. 영풍굿
품앗이가 끝나고 쇠의 가락이 바뀌면 연풍대를 하며, 소고는 가락에 따라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기세를 자랑한다. 가락에 맞춰 각자 옆으로 뛰면서 춤춘다.

7. 허허굿
허허굿은 전투굿의 일종으로 자기 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알리는 장단과 신호로 이어진다. 가락에 맞춰 “허허” 하는 구령을 하며 신호한다.

8. 기러기굿(너랑나랑 둘이돌기)
기러기굿에서 악기잽이들이 양팔을 벌려 색띠를 쥐고 옆뛰기를 한다. 너랑나랑 둘이돌기 다음에 판굿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둘이돌기를 하면서 연결한다.

9. 판굿(마당굿)

판굿은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악기잽이마다 상쇠 지휘에 따라 각기 원진을 그리면서 오방진을 치고, 기량을 펼친다.

10. 채굿(수박치기)

소고잽이들이 한가운데로 나와 춤을 추며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다. 춤을 추다 제자리를 빙빙 돌기도 하며,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을 가볍게 치기도 한다.

11. 진굿(진풀이)

군사굿 형태의 격렬한 진풀이가 특징인 놀이로, 마치 적을 포위하고 격전을 벌이는 모습과도 같아 역동적이고 신명이 난다. 정저굿 장단에서 시작해 똘똘말이로 감을 때 격렬한 장단을 친다. 끝날 무렵에는 상쇠의 술령수와 장의 신호에 따라 정저굿 가락을 치면서 푼다.

12 덧배기

격렬하게 몰아친 후 느리면서도 흥겨운 덧배기로 이어져 새로운 분위기로 몰아간다.

오상고등학교는 1997년부터 무을농악 전수학교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전승을 유지하고 있다. 무을(선산)농악의 지역적 특색이 분명하고 역사적 명분이 분명한 만큼, 오상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특징을 제대로 전승해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대전광역시 / 웃다리농악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1984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웃다리농악은 충청도 웃다리풍물의 대표격이다. 대전지역은 일찍이 농악이 발달하면서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성행했다고 한다. 대전 웃다리농악의 실상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왔으며, 한밭(대전)에서는 각 마을의 두레패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고증에 따르면 1550년대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심복마을에서 액을 막아내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열렸다. 1700년대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물굿과 기원제가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19세기부터 최근까지 웃다리풍물은 고인이 된 송순갑, 이원보, 최성구, 양도일 등의 주도로 전승되었다.

대전 웃다린농악은 한때 맥이 끊어질 위기에도 처했으나, 중앙농악회에서 운영한 '대전웃다리농악대'를 통해 연행된 것을 송순갑 어른이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대전웃다리보존회가 이어받으면서 현재 웃다리농악의 보존과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 웃다리농악은 전체 열세 마당으로 구성해서 연행한다. 놀이적인 분면에서 판굿에서 진풀이의 변화가 다채롭게 진행되면서, 여러 치배들의 놀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웃다리농악만의 특징인 무동춤과 칠채가락을 통해 멋스러움을 더한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대전 웃다리농악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사굿

판굿을 하기 위해 일렬로 나가기 직전, 한군데에 모여서 북이 점고를 친 다음, 징수가 징을 느리고 크게 세 번을 치고, 다스림 가락과 이채가락을 친 후 맺는다.

2. 돌림벅구

인사를 한 뒤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들며, 이채가락을 치면서 벅구는 바깥 원에서 외상 또는 양상을 치거나 자반뒤집기를 한다.

3. 당산벌림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을 풀어 'ㄷ'자 대형을 갖추고, 무동이 없을 때는 '11'자 대형으로 한다. 그리고 상쇠는 연타채를 치면서,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 쪽으로 가서 내주는 가락을 네 박 친 다음, 벅구 전원이 앞으로 6보 걸어간다. 제자리에서 두 박자에 이어 이채가락을 치면, 벅구는 양상을 돌리고 솟음벅구를 한다. 삼채가락에 따라 벅구는 '乙'자형 방향으로 이동하며 잽이와 두 줄로 마주 보면서 된삼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벅구는 빠른 사사와 일사를 하고, 연타를 치면 번개상으로 맺는다.

4. 칠채오방진

전 대원은 칠채가락을 치면서 중앙진을 만든다. 중앙진에서는 상쇠의 된삼채장단에 이어 이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벅구들은 음상, 외상 등으로 돌리다가 자반뒤집기를 한다. 중앙진을 풀어 나올 때는 짝쇠가락을 치며, 날당산벌림 대형을 만든다.

5. 절굿대놀이(쌍줄백이, 외줄백이)

상쇠가 연타채를 치면서 돌사위로 맺고, 외줄백이 대형을 만들기 위해 잽이의 한가운데를 향해 이동할 때 상쇠는 쇠채발림을 한다. 외줄백이 대형이 만들어지면 삼채가락을 치면서 벅구 전체가 부쇠방향 쪽으로 'ㄷ'자를 그리면서 잽이를 향해 쌍 줄을 만들어 들어와, 수벅구 쪽부터 앉고 서고를 반복한다. 다시 삼채가락을 치면서 수벅구 줄은 부쇠 방향으로, 부벅구 줄은 끝북 방향으로 돌아 쌍줄백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 나간 다음 외줄로 나간다.

6. 십자걸이

잽이들은 삼채가락을 치면서 당산 대형을 풀어 반원을 그리고, 정면을 향해 일렬로 대형을 만들며, 벅구 전체는 잽이의 한가운데를 교차하면서, 십자 대형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서 이채가락으로 맺는다.

7. 사통백이

삼채가락을 치면서 십자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십자 대형이 동·서·남·북 4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태극선을 따라 돌며 원을 그린다.

8. 좌우치기(원좌우치기, 네줄좌우치기)

원 상태에서 한가운데를 보면서 이채를 친 다음, 상쇠의 머리가락을 듣고 좌우치기를 한다. 연타채를 치면서 큰 원에서 네 줄을 만들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네 줄이 동시에 한 줄로 만들어서 큰 원을 만든다.

9. 쩍쩍이

큰 원의 상태에서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다가 삼채를 맺고, 쩍쩍이가락을 약 3~4회 정도 친다. 상쇠의 신호를 듣고 쩍쩍이가락을 맺는다.

10. 풍년굿

굿거리가락에 맞춰 춤을 추다가 굿거리를 맺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상쇠의 연타채가락의 신호로 한가운데를 보면서 앉는다.

11. 개인놀이

무동놀이, 쇠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살판, 12발(긴채상)놀이를 진행한다.

12. 외돌림벅구, 멍석말이

인사를 한 뒤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든다.

13. 퇴장

삼채가락을 치며 멍석말이를 풀어 나오면서 퇴장을 한 다음 이채가락을 빠르게 몰아치며 맺고, 절가락을 친 후 서로에게 인사한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는 '구암풍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농고 시절 1979년 창단된 농악반이 구암풍물반으로 이어지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전 웃다리농악을 전승하고 있다. 유성생명과학고 풍물반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물론 여러 풍물놀이 또는 농악대회에 참가하면서 유수의 업적을 쌓아왔다. 오랫동안 대전 지역 웃다리농악을 보존·전승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판굿을 중심으로 정리된 연행자료를 전승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맥락의 웃다리농악을 찾아 지속해서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부산광역시 / 다대포후리소리 / 다대중학교

종목 민요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다대포후리소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대에 전승되는 멸치잡이 관련 어로 노동요로, 다대포후리소리는 1987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후리소리'란 그물에 붙은 멸치를 떨어내는 소리다. 1995년 다대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정되어 지금까지 다대포후리소리를 교육해왔다. 이 작품은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바 있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멸치잡이 후리질 순서에 따라 부르며, 전체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그물을 배에 싣는 소리

멸치 떼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후리그물을 해변으로 옮겨 배에 싣는다.

(받는소리) 에-헤 사리야
(메기는소리) 에-헤 사리야
사려보세 사려보세 그물 한 채를 사려 보세
여보시오 어부님네 이 그물을 낼 적에는
어이해 내었는고 멸치잡이를 가려하니
그물이 없어 못 가겠네 그물 한 채 내자하니
명주실이 어디있소 뒷동산에 뽕을 심어
앞동산에는 잠실을 지어 누에 한판을 길렀더니
뽕잎으로 밥을 주니 무럭 무럭 자라나서
한잠 두잠 석잠 잔 후 구슬같은 고치를 쳤네
그 고치를 따 가지고 돌고 물레 실을 뽑아
가랑 물레 실을 잦아 큰 아기 손끝으로
그물 한채 내어다가 웃시울에 우끼를 달고
아랫시울에 닻을 달아 그물 한 채 꾸며다가
고깃배에 사려 실어

2. 용왕제

바다를 향해 용왕에게 무사태평과 풍어를 기원하며 고사를 지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전 비나이다 (악기)
동해바다 용왕님요 서해바다 용왕님요
남해바다 용왕님요 북해바다 용왕님요
물밑에는 황실용왕 물위에는 청실용왕
청실황실 용왕제를 지극정성 드리오니
사해바다 용왕님요 굽어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네들 멸치잡이 가기위해
조그마한 조각배에 그물한채 내어싣고
오색가지 서낭기와 용왕깃발 달은후에
돛대한상 높이달고 밧줄사려 실은후에
부모형제 차자들을 손흔들고 작별한후

풍악울려 배띄우고 만경창파 들어가니
간데마다 순풍만나 무사태평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 비나이다.

3. 그물놓는 소리

고깃배를 저어 바다로 나가 그물을 놓는다.

(받는소리) 이여사
(메기는소리) 달도밝고 고요한데 우리어부 벌어진덴
멸치생각 절로난다 동해바다 용왕님요
남해바다 용왕님요 사해바다 용왕님네
용왕님의 은덕으로 이 그물을 놓거들랑
재수소망 점지하소 멸치만선 시켜주소
물색좋다 도미등아 팔팔뛰는 숭어등아
반짝이는 멸치등아 우리후리 다들오소
화조월석 오는춘풍 뉘힘으로 막을손가
바람아동풍아 불질마라 오는멸치 돌아간다
뒷동산에 진달래는 봄을맞아 만발하고
다대포라 앞바다에 메러치가 풍년일세
객사지둥 벌어진덴 왕거미줄이 제격이요
선주선원 벌어진덴 메르치가제격이요
우리어부 벌어진덴 술담배가 제격이요
쓸쓸한강변에 단막을 짓고요
넘실대는 파도위에 갈매기는 춤을추고
우리어부 노래한다 다 놓았소 예

4. 후리소리

멸치 떼를 둘러싸고 그물을 치면 수십 명의 남녀 어부, 아낙들이 양쪽에서 벼릿줄을 당긴다.

(받는소리) 어기여차 당겨나 주소
(메기는소리) 동해바다 며르치도 다대포로 몰려오고
남해바다 며르치도 다대포로 몰려오고
용왕님의 은덕으로 멸치풍년 돌아왔네
산은 첩첩 천봉이요 물은잔잔 백옥인데
우리다대 꽃이피네 꽃이피고 봄이오니
멸치풍년 아닐소냐 만경창파 푸른물에
멸치떼가 몰려오네 푸른푸른 봄배추는
찬이슬을 기다리고 다대포라 우리어부
멸치오기 기다린다 여기여차 당겨주소

5. 그물 터는 소리

후리질을 해 그물을 해변까지 끌어다 놓고, 그물에 걸린 멸치를 가운데로 모으기 위해 그물을 쪼으면서 부른다.

(받는소리) 어산자

(메기는소리) 산자로다 젖며르치가
많이도 들었구나 오뉴월
삼복더위에 황소붕알같이
늘어졌구나 고래등 같이
둥둥 떴다 녹산 이방우같이
쩍 벌어졌구나 반갑도다
이메르치야 어데서 놀다가
이제사 왔나 기장 바다에서
놀다왔나 대마도 바다에서
놀다왔나 학수고대
기다린 매르치 오늘날에
당도했네 무쇠같은
내동무들아 힘을 주어서
그물을 많이잡고 앞을 숙였다
뒤로 넘어가면 쪼아나주소
그만쪼으고 메르치를 펍시다

6. 가래질소리

그물에 잡힌 멸치를 소쿠리에 가래로 퍼 담아 어장에 설치된 저장 통에 운반한다.

(받는소리) 어 능청 가래로다
(메기는소리) 이가래가 누가랜고 다대포첨사의 가래로다
이가래가 누가랜고 한선주의 가래로다
용왕님의 은덕으로 메르치 풍년이 되었구나
십오야 둥근달은 삼경인들 변할소냐
똘똘뭉친 우리어부 일구월심 변할소냐
양류색이 천만사인데 오는춘풍 막을소냐
양류색이 사사록하니 오륙촌이 다대포요
무정세월 한허리를 양류사로 메어놓고
우리어부는 가래질한다

7. 풍어소리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어장에서 어부와 마을 사람들이 “쾌지나 칭칭 나네”를 부르며 한바탕 신명 나게 논다.

(받는소리) 쾌지나 칭칭 나네
(메기는소리)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괄세마라
어제까지 청춘인데 오늘날에 백발일세
청천 하늘 잔별많고 바다에는 멸치많네
정월이라 대보름은 우리나라 명절이라
골골마다 칭칭소리 즐겁게도 들려오고
이월이라 한식절은 나무마다 춘기들고
가지가지 순이난다 삼월이라 삼짓날은
강남에서 나온제비 내왔노라 헌신하고

소상강변 기러기는　　내가노라 하직한다
용왕님이 주신복지　　태평무궁 빛내보세
칭칭소리 잘한사람　　만난주로 대접하고
칭칭소리 못한사람　　탁주일배 벌주로세
쾌지나 칭칭 나네

그물에 붙은 멸치를 떨어내는 작업은 지금도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하고 있어 그 고된 동작에 여전히 구호식 노래가 함께 불린다. 다대포후리소리에는 후리질에 부르는 소리는 물론, 그물 놓는 소리, 가래질 소리 등 다양한 어업 노동요가 포함되어 있다. 다대중학교의 다대포후리소리는 이번 대회에서 재단이사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전라북도 /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 김제시청소년농악단(덕암정보고등학교)

종목 민요
수상 평택시장(장려상)
상금 2,000

김만경 외애밋들노래는 전라북도 김제 지역의 논농사노래를 엮은 작품이다. 노래 전 과정이 농사짓는 행위로 묘사하며, 집터잡는노래, 달구질노래, 집들이노래, 액맥이노래, 논꾸미는노래, 모심는노래, 지심매는노래, 만두리노래, 만경산타령, 벼베는노래, 등짐노래, 타조(타작)노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가사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2. 논꾸미는노래

<논 꾸미는 소리>
(받는소리) 어허라 어허어야
(메기는소리) 어허라 어허어야
가노라 간다 내 돌아 간다
임을 따라 내 돌아 간다
이해 저해 다 보내고
우리 농군들 욕들보네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장구 배미로 건너가세
여기 저기 골골배미
우리 같이 모를 심세

3. 모심는노래

<상사소리>
(받는소리) 여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뒤여
(메기는소리)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어화 농부들 말들어보아
여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뒤여
이마 우에 흐르는 땀은 방울 방울 열매맺고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구나 김만경 들판에 풍년이 왔네

<자진상사소리>
(받는소리) 여화 여루 상사디야
(메기는소리) 여화 여루 상사디야
여보소 농부들 말듣소 어화 농부들 말들어
나렸다네 나렸다네 전라 어사가 나렸다네
떠들어 온다 떠들어온다 떠들어 온다 점심밥이 떠들어온다

4. 지심매는노래

<초벌매는소리>
나하하 헤 헤에헤에 헤에헤에 노리 헤헤 어 어디가 산아지로구나 에헤에
바람불고 비오는 줄을 알면은 어느 누가 빨래질을 갈까 에헤에

나하 아헤 헤헤에에헤헤에헤에 놀이 헤 헤 거 거뉘가 산아지로 구나 에 헤에

5. 만두리노래

<만경산타령>

(받는소리) 에야 뒤야 에에헤에야 에야 뒤여 상사디로 구나

(메기는소리) 욕들보네 욕들보아 우리 농군들 욕들보네
말은 가자고 네 굽을 치는디 님은 잡고 낙루만 허네

(받는소리) 어 어루화 사리여

(메기는소리) 징장사는 운봉덕
나팔 장사는 고창덕
바작장사는 00덕
이엉차 소리가 가깝구나
이엉차~

6. 장원질

(받는소리) 어허이 둔대 어허이 둔대

(메기는소리) 어허이 둔대가 둔대로세
가세 가세 어서들 가세 주인네 집으로 가 술들 먹세
여봐라 춘향아 내말을 들어 비개 높거든 내 팔을 비어라

7. 등짐노래

추수한 벼를 짊어지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농요를 부른다.

(받는소리) 아허 어허어 야 어허기야

(메기는소리) 가네 가네 나는 간다 저를 짊어지고 나는 간다
하늘같은 내 딸이로 실같은 흙위에다 태산같이 짊어지고 나는 간다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주인이 닭을 잡고 기다리니 어서 가세

8. 방아 찧는 소리

벼를 타작하고 홀태로 치면서 방아를 찧고 농요를 부른다.

9. 마무리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는 덕암정보고등학교의 김제시청소년농악단이 전수 받아 이번 대회에 출전했으며, 평택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 전라남도 / 낙안읍성군악 / 순천낙안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평택시장(장려상)
상금 2,000

'낙안읍성군악'은 좌도농악의 군악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농악이다. 낙안 지역은 옛날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를 물리치거나 방어할 때 풍물을 울려 병사를 모으고, 군사를 독려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호로 사용되었으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제의식 성격이 강해졌다. 남성적이고 가락이 빠르며, 거칠면서도 세련된 것이 특징이다.

낙안읍성군악은 낙안 평사농악 상쇠 김종대를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낙안읍성과 그 인근 지역에서는 70년대 후반까지 뜬쇠였던 '주깽매기'란 사람이 상쇠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를 후에 김종대 상쇠가 정리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낙안 읍성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낙안군수를 진냈던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제만을 지내는데, 이러한 의식이 농악과 결합되면서 낙안읍성군악의 특징을 드러낸다. 임경업 장군에게 빌어 자신들을 수호해줄 것을 기원하는 제를 임장군 비각에서 모시고, 당산굿을 치고, 벅구놀음을 하는 것이 특별하다.

마당밟이와 판굿으로 마을에서 놀이판을 펼치는데, 판굿은 칠채 길굿으로 시작해 반입굿, 바락굿(풍류굿),변형 날 당산굿, 진굿, 도둑잽이굿, 어허굿, 노래굿, 배나리굿, 등지기굿, 뛰뛰기굿 등으로 구성된다. 쇠잽이를 따라다니는 '농부'의 춤과 벅구놀음이 특색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쇠잡이가 검은색에 삼색이 달린 쾌자를 입는 것이 특징이다. 정월달과 백중에 두레놀이를 하면서 많이 연행되었으며, 마당밟이와 판굿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다.

순천낙안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낙악읍성군악은 전체 열두 마당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었다. 연행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굿 및 미지기
모임굿, 길굿치며 입장, 쇠다툼 가락을 치면서 미지기 굿

2. 북놀음굿
북놀음 들어가는 가락, 자진마치, 자진북놀음, 이채북놀음

3. 진굿
오방진 쌓기, 탐몰이 굿, 느린 삼채 굿

4. 어허굿
어허굿 초앞, 어허굿 본 가락, 자진어허굿, 어허굿진풀이, 지기굿

낙안지역의 전통적인 농악가락을 이어온 고로들과 낙안 평사농악 상쇠인 김종대 선생의 노력으로 이어온 농악의 역사를 현재는 순천낙안중학교 학생들이 이어 받아 전승하고 있다. 순천낙안중학교 학생들이 지속해서 낙안읍성군악을 이끌어간다면 차별화된 지역 농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낙안읍성군악이 다른 좌도 농악과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전승딜 수 있는 기반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인천광역시 / 발우공양 / 범패와작법무보존회,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

종목 의례
수상 평택시장(장려상)
상금 2,000

'발우공양'은 불가의 식사예절이자 의식이다. 정신적 평온케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이기도 하다. 발우공양은 자연에서 얻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자신의 몸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자연의 고마움을 생각하게 한다. 발우공양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사와 사랑, 타인에 대한 배려, 절약 정신 등을 배울 수 있으므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 전인적 자양분을 제공한다. 발우공양에서 지옥 중생 제도하는 범종, 물속 중생 천도하는 목어, 허공 중생 제도하는 운판, 세간 중생 지혜 얻길 발원하는 법고 등 법사물을 연주하고, 향을 비롯한 육법공양[六法供養]을 올리며, 발우공양을 서원하면서 바라춤을 함께 연희한다.

조선 태조대왕 7년(1398년) 인천 강화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을 옮기는 의식을 거행할 때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이 봉행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작법무로, 불교의식인 재[齋]를 옹릴 때 추는 춤을 이른다. 이 중 나비춤은 부처님의 정법을 상징하는 무용으로, 일명 해탈춤[解脫舞]이라고 한다. 바라춤은 불법[佛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의식[儀式] 도량[道場]을 정화해 성스러운 장소가 되게 하는 춤이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 소속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및 문학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발우공양은 전체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사물
잠든 새벽의 영혼을 깨운다. 지옥중생 제도하는 범종, 물속중생 천도하는 목어, 허공중생 제도하는 운판, 세간중생 지혜 얻길 발원하는 법고 등 법사물 연주를 하면서 무대 안으로 들어온다. 헌향을 산화락 쇄향수를 비롯한 법공양이 뒤를 따른다.

2. 전발게(법고춤)
발우를 펼치고 공양 준비를 마친다. 두 눈에는 도업 성취를 위한 눈빛이 성성하다. 중생제도 위한 법고춤의 환희가 이어진다.

3. 발우공양(향화게 나비춤)
꽃과 향으로 세간을 장엄하고, 나비춤 한 자락 춤을 춘다. 애벌레가 나비의 전신 고치를 깨고 나온 기쁨의 열정을 환희를 춤으로 표현하는 해탈무 한 자락을 펼쳐 보인다.

4. 탐욕의 강 건너(명발 바라춤)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로 청한다. 천둥소리 같고 번개와도 같은 바라의 큰 울림은 금모사자의 표호와 같은 것이다. 된 것과 잡된 것을 모두 제거하고, 탐욕의 강 건너 진리의 땅에 살게 하라는 기원을 담은 춤을 춘다.

발우공양은 전통적인 불교의 주요의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의례지만, 학생들이 인천 지역에 전승되는 지역 고유의 형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세상을 볼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낯선 대상으로, 종교 행위에 대해 전통문화 또는 사상이 갖고 있는 깊이와 넓이를 경험할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 경상남도 / 고성오광대 / 철성중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고성오광대'는 경상남도 고성에 전승되는 가면극 고성오광대놀이를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탈을 쓰고 태평소·북·장구·꽹과리·징 등의 음악반주에 맞춰 춤을 추며 대사를 주고받는 연희[演戱]라고 할 수 있다. 고성오광대는 전체가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된 연희가 아니라, 주제가 다르고 오락성이 강한 몇 개의 과장이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연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과장 '문둥북춤'
문등광대가 소고를 들고 굿거리장단에 맞춰 북춤을 춘다. 문동이의 복색은 헝겊을 짜깁기한 윗도리를 입고, 허리에 바가지와 신 한 짝을 메고, 다리에는 붉은 천을 매고, 버선에 짚신을 신고 있다. 북춤을 추고 난 뒤에는 덧배기장단에 맞춰 퇴장한다.

제2과장 '오광대'
원양반, 청제양반, 적제양반, 백제양반, 흑제양반, 홍백양반, 종가도령, 말뚝이 등 총 8명의 광대가 등장해 춤을 준다. 덧배기장단에 양반이 춤을 추면, 말뚝이가 등장해 양반을 조롱한다. 도령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바보 행세를 한다.

제3과장 '비비'
무엇이든 다 잡아먹는 비비가 등장한다. 비비는 몸은 사람이나 머리는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 비비가 나타나면 양반들은 겁을 먹고 도망친다. 비비는 춤을 추며 등장해 양반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제4과장 '승무'
중이 여성을 희롱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중이 제자각시(기생)를 유인하기 위해 춤을 추면서 접근하고, 제자각시도 요염한 춤을 추며 맞장구를 친다. 굿거리장단에 맞춰 중과 각시 두 명이 등장해서 한 데 모여 음란한 춤을 추고 퇴장한다.

제5과장 '저밀주(제밀주)'
큰어미가 작은어미(첩)와 영감을 두고 싸우다 죽는 내용이다. 작은어미 놀음이라고도 한다. 시골양반이 집을 나가 첩을 얻어 살면서 돌아오지 않자, 큰어미가 팔도강산을 헤매다 첩과 놀고 있는 영감을 만나게 된다. 이때 작은어미가 출산이 임박하자 황봉사가 경문을 읽어주고 아들을 순산한다. 그 아이를 큰어미가 품에 안자 작은어미가 말리면서 서로 다투게 된다. 아이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아이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 이에 분개한 작은어미가 큰어미를 때려 죽게 만든다.

고성오광대는 현재 정형화된 고성오광대놀이의 일부를 연행한 것으로, 각 과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경연 특성상 시간 제약을 받게 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각 과장의 핵심이 잘 드러났는지는 의문이다. 완성도 높은 원작을 짧은 경연작으로 재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6.10.13~10.14,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청소년층에게 민속예술 보존, 발전과 계승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열리는 전국 단위 민속예술 대회로, 생업, 의례, 연희, 놀이, 춤, 음악 등 모든 전통민속 분야가 경연 부문에 포함된다.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되었다. 주된 종목은 민속놀이, 민요, 농악 가면극, 춤 의례 등 민속 일반이 전개되었으며, 모두 14개 팀이 참가했다.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경상북도 오상고등학교의 '무을농악', 대전광역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웃다리농악', 강원도 율곡·솔올중학교와 문성고등학교의 '건금마을 용물달기', 제주도 한림고등학교의 '메구월일석 춘경걸궁', 전라북도 덕암정보고등학교의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경기도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버들개농요', 전라남도 나주다시중학교의 '다시들노래', 충청북도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청주신촌풍장', 광주광역시 대촌중학교의 '광산농악', 대구서부중학교의 '날뫼북춤', 인천광역시 덕신고등학교의 '강화용두레질소리', 충청남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공주걸립농악', 부산문화여자공등학교의 '수영농청놀이', 경사남도 양덕중학교의 '함안화천농악' 등이다.

2. 참가 종목

● 인천광역시 / 강화용두레질소리 / 덕신고등학교

종목 민요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강화도에서 전승하는 '강화용두레질소리'는 물품는소리인 '용두레질소리'와 '논농사소리', 그리고 농사 과정에서 연주되었던 '열두가락파접농악'을 묶어 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은 1986년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03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2호로 지정되었다.

용두레질소리 공연은 양촌마을, 음촌마을로 편가르기, 모찌기, 모심기, 새참놀이, 김매기, 두렁밟기, 물푸기, 열두가락파접농악놀이 등 8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양촌마을, 음촌마을로 편가르기

보통 마을마다 두레가 결성되어 있고, 각 마을은 두레기를 들고 나가 들에 세워 놓고 공동으로 일을 한다. 들에서 일을 하거나, 일하기 위해 이동하다 보면 다른 마을 사람들, 즉 다른 두레패를 만나게 된다. 두레기는 농신이 깃든 신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두레기와 두레기가 만나면 두 신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싸움 결과에 따라 형님기와 아우기로 서로를 칭하면서 아우기가 형님기를 만나면 기 절을 드리는 풍속이 있다. 용두레질소리 공연에서는 서로 맞절을 하는 형태로 연출하고있다.

2. 모찌기

볍씨를 물에 담궈 싹을 틔우고, 그것이 모판에서 자랄 때까지 한 달이 걸린다. 모판의 모가 촘촘히 자라면서 그것을 옮기는 것이 이앙이다.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못자리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한다. 농민들이 배수문을 막아 늦가을에서 봄 영농기 이전까지 강우량을 정수했다가 이앙기에 이르러 그 물로 모판을 만들고, 모가 자라면 모찌는노래와 함께 모찌기를 한다.

(받는소리) 쪘네 쪘네 여기도 한 침 쪘네
(메기는소리) 너도 찌고 나도 뽑아 다 같이 잘들 찌는구나
땀방울로 적신 모가 충실하게도 잘 자랐네
한 알기 두 알기 뽑는 모가 또 한 침이 되었구나
너도 찌고 나도 뽑아 날마다 잘들 찌는구나
여기도 철렁 저기도 철썩 또 한 침을 닦아 묶네
시집을 간다 시집을 간다 우리 모가 시집간다
우리 모 시집을 다 보내면 금년 농사는 풍년일세
왼손 바른손 맞 맞추니 또 한침을 닦아묶네
참게에는 잡아서 술 안주를 하고요
밤이슬 맞고 햇볕을 받아 곱게 곱게 잘 자랐네

3. 모심기

모판에서 쪄낸 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것을 모심기라 한다. 본래는 마름모꼴 간격으로 모를 심는 메밀모를 했으나, 일제강점기부터 줄을 대서 줄에 맞춰 모를 심는 줄모로 바뀌었다고 한다.

(받는소리) 심었네 꽂았네 여기도 한 폭 심었네
(메기는소리) 너도 심고 나는 꽂아 다 같이 잘들 심는구나
아래 웃 논에 지지를 말고 어서 빨리 심어주자
이모 저모 잘 맞춰 메밀모로 심어주자
메밀모를 안맞추면 여기도 저기도 방이 돈다
박석 뒤뜰에도 심어주고 장바구 뜰에도 심어주자
계룡제 뜰에도 심어주고 해당화 골에도 심어주자
해파골장도 심어주고 만리섬 뜰에도 심어주자
육칠월 객수가 아니라면 금년 농사도 풍년일세
으거리 풍년 농사를 지어 우리 딸 시집을 보내야지
땀 흘려서 가꾼 농사 년년히 풍작일세
오늘도 심고 내일도 꽂아 날마다 잘들 심어주자
잘들 심네 잘들 꽂아 일심 협력 잘들 심네
먼데 사람들 듣기 좋고 가까운데 사람들 보기 좋게
바다 같이 넓은 논을 해동갑하여서 다 심었구나

4. 새참놀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새참을 먹고 피로를 달래며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일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을 놀이화한 것이다. 새참놀이 때는 실제로 새참을 들면서 춤추고 노는데, 쌍피리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

5. 김매기

모심기 작업이 끝나면 호미로 애벌김을 매고 두레계를 조직해 두벌김을 매면서 온 들판이 김매기로 절정을 이룬다. 김매는소리는 긴소리와 자진소리로 구분하며, 자진소리는 '삿갓논 김매는소리'라고도 부른다.

<김매는소리>

(받는소리) 에야데야 어허야 어허 어얼사 좋구나

(메기는소리) 김을 매세 김을 매세 모두 다 같이 김을 매세
이골 저골 새놓지 말고 고루고루 매어주자
김매는 데 제격은 뒷손질 잘해야 제격일세
넘어간다 넘어간다 호미 김밥이 넘어간다
다른 집의 점심은 나오는 데 우리 점심이 안 나온다
보리방아를 곱 찧느라 우리 점심이 늦어졌나
그르밭 점심참 대느라고 우리 점심이 늦어온다
갓난애가 잠잰다고 애기 어머니가 잠들었나
콩밭 김매러 나갔다가 점심밥이 늦어지나
어서 빨리 김을 매고 호미시침을 하여보세
바다 같이 넓은 논에 산달만치 남았구나

<자진김매는소리 - 삿갓논 김매는소리>

(받는소리) 앵차 앵차

(메기는소리) 어떤 사람 앵차~팔자 좋아서 앵차~
부귀영화로 앵차~ 잘 살건만 앵차~
이내 팔자는 앵차~어이나 해 앵차~
땅을 파서 앵차~ 먹고 사나 앵차~

6. 두렁밟기

모심기와 김매는 작업이 끝나면 두렁밟기를 한다. 이는 논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본래 두렁을 밟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일은 어디에서나 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특정 절차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단체로 두렁밟기를 하는 일은 흔치 않다.

7. 물푸기(용두레질)

갈수기에는 두레를 지반에 따라 3단계까지 설치하고 저수답 물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물푸기를 해야 했다. 이때 흥겹게 용두레질노래를 부르며 물을 퍼올렸다. 넓은 논이나 염전에 물을 대는 작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고된 노동이었기에, 손길을 맞추고 흥도 돋우면서 물푸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받는소리) 어이야 용두레 물 올라간다.

(메기는소리) 하나 둘에 물올라간다 물줄은 하난데 두레는 열두레
이월 초하루 쥐불 놓는 날 서이 너이도 물올라간다
삼월 삼짓날 제비가 오구요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셨네.
오월 단오날 그네를 뛰며는 모기가 안 물어 잠자기 좋구나
육간대청엔 전후퇴 달구요 호박 주추에 부연도 달구요
건드러지게도 잘들 살았네 칠월 칠석날 내리는 빗물은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구나 팔월 한가위 달도 밝구나
구월 구일에 제비가 떠난다 여나문 시절에 잘 먹고 놀았네
동지 팥죽은 맛도 좋구나 일 년은 열 두 달 다지나 가누나
큰애기 나이는 이팔에 십육 큰애기 나이는 이팔은 청춘
딸도 스무살 사위도 스무살 궁합이 좋아서 잘도 살았네
열 일곱 열 여덟 물올라간다 이십안 자식에 삼십안 재물은

농사만 잘지면 이루어지리라　　인간 사십은 매지근하구나
오십 당년에 손자놈 보았네　　육순 생일은 서글픈 생일날
인간 칠십은 고래희로다　　팔십호 동지에 풍년이 왔구나
구십 평생을 산다하여도　　죽어지면은 백문이 허사라
백대풍신은 흩날렸구나　　삼천 두레에 물올라간다
그저께 것까지 삼천두레라　　어야 용두레 물올라간다

8. 열두가락농악(파접놀이)

모든 논농사를 마치면 풍농을 축원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대개 마지막 논매기라 끝난 시점에 연행하는 것으로 일명 '호미씻'이라고도 한다. 파접놀이 때는 마을의 농악뿐 아니라 옆 마을의 농악대를 초청해 함께 연행하기도 했다. 파접놀이 때도 간단하게 농사풀이를 하는 등 열두가락 농악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정월의 연주처럼 본격적이지는 않다. 농악대의 구성은 호적, 광쇠, 제금, 태징, 북, 장고, 법고, 소고 등이며, 법고, 소고를 연주하는 이들이 볍씨뿌리기, 모심기, 콩심기, 멍석말이 등 농사짓는 모습(농사풀이)을 춤으로 재현한다. 연주하는 열두가락은 올림가락(1채, 2채), 기절가락(5채), 느린길가락(4채), 빠른길가락(7채), 인사가락(마당1채), 땡땡가물어가락(2채), 두렁밟기가락(자진4채), 자진찔러메기가락(5채,6채), 느린찔러메기(새면) 가락(8채), 배치기가락(6채), 삼동주가락(3채, 동리3채, 5채), 끝맺음가락(12채)이다. 농사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하**늘법고**

논자리 위치와 부락단위로 작업을 하는 논농사 때, 마을의 단합 단결을 통해 마을의 풍년을 하늘에 기원하며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 **메밀모**

각 부락 단위로 작업을 하는 밭농사를 재현한 것이다. 메밀모는 줄을 대지 않고 마름모 간격으로 모를 심는 것을 말한다.

- 새**치기**

강화도 전례의 놀이로 동작이 일치함을 재현한 것이다.

- **튼입구**

농사의 작황을 살피는 장면을 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 **상법고,꼬리법고**

양반, 광대, 상법고, 꼬리법고가 같이 놀며 농사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 **영산치기**

마을 전 주민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 단합과 단결을 과시하는 장면이다.

- **볍씨뿌리기**

논농사의 첫 단계인 못자리에 볍씨를 뿌리는 장면이다.

- **두렁밟기**

모심기 전에 논물을 관리하고자 논두렁을 밟는 장면이다.

- **모심기**

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심기를 재현하는 것이다.

- **콩심기**

모내기가 끝나면 밭농사의 콩심기를 하는 장면이다.

- **볏가리쌓기**

들판에 벼를 마당에 쌓는 장면이다.

- **풍년이왔네**

전 놀이 마당의 종언을 알리는 장면이다. 느린찔러메기 가락에 맞춰 춤을 추며 한해 풍년을 기뻐하는 장면이다.

- **멍석말이**

농기를 보호하기 위해 연행자들이 모두 집결하는 것을 재현한 것이다

- **끝맺음인사**

끝맺음 가락(12채)으로 열두가락파접농악놀이 마당을 끝내고 인사를 한다.

덕신고등학교의 용두레질소리는 2012년 제19회 대회에 출전해 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4년이 흐른 2016년에 다시 출전한 것이다. 2012년에 출전했던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이후의 재도전이므로, 덕신고가 지속해서 용두레질소리 전승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대회에도 대규모 용두레를 설치해 먼 곳에서부터 차례로 물을 퍼 올렸던 과거의 노동을 재현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전승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이번 대회에서는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 **경상북도 / 무을농악 / 오상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구미 무을(선산)농악의 발원지는 구미의 북서쪽에 위치한 수다사[水多寺]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수다사에 있던 스님 정재진(법명 미상)이 풍물가락을 만들어 인근 부락으로 전파했고, 후에 정재진의 쇠가락을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에 사는 이군선이 집대성한 것이 지금까지 전승된 것이다.

무을농악은 진굿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전형적인 전투 농악으로, 북 가락이 웅장하고 장쾌하고, 소고놀음이 발달하며, 예술성이 뛰어나고, 힘차고 박진감이 넘치며, 다양한 진을 빠르게 구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투적인 동작들이 돋보이며, 북놀이와 소고놀이는 판굿의 백미다.

오상고등학교는 1997년 무을농악 전수학교 지정 이래 지속해서 무을농악을 전승하고 있으며, 경북지역 고등농악의 강호팀 중 하나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전수 활동으로 농악 전공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이 다수 있다.

구미농악단이 전승하고 있는 무을농악을 오상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승하면서 놀이를 구성해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굿(행진곡, 인사굿)
농악에서 행진할 때 쓰이는 가락으로, 길군악이라고 한다.

2. 마당닦이
3분의 3박이며 경쾌하고 씩씩한 장단이다.

3. 정적궁
상쇠와 종쇠가 원진을 그리며 이동해 빠른 장단으로 논다.

4. 도드래기(엎어빼기, 덮어빼기)
도드래기는 별신굿을 할 때 집집이 지신밟기를 하며 치던 가락으로, 판안다드래기, 영산다드래기 등에도 쓰인다.

5. 품앗이굿
전 인원이 원을 그리며 돌고, 한가운데에 상쇠와 종쇠가 서로 가락을 주고 받는다.

6. 영풍굿
품앗이가 끝나고 쇠의 가락이 바뀌면 연풍대를 하며, 소고는 가락에 따라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기세를 자랑한다. 가락에 맞춰 각자 옆으로 뛰면서 춤춘다.

7. 허허굿
허허굿은 전투굿의 일종으로 자기 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알리는 장단과 신호로 이어진다. 가락에 맞춰 “허허” 하는 구령을 하며 신호한다.

8. 기러기굿(너랑나랑 둘이돌기)

기러기굿에서 악기잽이들이 양팔을 벌려 색띠를 쥐고 옆뛰기를 한다. 너랑나랑 둘이돌기 다음에 판굿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둘이돌기를 하면서 연결한다.

9. 판굿(마당굿)

판굿은 마당굿이라고도 한다. 악기잽이마다 상쇠 지휘에 따라 각기 원진을 그리면서 오방진을 치고, 기량을 펼친다.

10. 채굿(수박치기)

소고잽이들이 한가운데로 나와 춤을 추며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다. 춤을 추다 제자리를 빙빙 돌기도 하며,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을 가볍게 치기도 한다.

11. 진굿(진풀이)

군사굿 형태의 격렬한 진풀이가 특징인 놀이로, 마치 적을 포위하고 격전을 벌이는 모습과도 같아 역동적이고 신명이 난다. 정저굿 장단에서 시작해 똘똘말이로 감을 때 격렬한 장단을 친다. 끝날 무렵에는 상쇠의 술령수와 장의 신호에 따라 정저굿 가락을 치면서 푼다.

12 덧배기

격렬하게 몰아친 후 느리면서도 흥겨운 덧배기로 이어져 새로운 분위기로 몰아간다.

오상고등학교에서 무을농악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 지역 문화에 대한 지속적 전승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을농악은 지역적 특색이 분명하고 역사적 명분이 분명한 만큼, 오상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특징을 제대로 전승해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충청남도 / 공주걸립농악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전북도지사(은상)
상금 4,000

웃다리농악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을 일컫는 용어다. 대전·공주 지역의 웃다리농악은 충청·경기 지역의 농악 가운데 지금도 연희되는 대표 농악이라 할 수 있다. '공주걸립농악'은 계룡산 인근의 갑사, 신원사, 마곡사 등에서 불사를 일으키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끊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송순갑 어른이 다시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걸립농악은 농악대들이 주로 정월대보름 전후, 또는 추석 전후에 걸립을 할 때 치는 것이다. 이렇게 농악대가 각 가정을 방문해 집안고사굿을 쳐주고는 곡식이나 돈을 얻는 의례를 '걸립굿' 또는 '걸립친다', '걸궁났다'고 하는데, 마당밟기나 지신밟기 또는 매귀([埋鬼], 매굿) 등과 같은 형태를 말한다.

공주걸립농악의 순서는 지방에 따라 다르나, 마을 입구에서 당산나무에 인사를 드리고 마을을 들어가는 당산굿을 시작으로 우물굿, 문굿, 성주굿, 뒤굿, 칠채오방진, 절굿대놀이, 개인놀이(버나, 땅재주, 무동놀이, 열두발), 멍석말이, 인사굿으로 이어지며, 이렇게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의례를 행한 뒤, 그 집에서 마련한 고사상의 제물을 받아온다.

이번 대회에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가운데 일부를 진행했으며, 그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산굿
마을 입구에서 당산나무에 인사를 드리고 마을에 들어가는 의식을 한다.

2. 우물굿
동네의 샘에서 치는 굿으로, 마을의 우물이 마르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나오기를 기원한다.

3. 문굿
집에 들어갈 때 허락을 받고 대문을 들어가는 굿이다.

4. 성주굿(축원고사덕담)
성주굿은 곳간, 장독, 부엌굿을 다치고 집안에서 지내는 안택굿을 총칭하는 것으로, 집안 여러 장소에서 고사를 지내는 굿이다.

5. 뒤굿
고사를 지내고 마당에서 걸립패가 농악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논다

6. 칠채(길군악)
상쇠의 칠채 머리가락에 따라 전 대원이 칠채를 치며, 칠채굿을 진행한다.

7. 당산놀이
당산 대형에서 상쇠의 가락에 따라 상모잽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외줄배기, 좌우치기 등을 한다.

8. 개인놀이

재비들이 순서대로 재주를 보이는 과정으로, 버나돌리기, 땅재주, 무동놀이, 열두발상모 순으로 진행한다.

인근 지역에서 전승된 웃다리농악이 1977년 명인(조연출) 정인삼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공주농업고등학교 방과 후 동아리로 전국대회에 나가고, 공주웃다리보존회로 '88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업적을 쌓기도 했다. 출전 당시 주진영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악반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등 공주 지역 웃다리풍물 전승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공주농업고등학교는 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전신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충청도 웃다리농악을 집중적으로 전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근 40년 가까이 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전승학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주걸립농악의 전승을 잇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통해 결실을 보면서 지역 농악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소중한 경험이 차후 충청도의 지역 농악을 보존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 메구월일석춘경걸궁 / 한림고등학교**

종목 민요
수상 전북도지사(은상)
상금 4,000

'메구월일석춘경걸궁'은 제주도 입춘굿의 거리굿과 탈굿놀이를 바탕으로 풍물패 공연과 민요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입춘굿을 춘경[春耕] 또는 입춘춘경[立春春耕]이라고도 하는데, 이 굿을 노는 것을 '춘경[春耕]친다'고 한다. 제주도 입춘굿은 모관황수, 정의황수, 대정황수라고 하는 무당을 대표하는 세 황수가 제주 목관아에 모여야 한다. 메구월일석춘경걸궁은 황수기를 들고 읍성 안을 도는 메구월일석 거리굿, 관덕정마당에서 펼치는 입춘탈굿놀이를 거쳐 풍농을 기원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메구월일석춘경걸궁은 입장, 낭쉐ᄀᆞ사, 거리굿, 탈굿놀이, 파장굿, 퇴장 순으로 진행한다. 입장을 하면 도황수, 대정황수, 정의황수를 중심으로 걸궁패가 낭쉐[木牛] 앞에 서서 '낭쉐ᄀᆞ사'라는 제주도 목우제를 올린다. 낭쉐ᄀᆞ사가 끝나면 황수기를 선두로 해 제주읍성의 성문을 돌면서 거리굿을 펼친다. 각 성문에 도착하면 새해의 액을 내쫓는 '올래ᄀᆞ시'를 걸궁 형태로 진행한다. 거리굿이 진행되는 동안 횡수들은 주민들이 가져온 보리 이삭으로 점을 치는 '보리 고고리점'을 진행한다.

이어서 탈굿놀이를 진행한다. 호장들의 '밧갈이', 농부의 '씨드림', 사농바치와 새의 '방액놀이', 몰사와 호장들의 '담배 참권청'을 노래와 재담을 엮어가며 진행한다. 탈굿놀이가 끝나면 황수, 걸궁패, 탈굿놀이패가 어우러져 판굿을 놀고 서우젯소리로 이어간다.

메구월일석춘경걸궁은 제주도 지역의 무속의례를 추합해 새롭게 꾸민 경연작이다. 무속의례를 전통으로 삼아 다양한 구성을 통해 공연 형태로 꾸린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것에 풍물패와 민요가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 공연을 선보였다. 제주도의 여러 민속을 한 공연을 통해서 보여준 점에서 전체 구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 웃다리농악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전북교육감(은상)
상금 4,000

1984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웃다리농악은 충청도 웃다리풍물의 대표격이다. 대전지역은 일찍이 농악이 발달하면서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성행했다고 한다. 대전 웃다리농악의 실상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왔으며, 한밭(대전)에서는 각 마을의 두레패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고증에 따르면 1550년대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심복마을에서 액을 막아내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열렸다. 1700년대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물굿과 기원제가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19세기부터 최근까지 웃다리풍물은 고인이 된 송순갑, 이원보, 최성구, 양도일 등의 주도로 전승되었다.

대전 웃다린농악은 한때 맥이 끊어질 위기에도 처했으나, 중앙농악회에서 운영한 '대전웃다리농악대'를 통해 연행된 것을 송순갑 어른이 정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대전웃다리보존회가 이어받으면서 현재 웃다리농악의 보존과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 웃다리농악은 전체 열세 마당으로 구성해서 연행한다. 놀이적인 분면에서 판굿에서 진풀이의 변화가 다채롭게 진행되면서, 여러 치배들의 놀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웃다리농악만의 특징인 무동춤과 칠채가락을 통해 멋스러움을 더한다.

웃다리농악은 굿패들이 가지고 있는 갖은 기예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마당에서 벌이는 굿판 형식을 취하고 있다. 웃다리농악의 판굿은 경쾌하고 흥청거리는 가락이 특징이며, 잘 짜인 웃다리농악만의 가락에 맞춰 펼쳐지는 생동감 넘치는 진풀이와 각 잽이들의 동작이 일품이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대전 웃다리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마당 '인사굿'
판굿을 하기 위해 일렬로 나가기 직전 한군데 모인다. 북이 점고를 친 다음 징수가 징을 느리고 크게 세 번을 치고, 다스림가락과 이채가락을 친 후 맺는다.

제2마당 '외돌림벅구·멍석말이'
인사를 한 뒤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상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든다. 이채가락을 치면서 벅구는 바깥 원에서 외상이나 양상을 치고 자반뒤집기를 한다.

제3마당 '당산벌림·들당산'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을 풀어 'ㄷ'자 대형을 갖추고, 무동이 없을 때는 '11'자 대형으로 한다. 그리고 상쇠는 연타채를 치면서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쪽으로 가서 내주는 가락을 네 박 친다. 다음으로 벅구 전원이 앞으로 여섯 걸음 걸어간 다음 제자리에서 두 박자에 이어 이채가락을 치면 벅구는 양상을 돌리고 솟음벅구를 한다. 삼채가락에 따라 벅구는 '乙'자 방향으로 이동하며, 잽이와 두 줄로 마주 보면서 된삼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빠른 사사와 일사를 하고, 연타를 치면 번개상으로 맺는다.

제4마당 '칠채오방진'

전 대원은 칠채가락을 치면서 중앙진을 만든다. 중앙진에서 상쇠의 된삼채장단에 이어 이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벅구들은 음상, 외상 등으로 돌리다가 자반 뒤집기를 한다. 중앙진을 풀어 나올 때는 짝쇠가락을 치며, 날당산벌림 대형을 만든다.

제5마당 '절굿대놀이(쌍줄백이, 외줄백이)'
상쇠가 연타채를 치면서 돌사위로 맺고, 외줄백이 대형을 만들기 위해 잽이의 한가운데를 향해 이동할 때 상쇠는 쇠채발림을 한다. 외줄백이 대형이 만들어지면 삼채가락을 치면서 벅구 전체가 부쇠방향 쪽으로 'ㄷ'자를 그리면서 잽이를 향해 쌍 줄을 만들어 들어와, 수벅구 쪽부터 앉고 서고를 반복한다. 다시 삼채가락을 치면서 수벅구 줄은 부쇠 방향으로, 부벅구 줄은 끝북 방향으로 돌아 쌍줄백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 나간 다음 외줄로 나간다.

제6마당 '십자걸이'
잽이들은 삼채가락을 치면서 당산 대형을 풀어 반원을 그리고, 정면을 향해 일렬로 대형을 만들며, 벅구 전체는 잽이의 한가운데를 교차하면서, 십자 대형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서 이채가락으로 맺는다.

제7마당 '사통백이'
삼채가락을 치면서 십자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십자 대형이 동·서·남·북 4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태극선을 따라 돌며 원을 그린다.

제8마당 '좌우치기(원좌우치기, 네줄좌우치기)'
원 상태에서 한가운데를 보면서 이채를 친 다음, 상쇠의 머리가락을 듣고 좌우치기를 한다. 연타채를 치면서 큰 원에서 네 줄을 만들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네 줄이 동시에 한 줄을 만들면서 큰 원을 그린다.

제9마당 '쩍쩍이'
큰 원 상태에서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다가 삼채를 맺고, 쩍쩍이가락을 약 3~4회 정도 친다. 상쇠의 신호를 듣고 쩍쩍이가락을 맺는다.

제10마당 '풍년굿'
굿거리가락에 맞춰 춤을 추다가 굿거리를 맺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상쇠의 연타채가락의 신호로 한가운데를 보면서 앉는다.

제11마당 '개인놀이'
무동놀이, 쇠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살판, 12발(긴채상)놀이를 진행한다.

제12마당 '외돌림벅구·멍석말이'
일명 '덧배기놀이가락'이라 한다. 덩더궁이(자진모리) 장단과 어깨춤이 발달했다.

제13마당 '퇴장'
채가락을 치며 멍석말이를 풀어 나오면서 퇴장을 한 다음, 이채가락을 빠르게 몰아치며 맺고, 절가락을 치고 서로에게 인사한다.

1979년 유성농고 시절에 농악반이 만들어진 이후 1984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가 다시 웃다리농악을 전승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구암풍물반을 2006년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창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렇게 꾸준하게 농악을 전승하면서 특히 대전 지역 웃다리농악 전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성생명과학고는 2009년부터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꾸준히 전국단위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 판굿을 중심으로 전승하고 있으니 전통적인 맥락의 웃다리농악을 찾아 지속해서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경기도 / 버들개농요 /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종목 민요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버들개농요'는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부르던 농요로 구성한 작품이다. 농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동심과 능률을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노래이므로, 청소년들의 협동심과 공동체성을 길러주기에 적절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연행에서는 풍물놀이에 쓰이는 악기들이 흥을 돋우며 놀이를 곁들였다. 모심는소리, 모내는소리, 김매는소리를 이어가는 등 타작과 풍년을 기원하며 추수하는 전 과정을 담았다.

1. 입장

2. 모찌는 소리

(받는소리) 쪘네 쪘네 모 한 줌을 쪘네
(메기는소리) 쪘네 쪘네 모 한 줌을 쪘네
정월이라 삼짇날에 제비도 옛집을 찾건마는
청춘 남녀 짝을 지어 양양 삼삼이 다니건만
우리 님은 어데를 갔게 답교하잔 말이 없나
이월이라 한식절은 개자추에 넋이로다
북망 산천을 찾아를 가서 무덤을 안고서 통곡을 하네

3. 모심기

(받는소리) 훠나 훠나 훠나기로 구나
(메기는소리) 훠나 훠나 훠나기로 구나
여기 저기 심어도 삼배출 자리로 심어주소
여기 저기 꽂아도 사방줄 모로 꽂아주소
옆에 분들 듣기나 좋게 먼데 분들 보기나 좋게
잘 헌다고 먼저를 말고 못 헌다고 나중을 마라
남에 발등을 밟지를 말고 일시에 받고 일시에 주소

4. 초벌논매기

(받는소리) 에 에헤에요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가 난실 네로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소
(메기는소리) 에 에헤에요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가 난실 네로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소
좋다 좋구나 하나를 막고 하는 말이
일편단심 굳은 마음이 일부종사를 에루화 본조 봐라
좋다 좋구나 둘을 맞고 하는 말이
이부불경 이내 몸이 이부불사 에루화 본조 봐라

5. 두벌논매기

(받는소리) 우후야 훨훨
(메기는소리) 우후야 훨훨
칠팔월이 되었는지

새쫓는 소리가 요란하다
높이 떳다 종달샌가
얕이 떳다 굴뚝샌가
방아를 잘 찧는 참새로구나

6. 모타작

<풍년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에 풍년이 왔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다
명년 춘삼월에 화전놀이를 가세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에 풍년이 왔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다
명년 춤삼월에 화전놀이를 가세

7. 대동놀이 및 퇴장

버들개농요는 의정부 지역의 농요의 특징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의정부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전수해 경연에 임했다. 어려운 노래가 많았지만, 선소리꾼을 비롯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불렀다. 이번 대회에서 문화재청장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 대구서부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4,000

대구서부중학교 날뫼북춤팀은 2010년 학교 동아리로 조직되어 대구 지역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날뫼북춤을 전승하고 있다. 동아리 조직 후 2014년 전국날뫼북춤 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날뫼북춤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한 팀으로 알려져 있다.

날뫼북춤은 16세기경 본래 춘추제향[政事] 때의 축원 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전승되어 민중들에게 공감을 주는 춤의 형태로 다듬어져 왔다.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미의식이 가장 잘 집결되어 민속적인 형태의 북춤이라 할 수 있으며, 경북 지역의 특색이 보이는 투박하면서 힘이 넘치는 가락과 동작이 멋스럽다.

날뫼북춤의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길굿, 길군악
길굿은 논두렁이나 징검다리 등을 갈 때, 길군악은 평평하게 좋은 길을 갈 때 연주한다.

2. 정적궁이
상쇠의 신호에 따라 북잽이들은 반시계방향으로 몸을 회전하는 연풍대를 한다.

3. 반직굿
북넘기 등 고난도의 동작을 연속해서 한다.

4. 엎어빼기
북넘기와 앉을상을 반복해 실시한다.

5. 다드래기
태극진 대형을 만들고 이동한다. 연풍대로 빠르게 돈다.

6. 싸움굿, 버꾸사설마당
북잽이들이 2열로 서서 좌우로 이동한다. 전쟁놀이의 형태로 백병전을 할 때와 같이하고, 화합으로 마무리한다.

7. 모듬굿
두 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한다. 태평소와 띵각에 맞춰 모든 가락을 연주한다.

8. 굿거리
두 명씩 북을 마주 보고 친 후, 두 개의 줄을 세우고 이동한다. 다시 소수의 북잽이가 중간에 원진을 만든다. 북소리와 흥겨운 어깨춤을 동반한다.

9. 강강술래
큰 원을 만들고 각각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한다. 북잽이들이 원진의 바깥을 향해 옆으로

뛴다.

10. 허허굿

2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한다. 북잽이들이 양발을 솟구쳐 뛴다.

11. 오방진

기수를 중심으로 다섯 개의 원진을 구성한다. 다섯 방위에 화평과 강령을 비는 춤판이다.

12. 덧배기굿(뒷마당풀이)

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한다. 북잽이들이 신명 나게 어깨춤을 춘다.

날뫼북춤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다. 비산농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16세기 경 마을의 한 원님을 제사 지냈던 춘추제향 때의 축원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래는 모두 중요하게 여겨진다. 날뫼북춤에는 경상도 특유의 북 장단과 춤사위에서 나오는 씩씩한 기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작품을 연행한 대구서부중학교 날뫼북춤팀은 동아리로 조직되어 날뫼북춤을 전승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어린 전승자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이해를 제공해야 하겠다.



● **충청북도 / 청주신촌풍장 / 충북공업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청주신촌풍장'은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지역에 전승되어오던 농악으로, 1992년 10월 23일 지정된 충북 무형문화재 제1호 청주농악의 모태로 전한다. 고로 풍물인들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신촌풍장을 전승하고 고증했다. 돌무(상모)를 돌리고, 무동을 놀리며, 농사일 과정의 판제를 연출해 부락과 부락을 단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연중민속, 월중민속, 두레, 집짓기, 뚝방 쌓기 등을 필수적인 요소로 평한다.

이 지역 농경에서 파생되어온 노동의 동작이 신명의 춤 짓으로 진화되어, 대동놀이, 풍년 기원, 해학, 의식 등이 어우러진 신명 나는 놀이마당으로 전승되었다. 청주신촌풍장의 연행 과정에는 농사 시절의 변천적 의미를 담은 내용으로 그 과정이 구성된다. 또한 그의 판제에는 농경의 삶에서 자연히 표현되고 파생되는 몸짓, 춤짓, 대동놀이, 기원놀이, 신명, 의식 등이 내포되어 있다.

충북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연행한 청주신촌풍장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갈지자진
무작위로 연타를 치며 입장하며, 곤나비장단을 치며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 순으로 갈 지[之]자 대형으로 선다.

2. 인사
원을 만든 후 제자리에서 인사한다.

3. 꽃봉우리
상쇠가 한가운데에, 소고가 중간 원에, 꽹과리, 징, 장고, 북이 바깥 원에 위치하며, 휘모리장단에서 옆사위 뛰기를 한다. 자진가락과 두마치가락을 연주하며, 벅구잽이의 돌무짓을 놀린다.

4. 새조시(써레질)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네 줄이 되게 대열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걸음의 디딤이 새의 발걸음과 같다고해 '새조시'라고도 하며, 논의 써레질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고 해 '써레질이'라고도 한다.

5. 네줄백이
네 줄을 만든 후 좌우치기를 한다. 좌우치기 후 양 두 줄이 한가운데를 보고 자진가락을 연주하며 신명 나게 논다.

6. 쌍줄백이
왼쪽 두 줄은 꽹과리, 징, 장고, 북이, 오른쪽 한 줄에 소고 위치해서 쌍줄로 늘어선다.

7. 벅구놀이
상쇠가 수벅구를 지휘하며, 벅구들의 놀이를 진행한다.

8. 농사풀이

상쇠의 신호로 소고잽이들이 농사의 과정을 풀어낸다. 농사풀이는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순으로 돌무짓과 벅구치기 등를 하면서 진행한다.

9. 오방감기

긴곤나비장단(칠채가락)을 연주하며 동서로 영기를 세우고 멍석을 말며, 한가운데에 깃발을 집중시키고 멍석말이를 하며, 자진가락과 휘모리가락을 연주한다. 이때 진행은 한가운데만 한다.

10. 춤마당

날풍장가락(굿거리)에 모든 치배가 자유롭게 춤을 춘다.

11. 쩍쩍이(쩍찍기)

쩍찍기가락(쩍쩍이)을 연주하며,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발을 디디면서 통일되게 쩍찍이 춤을 춘다.

12. 십자걸이

횡으로는 소고, 종으로는 나머지 치배가 배열해 십자를 형성한 후, 상쇠의 신호를 따라 사방으로 돌며 자진가락을 연주한다.

13. 연자방아진

상쇠의 신호로 반시계방향과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씩 돈다.

14. 사통백이

십자로 나뉜 네 곳에서 각각 원을 만들어 자진가락을 연주하며 옆사위 뛰기를 한다.

15. 소고 절구놀이

쌍줄백이와 유사한 형태로 왼쪽의 두 열은 악기가 서고, 상쇠와 소고잽이들이 원을 만들어 상모짓을 하며 절구방아 찧는 모습을 표현한다.

16. 개인놀음

상쇠, 수벅구, 열두발 등 풍물잽이 수장들의 기량을 선보인다.

17. 멍석말이

한가운데로 악기 순서대로 멍석을 만다. 휘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돌사위를 한다.

18. 인사, 퇴장

1999년 충북공업고등학고가 풍물반 '천둥소리'를 창단해 2000년 이후 전국단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받았다. 충북 지역 고등부를 대표하며, 일반부 못지않은 풍물놀이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풍물반은 현재 충청도 청주 지역에서 전승하는 민속놀이를 학습해 학생들에게 지역문화를 익히고 전승하는 일꾼으로 자리잡고 있다. 충북공고는 10년 이상을 학생들이 농악과 농요 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민속문화의 정수를 익히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문화전승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 광주광역시 / 광산농악 / 대촌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상금 3,000

'광산농악'이 전승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영산강 상류인 황룡강과 극락강을 끼고 있는 넓고 비옥한 서석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예로부터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업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광산농악은 예로부터 마륵동의 판굿농악을 중심으로 칠석동의 '고싸움놀이', 소촌동의 '당산농악', 신월동의 '풍장농악', 옥동(평동)과 유계동(동곡)의 '걸립농악' 등 광산구 지역에서 연주되는 다양한 농악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광산 지역에서는 농악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광산농악은 채상고깔을 쓰고, 복장이 화려하다. 느리고 빠른 가락을 다양하게 연주하며, 잡색의 구성이 조직적이고 다채롭다. 문굿, 당산굿, 샘굿, 철용굿에 이어 집집이 방문해 연주하는 마당밟기, 마당굿, 풀이, 액맥이, 중천맥이, 부엌굿(정제굿), 철용굿(장독대굿, 장광굿)까지 전 과정을 연주하고, 저녁에는 판굿을 하는 전통적인 호남우도농악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원은 꽹과리 4~6명, 장고 6~8명, 징 3~4명, 작은북 20~25명 등의 앞치배와, 대포수, 양반, 할미, 조리중, 각시, 참봉, 남무동, 여무동 등의 잡색인 뒤시배로 편성한다.

대촌중학교는 2002년 농악반 신설 이래 지금까지 왕성하게 광산농악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대촌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광산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질굿마당
내드름굿 일·이·삼채가락을 마친 후 일채로 입장해, 오채질굿, 된 오채질굿, 갖은일채, 벙어리삼채, 벙어리일채, 삼채, 매도지를 친다.

2. 오방진마당
오방진의 오방은 방향을 나타내는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에 진을 치는 것을 형상화해 덕석몰기로 진을 쌓아 연주한다.

3. 호허굿마당
열두마치(12채), 호허굿, 자진호허굿을 치며, 좌·우·진·퇴(좌우치기, 연봉치기)를 한 뒤 지심매기, 지신밟기, 콩등지기, 용틀임을 한다.

4. 구정놀음
치배들의 개인 기량을 한껏 보여주는 마무리 마당이다.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열두발상모, 잡색놀이를 한다.

대촌중학교 광산농악팀은 지속해서 전국청소년민속축제에 참가해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0년 이상 광산농악을 이어오면서 지역 농악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학생들이 지역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 경상남도 / 함안화천농악 / 양덕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전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함안화천농악'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마을에 전하는 마을 농악이다. 화천마을은 들에 능수양버들이 울창하게 늘어서 있어 '유정리'라고도 부른다. 함안화천농악은 지신밟기와 풍년굿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풍농, 안택 축원기원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농경 민족으로서 풍농을 하늘에 비는 것은 최상의 의식으로, 천신에게 바치는 가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이어졌다. 함안화천농악의 연희 시기는 정초, 5월 단오, 7월 백중, 9월 그믐날, 10월 초하루, 12월 보름날로,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드리고 당산나무 주위에서 농악을 연행했다. 지신밟기 메구를 칠 때는 흥이 많은 마을 장정 남녀들이 참여해 사대부, 팔대부, 포수 등으로 가장해 흥겨운 놀이판을 벌였다. 함안화천농악은 이렇게 세시풍속의 하나로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화합하는 중심체 역할을 했으며, 1945년 8·15 광복 후 농악단을 조직을 통해 현재까지 전승이 이어지고 있다.

함안화천농악은 기수, 치배, 잡색으로 구성되며, 치배는 악기에 따라 호적, 쇠, 징, 북, 장고, 소고, 법고로 구분된다. 잡색은 다양한 춤과 진법, 연기를 함께하며, 잽이와 구경꾼들을 연결해 굿판을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대포수, 양반, 중춤쟁이, 가장녀(각시), 하동, 농부춤쟁이, 양반, 중춤쟁이가 희극적 성격으로 등장한다. 기수는 영기, 용당기, 표지키, 농기로, 이들은 깃발을 든다.

양덕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함안화천농악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부름굿
공연에 앞서 덧배기 장단, 영산 다드래기 장단을 치며 준비하는 과정이다.

2. 길굿
영기, 용당기, 표지기, 농기를 앞세우고, 상쇠 이하 전 단원이 덧배기 장단에 맞춰 1열로 행진하는 놀이굿이다.

3. 살풀이굿
살풀이 장단에 맞춰 원형으로 돌면서 춤을 춘다.

4. 덧배기굿
덧배기 장단에 맞춰 선잽이와 앉은잽이로 나뉘어 움직인다.

5. 사방오토지신굿
사방의 지신에게 제를 지내는 것이며, 사방오토 지신굿은 모두 다섯 개의 원을 만든다.

6. 팔진치기굿
상쇠를 선두로 덕석말이처럼 작은 원을 만들었다가 다시 푼다.

7. 진놀이굿
상쇠의 신호에 따라 두 줄치기로 11자를 만든다.

8. 고사리꺾기굿

상쇠의 신호에 따라 부쇠, 중쇠가 같은 줄에 있는 치배들을 악기별로 원으로 감아 차례로 돌아 나온다.

9. 영산다드래기굿

신령에게 비는 가장 빠른 쇠 장단으로 구성된 놀이굿이다.

10. 호호굿

호호가락에 맞춰 전원이 원형으로 돌며 '호호'를 제창하면서 쉬어가는 굿이다.

11. 풍년농사기원굿, 개인놀이굿

풍년을 기원하면서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벼베기, 벼타작, 볏짚모으기 등 농사 과정을 나타내는 놀이굿이다. 개인놀이굿은 'ㄷ'자 대형에서 각자의 기량을 나타내는 개인 장기자랑 펼친다.

12. 마침굿

마침으로 모든 연행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양덕중학교의 함안화천농악은 화천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마을 농악의 형태를 그대로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갖춘 농악을 양덕중학교 풍물패 두드림에서 전승하고 있다.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과 동아리 캠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전승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 강원도 / 건금마을 용물달기 / 율곡중학교, 솔올중학교, 문성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전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건금마을 용물달기’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임경당에서 전승해오던 정월민속놀이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용물달기는 '용이 물을 달고 온다'는 뜻으로, 정월대보름 새벽에 임경당의 일꾼들이 짚을 꼬아 용을 만들어 끌고 이웃에 있는 샘터 세 곳으로 가서 샘물을 떠 임경당 뒤꼍에 있는 용천수에 붓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용천수에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정월대보름날 민가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우물의 물줄기가 부족하면 물줄기가 풍부한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우물에 갖다 붓는 풍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물줄기가 풍부해진다고 믿는다. 강원도 민속지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용물달기를 했다고 해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금마을 용물달기는 용 만들기, 용천제, 우물 훔치기, 용물달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월대보름 전날 밤, 임경당 행랑에 모여 짚으로 용을 만들기 시작한다. 먼저 짚을 깨끗하게 추슬러서 가는 새끼를 꼬고, 용의 몸체는 굵은 새끼를 꼬고, 몸체를 새끼로 감는다. 먼저 용의 머리를 만들고, 양 귀를 세운 후 앞발을 만든다. 전체 길이가 2m 정도에 다다른다. 동네 아낙네는 용물을 나르기 위한 물지게와 동이 고지바가지 등을 준비한다.

- 용을 만들고 나고 자정이 되면, 임경당 주인은 용천수 우물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용출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모인 마을 주민 모두 음복을 한다. 이후 용물달기를 하기 위해 샘으로 간다. 용잡이가 용을 끌고 나가면 마을 사람들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따라간다.

- 샘터 세 군데에 가서 샘물을 떠 오는데, 그 중 한 곳이 임경당에서 약 200m 떨어진 명주산성 밑에 있는 항상골 샘이다. 항상골 샘물은 큰 바위틈에서 흘러내리는 매우 깨끗한 샘물이다. 샘에 도착하면 용을 샘물에 담근다. 용이 물에 완전히 젖을 때까지 담갔다가 꺼낸다. 샘물이 맑아지면 마을 사람들은 가지고 간 물건에 물을 담는다. 물에 젖은 용을 용잡이가 끌고 가고, 동네 사람들은 바가지로 물을 뿌리며 “용아, 용아, 물달아라” 소리지르며 뒤따라간다. 이때 바가지나 구박 물동이에 물을 담고 오는 이들은 “오냐?” 하고 물으면 “온다” 대답하고, “오냐니까?” 물으면 “온다니깐” 대답하면서 물을 조금씩 떨구며 따라간다.

- 이렇게 용물달기 소리를 내며, 임경당 대문을 지나 용천수에 용을 담그고 물을 부은 다음에 또 다른 샘물로 가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경연작 ‘건금마을 용물달기’는 오래된 전통을 잘 전승하면서 공연화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정월대보름에 행해진 세시풍속의 과정이 잘 드러났고, 용을 만들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용을 들고 가서 용물을 달아오는 과정을 잘 표현했다.





● 전라남도 / 다시들노래 / 나주다시중학교

종목 민요
수상 전주시장(장려상)
상금 2,000

'다시들노래'는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 유역의 드넓은 나주평야에 위치한 다시면에 전승되는 들노래로 구성한 작품이다. 나주다시중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다시들노래 전승학교로 지정되어, 매년 학생들에게 다시들노래의 중요성과 지역민의 삶이 깃들여진 노래를 체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시들노래는 모찌기노래, 모심기노래, 논매기노래, 장원질노래로 구성된다. 가창 형태 중 특히 <돌들타령>과 <뜰모리>에서는 일꾼들이 두 패로 나뉘는데, 한 패가 먼저 설소리를 하면 다른 패가 뒷소리를 받고, 다음 노래의 설소리를 연이어 노래하는 교환창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가창 형태는 다시들노래의 특징 중 하나다.

1. 모찌기

<모찌는소리-사뒤여소리>

(받는소리) 오헤라 사뒤여
(메기는소리) 오헤라 사뒤여
첫 새벽에 일어나서
이 모를 무어가지고
논마다 시집을 보내세
흥청 흥청에 무어나 보세
어떤 사람은 잘도나 무고
어떤 사람은 못도나 무네

<자진모찌는소리-자진사뒤여소리>

(받는소리) 오헤라 사뒤여
(메기는소리) 오헤라 사뒤여
잘도 무네 잘도나 무네
우리 농군들 잘도나 무네
다 되었네 다 되었네
이 모판이 다되었네

2. 아침식사

3. 모심기

(받는소리) 헤 헤에에 에루 사뒤여
(메기는소리) 헤 헤에에 에루 사뒤여
어울러보세 어울러보세
상사소리를 어울러보세
이 농사 지어서 무엇허리
나라 봉양을 허여를 보세
그러고 남은놈 무 무엇허리
선영 봉친을 어여를 보세
헤 헤에에 에루 사하뒤여

다되어 간다네 다되어 가네
서말 배미가 다되어 가네
여기도 꼽고 저기도 꼽고
너도 숭그고 나도 숭그면
금년 농사가 대풍년이요

4. 초벌 김매기

<긴소리>

나주 영산 배이여 이
나주 영산포 돈애기 새암에 상추씻는 저 큰애기들아
오 그렇제
응아 아아 이히여 히이
이여어 허여도 상추를 씻걸랑은 잎만 잡아 활활 씻쳐주소
아리 씨구나 오호 에 헤 헤히 허히 헤에야 아 마뒤요

5. 두벌매기-절싸소리

(받는소리) 어얼싸 절씨구나
(메기는소리) 어얼싸 절씨구나
절싸 소리는 어디를 갔다
철만 찾아서 돌아를 오네
꽃은 피어서 청산이 되고
잎은 피어서 청산이 되네
다되어 가네 다되어 가네
절싸소리가 다되어 가네

6. 세벌매기

<덜래기소리>

(받는소리) 오호 호호 헤에헤 헤야 더 덜래기야
(메기는소리) 오호 호호 헤에헤 헤야 더 덜래기야
어울러 보세 어울러 보세
덜래기 소리를 어울러보세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자진덜래기소리>

(받는소리) 허야 허야 더덜래기야
(메기는소리) 흥이 났네 흐 흥이 났네
우리 농군들 흐흥이 났네
날오란다네 날오란다네
산골 처녀가 날오란다네
무엇을 허자고 날 오란당가
정자미 화조밥 세화전 놓고
혼자서 먹기가 심심타고서
둘이 먹자고 날 오란다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7. 돈들타령

돈실러 가세 돈실러가세 영광에 법성어에라 돈실러가
헤에에이에라 돈결인가 소식이 좋아 에라 돈결이라
골골이 삼천석 실어를 갖고 영광에 법성어에라 돈실러가
에에이이이에라 돈결인가 소식이 좋아 어어어에라 돈결인가

8. 뜰모리

저건너 갈미봉이 몰아오네
어리사
우장 삿갓을 허리에 매고
저리사
논에 엎져서 지심 지심매고
무슨 소린줄 내에에가 몰라
어리사 저리사 하하 저리사

마파람 불고서 비 오오올줄을 알면
어리사
어떤 부인이 빨래를 갈게
저리사
어떤 부인이 빨래 허어어 허 갈게
무슨 소린줄 내에에가 몰라
어리사 저리사 하하 저리사

9. 풍장소리

(받는소리) 에롱 데롱 지화자 좋네
(메기는소리) 에롱 데롱 지화자 좋네
풍년새 운다네 풍년새 울어
금년 년도에 풍년새 울어
소를 타고서 말도나 타고
여보소 대문을 열어라
노적봉을 짊어나 지고
요리 저리나 길을 비켜라
수만석을 걷어나 가지고
우리나 마당에다 놓아나 보니
이런 풍년이 어데가 있소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자 좋다

나주들노래는 국가무형문화재 남도들노래에 속했을 만큼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 전승이 끊어져 이름조차 잊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주다시중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옛 농요들을 익혀 전수했을뿐 아니라 상당한 난이도의 노래들을 빠짐없이 노래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다시들노래는 이번 대회에서 전주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민속
예술축제



● 부산광역시 / 수영농청놀이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수영농청놀이'는 부산광역시 수영[水營] 지역에 전승되는 농촌 자치조직의 공동작업 과정과 생활을 표현한 작품이다. 농청[農廳]이란 농사철에 서로 도와 일을 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임을 가리키며,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두레에서 나온 풍속이다. 수영농청놀이는 특히 논농사 작업을 반영한 것으로, 농민의 생활상을 잘 담고 있다. 수영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바다와 면한 수영성 동문 밖의 주민들은 어업과 염업에, 남북문 밖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했다. 동시에 넓은 농경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청이 일찍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영농청놀이는 한 해 논농사 과정을 중심적으로 보여준다. 풀베기소리, 가래소리,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 타작소리 등의 농요를 중심으로 보리타작과 소싸움까지 가미되어 있다.

1. 가래소리

어허 가래야
이 가래로 어허 가래야
물을 모으자 어허 가래야
시내거렁에 어허 가래야
보를 막고 어허 가래야
봇도랑치고 어허 가래야
논둑을 모으고 어허 가래야
이논에다 어허 가래야
물을 넣으면 어허 가래야
금년 농사는 어허 가래야
대풍년진다 어허 가래야

2. 모찌기소리

일월이 돋아와도 이실갤줄 모르더라
맹홧대를 꺽어들고 이실털로 가자시라
한강에다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캐갈아 목캐따기 난감하네
바다겉은 이못자리 장구판만 남았구나
장구야판은 좋다만은 장구떨니 누있던고
밀치라 닥치라 모두잡아 훌치소
영해영천 초목에 호미손만 놀리소

3. 모심기소리

이논에다 모를숨거 금실금실 영화로세
우리야부모 산소등에 솔을숨거 영화로세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슴참이 늦어오네
미나리야시금초를 맛본다고 더디오네
사래지고 장찬밭에 목캐따는 저처녀야
목캐꽃 지색인데 처자얼굴 철색지네

4. 도리깨타작소리

어화

때려라	어화
보리보고	어화
이삭이	어화
안붙거로	어화
야무치기	어화
이삭을보고	어화
때려라	어화

5. 논매기소리

에~헤~아~아~

양운 폭포 이른구름	에~헤~아~아~
해를모아 돌아드니	에~헤~아~아~
온정리는 명승지요	에~헤~아~아~
가인재사 놀던데요	에~헤~아~아~
해운대 동백섬은	에~헤~아~아~
고운선생 놀던데요	에~헤~아~아~

부산광역시 수영농청놀이는 논농사의 과정과 농요가 중심이 되면서 보리타작과 소싸움까지 포함해 구성된 경연작이다. 공동작업 과정과 농사노동요가 연희에서 핵심으로 드러난다. 농청이라는 농촌 자치 조직의 공동 노동 장면을 재현했다는 점에도 가치가 있다. 음악이 어우러진 지역 민속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전라북도 /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 김제시청소년농악단(덕암정보고등학교)

종목 민요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덕암정보고등학교의 김만경 외애밋들노래는 제22회 대회에 연이어 출전했다.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는 집터잡는노래, 달구질노래, 집들이노래, 액맥이노래, 논꾸미는노래, 모심는노래, 지심매는노래, 만두리(마지막 김매기)노래, 만경산 타령, 벼베는노래, 등짐노래, 타조(타작)노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가사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2. 논 꾸미는 노래

<논꾸미는소리>

(받는소리) 어허라 어허어야
(메기는소리) 어허라 어허어야
가노라 간다 내 돌아 간다
임을 따라 내 돌아 간다
이해 저해 다 보내고
우리 농군들 욕들보네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장구 배미로 건너가세
여기 저기 골골배미
우리 같이 모를 심세

3. 모 심는 노래

<상사소리>

(받는소리) 여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뒤여
(메기는소리)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어화 농부들 말들어보아
여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뒤여
이마 우에 흐르는 땀은 방울 방울 열매맺고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구나 김만경 들판에 풍년이 왔네

<자진상사소리>

(받는소리) 여화 여루 상사디야
(메기는소리) 여화 여루 상사디야
여보소 농부들 말듣소 어화 농부들 말들어
나렸다네 나렸다네 전라 어사가 나렸다네
떠들어 온다 떠들어온다 떠들어 온다 점심밥이 떠들어온다

4. 지심매는노래

<초벌매는소리>

나하하 헤 헤에헤에 헤에헤에 노리 헤헤 어 어디가 산아지로구나 에헤에
바람불고 비오는 줄을 알면은 어느 누가 빨래질을 갈까 에헤에

나하 아헤 헤헤에에헤헤에헤에 놀이 헤 헤 거 거뉘가 산아지로 구나 에 헤에

5. 만두리노래

<만경산타령>

(받는소리) 에야 뒤야 에에헤에야 에야 뒤여 상사디로 구나
(메기는소리) 욕들보네 욕들보아 우리 농군들 욕들보네
말은 가자고 네 굽을 치는디 님은 잡고 낙루만 허네

(받는소리) 어 어루화 사리여
(메기는소리) 징장사는 운봉덕
나팔 장사는 고창덕
바작장사는 00덕
이엉차 소리가 가깝구나
이엉차~

6. 장원질

(받는소리) 어허이 둔대 어허이 둔대
(메기는소리) 어허이 둔대가 둔대로세
가세 가세 어서들 가세 주인네 집으로 가 술들 먹세
여봐라 춘향아 내말을 들어 비개 높거든 내 팔을 비어라

7. 등짐노래

추수한 벼를 짊어지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농요를 한다.
(받는소리) 아허 어허어 야 어허기야
(메기는소리) 가네 가네 나는 간다 저를 짊어지고 나는 간다
하늘같은 내 딸이로 실같은 흙위에다 태산같이 짊어지고 나는 간다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주인이 닭을 잡고 기다리니 어서 가세

8. 방아찧는소리

벼를 타작하고 홀태로 치면서 방아를 찧고 농요를 부른다.

9. 마무리

덕암정보고등학교에서는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를 매년 지역 축제인 '지평선축제' 때 규모를 축소해 시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규모를 키워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장상인 신명상을 수상했다.





제2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7.09.21~09.22, 경상남도 김해시 수릉원)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민속의 의미를 되살리는 축제의 장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제2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경상남도 김해시 수릉원에서 열렸다. 민속놀이, 민요, 농악 가면극, 춤 의례 등 민속 일반이 전개되었으며, 모두 14개 팀이 참가했다.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인천광역시 문학정보고등학교의 '범패와 작법무 현충재', 경상북도 오상고등학교의 '무을농악',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고등학교의 '부산농악', 경상남도 남양중학교의 '진주삼천포12차농악', 전라북도 덕암정보고등학교의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강원도 영서고등학교의 '논매기와 두레싸움', 제주도 한림고등학교의 '메구월일석 춘경걸궁', 충청남도 응암중학교의 '서산 박첨지놀이' 등이다.

2. 참가 종목

● 경상북도 / 무을농악 / 오상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무을농악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에 전해오는 경북 내륙 지방의 전형적인 풍물굿이다. 무을농악의 발원지는 구미 북서쪽에 있는 수다사[水多寺]다. 약 300년 역사와 함께 근세 상쇠의 계보가 뚜렷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물로 손꼽힌다. 구미시 무을면은 농촌임에도, 무을농악은 농사굿이 아닌 군사굿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무을농악은 군악의 영향을 받아 악의 흐름이 빠르고 경쾌하며, 매우 역동적이다. 또한 대형이 다양하고 각각 개성이 있어 다른 농악에서는 볼 수 없는 신명을 북돋운다. 가락의 변화가 많고, 진을 맺고 풀어나가는 모습이 변화무쌍한 것도 무을농악의 특징이다. 특히 북가락이 웅장하고 장쾌하며, 소고놀음이 아주 발달해,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술적 아름다움을 저절로 느끼게 한다.

인원을 쇠 4명, 징 4명, 북 8명, 장구 8명, 소고 12~16명, 잡색 3명(포수, 각시, 양반), 기수 4명(농기 1, 단기 1, 영기 2)으로 편성하며, 질굿, 반죽굿, 엎어배기, 품앗이, 수박치기, 영풍굿, 기러기굿, 판굿, 챗굿, 진굿, 지신굿 순으로 총 열 두 마당을 연행한다.

무을농악보존회는 무을농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전형적인 전투 농악으로, 북가락이 웅장하고 장쾌하며, 소고놀음이 발달해있다.
- 우수한 예술성을 갖추고 있고, 연행 과정이 힘차고 박진감이 넘치며, 행위가 다양해 영남 풍물

의 진수다.
- 고깔은 크고 작은 연꽃과 범나비로 장식되어 웅장하고 화려하며 재미있다.
- 전승 계보가 뚜렷한 풍물의 조형이다.

오상고등학교는 1997년 무을농악 전수학교로 지정된 이래 지속해서 무을농악을 전승해 경북 지역 고등농악의 강호팀으로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오상고 풍물패 "다사리"는 '사랑하다'라는 뜻의 'ᄃᆞᆺ다'와 '사람'이란 뜻인 '이'가 합성된 말이다. 다사리는 현재 지도교사와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꾸준한 무을농악 전수 활동을 통해 농악을 전공 삼아 대학으로 진로를 찾아가는 졸업생들이 다수 있다.

오상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무을농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마당 '질굿(인사굿)'
행진 가락으로 쇠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입장한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관객과 구경꾼에게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오니 잘 보시고 박수 많이 쳐달라" 하며 인사한다. 입장할 때는 태극 모양을 그리면서 입장한다.

둘째마당 '정적굿'
원을 돌면서 쇠소리에 따라 각기 놀이에 들어가는데, 상쇠와 종쇠는 서로 이동하며 풍물꾼들을 놀린다. 적과 싸움을 하는 놀이로, 적을 원형 안에 포위하고,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적을 무찌르는 행위다.

셋째마당 '마당닦기(반죽굿)'
적과 싸움을 하는 놀이로, 적을 원형 안에 포위하고,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하면서 적을 무찌르는 행위다. 전원이 원을 그리며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쇠는 한가운데로 들어가 신호를 한다. 풍물꾼들은 원을 만들고 서로 톱니가 맞물리듯이 갈지자로 한가운데에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한다.

넷째마당 '엎어배기(도르래기)'
전쟁 중에 적의 화살과 돌을 피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놀이다. 상쇠가 가락을 치면 풍물꾼들은 대형 밖과 안쪽으로 크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원형을 돈다.

다섯째마당 '판안드래기(소리굿)'
두 원진을 만들면, 정저굿을 한다. 소고는 신호를 듣고 연풍대 6회, 앉을상 2회, 반자반 2회, 두루걸이 4회를 하고, 도드래기와 이채로 넘어간다. 이때 안쪽의 치배는 동작을 바꾸지 않고 가락만 바꾼다.

여섯째마당 '기러기굿'
양손을 어깨 위치로 펴서 들고, 기러기처럼 두 팔과 다리를 벌려 옆걸음으로 뛰면서 돌다가,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두 명씩 방향 전환을 한다. 청색과 노란색의 복색을 양손으로 나눠 잡고 높게 뛴다.

일곱째마당 '품앗이이돌기(원진)'
엎어빼기가 끝나면 전 풍물꾼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놀고, 원형 중앙에서 쇠가 가락을 서로 주고 받는다. 원을 그리며 돌다가 가락이 바뀌면, 돌던 반대 방향으로 원점을 향해 옆으로 서서 돈다. 다시 가락이 바뀌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전 풍물꾼이 각기 연주하면서 춤을 춘다.

여덟째마당 '쌍둥이굿'
자진모리로 원을 돌다가 쇠가 신호를 하면, 상쇠를 기준으로 홀수, 짝수로 둘씩 나누고, 둘씩 짝을 지어 원을 만든다. 앞 사람은 원 안으로 돌고, 뒷사람은 원 밖으로 돌면서 원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홉째마당 '오방진'
동·서·남·북으로 진을 만들고, 상쇠는 중앙에서 신호를 한다. 원을 만들어 진을 만들고 포위해 적을 섬멸하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

열째마당 '판굿'
각 대원이 개인놀이를 하며 서로의 기량을 자랑한다. 여기서는 소고놀이, 북놀이 등을 한다.

열한째마당 '판굿(소고놀이)'
소고꾼들이 가운데로 들어가 시계반대방향으로 두루걸이와 엎어배기를 하고, 자반뛰기 등을 한 후 가락이채가락에 맞춰 사사를 빠르게 친다. 가락이 점점 빨라져 난타로 바뀌면 수벅구부터 일사를 치며 차례대로 앉는다. 가락을 끊어주면 일사를 멈춘 뒤 잠시 기다렸다가, 신호가락을 듣자마자 발로 소고를 한번 찬 뒤 외상을 치며, 한 줄이 만들어지면 그 상태에서 각도만 조절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다.

열두째마당 '판굿(대북놀이)'
2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쇠가 한가운데에 나와 대북꾼을 한가운데로 이끌어 원을 만들게 하고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엎어배기를 한 다음, 원을 풀고 서로 마주 보며 짝을 지어 왔다 갔다 한 다음, 다드래기로 가락이 나오면 쇠와 징은 그치고 대북과 장구만 울린다. 상쇠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대북도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

열셋째마당 '11자진'
11자 상태에서 쇠의 가락이 바뀌고, 소고는 가락에 따라 여러 번 앉았다 섰다 한다. 이때 쇠가 치면 북과 장구만 신나게 연주한다. 쇠는 서로 짝을 지어 쇠를 놓고 손뼉을 치거나 귀를 잡기도 하고, 무릎을 치거나 삼색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묘기를 부린다. 소고의 수박치기가 끝나면 다시 처음의 가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상쇠가 난타를 치며 중간에서 원을 그리며 연풍대를 하다, 상쇠는 소고 쪽으로 달려와 악기 쪽에 있는 부쇠와 마주 보고 선다. 상쇠가 가락을 맺으면, 적진을 향해 돌격할 준비 동작을 한다. 접진은 전투에서 아군과 적군이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을 나타낸다. 쇠의 신호에 따라 미지기를 한 후 난타를 치면서 전 대원 모두 인사한다.

열넷째마당 '진풀이(멍석말이)'
상쇠와 종쇠가 원형대열에 들어가고, 농기를 중심으로 진을 말았다가 풀고 나오며 8자형으로 영기를 중심으로 말았다가 푼다. 또한 양쪽으로 진을 쌓아 "휘이" 하고 신호를 보내면, 반대진에서도 화답한 후 진을 푼다. 다른 형태로는 풍물꾼을 2열로 도열해 앉힌 후, 상쇠가 풍물꾼을 돌며 감아서 홑진, 겹진을 쌓는다.

오상고등학교는 경상북도 무을농악을 20년 동안 전승하면서 무을농악의 정수를 이어가고 있다. 구미지역 농악의 전통과 지역의 문화적 독자성을 꾸준히 전승하기 위해 이어온 노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제 무을농악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지역 문화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그 전통적인 면모를 오상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승하고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 충청남도 / 서산 박첨지놀이 / 음암중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고양동에 전승되는 '서산 박첨지놀이'는 주인공 박첨지를 통해 양반 사회의 모순을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마을 단위 민속 인형극이다. 서산은 이른 시기부터 남사당패의 영향을 적이 받은 지역으로, 고[故] 주연산이 남사당패 유영춘으로부터 서산 박첨지놀이를 사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3마당 4거리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경연에서는 박첨지마당, 박첨지 유람거리, 평양감사마당, 매사냥거리, 절 짓는 마당, 소경 눈뜨는 거리로 구성되었다.

첫째마당 '박첨지'
박 첨지가 마누라를 집에 남겨 두고 홀로 전국 팔도강산을 유람하다가, 작은마누라를 얻어 마침내 집에 돌아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큰마누라와 작은마누라의 갈등 과정이 전개되고, 박첨지는 자신의 재산을 불공평하게 분배해 더욱 갈등을 야기한다. 새로 얻은 마누라에게 재산을 더 많이 안겨주면서 상황이 더 심각하게 치닫는데, 이를 통해 과거 봉건적 가부장제의 병폐를 꼬집는다.

둘째마당 '평양감사'
평양감사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직 사냥에만 몰두하다 꿩고기를 잘못 먹고 죽는 장면이다. 당시 만연해 있던 부패한 권력의 행태를 놀이를 통해 비꼬아 관람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셋째마당 '절짓기'
공중사라는 절을 짓고, 맹인을 비롯한 불우한 처지에 놓인 민중들이 서로를 감싸 안고 모든 중생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이는 극의 마무리 부분으로, 첫째와 둘째 마당에서 전개된 갈등을 해소하고 관람객들의 애환을 녹여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산 박첨지놀이는 유영춘-주연산-김동익으로 계보가 이어진다. 주연산은 남사당패 출신으로 알려진 유영춘에게 3년 동안 인형 제작과 놀이 방법, 재담 등을 배우고 익혔다. 이후 고향인 탑곡4리로 돌아와 마을 젊은이들과 함께 주로 명절 때 인형극을 연행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서산 박첨지놀이 인형은 과거에는 주연산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주로 바가지나 수수깡을 이용해 인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다. 나무는 오동나무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나, 예전에는 수종을 가리지 않았다. 공연을 하고 나면 이를 보관할 회관이 없어 상엿집 궤짝에 인형과 갖가지 소품을 담아 모두 불태우는 게 관례였다.

또한 놀이에 등장하는 상여도 만들어서 태웠는데, 상여는 수수깡으로 간단하게 만들었고, 상제 인형에는 어린 아이나 여자가 집에서 입던 낡은 옷감을 꿰매서 입혔다. 지금처럼 반영구적인 인형이 제작된 것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의 일이다. 인형극이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 공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인형도 정성 들여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인형과 소품은 김동익이 총지휘를 하고, 목수 일은 이남식이 맡는다고 한다.

주요 인물인 박첨지와 박동생, 큰마누라, 작은마누라, 명노, 스님은 탈과 유사하게 가면을 쓰고 옷을 입혔다. 먼저 박첨지는 짙은 밤색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한 것이 인자한 양반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옷은 소복을 입었다. 박동생은 소복을 걸친 것은 같으나, 박첨지에 비해 턱수염이 훨씬 적고 인상은 고약한 표정이다.

큰마누라는 온통 곰보로 뒤덮인 얼굴에 주홍색 옷을 입었으며, 작은마누라는 각시탈처럼 이마와 양쪽 볼에 연지곤지를 찍고 연분홍색 옷을 걸쳤다. 그런가 하면 박첨지의 처남 명노는 큰마누라와 혈연임을 나타내려는 듯 얼굴이 곰보며, 스님은 머리에 고깔을 쓰고 남색 가사를 걸쳤다. 또한 허리춤에 붉은 방망이를 찬 홍동지는 얼굴과 몸을 온통 붉은색 물감으로 채색했고, 목마를 탄 평안감사는 말을 타고 도임하는 관찰사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 밖에 상제는 굴건제복을 입었고, 상여와 상여꾼들, 그리고 만장 행렬은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남사당패의 연희극이었던 박첨지놀이가 서산에 정착하게 되는데, 마을에서 따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행을 했던 토박이 광대패의 생활에 따라 인형 또한 다소 투박하고 소박하게 인형 또한 제작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청소년들의 놀이로 경연에 출품된 점이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전승이 단절되지 않고 아랫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연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 광산농악 / 대촌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경남도지사(은상)
상금 4,000

'광산농악'은 마륵동의 판굿농악을 중심으로 광산구 지역에서 연주되는 다양한 농악을 정리한 농악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영산강 상류인 황룡강과 극락강을 끼고 있는 넓고 비옥한 서석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예로부터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업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광산농악은 예로부터 마륵동의 판굿농악을 중심으로 칠석동의 '고싸움놀이', 소촌동의 '당산농악', 신월동의 '풍장농악', 옥동(평동)과 유계동(동곡)의 '걸립농악' 등 광산구 지역에서 연주되는 다양한 농악을 집대성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농촌의 도시화를 거치면서 그 맥이 거의 끊어질 뻔했다. 그러나 1988년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농악대회에 출전했다. 이에 마륵동 노인들의 증언과 지속적인 고증 작업을 통해 광산농악의 상쇠인 정득채, 설장고 김종회(김회), 설북 서창순(서대석) 등 3명을 광주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하면서 그 기예를 전승토록 했다. 현재 '꽹과리' 전수조교 김양균, 이수자, 김이권, 이정석, 이우정, 한승철, 이명훈, '장구' 이수자, 김용철, 김용석, '설북' 이수자 진준한 등이 계승하고 있으며, 해마다 문화재 발표회와 활발한 전수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산농악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가락이 항상 한 쌍으로 묶여 연주되는 음양법을 특징으로 삼는다. 농악의 구성은 문굿, 당산굿, 샘굿, 철용굿에 이어 집집이 방문해 연주하는 마당밟기, 마당굿, 풀이, 액맥이, 중천맥이, 부엌굿(정제굿), 철용굿(장독대굿, 장꽝굿)까지 전 과정을 연주하고, 저녁에는 판굿을 하는 호남우도농악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광산농악을 전승하는 광주 대촌중학교 농악패는 2002년 농악반이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왕성하게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촌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광산농악은 판굿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마당 '질굿'
내드름굿 일·이·삼채가락을 마친 후 일채로 입장해, 오채질굿, 된오채질굿, 갖은일채, 벙어리삼채, 벙어리일채, 삼채, 매도지를 친다. 삼채로 가락을 내어 전치배가 11자진을 만들어 마주 보며 밀고 당기며 놀음한다. 11자진에서 반삼채로 넘어가 전치배가 뒷걸음질하며 시계방향으로 원진을 만들면서 옆게 걸음으로 고조시켜 매도진으로 조여서 마무리한다.

둘째마당 '오방진'
오방진의 오방은 방향을 나타내는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 진을 치는 것을 형상화해 덕석몰기로 진을 쌓아 연주한다. 이는 오방진가락을 내고 진오방진으로 동·서·남·북·중앙 다섯 곳에 각각 덕석몰이를 하는 것이다. 이번 작품에는 시간관계상 3방만 덕석몰이를 하다 마지막 한가운데서는 오방진을 친 다음 가락을 털면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셋째마당 '호허굿'
열두마치(12채), 호허굿, 자진호허굿을 치며 좌·우·진·퇴(좌우치기, 연봉치기)를 한 뒤, 지심매기, 지신밟기, 콩등지기, 용틀임을 한다. 된벙어리삼채 덕석말이 상태에서 상쇠가 덕담하며 열두마치를 치

고, 호허굿으로 덕석을 풀며 시계반대방향으로 원진하다가 자진호허굿으로 넘기며 연봉치기, 콩심기, 김매기를 한다. 어름굿을 치면 두 사람씩 등을 맞대고 앉는 콩동지기를 한다. 어름굿을 친 후에 치배들이 원래 자리에서 안쪽을 보고 쪼그려 앉고, 상쇠가 콩꺽자가락을 내면 모든 치배들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가락을 친다. 이어서 상쇠가 지나가면 일어서서 뒤를 따라가는 용틀임진법을 한다.

넷째마당 '구정놀음'

치배들의 개인 기량을 한껏 보여주는 마무리 마당으로,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열두발상모, 잡색놀이 등을 한다.

대촌중학교 광산농악팀은 10년 이상 광산농악의 맥을 이어와 지역 농악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대촌중학교는 광산농악뿐만 아니라 고싸움놀이 체험 활동을 통해 민속놀이 축제에 참가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발전해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대촌중학교의 사례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지역 문화를 지켜나갈 학생들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전광역시 / 웃다리농악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경남도지사(은상)
상금 4,000

대전광역시에 전승되고 있는 웃다리농악은 충청도 웃다리풍물의 대표격이다. 대전지역은 일찍이 농악이 발달하면서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성행했다고 한다. 대전 웃다리농악의 실상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왔으며, 한밭(대전)에서는 각 마을의 두레패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고증에 따르면 1550년대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심복마을에서 액을 막아내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열렸다. 1700년대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물굿과 기원제가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19세기부터 최근까지 웃다리풍물은 고인이 된 송순갑, 이원보, 최성구, 양도일 등의 주도로 전승되었다.

웃다리농악은 꽹과리가락이 섬세하고 경쾌하며, 긴장·이완의 원리, 음·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웃다리농악의 판굿은 경쾌하고 흥청거리는 가락에 맞춘 진풀이도 생동감이 넘치고 화려하다. 판제 중 가장 고전적인 것은 '당산벌림', 칠채가락에 의한 '멍석말이', '무등타기' 등이며, 이외에도 가락과 놀이 대형에 따라 소쩍새의 울음소리나 아낙들의 빨래 다듬이질소리 등을 가락으로 흉내내는 '짝쇠장단'(이채). 농부들의 논매기 장단 '쩍쩍이', 장단강강술래의 고사리 꺾는 장면과 통하는 '고사리꺾기', '절굿대놀이', '도둑잽이굿', '사통백이', '원좌우치기'(학생들이 열중쉬어, 차렷하는 훈련에서 착안해 해방 후에 좌우지치 진법이 나왔다고 함), '네줄좌우치기' 등이 있다. 특히 '오방진'에서는 '칠채가락'을 치는데, 이는 하늘의 28수를 뜻해 28채라고도 한다. 판제 중 가장 고전적인 것은 '당산벌림', 칠채가락에 의한 '멍석말이', '무등타기' 등이 있다. 현재 대전 웃다리농악에는 다른 지역의 판제 가운데 독보적인 것들을 창의적으로 수용한 것들도 있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대전 웃다리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인사굿
판굿을 하기 위해 일렬로 나가기 직전 한군데 모인다. 북이 점고를 친 다음 징수가 징을 느리고 크게 세 번을 치고, 다스림가락과 이채가락을 친 후 맺는다.

2. 돌림벅구
인사를 한 뒤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상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든다. 이채가락을 치면서 벅구는 바깥 원에서 외상이나 양상을 치고 자반뒤집기를 한다.

3. 당산벌림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을 풀어 'ㄷ'자 대형을 갖추고, 무동이 없을 때는 '11'자 대형으로 한다. 그리고 상쇠는 연타채를 치면서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쪽으로 가서 내주는 가락을 네 박 친다. 다음으로 벅구 전원이 앞으로 여섯 걸음 걸어간 다음 제자리에서 두 박자에 이어 이채가락을 치면 벅구는 양상을 돌리고 솟음벅구를 한다. 삼채가락에 따라 벅구는 '乙'자 방향으로 이동하며, 잽이와 두 줄로 마주 보면서 된삼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빠른 사사와 일사를 하고, 연타를 치면 번개상으로 맺는다.

4. 칠채오방진
전 대원은 칠채가락을 치면서 중앙진을 만든다. 중앙진에서 상쇠의 된삼채장단에 이어 이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벅구들은 음상, 외상 등으로 돌리다가 자반 뒤집기를 한다. 중앙진을 풀어 나올 때는 짝쇠

가락을 치며, 날당산벌림 대형을 만든다.

5. 절굿대놀이(쌍줄백이, 외줄백이)
상쇠가 연타채를 치면서 돌사위로 맺고, 외줄백이 대형을 만들기 위해 잽이의 한가운데를 향해 이동할 때 상쇠는 쇠채발림을 한다. 외줄백이 대형이 만들어지면 삼채가락을 치면서 벅구 전체가 부쇠방향 쪽으로 'ㄷ'자를 그리면서 잽이를 향해 쌍 줄을 만들어 들어와, 수벅구 쪽부터 앉고 서고를 반복한다. 다시 삼채가락을 치면서 수벅구 줄은 부쇠 방향으로, 부벅구 줄은 끝북 방향으로 돌아 쌍줄백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 나간 다음 외줄로 나간다.

6. 십자걸이
잽이들은 삼채가락을 치면서 당산 대형을 풀어 반원을 그리고, 정면을 향해 일렬로 대형을 만들며, 벅구 전체는 잽이의 한가운데를 교차하면서, 십자 대형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서 이채가락으로 맺는다.

7. 사통백이
삼채가락을 치면서 십자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십자 대형이 동·서·남·북 4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방향으로 태극선을 따라 돌며 원을 그린다.

8. 좌우치기(원좌우치기, 네줄좌우치기)
원 상태에서 한가운데를 보면서 이채를 친 다음, 상쇠의 머리가락을 듣고 좌우치기를 한다. 연타채를 치면서 큰 원에서 네 줄을 만들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네 줄이 동시에 한 줄을 만들면서 큰 원을 그린다.

9. 쩍쩍이
큰 원 상태에서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다가 삼채를 맺고, 쩍쩍이가락을 약 3~4회 정도 친다. 상쇠의 신호를 듣고 쩍쩍이가락을 맺는다.

10. 풍년굿
굿거리가락에 맞춰 춤을 추다가 굿거리를 맺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상쇠의 연타채가락의 신호로 한가운데를 보면서 앉는다.

11. 개인놀이
무동놀이, 쇠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살판, 12발(긴채상)놀이를 진행한다.

12. 외돌림벅구
일명 '덧배기놀이가락'이라 한다. 덩더궁이(자진모리) 장단과 어깨춤이 발달했다.

13. 퇴장
채가락을 치며 멍석말이를 풀어 나오면서 퇴장을 한 다음, 이채가락을 빠르게 몰아치며 맺고, 절가락을 치고 서로에게 인사한다.

1979년 유성농고 시절에 농악반이 만들어진 이후 1984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가 다시 웃다리농악을 전승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구암풍물반을 2006년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창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꾸준하게 농악을 전승하면서 특히 대전 지역 웃다리농악 전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성생명과학고는 2009년부터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꾸준히 전국단위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 판굿을 중심으로 전승하고 있으니 전통적인 맥락의 웃다리농악을 찾아 지속해서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전라남도 / 고성 강강술래 / 고성중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부녀자들이 전승하는 민속놀이의 하나로, 고성중학교 학생들이 강강술래를 전수해 경연에 참가한 것이다. '고성 강강술래'는 중강강술래, 진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개골이, 고사리껑자, 덕석몰기와 덕석풀기 등 다양한 여흥놀이로 구성되었다. 고성중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강강술래 중 하나인 중강강술래는 중모리 또는 중중모리장단으로 입장할 때와, 가마타기를 마치고 다시 하나의 큰 원이 되면서 끝내기 인사에 앞서 나타나는 놀이다. 여흥놀이를 제외하고 강강술래 소리에 주목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강강술래

저건네 큰산밑에 강강술래
돔부따는 저큰아가 강강술래
앞돌라라 인물을보자 강강술래
뒷돌라라 태도를보자 강강술래
인물태도는 좋다만은 강강술래
눈주자니 너모르고 강강술래
손치자니 놈이알어 강강술래
우리들이 일허다가 강강술래
해가지면 엇쩔거냐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2. 진강강술래

달아달아 밝은달아 강강술래
이태백이 놀든달아 강강술래
저기저기 저달속에 강강술래
계수나무 박혔으니 강강술래
옥도꾸로 다듬어서 강강술래
금도꾸로 다듬어서 강강술래
초가삼간 집을지어 강강술래
천년만년 살고지고 강강술래

3. 잦은강강술래

뛰어보세 뛰어보세 강강술래
윽신윽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날이좋다고 날마다놀먼 강강술래
달이좋다고 달마다놀까 강강술래
유월유두 칠월백중 강강술래
팔월추석이 다넘어간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술래좋다고 강강돌자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또랑또랑 객사또랑 강강술래
연지복송을 심겠더니 강강술래

뿌리는뻗어 상병이되고　　강강술래
가지는뻗어 이병이되고　　강강술래
가지가지 피는꽃은　　강강술래
기상에잡년에 태도더라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에강에 강애비는　　강강술래
강애책을 품에품고　　강강술래
무안뜰로 장가들어　　강강술래
요지비단 큰이불을　　강강술래
덮풀댓끼 돋아놓고　　강강술래
새빌같은 요강대우　　강강술래
밭에발질 밀어놓고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얼수얼수 얼수얼수　　얼수얼수 얼수얼수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놀이다. 이 놀이는 여성들의 놀이로, 그들의 삶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문화 자산이다. 고성중학교 학생들이 연행한 강강술래의 사설을 살펴보면, 서사민요가 단편적으로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강강술래를 민속놀이로 배우는 동시에 사설을 외우면서 옛 어머니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경상남도 / 진주삼천포12차농악 / 남양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상)
상금 4,000

'진주삼천포농악'은 12차로 진행되는 판굿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 '농악 12차'로 지정되었다가, 다른 지역 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농악이라 할 수 있으며, 경남 진해의 이름난 상쇠였던 박경호로부터 진주의 김한로에게 계승되었다. 현행 진주삼천포농악은 진주농악의 황일백과 삼천포농악의 문백윤, 두 상쇠가 최초로 전한 것으로, 이들은 1966년 나란히 농악 12차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받았다. 이후 이영우가 세 번째 보유자가 되었으며, 현재는 1991년 5월에 보유자가 된 박염(설장고)과 2000년에 보유자가 된 김선옥(상쇠)가 전승하고 있다.

다른 지역 농악과 달리, 농악대원 전원이 전립을 쓰고, 채상이나 부포를 돌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놀이가 발달해있고, 판굿에서는 채상모와 부포놀이가 돋보이며, 군사놀이의 진법과 소고수들의 무예적 몸짓 역시 특색을 이룬다. 군악의 영향을 받아 쇠가락이 빠르고, 소고수(버꾸잽이)의 앉은 버꾸, 자반 뒤집기 등 상모놀음이 발달했으며, 빨리 돌아가는 진법놀이가 많아 매우 활발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특히 구성원 모두 상모를 쓰거나, 모듬굿을 할 때 나발을 부는 특징과 함께 진풀이의 구성요소들이 군악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농악의 기원설 중 '군악설'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손꼽힌다. 가락에는 홑다드래기, 겹다드래기, 삼채다드래기, 영산다드래기, 잔다드래기, 덧뵈기, 판굿길군악, 길군악, 오방진가락, 호호굿가락 등이 있다.

사천시 남양중학교는 1990년도부터 전수반을 두고 진주삼천포농악을 전승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공식 전수학교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유수의 업적을 쌓아오고 있다.

1. 입장 및 인사굿: 경연을 시작하기 위해 입장을 하고, 관객에게 인사한다.
2. 1차 오방진풀이: 원진에서 달팽이진으로 한가운데를 감았다 다시 원진으로 만든다.
3. 2차 얼림굿: 원진에서 쇠만 한가운데로 별도의 진을 만든다.
4. 3차 덧뵈기벅구놀이: 소고수들의 무예적 몸짓인 앉을 사위를 연희한다.
5. 4차 길군악: 군인이 길을 걸을 때 쓰는 음악이란 뜻의 과장으로 원진에서 외돌이 진으로 연희를 한다.
6. 5차 영산다드래기: 외돌이 진에서 다시 원 방향으로 우물놀이까지 진행한다.
7. 6차 멋벅구놀이: 3차 마찬가지로 앉을사위를 연희하며, 소고수의 멋들어진 벅구놀이가 강조되는 마당이다.
8. 7차 등맞이굿: 소고수들이 쇠잽이들을 감고 나오며, 나비춤으로 굿거리배의 멋들어진 춤사위가 일품인 과장이다.
9. 8차 안전벅구놀이: 원형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외치고 다드래기로 흥을 돋우는 마당이다.
10. 9차 호호굿: 점호굿이란 의미로 원진에서 "호호"하고 외치며 진행해 호호굿이라 한다.
11. 10차 개인놀이: 원진에서 ㄷ자형의 진으로 만들어지고, 악기별 개인연희를 뽐낸다.
12. 11,12차 별굿놀이: ㄷ자형 진에서 다시 원진으로 만들고, 사설과 함께 다드래기의 흥겨운 판을 연희한다.
13. 마침굿: 마지막 연희로, 인사후 원중앙에 모여 마침굿을 연희한다.

진주삼천포농악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농악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일찍이 조명을 받은 농악이다. 지역 농악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남양중학교에서 전승 활동을 이어온 것

은 후속 세대의 적극적인 전승 참여를 늘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북도 /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 덕암정보고등학교(김제시청소년농악단)

종목 민요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덕암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김제시 청소년농악단이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를 익혀 대회에 참가했다.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는 집터잡는노래, 달구질노래, 집들이노래, 액맥이노래, 논꾸미는노래, 모심는노래, 지심매는노래, 만두리(마지막 김매기)노래, 만경산타령, 벼베는노래, 등짐노래, 타조(타작)노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가사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장

2. 논꾸미는노래

<논꾸미는소리>

(받는소리) 어허라 어허어야
(메기는소리) 어허라 어허어야
가노라 간다 내 돌아 간다
임을 따라 내 돌아 간다
이해 저해 다 보내고
우리 농군들 욕들보네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장구 배미로 건너가세
여기 저기 골골배미
우리 같이 모를 심세

3. 모심는노래

<상사소리>

(받는소리) 여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뒤여
(메기는소리)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어화 농부들 말들어보아
여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뒤여
이마 우에 흐르는 땀은 방울 방울 열매맺고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구나 김만경 들판에 풍년이 왔네

<자진상사소리>

(받는소리) 여화 여루 상사디야
(메기는소리) 여화 여루 상사디야
여보소 농부들 말듣소 어화 농부들 말들어
나렸다네 나렸다네 전라 어사가 나렸다네
떠들어 온다 떠들어온다 떠들어 온다 점심밥이 떠들어온다

4. 지심매는노래

<초벌매는소리>

나하하 헤 헤에헤에 헤에헤에 노리 헤헤 어 어디가 산아지로구나 에헤에

바람불고 비오는 줄을 알면은 어느 누가 빨래질을 갈까 에헤에
나하 아헤 헤헤에에헤헤에헤에 놀이 헤 헤 거 거뉘가 산아지로 구나 에 헤에

5. 만두리노래

<만경산타령>

(받는소리) 에야 뒤야 에에헤에야 에야 뒤여 상사디로 구나
(메기는소리) 욕들보네 욕들보아 우리 농군들 욕들보네
말은 가자고 네 굽을 치는디 님은 잡고 낙루만 허네

(받는소리) 어 어루화 사리여
(메기는소리) 징장사는 운봉덕
나팔 장사는 고창덕
바작장사는 00덕
이엉차 소리가 가깝구나
이엉차~

6. 장원질

(받는소리) 어허이 둔대 어허이 둔대
(메기는소리) 어허이 둔대가 둔대로세
가세 가세 어서들 가세 주인네 집으로 가 술들 먹세
여봐라 춘향아 내말을 들어 비개 높거든 내 팔을 비어라

7. 등짐노래

추수한 벼를 짊어지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농요를 한다.
(받는소리) 아허 어허어 야 어허기야
(메기는소리) 가네 가네 나는 간다 저를 짊어지고 나는 간다
하늘같은 내 딸이로 실같은 흙위에다 태산같이 짊어지고 나는 간다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주인이 닭을 잡고 기다리니 어서 가세

8. 방아찧는소리

벼를 타작하고 홀태로 치면서 방아를 찧고 농요를 부른다.

9. 마무리

제22회와 제23회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도 모습을 보였던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는 이번 대회에서 재단이사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부산광역시 / 부산농악 / 부산관광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부산농악(옛 아미농악)은 오래전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왔다. 일제 통치와 6·25 동란 등으로 그 명맥이 끊겼다가, 1952년 11월 20일 체계적인 농악단 구성을 계기로 음력 정초에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농악을 치고 고사를 지내는 지신밟기 형태로 이어졌다. 이후 기예능이 뛰어난 예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해 지역이 확대된 걸립농악 형태로 변화하면서 연희성도 점차 커져다. 1980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으로 지정될 때는 걸립농악이 가미된 연희농악으로 구성되었다.

강인함과 부드러운 춤이 가미된 경상도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농악으로, 춤사위가 다양하고, 덧배기 장단이 많이 삽입되어 있으며, 상쇠놀이 상모와 벅구놀이, 설장구의 기능이 뛰어나다. 특히 북놀이는 춤사위와 북가락의 기교가 일품으로, 이 역시 지방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부산농악의 과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과장 '모듬굿-길굿-맞춤굿-마당굿'
흩어진 농악단원들을 집합하기 위해 상쇠가 단마치를 울리면 전원이 모인다. 길군악은 행진굿이다. 농기를 선두로 덧배기로 종대행진하며 인사굿을 하고, 맞춤굿은 모든 잽이에게 대형을 맞추는 과정인데, 부산농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가락이다.

제2과장 '문굿-오방진굿'
늦은 춤 장단으로 상모꾼들의 웃장놀음이 일품이며, 남의 집 문을 들어서면서 집주인을 부르는 문굿, 동·서·남·북 오방의 잡귀를 몰아내는 오방진굿, 국태민안과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기원굿을 한다.

제3과장 '농사풀이'
'농자지천하지대본' 농기를 앞세우고 농부의 일 년 농사 과정을 나타내며, 씨뿌리기, 모찌기, 모심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하기, 볏섬쌓기 과정을 소고 동작으로 표현한다.

제4과장 '개인놀이'
대북놀이, 장구놀이, 들벅구놀이, 열두발상모가 대미를 장식한다.

원래 아미농악은 당산굿, 우물굿, 지신밟기, 판굿 순으로 연행하는 마을굿 성격의 지신밟기 농악이었으나, 이것이 부산농악으로 개편되면서 연희 구성이 현재의 판굿 형식으로 변했다. 하지만 문굿·오방진굿·우물굿의 지신밟기, 마당굿·호호굿·다드래기굿의 연희성, 농사풀이·풍년굿의 풍농 기원이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층위를 확인할 수 있는 농악이라 할 수 있다.





● 경기도 / 부천 중리풍물놀이 / 부천문화원(청소년풍물연합팀)

종목 농악
수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상금 3,000

'중리풍물놀이'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장말'과 '넘말'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풍물놀이다. 경기 웃다리풍물인 이 놀이는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970년대 초까지 옛 중동 지역에서 행해졌다. 장말은 덕수 장 씨가 많이 살아 '장 씨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넘말은 장말의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 마을 중 넘말 사람들이 이어온 상모돌리기와 벅구놀이가 흥겨운 풍물굿의 맛을 내는데, 넘말과 장말을 한데 묶었던 중리풍물놀이가 이러한 농악의 묘미를 잘 간직한 것이다.

장말과 넘말에서는 정월 초에 집집이 돌면서 지신밟기를 하고, 칠월 백중놀이에는 대동굿을 펼치면서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격식을 갖췄다. 중동 토박이였던 김용문과 장경수가 주요 제보자로, 이들이 중리풍물 전승의 매개 역할을 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중리풍물은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르게 쓰고, 쇠가락의 가림새가 분명하며, 상쇠 중 암쇠가 가락의 변화를 이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판굿의 짜임새가 다양하고, 어린 무동들이 추는 깨끼춤과 무동타기는 안성 남사당패가 부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놀이에는 농기수, 영기수, 태평소, 쇠잽이, 징수, 장구잽이, 북수, 소고잽이, 무동이 등장한다.

부천문화원의 청소년풍물연합팀이 실연한 중리풍물놀이의 연행 구성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열림굿
풍물 판굿 공연에 앞서 길놀이 형식을 띠는 것으로, 가락은 난타, 삼채, 자진가락(휘모리)을 치며, 풍물굿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2. 인사굿
모든 치배가 삼채를 치며 둥글게 원을 만든 후, 제자리에서 자진가락을 친 다음 인사를 올리며 격식을 갖춘다.

3. 돌림벅구
벅구잽이가 둥글게 선 치배들 안으로 들어가 안쪽에 원을 만들어 양상을 치다가, 옆뛰기를 하면서 솟음벅구를 한다.

4. 당산벌림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가을굿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둘러서서 풍물을 친다.

5. 벅구놀이
벅구잽이가 장단에 따라 원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전·후·좌·우로 또는 한 줄로 서서 돈다.

6. 칠채굿(오방진)
칠채는 원래 길을 걸으며 치는 길군악, 또는 길가락을 의미한다. 2박, 3박, 혼합박으로 되어 있으며, 징을 일곱 번 친다고 해 '칠채'라 부른다. 칠채를 치며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위에 진[陣]을 감았다가 푼다고 해 '오방진'이라 한다.

7. 쌍줄백이(절구댕이벅구)

벅구잽이가 두 줄을 만들어 상쇠 앞에 선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한 줄이 앉으면 한 줄이 서고, 다음은 반대로 하면서 이것을 되풀이한다. 절구에 곡식을 찧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서 절구댕이 벅구라고도 한다.

8. 사통백이

풍물 치배와 벅구·무동이 정사각형 모양을 만든 후, 마주 보고 있는 줄과 서로 자리를 바꿔 상대편 줄에 가서 서면, 움직이지 않고 있던 다른 줄이 같은 움직임을 반복한다. 또다시 이를 반복해서 원래의 자리에 다시 서고, 네 개의 원을 만들어 돌다가 하나의 큰 원을 만든다.

9. 좌우치기

원과 집단(합동) 좌우치기가 있다. 좌우치기란 장단에 맞춰 한 발 옆으로 내고 다른 발을 옆에 갖다 붙이는 동작을 세 번 절도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 좌우치기는 오른쪽-왼쪽-앞-뒤 순으로, 집단 좌우치기는 왼쪽-오른쪽-뒤-앞 순으로 한다.

10. 쩍쩍이

춤을 추며 치는 장단으로, 풍년을 바라고 풍년의 즐거움을 나타낸 가락이다. 경쾌하며 흥이 넘친다.

11. 개인놀이

전체가 다 하는 판을 벌린 후 여러 분야별로 놀이를 세분화한 것이다. 쇠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무동놀이, 열두발 상모놀이가 있고, 풍물패 각 개인이 지닌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다.

중리풍물놀이는 넘말에 거주했던 '김용문 집안'을 중심으로 전수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산우물 지역 앞쪽이 개발되면서 장말의 풍속을 잃게 되고, 원주민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전통의 면모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중리풍물놀이를 부천문화원에서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주요한 의미가 있다. 지역 농악의 원형을 찾고, 지역 문화로서의 가치를 살리는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한 정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대구북중학교

종목 무용
수상 김해시장(장려상)
상금 2,000

날뫼북춤은 대구광역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중 하나다. 날뫼북춤은 비산농악에 뿌리를 둔 작품으로 큰북으로 추는 북춤이다. 날뫼북춤은 정월대보름에비산대 일대의 동제당인 천왕대에서 행하던 마을 제사인 '천왕[天王]매기굿'의 지신풀이인 '천왕매기'와 더불어 북춤이 두드러지게 발달했는데, 여기에는 경상도 덧배기가락과 춤이 어우러져있다. 지금 전하고 있는 날뫼의 농악놀이는 옛날 고을의 원이 부임할 때 울렸던 풍악소리에 기원한다고 전한다.

날뫼북춤을 전수해 대회에 참가한 대구북중학교가 선보인 날뫼북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1. 길굿, 길군악
길굿은 논두렁, 징검다리 등을 갈 때 발을 맞추지 않고 치는 장단이다. 길군악은 군인이 행진할 때와 같이 절도있게 발을 맞추며 연주한다.

2. 정적궁이
상쇠의 일체 신호에 따라 북잽이들은 반시계방향으로 몸을 회전하는 자유연풍대를 한다. 군사적인 요소가 많은 마당이다.

3. 반직굿
북넘기, 돌기, 앉을상 등 고난도의 북묘기를 연속으로 펼친다. 빠른 연풍대는 환희에 가깝다해도 손색이 없다.

4. 엎어빼기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북넘기와 앉을상을 반복해 실시한다.

5. 다드레기(휘모리)
가장 빠른 장단에 연풍대가 빠르게 돌아가고, 태극 모양의 진을 만들어 한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아주 빠른 춤판이다.

6. 싸움굿, 버꾸사설마당
전쟁놀이의 형태이며 군사가 백병전을 할 때와 같이 하고, 마무리는 화합의 마당으로 버꾸 사설과 빠른 다드레기 장단으로 마무리하는 춤판이다.

7. 모듬굿
뫼북춤의 장단 중 가장 수준 높은 장단들로 모아서 개인의 기량을 자랑하는 마당이다.

8. 굿거리
북소리와 흥겨운 어깨춤을 동반한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춤의 마당이다. "얼씨구" 소리가 절로 나오는 춤판이다.

9. 물레돌기
북잽이들이 원진의 바깥을 향해 좌우로 반복해서 물레가 돌아가듯이 도는 마당이다.

10. 허허굿

북잽이들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양발을 솟구치며 "허허" 라고 추임새를 하면서 뛴다.

11. 오방진

다섯 방위에 화평과 강녕을 비는 춤판이다.

12. 덧배기굿(뒷마당풀이)

북잽이들의 어깨춤으로 마무리한다.

대구북중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날뫼북춤의 역동성을 잘 살려 연행했으며, 경상도에서 발달한 큰 북을 치면서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장단과 다드래기장단을 주로 연주하면서 씩씩한 춤사위를 펼쳐 김해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구북중학교는 현재 날뫼북춤 전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강원도 / 논매기와 두레싸움 / 영서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김해시장(장려상)
상금 2,00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3리 회촌마을에 전승되는 논매기와 두레싸움을 놀이로 전개한 민속놀이다. 두레의 핵심은 논매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명과 같이 논매기와 논매기 과정에서 벌어지는 두레싸움에 중점을 두고 놀이를 구성했다. 농기를 내세우고 꿩장목을 사수하는 것을 요점으로 해 두레싸움을 하는 것이 돋보인다. 이후 함께 논매기를 하고 농악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놀이를 마친다. 논매기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벌매기소리(방아소리)

<긴방아소리>

아아- 위- 아- 오- 고시래
아아- 위- 아- 오- 고시래
아아- 위- 아- 오- 아아- 위- 아- 오-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씀을 들어- 보소-
신농씨 내신법이 농사밖에 또 있느냐
이후후후

<자진방아소리>

에-이여라 방아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을 들어보소

2. 두벌매기소리(단허리소리)

어화 얼신 단허리야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말씀을 들어보소
신농씨가 내신본이
농자천하지대본이야
사해용왕 물을주어
물이층층 수답이며

논매기와 두레싸움을 놀이로 풀어 경연한 것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원주매지농악의 뿌리가 논매기와 두레싸움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연작이라 판단된다. 청소년들이 직접 논매기소리를 하면서 두레의 현장을 재현한 경험은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기능을 할 것이며, 중요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여겨진다.





● 충청북도 / 괴산 연풍농악 / 괴산오성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김해시장(장려상)
상금 2,000

연풍농악은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신풍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두레 농악이다. 본래 정초에 걸립굿, 여름에는 두레굿, 백중날에는 머슴굿 등 여러 형태의 농악이 전래되고 있었다. 괴산군 연풍면은 괴산읍 보다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경북의 문경시와 더 가까워 문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화령 고개를 넘어 문경의 양반집에 노역을 갔던 사람이 문경지역의 농악을 보고 괴산의 농악을 만들어서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괴산군 연풍농악은 다른 지방에 비해 종류는 많지 않지만 한가락 한가락의 변주가 매우 다양하며 같은 가락이라도 연주 속도 또한 비교적 빠른 편이다. 가락의 가짓수가 많지 않아서 새끼 꼬기나 쓰레 놀이 등 전문 연희패의 풍물놀이에서 볼수 없는 산골 마을 순박한 농경 사회 모습이 있다. 판굿에서 사용되는 가락은 삼채 장단, 굿거리 장단, 자진 가락, 두마치 장단, 칠채 장단 등이 연주 된다.

연풍농악의 전체 연행 과정은 판열기-인사굿-돌림벅구-태극기-칠채 멍석말이-춤장단-삼패놀이-원좌.우치기-네줄좌우치기-새끼꼬기-쟁기놀이-쓰레놀이-사통베기-개인놀음-멍석말이 순으로 진행 된다.

오성중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괴산 연풍농악의 구성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판 열기
놀이판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가락을 쳐서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상쇠의 신호에 일채 장단을 연주하고 두마치 장단을 연주한다.

2. 갈지자진
갈지[之]자 형식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입장 후 반시계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제자리에 서서 자진가락을 연주한다.

3. 돌림벅구
인사 후 장단에 맞춰 버꾸들이 안으로 들어가 원을 만들고, 두마치를 연주하고, 옆뛰기를 한다.

4. 태극진
삼채 장단을 연주하며 태극 모양을 만든 후, 상쇠의 신호에 맞춰 모두가 앉고, 상쇠의 태극기라고 선창 후 모두 함께 복창한다.

5. 칠채
멍석말이 칠채를 치며 멍석을 말듯이 반시계방향으로 감아 들어간다 좌·우·중앙 세 번 반복한다. 중앙에서 멍석을 말 때 육채 장단과 두마치 장단을 연주하며 옆뛰기를 한다.

6. 춤장단
멍석말이가 끝난 후 상쇠의 신호에 맞춰 악기를 턴 후, 굿거리 장단을 연주하며 춤을 추고, 삼채 장단을 연주하며 원을 만든다.

7. 삼패놀이

큰 원을 돌다가 상쇠의 신호에 맞춰 악기가 원 하나, 벅구가 원 하나, 무동들이 원 하나를 만든다.

8. 원 좌.우치기
큰 원을 만든 후,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며 악기를 친다.

9. 네줄 좌우치기
네 줄로 서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며 악기를 친다.

10. 새끼꼬기
두 줄로 정력한 뒤, 앞쪽에서부터 마치 새끼를 꼬는 모양으로 지그재그 형식으로 사이사이를 빠져 나오며 연주한다.

11. 쟁기놀이
버꾸와 피조리가 짝을 이뤄 소가 쟁기질하는 것을 묘사한 놀이를 한다.

12. 쓰레놀이
'ㅁ'자 대형을 만든 후, 상쇠의 신호에 맞춰 사이사이로 교차하며 쓰레질하는 것을 묘사하는 놀이를 한다.

13. 사통베기
악기마다 작은 원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만든 후, 상쇠의 신호에 맞춰 옆뛰기를 하고, 상쇠가 풀어나가 큰 원을 만든다.

14. 개인놀음
상쇠놀음 후 꽹과리장단에 맞춰 열두발놀이를 한다.

15. 멍석말이
열두발놀이가 끝날 때쯤 열두발을 중심으로 각 악기가 멍석말이한 후, 상쇠의 신호에 맞춰 옆뛰기를 하고 맺은 후 인사굿을 연주하고 마친다.

괴산 연풍농악은 괴산군 연풍면 일대에 전승되고, 문경 지역의 농악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그 유래를 밝히고 있다. 즉 지역 특색을 갖춘 웃다리농악이다. 오성중학교 '아우꿈' 풍물반에서는 농악마저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 민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민속놀이를 학습하고 전승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이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창의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민속 전승을 위해 청소년과 기성 세대의 공동작업이 계속되어 문화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 메구월일석 춘경걸궁 / 한림고등학교**

종목 의례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전국에 분포하는 풍물 중 하나인 제주도의 걸궁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의 걸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특유의 주술성을 바탕으로 연극적인 면모를 보이는 연희로 발전해왔다. 또한 당굿이라는 전통 무속의례를 기반으로 한 풍물굿이 덧씌워진 근현대 민속이다. 근대적인 형태의 걸궁이 유입되기 이전 본래 제주도의 당굿에서는 '거리굿', '거릿제', '거리도청제' 등으로 부르는 걸궁과 유사한 의례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거리굿을 입춘굿의 거리굿과 연계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한림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서 선보인 '메구월일석 춘경걸궁'이다.

예로부터 제주도에는 모관황수, 정의황수, 대정황수 등 무당을 대표하는 황수가 셋이 있었는데, 제주목관아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입춘일에 굿을 펼친 것이 '입춘굿'이다. 입춘굿은 새봄을 맞아 도민들이 함께 벌였던 제주도의 고을굿으로, 세 명의 황수를 상징하는 황수기가 모여 읍성 안을 순회하는 '메구월일석 거리굿', 관덕정마당에서 펼치는 '입춘 탈굿놀이', 풍농을 기원하며 벌이는 '입춘굿'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한림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메구월일석 춘경걸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장
낭쉐를 비롯한 장치와 소품울 마당에 배치하고, 기수를 앞세운 전 출연진이 입장해 관중에게 인사한다.

2. 낭쉐ᄉᆞ사
도황수와 대정황수, 정의황수를 중심으로 걸궁패가 낭쉐[木牛] 앞에 둘러서서 간단한 낭쉐사(목우제)를 올린다.

3. 거리굿
황수기를 앞세운 행렬이 제주읍성 동문, 서문, 남문을 순회하며 거리굿을 펼친다. 각성문에 다다를 때마다 새해 액을 내쫓는 '올래 시'를 걸궁으로 진행하고, 그 사이사이에 황수들이 주민들이 들고 나온 보리 이삭을 살펴보는 '보리 고고리점'을 친다.

4. 탈굿놀이
호장들의 '밧갈이', 농부의 '씨드림', 사농바치와 새의 '방액놀이', 몰사와 호장들의 '담배 참권청'을 노래와 재담을 엮어가며 차례로 펼친다.

5. 파장굿
황수, 걸궁패, 탈굿놀이패가 어울려 판굿과 서우젯소리를 이어간다.

6. 퇴장
입장할 때처럼 기수를 앞세우고, 모든 출연진이 신명 나게 퇴장하며 관중에게 인사한다.

한림고등학교 학생들이 꾸민 '메구월일석 춘경걸궁'은 제주도의 전통 걸궁의 원형을 찾아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다. 지역에서도 점차 사라져 그 원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학생과 지도자가 함께 찾아 만든 결과물이라 유의미하다. 일정한 연행물로서 의미를 갖추었으나, 전

통성과 원형성에 대한 보완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인천광역시 / 범패와 작법무 현충재 / 문학정보고등학교

종목 무용
수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상금 1,000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가호로 지정된 범패와 작법무는 2005년 제13회, 2009년 제16회, 2014년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출전한바 있다. 2003년 범패와작법무보존회가 현충일에 수봉공원의 현충탑에서 현충재(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애국선열과 충의 장졸의 충정을 기리기 위한 재) 문화 행사로 봉행을 시작한 이래 매년 봉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10주년 맞이 미추홀구 불교연합회와 자원봉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문학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범패와 작법무 현충재'는 보존회가 현충재를 통해 전승하는 내용을 경연대회 형식에 맞춰 네 개 과정으로 정리한 것이다.

1. 법사물연주

지옥중생 제도하는 범종, 물속중생 천도하는 목어, 허공중생 제도하는 운판, 세간중생 지혜 얻길 발원하는 법고 등 법사물 연주를 하면서 무대 안으로 들어온다. 헌향, 산화락, 쇄향수를 비롯한 법공양이 뒤를 따른다.

2. 명발바라춤

천둥소리와 번개와도 같은 바라의 큰 울림은 금모사자의 포효와 같은 것. 된 것과 잡된 것을 모두 제거하고, 탐욕의 강 건너 진리의 땅에 살게 하라는 기원을 담은 춤을 춘다.

3. 나비춤

꽃과 향으로 세간을 장엄하고, 나비춤 한 자락 춤을 춘다. 애벌레는 나비의 전신 고치를 깨고 나온 기쁨, 열정과 환희를 춤으로 표현하는 해탈무 한 자락 펼쳐 보인다.

4. 사방법고

두 눈에는 도업 성취를 위한 눈빛이 성성하다. 중생제도 위한 법고춤의 환희가 이어진다.

문학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범패와 작법무 현충재는 종교적 의미를 떠나 애국선열의 우국충정을 기리고, 희생의 역사를 기린다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8.10.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청소년이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계승·발전해나가며 자긍심을 고취할 계기를 마련한다.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10월 12일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에서 개최되어 민속놀이, 민요, 농악 가면극, 춤 의례 등 민속 일반이 전개되었으며, 모두 12개 팀이 참가했다.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전라남도 노화중학교의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의 '수영농청놀이', 대전광역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웃다리농악', 전라북도 강호항공고등학교의 '고창농악판굿', 강원도 봉평중학교의 '평창순행취타아라리', 광주광역시 대촌중학교의 '광산농악', 경상남도 진영여자중학교의 '장원퇴촌농악', 경기도 충현고등학교의 '철산리두레농악', 대구광역시 서대구중학교의 '날뫼북춤', 제주도 함덕고등학교의 'ᄇᆞ름질따라 영등할망 오시네', 충청북도 괴산오성중학교의 '괴산두레농요', 충청남도 덕산고등하교의 '예산보부상놀이' 등이다.

2. 참가 종목

● 대전광역시 / 웃다리농악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대통령(대상)
상금	15,000

대전광역시에 전승되고 있는 웃다리농악은 충청도 웃다리풍물의 대표격이다. 대전지역은 일찍이 농악이 발달하면서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성행했다고 한다. 대전 웃다리농악의 실상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왔으며, 한밭(대전)에서는 각 마을의 두레패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고증에 따르면 1550년대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심복마을에서 액을 막아내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풍물굿과 대동제가 열렸다. 1700년대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물굿과 기원제가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19세기부터 최근까지 웃다리풍물은 고인이 된 송순갑, 이원보, 최성구, 양도일 등의 주도로 전승되었다.

웃다리농악은 꽹과리가락이 섬세하고 경쾌하며, 긴장·이완의 원리, 음·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웃다리농악의 판굿은 경쾌하고 흥청거리는 가락에 맞춘 진풀이도 생동감이 넘치고 화려하다. 판제 중 가장 고전적인 것은 '당산벌림', 칠채가락에 의한 '멍석말이', '무등타기' 등이며, 이외에도 가락과 놀이 대형에 따라 소쩍새의 울음소리나 아낙들의 빨래 다듬이질소리 등을 가락으로 흉내내는 '짝쇠장단'(이채). 농부들의 논매기 장단 '쩍쩍이', 장단강강술래의 고사리 꺾는 장면과 통하는 '고사리꺾기', '절굿대놀이', '도둑잽이굿', '사통백이', '원좌우치기'(학생들이 열중쉬어, 차렷하는 훈련에서 착안해 해방 후에 좌우지치 진법이 나왔다고 함), '네줄좌우치기' 등이 있다. 특히 '오방진'에서는 '칠채가락'을 치는데, 이는 하늘의 28수를 뜻해 28채라고도 한다. 판제 중 가장 고전적인 것은 '당산벌림', 칠채가락에 의한 '멍석말이', '무등타기' 등이 있다. 현재 대전 웃다리농악에는 다른 지역의 판제 가운데 독보적인 것들을 창의적으로 수용한 것들도 있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대전 웃다리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인사굿

판굿을 하기 위해 일렬로 나가기 직전 한군데 모인다. 북이 점고를 친 다음 징수가 징을 느리고 크게 세 번을 치고, 다스림가락과 이채가락을 친 후 맺는다.

2. 돌림벅구

인사를 한 뒤 상쇠를 따라 삼채가락에 이어 된삼채가락을 치면서 상쇠를 중심으로 잽이들이 2~3개의 원을 겹으로 만든다. 이채가락을 치면서 벅구는 바깥 원에서 외상이나 양상을 치고 자반뒤집기를 한다.

3. 당산벌림

삼채가락을 치면서 원을 풀어 'ㄷ'자 대형을 갖추고, 무동이 없을 때는 '11'자 대형으로 한다. 그리고 상쇠는 연타채를 치면서 중앙에서 놀다가 벅구쪽으로 가서 내주는 가락을 네 박 친다. 다음으로 벅구 전원이 앞으로 여섯 걸음 걸어간 다음 제자리에서 두 박자에 이어 이채가락을 치면 벅구는 양상을 돌리고 솟음벅구를 한다. 삼채가락에 따라 벅구는 '乙'자 방향으로 이동하며, 잽이와 두 줄로 마주 보면서 된삼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빠른 사사와 일사를 하고, 연타를 치면 번개상으로 맺는다.

4. 칠채오방진

전 대원은 칠채가락을 치면서 중앙진을 만든다. 중앙진에서 상쇠의 된삼채장단에 이어 이채가락으로 넘어가면, 벅구들은 음상, 외상 등으로 돌리다가 자반 뒤집기를 한다. 중앙진을 풀어 나올 때는 짝쇠가락을 치며, 날당산벌림 대형을 만든다.

5. 절굿대놀이(쌍줄백이, 외줄백이)

상쇠가 연타채를 치면서 돌사위로 맺고, 외줄백이 대형을 만들기 위해 잽이의 한가운데를 향해 이동할 때 상쇠는 쇠채발림을 한다. 외줄백이 대형이 만들어지면 삼채가락을 치면서 벅구 전체가 부쇠방향 쪽으로 'ㄷ'자를 그리면서 잽이를 향해 쌍 줄을 만들어 들어와, 수벅구 쪽부터 앉고 서고를 반복한다. 다시 삼채가락을 치면서 수벅구 줄은 부쇠 방향으로, 부벅구 줄은 끝북 방향으로 돌아 쌍줄백이 원형으로 다시 돌아 나간 다음 외줄로 나간다.

6. 십자걸이

잽이들은 삼채가락을 치면서 당산 대형을 풀어 반원을 그리고, 정면을 향해 일렬로 대형을 만들며, 벅구 전체는 잽이의 한가운데를 교차하면서, 십자 대형을 만든 다음 제자리에서 이채가락으로 맺는다.

7. 사통백이

삼채가락을 치면서 십자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십자 대형이 동·서·남·북 4개의 원을 만들고, 반시계 방향으로 태극선을 따라 돌며 원을 그린다.

8. 좌우치기(원좌우치기, 네줄좌우치기)

원 상태에서 한가운데를 보면서 이채를 친 다음, 상쇠의 머리가락을 듣고 좌우치기를 한다. 연타채를 치면서 큰 원에서 네 줄을 만들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네 줄이 동시에 한 줄을 만들면서 큰 원을 그린다.

9. 쩍쩍이

큰 원 상태에서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다가 삼채를 맺고, 쩍쩍이가락을 약 3~4회 정도 친다. 상쇠의 신호를 듣고 쩍쩍이가락을 맺는다.

10. 풍년굿

굿거리가락에 맞춰 춤을 추다가 굿거리를 맺고, 삼채가락을 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상쇠의 연타채가락의 신호로 한가운데를 보면서 앉는다.

11. 개인놀이

무동놀이, 쇠놀이, 소고놀이, 설장구, 살판, 12발(긴채상)놀이를 진행한다.

12. 외돌림벅구

일명 '덧배기놀이가락'이라 한다. 덩더궁이(자진모리) 장단과 어깨춤이 발달했다.

13. 퇴장

채가락을 치며 멍석말이를 풀어 나오면서 퇴장을 한 다음, 이채가락을 빠르게 몰아치며 맺고, 절가락을 치고 서로에게 인사한다.

1979년 유성농고 시절에 농악반이 만들어진 이후 1984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가 다시 웃다리농악을 전승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구암풍물반을 2006년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창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 하계 합숙 등을 통한 연습을 통해 꾸준하게 농악을 전승하면서 특히 대전 지역 웃다리농악 전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성생명과학고는 2009년부터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꾸준히 전국단위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 판굿을 중심으로 전승하고 있으니 전통적인 맥락의 웃다리농악을 찾아 지속해서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 경상남도 / 창원퇴촌농악 / 진영여자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창원퇴촌농악'은 경상남도 창원의 퇴촌리 주민들이 매년 당산제를 지내면서, 당산신을 즐겁게 하고, 지역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벌린 굿판에서 유래했으며, 퇴촌동(현 사림동)의 '창원의 집 앞' 느티나무에 얽힌 전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 전설이 깃든 느티나무(수령 360여 년)는 이 마을의 당산목으로 숭앙받기도 했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퇴촌마을에서는 순흥 안씨가문이 해마다 정초마다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풍물굿을 해온 것으로 전한다.

창원퇴촌농악은 퇴촌마을 고로 및 주민들이 당산굿에 농악을 치면서 유지해온 것을 마을의 안도호(구 상쇠), 안일영, 안교용, 안재호, 안용곤 등이 증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991년 창원퇴촌농악보존회를 창립해 마을의 특성을 지키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김해 진영여자중학교는 방과후학교와 재능기부를 통해 농악을 전수하고 있는 풍물단 '진여소리'를 운영 중이며, 조상의 숨결이 깃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 창원퇴촌농악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민속놀이를 학습하고 있다.

진영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창원 퇴촌농악의 전과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들당산굿
시작 전에 마을 당산나무에 제를 올리며, 전 치배는 상쇠의 신호에 영산다드래기를 연주한다.

2. 질굿
전 치배는 상쇠의 신호에 맞춰 덧뵈기 장단을 연주하며 마당으로 입장한다.

3. 사방선고굿
전 치배는 상쇠의 인사 신호에 따라 사방의 신에게 인사한다.

4. 진몰이굿
전 치배는 상쇠의 영산다드래기 장단 신호에 맞춰 진몰이를 한다.

5. 쟁끼놀음굿
전 치배는 상쇠의 살풀이 장단에 맞춰 자유롭게 연주하며, 소고들은 멋지게 어깨춤울 춘다.

6. 돌림굿
전 치배는 덧뵈기 장단에 맞춰 원을 돌다가, 상쇠의 신호에 맞춰 각 치배가 제각기 연풍대 돌기를 세 번 반복한다.

7. 협동굿
협동심의 가치를 보여주는 굿이다.

8. 사방굿
전 치배는 상쇠의 신호에 맞춰 사방으로 나뉘어 악기별로 원을 만든다.

9. 팔방굿

상쇠는 사방에 흩어진 치배들을 데리러 다니면서 덧뵈기 장단을 연주하며 진몰이를 한다.

10. 호호굿

상쇠의 신호에 따라 큰소리로 “호호” 하며 외치기 시작하면 상쇠가 뛰기 시작하고, 이후 치배들도 뛴다. 또다시 상쇠의 신호로 치배들은 역방향으로 돌면서 두 사람씩 짝을 이뤄 뛴다,

11. 팔방굿

상쇠는 사방에 흩어진 치배들을 데리러 다니면서 덧뵈기 장단을 연주하며 진몰이를 한다.

12. 축원굿

상쇠가 장구를 불러내 흥을 고조하며, 악기별로 개인기를 뽐낸다. 여기서는 상모들이 여러 농사짓기 장면을 상모로 표현한다.

13. 날당산굿

전 치배는 상쇠의 덧뵈기 장단에 맞춰 원을 돌기 시작한다.

14. 사방인사굿

상쇠의 덧뵈기 장단이 끝나면 치배들은 제자리에 섰다가, 상쇠의 영산다드래기 신호에 맞춰 진몰이를 시작한다. 영산다드래기 연주가 끝나면 치배들은 사방의 신에게 인사를 하며 마무리한다.

진영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창원퇴촌농악은 창원 퇴촌마을에서 전승하고 있는 농악을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소탈하고 순수하게 화평([和平[]하고 화동[和同]하는 농악 본래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인근 지역 학생들이 동일 권역 내의 농악을 전승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이어나가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경기도 / 철산리두레농악 / 충현고등학교(광명문화원)

종목 농악
수상 제주도지사(은상)
상금 4,000

'철산리두레농악'은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의 삶을 투영한 광명 지역의 농악이다. 광명 지역은 들이 넓어 논과 밭이 많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농사일에 흥을 돋웠던 농악과, 품앗이를 하는 두레조직이 여러 마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숨 가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예전 소박했던 농악의 흔적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991년부터 광명 지역의 농악을 수소문하며 정리한 결과, '철산리두레농악'을 발굴해 원형을 복원해서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광명농악이 전문적인 연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달리, 철산리두레농악은 투박한 두레농악의 면모를 담고 있다.

철산리두레농악은 농사철에 두레를 짜서 논을 매면서 불렀던 논매는소리 등이 들어가 있으며, 그 노랫말과 소리의 구성지기가 일품이다. 광명 지역의 논매는소리에는 '긴소리', '댕이소리', '너이소리', '상사디야', '몬돌이소리' 등 여러 소리를 하나로 엮어서 부른다. '철산리 농악'은 투박하지만, 농사일과 관련이 깊은 소박한 전통농악이며, 두레와 농악이 어우려져 노동에 지친 심신을 신명으로 이끌고, 일의 능률을 올리며, 나눔과 소통을 하는 중요한 놀이로 이어져 왔다.

충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철산리두레농악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들나가기
논(들)에 나가기 전 모두 모여 인원, 장비, 소품 등을 점검하고, 상쇠를 중심으로 깃발을 앞세우며 들에 나간다.

2. 모심기
논(들)에 도착해 모내기소리를 하면서 모내기를 시작한다.

3. 두레농악놀이
모내기를 끝내고 모든 인원이 논두렁 밟기를 한다. 논두렁 밟기가 끝나면 쇠, 징, 장구, 북으로 두레놀이를 하며 신명 하는 놀이판을 만든다. 이때 논에서는 벼멸구를 쫓기 위해 연기를 피워 나방 벼멸구 등을 잡는다.

4. 논매기
모내기한 논으로 돌아와 논매기소리를 하며 논매기를 한다.

5. 새참먹기
농악대와 농부들은 논두렁에 앉아 새참을 나눠 먹고, 아낙들은 논에 나와 고시레를 하고 물동이 춤을 추며 신명 나는 놀이판을 펼친다.

6. 대동놀이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판으로,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빈다. 이때 두레농악의 진면목이 펼쳐진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소통과 대동화합의 신명을 펼친다.

광명문화원에서 발굴한 철산리두레농악은 두레농악의 요소가 잘 남아있다. 경기도 대다수의 농악이 남사당의 영향으로 연예농악의 요소가 짙은 것에 비해, 두레농악의 면모가 잘 정리된 것만으로도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통 두레농악을 고등학교학생들이 전승하면서 중요한 문화 원천 보존에 일조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전라북도 / 고창농악판굿 / 강호항공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제주도지사(은상)
상금 4,000

고창농악은 우도농악의 하나로, 일명 '영무장농악'으로 일컫는 농악 가운데 하나다. 고창농악은 1800년대 후반부터 그 명맥을 이어온 인물들이 확인되며, 해방 전후에 활발하게 활동한 이들이 고창농악의 현재 모습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1980년대를 거쳐 고창농악단이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으므로, 그 전통과 역사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고창농악판굿은 당산굿이나 샘굿, 매굿, 풍장굿, 문굿 등이 끝나고 판을 벌여놓고 치는 굿으로, 치배와 잡색의 기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가락 흐름에 따라 독자적인 구성을 갖춘 판굿은 굿패의 기량을 보여주는 연희적 목적은 물론, 판굿 전에 치러지던 일련의 의식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풀이에 대한 염원을 공동체적 신명으로 끌어내는 장이 되었다.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고창농악판굿을 크게 세 마당으로 나눠 실연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장굿**: 어름굿-입장(삼채)-인사

2. **첫째마당**: 오채질굿-된오채질굿-풍류굿-벙어리삼채-된벙어리삼채-이채

3. **둘째마당**: 오방진-진오방진-삼채

4. **셋째마당**: 호허굿-자진호허굿-콩등치기-콩심기-콩꺽자-삼채-이채덩더쿵

고창농악은 전승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악으로 유명하다. 특히 우도농악보존회를 통해 다양한 공연 활동이 펼쳐지고 있어, 교육 활동을 통한 지역연계 활동이 강호항공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고창농악의 다양한 놀이와 가락을 익히는 기회를 통해 농악이 가진 신명과 놀이를 통한 협동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민속놀이의 참된 맛을 깨달아갈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부산광역시 / 수영농청놀이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수영농청놀이’는 부산광역시 수영 지역에서 농부들이 농청을 조직해 집단으로 농사짓던 모습을 놀이화한 민속놀이를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농사일을 해가는 과정, 특히 논농사의 작업을 반영한 것으로, 풀베기소리, 가래소리,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 타작소리 등 농요[農謠]가 중심이 되는 놀이다. 보리타작과 소싸움을 곁들여 흥을 돋우는 칭칭소리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놀이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번 경연에서는 가래소리,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도리깨타작소리, 논매기소리, 소싸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래소리

어허 가래야
이 가래로 어허 가래야
물을 모으자 어허 가래야
시내거렁에 어허 가래야
보를 막고 어허 가래야
봇도랑치고 어허 가래야
논둑을 모으고 어허 가래야
이논에다 어허 가래야
물을 넣으면 어허 가래야
금년 농사는 어허 가래야
대풍년진다 어허 가래야

2. 모찌기소리

일월이 돋아와도 이실갤줄 모르더라
맹홧대를 꺽어들고 이실털로 가자시라
한강에다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캐갈아 목캐따기 난감하네
바다겉은 이못자리 장구판만 남았구나
장구야판은 좋다만은 장구떨니 누있던고
밀치라 닥치라 모두잡아 훌치소
영해영천 초목에 호미손만 놀리소

3. 모심기소리

이논에다 모를숨거 금실금실 영화로세
우리야부모 산소등에 솔을숨거 영화로세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슴참이 늦어오네
미나리야시금초를 맛본다고 더디오네
사래지고 장찬밭에 목캐따는 저처녀야
목캐꽃 지색인데 처자얼굴 철색지네

4. 도리깨타작소리

어화
때려라 어화

보리보고 어화
이삭이 어화
안붙거로 어화
야무치기 어화
이삭을보고 어화
때려라 어화

5. 논매기소리

에~헤~아~아~
양운 폭포 이른구름 에~헤~아~아~
해를모아 돌아드니 에~헤~아~아~
온정리는 명승지요 에~헤~아~아~
가인재사 놀던데요 에~헤~아~아~
해운대 동백섬은 에~헤~아~아~
고운선생 놀던데요 에~헤~아~아~

수영농청놀이는 부산 지역의 논농사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경연작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수영농청놀이를 재현함으로써 논농사의 전통을 경험해봤다는 점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수영농청놀이에는 경상도 여성들이 모찌기, 모심기에 참여했던 흔적이 다분히 남아있으며, 모소리의 사설도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대구광역시 / 날뫼북춤 / 서대구중학교

종목 무용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상)
상금 4,000

'날뫼북춤'은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 하나다. 제22회 대회 대평중학교와 제24회 대회 대구북중학교에 이어, 이번 제25회 대회에는 서대구중학교가 출전했다.

날뫼북춤은 비산농악에 뿌리를 둔 작품이며, 큰북으로 추는 북춤이다. 16세기경 본래 춘추제향[政事] 때 축원의식에서 출발했으며, 한민족의 보편적 미의식이 집결된 민속적인 형태의 춤이라 할 수 있다. 날뫼북춤은 다른 지역 북춤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다양한 판을 펼치는데, 연행하는 마당 대부분에서 북만으로 추는 춤의 형태를 보여준다. 북재비의 역할이 비산농악에서 크기 때문에 그만큼 대구 지역에는 북춤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날뫼북춤은 총 열두 마당으로, 길굿, 길군악, 정적궁이, 반직굿, 엎어빼기, 다드래기, 싸움굿, 버꾸사설마당, 모듬굿, 굿거리, 물래돌기, 허허굿, 오방진, 덧배기굿(뒷마당풀이) 순으로 연행한다.

또한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과정 '입장'

- 깃발 11개 선두, 띵각, 태평소, 악재비(꽹과리, 징, 장구)가 두 줄 세로로 서고, 북재비 두 줄이 뒤에 자리를 잡는다.
- 띵각 소리가 올리면 열림굿 휘모리장단을 연주 후 기를 선두로 입장한다.
- 입장할 때 질굿장단 및 길군악을 연주하고, 을[乙]자진을 진행하며, 자진모리장단으로 넘어가면 원진으로 풀어간다.
- 기수는 자리를 잡으며, 악재비들은 원진형으로 자리를 잡는다. 북재비들은 악재비들을 에워싸며 원진 형태로 자리를 정돈 후 인사 연행을 시작한다.

제2과정 '본공연'

- 원형으로 기본 대형을 유지하면서 삼겹원을 만든다.
- 다시 겹원에서 큰 원 하나로 진행한 후, 을자진으로 이어간다.
- 기수와 치배들이 일렬로 자리하면, 북잽이들이 원진으로 놀이 진행 후 태극진으로 이어간다.
- 작은 원을 5개 만들어서 오방진을 진행한다.
- 일직선을 만들고 직선 안에 8명이 들어가 놀이를 한다.

제3과정 '마무리'

- 한곳에서 사선으로 두 줄로 모여 휘모리장단으로 뒤풀이 후 북채를 던지면서 공연을 마친다.

서대구중학교는 2010년 날뫼북춤동아리를 조직했다. 이후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일깨우며, 이들이 북춤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얻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협동심과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날뫼북춤동아리는 매주 토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으며, 7월에 집중적인 전수를 위한 캠프를 운영하면서 기량을 높이고 있다. 서대구중학교는 날뫼북춤을 지속해서 전승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 광주광역시 / 광산농악 / 대촌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광산농악'은 마륵동의 판굿농악을 근간으로 하며, 칠석동의 '고싸움놀이농악'과 '소촌농악', 산월동의 '풍장농악', 옥동(평동)과 유계동(동곡)의 '걸립농악' 등 광산구 지역에 전해지는 다양한 농악을 정리한 농악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영산강 상류인 황룡강과 극락강을 좌석에 끼고 넓고 비옥한 서석평야가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 농업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광산농악은 현대사를 거치면서 그 맥이 거의 끊어질 뻔했으나, 1988년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이후 여러 농악대회에 출전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존의 기틀을 마련했다.

광산농악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가락이 항상 한 쌍으로 묶여 연주되는 음양법을 특징으로 삼는다. 농악의 구성은 문굿, 당산굿, 샘굿, 철용굿에 이어 집집이 방문해 연주하는 마당밟기, 마당굿, 풀이, 액맥이, 중천맥이, 부엌굿(정제굿), 철용굿(장독대굿, 장꽝굿)까지 전 과정을 연주하고, 저녁에는 판굿을 하는 호남우도농악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광산농악의 쇠가락은 '내드름-본가락-맺음가락'으로 연주되어 가락마다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는 점, 그리고 다른 가락으로 들어갈 때 상쇠가 새 가락의 대표 가락을 몇 번 반복 연주해 새 가락으로 전환할 의지를 명백하게 전달하면서 전환이 보다 자연스럽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쇠가락에는 일·이·삼채로 모는 가락, 갖은 일채 질굿가락, 인사굿가락, 늦은삼채, 구정놀이가락, 문굿가락(걸립패가 동네에 들어갈 때), 삼채맺음가락, 벙어리 일채, 가새치기가락, 발림굿가락, 쇠꾼들의 짝드름, 오채질굿가락, 풍류굿가락, 진굿가락(당산굿 진입가락으로 쇠를 막고 뚝뚝 끊어서 연주함), 진굿변형가락, 짝드름가락(악기의 편성이 달라짐), 벙어리 삼채, 흘림질굿, 철용굿, 샘굿가락, 집돌이에서 대문 열어 달라는 가락, 굿거리 정지굿의 이채, 된삼채 등이 있다.

광산농악을 전승하는 대촌중학교는 2002년 농악반 신설 이래 지금까지 왕성하게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대촌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광산농악은 판굿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 질굿마당

내드름굿 일·이·삼채가락을 마친 후 일채로 입장해, 오채질굿, 된 오채질굿, 갖은일채, 벙어리삼채, 벙어리일채, 삼채, 매도지를 친다.

2. 오방진마당

오방진의 오방은 방향을 나타내는 동·서·남·북·중앙 다섯 방향에 진을 치는 것을 형상화해 덕석몰기로 진을 쌓아 연주한다.

3. 호허굿마당

열두마치(12채), 호허굿, 자진호허굿을 치며, 좌·우·진·퇴(좌우치기, 연봉치기)를 한 뒤 지심매기, 지신밟기, 콩등지기, 용틀임을 한다.

4. 구정놀음

치배들의 개인 기량을 한껏 보여주는 마무리 마당이다. 소고놀이, 북놀이, 쇠놀이, 설장구놀이, 열두

발상모, 잡색놀이를 한다.

광산농악은 전라도 우도농악의 전형을 잘 나타내면서 지역 특색을 가미한 농악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면모가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10년 이상 지속해서 광산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광주 대촌중학교는 광산농악뿐만 아니라 고싸움놀이 체험 활동을 통해 민속놀이 축제에 참가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발전해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대촌중학교의 사례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지역 문화를 지켜나갈 학생들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충청북도 / 괴산두레농요 / 괴산오성중학교

종목 민요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괴산두레농요'는 충청북도 괴산 지역의 논농사소리를 엮은 작품으로, 구성과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들나가기

2. 모찌기

모판에서 모를 뽑아 모천을 만든다. 못자리 두 판에 네 무리의 농부들이 모를 찐다.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이모자리 뭉쳐주게" 라며 받는소리를 한다.

3. 모심기

(받는소리) 아라리오 어러리오 아리랑 일송 아라이송아
(메기는소리) 여기 꼽고 저기 꼽고 00자리로 꽂아주게
이 논배미에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잘들 하네 잘들하네 우리야 농부들 잘두하네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잠시 잠깐 놀다가세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 참이 늦어가네
떳네 떳어 무엇이 떳나 밥광우리가 저기 떳네
아라리오 어러리오 아리랑 일송 아라이송아

4. 세이참

새참을 먹는 과정이며, 새참 광주리를 머리에 얹은 아낙네가 입장하면 농부들이 광주리를 받아주며 신명 나게 춤을 춘다.

5. 초듬아시메기

(받는소리) 에 헤에라 방아호
(메기는소리) 에 헤에라 방아호
에 헤에라 방아호
이 방아가 뉘방안가
강태공에 조작방아
강태공은 어디 가고
일꾼들만 놀고있나
오월 단오 당도허니(후략)

6. 논두렁 밟기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농부들이 밟아준다. 괴산의 쩍찍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논두렁을 밟는다.

7. 이듬매기 - 대허리소리

(받는소리) 어 하 슬슬 대허리야
(메기는소리) 어 하 슬슬 대허리야

어 하 슬슬 대허리야
천지지간 만물들은
음양으로 태어나아
음양의 조화로 자라나네
온갖 만물 소생하니
온갖 만물 인간지사
일생 일사 두전이라
이 논자리로 말하자면
만섬지기 논자리라
어깨를 맞춰서
요리 조리 맞춰서
자치소리로 넘어가세(후략)

8. 신명풀이

두레가 끝난 후 다 끝났음을 알리고, 마을 주민들이 깃발을 중심으로 원형을 만들어 신명 나는 마당을 연출한다. 풍물가락은 곤나비 장단과 자진가락, 쩍찍이, 두마치 장단으로 볶아친다.

괴산두레농요는 괴산오성중학교가 전수해 제22회 대회에 출전한바 있으며, 2년 간격을 두고 이번 대회에 다시 출전했다. 지속적인 전수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고무적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립국악원장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바람질따라영등할망오시네 / 함덕고등학교

종목 의례
수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상금 3,000

제주의 영등굿은 바다의 평온과 풍작 및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행하는 세시풍속이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우도를 시작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영등굿을 진행하는데, 특히 음력 2월 열나흘이 되면 제주시 건입동[健入洞] 칠머리당에서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연다. 영등굿을 할 때 굿을 주관하는 심방들은 바람의 여신(영등 할망) 용왕, 산신 등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례의 주인은 '단골(주민들)', 즉 해녀와 선주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함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바람질따라영등할망오시네'는 영등굿의 공동체 의례적 성격을 가미하고, 심방들의 굿과 주민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의례 전 과정 중 연희 요소와 음악을 활용해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민속놀이의 면모로 구성한 것이다.

1. 삼석울림

설쉐, 북, 징(대영), 세 악기를 일제히 쳐서 하늘옥황 삼천천제석궁에 굿의 시작을 알리는 재차다. 굿가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느진석(느린가락), 중판(중간가락), ᄌᆞ진석(빠른가락) 순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2 새ᄃᆞ림과 푸다시

정화[淨化], 즉 씻어내는 과정으로, 춤과 소리로 달래고 모시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邪]도 기고, 새[鳥]도 기고, 온갖 부정 액살을 물주며 쌀주며 ᄃᆞ리는 새풀이 소리가 주요하다.

천왕새 ᄃᆞ리자 / 지황새 ᄃᆞ리자 / 인황새 ᄃᆞ리자
(중략)
요새를 ᄃᆞ리자 / 쏠그린 새랑은 / 쏠주며 ᄃᆞ리고/ 애몰른 새랑은 /
물주며 ᄃᆞ리자/ 주어라 훨쭉 훨쭉훨짱 ~

3. 요왕질치기

바다의 용왕신을 맞는 과정으로, 요왕질을 만들어 길을 치우고 닦는 과정을 연행한다. 공동의 작업형태로 연행하며, 힘있는 장면으로 연출한다.

① 사신요왕 수정국길 돌아봄
② 언월도로 베기
③ 작데기로 치우기
④ 은따비로 파기
⑤ 발로 고르기
⑥ 물메로 깨기
⑦ 삼태기로 치우기
⑧ 미레깃대로 고르기
⑨ 이슬다리 놓기
⑩ 마른다리 놓기
⑪ 나비다리 놓기
⑫ 요왕다리 놓기

4. 씨드림과 배방선

"영등할머님, 영등할아버님, 영등대왕, 영등좌수, 영등별감, 영등호장님네 천초씨, 미역씨 주고 가십시오. 소라, 전복씨 주고가십시오. 그 뒤로 나졸 불러라. 하자...." 라고 외치면서 씨망탱이를 멘 해녀들이 씨를 뿌려 올 한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제물을 가득 실은 짚배를 영등신이 나가는 바닷길에 함께 띄워 보내는 과정이다.

제주도민 삶의 모태가 되는 제주도굿 가운데 특히 영등굿을 주요한 소재로 삼은 점을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무속의 전형을 따 학생들이 직접 실연을 시도한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학생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우수한 사례로 인정할 만하다.





● **충청남도 / 예산보부상놀이 / 덕산고등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서귀포시장(장려상)
상금 2,000

예산의 보부상과 난전놀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은 시기까지 활동한 보부상인 '예덕상무사'의 활동 과정에서 시행된 보부상 및 장돌뱅이들의 장터 예술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민속놀이로 구성한 것이다. 보부상단의 연중행사인 공문제에서 불린 <계화가>, 보부상단의 주요 판매 품목이었던 소금, 장독, 새우젓갈 등의 판매 과정에서 불린 노래와 재담을 놀이로 전개했다. 보부상놀이는 장터 예능을 전통에 입각해 재구성한 보부상과 장터 난전의 민속문화다.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은 보부상놀이를 재치 있게 연행했으며, 개시, 장꾼들의 마당, 독장수 마당, 소금장수 마당, 약장수와 죽방울놀이, 장터 풍장마당, 대동마당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보상과 부상들이 새벽 장 보부상들의 단가와 같은 <계화가>를 부르며 입장한다. 각자 짐을 풀고, 자리를 펴며, 차일을 치고 팔아야 하는 물건들을 진열하는 등 장사를 개시하는 것이 요점이다. 그다음으로는 장꾼들의 마당이 진행되는데, 시끄러운 장터 풍경이 연출된다. 보부상의 주요 물품이면서 광천장을 중심으로 보급된 젓갈을 재담과 노래로 장사한다.

이후 장돌뱅이와 떡 장사, 짚신장사, 장터 주막, 엿장수 등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각자의 물건을 파는 등 시끌벅적한 장터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독장수 마당이다. 보부상의 주요 품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독을 파는 독장수가 재담과 노래로 독을 팔고, 이어서 소금장수가 소금을 파는 마당이 진행된다.

오전 장이 기울어질 무렵, 장터에 죽방울을 앞세운 약장수가 등장해 노래와 함께 죽방울놀이를 펼치며 재담을 하면서 손님을 모은다.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리면 고약 등의 약을 판매한다. 죽방울의 신명이 떨어질 때쯤 풍장마당으로 넘어간다. 풍장을 치며 한바탕 신명 나게 노는데, 이를 '장터풍장'이라 한다. 상모놀이, 열두발상모놀이 등 다양한 기예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신명이 후끈 달아오르면 대동마당이 이어진다. 풍장가락에 맞춰 죽방울놀이를 하고, 모두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면서 놀이판을 벌인다.

예산보부상놀이는 보부상을 중심으로 장터에서 벌어지던 난전놀이를 민속놀이로 재구성한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터는 농악은 물론 다양한 민속예능을 구경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다. 장터를 중심으로 예능이 발달했는데, 유람예인과 더불어 소중한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 바로 보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부상놀이는 민속예능에 있어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민속놀이다.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은 보부상을 맛깔나게 잘 표현했으며, 보부상의 재치와 끼를 갖춘 무대를 신명 나게 잘 구성했다.





● 전라남도 /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 노화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서귀포시장(장려상)
상금 2,000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와 장좌리 앞섬 장도에서 전승되는 마을 공동제다. 1995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도 장좌리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당제 및 당굿을 연행한다. 장도의 당집에는 후박나무와 동백나무가 숲을 이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신인 송징장군[宋徵將軍]과 그 우측에 정연장군[鄭年將軍], 좌측에 혜일대사를 모셔 왔고, 1982년에는 장보고장군[張保皐將軍을 추가로 모시기 시작했다.

완도 장좌리 당제와 당굿은 제관 선출, 달집 제례, 샘굿, 당수 제례, 음복, 겟제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당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장을 중심으로 정월 초사흘날 마을 회의인 '대동공회[大同公會]'를 열어 제관, 제비, 당굿을 칠 사람들을 선정한다. 보름날 새벽 마을회관에서 풍물패가 굿을 알리면 당굿이 시작된다. 제관이 앞서고, 풍물패가 길굿을 치면서 당집에 오른다. 당집에서의 제사는 유교식 제차로 행한다. 당제와는 별도로 보름날 밤에는 갯제를 모신다. 장도 입구 바닷가에 각 가정에서 상을 하나씩 차려내와 길게 늘어놓고 개인별로 소원을 빈다. 이것은 주로 부녀자들이 진행하며, 김·미역 등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빈다.

장좌리 당제에서 풍물을 치는 굿패들은 징, 장구, 꽹과리, 북, 소고 등으로 구성되는데, 굿패들은 바지 저고리에 색띠를 두르고 고깔을 쓰며, 소고잽이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고깔을 쓰고 무동 차림을 하기도 한다. 꽹과리잽이는 상모가 달린 벙거지를 쓰고 상모를 돌리며, 다른 굿패들은 오색꽃이 달린 고깔을 쓴다. 장좌리 당제의 풍물패의 가락은 일명 차굿으로 불리는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화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의 실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는 연행순서에 따라 농악가락을 중심으로 총 6과장으로 나눠 정리된 것이다.

제1과장 '길굿(입장) 1차굿'
10차굿, 9차굿, 빠른3차굿, 10차굿 순으로 진행한다.

제2과장 '제사굿(당굿)'
장도의 제당에서 제를 올리는 과정이다.

- 차굿, 9차굿(사당으로 입장), 절 3회 순으로 진행한다.
- 축문, 당제 시작, 빠른 3차굿(절 3회) 순으로 진행한다.
- 느린 3차굿(절 3회), 빠른 3차굿(절 3회), 느린 3차굿(절 3회), 4차굿(음복), 2차굿(사방 주변 3바퀴 돌기) 순으로 진행한다.

제3과장 '배굿'
굿패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치는 굿이다. 10차굿, 11차굿, 자진11차굿 순으로 진행한다.

제4과장 '우물굿(샘굿)'
마을에 돌아와서 우물굿을 치는 과정이다. 10차굿, 자진10차굿, 빠른3차굿 순으로 진행한다.

제5과장 '당산굿'
마을 당산에 올라가 당산나무 앞에서 제를 지내는 과정이다. 10차굿, 빠른3차굿, 느린3차굿(당산나무

에 절 3회) 순으로 진행한다.

제6과장 '지신밟기(퇴장)'

본래 집집이 돌면서 치는 지신밟기 과정을 진행해야 하나, 간단히 진행하고 빠른3차굿과 인사굿으로 마무리한다.

완도 장좌리 앞섬 장도의 해상을 수호하고, 주민들의 복을 빌어주는 신을 모시는 당제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행사를 학생들이 익히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유교식 의례와 농악대의 제례가 혼합된 전통적인 섬 지역 의례의 문화적 원형이 잘 남아있는 사례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강원도 / 평창순행취타아라리 / 봉평중학교

종목 민요
수상 서귀포시장(장려상)
상금 2,000

강원도 평창의 '순행취타아라리'는 임금 행렬에 연주되던 대취타와 민요 아라리를 엮어 만든 작품이다. 임금이 시제로 용서, 화합, 유감의 세 가지를 내고 과거시험을 펼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에 장원한 이가 아라리를 노래하고, 난타와 같은 악기 연주를 하면서 아라리를 연이어 간다.

평창순행취타아라리에서 가창된 노래의 사설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평창 긴아라리>

전하께서 오셨는 데 모두 절을 못하고 평창 아라리 한 자락으로 인사 올립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000별시 좋아요
임금님 모시고 과거에 급제라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시작될 이곳이 평창입니다
임금님 덕분에 장원에 급제라 온세상 살맛이 나네요
온세상 산중머리에 뻐꾸기가 울거든
전하께서 평창에 오셔서 별시를 베푼 줄 알게나
정욱산에 떡갈잎은 나날이 퍼들어지는데
우리 백성들 나랏님 00는 평화를 가져왔드래요
한치 뒷산에 곤주레딱주기 님에 맛만 같으면
올같은 흉년에도 봄한철 살지
육백마지기 돼지감자는 첫짐들여 놓고서
곤드레쌈에 된장을 발라서 많이 드시고 가세요
삼방산이야 노릇노릇해 꾀꼬리 단풍이 들거든
뒷집에 처녀남자와 동박따러 가세
오라바니 장가는 명년에나 가시고
쪽쪽 팔아서 날 시집 보내주(후략)

<엮음아라리>

우리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얽어매고 찍어매고 문방사우 걸머지고
오대산 별시에 과거보러 가셨는 데 대관령 굽이굽이 부디 잘다녀오세요
당신이 날마다고 울치고 담치고 오이김치 물치고
칼로 물친 듯이 뚝떠나 가더니 봉평팔십리 다못가고서 왜 돌아왔나(후략)

강원도 봉평중학교 학생들이 연행한 이 작품은 임금이 행차해 별시를 치르는 모습을 연출해 민속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어진 아라리는 기존의 가사를 변주한 것과 새로 만든 것으로, 긴아라리와 엮음아라리를 두루 노래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서귀포시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2019.10.03~10.04, 서울특별시 잠실종합운동장 야외광장)

1. 개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주체가 청소년이라는 믿음으로, 청소년의 민속예술 참여를 독려하고, 민속예술 전승의 의미를 더하는 차원에서 매년 마련되는 행사다.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민속놀이, 민요, 농악 가면극, 춤 의례 등 민속 일반이 전개되었으며, 모두 9개 팀이 참가했다.

경연에 참여한 단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전라남도 비금중학교의 '비금뛰뛰기강강술래',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고등학교의 '부산농악', 충청북도 괴산오성중학교의 '괴산두레농요', 광주광역시 대촌중학교의 '광산농악', 전라북도 강호항공고등학교의 '고창농악판굿', 대구광역시 서대구중학교의 '비산농악', 경상남도 진영여자중학교의 '창원퇴촌농악', 충청남도 덕산고등학교의 '예산보부상난전놀이', 경기도 시흥월미농악보존회의 '시흥월미농악' 등이다.

2. 참가 종목

● 충청북도 / 괴산두레농요 / 괴산오성중학교

종목 민요
수상 대통령상(대상)
상금 15,000

괴산두레농요는 충청북도 한가운데에 위치한 괴산군 일대에서 전승되는 논농사소리를 묶은 작품이다. 모찌는 소리, 모심는소리, 초듬 아시매는 소리, 이듬 논 뜯는 소리 등 논농사소리와 삼채장단, 자진가락, 두마치, 들풍장, 날풍장, 춤장단 등의 농악장단이 함께 어우러진다.

괴산두레농요는 충북 괴산군 일대에서 전승되던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초듬아시매는소리, 이듬논뜯는소리 등의 농요를 엮은 작품이다. 농악의 비중이 높았으며, 곤나비(꽃나비)장단, 자진가락, 두마치, 들풍장, 날풍장, 춤장단, 쩍쩍이 등의 풍장굿 장단이 연주되었다. 구성과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들나가기

2. 모찌기

모판에서 모를 뽑아 모천을 만든다. 못자리 두 판에 네 무리의 농부들이 모를 찐다.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이모자리 뭉쳐주게"라며 받는소리를 한다.

3. 모심기

(받는소리) 아라리오 어러리오 아리랑 일송 아라이송아
(메기는소리) 여기 꼽고 저기 꼽고 00자리로 꽂아주게
이 논배미에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잘들 하네 잘들하네 우리야 농부들 잘두하네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잠시 잠깐 놀다가세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 참이 늦어가네
떳네 떳어 무엇이 떳나 밥광우리가 저기 떳네
아라리오 어러리오 아리랑 일송 아라이송아

4. 세이참

새참을 먹는 과정이며, 새참 광주리를 머리에 얹은 아낙네가 입장하면 농부들이 광주리를 받아주며 신명 나게 춤을 춘다.

5. 초듬아시메기

(받는소리) 에 헤에라 방아호
(메기는소리) 에 헤에라 방아호
에 헤에라 방아호
이 방아가 뉘방안가
강태공에 조작방아
강태공은 어디 가고
일꾼들만 놀고있나
오월 단오 당도허니(후략)

6. 논두렁 밟기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농부들이 밟아준다. 괴산의 쩍찍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논두렁을 밟는다.

7. 이듬매기 - 대허리소리

(받는소리) 어 하 슬슬 대허리야
(메기는소리) 어 하 슬슬 대허리야
어 하 슬슬 대허리야
천지지간 만물들은
음양으로 태어나아
음양의 조화로 자라나네
온갖 만물 소생하니
온갖 만물 인간지사
일생 일사 두전이라
이 논자리로 말하자면
만섬지기 논자리라
어깨를 맞춰서
요리 조리 맞춰서
자치소리로 넘어가세(후략)

8. 신명풀이

두레가 끝난 후 다 끝났음을 알리고, 마을 주민들이 깃발을 중심으로 원형을 만들어 신명 나는 마당을 연출한다. 풍물가락은 곤나비 장단과 자진가락, 쩍찍이, 두마치 장단으로 볶아친다.

괴산오성중학교는 제22회와 제25회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출전했다. 괴산두레농요를 전승하려

는 노력을 지속해서 펼친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 대구광역시 / 비산농악 / 서대구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상금 5,000

'비산농악'은 '날뫼'라 부르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서 자생한 농악이다. 이 농악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 지역 주민들 모셔온 동제당인 천왕당(기천당, 중천당, 말천당)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하던 동제인 천왕메기굿을 할 때의 '지신풀이'에 그 모태를 두고 발전해 온 것으로 추정한다.

비산농악에는 이 관도를 오고 가던 원님 행차 때 원고개에서 놀았다는 옛이야기가 함께 전해진다. 그래서 농사굿의 성격보다 군사굿의 성격이 더 짙은 것이다. 원래 열두 마당으로 되어있으나, 전성기에는 마당 수를 늘려서 얼마든지 긴 시간을 놀 수 있었다고 한다.

서구에는 6·25 전쟁 전까지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을 모신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기천왕은 서구 비산1동의 원고개 시장 부근에, 중천왕은 비산1동 1번지 옛 인동촌 시장 부근에, 말천왕은 지금의 삼성예식장(비산2,3동)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사당 앞에서 제를 지내왔는데, 제를 지내고 나면 이어서 비산농악 한마당을 놀았다고 한다.

현재 비산농악은 쇠 4명, 징 4명, 북 10명, 장구 6명, 벅구(소고) 12명, 잡색 3명, 땡각 1명, 기수 11명 등 총 51명으로 인원을 편성하며, 길굿·길군악, 인사굿, 정적궁이, 농사굿, 마당굿(박직굿, 엎어빼기), 다드래기, 싸움굿, 물레돌기, 허허굿, 살풀이, 덧배기(모듬굿), 놀이마당, 오방진, 덕석말이(진풀이), 뒷마당풀이 순으로 연행한다.

벅구야 벅구야 얼른치고 술먹자
조피국에 김나고 미역국에 땀난다
도랑건너 사돈요 우째우째 사는교
말미고 소미고 그럭저럭 사누마
등너머 중복숭 우지주지 열렸네
강건너 강대추 아개다개 달렸네
벅구야 벅구야 벅 벅 벅구야

비산농악은 간결하고 절도가 있는 군사굿의 성격과 천[天]·지[地]·인[人]을 상징하는 농사굿의 성격을 지녔다. 통일성을 중요시하고, 장중하며, 지신밟기 사설을 포함한다.




● 경상남도 / 창원퇴촌농악 / 진영여자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서울특별시장(은상)
상금 4,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퇴촌마을에서 행하던 풍물굿이다. '창원퇴촌농악'은 창원 퇴촌리 주민들이 매년 당산제를 지내면서, 당산신을 즐겁게 하고, 지역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벌린 굿판에서 유래했으며, 퇴촌동(현 사림동)의 '창원의 집 앞' 느티나무에 얽힌 전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 느티나무(수령 360여 년)에는 창원군 상남면 봉림리 뒷산 북시골(부처골)에 위치한 봉림사[鳳林寺]에서 생긴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하는데, 이 나무는 퇴촌마을의 당산목으로 숭앙받게 되었다. 순흥 안씨 가문이 해마다 정초에 이곳에서 잡귀를 몰아내고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풍물굿을 해 온 것으로 전한다.

퇴촌농악은 일반적인 두레농악과는 달리 매귀안택축원[埋鬼安宅祝願]의 축원걸립농악[祝願乞粒農樂]을 특징으로 한다. 즉 나쁜 귀신을 몰아내고 이로운 신을 받아들여 가정의 평온을 축원하기 위한 농악을 말한다. 따라서 굿의 시작과 끝머리에 당산신에게 고하는 당산굿, 신령을 위로하는 영산다드레기굿, 사방께 고하는 사방오토놀이굿 등에서 서낭굿의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어, 두레굿과는 달리 서낭굿 성격이 강한 걸립굿으로도 볼 수 있다.

창원퇴촌농악은 퇴촌마을 고로 및 주민들이 당산굿에 농악을 치면서 유지해온 것을 마을의 안도호(구 상쇠), 안일영, 안교용, 안재호, 안용곤 등이 증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991년 창원퇴촌농악보존회를 창립해 마을의 특성을 지키고 있다.

진영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창원퇴촌농악의 전 과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들당산굿
시작 전에 마을 당산나무에 제를 올리며, 전 치배는 상쇠의 신호에 영산다드래기를 연주한다.

2. 질굿
전 치배는 상쇠의 신호에 맞춰 덧뵈기 장단을 연주하며 마당으로 입장한다.

3. 사방선고굿
전 치배는 상쇠의 인사 신호에 따라 사방의 신에게 인사한다.

4. 진몰이굿
전 치배는 상쇠의 영산다드래기 장단 신호에 맞춰 진몰이를 한다.

5. 쟁끼놀음굿
전 치배는 상쇠의 살풀이 장단에 맞춰 자유롭게 연주하며, 소고들은 멋지게 어깨춤을 춘다.

6. 돌림굿
전 치배는 덧뵈기 장단에 맞춰 원을 돌다가, 상쇠의 신호에 맞춰 각 치배가 제각기 연풍대 돌기를 세 번 반복한다.

7. 협동굿

협동심의 가치를 보여주는 굿이다.

8. 사방굿

전 치배는 상쇠의 신호에 맞춰 사방으로 나뉘어 악기별로 원을 만든다.

9. 팔방굿

상쇠는 사방에 흩어진 치배들을 데리러 다니면서 덧뵈기 장단을 연주하며 진몰이를 한다.

10. 호호굿

상쇠의 신호에 따라 큰소리로 “호호” 하며 외치기 시작하면 상쇠가 뛰기 시작하고, 이후 치배들도 뛴다. 또다시 상쇠의 신호로 치배들은 역방향으로 돌면서 두 사람씩 짝을 이뤄 뛴다,

11. 팔방굿

상쇠는 사방에 흩어진 치배들을 데리러 다니면서 덧뵈기 장단을 연주하며 진몰이를 한다.

12. 축원굿

상쇠가 장구를 불러내 흥을 고조하며, 악기별로 개인기를 뽐낸다. 여기서는 상모들이 여러 농사짓기 장면을 상모로 표현한다.

13. 날당산굿

전 치배는 상쇠의 덧뵈기 장단에 맞춰 원을 돌기 시작한다.

14. 사방인사굿

상쇠의 덧뵈기 장단이 끝나면 치배들은 제자리에 섰다가, 상쇠의 영산다드래기 신호에 맞춰 진몰이를 시작한다. 영산다드래기 연주가 끝나면 치배들은 사방의 신에게 인사를 하며 마무리한다.

진영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실연한 창원퇴촌농악은 창원 퇴촌마을에서 전승하고 있는 농악을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소탈하고 순수하게 화평([和平[]하고 화동[和同]하는 농악 본래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인근 지역 학생들이 동일 권역 내의 농악을 전승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이어나가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광주광역시 / 광산농악 / 대촌중학교

종목 농악
수상 서울특별시장(은상)
상금 4,000

‘광산농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전승되는 농악으로,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광산농악에는 마을 농악과 뜬쇠들에 의해 형성된 판굿 농악 등 두 가지 계열이 있다. 지역적으로 호남우도농악에 속하며, 전남의 서부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현재의 광산농악은 마륵동의 판굿농악을 중심으로 칠석동의 ‘고싸움놀이농악’, 소촌동의 ‘당산농악’, 산월동의 ‘풍장농악’ 등 광산 지역에서 연주되는 다양한 농악을 집대성한 것이다.

광산농악은 옛날부터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마을마다 집집이 돌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연행한 마을굿으로, 마을 제사인 당산굿을 친 다음에는 집집이 돌아다니며 마당밟이를 했다. 마당밟이를 할 때는 부잣집 마당에서 판굿을 하기도 했다. 농군들이 모심기나 김매며 치는 풍장굿(길지심)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판굿 위주로 전승되고 있다.

현행 광산농악의 판제 구성을 보면, 12바탕굿이라 해 내드름굿, 문잽이굿, 당산굿, 샘굿, 들당산굿, 마당굿, 성주굿, 조왕굿, 장광굿(철용굿), 날당산굿, 판굿, 도둑잽이 등 총 열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문잽이굿은 문굿을 말하며, 마당굿 이하 장광굿에 이르는 가락은 모두 마당밟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도둑잽이는 판굿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산농악의 굿거리는 문굿, 당산굿, 철용굿, 샘굿, 들당산굿, 마당밟이, 날당산굿, 판굿의 여덟 가지 굿거리가 전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제 구성은 전통 사회의 마을굿전통과 좀 더 전문적인 걸립굿의 전통이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 단위에서 농악은 문굿, 당산굿, 철용굿, 샘굿, 들당산굿, 마당밟이, 날당산굿, 판굿 순으로 진행한다. 문굿은 마을을 들어가기 위한 절차다. 당산굿, 철용굿, 샘굿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신부터 차례로 둘러보는 것이다. 들당산굿, 마당밟이, 날당산굿은 각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판굿으로 마무리 짓는다. 가정에서 행하는 마당밟이는 대문 앞에서 하는 문굿과, 성주굿, 정지굿, 철용굿, 샘굿을 중요한 신의 순으로 연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마당굿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마당굿은 판굿처럼 뒤풀이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굿과 당산굿, 철용굿, 샘굿, 마당밟이, 판굿의 각 굿거리는 서로 구조가 유사하다. 다만 문굿과 판굿의 경우 제의가 빠진 연희 중심의 굿거리며, 이외 다른 굿거리는 제의적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철용굿과 샘굿, 마당밟이의 정지굿과 철용굿 등은 신격의 위상이 당산굿에 비해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뒤풀이까지 연행하지는 않는다.

광산농악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 가운데 두렁쇠의 마을굿과 뜬쇠의 판굿 계통이 함께 전승되고 있는 드문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농악을 통해 마을굿과 판굿의 관련성, 특히 음악적 관련성과 구조적 짜임새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굿거리 모두가 일정한 규칙과 반복성을 나타낸다.

광산농악의 쇠가락은 ‘내드름-본가락-맺음가락’으로 연주되어 가락마다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는 점, 그리고 다른 가락으로 들어갈 때 상쇠가 새 가락의 대표 가락을 몇 번 반복 연주해 새 가락으로 전환할 의지를 명백하게 전달하면서 전환이 보다 자연스럽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호남우도농악 쇠가락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 전라남도 / 비금뛈뛰기강강술래 / 비금중학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강강술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지정은 물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전라남도 해안 일대에서 성행되어온 노래, 무용, 놀이가 혼합된 부녀자들의 놀이다. 주로 추석날 밤에 행하는데, 정월대보름날 밤에 행하기도 한다.

비금뛈뛰기강강술래는 전라남도 목포 인근의 비금도에서 전승되는데, 일반적인 강강술래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일반적인 강강술래가 보통 부녀자들만이 참여하는 놀이라면, 비금뛈뛰기강강술래는 젊은 남녀가 함께 어울리며 연행한다.

비금뛈뛰기강강술래는 1960년대 이후 전승이 단절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 재현된 후 현재까지 연행되고 있다.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총 열세 개 주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네 개 조로 나뉜 술래와 기수가 입장하는 '입장'과 느린 박자의 소리와 장단에 맞춰 강강술래를 시작하는 '중강강술래'가 펼쳐진다. 점점 장단이 고조되면 '자진강강술래'로 접어들며, 이때 노래에 맞춰서 제자리에서 뛈을 뛰며 신명 나게 논다.

'남생이타령'으로 들어서면 술래 중 조장이 원 안에 들어가 남녀가 어우러져 논다.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개고리타령'은 개고리타령에 맞춰 술래들이 팔을 걷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는 장면이다. 뒤이어 조별로 원을 그리고, 토끼뛈을 하며 '고사리껑끼'를 행한 다음, 조장 하나가 수건을 손에 쥐고 조장을 따라가며 그 뒤를 이어 큰 원을 그린다. 원을 완성했다 풀기를 반복하는 '덕석몰기·덕석풀기'를 한다. 이어서 청어를 엮고 푸는 동작을 하는 '청여영기·청어풀기'를 행한다. 이후 '뛈뛰기', '마장뛰기', '문열어주소·꼬리잡기'로 장면을 잇고, 다시 '뛈뛰기'를 행한다. 뛈뛰기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원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기수를 중심으로 원을 크게 만든 다음, 뛈뛰기를 다시 하고 퇴장한다. '마장뛰기'부터 '퇴장'까지는 박진감 넘친다. 비금뛈뛰기강강술래 중 가장 활력이 넘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비금뛈뛰기강강술래는 비금중학교 학생들이 연행했는데, 젊은 세대에게 민속 문화를 전승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경연작으로 출품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이 민속을 구연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싶다.





● 충청남도 / 예산보부상난전놀이 / 예산덕산고등학교(예산문화원)

종목 민속놀이
수상 문화재청장(은상)
상금 4,000

보부상은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다니면서 시장을 옮겨 다니며 행상을 했던 상인을 일컫는다. 예산은 시장이 활발히 열리던 곳으로, 특히 보부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예산은 예덕 상무사의 활동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예덕 상무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은 시기까지 활동한 보부상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다른 고장 보부상과 상무사가 급속도로 쇠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덕 상무사는 한국전쟁 이후까지도 존속했다. 이들의 활동 과정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온 민속유산이 바로 '예산보부상난전놀이'다.

이번 대회에서 연행된 예산보부상난전놀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꾼들의 마당
보상과 부상들이 새벽 장에 <계화가>를 부르며 입장한다. 계화가는 예산 지역에 전승되는 예덕 상무사 보부상놀이와 예산보부상난전놀이에서 공통으로 불리는 보부상 노래다. 계화자라고도 불리며, 놀이를 마무리할 때 주로 등장한다고 한다. 보상과 부상들은 각자 자리에 짐을 풀고 자리를 편 뒤 차일을 친다. 팔아야 할 물품을 진열하고 손님을 부르는 소리를 외친다.

2. 싸구려 타령
장터가 성황을 이루고, 덕산장의 마지막 장사꾼 유진룡이 싸구려타령을 부른다.

3. 새우젓 타령
보부상의 주요 판매 물품이자 광천장을 중심으로 보급된 새우젓에 대해 타령한다. 젓갈 장수가 등장해 재담과 소리를 하며 젓갈을 판다.

4. 독(옹기장수) 타령
독장수가 나서서 타령을 한다. 독은 보부상의 주요 물목 중 하나로, 독장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려 재담과 소리를 한다.

5. 약장수와 죽방울놀이 마당
죽방울놀이는 막대 두 개에 실을 걸고 장구 모양의 죽방울을 던져 올렸다 받는 전통 놀이다. 약장수는 죽방울놀이를 하며 노래를 부른다. 그러다 재담을 하며 손님을 모아 고약을 판다.

6. 대동마당
대동마당에 이르면, 약장수는 죽방울놀이를 하고, 풍장단이 공연을 한다.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 모든 연행자가 어우러져 놀이판을 벌이고, 잦은계화타령을 하며 퇴장한다.

예산보부상난전놀이는 보부상과 장돌뱅이의 민속 문화를 담은 소중한 놀이다. 예산은 예로부터 시장이 활성화된 곳으로, 자연스럽게 보부상, 장돌뱅이와 같은 상업 종사자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보부상들은 체계를 갖춘 조합을 구성했고, 세련된 문화도 지니고 있었는데, 그 문화를 보존하고, 전통에 입각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예산보부상난전놀이에는 난전의 상황이 잘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전통 사회를 살아온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이 확인된다.

예산보부상난전놀이는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습해 경연작으로 출품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민속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전승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므로, 청소년층 학생들이 직접 이 민속을 학습하고 구연했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 부산농악/ 부산관광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재단이사장(동상)
상금 3,000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걸립농악이다. 부산농악의 걸립굿은 모듬굿, 기굿, 당산굿, 우물굿을 친 다음 집집이 방문해 지신밟기를 행하는 집돌이 순서로 진행된다. 부산농악은 다른 지역 걸립굿과 달리 당산굿에 앞서 기굿을 치는 특징이 있다. 집돌이는 대문굿, 성주풀이, 조왕굿, 장독굿, 곳간굿, 정낭굿, 마굿간, 용왕제 순으로 행한다.

무속의 '불설명당성주경'에서 영향을 받은 성주풀이 사설이 독특하다. 성주풀이의 사설이 길기 때문에 큰 소리인 성주풀이는 상쇠가, 작은 소리인 기타 지신풀이는 부쇠가 전담하는 이중적 가창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집들이 말미에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굿을 행한다는 점에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인다.

현재 부산농악은 걸립굿 중 판굿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부산농악의 치배는 농기수 1명, 농기 수행원 2명, 영기 2명, 호적수 1명, 꽹과리 2명, 징수 2명, 북수 4명, 장고수 4명, 소고수 8명, 들버꾸수 8명, 양반광대 1명, 포수 1명, 각시 1명, 하동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농기수와 호적수, 잡색을 제외한 치배들은 암수를 상징하는 짝수로 편성되어 있다. 치배들은 모두 흰 바지저고리와 짙은 감색[紺色] 조끼 위에 청·홍·황 삼색띠를 두른 채복을 입는다.

1. 농기수, 영기수, 호적수

농기는 검은색 천으로 지네발을 두른 긴 직사각형의 흰색 기로 중앙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좌측 변에는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제6호) 사단법인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회'를 적는다. 하단에는 청·황·홍색의 직사각형 천을 늘어뜨려 단다. 꿩장목에 매단 농기 상단 양쪽에 오색 천을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 장식한다. 그중 흰색 천을 더 길게 늘어뜨려 농기 수행원들이 양쪽에서 잡도록 했다. 농기 수행원은 양손으로 흰 천을 잡고 항시 농기를 수행한다. 굿이 연행되는 동안에는 흰색 천을 잡은 채 손춤을 추기도 한다. 영기는 두 개로, 삼지창에 영[令]을 쓴 삼각형 형태의 깃발을 단다.

2. 꽹과리

꽹과리는 두 명이며, 상쇠, 부쇠로 나뉜다. 긴 직사각형의 오색천을 여러 꽹과리채 끝에 매달아 장식한다. 상쇠와 부쇠는 삭모가 부드러운 부들삭모(부포삭모)를 단 전립을 쓴다.

3. 징수

징수는 두 명이며, 수징과 종징으로 나뉜다. 징은 전두리에 뚫린 구멍에 끈을 달아 손으로 잡고 친다. 징채에도 꽹과리채와 같은 방식으로 장식한다. 복색은 상쇠와 동일하다. 예전에는 고깔을 썼으나 지금은 상쇠와 같이 부포삭모를 쓴다.

4. 북수

북수는 네 명이며, 수북, 부북, 종북, 끝대북으로 나뉜다. 흰 천으로 끈을 만들어 어깨에 걸고 친다. 상쇠, 징수 등과 같이 부포삭모를 쓴다.

5. 장고수

장고수는 네 명이며, 수장고, 부장고, 종장고, 끝장구으로 나뉜다. 머리에는 부포삭모 대신 물채삭모를 단 전립을 쓴다.

6. 소고수(버꾸수)

소고수는 여덟 명이며, 수소고, 부소고, 종소고, 사소고, 오소고, 육소고, 칠소고, 팔소고 등으로 나뉜다. 장고수와 같이 물채삭모를 단 전립을 쓴다.

7. 들버꾸

소고수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소고수와 달리 흰색 꽃을 단 고깔을 쓴다.

8. 양반

사대부라고도 칭한다. 푸른 도포를 입고 정자관을 쓰며 한 손에는 담뱃대, 다른 한 손에는 부채를 든다. 예전에는 사대부와 더불어 팔대부도 있었다고 한다.

9. 포수

흰색 한복에 호피무늬의 조끼를 입고 벙거지를 쓴다. 꿩이 든 망태를 짊어지고 목총을 든다.

10. 각시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색색의 꽃을 단 고깔을 쓴다.

11. 하동

붉은 쾌자를 입고 주머니를 손에 든다. 얼굴에 흰 칠을 해 어릿광대 모습을 강조한다.

부산농악은 개방과 혼용에 근간을 둔 근현대 부산 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방굿', '공장굿' 등 근대 도시형 걸립굿의 면모 역시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산농악은 경상도를 비롯한 각 지역 전문 풍물 연희자들이 전승 주체가 되어 부산 지역 가락과 연희에 각 지역 뜬쇠들의 가락과 연희가 어우러지면서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 전라북도 / 고창농악 판굿 / 강호항공고등학교

종목 농악
수상 국립국악원장(동상)
상금 3,000

고창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속하며, 영광, 무장, 장성 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다. '고창농악 판굿'은 당산굿이나 샘굿, 매굿, 풍장굿, 문굿 등이 끝난 후 판을 벌여놓고 치는 굿을 말하며, 치배와 잡색의 기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굿이다.

가락 흐름에 따라 독자적인 구성을 갖춘 판굿은 굿패의 기량을 보여주는 연희적 목적은 물론, 판굿 전에 치러지던 일련의 의식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풀이에 대한 염원을 공동체적 신명으로 끌어내는 장이 되었다.

고창에서는 농악을 정월 당산제 기간과 여름 농사철에 집중적으로 행했다. 정월 당산제 기간에는 문굿, 당산굿, 샘굿, 줄굿과 줄다리기, 매굿, 판굿 등이 하나로 결합한 형태로 연행되는데, 이를 '보름굿'이라 부른다. 여름 농사철에는 대부분 마을에서 논매기를 마치고 풍장굿을 친다. 주로 정월과 여름철에 농악 연행이 집중되어 있지만, 유두나 칠석, 백중, 추석 등의 세시 절기에도 농악을 치며 놀았다. 또한 주술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주장매기 등도 연행되었다.

농악의 연행과 전승은 일반적으로 마을 공동체에 기반하지만, 고창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 세습무계 집단의 전문굿패 활동이 왕성했다. 이들의 활동이 마을 농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농악 연행이 전문 예능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마을 농악의 틀을 유지하면서 세습무계 집단의 예능이 결합된 형태의 농악이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문굿

걸궁패가 마을로 들어갈 때 마을 입구에 영기로 문을 세워 놓고 걸궁패의 기량을 시험하는 농악이다. 보통 걸궁을 하기 전에 걸궁패와 마을 사람들이 교섭을 하지만, 교섭을 하지 않고 걸궁을 나가기도 한다. 문굿 전체 과정은 복잡하게 진행되지만, 걸궁패와 마을 간의 의사교환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문세우기, 의사 타진, 기량 선보이기, 문열기 순으로 과정이 집약된다.

2. 당산굿

고창 지역의 동제는 '당산제'라로 불린다. 당산제는 유교식 제사와 풍물굿이 결합해 있기도 하고, 풍물굿으로만 진행되기도 한다. 이때 당산 앞에서 치는 굿을 당산굿이라고 한다. 주로 정월에 마을굿으로 연행하고, 여름철에 풍장굿을 할 때도 당산굿을 친다. 당산굿은 크게 들당산, 당산놀리기, 날당산 순으로 진행한다. '들당산'은 굿패가 당산에 들어갈 때 치는 것이고, '당산놀리기'는 당산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각 치배가 나와 개인놀이를 하는 것이다.

3. 줄굿과 줄다리기

고창을 비롯한 호남 서부 지역에는 줄다리기가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줄다리기는 마을굿의 한 과정으로 연행된다. 줄다리기는 줄을 만들어 줄굿을 치고,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 다음, 줄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오방돌기를 한다. 오방돌기를 마치면 당산에 줄을 감아 놓고 당산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매굿

고창 지역에서는 마당밟이를 매굿이라고 한다. 매굿은 마을의 당산제와 당산굿 전후에 가가호호 돌면

서 진행한다. 마을의 모든 가정집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녁 늦게까지 매굿을 쳤다. 매굿의 기본 구성은 '문굿-마당굿-조왕굿-철륭굿-성주굿'이다.

5. 풍장굿

풍장굿은 논매기 때 치는 농악으로, '두레 풍장' 또는 '만두레 풍장굿'이라고도 한다. 논매기는 보통 세 번에 걸쳐 하는데, 세벌매기에 해당하는 만두레 때 풍장굿을 친다. 논에 도착하면 영기, 장화, 굿패가 양쪽 논두렁에 서서 일꾼들의 흥을 돋운다. 일꾼들은 '어우름소리-진소리-논매기소리'로 구성된 소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외염싸기'를 하고 논매기를 마친다. 논매기를 마치면 농기, 영기, 장화, 무동, 상머슴, 주인, 일꾼, 굿패 순으로 마을에 간다. 이때 상머슴은 소 등에 타고, 주인은 지게에 올라타고 이동한다. 마을에 도착하면 닭죽을 쒀 다 같이 나눠 먹고, 밤새도록 판굿을 치며 논다.

고창농악은 지리적으로 호남의 고창, 영광, 장성, 함평 등지에서 권역화된 영무장농악의 전통을 잇고 있다. 또한 세습무계 무부의 걸궁패 활동을 통해 농악 예능이 발달했고, 지역 농악의 틀도 마련되었다.

걸궁패 활동이 활발해 걸궁패가 마을로 입장할 때 시험을 치르는 문굿이 발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깔소고춤이 발달해 호남우도농악의 멋을 잘 보여준다. 판굿에서는 군사놀이와 농사풀이 형태가 함께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 / 시흥월미농악 / 시흥월미농악보존회

종목 농악
수상 -
상금 -

'시흥월미농악'은 군자성황제, 새우개 장승놀이와 함께 시흥시에 전승되어온 민속놀이 중 하나로, 조선시대에는경기 지방은 물론 궁중에까지 널리 알려졌던 농악이다. '상직[上職] 풍장'으로도 부른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동제[洞祭]를 지낼 때 놀던 농악으로,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마을의 화목을 촉진하는 대동놀이였다.

시흥월미농악은 시기마다 행하는 목적과 명칭이 달랐다. 정월대보름이면 세초[歲初] 벽사진경 및 기풍[祈] 행사 목적으로 하며, 5월에는 파종 때 단오, 6월 김맬 때는 농번기라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7월에는 일손을 놓고 허리를 펴는 때이므로 호미씻이 또는 백중놀이라 했고, 8월에는 농민들의 경사스러운 명절(한가위)을 보내기 위해, 10월에는 추수를 끝낸 후 공공을 축하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동제[洞祭]를 지낼 때 하던 풍물놀이였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시흥월미농악이 농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마을을 하나로 만드는 민중의 대동놀이였던 것은 분명하다.

연행순서의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장굿
입장 전 얼림굿으로 가락을 어른 후, 덩덕궁이 장단으로 입장해 인사굿을 진행한다.

2. 돌림벅구
자즌가락을 연주하면 벅구들이 원진 안으로 들어가 또 하나의 작은 원을 형성해 돌림벅구를 진행한다.

3. 칠채오방감기
칠채장단을 연주하며 멍석말이를 진행하고 자즌가락으로 풀어 나온다.

4. 당산벌림 I
난타로 ㄷ자 형태의 당산을 만든 후 벅구양상치기, 벅구갈지자, 돌림벅구 순으로 진행한다.

5. 당산벌림 II
당산벌림 II 에서는 상쇠와 부쇠의 짝쇠놀음에 이어 채발림놀음, 소고좌우치기, 무동과 벅구잽이의 두줄백이 순으로 진행한다.

6. 네줄백이
상쇠를 기준으로 네 개의 줄을 만들어 자즌가락 및 좌우치기를 진행 후 덩덕궁이장단으로 풀어나온다.

7. 쩍쩍이
춤 피조리가 원 안으로 들어가 작은 원을 형성해 쩍쩍이, 타령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8. 밀벅구

덩덕궁이 장단에 맞춰 피조리들이 풀어나오며, 큰 원을 형성 후 마당삼채 장단으로 이어진다. 이때 벅구잽이들이 원안으로 들어와 작은 원을 형성하고, 자즌가락으로 넘어가 밀벅구를 진행하며 판을 마무리한다.

9. 개인놀이

당산벌림형태로 진을 형성해 벅구놀이, 설장고, 열두발놀이를 진행한다.

10. 퇴장굿

개인놀이가 끝난 후 덩덕궁이를 연주하며 원을 형성하고, 인사굿 진행 후 자즌가락으로 판굿을 마무리하며 퇴장한다.

시흥월미농악은 '쇠 짝쇠 놀음'을 시작으로 '칠채 오방감기'가 판굿 초입에 편성되는 특징이 있다. 무동과 소고의 농경모의 행위와 진풀이 형식이 다채롭게 구성되며, '짠지패가락', '무등패가락', '도드리가락' 등 마을의 고유한 언어와 절차굿이 존재한다. 또한 벅구잽이들의 상모선이 깔끔하다. 힘있고 절도있는 소고 동작과 웃다리농악의 꽃인 무동놀음 역시 특징을 이룬다.





4.2. 갈래별 서술

17-22회, 청소년부 가면극 종목의 10년

청소년부 가면극은 지난 10년간 가장 단조로운 양상을 보여준 종목이라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번갈아가며 동일 작품, 즉 고성오관대로 출전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성오광대보존회의 집약적인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가면극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청소년민속예술제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가면극에 집중하는 것을 단순한 현상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가령 방탄소년단의 노래에서 확인되었듯, 청소년이 '페르조나'에 관심이 있다는 원초적 욕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욕망이 분열해서 작동하는 시대에 전통적인 민속극 가운데 가면극을 선택하고 이를 청소년과 연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소통의 돌파구를 가지고 있는 고성오광대의 출품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가면극이 시들한 것이 아니고, 가면극과 만나게 하는 방법이 시들해진 것임을 명확하게 반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면극에 고성오광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 다른 대체물이 섬부한데, 왜 이를 활용하고 원용하면서 소통과 공감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는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깊이 있게 자각해야 한다.

청소년부의 가면극 분야 출전 양상과 경과를 정리하면서 가면극의 중요성을 다시 각성하는 계가가 되었다. 청소년의 미래 선택을 기다리지 말고 청소년이 스스로 개척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긴요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표-8> 청소년부 가면극 종목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
2010(17회)	고성오광대	철성중학교	경남
2011(18회)	고성오광대	신반정보고등학교	경남
2012(19회)	고성오광대	철성중학교	경남
2013(20회)	고성오광대	신반정보고등학교	경남
2015(22회)	고성오광대	철성중학교	경남

17-22회, 청소년부 농악 종목의 10년

우리 농악은 세계가 인정한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세계인의 신명이 되고 난 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문화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은 힘이 드는 작업일 뿐더러, 문화 파편화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장래를 설계할 목적으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를 열어왔다. 청소년이 고립 없이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민속예술과 동질감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한다는 측면에서 축제가 열리는 것은 분명 큰 가치가 있다.

농악은 우리 청소년이 향유하고 유지하면서 고립을 면하고 문화적 연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 아닐까 싶다.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학교 차원에서 굳건한 의지로 전승하고 경연해야 할 축제의 산물이 바로 농악인 것이다. 농악을 통해 청소년층이 민족문화의식과 민속예술을 함양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청소년부 농악 종목 출품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청소년부 농악 종목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명
2010(17회)	정선낙동농악	정선중고등학교	강원
	웃다리풍물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소흥문굿	대서초등학교	전남
	가루뱅이농악	조일공업고등학교	대구
	호남우도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고창우도농악	고창성송초등학교	전북
	단석풍물	무산중고등학교	경북
	웃다리풍물	문산제일고등학교	경기
	웃다리풍물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서울
2011(18회)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무을진굿	구미오상고등학교	경북
	청주신촌풍장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
	정선낙동농악	정선중고등학교	강원
	호남우도농악	동신중학교	광주
	남원농악판굿	남원학생농악단	전북
	부산농악	부산 관광고등학교	부산
	가루뱅이농악	조일공업고등학교	대구
	웃다리농악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제주해녀농악	중앙고등학교	제주
2012(19회)	광주광지원농악	광주중앙고등학교	경기
	청주신촌풍장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
	날뫼북춤	대구북중학교	대구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	대전
	호남우도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제주큰굿	함덕고등학교	제주
	김천빗내농악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경북
	낙안읍성군악	순천낙안중학교	전남
	김제농악 판굿 및 도둑잽이굿	김제시청소년농악단	전북
	양양쟁기동농악	현북중학교	강원
	웃다리농악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
	웃다리풍물	병천고등학교	충남
2013(20회)	공주웃다리충청풍장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광주지산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날뫼북춤	대평중학교	대구
	괴산농악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광지원농악	광주중앙고등학교	경기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양양쟁기동농악	현북중학교	강원
	김제농악 판굿 및 도둑잽이굿	덕암정보고등학교	전북
2014(21회)	원주매지농악	영서고등학교	강원
	함안화천농악	양덕중학교	경남
	공주걸립농악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청주신촌풍장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부
	광주지산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날뫼북춤	대구서부중학교	대구
	호남우도농악	여수시청소년전통연희단	전남
	김제농악과 도둑잽이굿	김제시청소년농악단	전북

2015(22회)	광주지산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공주걸립농악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무을농악	오상고등학교	경북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낙안읍성군악	순천낙안중학교	전남
2016(23회)	무을농악	오상고등학교	경북
	공주걸립농악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날뫼북춤	대구서부중학교	대구
	청주신촌풍장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
	광산농악	대촌중학교	광주
	함안화천농악	양덕중학교	경남
2017(24회)	무을농악	오상고등학교	경북
	광산농악	대촌중학교	광주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진주삼천포12차농악	남양중학교	경남
	부산농악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
	부천 중리풍물놀이	부천문화원	경기
	괴산 연풍농악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2018(25회)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창원퇴촌농악	진영여자중학교	경남
	철산리두레농악	충현고등학교(광명문화원)	경기
	고창농악판굿	강호항공고등학교	전북
	광산농악	대촌중학교	광주
2019(26회)	비산농악	서대구중학교	대구
	광산농악	대촌중학교	광주
	부산농악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
	시흥월미농악	시흥월미농악보존회	경기
	고창농악 판굿	강호항공고등학교	전북
	창원퇴촌농악	진영여자중학교	경남

청소년부에서는 총 77개 단체가 출전했는데, 이 가운데 중복 출전이 30건에 육박했다. 청소년부의 경우 신규 발굴 양상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러 팀이 두 번 이상 대회에 참가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중복 참가의 경우라도 학생 구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전한 중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득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복 출전을 통해 팀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

청소년부에서는 농악이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이다. 일반부와 달리 청소년부는 다른 민속놀이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악 종목에서 가장 많은 출전 양상을 보이며, 한 해 12개 지역에서 출전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매년 같은 작품이 거듭 출전해 해묵은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참신함 없이 진부한 양상을 보인다.

17-22회, 청소년부 민요 종목의 10년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유기적으로 연동한다. 민요 갈래는 우리 소리의 핵심을 집약하므로, 마땅히 청소년의 민요 학습과 전승의 기본 조건이 된다. 청소년부 민요 출품작은 토박이 소리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민요 후속세대에 해당하는 신명을 연출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부 민요 종목 출품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0> 청소년부 민요 종목 출품작

연도(회차)	작품명	기능	단체명	지역명
2010(17회)	팽토소리	의식요	대정고등학교	제주
2011(18회)	양주들노래	농업노동요	양주백석고등학교 4-H회	경기
	조도닻배노래	어업노동요	고성초등학교	전남
2012(19회)	강화용두레질소리	농업노동요	덕신고등학교	인천
2014(21회)	좀녀(해녀)놀이 이어도사나	어업노동요	세화고등학교 숨비소리	제주
2015(22회)	평택민요 어업요(어로요)	어업노동요	경기물류고등학교	경기
	충북 괴산두레농요	농업노동요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다대포후리소리	어업노동요	다대중학교	부산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농업노동요	김제시청소년농악단 (덕암정보고등학교)	전북
2016(23회)	강화용두레질소리	농업노동요	덕신고등학교	인천
	버들개농요	농업노동요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경기
	다시들노래	농업노동요	나주다시중학교	전남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농업노동요	김제시청소년농악단 (덕암정보고등학교)	전북
2017(24회)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농업노동요	덕암정보고등학교 (김제시청소년농악단)	전북
2018(25회)	괴산두레농요	농업노동요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평창순행취타아라리	유희요	봉평중학교	강원
2019(26회)	괴산두레농요	농업노동요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청소년부에서는 17개 작품이 나왔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12개 작품이 된다. 농업노동요 6개, 어업노동요 4개, 의식요 1개, 유희요 1개 작품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부는 중복 출전하더라도 참가 학생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3년이 지나면 모두 졸업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봐야 한다.

청소년부 민요 작품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상당수 학교에서 민요를 개사해서 불렀다는 것이다. 평창순행취타 아라리팀에서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가사를 모두 새로 만들어 노래했다. 일반 농요를 부른 팀에서도 간혹 자신의 지역을 가사에 넣거나, 학생이 이해할 만한 가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맞는 가사를 만들어 부르는 부분은 권장할만한 일이라 본다.

17-22회, 청소년부 무용 종목의 10년

무용 종목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두드러진다. 첫째, 제한된 부문의 출품작이 학교를 달리한 채 출전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다른 특정 분야의 갈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농악의 특정 국면을 강조하면 다른 각도에서 춤으로 분리된다는 점이다.

청소년부에 무용 종목으로 출전한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청소년부 무용 부문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명
2010(17회)	범패와 작법무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
2011(18회)	범패와 작법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
2011(18회)	검무	정의여자고등학교	서울
2012(19회)	동래지신밟기	동래원예술고등학교	부산
2015(22회)	날뫼북춤	대평중학교	대구

2017(24회)	날뫼북춤	대구북중학교	대구
2017(24회)	범패와 작법무 현충재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
2018(25회)	날뫼북춤	서대구중학교	대구

청소년부 무용 종목은 9개 작품이 나와 중복을 제외하면 총 4개 작품이 된다. 인천의 '범패와 작법무', 서울의 '검무', 부산의 '동래지신밟기', 대구의 '날뫼북춤'이 그것이다. 일반부의 무용 종목과 동일한 작품은 '날뫼북춤' 뿐이며, 나머지는 중복되지 않는다. 한편 '동래지신밟기'는 농악 종목에 더 가깝다고 본다.

흥미로운 점은 인천의 범패와 작법무는 문학정보고에서 인천기계공고로, 대구의 '날뫼북춤'은 대평중학교에서 대구북중학교를 거쳐 서대구중학교로 대회마다 출전 학교가 바뀌었다. 그만큼 여러 학교에서 이들 작품을 전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17-22회, 청소년부 민속놀이 종목의 10년

청소년은 곧 민속문화의 미래다. 이들이 민속놀이를 통해 경험을 쌓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민속예술축제 참여로 전문성을 고양한다면 우리의 전통이 살아있는 미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민속놀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신명의 공동체를 체험하며, 민족의 과거를 확실히 다지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각기 분리되어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을 벗어나는 훌륭한 방편이 바로 공동체 놀이를 체험하는 것이다. 공동체 놀이를 통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선배와 후배 또는 앞선 세대와 후속 세대가 이질감을 극복하고 소통할 것이다. 민속놀이의 제반 면모를 공통 주제로 삼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에게 값진 체험이 되고 있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나온 민속놀이를 회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청소년 민속놀이 분야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
2010(17회)	천안거북놀이	병천고등학교	충남
	수영농청놀이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
	음성거북놀이	삼성중학교	충북
2013(20회)	강강술래	진도실업고등학교	전남
	영감놀이	중문고등학교	제주
	강화용두레질소리	덕신고등학교	인천
	수영농청놀이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
2014(21회)	철산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	광명문화원	경기
2015(22회)	메구월일석춘경걸궁	한림고등학교	제주
2016(23회)	메구월일석춘경걸궁	한림고등학교	제주
	건금마을 용물달기	율곡중학교, 솔올중학교, 문성고등학교	강원
	수영농청놀이	부산문화여자고들학교	부산
2017(24회)	서산 박첨지놀이	음암중학교	충남
	고성강강술래	고성중학교	전남
	논매기와 두레싸움	영서고등학교	강원
2018(25회)	수영농청놀이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
	예산보부상놀이	덕산고등학교	충남
2019(26회)	예산보부상난전놀이	덕산고등학교,	충남

		예산문화원	
	비금뜀뛰기강강술래	비금중학교	전남

이미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었던 많은 민속놀이가 청소년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공동체 신명에 대한 지속과 변화를 의미한다. 민속놀이를 통해 청소년의 미래가 과거에 있다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민속놀이와 사이버놀이가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네 삶과 직결된 놀이를 정신적 공유를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락한 것인가를 인지하고, 동시에 미래에 필요한 신명의 도가니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7-22회, 청소년부 의례 종목의 10년

청소년부 의례 종목에도 제약의 여파가 보인다. 앞에서 거론한 일반부 의례 종목에서도 나타났듯, 청소년부의 경우에도 문제가 다소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부 의례 부문 출품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3> 청소년부 의례 종목 출전 작품

연도(회차)	작품명	단체명	지역명
2012(19회)	제주큰굿	함덕고등학교	제주
2014(21회)	발우공양	범패와작법무보존회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
2015(22회)	발우공양	범패와작법무보존회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
2017(24회)	메구월일석 춘경걸궁	한림고등학교	제주
2018(25회)	바람질따라영등할망오시네	함덕고등학교	제주
2018(25회)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노화중학교	전남

의례 종목에 제약이 있음을 위에서 언급했는바, 청소년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청소년부 의례 종목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6개 작품만이 경연에 참여했다. 발우공양이 2회 참여한 것을 포함하면 '제주큰굿', '발우공양', '메구월일석 춘경걸궁', '바람질따라영등할망오시네', '완도장좌리당제' 등 겨우 5개 작품이 출전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출품을 한 점에는 큰 의의를 부여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작품을 출품해 눈길을 끈다.

제주도는 제19회 대회에는 '제주큰굿'을 구성해 출품했다. 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이다. 굿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의례를 연속으로 행하는 일종의 종합제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두이레 열나흘 굿'으로도 칭한다. 신을 모시는 초감제부터 개별의례를 각각 진행하는데, 경연을 위해 무대를 구성하면서 다소 과하게 연출을 한 것이 눈에 보인다. 민속을 어떻게 압축하고 연출하는지를 참가 학생들이 요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러한 점에서 문제를 적지 않게 드러냈다.

인천광역시는 '발우공양'으로 제21회와 제22회 대회에 연속 출전했는데, "발우공양이 과연 민속인가"라는 의문이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이야기로 집약할 필요가 있어 연출력 크게 요구된다. 강화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을 옮기는 의식을 거행할 때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을 봉행했는

데, 이때 발우공양을 함께 진행했다. 그런데 발우공양은 원래 불가의 식사예절이므로, 이를 의례로서 평가할 수 있는가가 바로 의문의 핵심이다. 물론 참가팀의 노력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지침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4.3. 압축과 의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존재 이유가 사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민속예술의 미래가 청소년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노소갈등이나 보혁갈등은 언제나 상존했다. 따라서 기성세대와 신진세대의 균열을 민속예술로 극복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인류 최초의 학교인 수메르인들의 필경사 학교 '에두바( , e_2-dub-ba-a, edubba)'에서 발견된 쐐기 점토판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요구하는 대목이 있다. 청소년이 민속예술을 배우면서 존경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신세대 입장에서 '꼰대'에 지나지 않는 헛된 일이다. 청소년이 열심히 우리 민속예술을 주목하고, 이들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미래 전망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학교 교육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전승하고 학습하면서 위대한 족적을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력이 결국 미래를 여는 것이고, 이들의 일생이 우리 민족 정서를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결국 이들의 씨앗이 열매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다. 학생들이 주로 힘을 쓰고 있는 영역이 바로 농악이라는 점을 우선 인정하고, 아울러 이들의 노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들이 주목하고 재발견하는 것은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의 선호로 유행과 인기 판도가 달라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성과가 처음에는 미약할지 몰라도, 이들의 공력은 무한하고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설계와 고안 역시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전통예술이 지속가능한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과거의 예술은 과거에서 끝나야 하는 것인지 등과 같은 의구심은 있을 수 있다. 전통예술을 미래로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전통자산, 특히 청소년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미래로 이어가면서 링거병을 꼽고 연명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민속을 학습한 학생들에게서 전통을 혁신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전통예술 중에서는 농악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데, 바로 그 점을 공략하고, 주목하며,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필요성이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악을 두루 섭렵하고, 그 전통을 새롭게 승화하는 것이 전국청소년예술축제의 탁월한 설정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통예술 가운데 농악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전통예술이 살아야만 한국우리 예술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몇 가지 사자성어를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가령 온고지신[溫故知新], 법고창신[法古創新], 계왕개래[繼往開來] 등을 거론하면서 옛것을 이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기대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고창신'이다. 농악을 알고 농악을 바꾸는 능력이 필요하고, 농악을 벗어나면서도 농악의 장점을 아는 것이 곧 혁신이다. 민속예술을 보는 우리 청소년의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

5. 한국민속예술축제 총괄

이 장에서는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크게 드러냈던 주변부를 총괄하는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현지민속심사를 개관하고, 둘째, 특별 기획 행사를 점검하며, 셋째, 이 두 가지의 면모를 총괄해 그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다.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지속, 변화, 흐름의 양상을 함께 서술할 예정이다.

1. 현지민속심사

한국민속예술축제의 '현지민속심사' 제도는 학자들과 주최 측의 부심이 낳은 결과물이다. 현지 민속의 현상을 존중하고, 그동안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2010년 제51회 대회에서부터 신설된 이래, 대략 3년의 운영 기간을 거쳐 사라진 기획이었다.

까다로운 무대화와 시간 제약 등에서 나온 기존의 문제점을 민속 현장, 즉 현지의 면모로 해결하고자 하는 착상이 개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우선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공연장의 규모였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그 시작을 서울의 궁에서 했는데, 원래 하층이 향유한 것들을 궁전에서 연행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제7회 지방 대회부터 공설운동장과 같은 큰 규모의 장소에서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소의 영향으로 출연작의 규모도 대형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위한 제안과 노력이 이어졌다. 대형 운동장과 무대 경연을 나눠 실시한 사례도 있었으며, 다수의 관객과 군중이 특장인 면모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점차 경연 장소를 축소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제41회 대회가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 야외마당에서 열리면서 '작은 공간의 이점'에 대한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제43회 대회 때는 '행사의 대형화,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 인원을 80명 이내로 제한(심사에 반영)'하고, '공연장소의 규모를 고려(잔디마당 22,000여 평)해 참가작품 공연 준비'하도록 했다. 이후 축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으며, 제52회 여수 대회부터는 전통 문양을 바탕으로 한 천막을 제작해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회차마다 고안을 거듭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감지하고 변화를 실현했다.

경연 장소의 규모는 출품되는 작품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회 초기에는 가면극이, 이후에는 농악이,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경연할 당시에는 고싸움놀이나 차전놀이 등 규모가 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 즉 경연 장소의 규모가 커지면 작품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규모가 작아지면 작품도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에 나타났다. 어떠한 것들이 주목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굽이쳤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마을 단위 민속이 많고, 한국의 마을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장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규모 때문에 제한을 받는 작품도 있었고, 큰 장소 때문에 작품으로 만들 수 없는 종목들도 분명 있었다. 예를 들어 서사민요, 설화, 소규모 민속 등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만으로 운영되는 작품은 규모가 작아진 경연장에서조차도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작품이 가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민속예술축제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나 2016년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속예술뿐만 아니라 전통 기술, 구전 및 표현 등 넓은 범주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존중하면서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면모를 일신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한 사정을 타개하면서 시도된 현지민속심사가 안타깝게도 한계를 보인 것이다.

2. 특별행사

2.1. 특별행사의 등장과 십 년간의 흐름

경연이 중주를 이루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특별행사' 또는 '특별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여수 거북선공원에서 열린 2011년 제52회 대회부터다. 특별행사는 주로 경연이 끝난 저녁 시간에 열렸다. 처음 등장한 제52회 대회부터 제59회 대회까지 펼쳐진 특별행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회차(연도)	개최장소(기간)	행사 내용(일시)
제52회 (2011)	전남 여수 (10.06~09)	• 예비축제 <개열림굿>(10월 3일 15시~19시 30분) • 여수 문화예술인의 밤 <동동>(10월 6일 19시 30분~20시 30분) • 민속의 밤 <막걸리와 민속학>(10월 7일 19시~23시) • 명인들의 전통춤 향연 <마당춤 명무전>(10월 8일 19시 30분~20시 30분)
제53회 (2012)	경북 김천 (10.11~14)	• 경북 민속예술인의 밤 <치야칭칭 나네>(10월 11일 19시~21시) • 막걸리와 민속 <굿 is Good>(10월 12일 19시~24시) • 풍물 명인전 (10월 13일 20시~22시)
제54회 (2013)	충북 단양 (10.03~06)	• 김대균 줄타기와 함께하는 충청북도 민속인의 예술마당 <신명 나는 곤나비>(10월 3일 19시~21시) • 민속 명인전 & 전통문화예술공연 <땅끝에서 땅끝으로>(10월 4일 19시~21시) • 식전행사 <터울림마당>(10월 5일 9시~9시 30분)
제55회 (2014)	강원 정선 (10.02~05)	• 막걸리와 민속 I <풍물의 몸을 보다>(10월 3일 19시 30분~21시 30분) • 막걸리와 민속 II <시장과 인문학>(10월 4일 20시~22시)
제56회 (2015)	경기 평택 (10.08~11)	• 청소년의 밤 <가면 쓰고 다 같이 춤을>(10월 9일 19시~22시) • 경연참가자의 밤 <심봉사 평택잔치와 뺑덕어멈 콘테스트>(10월 10일 19시~21시 30분)
제57회 (2016)	전북 전주 (10.13~16)	• 좌담회 <민속예술의 60년을 조망하다>(10월 13일 19시~21시 30분) • 온고을 길꼬내기 (10월 14일 17시~19시) •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 <장사익의 소리고백>(10월 14일 19시 30분~21시) •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I <이준익의 필름고백>(10월 15일 19시~20시 30분)
제58회 (2017)	경남 김해 (09.21~24)	• 세미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과거와 현재>(11월 1일 11시~18시)
제59회 (2018)	제주 서귀포 (10.12~14)	• 세미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방향과 과제>(5월 30일 10시~15시)

위에서 정리한 표를 보면, 특별행사는 크게 '개최지역 민속예술인이나 경연참가자들의 밤', '민속 관련 토론회',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과는 거리가 있는 특별행사도 있었다. 제52회의 '예비축제 <개열림굿>, 제54회의 식전행사 <터울림마당>, 제57회의 '온고을 질꼬내기'가 그것이다.

제52회 대회의 예비축제 <개열림굿>은 여수의 연안과 바다를 여는 굿으로, 행사 전에 치러지는 사전행사의 성격이 강했는데, 행사 일시도 축제 시작보다 무려 사흘 앞선 10월 3일이었다. 이후 이와 같은 형식의 행사는 <달고사>(제55회), <아리랑로드>(제55회), <즐겁게 탈탈탈>(제56회), <평택그루브단(길거리 워크숍)>(제56회), <꽃놀이난장>(제57회), <영고 1>(제57회), <영고 2>(제57회), <신들소리>(제57회), <오광대>(제58회), <재주제주>(제59회) 등으로 나타났다. '사전행사'라는 하나의 독립 영역으로 진행된 것이다.

제54회 대회의 식전행사 <터울림마당>과 제57회 대회의 '온고을 질꼬내기'는 식전행사, 전야제 길놀

이 또는 거리행진 성격을 띤 것으로, 제51회의 '길트기', 제52회의 '길놀이', 제53회의 전야 길놀이 대동한마당 '판' 등의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와 유사했다. 이 역시 특별행사라기보다는 전야 길놀이나 입장식 바로 직전에 행해지는 식전행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특별행사 성격과 어울리지 않거나 이후 독립 영역에서 행한 것들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의 특별행사는 앞에서 언급한 '개최지역 민속예술인이나 경연참가자들의 밤', '민속 관련 토론회',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은 대회에 따라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해 나타나기도 한다. 민속예술인의 밤과 명인의 공연이 결합하거나, 토론과 민속예술인의 밤이 어우러지기도 한다. 민속 관련 토론회와 명인의 공연이 함께한 경우도 있다. 다만 그 지속의 정도 일정하지는 않다. 대회에 따라 공연이 강조되기도 하고, 토론회가 강조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통시적 흐름의 양상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2.2. 특별행사의 세 가지 유형

앞에서 살폈듯이 다양하게 펼쳐진 특별행사는 '개최지역 민속예술인이나 경연참가자들의 밤', '민속 관련 토론회',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 등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이후에 나타난 특별행사의 세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역 민속예술인의 밤 또는 경연참가자들의 밤' 유형

'지역 민속예술인의 밤' 또는 '경연참가자들의 밤'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여수 민속예술인의 밤 <동동>'(제52회), '경북 민속예술인의 밤'(제53회), '김대균 줄타기와 함께 하는 충청북도 민속인의 예술마당 <신명 나는 곤나비>'(제54회), '청소년의 밤 <가면 쓰고 다 같이 춤을>'(제56회), '경연참가자의 밤 <심봉사 평택잔치와 뺑덕어멈 콘테스트>'(제56회) 등이 있다. 지난 10년의 초중반까지는 이 유형의 특별행사가 벌어졌다.

초기인 제52회에서 제53회까지는 '여수 민속예술인의 밤 <동동>'이나 '경북 민속예술인의 밤'에서처럼 지역 민속예술인의 공연과 소통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었다. 그러다가 제54회 때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과 결합해 '김대균 줄타기와 함께 하는 충청북도 민속인의 예술마당 <신명 나는 곤나비>'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제56회에 이르러 지역 민속예술인 중심이 아닌, 경연참가자와 청소년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청소년의 밤 <가면 쓰고 다 같이 춤을>'이나 '경연참가자의 밤 <심봉사 평택잔치와 뺑덕어멈 콘테스트>'가 그 사례다. 2015년 제56회 이후 이 유형의 특별행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 유형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명인들의 전통춤 향연 <마당춤 명무전>'(제52회), '풍물 명인전'(제53회), '민속 명인전 & 전통문화예술공연'(제54회), '막걸리와 민속 I <풍물의 몸을 보다>'(제55회), '막걸리와 민속 II <시장과 인문학>'(제55회), '경연참가자의 밤 <심봉사 평택잔치와 뺑덕어멈 콘테스트>'(제56회),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 <장사익의 소리고백>'(제57회),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I <이준익의 필름고백>'(제57회) 등이 있다. 2011년 제52회부터 2016년 제57회까지 이 유형의 특별행사가 벌어졌다.

이 유형은 초기인 제52회에서 제54회까지 '명인들의 전통춤 향연 <마당춤 명무전>', '풍물 명인전', '민속 명인전 & 전통문화예술공연' 등과 같이 그야말로 '명인의 공연'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55회부터 제57회까지는 다른 유형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민속 관련 토론회’와 결합하거나, ‘민속예술인의 밤’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막걸리와 민속 I <풍물의 몸을 보다>’와 ‘막걸리와 민속 II <시장과 인문학>’의 경우,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이 ‘민속 관련 토론회’와 결합한 사례다. 동일한 사례를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 <장사익의 소리고백>’이나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I <이준익의 필름고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경연참가자의 밤 <심봉사 평택잔치와 빵덕어멈 콘테스트>’는 ‘민속예술인의 밤’ 유형과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 유형이 결합한 사례가 된다.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 유형 역시 2016년 제57회 이후에는 자취를 감췄다.

(3) ‘민속 관련 토론회’ 유형

‘민속 관련 토론회’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민속의 밤 <막걸리와 민속학>’(제52회), ‘막걸리와 민속 <굿 is Good>’(제53회), ‘막걸리와 민속 I <풍물의 몸을 보다>’(제55회), ‘막걸리와 민속 II <시장과 인문학>’(제55회), ‘좌담회 <민속예술의 60년을 조망하다>’(제57회),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 <장사익의 소리고백>’(제57회),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I <이준익의 필름고백>’(제57회), ‘세미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과거와 현재>’(제58회), ‘세미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방향과 과제>’(제59회) 등이 있다. 2011년 제52회에 등장해 2019년 제59회까지 이 유형의 특별행사가 벌어졌는데, 2013년 제54회와 2015년 제56회 때는 잠시 사라지기도 했다.

초기인 제52회부터 제55회까지는 문턱이 낮고 가벼운 소통 중심의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토론회’ 성격을 띤 것이다. 제55회의 ‘막걸리와 민속 I <풍물의 몸을 보다>’과 ‘막걸리와 민속 II <시장과 인문학>’은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과 결합하기도 했다. ‘막걸리와 민속 I <풍물의 몸을 보다>에서는 우도 설장구 김동언, 채상 소고춤 김운태, 징놀이 김정숙, 여성농악 설장구 이영단 등의 공연이, ‘막걸리와 민속 II <시장과 인문학>’에서는 진도다시래기의 강준섭과 조도 닻배놀이의 조오환의 공연이 함께 벌어졌다. 제57회에서는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소리꾼 장사익과 영화감독 이준익이 민속과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공연처럼 펼쳐 나갔다.

이러한 ‘민속 관련 토론회’ 유형의 특별행사는 2016년 제57회부터 다소 전문적이고 문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제57회의 ‘좌담회 <민속예술의 60년을 조망하다>’가 그 사례다. ‘세미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과거와 현재>’(제58회)와 ‘세미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방향과 과제>’(제59회)에서는 사실상 독립적인 세미나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기간이 아닌 시기에 벌어져 축제의 특별행사라는 성격을 잃게 된 것으로, 사실상 2017년부터는 ‘민속 관련 토론회’ 유형이 한국민속예술축제 행사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2.3. 특별행사의 통시적 흐름과 미래 전망

특별행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그 흐름이 일관되지는 않다. 대회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뜻이다. 2011년 여수에서 열린 제52회 때는 특별행사의 세 유형이 모두 나타났으며, 이 흐름은 다음 대회인 2012년 제53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제53회에서는 ‘민속 관련 토론회’가 많이 약화한 모습을 보였다. ‘막걸리와 민속 <굿 is Good>’이라는 행사를 벌였지만, 굿 공연이 중심이었고, 관련 토론은 사실상 전개되지 못했다. 이러한 양상은 2013년 제54회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때는 아예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속 관련 토론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민속예술인의 밤’과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 중심으로 특별행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흐름은 2014년 제55회에 이르러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민속예술인의 밤’ 유형이 사라지고,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과 ‘민속 관련 토론회’가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막걸리와 민속

I <풍물의 몸을 보다>'와 '막걸리와 민속 II <시장과 인문학>'이 그것이다. 하지만 제55회의 새로운 양상은 차년도 제56회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졌다. 청소년과 경연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초점을 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56회의 '청소년의 밤 <가면 쓰고 다 같이 춤을>'과 '경연참가자의 밤 <심봉사 평택잔치와 빵덕어멈 콘테스트>'는 '민속예술인의 밤' 유형을 보다 확장한 것이다. 청소년 참여를 강조했으며,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이 '민속예술인의 밤'과 결합한 모습을 보였다.

제56회의 '함께 어우러짐의 강조'라는 지향점 역시 2016년 제57회까지 이어지지 못한 일회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제57회 때는 '민속 관련 토론회' 유형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 <장사익의 소리고백>'이나 '두 남자의 전통이야기 II <이준익의 필름고백>'은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과 '민속 관련 토론회'가 결합한 형태였다. 여기에 '좌담회 <민속예술의 60년을 조망하다>'는 보다 전문적인 '민속 관련 토론회' 성격을 띤 것이었다.

제57회 때의 전문적인 좌담회 시도는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을 준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지향은 2017년 제58회와 2018년 제59회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58회의 '세미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과거와 현재>', 제59회의 '세미나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방향과 과제>'가 좋은 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이 다가오면서 사전 준비 성격이 강한 '민속 관련 토론회'가 중심이 된 것이다. 제58회와 제59회에는 이 세미나를 제외한 별도의 특별행사가 사실상 없었다. 더구나 세미나 행사마저 축제 기간에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 두 대회에서는 특별행사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민속예술축제 특별행사의 통시적 흐름은 제 유형의 공존(제52회)에서,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가(제53회, 제54회), '민속예술 명인들의 공연'과 '민속 관련 논의'의 결합(제55회, 제57회)이나 '민속예술인의 밤'의 강조(제56회)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다시 '민속 관련 논의'의 강조(제57회~제59회)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을 염두에 두고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민속 관련 논의'는 축제 기간에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제52회 때 처음 나타난 특별행사의 세 유형이 지난 10년의 후반부에 이르러 사실상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지난 십 년간의 특별행사 흐름을 살펴본 결과, 일정한 흐름이 지속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2017년 제58회 이후부터는 특별행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예술감독이나 축제 추진위원회의 지향점이 일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행사가 만들어졌다가도 다시 사라진 것이다.

지난 십 년 사이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것 중 하나가 특별행사다. 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 들쑥날쑥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행사 하나하나를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실마리가 함축된 경우가 많다. 경연을 품으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지향하는 시도가 여러 특별행사에서 보인 것이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중심에 경연이 아닌 또 다른 것을 포함하려 할 경우, 그 실마리는 지난 십 년간의 특별행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미래를 특별행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며, 우리가 특별행사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6.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 향후 전망과 도약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한국 민속예술의 지속과 변화다. 과거의 것이 이어지면서 우리 민속예술사의 형태를 하나로 유지한다는 말이며, 하나이므로 과거의 것이 현재의 것이 되고, 현재의 것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통이 이어지면서 하나로 굽이쳐가는 현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과거의 것과 다른 현재를 통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하나가 아니므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변화가 곧 새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라진 환경 속에서 미래를 새롭게 여는 일정한 변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지속과 변화를 구현해왔다.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의 모든 면모는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숫자 ‘60’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60년을 주기로 간지를 편성하므로 이제 제2천년기에 이른 셈이다. 그 소중한 주기 속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각인되고 역사의 일부분으로 남은 것은 특히 기려 마땅한 일이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이제 환갑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주기를 이룩할 예정이며, 그 주기는 민속예술축제의 새로운 전망과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함이 분명하다. 그만큼 연륜이 깊어졌고, 가야 할 길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기려 마땅하다.

이 축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세월이 흘러가도 잊히지 않을 우리네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간직하고자 소리, 놀이, 풍물굿, 춤, 탈춤 등을 꾸며서 겨루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우리나라 마을과 고을의 감춰진 보배를 선보이고, 그것이 우리 강산 전역에 널리 퍼지게 해 민속예술이 민족예술이 되도록 한 기쁜 날들의 기록이었다.

전국의 신명 나는 판들이 모여서 모두 하나가 되면서 우리 것 가운데 잊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것으로 들썩이는 신명 나는 놀이판을 만든 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60년의 기록을 가졌다. 축제가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온 역사를 이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민속예술축제 60년에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신명으로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날들의 소중한 기록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한국적인 것이 얼마나 이채로운 것인지 그 경이로움을 재발견하는 순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의 산하에 걸맞게 빚어진 우리의 보물들이 자질구레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이 땅의 무늬만큼이나 경이로움으로 아롱지는 소중한 유산임을 거듭 일깨운 역사이기도 하다. 그것을 찾아 되돌아보면서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한 계기가 바로 한국민속예술축제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작렬하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구릿빛으로 검게 그을린 역사 속 참다운 경이로움은 우리 모두의 경탄을 자아냈다.

전국이 들썩이는 축제가 없었던 차에 갈증을 풀어줄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동네에서 놀던 놀이를 무대에 세우고, 전국을 다니며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린 축제의 장이 된 것은 가장 소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사람들이 평등하고 기림을 받는 놀라운 대동의 잔치를 하면서 ‘백성들이 하늘이고 주인’인 역사를 이룩했으므로 소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축제로 일군 민중의 역사,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된 놀이판의 역사가 바로 한국민속예술축제다.

이렇게 민중이 손가락으로 바위에 새기듯 쓴 역사는 시대상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구전, 농민의 역사, 민중의 자서전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놀라운 변화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중이 평가받고 전국적인 명예를 얻는 역사였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축제를 통해 민중과 지방이

도드라지는 명예의 기록도 아울러 이루어진 셈이다. 전국 단위 축제를 한 장소에서 개최한 것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만의 축제에서 벗어나고, 세계로 가는 길을 마련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축제를 만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생겨난 샘이 깊은 물로 이어져 마침내 먼 바다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 즉 축제의 역사로 승화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전망과 도약의 지침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전망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의 면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할 때 가능하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핵심 지적 사항이나 요망 사항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요구 속에서 이러한 사항의 핵심이 실제로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 지역 민속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요망한다. 이는 현지민속의 실제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고유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를 바란다. 셋째, 변화와 지속을 위한 고안을 요구한다. 넷째, 관계기관의 협조로 청소년부의 실질을 담보하기를 바란다. 이는 민속예술축제의 활성화와 지역 축제의 변화와 지속을 바라는 것이므로, 분명 주목할 만한 제안이자 요구사항이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민속예술을 위한 경연과 축제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그릇에 담아 변화를 시도하는 도약이 필요한 시점을 맞았다. 기존의 것을 지속하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의 민속예술을 잇는 것을 핵심으로 하되,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사명과 부응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민속예술축제를 '법고'와 '창신'이라는 양면으로 보면서 그에 부피와 깊이를 더한다면, 분명 새로운 전망이 수립됨과 동시에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부록 1. 주요 장면 기록과 전개: 핵심 사진과 데이터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구전의 역사를 정리한 것에서 출발했다. 조선후기에 성립된, 세월이 흘러가도 잊지 않을 우리네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간직하고자 소리, 놀이, 농악, 춤, 탈춤 등을 꾸며 겨루고, 축제로 만들어 신명의 도가니판, 흥취의 마당으로 만들었다.

전국의 신명 나는 판들이 모여 하나가 되면서 가운데 잊고 있었던 우리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것으로 들썩이는 신명 나는 놀이판을 만든 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60년의 기록을 가졌다. 한국민속예술축제 60년에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신명으로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날들의 소중한 기록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민족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잇는 연결 고리가 되었다.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뜨거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속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굳건하게 마련되지 않던 때 출품작 하나 하나에서 우리는 역사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한 사진을 추출해 이 육십 년 내력에 틈입해 역사 속에 잠재된 미래의 전망을 아울러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만든 것이다.

<사진첨가>
<내용 첨가>

부록 2. 주요 연희자 증언과 기록

한국민속예술축제 제51회에서 제59회까지 지난 10년을 빛낸 연희자를 기리고자 한다. 민속예술의 훌륭한 전승자이자 기억 보물 창고인 이들의 삶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민속예술 연희자의 내력을 정리해서 구전으로 전해진 한국 민속예술의 빛나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역대 대통령상에 빛나는 연희자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들의 증언과 기록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들의 삶을 튼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온당하나, 지면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 다만 회차별 대통령 수상작 중 주요 연희자로 손꼽히는 인물을 선택해 연희자의 일생을 압축하고, 그들의 기억을 꺼내 새롭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빛나는 삶을 항목별로 정리해 후대에 귀감이 되는 내용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그들이 있었으므로 민속예술이 진정한 값어치를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생존한 연희자도 있었으나, 그 사이에 생을 마감한 이들도 있었다. 생존한 이들의 기억을 정리하고 민속예술의 정수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고인의 삶을 기리면서 민속예술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들이 간직한 무형의 유산 자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실을 절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희자의 증언과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 김용우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0.10.08~10.11,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시연 장면

1. 김용우, 소리꾼으로 거듭나다

김용우는 강원도 양양군 원포리 출신으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왔다. 그가 처음부터 민요를 즐겨 부르거나 소리꾼으로서 자질을 보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특별히 노래를 좋아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며, 스스로 목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던 그가 40여 년 전부터 민속문화에 관심을 두고 농요나 상여소리 등 각종 공연이나 경연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양양 지역에서 이와 같은 공연 형태로 상여소리뿐 아니라, 농요와 잔치할 때 가마 타는 모습 등을 두루 했는데, 그런 공연에 자주 참여했던 것이다.

양양군에서 이와 같은 공연을 기획·연출하고 연습해 무대에 올린 사람은 양양 입암리 출신의 고 최종덕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교사 출신으로, 양양군 전통민속보존회장과 양양 예총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일찍이 민속문화에 관심을 가져 양양의 다양한 민속예술을 발굴한 장본인이다. 김용우는 최종덕 회장이 이끄는 팀의 일원으로 연습을 통해 공연에 참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용우는 이 팀에서 소리꾼으로 발탁되지는 않았다. 우습게도 그는 농요 공연에서 소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인형 탈을 뒤집어쓰고 움직이는 소 역할은 하기도 쉬워 최 회장으로부터 야단을 맞지 않는 것도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노래를 배우거나 불러보지도 못해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고 했다.

그러던 김용우가 소리꾼이 된 데에는 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그가 상여소리 공연에 따라다닐 때 당시 선소리꾼이 고 김진탁이었다. 김진탁은 입암리에서 반평생을 선소리꾼으로 활동해온 인물로, 유대근이라는 사람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2008년경 김진탁(당시 88세)을 모시고 횡성 회다지축제에 공연을 하러 갔다고 한다. 그런데 행사장에 도착한 후 갑자기 김진탁이 숨이 차 소리를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서서는 소리를 못 하고 앉아서만 조금씩 소리를 했는데, 회다지를 할 즈음에는 소리를 아예 못할 지경이 되어 갑자기 대신 소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마침 노래 가사를 외우고 있었던 김용우가 소리를 몇 마디 하게 된 것이 그가 소리꾼으로 나선 계기가 되었다.

고 김진탁은 횡성 사건 이후로 건강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2008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나가면서 김용우가 본격적으로 상여소리를 배워 부르게 되었다. 이때가 그의 나이 63세의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평소 소리를 유심히 듣고, 가사를 새겨 외우고 있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을 기회였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그리 부드럽지 않았던 듯하다. 지인들은 그에게 소리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잘 안 될 것이라는 식의 비평을 했고, 김용우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더 열심히 했다고 한다.

상여소리라 연습도 쉽지 않았다. 집에서 소리를 연습하면 가족들이 싫어해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도 뜯고 하면서 소리 연습을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다고 한다. 또 더 많은 가사를 확보하기 위해 회심곡 23장을 모두 다 외웠고, 강원대학교를 찾아가서 옥설가 자료를 찾아내어 그 또한 외웠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0년 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 65세의 나이로 대통령상을 타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에는 수동골 상여소리가 도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고, 2015년에는 예능보

유자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상여소리 종목이 지정된 것은 2013년의 일이고, 김용우가 문화재 보유자가 된 것은 2015년이므로 시기의 차이가 있다. 그 사이 김용우는 보유자 심사를 세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계속해서 실력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연습하면서 나아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회다지하는 장면(무덤 위에 올라가서 소리하는 김용우)

2. 수동골 상여소리의 현재

'수동골'은 한 마을의 이름이 아니다. 이 지역에 흐르는 화상천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수동골이라 불러왔다. 수동골 상여소리로 출전할 때도 입암리, 임오정리, 원포포, 지경리, 현남리 등 다섯 마을이 연합한 팀으로 출전했다. 수동골에 속한 마을에는 밀양두라는 상두계가 있어 공동체가 함께 장례의식을 맡아 진행하던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2010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탄 이후 2013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김용우씨김용우는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나, 아직 전수 조교는 없는 상황이다. 상여소리 보존회의 회원은 현재 28명이며, 공연할 때는 23명이 상여를 메고, 나머지는 명정공포 등 깃발을 들고 행진한다고 한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에게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선소리꾼을 키우기 위해 적절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여전히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김용우는 2019년에만 해도 세 번 정도 상여소리의 선소리를 맡았다고 한다. 또 자신이 죽으면 상여소리를 해달라고 부탁해 놓은 분들도 있어 당분간은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르는 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인근에 있는 댓골 장례사와 인연이 있어, 그가 연결해 준 곳에 선소리꾼으로 불려가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수동골 상여소리팀은 정기 공연도 해왔다. 1년에 최소 3회 이상 공연을 하는데, 2019년에는 횡성 회다지소리축제, 양양 문화제, 양양 송이축제에서 공연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존회의 회원 수가 줄어들고, 점차 고령화되어 끊어진 다리 건너기나 울퉁불퉁한 지형의 산을 지나는 등의 장면은 재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공연 시간이 짧은 것도 장면 생략의 이유 중 하나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가지고 나갔던 상여는 100여 년이 된 것으로, 지금도 잘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평상시 사용하다가 망가질 것을 걱정해 양양군에서 새로 상여를 하나 사줬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 사들인 상여도 다른 동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완전히한 새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역사가 짧은 것이라 한다.

김용우는 젊지 않은 나이에 상여소리에 입문해 선소리꾼이 된 특이한 사례다. 그러나 그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보유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여소리 전승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그의 각오가 더 미덥다.



양양군 임호정리 마을회관 앞의 김용우

금릉빗내농악, 손영만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1.10.06~10.09,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 잔디마당
2011.10.09 14:50~15:20, 경상북도 김천시 금릉빗내농악보존회

1. 손영만의 생애

손영만[孫榮萬]은 1964년 4월 13일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115번지에서 출생했다. 손팔용[孫八用]과 이시월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근방에 이름난 소리꾼이었던 아버지의 끼를 적지 않게 물려받았다. 또한 농악과 밀접한 일을 하면서 농악에 일가견이 있던 외삼촌 이재용을 본다면, 그는 태생적으로 다방면에 예능적 자질을 갖춘 타고난 재주꾼이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손영만은 어린 시절부터 농악을 좋아해 농악 소리를 쫓아 길을 헤매던 신명 넘치는 인물이었다.


<손영만 상쇠의 모습>

손영만의 절윤한 재능은 농악을 배우면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농악의 세계에 푹 빠진 학창 시절, 책상이나 도시락을 박자에 맞춰 두드리다가 선생님에게 혼도 많이 났다. 그는 빗내농악에 매료된 나머지 농악부로 유명했던 김천농고에 진학한다. 이 과정에서 손영만은 빗내농악 제6대 상쇠이자 김천농고 농악부를 창단한 김홍엽을 만나 제자가 되었고, 매구와 북, 소고 등의 가락을 충실히 전수받았다.

손영만은 중요한 사람이다. 국악과나 제도권의 학습자로는 전혀 머물지 않았던 사람으로, 영남대학교 국악과 1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둔 것이 학력의 전부다. 학문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의 놀라운 성취와 함께 자신의 창조력을 들키지 않은 채 이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는 스승의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제도권의 도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다. 가난한 삶의 과정으로 인해 이러한 과정에 좀 더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제도권에 들어가서 자신의 창조력을 모두 탕진하고 끝물에 남아 있는 것에 허우적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손영만은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옳게 스승을 잘 만나 창조와 변혁을 거듭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명인 반열에 오른 셈이다.

2. 금릉빗내농악 상매구쟁이로서의 면모

금릉빗내농악은 즉흥적인 가락이 많고 변이가 심해 이를 통째로 인식하거나 전수하지 않으면 거의 체득할 수 없는 경지를 보인다. 그러므로 스승이 가락을 치면 제자는 그 가락을 전판으로 체득해야 한다. 손영만은 판제와 가림새, 가락의 차이를 몸소 익히고 금릉빗내농악의 특징을 온몸으로 전수해 이를 체현했다고 판단된다.

김홍엽의 가르침을 받은 손영만은 이후 전국에서 이름난 금릉빗내농악 상쇠가 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체험을 하고, 구구 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김홍엽을 만나 빗내농악을 배우고 기예를 전수하면서 빗내농악 상쇠로서 그 정수를 이어갔다. 그는 전통 가락을 이르게 몸에 익혀 얻은 순발력과 창조력을 통해 온전하게 자신의 기술로 만들고, 빗내농악에 생명을 달았다.

김홍엽의 애제자가 손영만이다. 손영만 또한 제자로서 김홍엽이 지닌 것을 열정적으로 계승하고자 노력했다. 손영만이 스승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제자가 되었듯, 스승 또한 제자의 감량을 알아봤으며, 그 결과 금릉빗내농악 가락을 모두 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빗내농악의 전통을 이어갈 인물로 일찍이 낙점받았으며, 그것을 발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연륜은 적지만, 금릉빗내농악의 미래를 말해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손영만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상쇠로서 30년 이상을 노력한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금릉빗내농악을 전승 계보의 특징이나 가닥으로 살펴본다면, 몇몇 탁월한 상쇠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승을 이어가는 능력은 상쇠의 잠재적 전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본디 금릉빗내농악의 가락은 금릉군 남면 부상리 출신의 정재진 스님에서 비롯했다고 이른다. 정재진이 승려가 되면서 걸립을 하고, 군고를 두드리면서 선산 무을 농악의 길이 열린 것이다. 선산 무을의 수다사[水多寺]에서부터 비롯한 농악을 원조로, 이것이 두 갈래로 나뉘어 각기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재진(승려) · 이군선 ─┬─ 윤상만 → 우윤조 → 이남훈 → 김홍엽 → 한기식 → 손영만(빗내농악)
└─ 최영일 → 김팔금 → 김칠봉 → 지창식 → 최무웅 → 이삼재(무을농악)

빗내농악의 가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쇠는 우윤조, 이남훈, 그리고 김홍엽이다. 이 중에서도 빗내농악의 찬란한 세월을 이끈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홍엽 6대 상쇠다. 김홍엽(金弘葉, 1922~1988)은 본디 금릉 출신으로 빗내에 정착해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살았다. 평소에는 방앗간을 운영하다가 때가 되면 빗내마을은 물론 인근 지역인 아포, 새안골, 시술, 황새울 등지의 잽이들을 모아 농악패를 만들어 활동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은 1962년 제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참가해 종합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로 이어진다. 이 성과는 김홍엽 상쇠가 빗내농악을 올곧게 전승하고, 활발하게 전승되던 농악을 한데 모아 만들어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릉빗내농악 김홍엽 상쇠>

1988년 김홍엽이 세상을 떠나고, 이후 그 자리를 지킨 것이 당시 끝쇠로 활동했던 고 한기식(1931~2010)이다. 그는 빗내마을 출신으로 김홍엽에게 농악을 배워 함께 활동했으며, 빗내농악보존회 발전을 위해 힘을 쓴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 뒤를 이은 것이 현재 금릉빗내농악 상쇠 손영만이다.

손영만은 김천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1980년부터 농악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악인의 길을 걸었다. 당시 김천농고에 농악을 가르치러 온 김홍엽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빗내농악의 전통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1983년 제25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한 빗내농악팀의 끝쇠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빗내농악의 일원이 되었다. 1988년 김홍엽 사망 이후 빗내농악 상쇠를 이어받은 한기식의 뒤를 이어 1993년부터 본격적인 상쇠로 활동해왔다.

금릉빗내농악은 영남 지방을 대표하는 농악이다. 이 농악은 대가닥 차원에서 경상북도 내륙 농악으로 그 소리의 자취가 경상남도 합천농악과 진주 삼천포농악과도 상통하며, 골매기굿과 반죽굿 등도 경상남도 농악과 소리를 공유한다. 이 농악의 전통이 경상남도 끝까지 밀고 내려간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우도반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온다면 경상북도와 전라도 일대 농악이나 가락, 소리 등이 일치하는 면모가 나타난다. 그러한 점에서 농악의 전통을 분명하게 하는 농악 가운데 하나다. 우도반경의 토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가락을 연주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농악과 가락의 전통 모두 경상북도를 대표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소리꾼으로서의 면모

손영만은 상매구쟁이로서 뿐만 아니라 선소리꾼으로서도 탁월한 예술적 기량을 지닌 인물이다. 빗내농악의 상사굿에서 이러한 재주를 마음껏 뽐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타고난 성음과 함께 목청도 좋아 상쇠뿐만 아니라 선소리꾼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하게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소리꾼으로서의 면모가 이 과정에 정밀하게 구현된다.

후렴구가 "얼룰루 상사디야"라서 그 이름이 붙은 상사굿은 느진상사굿, 자진상사굿, 느진정저굿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을 보인다. 이 소리에서 상사소리의 사설을 전형적인 메나리토리로 구사한다. 신명 나는 가락에 아름다운 선율로 이어지는 상사굿의 전형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고, 의미가 새로우며 농악대의 농사 소리 면모를 보여주는 적절한 소리굿이라 할 수 있다. 상사소리류에 후렴이 있는 것은 각별한데, 그러한 소리를 통해 손영만이 선소리꾼으로서 면모를 잘 갖추고 있음을 새롭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뿐만 아니라, 손영만은 어정판에 나서 굿을 하는 소리꾼이기도 하다. 그의 일생에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는데, 금릉빗내농악전수관이 건립되고 그곳에서 기념공연을 하는 중에 동해안별신굿을 초청해 굿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별신굿에서 하는 장단의 변화무쌍함과 소리를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길로 나서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어정판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별자와 밤저로 변을 쓰는 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별자는 흔히 별신굿을 뜻하는 마을굿이고, 이와 달리 밤저는 낮저와 구별되는 개인집의 오구굿을 이른다. 그 판에 자신을 적심으로써 자신의 소리와 음악 창조에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된다. 다만 그러한 전환이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고, 병행하고 아울러 농악과 무악의 세계를 융합했던 것이다. 이 소리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금릉지역 빗내마을의 빗신굿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중과 농악대가 씨수던 단계에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전통의 확장이었다고 손영만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손영만은 작은 굿거리를 맡아 연행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특정한 굿거리를 하면서 배자보기와 같은 절차를 행할 때 자신의 소리를 서울소리나 일반 대중가요, 통속민요 세계로 진입한 것은 값진 것이었다. 농악에 견주면 역동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그곳에서 보지 못하는 관객이나 청중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토박이 소리와 다른 소리를 하면서 지모와 양중이 결합한 소리에 공력을 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손영만은 소리의 길을 남다르게 걸었다. 처음 농악에서 시작해 민요와 소리를 익히고, 동시에 농악 장단과 소리를 탁월하게 구현하는 길로 들어섰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술을 만난 셈이다. 손영만의 예술 세계에서는 농악과 무악, 민요와 무가, 굿과 독경 등 다양한

체험을 기반으로 전통을 흡수하면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영만은 상매구쟁이로서, 그리고 소리꾼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으며, 그의 창조력은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소리를 꾸며서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손영만에게 있는 것이다.

향두계놀이, 유지숙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3.10.03~10.06,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2013.10.04 14:20~14:50, 향두계놀이보존회



향두계놀이보존회와 함께 한 유지숙. 가운데 붉은색 윗도리와 검정 바지를 입은 이

1. 유지숙의 생애

유지숙[劉知淑]은 1963년 7월 18일(양력) 강화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친 유명석은 호적을 잘 불어 인근에 소문이 났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강화도팀의 일원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둘째 작은아버지 유승학은 장구를 잘 쳤고, 막내 작은아버지 유윤학은 소리를 잘했다고 한다. 이렇게 유지숙의 친가는 강화도에서 민속예술을 잘하는 집안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어렸을 적 유지숙은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농악 연습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았다.

민속예술과 친숙할 수밖에 없던 환경에서 자란 유지숙은 3~4살에 농악대 무동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주변 이야기를 듣고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정도다. 그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렸을 때 들었던 배치기 소리다. 그 소리의 독특함과 소리를 들으며 신이 났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유지숙에 의하면 강화도 소리에는 경기소리와 서도소리가 함께 녹아 있다고 한다. 즉 '서도소리에 경기소리가 얹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서도소리의 씩씩함과 능청거림, 그리고 경기소리의 보드랍고 흥겨운 분위기가 어우러져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강화도 소리의 특징이 그를 북녘의 소리로 이끌었을 수도 있다. 더구나 그녀의 모친은 황해도 연백 출신이었다. 그래서 북녘의 소리에 친숙하고,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지숙은 친가에서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재능을 이어받았으며, 외가에서 북녘의 민속예술과 친숙해진 계기를 맞았다. 그리고 그녀가 나고 자란 강화도의 경기소리와 서도소리의 어우러짐이라는 특징이 그녀의 진로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와 고향이 이미 그녀의 미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2019년 12월 인터뷰 중인 유지숙

2 향두계놀이 입문과 활동

유지숙의 가계와 고향이 북녘의 민속예술과 친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것은 모두 간접적인 배경일 따름이다. 그녀가 실제 북녘의 소리와 평안남도 향두계놀이에 관심을 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다. 그것은 오복녀(吳福女, 1913~2001)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서도 명창 오복녀는 김정연(金正淵, 1913~1987)과 함께 고향인 평안남도에서 김칠성(金七星, ?~?)에게서 배웠던 향두계놀이를 남쪽에서 전승해왔다. 그리고 1966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김정연과 오복녀는 작고할 때까지 향두계놀이를 공연해왔다. 이러한 향두계놀이를 오복녀에게서 서도소리를 배운 유지숙이 이어받은 것이다.

사실 유지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승자로,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서도소리 전수교육조교가 되었다. 그녀는 서도소리 예능보유자였던 오복녀를 통해 향두계놀이를 처음 접했다. 오복녀가 “서도에서 전해지는 좋은 소리, 재밌는 놀이가 있다”고 하면서 유지숙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향두계놀이였다. 유지숙은 향두계놀이에 흥미를 느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일부라도 공연을 해왔다. 1990년대 후반에 시연하고, 2002년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제대로 체계를 갖춰 공연했다. 이후 해마다 정기공연이나 발표회 형식으로 향두계놀이 공연을 했다.

향두계놀이의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서도소리 예능보유자였던 김정연의 주도로 1966년 제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다. 이때 김정연은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71년 제12회, 1973년 제14회, 1976년 제17회 대회에 참가했다. 그 과정에서 장려상 등을

받기도 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향두계놀이를 유지숙은 여러 발표회와 공연을 통해 다듬어나갔다. 그리고 2011년 여수 거북선 공원에서 열린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나름의 기대를 하고 참여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유지숙과 향두계놀이보존회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참가를 염두에 두고 차곡차곡 준비했다. 향두계놀이보존회 구성원은 물론이고, 평안남도 도민회, 평양다리굿보존회와 같은 평안도 민속예술 전승 단체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간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후원을 받고, 심지어 계를 들어 마련했다. 유지숙은 이때 함께 애를 쓰고 도움을 준 이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한다. 그때 한 고생과, 고마운 분들이 함께 기억나기 때문이다. 유지숙은 이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 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기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상황을 유지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단 80명이 다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일단 장소가 없어 여기저기 구걸하다시피 쫓아 다니며 연습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마당, 이북5도의 강당, 학교 운동장, 심지어 연습실 대관까지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인원이 먹고 또 지방에 계신분들은 숙소까지 얻어 연습했는데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이불을 사서 제 학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연습에 임했습니다. 수많은 소품에 드는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작품에 맞지 않으면 아까움 없이 바로 폐기하고 다시 맞추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 전 각오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내 일생을 걸고 작품에 임하리라 하고요. 그래서 올해 출전하고 나서 상을 받든 안 받든 저는 더 이상 출전하지 않겠다고하고 마음먹었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최선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럴 힘을 다시 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은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었고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불평 하나 없이 매 연습에 임할 때마다 흥을 돋아 주셨습니다.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간간히 떡도 해주시고 한끼라도 아끼라고 식사도 안하고 가셨던 일들... 그건 감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마음 써 주심에 눈물이 납니다. 매번 감사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연습에 나와 주심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지 오히려 호흡을 맞추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
>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수사팀 서면인터뷰 중에서>

이러한 노력이 인정을 받아 향두계놀이보존회는 2013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생태공원에서 열린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다시 한번 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유지숙에 의하면 향두계놀이보존회 구성원들은 경연 전날인 10월 5일 밤에 경연이 벌어질 장소에 미리 가서 기원했다고 한다. 10월 6일 새벽에 다시 경연 장소에 가서 절을 하면서, 향두계놀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 연습한 만큼만 경연에서도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던 것이다.

경연 당일에는 평안남도 응원단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뻔해서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 겨우 경연 시간에 맞춰 응원단이 도착해 출연진의 사기가 극적으로 고조되었다. 평남도민회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회장, 군수, 이장 등 30여 명이 응원기를 들고 도착한 것이다. 이들과 별도로 도민 50여 명도 응원을 위해 찾아왔다. 사기가 오른 출연진은 실제 경연 때 열심히 했다. 출연진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이번만큼은 향두계놀이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쓴 것이다. 유지숙은 그때를 회고하면서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출연자들의 진정성과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향두계놀이보존회 회원들과 평안남도 도민회 관계자들

유지숙은 대통령상을 받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기분이 좋다고 한다.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뻤다고 한다. 시상식 때 유지숙은 지도상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이후 시상에서는 배제될 줄 알고 있었단다. 더구나 끝까지 향두계놀이보존회가 불리지 않아 상을 받지 못할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순간 대통령상 수상자로 이름이 불려 너무 좋았다고 한다. 옆에 있던 누군지 모를 남자와 껴안고 좋아할 정도였다.

향두계놀이가 대통령상을 탄 이유에 대해 유지숙은 '혼연일체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한다. 참가자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한마음으로 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지숙은 "제 일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평안남도의 향두계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때였다"고 말한다. 큰 상을 타서가 아니라 그간 고생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한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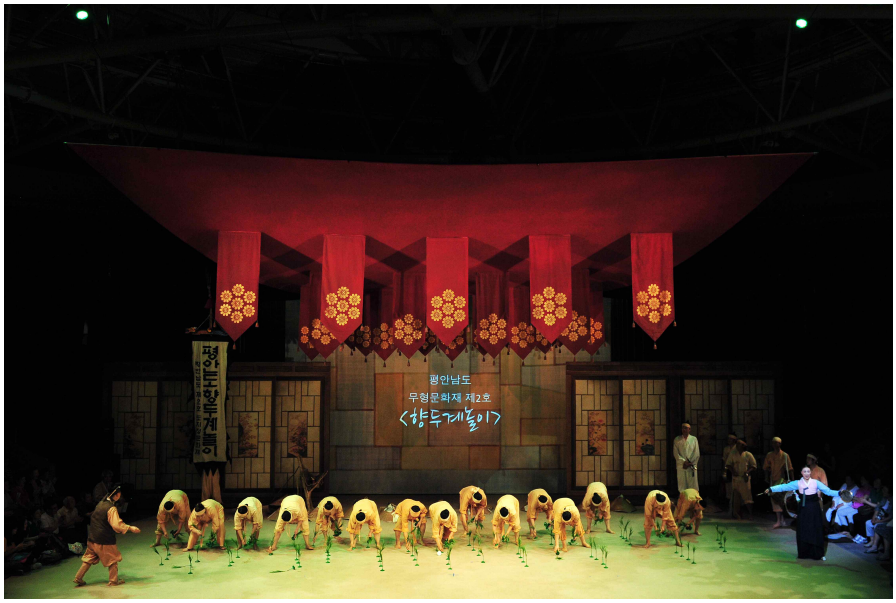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을 받고 기를 흔드는 향두계놀이보존회

3. 대통령상 수상 이후의 활동과 미래 전망

2013년 제54회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 향두계놀이는 이북5도의 자랑이 되었다. 이북5도 사회의 자부심이 높아지는 데 향두계놀이의 대통령상 수상이 큰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향두계놀이는 이미 2009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2013년의 대통령상 수상은 또 다른 차원이 자랑거리가 된 것이다. 이북5도가 갖는 특수성을 염두에 둘 때,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국가 공식 대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다. 유지숙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평안남도의 자랑거리. 평안남도 자존심이 된 향두계놀이는 대통령상 수상 이후 여러 공연 의뢰를 받았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초정 공연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축하 공연 등, 여러 지역의 축제와 행사에서 초청을 받아 공연해왔다. 향두계놀이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009년 이후 총 12명의 이수자를 배출했고, 현재 150여 명의 전수자가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존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부산, 대전, 시흥 지역에 지부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상 수상 이후 향두계놀이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신뢰감이 형성되어,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두계놀이 공연 중 모심기 대목

향두계놀이보존회 이사장으로 향두계놀이를 이끌고 있는 유지숙이나, 보존회 사무국장과 공연에서 향두 역할로 출연하는 오현승이 공동으로 향두계놀이의 핵심이라 말하는 대목이 있다. 물론 향두계놀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호무타령, 호무가 대목이다. 유지숙은 “역시 모내는소리와 김매기소리에요. 평안남도에서 내려오는 호무타령과 호무가가 음악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라고 말한다. 오현승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저는 모든 부분을 좋아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호무가’를 최고로 뽑고 싶습니다. ‘호무가(호미가)’는 호미로 김을 매며 여럿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농부들이 김을 매다가 점심 바구니가 들어올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힘든 노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만큼 먹어야죠. 노래에 맞춰 점심을 먹고, 흥도 돋우는 이 장면이 가장 좋습니다.
>
>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소개 인터뷰 중에서>

호무타령은 향두계놀이 제5경 평안남도 초벌논매기에서 부른다. 평안남도에서는 오뉴월 더위 속에서

농부들이 호미를 들고 특유의 호무(호미)타령에 맞춰 초벌논매기를 한다. 호무타령은 북한을 대표하는 김매기소리의 하나인 호무소리 계통의 노래다. 호미로 논을 매면서 부르는 소리로, 후렴구에 '호미' 또는 '호매'가 들어가는 소리를 호미소리 또는 호매소리라 한다. 호미소리는 주로 논맬 때 많이 불렀지만, 밭맬 때도 불렀다. 평안남도에는 호미소리가 많고, 자강도에도 더러 분포한다. 호미소리는 여럿이 메기고 받는소리로, 긴소리와 자진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호무가는 향두계놀이 제7경 평안남도 만벌논매기 소리에서 부른다. 그 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후렴: 에야 에야 에해야 호호호무가 논다
1. 왕대나 가림에 세대로는 돌피
2. 하나도 빠짐없이 뽑아만 주소
3. 동서나 사방에 널리신 계원
4. 소리를 맞춰 일하려 갑세다
5.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이 온다네



향두계놀이 공연을 하고 있는 유지숙

향두계놀이를 이끄는 유지숙은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향두계놀이보존회 이사장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교육조교이기도 하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악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녀는 향두계놀이 전승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새삼 다짐한다. 향두계놀이에서 시작해 북녘의 소리 전반의 발굴과 전승 및 활용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북녘에는 보물 같은 소리가 많다. 이를 소개하고 전승하면서 활용하고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려는 것이 그녀의 목표다. 유지숙은 북녘의 토속민요가 통속민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전통은 전통대로 지키면서, 사라지는 소리를 복원해 다듬고 만지는 일을 지속해 나가려는 것이다.

웅소성리 호상놀이, 김상태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4.10.02~10.05, 강원도 정선군 아라리공원
2014.10.05 13:30~14:00, 충청남도 웅소성리상여소리보존회

1. 김상태의 생애

김상태[金相泰]는 돌올한 예인으로, 선소리꾼으로서뿐만 아니라 꽹과리, 호적 등 악기에도 모두 능통한 각별한 인물이었다. 그는 1953년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귀밀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본래 1953년 계사[癸巳] 생이지만, 작은아버지의 실수로 동생과 출생 기록이 바뀌어 기재되는 바람에 호적에는 1956년 병신[丙申] 생으로 올라있다. 김상태는 아홉 살 무렵 귀밀리에서 바로 옆 마을인 해미면 웅소성리로 이사했으며, 그때부터 웅소성리에 기거해 살았다.

그 무렵 김상태는 서산농고 마당에서 열린 풍물대회에서 해미면 대표로 참가한 이세춘 어른에게 매료된 후 그를 쫓아다니며 가락을 배우면서 농악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이세춘에게서 다양한 가락과 재주를 전수했는데, 이세춘이 사망한 뒤에는 해미면 전천리의 노봉만과 김신표와 같은 인물에게서 기예를 익혔다. 그때는 노봉만과 김신표가 이광수의 부친인 이점식과 함께 창리, 황도 등의 섬으로 걸립을 다니던 시기였다. 김상태는 그 어른들과 함께 어울려 농악을 배우면서 차츰 예능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이세춘에게 배운 가락을 바탕으로 그들과 천천히 호흡하면서 배움을 더해갔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걸립활동을 통해 그 음악적 기량을 넓힐 수 있었다.

김상태는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가진 해미면 출신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음악적 기량을 넓혀나갔다. 기본적으로 해미면을 중심으로 하는 토박이가락을 익힐 수 있었고, 마을 공동 행사에 참여해 사라져가던 여러 전통에 대한 지식을 집적할 수 있었다. 당시 이세춘의 나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상태가 전천리에서 볏가릿대를 눕히는 것을 처음 본 해를 15세가량으로 증언하고, 그때 농악을 쳤던 노봉만이 47~48세가량 되었다고 한 바 있으니, 노봉만과는 서른 살 이상, 이세춘과는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났던 거로 판단된다.

김상태는 20~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어른들과 함께 어울려 농악을 쳤던 것으로 증언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과 비견될 만큼 예능을 갖췄으며, 타고난 끼와 재능이 있던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이와는 무관하게 전통가락에 대한 기억과 관심이 지대했다. 그는 1984년 설립된 서산시 국악협회에 가입·활동함으로써 이러한 관심을 표출할 수 있었고,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농악인의 길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닦은 기예를 바탕으로 협회의 초청 상쇠로서 활약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각 면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 풍물단을 조직했으며, 그들과 함께 백제문화제 풍물대회를 나가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다. 이후 농악뿐만 아니라, 소리, 민속놀이 등 해미면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민속전통문화에 힘썼으며, 해미면 웅소성리 호상놀이로 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해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김상태는 두렁쇠와 뜬쇠의 면모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근대 예인 송순갑, 이돌천, 최은창 등 남사당패 인물과의 접촉은 물론, 당진지역 토박이 걸립패 채규태, 박재돈 등과도 함

께 어울렸다. 김상태가 두렁쇠와 뜬쇠 두 면모를 모두 지니고 있는 만큼 가락 면에서도 두 가지 영향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산너머 장단 다르고, 물 건너 장단 다르다." 김상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던 말이다. 이는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모두 특별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과 같이 김상태는 떠돌이가락과 구별되는 토박이가락, 서산의 전통가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일찍이 토박이가락이 주는 구성지고 자연스러운 멋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주장했다.

2. 서산농악-두렁쇠로서의 면모

김상태의 삶을 통해서 서산 지역의 전통가락과 민속놀이 그 전반이 담긴 전통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가 지닌 뜬쇠로서의 면모도 중요하지만, 두렁쇠로서 지닌 그의 삶의 가치 또한 주요하게 언급해야 마땅하다. 먼저 그의 삶에서 서산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닷가와 근접한 지역은 예로부터 미신이 세고 농악을 크게 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남사당패와 같은 걸립패들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몰리는 현상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김성태가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란 예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두렁쇠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니는 연유는 그가 잊힐 위기에 놓인 전통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마모된 기억의 조각을 맞출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의 가장 끝자락에서 이를 바라본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옛날가락'을 힘줘 강조하고, 떠돌이가락과 구분되는 토박이가락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세춘과 노봉만, 김신표에게서 해미면을 중심으로 하는 토박이가락을 배웠다. 서산의 지역 특수성을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은 두렁쇠와 뜬쇠의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농사철에는 농사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농한기에는 섬 지역을 돌아다니며 걸립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태는 타고난 자질만큼이나 어른들에게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풍물은 7장단 8마당으로 해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을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최하 장단은 일곱 가지를 쳐야 하고, 놀이는 여덟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김상태는 자신이 기억하는 가락 아홉 가지와 마당놀이에 대해 증언했다.

먼저 가락은 광보장단, 외가락, 이채, 삼채, 사채, 오채, 육채, 칠채, 팔채, 구채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장단들에 대해 각각 설명을 덧붙였다. 대표로 몇 가지만 언급하면, 칠채에는 왼칠채, 뻣칠채, 홑칠채 등이 있고 여기서 왼칠채는 옛날 어른들이 두렁 타고 치는 장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광보장단은 춤장단이라고도 하는데, 길을 걸어가거나 춤을 출 때 치는 장단이고, 꽃나비를 놀리는 장단으로도 사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가락의 구성짐이었다. "딱딱 끊어지지 않고 구성지고 늦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주된 견해이다.

또한 이러한 장단들을 쓰면서 노는 마당놀이는 돌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김상태는 이를 농경판제라고 증언했다. 마당놀이로는 맷방석말이, 고사리꺾기, 논갈기진법, 써레질, 사방 써레질, 돌림치기 등과 같은 것이 있고, 논농사와 밀접하게 관련을 보인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상모를 도리깨 돌무라고 하면서 돌무들이 일정하게 농사풀이를 재현한다고 증언한다.

그는 어른들에게 배운 가락, 마당과 함께 그에 관한 여러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볏가릿대 농악, 꽃반, 노적놀이 등을 하고, 부잣집 마당에서 마당놀이를 했던 일련의 경험은 그가 전통가락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주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는 모를 심다가도 갑자기 바지게 들고 공회당에 악기를 찾으러 가던 그 시절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월 초하룻날의 그 축제와도 같은 풍경을 간직하고, 농악이 쉴 틈 없던 그 세월을 잊지 않았다.

3. 뜬쇠로서의 면모

그는 노봉만, 김신표와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남사당패 예인들과 교섭할 수 있었다. 섬으로 걸립하러 다니면서 여러 예인들을 만났고, 그들의 기예능을 보고 배우며 자신의 예술가적 기량을 높여나갔다. 김상태가 특출난 재주꾼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은 바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었다. 그는 이세춘에게 배운 가락을 자신의 본가락으로 인지하고 다른 예인들이 지닌 개성있는 가락을 듣고, 분간하며, 기억하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락을 따라 연주할 수도, 가락을 판단할 수도 있었다. 김상태는 가까이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멀리는 평택까지도 팔려 다닌 인물이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락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부심을 뜬쇠 활동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닌, 이세춘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서산 지역의 농악과 관련이 있다고 증언한다.

그는 평택 현덕면의 상쇠로 팔려가 세 번이나 1등을 해주었던 활약상에 대해 말했다. 꽹과리를 잘 치는 사람 40~50명이 모인 중에서도 뒤지지 않고 으뜸에 속했다. 그렇게 대회를 위해 모인 실력 있는 쇠잽이들의 신경전 속에서도 그가 돌올하게 빛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락이 이세춘 어른에게 배운 왼칠채, 달어칠채 등의 가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태는 “왼칠채에서 그 사람들 다 꺾어놔야 돼. 거기서 못 꺾으면 상쇠 못해 쫓겨나여. 왼칠채 치고 가다가 달어칠채라고 있어여. 그니께 처음에서부터 안 쉬고 나가는. 연습할 때, 그 달어칠채에서 다 꺾어놔야 돼.” 라고 증언한다.

김상태는 그 가락을 쳐야만 농악 좀 친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하며, 이를 이세춘에게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 가락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일명 잘 팔리는 상쇠였고, 그래서 실력 좋은 예인들과 자주 어울려 놀 수 있었다. 특히 김상태가 어린 나이에 농악을 시작한 만큼 어울리던 예인들은 이제는 대부분이 고인이 된 이름난 원로 명인들이었다.

그가 떠돌이가락을 접하고 뜬쇠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가락들은 더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단다. 그는 “옛날 구성가락이 계속 없어지는겨.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한바 있는데, 일률적으로 바뀌어 가는 가락들을 보면서 그는 누구보다 사라져가는 전통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난 예인의 장단들이 슬며시 바뀌어 가는 경험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이전의 특수한 가락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에게 특색 없이 변색해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피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걱정한 사항이었다. 이제는 고인이 된 김상태 명인은 이런 말을 남긴 바 있다.[1)]

> 조사자: 가락은 그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손가락에 있습니까?
> 김상태: 머리에 있지유. 머리에 그 옛날 어른들이 치던, 내 배우던 가락하고. 그다음엔 두 번째로 본인의 손재주예여. 제가 그렇게 전수해도 배우는 분들이 이 자기 손으로 그 가락을 만들어야

1) 2017년 9월 1일, 해미면 웅소성리 김상태 제보자 면담 자료.

돼요. 민요나 무용 같은 건 남의 장단에 맞춰서 부르기만 하면 되지만, 이 풍물은 자기 손으로 가락을 만들어야 되기 땜에 어떻게 보면 배우는 분들이 힘들지유. 특히 옛날 가락은 지금 분들이 배우려고 안 해요. 배우기 힘드니까. (…)

김상태: 장단은 산너머 장단 틀리고 물너머 장단 틀리고, 들판 소리 틀리다고 하는 게 뭐냐. 그 부락에서 쇠를 치는 분이 따로 치다 보니까 같은 왼칠채도 산너머 상쇠한테 배운 장단이 틀리고 물 건너 친 배운 장단이 틀리다 그래여.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누구 할아버지 없으면 풍장 못 쳐' 그렇게 얘기 했었어여.

옛날에 어른들이 치던 가락을 기억하는 사람, 손으로 그 가락을 만들어내던 명인, 그리고 그것이 사라져 가는 것을 가장 걱정하던 빛나는 예인을 잃은 것에 가슴 아파해야 마땅하다. 전통의 끝자락에서 이를 모두 바라보며 끝까지 이를 염려했던 사람이 바로 김상태 명인이다. 그래서 시대의 명인 김상태를 기려 마땅하다.

김상태는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이 상은 다. 그가 응당 받아야 할 상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체험에서 우러난 능력이 집약된 결과로 상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대회에 참가하고 난 뒤에는 적지 않은 풍파를 겪었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며, 굳이 알고자 할 필요도 없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농악에 열정을 아끼지 않고 서산볏가릿대농악에 매진했으나, 한 차례 암 수술을 하고 뇌출혈이 발생해 2019년 세상을 떠났다. 한 시대에 온전하게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그의 모든 재능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모습 마지막 모습이라 더욱더 안타깝다.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서산웅소성리 상여소리 선창자(상여에 탄 이)



2017년 10월 서산볏가릿대농악 시연회에서 한 장면



2017년 7월27일 서산농악의 여러 연희자와 함께 한 김상태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 역시, 하귀2리 민속보존회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5.10.08~10.11,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2015.10.08 15:25~16: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하귀2리 민속보존회(2015년 10월 8일)

1.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역사

하귀2리는 총면적은 242ha로,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13km 지점에 있다. 2019년 1월 기준 1,400여 가구에 3,324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제주시와 가까워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이 때문에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하귀2리에는 5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모체가 되는 마을인 미수동을 비롯해 가문동, 학원동, 답동, 번대동 등이 있다. 하귀2리의 5개 마을은 다시 총 3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귀2리는 본래 하귀리가 1, 2리로 분리되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대체로 마을의 역사는 1,000여 년이라 추정한다. 문헌을 보면, 대략 200여 년 전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명칭은 귀일촌(구일촌), 귀일현, 하귀리, 귀일리, 하귀2리의 순으로 변화했다.

하귀2리는 마을 자치회가 활성화되어있다. 마을 자치회는 이장(대표)과 5개 자연마을 동장이 협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자연마을(동)은 동장이 운영하고, 동별 리 개발위원을 선출한다. 개발위원회 구성은 동장 및 리 자생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동 단위로 선출되는 선출직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마을 제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리 운영에 참여한다.

마을 자치회는 대표(이장), 의결 기관, 리 산하단체, 리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자치회의 의결 기관으로는 '하귀발전협의회'와 '개발위원회'가 있다. 리 자생단체로는 '노인회(노인학교, 게이트볼 동호회)', '부녀회(5개 동 부녀회)', '청년회(5개 동 청년회)', '어촌계', '잠수회', '어부회' 등이 있다. 리 산하단체로는 '5개 마을 동장', '영농회', '체육회', '농업용수 수리계', '민속보존회'가 있다. 마을 자치회의 임원은 리장, 개발위원장, 5개 자연마을 동장, 총 재무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귀2리에서는 마을 자치회의 주요 주체로 민속보존회가 있다. 리 산하단체로 민속보존회가 있는 것이다. 민속보존회는 제주도 전역에 나타나는 독특한 민속예술의 전승 주체다. 제주도는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보존하기 위해 민속보존회가 구성한다. 2019년 현재 제주 전역에는 총 27개의 민속보존회가 있다. 제주지역 26개 읍면동 민속보존회와 하귀2리 민속보존회가 그 사례다.

제주 지역의 민속보존회는 들불 축제 때 풍물 한마당, 탐라국 입춘굿, 도민체육대회, 탐라문화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 기량을 뽐낸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민속보존회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는 주민이라는 점이다. 마을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그들이 생업 현장에서 민속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이다. 하귀2리 민속보존회 역시 이러한 특징을 공유한다.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형성에 대해 민속보존회 상임고문인 홍석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귀2리 마을은 예로부터 농사일과 바다 일을 겸하면서 다양한 노동요가 구전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흥미 넘치고 민속 문화에 관심이 많아 노인회를 시초로 하귀2리 민속보존회가 생겨났습니다. 주민 전체가 보존회원이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민속 문화 공연과 지신밟기, 걸궁 등 마을의 민속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소개 인터뷰 중에서>

하귀2리 민속보존회는 1991년 창립되었다. 그 구성원은 당연히 하귀2리에 사는 주민들이다. 100여 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된 하귀2리 민속보존회는 이후 28년 동안 탐라문화제 및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중요한 상을 받아왔는데,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와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 역시'가 대표 사례다. 두 작품 모두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11월 14일 제주농협이 주관하는 제1회 '자청비제주농촌문화상'의 농촌문화복지 부문 수상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2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 역시



평택에서 개최된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때의 응원 현수막(2015년 10월 8일)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 역시'라는 명칭은 제주도 고유의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꽤 낯설게 느껴진다. 이 명칭을 풀어보면, '가문동이라는 마을의 작은 곶에 돌담으로 가두리를 쌓는 일'이 된다. 가문동은 제주도 애월읍 하귀2리의 자연마을 중 하나다. 1776년 자가돈이라 부르는 사람과 문충순이라 부르는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을 명칭 역시 자가돈의 '가[可]'와 문충순의 '문[文]'자를 따서 붙였다. 가문동은 '가문코지'로도 부른다. 이는 4개의 코지(큰코지, 코생이코지, 아끈코지, 너북코지), 즉 곶이 바다에 돌출되어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원담’은 제주도 해안가 지형과 조류 차이를 이용해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돌을 쌓아 만든 담을 말한다. 제주도 동쪽 지역인 조천, 구좌, 성산 일대에서는 이를 ‘갯담’이라 부른다. 즉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어로 장치인 것이다. 원담은 보통 마을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그 축조와 보수 및 어로 활동 등을 마을 공동으로 정했는데, 이때 축조와 보완 작업을 ‘역시’라 불렀다. 역시는 ‘역사[役事]’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 역시’는 제주 지역 고유의 공동어로 시설인 원담을 축조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원담 축조와 그에 따른 여러 소리와 놀이, 그리고 고사 등을 함께 엮어 놀이로 표현한 것이다.



제56회 민속예술축제에서 놀이로 표현한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 역시(2015년 10월 8일)

원담은 제주지역 곳곳에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백 개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어로 방법의 변화와 해안가 개발로 인해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어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치되거나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귀2리도 원담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원형을 보존해 그 기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원담을 축조하고 보완하는 기술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어 하나의 놀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하귀2리 민속보존회에서 구성한 원담 역시는 마을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생업 공간으로 삼아 원담을 쌓고 물고기를 잡는 과정을 담은 것이다. 하귀2리의 원담은 앞서 말했듯 마을 공동의 소유였다. 하지만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는 경우, 공동 소유의 자격이 없었다. 원담을 쌓고 보수하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원담을 공동으로 소유할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원담을 축조하는 모습을 표현한 대목(2015년 10월 8일)

원담을 축조하는 과정은 육지의 두레와 같은 것이었다.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에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도 있었다. 그리고 원담에서 잡은 물고기는 공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다.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 역시는 '첫째 마당 멜 컬름(바다에서 얻은 멸치를 거름으로 이용해 마을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모습)', '둘째 마당 원담 역시(아끈코지 원담의 축조 과정)', '셋째 마당 그믈ᄀᆞ사(풍년을 기원하며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 '넷째 마당 멜 들었져(썰물로 물이 빠진 원담에 온 마을 사람이 들어가 고기를 잡는 모습)' 등으로 놀이를 구성해 하귀2리의 생업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려 한 것이다.



원담 축조 과정에서 벌어진 놀이 모습을 표현한 대목(2015년 10월 8일)

3. 대통령상 수상 이후의 활동과 미래 전망

하귀2리 민속보존회는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 역시가 제주도 대표작으로 선정된 이후, 꾸준히 공연을 준비해왔다. 80명으로 경연팀을 구성, 하귀2리 미수동 포구에서 2015년 8월 21일부터 매주 4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꾸준하게 연습했다. 그리고 마침내 평택에서 열린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했다.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연습 과정(2015년 9월 1일)

그런데 하귀2리 민속보존회가 경연할 시간이 다가오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관람은 물론이고 공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하귀 2리 민속보존회는 열심히 경영에 임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하귀리 출신 100여 명 역시 폭우에도 끝까지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드러난 하귀리 사람들의 '고향 사랑'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경연을 응원하는 재경 하귀리민회 현수막과 회원들(2015년 10월 8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는 일 천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를 '하늘 아래 귀한 민속예술의 고장'이라 자랑한다. 이 마을을 주목하는 이유는 민속보존회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다. 하귀2리 민속보존회는 여러 차례 대회에서 중요한 상을 받았다.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는 2005년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소리는 제주시 애월읍 일원에서 겉보리 농사를 지을 때 부르던 농업 노동요로, 대통령상 수상 이후 2007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귀2리 민속보존회는 2012년 탐라대전 '바람 마차 퍼레이드' 경연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여기에 덧붙여 2015년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도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 역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경연을 마치고 인사하는 하귀2리 민속보존회(2015년 10월 8일)

전국 단위로 벌어지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같은 단체가 두 번씩이나 받은 경우는 하귀2리 민속보존회가 유일하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민속보존회를 포함한 마을 자치 조직의 활성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00년이 넘는 마을 자체 조직 역사를 가진 하귀2리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60년 전 4.3사건 등 어려운 시절도 많았다.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위해 회비를 거출한 것이 전통이 되었다. 이 제도는 당시 '향약'이라는 마을 어른들이 '구두'로 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규칙으로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제주도에서 우리 마을이 제일 처음 이장 제도를 만들었다.
> 전통적으로 마을 일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풍습이 있었다. 지금은 행정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마을 사업을 할 때 재산의 정도에 따라 출연했다. 잘살고 있는 지역은 조금 더 걷고 했지만, 지금은 공통적으로 걷고 있다. 단, 극빈자, 장애인, 70세 이상은 면제다. 또 예전에 이장, 사무장은 다 봉사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을 일을 주도하려는 의식이 마을 자치 조직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했고, 마을 민속보존회 역시 이러한 활성화 흐름에 따라 적극적으로 마을 민속을 전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개의 대통령상 수상작을 보유한 마을이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민속예술 전승을 위한 전수관도 마을에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장래는 밝다.

약 10억의 예산을 투입한 마을 민속 전수관은 대지 매입과 건립에 주민의 성금이 큰 힘이 되었다. 하귀2리의 저력이 여기서도 발휘된 것이다. 마을에 세워진 '성금희사자 방명' 비석에는 성금 기부자들에 대한 고마움이 표시되어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60년을 기념하면서 주요 전승자를 인터뷰하는 자리에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귀2리 주민들로 구성된 민속보존회의 활동이 민속예술 전승의 한 방향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 내평리 길쌈놀이, 이점례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6.10.13~10.16,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2019.10.03, 서울특별시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현장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 장면

1. 생애와 소리꾼으로서의 삶

이점례(84세)는 화순 도곡면 효산리에 태어나 20세에 내평리로 시집을 왔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초등학교도 온전히 졸업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많다고 한다.

친정인 효산리에서도 미영배 질쌈을 흔히 했고, 친정 부모님도 미영배 질쌈을 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여덟 살 때부터 명을 잣기 시작했고, 19~20살 때부터 베 짜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미영배 질쌈을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미영배 질쌈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녀는 시집온 후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줬다.

> 결혼 후 22살에 첫 애기를 낳았는데, 21살 때 애기가 들어서서 입덧을 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하루는 밥을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비틀비틀하고 베를 짜니까 시아버지가 '너는 께을러서 못 산다 나가거라'라고 하면서 낫을 갖고 와서 베틀 위의 베를 쫙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농 안에 있던 자신의 옷도 다 마당에 내 띵겨 버리면서 나가라고 하였다. 친정부모가 시집을 보낼 때 너는 죽어도 시댁에서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못하고 울고 앉아 있다가 새벽 밤을 자고 다음 날에 다시 시어머니랑 그 찢어진 천을 다시 다 이어서 짰다. 그렇게 베를 짜 갖고 팔아서 '목구녕 천신'을 했다고 한다.

먹을 것 없던 시절에 입덧까지 하느라 힘이 들었는데, “보리를 숭거서 쌩 보리 훑어다가 그 놈 솥에 다 모가지차 삶아갖고, 학독에 딱딱 갈아갖고, 지글지글 구워서 밥 한 숟가락 씩을 해서 먹으며 살았다”고 한다.

내평리에서는 미영배 질쌈을 품앗이로 하기도 했는데, 8자 방이라 여덟 명이 앉아 미영을 잣았다고 한다. 모두들 미영을 짜갖고 생계를 이었던 시절이었다.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하지, 배는 고파서 못살겄지, 질쌈하고 나무해서 때느라 일이 돼서 못살겄지, 너무 힘이 들어서 가슴에 한이 찼다”고 한다. “그란게 부모들 숭도 보고, 서방님 숭도 보고...” 했다고 하는데, 말로 해서도 양이 안 찼다고 한다. 가슴 속을 아무리 털어놓고 이야기해도, 다음날 일을 하기 시작해서 몸이 고되면 또 그런 것이 가슴에서 차올랐다고 했다.

그때 친정엄마가 부르던 노래가 기억이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겄네, 우리가 흥그렁타령이라도 불르세” 라며 제안했다고 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 친정엄마가 흥그렁타령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한다. 그랬던 그녀가 흥그렁타령을 부르면서 일을 하자니 ‘내가 어매 같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교수님이 노래를 해보라고 해서 여천에 있던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베틀노래, 미영잣은 노래, 베 짜면서 하던 흥그렁타령을 불렀다고 하는데, 대회에 나갔을 때 잠깐 불러보았을 뿐, 그 이후에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단다. 그러던 것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게 되면서 다시 찾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에 참여한 이점례(가진 맨 오른쪽)

2. 내평리 길쌈놀이의 현재

내평리 길쌈놀이는 2013년 12월 12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4호로 지정되었다. 2015년에는 해남 두륜산도립공원 운동장에서 열린 41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 화순군 대표로 출전해 대상을 받으면서 전

국대회인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에 전주에서 열린 제57회 대회에 참가해 국무총리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무총리상 수상 이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화순군에서 마을 내에 '물레놀이터'를 만들어줘 질쌈에 사용하는 연장들도 들여놓고, 매년 하루를 잡아 '화순리 내평리 길쌈노래축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하루 마을 잔치를 베푸는 셈이다.

길쌈노래축제를 할 때는 인근 마을 중 유사한 민요 종목을 전승하고 있는 여러 팀과 함께 품앗이 형태로 연대하고 있다고 한다. 연대하는 마을은 도암면 도장리 밭노래(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1호), 춘양면 우봉들소리(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4호) 두 마을과, 내평리까지 세 마을이다. 또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나가는데, 화순 군민의 날과 화순 국화 축제에는 빼놓지 않고 참여한다고 한다.

나주에서 열렸던 축제에도 초청되어 간 적이 있고 나주 농촌진흥원에서 초청공연을 하기도 했다. 경주에도 초청되어 공연하러 간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내평리의 민요에 빠져서 난리가 났었다고 회고했다.

지금은 이 노래의 전승이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젊은 소리꾼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 노력의 하나로 2017년 화순문화원 '꿈다락' 토요프로그램 참여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소리를 교육하고, 3개월에 걸쳐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연습을 했다고 한다.

꿈다락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2017년 곡성군 곡성문화체육관 다목적 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 화순군 대표로 출연해 우수상과 연기상을 받았다. 연기상을 받은 유아선(화순제일초 3)은 구슬픈 노래를 곧잘 불러서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 교육에 참여했던 이점례와 내평리 주민들이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고 한다.

최근 그녀는 전라남도가 주최한 '2019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한다. 다들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나와 준비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녀는 따로 원고도 없이 가서 그냥 인기상이라도 타겠다는 마음으로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고, 시집살이 이야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흥그렁타령을 부르고 내려왔다고 한다.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데다, 노래로 큰 감동을 일으켜 그녀는 결국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와서 "아줌마, 참 잘했소~" 라고 말해줘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녀는 여러 곳에 공연하러 다니고 경연에도 참여할 때마다 며느리가 음료수를 사 오는 등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한다. 또 같이 공연에 참여하는 보존회 회원 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연하면서 서로 더 많이 알게 되어 이전보다 사이가 좋아졌다고 한다. 공연 내용에 시어머니 욕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도 실상은 고부의 사이가 좋아졌다니 역설적인 일이다.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이점례

문경 모전들소리, 김제수, 강동완, 금명효

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7.09.21~09.24, 경상남도 김해시 수릉원 일원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김제수(정면을 보고 있는 이)

1. 문경 모전들소리 보존회의 역사

모전들소리보존회의 모태는 모전농악단이며, 그 뿌리는 모전 중신기마을의 농악에 있다. 농악단에서 출발해 들소리를 함께 전승한 셈이다. 모전농악은 김동환이 농악대 제1대 상쇠를 맡았으며, 부쇠인 윤학봉(1925년생), 정병태(1927년생) 등이 가락을 익혀 다음 상쇠와 부쇠를 맡았다. 이후 양수봉(1925년생)이 3대 상쇠가 되면서 모전농악을 이끌어왔다. 모전농악은 서로를 군사[軍士]라 칭하고, 매년 음력 1월 마을 기금 마련을 위해 걸립농악을 했으며, 점차 그 실력이 향상해 해방 전후 동민 30여 명을 이끌고 가은 기세배와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농악경연대회 이후 모전농악대는 당시 점촌경찰서(현 문경경찰서)에 마당걸립 신고 후 점촌일대 걸립을 시행해 마을 기금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이후 1960년 중신기동회관 건립자금 마련 및 마을 발전기금 걸립 등 본격적인 마을 걸립을 주도했다. 또한 1975년 10월부터 매년 열리는 문경문화제 농악경연대회에 모전동 대표로 참여해 여러 차례 우승을 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1960년 모전 중신기 마을회관 건립 기념

1996년 모전동 농악단은 공식 명칭을 '모전농악단'으로 바꾸고 재창단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르러 모전 지역에서 전승된 민요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농악단을 이끌어오다가 연로한 뒤부터 지도 역할을 맡은 양수봉 어른도 농악패 상쇠이자 민요 앞소리꾼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들소리 전승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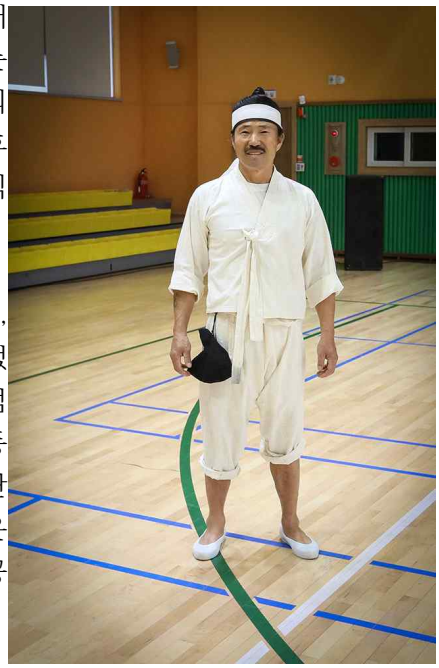
양수봉 외 모전동 어른들의 민요경창대회 출전 모습(지신밟기)

어느 정도 소리를 익인 2010년 7월 1일, 모전들소리보존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활발한 전승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전동민으로 구성된 모전들소리보존회는 2019년 현재 남 13명, 여 37명으로 총 50명이 활동하고 있다.

2. 모전 들소리의 선소리꾼들

문경 모전들소리보존회의 선소리꾼은 김제수, 강동완, 금명효 등 총 세 명이다. 옛소리를 전수했던 양수봉 어른이 작고한 이후에는 젊은 계승자들이 모전들소리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젊은 세대가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1) 김제수



김제수(1958년생)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2리에서 출생해 1972년 문경시 모전동으로 이주한 후 쭉 이곳에 살고 있다. 그는 1987년 당시 새마을부녀회장 최종자의 권유로 모전동농악단(당시 회장 박경무)에 입단했으며, 1997년 고봉환이 모전동장에 취임한 후 그와 여러 사람의 권유로 농악회장에 올라 약 20년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 걸립행사를 할 때마다 양수봉 어른과 함께 소리를 했는데, 처음 배울 당시 양수봉이 적어 놓은 가사집을 빌려와 익히기도 했다. 당시 양수봉이 "앞만 보고 따라가라"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엄한 교육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농악대 활동을 하다가, 2010년 강동완 상쇠, 금명효 등 남자 회원을 중심으로 모전들소리보존회를 창단해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악기는 물론 양수봉에게 배운 지신밟기, 가래질소리, 목도소리, 모심는소리를 잘 구사해 들소리 공연 시 강동완 상쇠, 금명효 기획국장과 선소리를 나눠서 하고 있다.

한편 김제수는 문경시 농악 보존을 위해 직접 각 읍·면·동 농악단을 찾아다니며 2011년 문경시 풍물연합회를 구성해 회장직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문경시장 표창 4회, 감사패 1회, 그리고 모전들소리 및 문경시 농악 보존에 대한 공로로 2016년 문경대상(문화예술부분)을 수상했으며, 2017년 모전들소리 대통령상 수상 기념으로 경상북도지사 감사패를 받는 등 지역 민속문화 전승·발전의 공로로 여러 차례 수상했다.

2) 강동완



모전들소리보존회에서 상쇠를 맡고 있는 강동완(1958년생)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에서 출생했다. 이목1리 마을은 낙동강이 바로 옆에 있어 예전부터 소금배가 드나들던 나루터였으며, 마을 집집이 지신밟기를 하는 등 민속놀이가 융성했던 곳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전통을 관심 있게 관찰했던 강동완은 집에 와서 양철 쟁반 등으로 그 가락을 흉내 내며 놀았다고 한다.

결혼 후 모전동으로 이주한 강동완은 하늘재 풍물패에 입단해 잠시 활동했으며, 1995년 김제수의 권유로 모전동 농악단에 입단했다. 입단 후 양수봉의 지도를 받으며 그의 대를 이은 4대 상쇠로 활동했다. 그는 악기는 물론 양수봉에게 배운 지신밟기, 모심는소리(둥아소리, 아리랑) 등을 잘 구사해, 들소리 공연 시 김제수 회장, 금명효 기획국장과 선소리를 나눠서 하고 있다.

3) 금명효



금명효(1981년생)는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거창2리에서 출생해 옥산초교 입학 후, 1991년 문경시로 이주했다. 고향인 상주시 공성면 거창2리(창말) 마을은 밀양박씨 집성촌으로, 특히 풍물이 융성했던 마을이었다. 이주한 문경시 동로면에서는 상여소리 선소리꾼이었던 변상덕씨과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소리를 공책에 받아 적어 놓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꽹과리를 치며 어른들과 지신밟기를 함께 했으며, 1997년부터 마을 어른들의 권유로 상여소리를 메겼다고 한다. 성장한 후 서울청 청량리경찰서 근무할 때는 동대문청년회에 가입, 풍물공연 및 답십리전통시장 지신밟기 선소리를 하면서 활동을 이어갔고, 결혼 후에는 문경시 모전동으로 내려와 처의 권유로 모전동농악단에 가입했다.

보존회에 가입한 후 보존회장 김제수의 제안으로 양수봉 어른을 만나 예전 모전농악 및 들소리에 대해 진술을 들었으며, 당시 양수봉이 숨이 차다며 모내기소리 두 마디 정도만 하고 “내 소리가 문화원에 있으니 찾아보라”는 말과 함께 농악 및 농요 연희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었다고 한다.

이후 김제수 보존회장, 강동완 상쇠 등과 함께 모전들소리를 창단해 회원들과 함께 연습 및 공연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지사 감사패 2회, 문경시장 표창 2회, 감사패 1회를 받았고, 2017년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모전들소리 경북 대표로 출전해 단체 대통령상, 개인 연기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선소리 분야로 수상했다.

3. 문경 모전들소리보존회의 현재

문경 모전들소리는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참여한 이나 문경 모전동 주민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다고 한다. 수상 이후 모전동 노인회에서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매 협의가 되어 모전들소리 전수관 부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후 문경시에서 모전들소리 용역 조사를 했으며, 2019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를 받은 상태다.

해마다 모전들소리 정기발표회를 열어 올해 5회차를 맞았으며, 횡성회다지소리축제나 예천통명농요 발표회 초청공연, 증평들노래축제 초청공연 등 다양한 축제에 초청되어 공연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문화재 지정이 확정되면 모전들소리 전수관을 우선 건립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회원 가입 및 교육을 통해 모전들소리의 전승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전국의 민속(농요)단체와 상호 교류를 확대해 문경의 민속문화를 알리는 데 더욱더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다. 누구보다 젊은 열정을 기반으로 문경 모전들소리가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한다.

논산 전통두레풍장, 윤종만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018.10.13.~10.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
2018.10.14. 13:06~13:34, 충청남도 논산시 전통두레풍물보존회



노성면 두레풍장패와 함께 한 윤종만(양복 입은 이 뒤에 앉은 이)

1. 윤종만의 생애

윤종만[尹鍾萬]은 1940년 음력 삼월삼짇날 충남 부여군 초촌면 진호리 장천마을에서 아버지 윤태원과 어머니 김정희 사이에서 1남 5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원 나이로는 경진[庚辰]년 용띠지만, 호적에는 1943년 계미[癸未]생으로 올라있으며, 이름 또한 윤종기[尹鍾基]로 기재되어 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윤종만은 대략 두 살 때 강보에 싸여 시집가는 큰 누나와 함께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혼인한 누나에게 맡겨져 시댁인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윤종만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다. 누나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온 취급을 받아 갖은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시댁 눈치를 보면서 온갖 구박과 핍박을 견디며 지난한 시절을 보냈다. 일곱 살 때부터 지게 지는 일을 시작해 시골 꼴을 베는 꼴머슴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윤종만은 열일곱 살이 되어서야 누나에게서 독립했는데, 이마저도 남의 집 머슴살이를 스스로 자처해 가능했던 일이었다. 배곯는 상황 속에 '쌀밥이나 실컷 먹어보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고 그는 증언한다. 그렇게 열일곱의 나이로 머슴살이를 시작해 약 9년간 이인면 복룡리와 탄천면 근방에서 그 생활을 지속했다고 한다. 주인집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농사일은 물론 무엇이든 했다고 한다.

그의 삶은 배고픔과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수박과 참외 서리를 했고 주위에서 윤종만을 도둑으로 봐 그와 어울리지 말라고 해 친구들까지 잃게 된 사연은 그의 고난이 안팎으로 그를 괴롭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윤종만은 서른여덟의 한참 늦은 나이로 매형 김재을이 중신해 당시 서른 살이었던 방점순과 혼인했으며, 슬하에 2녀를 두었다. 혼인한 후에도 분가하

지 못한 채 드난살이로 살림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셋방을 전전하다 11년 전에야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말한다.



38세의 윤종만과 30세의 방점순과 혼인한 사진

2. 윤종만, 두레꾼으로서의 삶

윤종만은 일꾼으로 살면서 자신의 신명을 달래는 일을 한껏 했다. 자신의 신명을 달래는 유일한 방도가 바로 신명 나는 두레풍장을 치는 일이었다. 그렇게 풍장을 못 치게 하는데도, 한사코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네의 이름난 풍장꾼의 가락 치는 것을 보고 함께 어울려 흉내 내고 모방하면서 새로운 신명의 길을 닦았다고 한다. 그렇게 해 마침내 풍장꾼으로서의 모습을 닦아 나가게 된다.

(1) 재주 있는 아이로서의 삶(유년시절)

윤종만은 오랫동안 드난살이를 했기에 한 고장에 머물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가 나고 자라면서 평생을 지내온 곳은 모두 두레풍장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한 고장에서 자라면서 윤종만은 풍장소리를 쉬이 접할 수 있었고, 풍장과 함께 어울렸으며, 풍장은 곧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윤종만이 두레풍장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일곱 살 무렵이었다. 어린 그가 가장 먼저 접한 악기는 깡통과 지게 작대기였다. 그 무렵부터 깡통을 꽹과리 삼아서 치고, 지게 작대기로 작대기 풍장을 연주하면서 그만의 풍장 연주를 즐기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농악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실제 윤종만이 실물로 장구를 접하게 된 것은 열다섯 즈음인데, 그가 풍장가락을 익힌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다고 증언한다. 가락을 따로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장단을 귀로 들어 익혔으며, 악기를 실제로 접하기 전부터 친구들 앞에서 상쇠 역할을 하는 등, 그의 예술적 자질과 재능은 이 무렵부터

빛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풍장가락에 대한 외곬수와 같은 사랑은 그를 더 깊은 고립의 길로 이끌었다. 윤종만의 풍장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고울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잿놈이라고 손가락질했고, 이로 누나와의 관계에 깊은 골이 패기 시작했다. 윤종만은 “그걸 안 할라고 해도 이상하게 그게 자꾸 쏠려가지고 해 버릇 해가지고 했어요.” 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정에도 어린 그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말들도 견뎌낼 수 있는 무언가가 윤종만의 가슴 속 깊이에 자리하고 있던 것이다.

주변의 손가락질은 그의 누나에게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풍장가락이나 치게 되면 재인이 된다는 말과 함께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비난까지 들었으며, 심지어 친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윤종만과 함께 어울리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누나는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슴 아픈 말을 하며 다그쳤지만, 그는 누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멈출 수 없었던 거로 판단된다. 어린 시절 이러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듯 그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서글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뒤에 이러한 말을 함께 덧붙였다. “그 냥반들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고 아주머니들이 몇 분 살아계신디, 지금은 가면 막 이렇게 대우를 해줘. 테레비도 나오고 했다고 저기 한다고, 고생하드니 성공했다고.” 이러한 말이 그가 겪은 모진 시절에 대한 보상은 될 수 없겠지만, 장구를 놓지 않은 것에 대한 그의 삶에 위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유년 시절은 너무나도 험하고 기구했다. 그의 불우한 환경은 차치하고라도 그의 재능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2) 두레꾼으로서의 삶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윤종만이 가진 것이라곤 두레풍장에 대한 갈망과 재능뿐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 그에게 두레꾼으로서의 삶은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다섯 윤종만은 본격적으로 두레에 속해 마을 구성원으로서 논농사에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두레풍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윤종만은 자신이 처음 악기를 잡게 된 것이 열다섯 무렵이라고 증언한다. 이는 탄천면에서 남의 집 머슴을 살 적의 일이라고 한다.[2] 두레가 시작되어 참여하게 된 그는 생전 처음 어른들에게 이상한 제안을 받게 된다.

> 이게 그 냥반들이 어서 들었나? 날 더러, ‘너 장구 잘 친다매~’ 그래. ‘잘 치기는 뭘 잘 쳐여, 못 쳐여.’ 그랬더니, ‘자 한 번 쳐봐라.’ 그래 그 어른들하고 쳤지.

그가 두레꾼으로서 참여하기 시작하자, 그를 향했던 좋지 못한 시선이 풍장꾼의 면모를 갖춘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것이다. 심지어는 “너 잘 친다야, 앞으로 괜찮겠다 배우면. 잘 쳐라” 라는 칭찬의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윤종만은 장구잽이로서 두레풍장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도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데, 어려서는 더 작았다고 한다. 논매기하고자 장구를 메고 논바닥에 들어가면, 자란 벼 포기가 그의 장구 궁편과 궁채에 스쳐 장구가 새파랗게 물이 들고는 했다는 일화를 들려줬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구를 풀물을 들여가며 두드리던 그 시절이 그에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머슴을 처음 산 게 17살이라고 증언하고, 이는 15살이라고 했으므로, 정확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 일단 17살 무렵으로 파악해야 할 듯하다.

윤종만은 두레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고, 두레풍장가락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논농사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모두 기억하고 있다. 어떤 연장을 사용하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등을 먼저 설명할 정도로 농사일에 관해서는 빠듯하게 외고 있다. 또한 풍장꾼으로서 활동했던 만큼 풍장꾼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가락을 잘 알고 있다.



소풍을 가서 함께 찍은 사진(오른쪽 끝에 장구를 멘 이)

두레풍장가락에는 질굿(늦인마치), 가는풍장, 세마치, 자진마치가 있다. 대체로 가락이 단조롭지만, 즉흥적으로 쳐야 하기 때문에 사물놀이보다 배우기 어렵다고 한다. 그는 소리를 궁글려 치는 군마치를 넣어야 하고, 이것을 넣어야 풍장소리가 풍부하고 듣기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군마치는 자진가락에서 풍부하게 사용된다.

그는 양장구가 아닌 외장구를 친다. 두레는 바른손으로 궁채를 때려야 흥겹고 소리가 제대로 잘 들어간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양장구는 '요 가락에서 내가 넣어야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 친다고 한다. 언제 들어간다는 규칙이 없고, 순서 또한 없다고 하며, 신명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처럼 자유자재로 가락을 가감하면서 즐기는 면모는 두레풍장의 즉흥성과 음악적 예술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윤종만은 장구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그의 예술적 재능은 두레의 일원이 되면서 꽃 피우기 시작했는데, 논농사하며 부르는 논농사소리도 이에 해당한다. 그는 선소리꾼으로서도 여러 가지 경험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모심을 때 부르는 못방구치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으며, 더불어 논매는소리 또한 또렷하게 간직하고 있다.

두레가 소멸되고, 농사 현장이 기계화되면서 그도 도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두레 현장을 떠나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사물놀이였다. 그 역시도 사물놀이를 접하고 배우기에 나섰지만, 두레풍장이 주던 그 신명에는 미치지 못했던 듯싶다. 그는 함께 풍장을 치던 사람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사물놀이를 배우던 주시준 단장에게 두레풍장을 함께 해볼 것을 권했다. 몇 차례 회유 끝에 그의 결심을 돌릴 수 있었고, 11년간 그와 함께 두레풍장의 전통을 잇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종만은 태생적으로 장단이나 소리 등에 재주가 있던 인물로 판단된다. 그의 타고난 자질은 좋은 소

리를 듣고 이를 간직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삶이 떠돌이의 삶이었다면 그는 또 다른 예능적 기예를 보여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삶은 두레의 고장에 있었고, 논바닥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농사꾼으로서, 머슴으로 드난살이를 했지만, 두레의 일원이 된 이후로 그는 더는 맴돌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의 재주는 논바닥에서 오롯이 빛을 냈고, 그의 삶도 빛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윤종만과 같은 인물을 통해 우리는 전통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뛰어난 기예를 보여주는 것이 예술의 전부가 아닌 듯 말이다. 가장 우리다운 소리,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민중의 전통이 그의 삶 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된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그의 삶 속에 우리 민족의 신명과 흥취가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사라진 줄만 알았던 전통이 그 안에 있다고 할 만하다.

부록 3. 주요 출품작 현황: 문화재 지정과 관리 경과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958년 서울에서 대한민국 수립 10주년 기념행사로 출발했다. 이 축제는 전국에서 전해 내려온 민속예술 발굴을 핵심 임무로 삼았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 형질을 보존하고 지키는 데 앞장섰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민속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전승하고자 1994년부터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병행 개최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축제로 성장해 왔다.

그 결과 민속예술 700여 종목이 발굴되는 위용을 자랑하고, 역사 측면에서도 소중한 전승이 이루어졌으며, 기본 자질을 지킨 채 무대예술과 축제 형태의 인공물로 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고성오광대놀이, 남사당풍물놀이 등 37개 종목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동래학춤, 멸치후리는노래 등 101개 종목은 시·도무형문화재로, 줄다리기, 해녀놀이 등 12개 종목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명실공히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산실과도 같다.

그러므로 한국민속예술축제 60년 성과는 토박이 문화나 토착 무형문화로 전승되는 것을 근간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높인 것임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토박이 문화재를 동심원의 중심에 두고, 이를 시도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세계무형유산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면에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공통으로 존재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번	구분	국가지정	시도지정	이북5도	유네스코
	종목명	37	101	13	12
1	가래질소리				
2	가루뱅이농악				
3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4	가산오광대	1			
5	갈곡들소리				
6	감내게줄다리기				
7	갑천춘사새신				
8	강강술래	1			1
9	강령탈춤	1			
10	강릉관노가면회				
11	강릉농악	1			
12	강릉단오굿				1
13	강릉대보름농악				
14	강릉무당춤				
15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1		
16	강릉성황제가면희				
17	강릉오독떼기				
18	강릉용물달기				
19	강릉좀상날억지다리뺏기				
20	강문진또배기				
21	강진군동두레농요				
22	강진땅뺏기놀이				
23	강진베틀놀이				
24	강화교동들노래				
25	강화시선뱃노래				
26	강화용두레질노래		1		
27	거리제				

28	거문도뱃노래		1		
29	거문도술비소리				
30	거북놀이				
31	거북둔지농목짱치기				
32	거창디딜방아상여액막이소리		1		
33	거창삼베일소리		1		
34	거창일소리		1		
35	건금마을 용물달기				
36	건들방우치성굿				
37	검질메는노래				
38	경남오광대놀이				
39	경복궁지경닺이				
40	경북 화상싸움				
41	경서호상의식				
42	경신역마놀이				
43	계정들소리				
44	계족산 무제				
45	고령샛가지농악				
46	고무산타령				
47	고분도리걸립				
48	고산농악				
49	고성농요	1			
50	고성명태소리				
51	고성명파돌다리놓기				
52	고성오광대놀이	1			
53	고싸움놀이	1			
54	고양두레풍물소리				
55	고양들소리				
56	고양시 호미걸이		1		
57	고전상여소리				
58	고창성남줄굿				
59	고창오거리당산제		1		
60	고창우도농악		1		
61	고창임리당산제				
62	고흥농악				
63	고흥문굿		1		
64	고흥한적들노래				
65	곳바구리물통파는놀이				
66	공산농요		1		
67	공산만가				
68	공주걸립농악				
69	공주달공소리				
70	공주머슴호미씻기놀이				
71	공주웃다리 충청풍장				
72	공주장승제		1		
73	과천나무꾼놀이				
74	과천무동답교놀이		1		
75	관등놀이				

76	광명농악		1		
77	광산구마륵농악				
78	광산농악		1		
79	광산들노래				
80	광산풀두레놀이				
81	광주산월농악				
82	광주 수완골 화전놀이				
83	광주무등농악				
84	광주월계상여소리				
85	광주지산농악				
86	광주지산들소리				
87	광지원농악				
88	괴산군 여사왕 대도듬 놀이				
89	괴산농악				
90	괴산농요				
91	괴산백중놀이				
92	교동들노래				
93	구덕망께터다지기				
94	구미무을풍물		1		
95	구미발검들들노래				
96	구정대보름놀이				
97	군산용왕굿				
98	궐기타령				
99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1		
100	그물당기는 노래				
101	금과들소리		1		
102	금릉빗내농악		1		
103	금마기세배				
104	금산농악		1		
105	금산물페기농요		1		
106	금척무				
107	기와밟기				
108	긴아리				
109	길마재줄다리기				
110	김녕리 서낭굿놀이				
111	김만경외애밋들들노래				
112	김매기노래				
113	김제벽골쌍용놀이				
114	김천광천농악				
115	김포두레농요		1		
116	김포상두꾼소리				
117	김해오광대		1		
118	까치내상여놀이				
119	꼬댁각시놀이				
120	꼭두각시				
121	꼭두각시놀음				
122	꽁당배와두루메기젓잡이				
123	나주들노래				

124	낙안읍성두레놀이				
125	날뫼북춤		1		
126	날외 소금 졸래기				
127	남대천놀이				
128	남도농악				
129	남사당풍물놀이	1			1
130	남원농악		1		
131	남원용마놀이				
132	남이장군당굿		1		
133	남한산성도척놀이				
134	남해선구				
135	남해선구즐긋기놀이				
136	남해안별신굿 중 탈놀이 및 시석굿	1			
137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				
138	낭성산판소리				
139	내평리 길쌈놀이				
140	노성현칠형제두레메기				
141	논다루는소리				
142	논매기와 두레싸움				
143	논산전통두레풍장				
144	놋다리밟기				
145	농기고두마리				
146	농기뺏기				
147	농목장치기				
148	농바우끄시기				
149	농사굿 12마당				
150	다대포후리소리		1		
151	다시들노래				
152	다천사작법				
153	단석풍물				
154	단양띄뱃놀이				
155	달구노래				
156	달래강 망패싸움				
157	달성다사농악				
158	달성설화리 상여소리				
159	달성이천농악				
160	달성하빈들소리		1		
161	달집태우기놀이				
162	달천쇠부리놀이				
163	담양농악 풍장놀이				
164	담양들노래		1		
165	답교놀이				
166	답다우는소리				
167	당정마을지신밟기				
168	당진가학리볏가리대거북놀이				
169	대감놀이				
170	대구고산농악		1		
171	대구공산민요				

172	대구성서농요				
173	대동굿				
174	대명골합두레먹이				
175	대명리일소리				
176	대보름놀이				
177	대전 방아미 아들바위 수륙재				
178	대전웃다리농악		1		
179	덕양풍물				
180	도당굿놀이				
181	도둑잽이굿				
182	도안골옥녀봉기우제				
183	도안동농요				
184	도원골초등지게놀이				
185	돈돌날이				
186	동김녕리해녀노래		1		
187	동두내두레소리				
188	동래고무		1		
189	동래야류	1			
190	동래지신밟기		1		
191	동래학춤		1		
192	동래한량춤		1		
193	동평들노래				
194	동호리 멸치후리기				
195	두루메기떼뜨기잡이				
196	두만강뗏목노래			1	
197	두미신창 흙싸움놀이				
198	들골 대마지놀이				
199	들놀이				
200	등바루놀이				
201	등불써기놀이				
202	디딜방아 액맥이놀이				
203	떼몰이놀이				
204	띄뱃굿놀이				
205	마도갈방아소리				
206	마두장군놀이				
207	마들농요		1		
208	마라도처녀당전설				
209	마산농악				
210	마산농청놀이		1		
211	마산두레농악				
212	마산불모산영산재				
213	마포나루굿				
214	만구대탁굿			1	
215	만세보령농악				
216	말뛰기놀이				
217	말방아놀이				
218	말천방농요				
219	망데기질드리는소리				

220	망상동괴란고청제농악				
221	매지농악		1		
222	메구월일석춘경걸궁				
223	메포민요				
224	멸치후리는노래		1		
225	명주농악				
226	명주하평 2월답교농악				
227	모내기노래				
228	목계나루뱃소리				
229	목계별신굿				
230	목상동 들말두레놀이		1		
231	목우희				
232	무돌농악				
233	무수동산신토제마짐대놀이		1		
234	무안들노래				
235	무을농악				
236	문경모산굴기세배				
237	문경모전들소리				
238	문굿(문잽이굿)				
239	문희연				
240	물당기기놀이				
241	물레야!물레야!				
242	미호천방축노래				
243	밀양백중놀이	1			
244	밀양법흥상원놀이		1		
245	밀양새터가을굿				
246	바구니홰싸움놀이				
247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1		
248	밤골 마당 밟이				
249	방구다리농악				
250	방아돌굴리는노래				
251	방아타령민요				
252	방죽맥이				
253	배따라기				
254	배만드는 소리				
255	배뱅이굿				
256	배치기노래				
257	백두산선녀춤			1	
258	뱅인영감놀이		1		
259	버드내보싸움놀이				
260	버들개농요				
261	범암골 목도소리				
262	범패와 작법무 현충재		1		
263	베짜기놀이				
264	베틀노래				
265	벽골제쌍용놀이				
266	별상마마성황부군도당굿				
267	별상물림굿				

268	별신제				
269	병영서낭치기				
270	보격구				
271	보리타작민요				
272	보부상놀이				
273	보성옥평농악				
274	보성장좌기받이				
275	보은군 장안두레농요				
276	보은북실기세배				
277	보은흰돌물다리기				
278	봉산탈춤	1			
279	봉서사영산작법		1		
280	봉양파대놀이				
281	봉추들노래				
282	봉평메밀 도리깨질소리				
283	부남방앗거리놀이				
284	부사칠성놀이				
285	부산구덕망깨터다지기소리		1		
286	부산농악		1		
287	부산영산재		1		1
288	부여 단잡기놀이				
289	부여용정리 상여소리		1		
290	부용풍장				
291	부천 중리풍물놀이				
292	북성구지풍어놀이				
293	북성포곶창굿				
294	북청돈돌날이			1	
295	북청사자놀음	1			
296	북평원님놀이				
297	불무노래				
298	불싸움놀이				
299	붕기풍어놀이		1		
300	비금 밤달애놀이				
301	비바리				
302	비산농악				
303	비산동천왕매기				
304	빛고을무등농악				
305	사하방아소리				
306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307	산소골상여소리				
308	산신놀이				
309	산유화가		1		
310	산청메구				
311	살대세우기				
312	삼계고전상여소리				
313	삼동굿놀이				
314	삼정걸립치기				
315	삼척산메기				

316	삼현리물통방아놀이				
317	상노리지경다지기				
318	상조계놀이				
319	상주모내기				
320	새왓이기는소리				
321	생거진천농요				
322	서곶들노래		1		
323	서곶자염일노래				
324	서당놀이				
325	서도소리	1		1	
326	서도소리 선소리타령			1	
327	서도소리놀량사거리				
328	서도잡가				
329	서산 박첨지놀이		1		
330	서산덕지내 돌개미 두레놀이				
331	서산볏가리대놀이				
332	서산지점놀이				
333	서우젯소리				
334	서울12지풍물놀이				
335	서울가면극				
336	서정엿장수놀이				
337	서창만드리				
338	서촌상여소리				
339	서해안일노래				
340	석전놀이				
341	선사시대고래잡이재현				
342	선소리타령				
343	선학리지게놀이		1		
344	성덕왕신종				
345	성마령길메는놀이				
346	성왕부군도당굿				
347	성주풀이				
348	성터다지는 소리				
349	성황부군도당굿				
350	성황신제				
351	세경놀이				
352	세도가회리장군제				
353	세도두레놀이		1		
354	소금밭일놀이				
355	소놀이굿				
356	소촌농악				
357	속리산송이놀이				
358	속리산탑놀이				
359	속초도문메나리농요				
360	솟대쟁이놀이				
361	송악두레논매기				
362	송천달집태우기놀이		1		
363	송파답교놀이				

364	송파백중놀이				
365	송파산대놀이	1			
366	송포호미걸이				
367	솥 굽는 역시		1		
368	쇠부리놀이				
369	수영농청놀이		1		
370	수영야류	1			
371	수영야유 사자담보춤				
372	수영지신밟기		1		
373	수원두레				
374	수원장치기				
375	수표교다리밟기		1		
376	순천구산물보기굿		1		
377	순흥초군청풍물				
378	숯뱅이두레				
379	승전무	1			
380	시선뱃노래				
381	시흥월미농악				
382	신방가정민요				
383	신안뛈뛰기강강술래				
384	신창탈놀이				
385	싱아대(말장박는)소리				
386	쌍그네놀이				
387	쌍촌우도농악				
388	쑥대고잔지경소리				
389	아낙 일노래와 소리				
390	아리랑무용				
391	아미농악				
392	아미산울어리				
393	아방리농요				
394	아방리들소리				
395	아방리줄다리기				
396	아산줄다리기				1
397	아웨기와 흥애기소리				
398	안동 저전동달개놀이		1		
399	안동논매기				
400	안동놋다리밟기		1		
401	안동웅굴놋다리				
402	안동제비원성주굿푸이				
403	안동한두실행상소리				
404	안산둔배미놀이				
405	안성남사당풍물놀이				
406	안성답교놀이				
407	안성풍어당굿놀이				
408	애오개본산대놀이				
409	애원성				
410	양구돌산령 지게놀이		1		
411	양구바랑골농요				

412	양구바랑골지게놀이				
413	양반상례역귀몰이				
414	양양군수동골상여소리		1		
415	양양귀애파기놀이				
416	양양상복골농요		1		
417	양양입암농요				
418	양양쟁기동농악				
419	양양패다리놓기				
420	양주들노래				
421	양주별산대놀이	1			
422	양진명소오룡굿				
423	어르마타령				
424	어베주지춤				
425	언양 와 아이라 고풀이굿				
426	여수모도농악				
427	여수상문살굿				
428	여수영당풍어굿				
429	여주쌍용거				
430	연물놀이				
431	연산백중놀이		1		
432	연신맞이굿놀이				
433	연평도노래푸집이				
434	연평도놀이				
435	영광대화들노래				
436	영광서남면들노래				
437	영광옥당골들노래				
438	영광홍농들노래				
439	영덕월월이청청		1		
440	영덕탈굿				
441	영동 길쌈노래				
442	영동 질골막장소리				
443	영동설계리농요 및 단양농요		1		
444	영동해랑제				
445	영등굿놀이	1			1
446	영등굿떼몰이놀이				
447	영등굿양마희놀이				
448	영변성황대제			1	
449	영암도포제줄다리기				
450	영양모내기				
451	영천곳나무싸움				
452	영천명주농악				
453	예산보부상난전놀이				
454	예천공처농요		1		
455	예천청단놀음				
456	예천통명농요	1			
457	오방성주풀이				
458	오티별신제				
459	옥구들노래				

460	옥구상작농악				
461	옥천집터다지기는소리				
462	온달성재밟기				
463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1		
464	완주부동농악				
465	왕곡동제				
466	외포리곶창굿				
467	용구재이무기제				
468	용대기놀이				
469	용득기				
470	용신놀이				
471	용신맞이풍어굿				
472	용암리강다리기				
473	용암포풍어제				
474	용연기우제				
475	용왕굿				
476	용왕맞이굿놀이				
477	용전걸립굿				
478	용전들노래		1		
479	용평서낭굿농악				
480	우동리 당산제				
481	우수영부녀농요		1		
482	욱수농악				
483	운곡대보름액막이굿				
484	울산 매귀악				
485	울산달내쇠부리놀이				
486	울산달리농악				
487	울산등걸이농악				
488	울산물당기기놀이				
489	울산재밟기놀이				
490	울산재애밟기놀이				
491	웅상농청장원놀이				
492	웅소성리 호상놀이				
493	웅포용왕제				
494	원주오리골농요				
495	월계동 상여소리				
496	월정사탑돌이				
497	위도띄뱃놀이	1			
498	유성 용반골 착정놀이				
499	유성전민고을상여놀이				
500	율면정승달구지				
501	은산별신굿				
502	은율탈춤	1			
503	음성거북놀이				
504	응암당산굿놀이				
505	의귀리 촐비는소리				
506	의당집터다지기				
507	의성가마싸움				

508	의암별제				
509	이담농악				
510	이리농악	1			
511	이서들소리				
512	이천거북놀이		1		
513	이천용면리용줄다리기				
514	익산금마기세배				
515	익산기세배		1		
516	익산농요				
517	익산목발노래		1		
518	익산삼기농요				
519	인간칠십고려장하직굿놀이				
520	인제땟목꾼소리				
521	인제숯든골숯굽기				
522	인천 염전일노래				
523	인천근해도서지방의 상여소리		1		
524	인천아낙네들의 일노래와 소리				
525	인천염벗일노래				
526	인천읍내걸립농악				
527	인천전통편사놀이				
528	인천주대소리		1		
529	임실두레놀이				
530	임실들노래				
531	임실삼계				
532	임실삼계농요				
533	임실필봉농악	1			1
534	입석리선돌제				
535	입석줄다리기				
536	입체공명가 및 영변가				
537	입춘굿놀이				
538	자인계정들소리		1		
539	자인팔광대				
540	작약산영산재				
541	장뜰두레농요				
542	장산도들노래		1		
543	장안골편사놀이				
544	장흥보름줄다리기				
545	재가승마을세시놀이				
546	저산팔읍길쌈놀이				
547	전남장고춤				
548	전래동요와 남한강뱃소리				
549	전상놀이				
550	전어잡이시연		1		
551	전주기접놀이		1		
552	전주성황제				
553	전주승무				
554	정동우물제				
555	정선낙동농악				

556	정선아리랑	1	1		1
557	정선지게춤물박장단				
558	정수암화전놀이				
559	정월대보름지신밟기				
560	정읍농악		1		
561	정의고을여름들노래				
562	정의현청터다짐놀이				
563	제석방아놀이				
564	제주 꽃염불				
565	제주 팽토소리				
566	제주 화반놀이				
567	제주멍석놀이				
568	제주멜후리는소리				
569	제주무당춤				
570	제주민요	1			
571	제천두학농악				
572	조도닻배노래		1		
573	조밭다지는노래				
574	조심기놀이				
575	조팟발리는소리				
576	좌수영어방놀이	1			
577	주대소리와장치기소리				
578	주사손돌공진혼제				
579	줄다리기		1		
580	줄타기	1			1
581	중평굿-걸궁굿				
582	증원들소리				
583	증평장뜰두레놀이				
584	지동농악				
585	지와바리놀이				
586	진도들노래				
587	진도만가		1		
588	진도명다리굿				
589	진도아리랑				
590	진주검무	1			
591	진주삼천포농악	1			
592	진주선악				
593	진주오광대		1		
594	진주포구락무				
595	진천 소두머니				
596	집줄놓는노래				
597	차사영맞이				
598	차전놀이	1			
599	창원퇴촌농악				
600	처용무	1			1
601	천안거북놀이				
602	철산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				
603	청단놀음				

604	청도민요				
605	청도차산농악		1		
606	청도풍각농요				
607	청산도멸치휘리배소리				
608	청양동화제				
609	청원군현도두레농요				
610	청원농요				
611	청주강서농요				
612	청주농악		1		
613	청주소래울 두레놀이				
614	청주신촌두레농요				
615	청주웃다리농악				
616	청주전통농악				
617	초전 보리일소리				
618	총각대방놀이				
619	최영장군당굿 작두거리			1	
620	춘성수레싸움				
621	춘향전				
622	충무승전무				
623	충무오광대놀이				
624	충주달천풍물				
625	치실망깨다지기				
626	칠석농악				
627	쾌지나칭칭나네				
628	탄금대방아타령				
629	탑돌이				
630	탑성놀이				
631	태백문곡동웃벌마을산간민요				
632	태우만드는 놀이				
633	태인민요				
634	토성관원놀이				
635	토성정월대보름놀이				
636	통영검무				
637	통영삼현육각				
638	통영오광대	1			
639	통진두레놀이				
640	투호놀이				
641	파주금산리두레놀이		1		
642	판소리	1			1
643	팔랑개어장놀이				
644	편사놀이				
645	평남무당춤				
646	평북농요			1	
647	평산지경닦기소놀음 및 작두그네뛰기				
648	평안도다리굿			1	
649	평안도다리굿				
650	평안도부군도당굿				
651	평양검무			1	

652	평양염불과제석방아찧기				
653	평창농악				
654	평창둔전평농사놀이				
655	평창백옥포농악				
656	평창순행취타아라리				
657	평촌지경다지기놀이				
658	평택와야골거북놀이				
659	포천메나리		1		
660	하원마을옥가리 초집짓는소리				
661	하회별신굿놀이	1			
662	한량무		1		
663	한양풍물놀이				
664	한장군놀이	1			
665	함렬농기뺏기				
666	함북민요와 놀이				
667	함안농요		1		
668	함안칠북화천농악		1		
669	함평농요				
670	해녀놀이	1			1
671	해주검무				
672	해주본영대동굿				
673	해주장굿놀이				
674	향두계놀이			1	
675	허계굿				
676	허벅춤				
677	현천소동패놀이		1		
678	현천용천제				
679	호계별신농악				
680	호남검무				
681	호남우도농악		1		
682	호미걸이소리				
683	홍성결성농요		1		
684	홍천물통방아놀이				
685	화천나무꾼목장치기				
686	화천냉경지어부식놀이				
687	화천농악				
688	황주난봉가				
689	황해도화관무			1	
690	황해도민속범몰이				
691	황해민속놀이				
692	황해북춤				
693	황해살풀이				
694	황해작두타기				
695	황해장고춤				
696	횃불쌈놀이				
697	횡성우밀 어러리타령				
698	횡성회다지소리		1		
699	효자무				

700	흥룡마을가마놀이				

부록 4. 전국민속경연대회 50년 집적(1958-2009)

구분	연도(회차)	종목	작품명	단체명	지역명	수상	상금	개최지역
청소년부	2010(17회)	민속놀이	천안거북놀이	병천고등학교	충남	대통령(최우수)	10,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농악	정선낙동농악	정선중고등학교	강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민속놀이	수영농청놀이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금상)	5,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농악	웃다리풍물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충남도지사(은상)	4,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가면극	고성오광대	철성중학교	경남	충남도지사(은상)	4,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민요	팽토소리	대정고등학교	제주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농악	소흥문굿	대서초등학교	전남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3,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농악	가루뱅이농악	조일공업고등학교	대구	공주시장(장려상)	2,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농악	호남우도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공주시장(장려상)	2,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농악	고창우도농악	고창성송초등학교	전북	공주시장(장려상)	2,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무용	범패와작법무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민속놀이	음성거북놀이	삼성중학교	충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농악	단석풍물	무산중고등학교	경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농악	웃다리풍물	문산제일고등학교	경기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농악	웃다리풍물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서울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지도상	김지인(고창우도농악)	고창성송초등학교	전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연기상	이상섭(고성오광대)	청성중학교	경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연기상	지은총(팽토소리)	대정고등학교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청소년부	2010(17회)	초청공연	논두렁밭두렁					
청소년부	2010(17회)	초청공연	줄타기(국무 제58호)					
청소년부	2010(17회)	초청공연	김천빗내농악					
청소년부	2010(17회)	초청공연	임실풀봉농악					
청소년부	2010(17회)	초청공연	양주별산대놀이					
일반부	2010(51회)	민요	양양군수동골상여소리	입압리민속보존회	강원	대통령(최우수)	10,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요	질또림소리	대정읍민속보존회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요	서도선소리산타령	서도산타령보존회	황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	2010(5	농악	달성다사12차진	달성다사12차진굿보	대구	충남도지사(은상)	4,000	충남 공주시 고

부	1회)		굿	존회				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속놀이	동래지신밟기	부산민속예술보존회	부산	충남도지사(은상)	4,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속놀이	김해석전놀이	김해민속예술보존회	경남	충남도지사(은상)	4,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농악	화성마도농악	한국농악보존협회 수원·화성지회	경기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요	마들농요	마들농요보존회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3,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속놀이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대전동구문화원	대전	재단이사장(동상)	3,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속놀이	대명골합두레놀이	대명골합두레보존회	충남	공주시장(장려상)	2,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속놀이	봉양파대놀이	봉양파대놀이보존회	충북	공주시장(장려상)	2,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요	봉추들노래	봉추들노래보존회	전남	공주시장(장려상)	2,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요	서창만드리	서창만드리보존회	광주	공주시장(장려상)	2,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무용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공주시장(장려상)	2,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속놀이	탑성놀이	돌문화보존회	전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속놀이	남대천놀이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요	애원성	함북민속예술보존회	함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의례	성황굿	영변성황대제보존회	평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속놀이	울산재애밟기놀이	울주문화원	울산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민요	아낙일노래와소리	인천토속민요놀이보존회	인천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농악	덕양풍물	청도덕양풍물단	경북	충남도지사(입장상)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지도상	이봉애(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연기상	이순희(성황굿)	영선성화대제보존회	평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연기상	김난자(울산재애밟기놀이)	울주문화원	울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일반부	2010(51회)	초청공연	공주의당집터다지기					
일반부	2010(51회)	초청공연	북청사자놀이					
일반부	2010(51회)	초청공연	공주선학리지게놀이					
일반부	2010(51회)	초청공연	밀양백중놀이					
일반부	2010(51회)	초청공연	동해안별신굿					
청소년부	2011(18회)	민요	양주들노래	양주백석고 4-H회	경기	대통령(대상)	15,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무을진굿	오상고등학교	경북	교육과학기술부장관(금상)	5,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청주신촌풍장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	전남도지사(은상)	4,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가면극	고성오광대	신반정보고등학교	경남	전남도지사(은상)	4,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민요	조도닻배노래	고성초등학교	전남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3,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정선낙동농악	정선중고등학교	강원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호남우도농악	동신중학교	광주	여수시장(장려상)	2,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남원농악판굿	남원학생농악단	전북	여수시장(장려상)	2,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무용	범패와작법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	여수시장(장려상)	2,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무용	검무	정의여고등학교	서울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부산농악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가루뱅이농악	조일공업고등학교	대구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웃다리농악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농악	제주해녀농악	중앙고등학교	제주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상)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지도상	박정화(양주들노래)	양주백석고등학교 4-H회	경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연기상	민건(청주신촌풍장)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연기상	허동건(조도닻배노래)	고성초등학교	전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초청공연	벅수제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초청공연	웃다리풍물	중앙타악단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초청공연	창작연희<Dance Meets Percussion arts BEAT>	뿌리패예술단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초청공연	소동줄놀이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초청공연	천안거북놀이	17회 청소년대상팀시연 병천고등학교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1(18회)	초청공연	진도다시래기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농악	금릉빗내농악	금릉빗내농악보존회	경북	대통령(대상)	15,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요	영광서남면들노래	한국국악협회영광군지부	전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요	동두내두레소리	동두내옛소리보존회	경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요	영동질골막장소리	질골전통민속보존회	충북	문화재청장(은상)	4,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영등굿떼물이놀이	용담1동민속보존회	제주	문화재청장(은상)	4,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의례	평안도다리굿	평북민속보존회	평북	전남도지사(은상)	4,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들골대마지놀이	남면북쌍1리마을회	강원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전주기접놀이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전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3,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요	초전보리일소리	사천문화원	경남	재단이사장(동상)	3,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농악	달성다사12차진굿	달성다사12차진굿보존회	대구	한국문화재재단(동상)	3,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서상덕지내·돌개미레놀이	장동덕지천동주민회	충남	여수시장(장려상)	2,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농악	칠석농악	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주	여수시장(장려상)	2,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	인천	여수시장(장려상)	2,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수영지신밟기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회	부산	여수시장(장려상)	2,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요	서도선소리산타령놀량사거리	서도선소리산타령보존회	황해	여수시장(장려상)	2,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유성봉명리온천수착정놀이	대전민속예술연구회	대전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경복궁지경닻이기	경복궁지경닻이기보존회	서울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향두계놀이	향두계놀이보존회	평남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속놀이	우산매귀악	울산매귀악보존회	울산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민요	애원성	함북민속예술보존회	함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입장상	경복궁지경닻이기	경복궁지경닻이기보존회	서울	전남도지사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지도상	손영만	금릉빗내농악보존회	경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연기상	민병제	질골전통민속보존회	충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의례	화순능주씻김굿	능주씻김굿보존회	전남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1,000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1(52회)	농악	여수백초가장농악		전남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1,000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1(52회)	의례	거창상여소리의 식요	거창문화원	경남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1,000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1(52회)	민요	오리뜰들노래		경기		-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1(52회)	민요	두레소리		경기		-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1(52회)	민요	함양들놀이소리		경남		-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1(52회)	초청공연	거문도뱃노래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초청공연	강원도양양수동골 상여소리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초청공연	현천소동패놀이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초청공연	고성오광대(국무제7호)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초청공연	진주삼천포농악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사전행사	개열림굿					여수시 앞바다 일대, 본 행사장
일반부	2011(52회)	부대행사	여수 문화예술인의 밤<동동>					여수시 거북선공원
일반부	2011(52회)	부대행사	민속의 밤<막걸리와 민속학>					여수시 거북선공원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광주광지원농악	광주중앙고등학교	경기	대통령(대상)	15,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청주신촌풍장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날뫼북춤	대구북중학교	대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금상)	5,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경북도지사(은상)	4,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호남우도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경북도지사(은상)	4,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민요	강화용두레질소리	덕신고등학교	인천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의례	제주큰굿	함덕고등학교	제주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3,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김천빗내농악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경북	김천시장(장려상)	2,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낙안읍성군악	순천낙안중학교	전남	김천시장(장려상)	2,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김제농악 판굿 및 도둑잽이굿	김세지청소년농악단	전북	김천시장(장려상)	2,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양양쟁기동농악	현북중학교	강원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가면극	고성오광대	칠성중학교	경남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무용	동래지신밟기	동래원예술고등학교	부산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웃다리농악	세명컴퓨터고,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농악	웃다리풍물	병천고등학교	충남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지도상	김수봉(제주큰굿)	함덕고등학교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	2012(1	연기	김재훈(웃다리풍	병천고등학교	충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경북 김천시 종

년부	9회)	상	물)					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연기상	석영근(강화용두레질소리)	덕신고등학교	인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초청공연	장승제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초청공연	월월이청청	44회 일반부 국무총리상/ 경북영덕월월이청청보존회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초청공연	예천통명농요	20회 일반부 대상 / 예천통명농요보존회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초청공연	양주들노래	18회 청소년대상팀 시연 양주백석고등학교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2(19회)	초청공연	강릉사천답교놀이	42회 일반부 대상 /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요	함안농요	함안농요보존회	경남	대통령(대상)	15,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요	송악두레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	충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요	고성명태소리	고성어로요보존회	강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가면극	자인팔광대	자인팔광대보존회	경북	문화재청장(은상)	4,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무용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문화재청장(은상)	4,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속놀이	비금밤달애놀이	비금밤달애보존회	전남	경북도지사(은상)	4,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속놀이	구덕망께터다지기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요	서창만드리	서창만드리보존회	광주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3,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요	답다우는소리	덕수리민속보존회	제주	재단이사장(동상)	3,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요	인천염전일노래	인천염전일놀이보존회	인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동상)	3,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요	돈돌날이	돈돌날이보존회	함남	김천시장(장려상)	2,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의례	허계굿	울산전통고유민속보존회	울산	김천시장(장려상)	2,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농악	달성이천농악	달성이천농악보존회	대구	김천시장(장려상)	2,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의례	만구대탁굿	만구대탁굿보존회	황해	김천시장(장려상)	2,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의례	우동리당산제	우동리당산제보존회	전북	김천시장(장려상)	2,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속놀이	감천춘사새신	대전서구문화원	대전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민요	중원들소리	중원들소리보존회	충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의례	수표교다리밟기	수표교다리밟기보존회	서울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무용	백두산선녀춤	함북민속예술보존회	함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의례	영변성황굿	평북영변대제보존회	평북	축제추진위원장(아리랑)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입장상	함안농요	함안농요보존회	경남	경북도지사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지도상	동영범(돈돌날이)	돈돌날이보존회	함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연기상	홍복남(함안농요)	함안농요보존회	경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의례	남원 물제(기우제)		전북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1,000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2(53회)	민속놀이	안동 옻송놀이		경북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1,000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2(53회)	생업민속	홍천 겨리소모는소리		강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우수)	2,000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2(53회)	생업민속	인제풀썰기		강원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1,000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2(53회)	민요	영광 칠산어장뱃노래		전남		-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2(53회)	공로상	김진순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1,000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2(53회)	공로상	조정현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1,000	현지민속심사
일반부	2012(53회)	공로상	유명희			축제추진위원장(장려상)	1,000	현지민속심사
일반	2012(5	초청	김천빗내농악	52회 일반부 대상 / 김천빗내농악연합				경북 김천시 종

부	3회)	공연						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초청공연	남원농악	조선대학교 늘품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초청공연	경기광명농악	타악그룹 광명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초청공연	줄타기(국무 제58호)	김대균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일반부	2012(53회)	초청공연	김천시립국악단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년부	2013(20회)	민속놀이	강강술래	진도실업고등학교	전남	대통령(대상)	15,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민속놀이	영감놀이	중문고등학교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농악	공주웃다리충청풍장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교육부장관(금상)	5,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민속놀이	강화용두레질소리	덕신고등학교	인천	충북도지사(은상)	4,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농악	광주지산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충북도지사(은상)	4,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민속놀이	수영농청놀이	부산문화여고	부산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농악	날뫼북춤	대평중학교	대구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2,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농악	괴산농악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단양군수(장려상)	2,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농악	광지원농악	광주중앙고등학교	경기	단양군수(장려상)	2,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농악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	대전	단양군수(장려상)	2,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가면극	고성오광대	신반정보고등학교	경남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농악	양양쟁기동농악	현북중학교	강원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농악	김재농악 판굿 및 도둑챕이굿	덕암정보고등학교	전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지도상	박병익(강강술래)	진도실업고등학교	전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연기상	심현정(공주웃다리충청풍장)	공주생명과학고	충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연기상	주호준(김재농악)	덕암정보고등학교	전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초청공연	용물달기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초청공연	수타수타 수타타	광대놀음 떼이루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초청공연	한양도당굿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3(20회)	초청공연	연출자합동공연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속놀이	향두계놀이	평남향두계놀이보존회	평남	대통령(대상)	15,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농악	광지원농악	광주광지원농악보존회	경기	국무총리(최우수상)	10,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농악	범암골농악	화천문화원	강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요	돈돌날이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속놀이	전어잡이시연	진원전어잡이소리보존회	전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농악	경산중방농악 농사굿12마당	경산중방농악보존회	경북	문화재청장(은상)	4,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농악	정읍농악 문굿과 판굿	정읍시립농악단	전북	문화재청장(은상)	4,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요	다대포후리소리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부산	충북도지사(은상)	4,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농악	가루뱅이농악	가루뱅이농악보존회	대구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속놀이	정월대보름지신밟기	옥천군청산면민속보존회	충북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3,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농악	무돌농악	무돌농악단	광주	재단이사장(동상)	3,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무용	황해도화관무	황해도화관무보존회	황해	한국문화재재단(동상)	3,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요	조팟발리는소리	제주시오라동민속보존회	제주	단양군수(장려상)	2,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	2013(5	의례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평북	단양군수(장려상)	2,000	충북 단양군 단

부	4회)							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속놀이	인천염전밭갈이놀이	인천염전일놀이보존회	인천	단양군수(장려상)	2,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의례	허계굿	울산전통고유민속보존회	울산	단양군수(장려상)	2,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무용	백두산선녀춤	함북민속예술보존회	함북	단양군수(장려상)	2,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의례	의암별제	진주민속예술보존회	경남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속놀이	방아미아들바우방생축원놀이	대전중구문화원	대전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속놀이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옥천군청산면민속보존회	충북	충북도지사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속놀이	향두계놀이	평남향두계놀이보존회	평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민속놀이	전어잡이시연	진원전어잡이소리보존회	전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초청공연	충남공주 의당집터 다지기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초청공연	단양민요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초청공연	수타수타수타타	광대놀음 떼이루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초청공연	함안농요	53회 일반부 대상팀 시연/함안농요보존회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일반부	2013(54회)	초청공연	연출자합동공연					충북 단양군 단양생태체육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민속놀이	철산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	광명문화원(충현고등학교)	경기	대통령(대상)	15,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농악	원주매지농악	영서고등학교	강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농악	함안화천농악	양덕중학교	경남	교육부장관(금상)	5,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농악	공주걸립농악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상)	4,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농악	청주신촌풍장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	강원도교육감(은상)	4,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농악	광주지산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강원도지사(은상)	4,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농악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농악	날뫼북춤	대구서부중학교	대구	국립민속박물관장(동상)	3,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농악	호남우도농악	여수시청소년전통연희단 굴렁쇠놀이패	전남	재단이사장(동상)	3,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농악	김제농악과도둑잽이굿	김제시청소년농악단(덕암정보고등학교)	전북	정선군수(장려상)	2,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민요	좀녀(해녀)놀이 이어도사나	세화고등학교 숨비소리	제주	정선군수(장려상)	2,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의례	발우공양	범패와작법무보존회(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	정선군수(장려상)	2,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지도상	이치성(철산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	광명문화원(충현고등학교)	경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연기상	홍석명(좀녀(해녀)노래 이어도사나)	세화고등학교 숨비소리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연기상	박도현(김제농악과 도둑잽이굿)	김제시청소년농악단(덕암정보고등학교)	전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초청공연	강릉관노가면극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초청공연	강강술래	20회 청소년부 대상팀시연/진도실업고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청소년부	2014(21회)	초청공연	진도다시래기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초청공연	연출자합동공연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초청공연	팔도딱지왕전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속놀이	웅소성리호상놀이	웅소성리상여소리보존회	충남	대통령(대상)	20,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요	이서들소리	이서들소리보존회	경북	국무총리(최우수상)	15,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요	날외 소금 졸래기	대정읍민속보존회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농악	부산농악	부산구덕민속예술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속놀이	봉평메밀도리깨질소리	봉평전통민속보존회	강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요	영광홍농들노래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	전남	문화재청장(은상)	7,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요	전래동요와 남한강뱃소리	단양소리보존회	충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상)	7,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속놀이	평택와야골거북놀이	평택거북놀이보존회	경기	강원도지사(은상)	7,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속놀이	계족산무제	대덕문화원	대전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5,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속놀이	임실두레놀이	임실두레놀이전승회	전북	국립국악원장(동상)	5,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요	월계동 상여소리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	광주	재단이사장(동상)	5,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속놀이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	남해오실집들이굿놀음보존회	경남	한국문화재재단(동상)	5,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속놀이	울산달내쇠부리놀이	울산달내쇠부리놀이보존회	울산	정선군수(장려상)	3,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요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화원읍설화리노인회	대구	정선군수(장려상)	3,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요	방죽맥이	인천토속민요놀이보존회	인천	정선군수(장려상)	3,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요	두만강뗏목놀이소리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함북	정선군수(장려상)	3,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의례	최영장군당굿 작두거리	최영장군당굿보존회	황해	정선군수(장려상)	3,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무용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민요	돈돌날이	함경남도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의례	영변성황대제	평안북도영변성황대제보존회	평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입장상	날외 소금 졸래기	대정읍민속보존회	제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지도상	이권희(웅소성리호상놀이)	웅소성리상여소리보존회	충남		2,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연기상	권분이(이서들소리)	이서들소리보존회	경북		2,0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초청공연	정선아리랑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초청공연	호남우도농악	연희단팔산대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초청공연	향두계놀이	54회 일반부대상팀 시연/평남향두계놀이보존회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초청공연	연출자합동공연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부대행사	막걸리와민속 <풍물의몸을보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부대행사	막걸리와민속 <장과인문학>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라리공원
일반부	2014(55회)	사전행사	탈고사					국립극장 KB하늘극장
일반부	2014(55회)	사전행사	정선탈고사					정선문화예술회관
일반부	2014(55회)	사전행사	아리랑로드					정선아우라지~서울광화문
청소년부	2015(22회)	농악	광주지산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대통령(대상)	15,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민요	평택민요 어업요(어로요)	경기물류고등학교	경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민요	충북 괴산두레농요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교육부장관(금상)	5,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무용	날뫼북춤	대평중학교	대구	경기도지사(은상)	4,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민속놀이	메구월일석춘경걸궁	한림고등학교	제주	문화재청장(은상)	4,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농악	공주걸립농악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경기도교육감(은상)	4,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농악	무을농악	오상고등학교	경북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3,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농악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민요	다대포후리소리	다대중학교	부산	재단이사장(동상)	3,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민요	김만경 외애밋들들노래	김제시청소년농악단(덕암정보고등학교)	전북	평택시장(장려상)	2,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농악	낙안읍성군악	순천낙안중학교	전남	평택시장(장려상)	2,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의례	발우공양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범패와작법무보존회)	인천	평택시장(장려상)	2,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가면극	고성오광대	철성중학교	경남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부	2015(22회)	지도상	정영을(광주지산농악)	광주동신중학교	광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청소년부	2015(22회)	연기상	주세연(메구일원춘경걸궁)	한림고등학교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청소년부	2015(22회)	연기상	탁한국(충북 괴산두레농요)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청소년부	2015(22회)	초청공연	평택농악청소년예술단'예운'					
청소년부	2015(22회)	초청공연	천주용기놀이전승회					
청소년부	2015(22회)	초청공연	연희집단 The광대					
일반부	2015(56회)	민속놀이	가문동 아끈코지원담역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제주	대통령(대상)	20,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농악	구미 무을(선산)농악	구미농악단	경북	국무총리(최우수상)	15,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농악	용전걸궁농악	전통용전농악회	광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요	거창디딜방아상여액막이소리	거창디딜방아액막이소리보존회	경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의례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평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요	수영농청놀이	수영농청놀이보존회	부산	경기도지사(은상)	7,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요	달성 설화리 상여소리	달성설화리상여소리보존회	대구	문화재청장(은상)	7,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요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	인천	문화재청장(은상)	7,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농악	김제농악 마당굿과 도둑잽이굿	지평선농악단(김제시우리문화연구회)	전북	국립국악원장(동상)	5,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속놀이	천안거북놀이	천안거북놀이보존회	충남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5,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속놀이	철산리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놀이	광명문화원(광명농악보존회)	경기	재단이사장(동상)	5,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의례	만구대탁굿	만구대탁굿보존회	황해	한국문화재재단(동상)	5,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요	태백문곡동웃벌마을산간민요	태백문곡동웃벌마을산간민요보존회	강원	평택시장(장려상)	3,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요	돈돌날이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평택시장(장려상)	3,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속놀이	현천용천제	향토민속문화보존회	전남	평택시장(장려상)	3,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요	두만강뗏목놀이소리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함북	평택시장(장려상)	3,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무용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평택시장(장려상)	3,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속놀이	입석리선돌제	입석선돌제보존위원회	충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민속놀이	언양 와 아리라고풀이굿	울주문화원(와아리라고풀이굿보존회)	울산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지도상	박성언(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연기상	박정철(구미무을농악)	구미농악단	경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초청공연	평택농악보존회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초청공연	웅소성리호상놀이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초청공연	조세린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초청공연	김복만과 서울예술대학교 웃다리농악단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초청공연	평택민요보존회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초청공연	청소년의밤<가면쓰고 다 같이 춤을>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초청공연	경연참가자의밤<심봉사평택잔치와 뺑덕어멈콘테스트>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일반부	2015(56회)	사전행사	즐겁게탈탈탈					평택대학교 다문화센터
일반부	2015(56회)	사전행사	평택그루브단(길거리워크숍)					평택일대
청소년부	2016(23회)	민요	강화용두레질소리	덕신고등학교	인천	대통령(대상)	15,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농악	무을농악	오상고등학교	경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농악	공주걸립농악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	전북도지사(은상)	4,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민속놀이	메구월일석 춘경걸궁	한림고등학교	제주	전북도지사(은상)	4,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농악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전북교육감(은상)	4,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민요	버들개농요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경기	문화재청장(은상)	4,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농악	날뫼북춤	대구서부중학교	대구	재단이사장(동상)	3,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농악	청주신촌풍장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농악	광산농악	대촌중학교	광주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3,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농악	함안화천농악	양덕중학교	경남	전주시장(장려상)	2,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민속놀이	건금마을 용물달기	율곡중학교, 솔올중학교, 문성고등학교	강원	전주시장(장려상)	2,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민요	다시들노래	나주다시중학교	전남	전주시장(장려상)	2,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민속놀이	수영농청놀이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민요	김만경 외애밋들들노래	김제시청소년농악단(덕암정보고등학교)	전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지도상	이미숙(버들개농요)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경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	2016(2	연기	김지형(메구월일	한림고등학교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전북 전주시 국

년부	3회)	상	석춘경걸궁)					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연기상	복권민(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초청공연	순창금과들소리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초청공연	광주시산농악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청소년부	2016(23회)	초청공연	어울마당풍물세상	전통풍물활성화사업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속놀이	전주기접놀이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전북	대통령(대상)	20,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속놀이	내평리 길쌈놀이	내평리길쌈놀이보존회	전남	국무총리(최우수상)	15,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요	하원마을 옥가리 초집 짓는 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마을회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요	목계나루 뱃소리	중원민속보존회	충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속놀이	솟대쟁이놀이	솟대쟁이놀이보존회	경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속놀이	울산병영서낭치기	울산중구문화원	울산	전북도지사(은상)	7,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속놀이	다대포후리소리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부산	문화재청장(은상)	7,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농악	대전웃다리농악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	대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상)	7,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농악	인천읍내걸립농악	인천풍물연구보존회	인천	재단이사장(동상)	5,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농악	날뫼북춤	대구광역시날뫼북춤보존회	대구	국립국악원장(동상)	5,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요	동호리 멸치후리기	동호리 마을회	강원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5,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농악	수원두레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두레보존회	경기	한국문화재재단(동상)	5,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속놀이	천안거북놀이	천안거북놀이보존회	충남	전주시장(장려상)	3,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의례	안동제비원성주굿풀이	안동제비원성주풀이보존회	경북	전주시장(장려상)	3,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속놀이	광주 수완골 화전놀이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	광주	전주시장(장려상)	3,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요	놀량사거리	놀량사거리보존회	황해	전주시장(장려상)	3,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무용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전주시장(장려상)	3,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요	두만강뗏목놀이소리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함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민속놀이	토성 정월대보름놀이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의례	영변성황대제	영변성황대제보존회	평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입장상	울산병영서낭치기	울산중구문화원	울산	전북도지사	2,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지도상	심영배(전주기접놀이)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전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연기상	임창식(목계나루뱃소리)	중원민속보존회	충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초청공연	합굿나래	양진환연출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초청공연	남사당놀이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초청공연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초청공연	완주봉동풍물, 술멕이굿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초청공연	도리화 귀경가세	고창농악보존회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사전행사	꽃놀이난장	연희단팔산대				전주시일대
일반부	2016(57회)	사전행사	영고 1	공연실황 녹화				국립무형유산원 어쑤마루 대공연장
일반부	2016(57회)	사전행사	영고 2	공연영상 상영				서울CGV강남, 전주CGV고사
일반부	2016(57회)	사전행사	신들소리					국립국악원 예악당
일반부	2016(57회)	부대행사	좌담회<민속예술의 60년을 조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

			망하다>					
일반부	2016(57회)	부대행사	온고을 길꼬내기	농악단, 일반부경연팀, 시민 (500여명)				한옥마을->유산원
일반부	2016(57회)	부대행사	두남자의 전통이야기<장사익의 소리고백>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
일반부	2016(57회)	부대행사	두남자의 전통이야기<이준익의 필름고백>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
청소년부	2017(24회)	농악	무을농악	오상고등학교	경북	대통령(대상)	15,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민속놀이	서산 박첨지 놀이	음암중학교	충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농악	광산농악	대촌중학교	광주	경남도지사(은상)	4,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농악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경남도지사(은상)	4,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민속놀이	고성강강술래	고성중학교	전남	문화재청장(은상)	4,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농악	진주삼천포12차농악	남양중학교	경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상)	4,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민요	김만경 외애밋들노래	덕암정보고등학교(김제시청소년농악단)	전북	재단이사장(동상)	3,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농악	부산농악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농악	부천 중리풍물놀이	부천문화원(청소년풍물연합팀)	경기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3,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무용	날뫼북춤	대구북중학교	대구	김해시장(장려상)	2,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민속놀이	논매기와 두레싸움	영서고등학교	강원	김해시장(장려상)	2,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농악	괴산 연풍농악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김해시장(장려상)	2,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의례	메구월일석 춘경걸궁	한림고등학교	제주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무용	범패와 작법무 현충재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1,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연기상	이도경(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덕암정보고등학교(김제시청소년농악단)	전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연기상	지예찬(진주삼천포12차농악)	남양중학교	경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지도상	이정석(광산농악)	대촌중학교	광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초청공연	밀양백중놀이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초청공연	강화용두레질소리	23회 청소년 대상팀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7(24회)	초청공연	어울마당풍물세상	전통풍물활성화사업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요	모전들소리	문경모전들소리보존회	경북	대통령(대상)	20,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농악	광주지산농악	지산농악보존회	광주	국무총리(최우수상)	15,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속놀이	숯뱅이두레	대전서구문화원	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속놀이	솥 굽는 역시	덕수리민속보존회	제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요	울산쇠부리소리	울산북구문화원(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울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속놀이	이천용면리 용줄다리기	이천문화원	경기	경남도지사(은상)	7,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요	인천쑥대고잔 지경다지기	인천서구문화원 인천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보존회	인천	문화재청장(은상)	7,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농악	용수 가루뱅이농악	가루뱅이 농악보존회	대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상)	7,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농악	정읍농악 판굿과 일광놀이	정읍농악보존회	전북	재단이사장(동상)	5,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농악	부산고분도리걸립굿	부산고분도리 걸립보존회	부산	국립국악원장(동상)	5,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요	원주오리골농요	원주문화원·원주어리랑보존회	강원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5,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	2017(5	무용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한국문화재재단이사	5,000	경남 김해시 수

부	8회)					장(동상)		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속놀이	토성정월대보름놀이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김해시장(장려상)	3,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농악	담양농악 풍장놀이	우도농악담양보존회	전남	김해시장(장려상)	3,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농악	공주걸립농악	한국민속예술협회공주지부 공주시걸립농악보존회	충남	김해시장(장려상)	3,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무용	황해도화관무	황해도화관무보존회	황해	김해시장(장려상)	3,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의례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평북	김해시장(장려상)	3,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요	애원성	함경북도 애원성 보존회	함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농악	창원퇴촌농악	창원퇴촌농악보존회	경남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민속놀이	괴산군 여사왕대도듬 놀이	한국예총괴산지회(괴산국악협회)	충북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입장상	황해도화관무	황해도화관무보존회	황해	경남도지사	2,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연기상	금명효(문경모전들소리)	문경모전들소리보존회	경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0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지도상	정상태(울산쇠부리소리)	울산북구문화원(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울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초청공연	김해오광대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초청공연	전주기접놀이	57회 일반부 대상팀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초청공연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줄타기&발탈					경남 김해시 수릉원
일반부	2017(58회)	사전행사	오광대					국립국장KB하늘극장
일반부	2017(58회)	사전행사	전야제					경남 김해시 수릉원
청소년부	2018(25회)	농악	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대통령(대상)	15,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농악	창원퇴촌농악	진영여자중학교	경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5,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농악	철산리두레농악	충현고등학교(광명문화원)	경기	제주도지사(은상)	4,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농악	고창농악판굿	강호항공고등학교	전북	제주도지사(은상)	4,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민속놀이	수영농청놀이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	문화재청장(은상)	4,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무용	날뫼북춤	서대구중학교	대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상)	4,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농악	광산농악	대촌중학교	광주	재단이사장(동상)	3,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민요	괴산두레농요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국립국악원장(동상)	3,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의례	비람질따라영등할망오시네	함덕고등학교	제주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3,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민속놀이	예산보부상놀이	덕산고등학교	충남	서귀포시장(장려상)	2,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의례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노화중학교	전남	서귀포시장(장려상)	2,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민요	평창순행취타아라리	봉평중학교	강원	서귀포시장(장려상)	2,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연기상	복권민(웃다리농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연기상	고혜지(철산리두레농악)	충현고등학교(광명문화원)	경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지도상	황일태(창원퇴춘농악)	진영여자중학교	경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초청공연	제주스트릿오르께스타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초청공연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초청공연	무을농악	24회 청소년 대상팀 경북오상고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초청공연	아시안체어샷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청소년부	2018(25회)	초청공연	김율희&노선택과소울소스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속놀이	논산전통두레풍장	논산시전통두레풍물보존회	충남	대통령(대상)	20,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속놀이	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	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보존회	강원	국무총리(최우수상)	15,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요	보은장안농요	보은군장안면전통민속보존회	충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요	화성두레농요	화성두레농악보존회	경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농악	밤골마당밟이	보성군율어면밤골농악단	전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금상)	10,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속놀이	구덕망깨터다지기	구덕망깨터다지기보존회	부산	제주도지사(은상)	7,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속놀이	두미신창흙싸움놀이	한경면민속보존회	제주	문화재청장(은상)	7,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요	평북농요	평북농요보존회	평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상)	7,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의례	최영장군당굿	황해도무형문화재 제5호 최영장군당굿보존회	황해	재단이사장(동상)	5,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요	김만경 외애밋들들노래	김만경외애밋들노래보존회	전북	국립국악원장(동상)	5,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의례	계족산무제	대덕문화원	대전	국립무형유산원장(동상)	5,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무용	평양검무	평양검무보존회	평남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동상)	5,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농악	광주산월농악	굿마당남도문화연구회	광주	서귀포시장(장려상)	3,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요	두만강뗏목놀이소리	함경북도민속예술보존회	함북	서귀포시장(장려상)	3,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속놀이	토성정월대보름놀이	함경남도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서귀포시장(장려상)	3,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무용	날뫼북춤	날뫼북춤보존회	대구	서귀포시장(장려상)	3,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농악	영천명주농악	영천명주농악보존회	경북	서귀포시장(장려상)	3,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속놀이	꼬댁각시놀이	인천토속민요놀이보존회	인천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농악	의령집돌금농악	의령문화원 의령집돌금농악보존회	경남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의례	울산병영서낭치기	울산중구문화원	울산	축제추진위원장(신명상)	2,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민속놀이	두미신창흙싸움놀이	한경면민속보존회	제주	제주도지사	2,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연기상	윤종기(논산전통두레풍장)	논산시전통두레풍물보존회	충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0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지도상	고은채(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	평창방림삼베삼굿놀이보존회	강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초청공연	전통연희단 난장 앤판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초청공연	칠머리영등굿보존회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초청공연	이희문&프렐류드 '한국남자'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초청공연	모전들소리	58회 대상팀 문경모전들소리보존회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초청공연	사우스카니발&벤투스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초청공연	어울마당풍물세상	전통풍물활성화사업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초청공연	연출자합동공연					제주도 성읍민속마을
일반부	2018(59회)	사전행사	제주재주					서울광화문광장
일반부	2018(59회)	사전행사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개막식 전 공연	제주 덕수리민속보존회 <솥굽는역시>				제주해비치호텔&리조트
청소년부	2019(26회)	민요	괴산두레농요	괴산오성중학교	충북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청소년부	2019(26회)	농악	비산농악	서대구중학교	대구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청소년부	2019(26회)	농악	창원퇴촌농악	진영여자중학교	경남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청소년부	2019(26회)	농악	광산농악	대촌중학교	광주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청소년부	2019(26회)	민속놀이	비금뜀뛰기강강술래	비금중학교	전남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청소년부	2019(26회)	민속놀이	예산보부상단천놀이	덕산고등학교	충남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청소년부	2019(26회)	농악	부산농악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청소년부	2019(26회)	농악	고창농악 판굿	강호항공고등학교	전북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청소년부	2019(26회)	농악	시흥월미농악	시흥월미농악보존회	경기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가면극	고성오광대탈놀이	고성오광대보존회	경남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농악	광주지산농악	지산농악보존회	광주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가면극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경북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속놀이	향두계놀이	향두계놀이보존회	평남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요	화순내평리길쌈놀이	화순내평리길쌈놀이보존회	전남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가면극	동래야류	동래야류보존회	부산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가면극	봉산탈춤	봉산탈춤보존회	황해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가면극	북청사자놀음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함남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농악	울산달리농악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 울산달리농악보존회	울산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무용	날뫼북춤	날뫼북춤보존회	대구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속놀이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제주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제주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속놀이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강원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속놀이	김포통진두레놀이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경기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속놀이	논산두레소리	논산시전통두레풍물보존회	충남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속놀이	목계나루 뱃소리	중원민속보존회	충북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속놀이	바위절 쌍상여 호상놀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속놀이	부사칠석놀이	대전중구문화원	대전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요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	전북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요	애원성	애원성보존회	함북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민요	열두가락의 맥(脈) 강화용두레질소리	강화용두레질소리보존회	인천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
일반부	2019(60회)	의례	평안도다리굿	평안도다리굿보존회	평북			서울특별시 서울놀이마당